

통계청 연구용역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요약)

2007년 11월

대한통계협회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농어업총조사 개관	6
제3장 한국 경제와 농림어업의 구조변화	9
제4장 농림어가 인구와 가족	11
제5장 농업의 구조와 변화	29
제6장 어업구조의 변화	51
제7장 임업구조의 변화	67
제8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77
제9장 농림어업총조사 개선 방안	79

제1장 서론

통계청에서 매 10년(199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농림어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농림어업 구조, 농림어가의 현황 및 농촌사회에 대한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미래의 농림어업 및 농촌사회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림어가의 가족구조와 인구, 농림어가의 노동력, 토지이용, 농림어업의 생산 및 경영구조 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농림어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하였다. 농림어업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지표(인구, 가구, 경영, 생산, 유통 등)를 정리하여 그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농가의 노동력, 토지이용, 농업생산 및 경영구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농림어업, 농어가, 농촌사회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탐구를 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의 지역별 특화현상을 분석하고 농어가 및 농촌 지역에 대한 유형화하였다.

총조사 항목의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 분석하며, 농림어업 및 농촌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농어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정책관련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검토하며 총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I. 연구방법 및 내용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농림어업관련 상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농업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조사되어 온 총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총조사는 제7회 농업총조사, 제6회 어업총조사 및 제2회 임업총조사에 해당된다.

1990년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 및 본격적으로 농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농림어업 및 농촌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농림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결과에 의하면 총가구수는 1,454천 가구로 5년 전보다 5.3% 감소하였으며, 인구는 3,931천명으로 같은 기간에 11.9%가 감소하였음. 전국 전체 가구와 인구에 대한 비중은 각각 9.2%와 8.3%에 해당됨. 같은 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농림어업부문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4%(한국은행의 2005년도 국내 총생산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농림어업분야의 실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농림어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농림어업가구의 현황과 농림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림어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1. 경제성장과 농업(임업, 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선진사회는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과거 다산다사형 인구구조로부터 소산소사형 인구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미 이 단계에 들어 왔으며, 그 동안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은 도시로 농촌인구의 이동을 촉발함으로써 전체 인구 중 농촌 및 농림어업인구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농업선진국의 경우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1~2%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인구 역시 수출위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생산적인 농촌인구를 흡인함으로써 전체인구 중 농림어업인구의 비율 감소는 물론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취학 및 취업을 위해 청장년 층 농림어가 인구가 유출되고 여성의 농촌기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과 젊은 세대의 성비가 크게 높아졌음. 지역별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세대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림어업생산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로서 활력을 상실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공업용 토지, 도로 및 주거지용 토지의 확대 등으로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외연적 확대에 의한 토지의 집단적 전용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량농지의 전용이 총 농지면적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농림어업은 소비재 내수시장의 형성, 생산적 노동인구의 공급, 식품의 공급 등으로 경제성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지향적 공업발전과정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농업이 경제성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문제, 도시문제의 심화, 웰빙과 같은 대안적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문화가 확산되면서 농림어업은 안전한 식품 공급, 풍요로운 자연이 제공하는 쾌적함의 제공, 국토의 균형발전과 같은 농림어업이 가진 비교역적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은퇴 후 농어촌 정착 희망자의 확산 등 농림어업,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농어촌 사회의 변화와 농림어가의 생산활동 및 그 변화를 국가 간의 식량생산과 유통실태, 주민의 생활문화 변화 등의 외적 요인들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농림어업구조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장래 구조조정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2. 우리나라 농업(임업, 어업) 구조의 변화 분석

우리나라 농림어업구조분석을 위해 관련지표를 체계화(분류 및 지표)하고, 이들 지표의 변화(지역 및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여, 지표간의 특징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광의의 관점에서는 농림어업구조는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농림어업의 산업적 구조를 의미하지만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농지(임야 등)와 농림어업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결합되는 관계의 양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정책적으로 농림어업구조라는 용어는 주로 개별 농림어가에서의 농지(임업의 임야, 어업의 경우에는 다른 생산 수단)와 농림어업노동력이 결합되어 전체 농림어업생산을 특징 지우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농림어가단위의 생산요소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농림어가의 노동력 구성, 농지(임야 등) 소유 및 이용형태(임대차), 주요 재배작물 및 사육 축종, 주요 생산수단(농기계 등)을 검토하고, 농림어업구조변화의 현황과 추세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림어가의 가족형태, 농림어가 인구와 취업구조, 취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농림어업종사자와 농림어업경영주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농업생산 규모 및 이용의 측면은 경종농가를 중심으로 논 및 밭농사의 경작규모별 농가분포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작규모별 농가의 분포는 농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들어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농가의 비중 역시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농민충분해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생산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농가들이 분화되어 가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작규모별 농가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농민층의 분화현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업화를 계기로 농민층이 분화되는 현상과 더불어 자급적 성격의 농가특성을 파악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농촌에 잔존하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림어가의 친환경 농수산물의 품목별 수확(생산)량과 판매처를 살펴보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림어가의 특성과 생산지역의 특화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농림어업 총조사의 주요 지표(경작규모, 판매규모, 생산품목 등)를 중심으로 농림어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농림어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병행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이에 주목하였다. 지역별 차이는 농림어업생산의 지역특화 정도를 품목별로

파악하고, 동시에 지역특화 정도를 시계열로 파악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지역집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면) 인구 중 농림어가 인구비율, 전업 또는 겸업농림어가비율, 논농사비율, 생활시설 이동소요시간 등 농어촌지역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3. 우리나라 농림어업구조의 변화요인 분석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에 따라 농림어업의 역할은 저임금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낮은 가격의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 UR협상 이전부터 서서히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낮은 농수산물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상층농어의 형성이 저지되고 도농격차로 인한 이촌향도형 농림어업인구의 유출로 인구의 고령화와 농지(임야, 갯벌 등)의 비농업적 전용으로 인해 농림어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이은 WTO체제의 확립 등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전면화 되면서 정부는 생산성 있는 농림어가를 중심으로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FTA가 추진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림어업은 위기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일련의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농림어업구조 변화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장래 농림어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나라 농림어업정책의 기초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4. 향후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진로와 정책제언

향후 우리나라 농림어업은 농수산물 수입의 전면적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수산물생산과 유통의 전문화를 통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농수산물 수확 이후의 유통, 가공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로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자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상호신뢰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조달하여 판매하는 전 지구적 농수산물식품체계에 대항하

여 지역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매개로 한 새로운 농수산물생산체계, 지역농수산물체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활로를 찾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으로 지역별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총조사와 각종 지역통계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농수산물체계의 확립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5.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농림어업과 농어촌사회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 농림어가의 정보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외국인 이주자, 결혼자 및 이주자 고용 여부 등 - 를 개발하여 다음 총조사에 반영하도록 제시하였다.

농촌체험시설 수 및 경영농가와 이용자 수, 산림휴양시설, 삼림욕장 시설 수 및 이용자 등 농림어업부문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발굴하고, 중기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 농어촌지표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조사항목을 제시하였다.

농림어업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림어업총조사의 개선과 결과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연구효과

농림어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한 농림어가 및 인구에 대한 종합분석 및 시계열 분석으로 우리나라 농어촌발전의 기초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UR, FTA 등으로 농림어업구조조정에 따라 농림어업부문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최근 농림어업환경변화에 따라 장래 농림어업총조사의 발전에 필요한 제안(지표설정, 조사항목 변경 또는 추가 및 조사방법의 개선)으로 총조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 농어업총조사 개관

I. 연역

우리나라의 농업총조사는 1960년 ‘농업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하여 2000년까지 10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으며, 1995년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제5차 농업총조사를 특별히 5년만에 실시하였다.

농업총조사는 1995년까지 농림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 업무가 통계청에 이관됨에 따라 2000년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부터 농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총 조사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농업총조사는 1) 농업정책 수립·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2) 농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 3)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 생산 4)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공식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의 농업총조사는 지난 1980년 1차 농업국세조사 실시 이후 새로운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과 항목을 매년 수정해 오고 있는데 조사 항목과 내용의 변천은 우리나라 농업구조 및 농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정보화 현황과 친환경농업 항목을 포함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표 참조). 특히 2000년 이후 통계청으로 조사기관이 이관된 이후 어업총조사와 통합실시하고 2005년에는 임업과 통합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어업 구조와 변화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기대되고 있다.

II. 2005년도와 조사내용과 변화

2005년도 조사 내용을 2000년도와 비교함으로써 2005년도 조사 내용의 특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2005년도 조사 항목의 대 분류 주제에서 2000년도와 큰 변화는 없지만 주제별로 일부 항목이 새로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목으로는 1) 생활시설이용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2) 주거 시설 형태에서 화장실과 목욕시설 3) 농업관련 사업 4) 혼인 상태 등이다. 생활시설 이용 관련 항목은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병·의원의 생활편의 시설의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으로 농촌생활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

표의 의미가 있다. 주거 시설에서 새로 추가된 화장실과 목욕시설에 관한 항목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업관련 사업 항목의 추가는 농업사업활동이 점차 다양화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동일한 조사 항목의 응답 범주가 바뀐 경우는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주거에 관한 사항에서 응답 범주가 보다 세분화되고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었다 2) 농업경영에서 농업관련 사업에 관한 응답 범주가 추가되었다. 3) 새로운 경작 작물이나 사육 가축이 추가되었다. 4) 유기농에 대한 규정 변화이다.

응답 범주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주거관련 응답범주의 변화로 거처 형태, 건축년도, 난방 시설 등에서 새로운 응답 범주가 추가되거나 세분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주거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업 관련 사업에 관한 항목과 범주의 추가는 판매처나 경로의 범주가 첨가, 세분화되었고 사업 형태로 관광과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농업경영이 전통적인 경작과 사육에서 판매, 가공, 관광 등의 영역으로 다각화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 작물과 가축 종류의 첨가와 삭제는 특정 농산물의 생산량과 판매량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2005년도 조사항목에서는 삭제보다 첨가되거나 세분화된 종류가 많다. 넷째 유기농에 대한 정의는 2000년 조사에서는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년 재배한 것으로 규정을 현실화하였으며 유기농 판매처도 소비자 단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첨가하였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 이외에도 가구원 정보에서는 농업종사기간 농업 이외 종사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 정보를 파악코자 한 것도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이다.

Ⅲ. 농가 정의와 변화

조사 시기별로 농가의 정의는 농가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있다. 1960년의 농업국세조사에서는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가 정의를 따라서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로서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경지(전, 답, 과수원) 300평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1960년의 농가 정의는 1970년대 조사에서 대폭 보완되었는데 '70년 조사에서 농가의 정의는 ① 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⑤ 소가축(토끼) 40마리 이상 사육, 가금(닭, 오리) 3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⑥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⑦ 누에씨 12g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⑧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인 가구 ⑨ 가구원 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가로 규

정하였다.

1980년대에도 1970년대의 정의 가운데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에서 복합경영한 연간 농업수입이 위의 각 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로 고치고 “가구원 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를 삭제한 것 이외에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농가 정의는 이전에 비해 단순화되고 있다. 1990년대 조사에서는 ① 경지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시설 작물 3a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소) 1마리 중 가축(돼지, 양) 3마리 소 가축(토끼),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로 농가를 정의하고 있다.

2000년대 조사에서 농가 정의는 더욱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2000년과 2005년 조사에서 농가는 ① 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포함으로 직접 경작 면적과 농업 수입만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3장 한국 경제와 농림어업의 구조변화

I.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

우리나라의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는 농업구조와 관련 다양한 변화들을 야기하고, 농촌의 전반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05년 현재 총 농가수는 127만 호로 40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더군다나 이들 가운데 전업농은 62.6%로 한국사회 전체의 탈농업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05년 현재 평균 가구원수는 2.7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노인가구나 단독가구의 증가는 앞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나타낸다. 셋째, 호당 경지면적은 지난 40년간 0.9ha에서 1.43ha로 약 60% 정도 증가하였다. 경지면적의 증가와 가구원수의 감소는 우리나라 농업이 경영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2005년 농가소득은 3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며 그중 농외소득 비율이 32.4%에 달한다. 그리고 총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약 75% 수준으로 열악하다. 앞으로 한·미 FTA 등으로 농업 환경이 더욱 악화된다고 할 때, 과연 농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의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포함한다. 첫째, 세계화는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에 의한 농식품 부문에 대한 지배 현상은 종자에서부터 최종 소비되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별 국가 단위의 규제와 개입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초국적 기업들의 역할 증대는 농민들의 활동을 거대화되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식품체제(food system)의 일부로 포섭시킨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경제적 역할의 축소와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낳고 있다. 셋째, 표준화된 세계시장이 점차 유일한 규범이 되면서 개별 국가들의 농업과 농민들은 단작화 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흉작의 경우 농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농기업들은 다수의 전문화된 농업 생산자들로부터 최소의 가격으로 농업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체 식품 순환 과정에서 대량소비형 유통조직과 초국적 패스트푸드점 등의 시장 장악력이 증대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한 전방위 부문(예컨대 생산자, 중개상)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다. 이들은 음식 문화 자체를 생산해내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음식 문화의 표준화와 지역문화의 상품화를 추동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탈농업화(de-agriculturalization)를 초래하고 있다. 이념형으로 상정되던 공업과 농업의 균형경제로서의 국민국가 개념이 와해되고, 공업과 서비스업만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농산물을 단지 상품으로만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먹거리를 이윤 극대화의 논리에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현재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먹거리를 매우 위험한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한국 자체가 공업국가(industrial state)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 공업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허상을 좇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먹거리는 생명의 기본이고, 인간 존재와 재생산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농촌은 농민이 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단기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과 그러한 합리성의 표현인 화폐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다.

제4장 농림어가 인구와 가족

I. 농림어가의 인구

1. 농림어가 인구변화 : 1980~2005

가. 농림어가 총인구의 변화

-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80년에 1,083만 명(전국 인구의 28.9%).
1990년 : 666만 명(15.3%), 2000년 : 403만 명(8.7%), 2005년 : 343만 명(7.3%)
- 1990년부터 5년간 총 27.2%나 감소 후 둔화
→ 2000년 전과 후 5년간 각각 16.9%와 14.8%의 감소

<표 4-1> 농림어가 총인구의 변화, 1980~2005

(단위 : 천명, %)

	1980	1990	1995	2000	2005
농 가	10,827	6,661	4,851	4,031	3,434
(총인구대비)	28.9	15.3	10.9	8.7	7.3
(증 감 률)*	-	-	-27.2	-16.9	-14.8
어 가	-	496	347	251	221
(총인구대비)	-	1.1	0.8	0.5	0.5
(증 감 률)*	-	-	-30.0	-27.6	-12.0
임 가	-	-	-	164**	264
(총인구대비)	-	-	-	0.4	0.6

주 : * 지난 5년간 증감률임.

** 산림청에 임가로 등록된 가구대상 조사 결과

- 어가 인구 : 1990년에 50만 명으로 총인구의 1.1%
2000년에는 10년 전보다 꼭 반에 해당하는 25만 명
2005년에는 22만 명
- 1990년대 전, 후반 각 5년 동안 각각 30.0%와 27.6%씩 감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감소속도 둔화 첫 5년 동안 12.0%나 감소
- 임가 인구 : 2005년에 264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0.6%에 해당

나. 농림어가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 농가인구와 전국 읍면부 인구는 1980년까지만 하여도 유사하였으나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가인구는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진행
 → 199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5%로 읍면부의 9.0%를 훨씬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급감하여 겨우 20%선을 유지
-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21%를 상회함으로써 초고령 인구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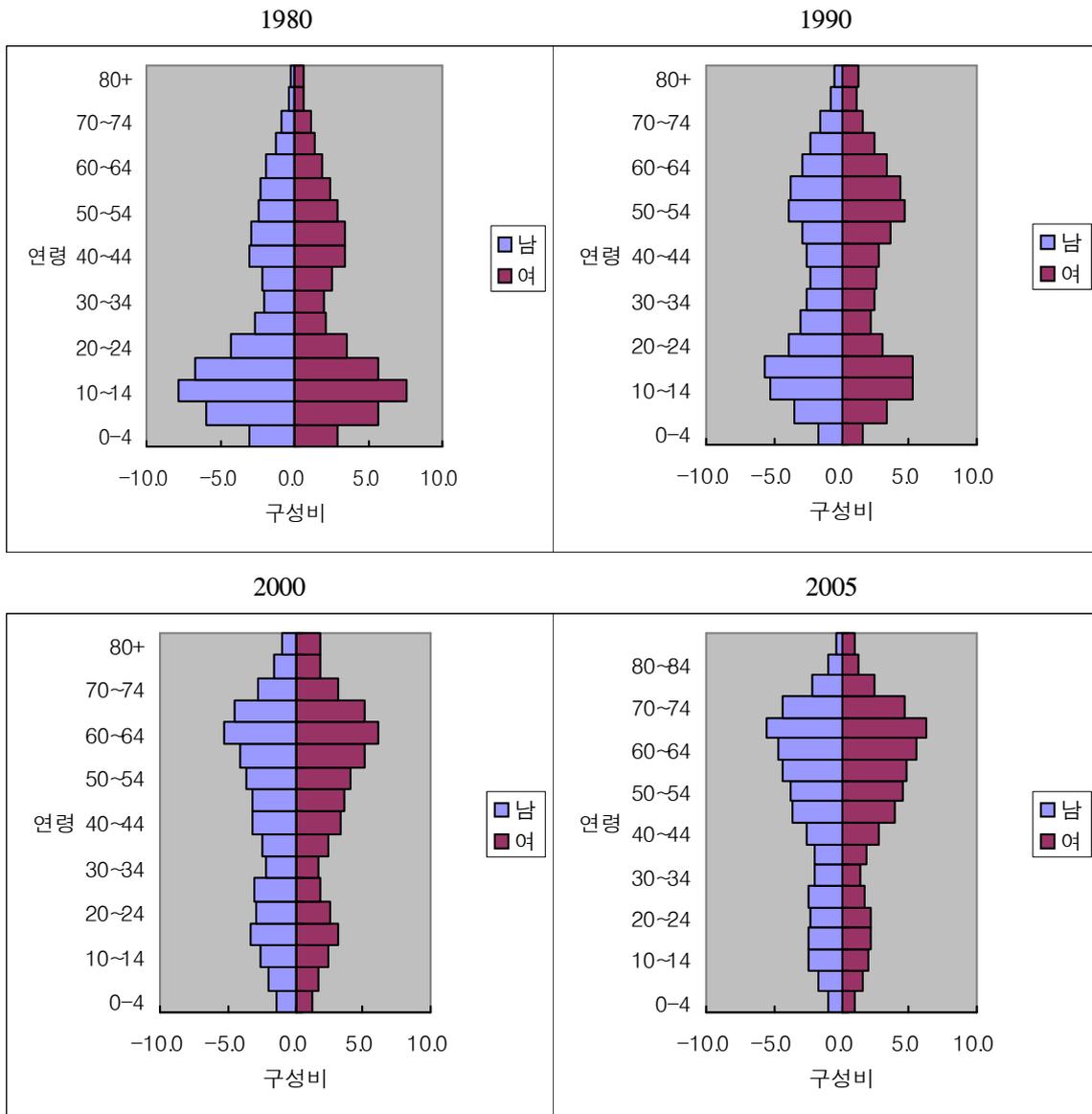
<표 4-2> 주요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1980~200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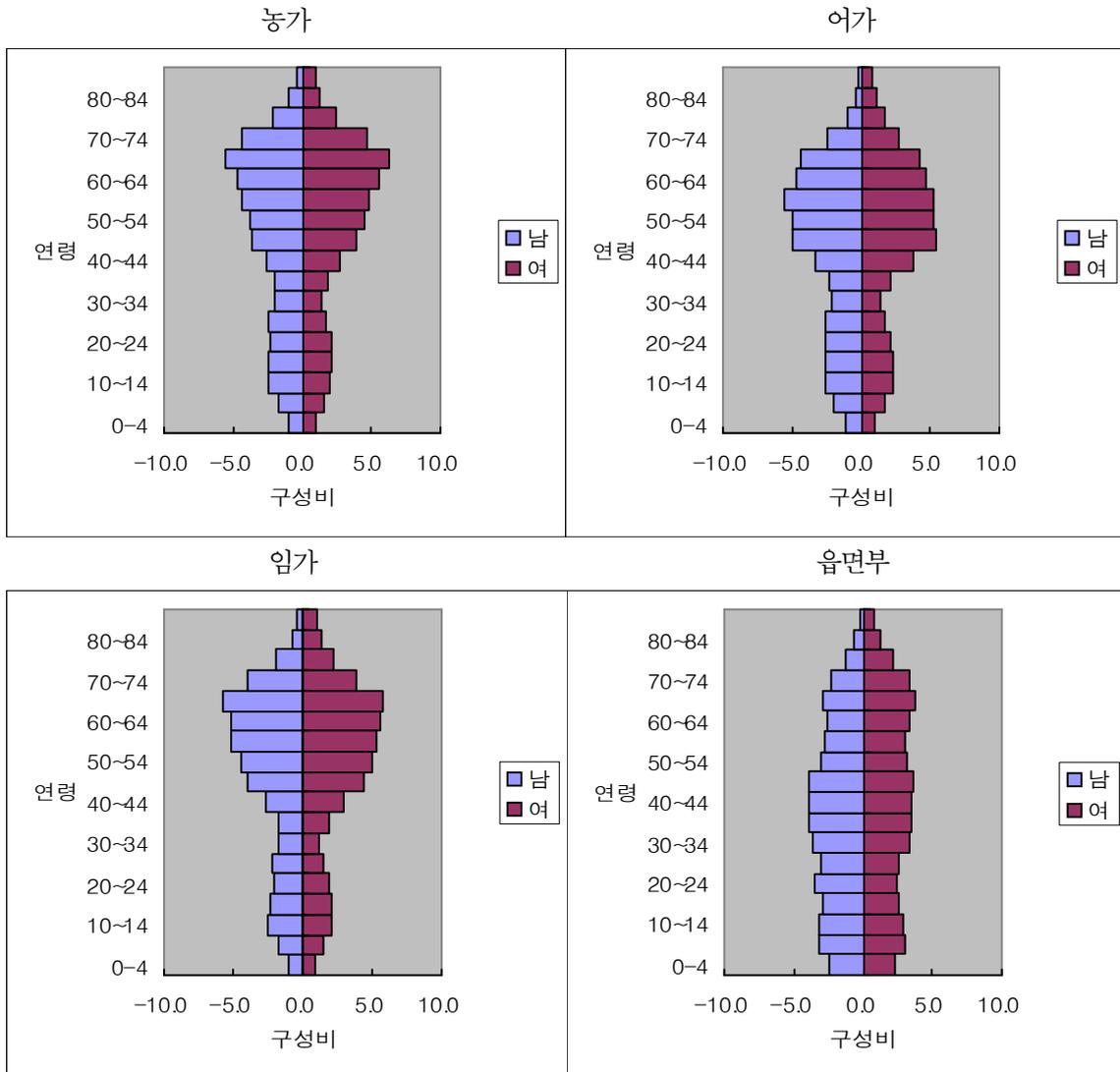
연도 및 연령	농가	어가	임가	읍면부	전국
1980	100.0	-	-	100.0	100.0
0~14	33.0	-	-	35.7	33.8
15~64	60.3	-	-	59.6	62.3
65+	6.7	-	-	6.5	3.9
1990	100.0	-	-	100.0	100.0
0~14	20.6	-	-	23.6	25.7
15~64	67.9	-	-	67.3	69.3
65+	11.5	-	-	9.0	5.0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11.4	13.2	5.0	18.6	21.0
15~64	66.9	74.6	73.5	66.7	71.7
65+	21.7	12.2	21.5	14.7	7.3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9.8	10.9	9.7	17.2	19.1
15~64	61.1	70.3	63.2	64.2	71.6
65+	29.1	18.8	27.1	18.6	9.3

- 1980년 농가의 인구피라미드는 전형적인 농촌인구형
 2000년 피라미드에서 60대의 고령층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2005년에 고령층은 60대 이후로 높아지고, 젊은 연령층은 사라지는 현상

- 농가, 임가, 어가 인구 모두 젊은 젊은 연령층 인구와 두터운 고령층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농가와 임가의 인구구조가 매우 유사함.
- 같은 농촌이면서 읍면부 인구구조와 농림어가인구의 인구구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농촌, 즉 Rural areas의 인구와 농림어가인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특성도 다름.



<그림 4-1>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 1980~2005



<그림 4-2> 농림어가 인구와 읍면부 인구구조 비교, 2005

다. 농어가인구의 성비변화

- 1990년까지 20~24세 인구의 성비가 높았으나 그 후에는 110 전후로 감소
→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혼인의 영향으로 먼저 전출한 결과
- 1990년 이후에는 이 성비가 낮아지는 것은 남녀 모두 진학 등으로 전출이 심화되면서 이동이 어려운 그룹만 농가에 잔류하는데서 오는 결과
- 2000년 이후에는 25~29세와 30~34세의 성비가 급증
→ 그 동안 남녀의 성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전출이 먼저 일어나고, 남자의 전출이 이어지는데서 오는 결과
- 우리나라의 농가인구에서는 60세가 지나면서 성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
→ 노년층에서 할아버지의 전출보다는 할머니의 전출이 유리한데서 오는 현상.

<표 4-3>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 1980~2005

	1980	1990	2000	2005
계	100.1	96.9	95.7	95.4
0~4	106.0	112.6	111.7	110.7
5~9	106.0	104.9	115.2	113.0
10~14	104.2	100.9	108.5	115.8
15~19	117.4	107.0	105.3	111.1
20~24	122.9	128.5	111.3	107.8
25~29	124.2	139.3	167.7	139.4
30~34	98.8	105.3	131.5	148.9
35~39	84.4	91.4	101.2	109.9
40~44	88.4	93.1	96.8	94.5
45~49	88.2	82.7	88.0	92.2
50~54	82.4	85.7	90.1	86.1
55~59	89.9	85.9	80.8	90.2
60~64	96.6	84.9	85.9	83.9
65~69	90.5	93.9	87.7	88.2
70~74	75.1	91.9	86.8	92.3
75~79	59.3	70.6	85.0	87.4
80+	40.4	38.7	48.0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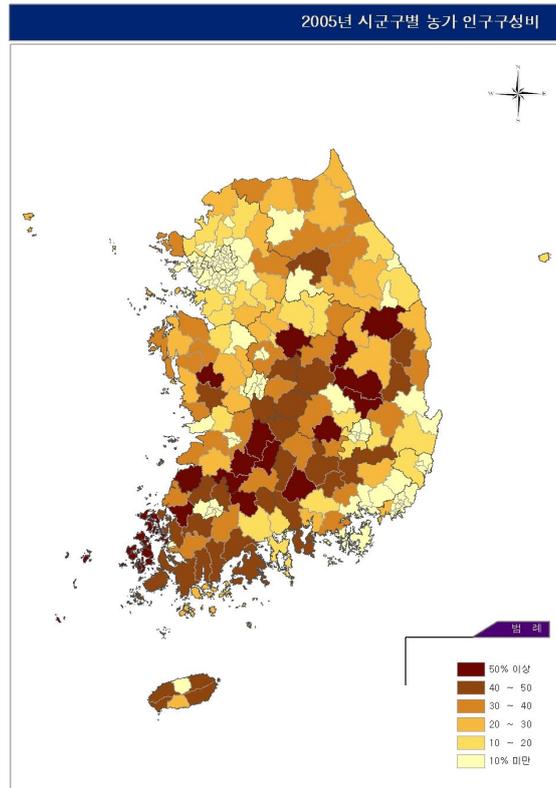
- 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임가가 25~29세이고, 농어가는 모두 30~34세 읍면부에서는 20-24세의 성비가 가장 높음.
- 읍면부 인구는 비농림어업이 중심, 젊은 여성의 도시진출이 수월한 결과

<표 4-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비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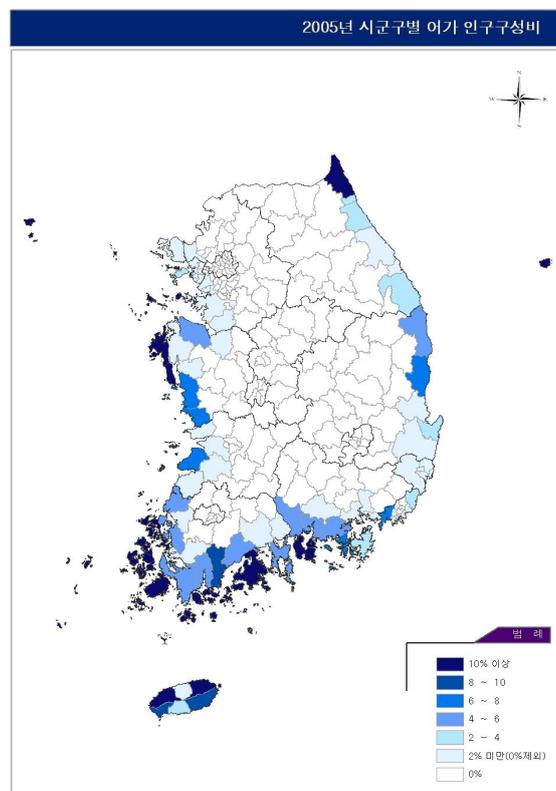
	농가	어가	임가	전국 읍면부
계	95.4	100.2	98.3	98.5
0~4	110.7	111.5	111.1	108.6
5~9	113.0	115.7	115.8	108.8
10~14	115.8	115.3	118.7	111.2
15~19	111.1	108.8	113.8	111.3
20~24	107.8	120.6	114.1	143.9
25~29	139.4	148.8	146.4	117.2
30~34	148.9	152.2	142.7	110.2
35~39	109.9	108.5	96.6	113.6
40~44	94.5	88.2	90.1	114.4
45~49	92.2	90.3	90.3	107.0
50~54	86.1	94.4	88.0	98.9
55~59	90.2	107.2	97.3	94.1
60~64	83.9	99.8	93.0	80.7
65~69	88.2	102.7	101.0	76.0
70~74	92.3	89.1	103.7	68.4
75~79	87.4	57.9	84.4	56.8
80~84	69.0	34.9	57.8	50.2
85+	35.8	19.7	34.9	35.8

라. 지역별 인구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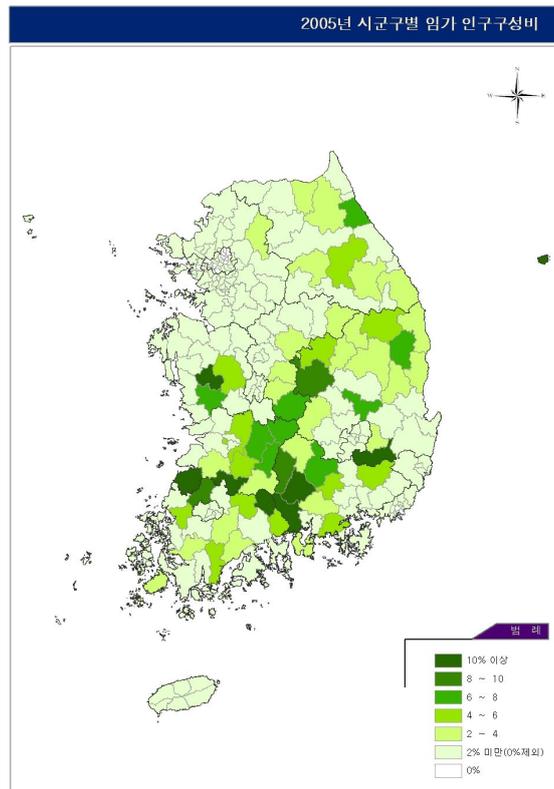
-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40% 이상인 군은 남부권의 북동쪽에서 서남방향의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주위의 순수 농업지역에 분포
 →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에 농가인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
- 어가인구의 경우에는 특성상 해안에 분포.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와 강원도의 고성군, 그리고 도서지역 어가 인구의 비중이 그 시군 총인구의 6% 이상
- 임가 인구의 경우 어가인구분포와 달리 내륙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산간지역중심으로 임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농가인구의 분포와 유사하게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중심으로 분포



<그림 4-3> 시·군·구별 농가 인구분포, 2005



<그림 4-4> 시·군·구별 어가 인구분포, 2005



<그림 4-5> 시·군·구별 임가 인구분포, 2005

- 농가, 어가 및 임가 인구의 분포는, 그 중에서 특히 농가와 임가 인구의 분포는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형성. 산간지역 소재 군의 특성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들 수 있으며, 농가와 임가 인구의 비중이 높은데서 나타나는 현상

2. 농림어가인구의 특성변화

가. 교육정도별 인구

- 고등학교 졸업자가 남녀 공히 중심 학력소지자가 되었음. 2000년에 40대 남자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총인구의 34.2%(2000)에서 5년 만에 45.7%(2005)로 빠르게 증가. 여자도 같은 기간에 16.5%에서 34.1%로 증가
- 2000 농가인구(남)는 대학 이상이 전체의 2.7%, 읍면부는 6.0%로 농가인구의 두 배를 넘었으나 2005년에는 농가인구의 경우 구성비가 5.0%로 상승하였고, 읍면부 인구는 8.4%가 되어 농가인구의 고학력화가 읍면동 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
- 농가와 임가인구의 교육정도가 어가인구보다 높았다.
2000 농가(남) 고등학교 : 18.0%, 어가 : 11.6%

2005 농가(남) 고등학교 : 27.1%, 어가 : 17.3%

⇒ 모두 교육정도가 빠르게 상승하나 어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림.

나. 혼인상태

- 여자보다 남자의 미혼율(17.3%)이 높으면서 유배우율(76.9%)이 높은 것은 사별(4.0%)이 낮기 때문임. 그러나 이혼(1.8%)이 여자(0.4%)에 비하여 4.5배임.
⇒ 남자의 경우 결혼을 늦게 하나 이혼이 많고, 재혼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시로의 이동도 여자보다 적음. 여자의 사별이 많은 것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높으므로 고연령층에서 사별인 경우가 많은 이유임.
- 농림어가 남자인구의 미혼율(43.9~51.3%)이 읍면부 인구(29.6%)에 비하여 특히 높았으며, 이혼율도 함께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 농가와 임가의 미혼율(15.3%, 12.2%)이 높으며, 이혼율(1.1~1.8%)은 읍면부(2.8%)에 비하여 낮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농림어가 남자의 이혼자는 잔류하나 여자의 경우 전출한 결과임.

<표 4-5> 성 및 혼인상태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

성·지역	계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남자					
농 가	100.0	51.3	44.3	3.9	0.5
어 가	100.0	43.9	50.2	5.5	0.4
임 가	100.0	48.0	48.2	3.4	0.4
읍면부	100.0	29.6	67.3	2.8	0.3
여자					
농 가	100.0	15.3	82.2	1.7	0.8
어 가	100.0	9.3	88.3	1.8	0.6
임 가	100.0	12.2	86.1	1.1	0.6
읍면부	100.0	8.8	87.6	2.8	0.8

다. 농가인구의 주 종사분야 및 주 종사기간별 인구, 2005

* 농가인구의 주 종사분야별 인구

- 남자, 여자 공히 70% 이상이 농업과 임업에 종사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남녀 공히 90%를 상회
- 전국면부에서는 남자(38.5%), 여자(34.9%)만이 농업 및 임업에 종사
과거(1980년 이전)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30%에 근접할 때 면부(또는 읍면부) 인
구와 농가인구의 특성이 유사하던 것이 농가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그 특성의
차이는 커졌음. 대신, 전국 면부의 인구의 주 종사분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
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농가인구의 주종사기간별 인구

- 남녀 공히 주 종사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인구의 비중이 남자(67.9%), 여
자(65%)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
주 종사분야가 농업 및 임업인 인구가 대다수인 농가인구에서 농업의 경직성으
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음.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연령대인 40
대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는 비중이 특히 높았음. 다만, 3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에서 농업 및 임업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
어나고 있음. 이들의 주 종사기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농촌의 주 종사
업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

3. 농가인구의 장래전망

가. 장래 농가인구의 추계방법

- 장래인구를 추계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흔히 이용하는 방
법이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임. 그러나 이것은 지역별 출생,
사망 및 이동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함. 그 외에 수리적 모형으로
Gompertz method, 지수법(exponential method)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지수법을 이용하였음.
-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에서는 농가인구의 감소유형은 1980년 이후 처음에
는 빨리,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속도가 둔화
→ 전국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0%에 접근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다음의 지수모형을 이용

$$Y_i = e(a+bX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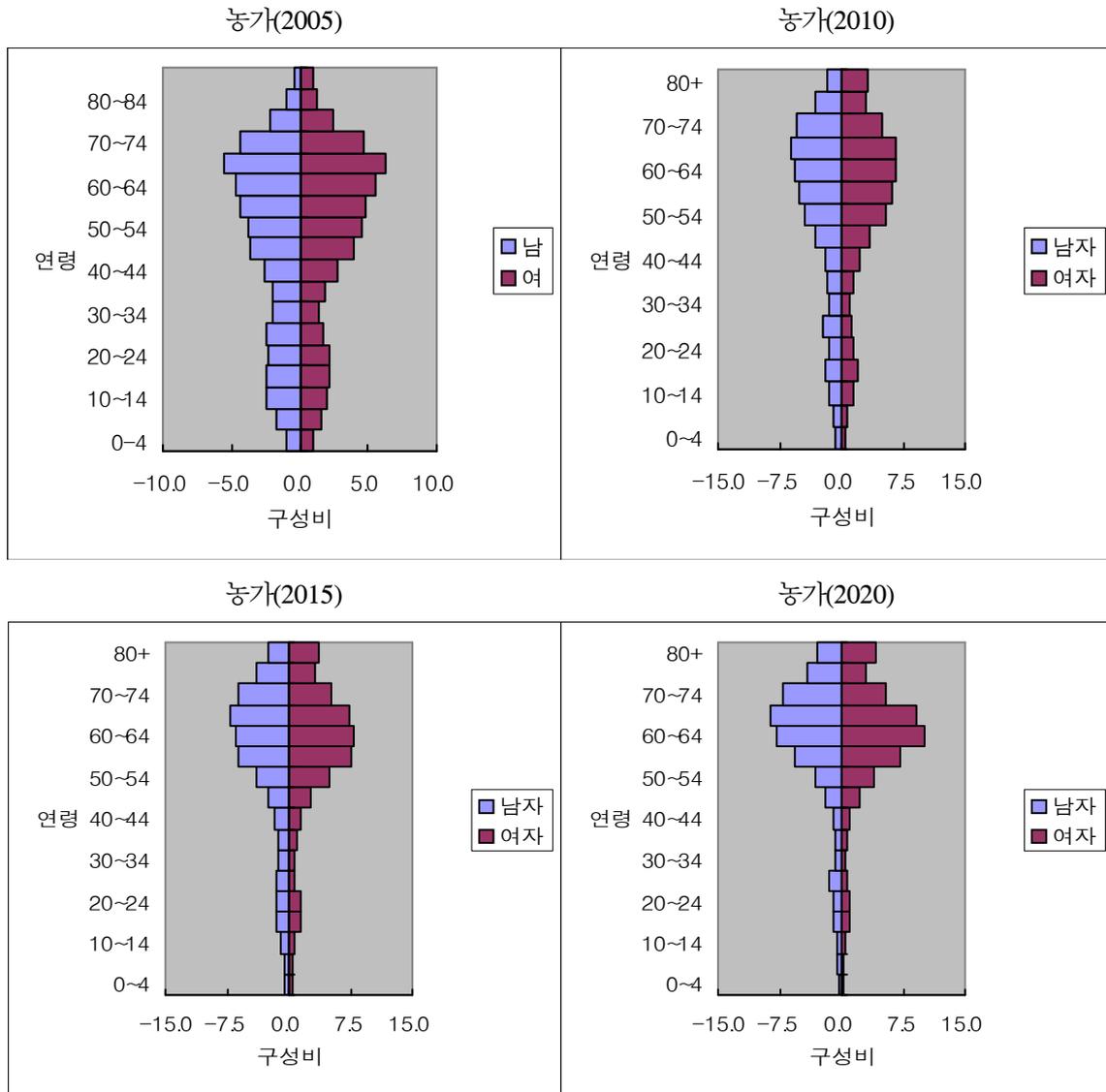
- 이 모형에서 Y절편은 e(a)의 값을 지닌다. 또한 $b > 0$ 이면 이 지수모형의 기울기는 +의 값을 지니며 X_i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반면, $b < 0$ 이면 기울기는 -가 되고 X_i 값의 증가와 함께 점점 감소하여 X축에 접근함.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면서 그 속도가 줄어들므로 $b < 0$ 의 기울기를 가지며, e(a)값이 “1”, 즉 구성비는 “0”에 근접하게 됨.
- 장래 농가인구의 추계과정
 - 1980년 이후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
 - $Y_i = e(a+bX_i)$ 의 양변을 자연대수로 변환하면 $\ln(Y_i) = a+bX_i$ 가 되며, 이것은 직선 함수가 됨.
 - 최소자승법으로 a와 b를 산출하여 회귀선 추정(1980~2005) 후 연장(2020년까지)
 - 2005년 성·연령별 인구구성비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구성비를 추정
 - 장래 전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농가인구 산출

나. 농가의 장래인구

- 장래 농가인구 : 전국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표 4-6> 전국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의 변화, 1980~2020

연도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구성비, %	29.8	15.1	10.6	8.5	7.1	6.1	5.3	4.7



<그림 4-6> 장래 농가인구의 구조변화, 2005~2020

- 2005년에 65세 이상인구가 전체의 29.1%로 전국인구 2005년에 9.1%에 비하면 고령화가 극도에 달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인력의 진입은 낮은 출산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노인인구만 급증.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에 34.2%, 2020년에 44.7%에 도달함으로써 전국 15.6%(통계청, 2006)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하게 됨.
- 노인구성비의 증가로 노년부양비가 커짐. 1~14세의 영유아일 경우 0~14세 인구는 2.5%(20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 때 전국 평균은 15.6%로 농가인구의 고령화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

<표 4-7> 농가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005~2020

(단위 : %, 인구 백명당)

	2005	2010	2015	2020
인구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0~14	9.8	5.9	3.7	2.5
15~64	61.1	59.8	57.1	52.8
65+	29.1	34.2	39.1	44.7
총부양비	63.6	67.1	75.0	89.3
유소년부양비	16.0	9.9	6.5	4.7
노년부양비	47.6	57.1	68.5	84.7
노령화지수	296.9	574.9	1050.2	1816.1

II. 한국 농림어가의 가족

1. 분석의 주안점

한국 농림어업 가족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농업총조사 관련 보고서 분석, 그리고 한국 가족의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농림어가의 가족을 분석하기 위한 주안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농림어업총조사 분석에 빠져 있는 임가와 어가를 분석하여 도시지역과 대비되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어업의 사회재생산 체계를 이해하여 이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한국 가족의 변화 특성인 가구규모의 축소와 소인수화 경향, 가족형태의 다양화 경향이 농림어업의 가족구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농림어업에서 가족은 단순히 소비의 단위이거나 출산과 양육과 같은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가족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계유지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 해체된다면 농림어업의 지속가능성은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농림어가의 가족구조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가족구조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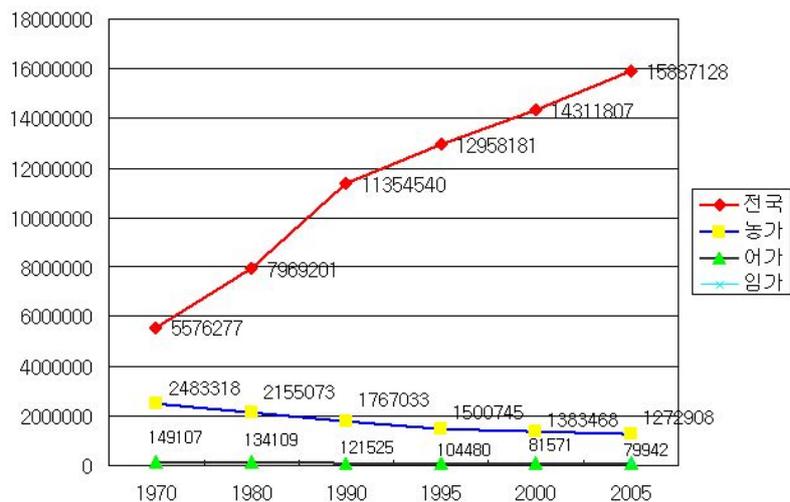
셋째,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있는 독거노인가구나 노부부만의 1세대 가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등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

한 농림어가의 구조적 특징이나 생활방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이들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가구의 다양한 존재 형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분석의 주안점으로 하고자 한다.

2. 농림어가의 가족분석 비교

농림어업의 가구 수 변화를 보면 지난 1970년 이후 농가와 어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의 일반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그림 4-6>을 통해 알 수 있다.¹⁾ 1970년 이후 전국의 일반가구는 총 10,310,851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증가폭은 무려 184.9%p에 이른다. 하지만 농가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210,410가구가 줄어들어 감소폭은 48.7%p를 나타내고 있다. 어가도 농가와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35년 동안 총 69,165가구가 줄어들어 감소폭은 46.4%p이다. 농가와 어가의 감소폭이 거의 일치하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농가와 어가의 가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전국 일반가구에서 농림어업의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1970년 전국 일반농가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5%였지만 2005년에는 7.8%에 불과하다. 35년 동안 36.7%p가 떨어진 것이다. 어가 또한 1970년에는 2.7%를 차지하였지만 2005년에는 0.5%에 불과하다. 2005년 전국의 일반가구에서 임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이다. 이를 합하면 농림어업 전체가 전국 일반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밖에 되지 않는다.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그림 4-6> 농림어업 가구수의 변화 : 1970~2005

1) 임가는 2005년 총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전의 임업 가구 수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2005년 가구 수만 비교한다.

다음으로 전국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의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을 비교해본 결과가 <표 4-8>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 첫째,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의 일반 가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농림어가 모두에서 2인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이들의 가구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 일반 가구의 1인 가구는 대부분 30대에 몰려 있어 결혼지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농림어가의 1인 가구는 대부분 60대 이후의 노인단독가구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이를 볼 때 앞으로 획기적인 사회재생산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한 농림어가의 가구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 4-8>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가구원수
전국	15,887,128(100.0)	20.0	22.2	20.9	27.0	10.0	2.9
농가	1,272,908(100.0)	14.8	43.9	16.7	12.5	12.1	2.7
어가	79,942(100.0)	12.0	42.7	19.1	14.8	11.5	2.8
임가	97,108(100.0)	11.3	47.1	17.5	12.5	11.6	2.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전국의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의 세대별 가구 구성의 분포를 비교하여 <표 4-9>에 정리해 보았다. 주로 부부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의 경우 전국 일반가구는 16.2%에 불과하지만 농어가는 40%대에 육박하고 있고, 임가는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부부와 자녀, 부부와 부모가 결합하는 형태인 2세대 가구는 전국의 일반농가가 55.4%에 이르지만 농림어가는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농림어가의 세대 깊이(generation depth of family)가 매우 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가구	비혈연가구
전국	15,887,128(100.0)	16.2	55.4	7.0	20.0	1.4
농가	1,272,908(100.0)	39.9	34.0	11.3	14.8	0.1
어가	79,942(100.0)	39.1	39.2	9.5	12.0	0.2
임가	97,108(100.0)	44.0	33.9	10.7	11.3	0.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일반적으로 가족구조에서 세대깊이가 단축된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직계가족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알려주며, 인구 고령화와 가구 규모 축소와 맞물려 노인가구나 노인만의 부부가구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림어가의 세대 깊이가 축소는 가족의 구조적 해체라는 내적 문제와 이들의 부양체계 붕괴하는 사회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농림어가의 이러한 문제는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표 4-10>는 전국의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에서 1인 가구만을 선택하여 연령별로 구분해본 것이다. 먼저 전국 일반가구의 1인 가구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42.7%가 집중되어 있으며, 60대 이상의 해체기에 놓여 있는 경우는 30.9% 정도이다. 이에 비해 농림어가는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출현하는 비율은 2% 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60대 이상에 몰려 있다. 농가의 경우는 60대 이상이 81.3%에 이르며, 어가는 65.6%, 임가는 7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농림어가의 가족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앞으로 얼마나 가속화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

<표 4-10> 연령별 1인 가구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전국	3,170,675(100.0)	22.8	19.9	15.0	11.5	13.6	17.3
농가	188,091(100.0)	0.1	1.1	4.6	13.0	39.7	41.6
어가	9,585(100.0)	0.4	2.7	10.8	20.5	36.6	29.0
임가	11,002(100.0)	0.2	1.7	6.6	16.9	39.2	35.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농림어가의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세대별 가구형태를 핵가족형과 직계가족형,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전국의 일반농가와 비교해보았다. 먼저 핵가족형은 전국의 65.8%에서 어가의 70.4%까지 큰 차이 없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는데,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전국의 일반농가는 부부와 자녀가 결합한 전형적인 핵가족이 중심인 반면에 농림어가는 60대 이상의 노인부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점은 농림어가 가족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계가족형은 전국 일반가구가 5.4%에 머무른 반면에 임가는 1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농가의 9.6%, 어가의 8.8%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 아직은 부모부양의 가족가치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농림어가의 직계가족형이 대부분 고령의 중심 부부가 더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해체될 수 있는 형태라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표 4-11> 유형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핵가족형	직계가족형	기타	1인 가구
전국	15,887,128(100.0)	65.8	5.4	8.8	20.0
농가	1,272,908(100.0)	66.5	9.6	9.1	14.8
어가	79,942(100.0)	70.4	8.8	8.8	12.0
임가	97,108(100.0)	69.1	11.6	8.0	11.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농림어가의 가족유형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별 가구구성 코드를 새롭게 조합하여 이념형 가족유형과 과도기형 가족유형, 비이념형 가족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형적 핵가족으로서 ‘부부+자녀’, 전형적 직계가족으로서 ‘부부+자녀+양친’의 형태가 결합되는 이념형 가족유형은 전국의 일반가구가 43.2%를 차지하는 반면에 농림어가는 20%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림어가의 가족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특성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과도기형 가족유형의 분포 차이이다. 과도기형 가족유형은 ‘부부’와 ‘부부+부(모)’가 조합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중심부부의 연령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전국의 일반농가에서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어가의 경우는 50% 전후에 걸쳐 있으며, 특히 임가는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농림어가의 가족이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하게 해체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4-12> 가족유형 다양화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이념형	과도기형	비이념형
전국	15,887,128(100.0)	43.2	18.6	38.2
농가	1,272,908(100.0)	23.3	48.3	28.4
어가	79,942(100.0)	27.6	46.6	25.8
임가	97,108(100.0)	23.0	54.0	23.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상 우리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를 전국의 일반 농가에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듯 농림어가는 1970년을 정점으로 지난 35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어가가 전국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현재 농가는 7.8%, 어가는 0.5%, 임가는 0.6%에 불과하다. 특히 농가는 1970년에 전국 가구의 44.5%를 차지하였던 것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은 무려 36.7%p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총원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한 가구수의 감소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둘째, 농림어가의 가구규모는 급격하게 단순화되고 축소되고 있으며, 세대 깊이 또한 단축되고 있어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림어가의 가족부양 체계는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사회재생산 기능도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농림어가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전국의 일반가구도 다양화와 복잡화 추세로 가족유형이 변화하고 있지만 농림어가의 가족유형 변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었다. 특히 전형적인 핵가족과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진 이념형적 가족유형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와 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가족도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농림어가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제5장 농업의 구조와 변화

I. 농업구조의 개념과 한국농업

‘농업구조’는 광의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산업적 구조를 지칭하며 협의로는 농업생산에서 고정적 생산요소의 결합관계, 특히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관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주로 가족노동력에 토지가 결합된 가족노작적 영세소농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 때문에 농업구조를 이러한 협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05년 농업총조사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농업구조와 그 변화는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총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농업 생산요소의 현황과 그 요소들간의 결합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농가수의 변화와 신규농가의 성격

1. 농가수의 변화

2005년 총 농가수는 127만 2천호로 2000년 대비 11만호가 감소하였다. 이는 연평균 1.7%씩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 농가수는 도시지역인 동부가 21만2천호로 16.6%를 차지한 반면, 읍부 17.9%, 면부 83만2천호로 65.4%이다. 2005년 농가 수는 1990년 대비 71.9%의 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동부의 농가 수는 2만1천호가 증가하였다.

<표 5-1> 지역별 농가분포 추이

(단위 : 천호, %)

연도 \ 지역	면부	읍부	동부(시부)	계
1990년	1,576 (89.2)		131 (10.8)	1767 (100.0)
2005년	832 (65.4)	228 (17.9)	212 (16.6)	1272 (100.0)

2. 신생농가의 성격

2000~2005년간 신생농가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의 실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현재 경영주 경력이 5년 미만인 농가는 49,840농가(전체 농가의 3.9%)로 2000년에 55,128농가(전체 농가 중 4.0%)p 비해 그 규모가 줄었다.

5년 미만 신규 경영주 농가의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1.3세로서 5년 이상 경영주 농가의 평균연령 61.9세에 비해 10.5세 평균연령이 낮다. 그러나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55.6%에 이르고 있는데 은퇴 이후에 농업에 취농하는 인구가 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대, 30대 연령층은 8,901명(15.9%)에 불과하다. 신규 경영주 농가의 평균경작 규모는 1,741평으로 기존 농가(3,665평)에 비해 현저히 적다. 특히 신생농가의 60.8%에 해당하는 농가가 경작지가 1,500평 미만의 소규모 경영층이었다.

<표 5-2> 신규 경영주의 경작규모 분포

(단위 : 가구수, %)

구분	경작지 없음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합계	평균경작 규모	전체농가 평균 경작규모
농가수	2,185	30,307	9,698	3,934	1,428	1,251	1,037	49,840	0.57ha	1.2ha
비율	(4.4)	(60.8)	(19.5)	(7.9)	(2.9)	(2.5)	(2.1)	(100.0)		

경영주 5년 미만 농가의 거주 지역은 면지역이 43.7%에 불과하다. 기존 농가에 비해 동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읍지역 거주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생농가 가운데 전업농가수는 19,526농가(39.2%)에 불과하다. 전업적 농업인력으로 볼 수 있는 50세미만 전업 및 제1종 겸업농가수는 7,996명(16.0%)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남성이 7,356명으로 14.8%에 이른다.

Ⅲ.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1. 총경지 규모와 경지이용 형태

2005년 농가의 총 경지 면적은 151만ha로 2000년 대비 9만2천ha 감소하였다. 경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보면 논 면적은 948천ha이며 밭 면적은 562천ha에 이른다.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연평균 각각 1.0%, 1.4% 감소한 것으로써 논보다는 밭의 감소율이

더욱 컸다. 특히 과수원의 감소가 두드러져서 연평균 1.8%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시설면적은 오히려 연평균 0.6% 증가하여 2005년 53천ha에 이르게 되었다. 호당 경작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2ha에 이른다. 논·밭의 호당 경작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밭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5-3> 경작면적의 변화추이

(단위 : 천호, 천ha, %)

구 분	농가수	경지면적 (천ha)	논면적 (천ha)	밭면적(천ha)		호당 평균면적 (ha)		
				과수원 (천ha)	논(ha)		밭(ha)	
1990년	1,769	1,823	1,206	617	111	1.03	0.68	0.35
2000년	1,383	1,602	999	604	149	1.15	0.72	0.44
2005년	1,273	1,511	948	562	136	1.19	0.75	0.44
2000~2005년 연평균증감율	-1.7	-1.2	-1.0	-1.4	-1.8	0.7	0.8	0.0

주 : 호당 평균면적은 경지면적/농가수(경지 없는 농가포함)임.

2. 농가의 경지면적과 그 변화

가.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와 그 변화

경지규모별로 농가의 분포는 1.0ha 미만층과 3.0ha층의 농가수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1990년 이후 증감의 분기점이 상향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에 의한 가계비중축도의 비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농가가 경영규모를 늘리려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 5-4>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및 연평균 변화율

(단위 : 천호, %)

경영규모 연도	0.1ha 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계
1990년	15	468	544	543	130	44	1,767
	(0.8)	(26.5)	(30.8)	(30.7)	(7.3)	(2.5)	(100.0)
1995년	16	417	432	418	123	70	1,501
	(1.1)	(27.8)	(28.8)	(27.8)	(8.2)	(4.7)	(100.0)
2000년	30	410	379	352	114	85	1,383
	(2.2)	(29.7)	(27.4)	(25.4)	(8.2)	(6.1)	(100.0)

경영규모 연도	0.1ha 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계
2005년	38	419	330	281	93	93	1,272
	(3.0)	(32.9)	(26.0)	(22.1)	(7.3)	(7.3)	(100.0)
1990~1995	1.25	-2.16	-4.13	-4.61	-0.95	12.36	-3.14
1995~2000	18.49	-0.33	-2.47	-3.18	-1.55	4.05	-1.56
2000~2005	4.84	0.43	-2.73	-4.40	-3.99	1.82	-1.66
1990~2000	10.44	-1.23	-3.08	-3.53	-1.22	9.46	-2.17

자료 : 해당연도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나. 경작규모의 결정요인

2005년 농가를 중심으로 경작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첫째, 가족원의 수를 들 수 있다. 가구원수와 농가의 경작규모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종 농업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전체 농가의 평균 가족원수는 2.8명인데 반해 1.5~2ha를 기점으로 2ha 이상은 가족원이 2.8명을 초과하는데 반해 1.5ha 경작농가에서는 가족원 수가 2.8명에 미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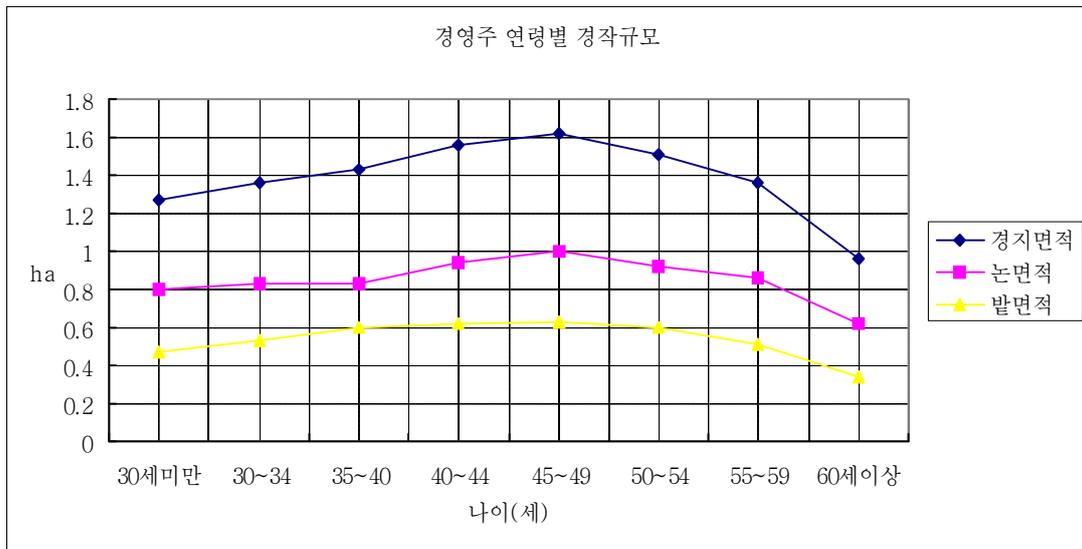
<표 5-5> 경지규모별 가구원수의 규모, 2005

(단위 : 명)

경지규모 가족원수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ha 이상	평균
평균가족원수	2.5	2.6	2.7	2.8	3.0	3.3	2.8

주 : 평균가족원수는 경작규모가 없는 농가는 제외함 수치임.

둘째, 경영주의 연령은 가족원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가의 특성상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가족 노동력의 질과 량, 그리고 가족의 생애주기가 경작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영주의 연령별로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50세를 기점으로 50세까지는 평균 경작규모가 증가하다가 50세 이후에는 경작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셋째, 가족원의 농외취업이다. 전·겸업별로 농가의 경영규모를 살펴보면 전업농가의 평균경지면적이 1.3ha이며 제1종 겸업농가는 1.7ha, 제2종 겸업농가는 0.6ha이었다.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평균경작규모가 전업농가에 비해서도 커서 1종 겸업농가와 제2종 겸업농가의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업농가가 제1종 겸업농가와 비교해서 경지규모가 적은 것은 경영주의 노령화와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전업농가 중 영세농의 다수는 노령층으로서 농외취업기회를 얻기 힘들거나 농외취업을 할 수 없는 영세노령 전업농가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농업경영주의 성(性)으로 노령화는 농업의 여성경영주의 비중을 크게 높였다. 여성경영주의 대부분이 노령경영주로 여성경영주의 60.3%가 0.5ha 미만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5.5%가 0.5~1.0ha 경작농가로서 여성경영주의 85.8%가 1.0ha 미만을 경작하고 있다.

<표 5-6> 경영주의 성별 경작규모 분포

(단위 : ha)

경작규모 성별	경작지 없음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5ha	5ha 이상
남 자	1.48	30.98	26.08	14.87	9.48	8.47	5.59	3.05
여 자	0.62	60.25	25.49	7.81	3.07	1.78	0.73	0.25

위의 변수들이 경작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경작규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겸업여부, 경영주의 성, 농기계보

유수준, 가구원수로서 이 가운데 겸업여부는 전업농과 제1종 겸업농 1, 제2종 겸업농을 0으로 더미 변수화하였으며, 경영주의 성은 남성1, 여성0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농기계보유수준은 농기계보유 대수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가 유의확률 .000으로 경작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농기계의 보유 수준으로, 규모가 큰 농가가 농기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임차에 나서기 때문이다.

3. 농가의 농지소유와 임대차 현황

농가의 호당 평균 소유 농지규모는 총 2,234평으로 총 경지 중 소유농지 비율은 62.6%에 이른다. 임차지의 규모는 1,355평으로 이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보면 논 임차지의 비중이 65.4%, 밭의 임차지 비중이 34.6%이다. 농가 가운데 임차지가 있는 농가는 논인 경우 30.6%에 이르며 밭의 경우에는 임차지가 있는 농가가 26.9%이다. 임차농가의 평균 임차규모는 논인 경우 2,897평, 밭의 경우 1,740평으로 모두 자작지에 비해 임차지의 규모가 각각 1.7배와 2.4배에 이르고 있어 경작규모의 확대에 있어 임차지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7> 임차농가 비율과 평균 임차지 및 소유지 규모

(단위 : %,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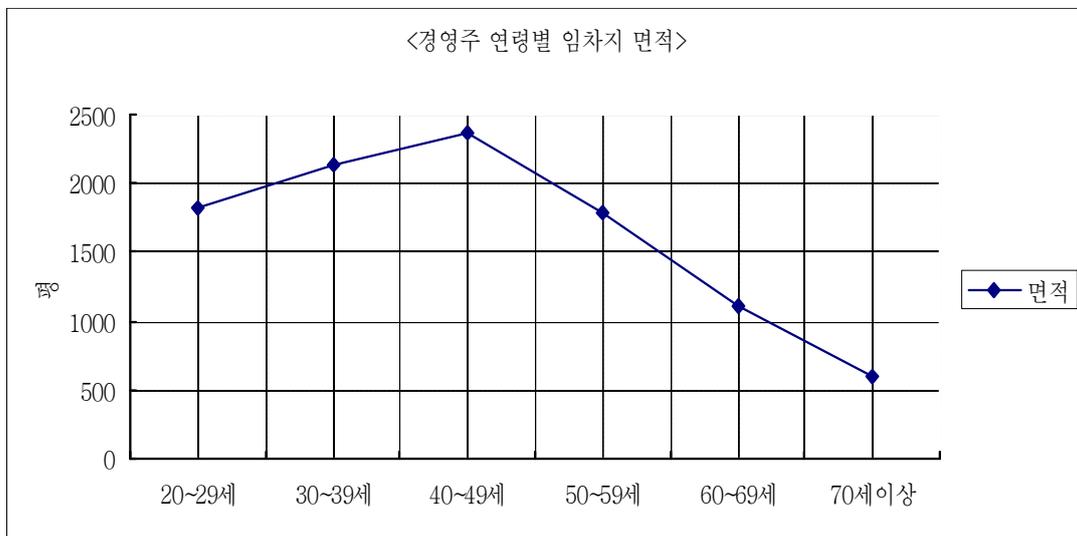
논 임차농가 비율	임차농가 논 경작규모	논		밭임차 농가비율	임차농가 밭 경작규모	밭	
		논평균 임차규모	논평균 소유규모			밭평균 임차면적	밭평균 소유면적
30.6	4,590평 (100.0)	2,897평 (34.6)	1,683평 (65.4)	26.9%	2,453	1,740평 (69.4)	713평 (30.6)

경지규모별로 경작규모가 클수록 임차지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ha 이상 농가층의 평균 임차지 규모는 8,625평으로 다른 계층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경작규모 1,500평 미만은 밭의 임차지 비율이 높은 반면 3ha 이상 대규모 경작농가에서는 논인 임차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경작농가가 임차지를 확대함으로써 규모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특히 논인 임차를 통한 규모 확대에 보다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2> 경지규모별 임차지 면적

경영주 연령별로 임차지 규모는 40대 이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차에 적극 나서는 반면 40대를 지나면서 임차지 면적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경영주 연령별 임차지 면적

논임차지 면적과 밭임차지 면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농기계보유수준, 논 소유규모, 가구원수, 성터미, 겸업터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임차지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농기계 보유수준이며, 논 소유 규모가 클수록 임차지의 규모도 큰 것을 확인하였다.

<표 5-8> 논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귀분석)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농 기 계	.354*	.125	.316*	.136	.284*	.140	
논소유규모			.111*				.110*
가구원수							.047*
성 더 미							.005*
겸업더미							.060*

* : p=.000

밭의 경우에는 농기계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논에 비해서는 상대적 영향력이 훨씬 적다. 밭의 소유규모보다는 가구원 수나 제2종 겸업여부가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경영의 집중화 경향

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경지규모가 큰 농가가 임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모 확대를 꾀하면서 경영의 집중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논인 경우에는 2005년 3.0ha 이상 농가가 전체 면적의 30.9%를 차지하였고 2.0ha 이상 농가가 44.9%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과 비교하면 각각 24.7%포인트, 28.0%포인트 증가하여 경영의 집중도가 크게 심화되었

<표 5-9> 논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단위 : %)

구분 \ 연도	1990년		2000년		2005년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실수합계	1,508천호	1,194천ha	1,078천호	999천ha	938천호	948천ha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ha 이상	59.6	84.3	57.8	86.2	56.0	88.4
1.0ha 이상	25.7	53.1	27.2	61.6	27.1	70.5
1.5ha 이상	10.7	29.9	15.4	45.7	16.7	53.7
2.0ha 이상	4.7	16.9	8.4	32.3	10.0	44.9
3.0ha 이상	1.2	6.2	3.8	20.0	5.4	30.9

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 0.5ha 미만 농가의 논 경작지 비중은 15.7%에서 11.6%로 축소되었고 1.0ha 미만 농가는 46.9%에서 29.5%로 축소되었다.

밭의 경우 3ha 이상이 20.4%로 1990년 6.8%에 비해 13.6%포인트 늘어났고 2ha 이상 농가는 12.6%에서 30.5%로 17.9%포인트 늘어났다. 0.5ha 미만과 1.0ha 미만 농가의 경작규모는 13.4%포인트, 21.2%포인트 줄어들었다.

<표 5-10> 밭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단위 : %)

구분 \ 연도	1990년		2000년		2005년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실수합계	1,469천호	613천ha	1,202천호	604천ha		567천ha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ha 이상	24.7	61.8	27.7	70.5	31.9	75.2
1.0ha 이상	7.9	33.2	10.6	45.2	14.7	54.4
1.5ha 이상	3.3	19.6	5.9	33.4	7.1	38.5
2.0ha 이상	1.6	12.6	3.2	24.0	4.5	30.5
3.0ha 이상	0.6	6.8	1.5	15.8	2.1	20.4

IV. 농가의 영농 및 사업형태

1. 농가의 영농형태와 그 변화

농가의 영농형태는 논벼가 5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 과수, 일반밭작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간 미작과 채소, 특용작물 농가는 절대 농가수가 감소한 반면, 과수, 화훼, 일반밭작물과 축산농가는 절대 농가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일반밭작물은 연평균 6.4%씩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화훼농가는 연평균 4.7%씩 증가하였으며 축산농가 역시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채소농가 가운데 시설채소와 노지채소의 구성은 2005년 노지채소 16만5천 농가로 전체 채소재배농가의 71.7%를 차지한 반면, 시설채소 농가는 28.3%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전문화와 시설화 등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노지채소 농가가 시설채소 농가에 비해 2.5배 수준에 이른다.

<표 5-11> 영농 형태별 농가 분포

(단위 : 천호, %)

구분 \ 연도	전체 농가	영농 형태별 농가 수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일반 발작물	축산	기타
1990	1,767	1,232	107	172	39	6	114	89	8
	(100.0)	(69.7)	(6.1)	(9.8)	(2.2)	(0.4)	(6.5)	(5.0)	(0.4)
1995	1,501	823	144	247	46	10	70	156	5
	(100.0)	(54.9)	(9.6)	(16.4)	(3.0)	(0.7)	(4.7)	(10.4)	(0.4)
2000	1,383	787	143	238	38	8	92	72	5
	(100.0)	(56.9)	(10.4)	(17.2)	(2.7)	(0.6)	(6.6)	(5.2)	(0.3)
2005	1,272	648	145	230	27	10	126	82	3
	(100.0)	(51.0)	(11.4)	(18.1)	(2.2)	(0.9)	(9.9)	(6.5)	(0.3)
1995~2000년 증감율	-1.6	-0.9	-0.1	-0.7	3.8	-4.4	5.6	-14.3	0.0
2000~2005년 증감율	-1.6	-3.8	-0.4	-0.7	-5.8	4.8	6.5	2.7	-5.1

과수류는 사과, 복숭아, 포도 생산농가가 늘어난 반면, 배, 포도, 감귤농가는 감소하였다. 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우 사육농가가 크게 늘었으나 젓소, 돼지, 기타 축산은 감소하였고 닭 사육 농가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나. 농가의 영농형태의 분화와 전문화

농가의 영농형태의 변화는 농가의 분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농층의 경우에는 화훼, 축산으로 특화하고 있으며 영세농층의 경우에는 일반발작물, 채소, 논벼로 전환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농형태별 판매금액을 보면 일반발작물 농가의 53.2% 농가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고 논벼, 채소, 특용작물 약 1/4에 해당하는 농가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었다. 축산농가, 화훼농가, 특용작물 농가는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율이 각각 21.0%, 25.6%, 10.9%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변화를 보면 논벼, 특용작물, 화훼농가는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 비중과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양극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과수, 채소, 축산, 일반 발작물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은 늘어 전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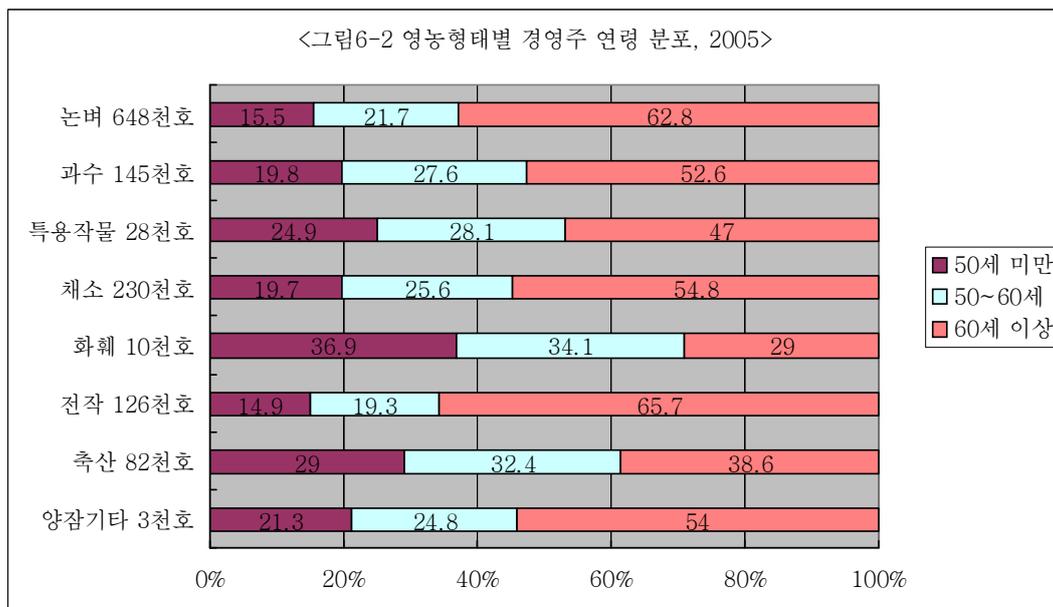
상향이동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축산, 과수, 채소 농가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서 규모화, 전문화의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5-12> 영농형태별 농가의 판매규모별 비율

(단위 : %)

구 분	년도	논벼	과수	특용 작물	채소	화훼	일반 발작물	축산	기타	전체
100만원 미만	2005	23.3	8.7	22.2	24.3	12.5	53.2	7.7	36.4	23.7
	2000	20.2	10.1	21.5	25.5	7.7	56.3	12.6	24.1	22.0
5,000만원 이상	2005	1.9	5.7	10.9	5.7	25.6	0.9	21.0	4.3	4.5
	2000	1.1	1.7	4.1	2.0	12.4	0.6	16.4	3.2	2.2

경영주 연령별 영농형태는 일반발작물과 논벼의 경우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각각 65.7%, 62.8%이어서 영세성과 자급농화가 경영주의 노령화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화훼와 축산의 경우에는 50세미만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커서 각각 36.9%, 29.0%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의 분화가 경영주의 연령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품목별 특화와의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과 비교하면 모든 영농형태에서 노령화가 진행되었으나 논벼와 일반 발작물의 노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림 5-6>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2005)

2. 친환경농업의 보급과 친환경농가의 특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가 8만7천 농가로서 전체 농가의 6.9%에 해당한다. 이는 2000년 60,275농가(전체 농가의 4.3%)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이중 논벼 재배농가로서 5만3천호로 60.7%, 채소농가로서 26.6%를 차지한다.

재배규모는 1~2ha 규모의 농가가 30.1%로 최빈값이며 친환경농가의 평균경작규모가 1.8ha인 반면 비친환경농가의 평균경작규모는 1.1ha에 그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8.3세인 반면 비친환경 농가의 평균 연령은 61.2세이었다. 친환경농가의 전업 및 제1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비친환경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작규모 비교

(단위 : 호, %, ha)

경작규모 \ 친환경여부	친환경농가	비친환경농가	전 체
경지 없음	2 (-)	17,015 (1.4)	17,017 (1.3)
0.5ha 미만	13,648 (15.7)	414,177 (34.9)	427,825 (33.6)
0.5 ~ 1.0ha	20,502 (23.5)	302,488 (25.5)	322,990 (25.4)
1.0 ~ 1.5ha	17,227 (19.8)	183,450 (15.5)	200,677 (15.8)
1.5 ~ 2.0ha	10,232 (11.7)	91,717 (7.7)	101,949 (8.0)
2.0 ~ 3.0ha	11,794 (13.5)	91,227 (7.7)	103,021 (8.1)
3ha 이상	13,794 (15.8)	85,635 (7.2)	1,272,908 (7.8)
전 체	87,199	1,185,709	1,272,908
평균경지면적	1.8	1.1	1.2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는 농협 및 농업법인이 46.9%, 친환경유통업체가 6.6%로 조직화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율도 19.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4>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판매처 비교

(단위 : %)

구분	도매시장	산지 공판장	농협 농업법인	소비자 단체	친환경 유통 전문업체	개인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	기타
친환경농가	10.6	6.1	46.9	2.2	6.6	19.6	1.6	6.4
전체농가	5.6	3.7	24.5	-	-	17.5	0.4	

3. 농가의 농외취업 활동과 그 변화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던 전업농비율이 2000년대 들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62.6%로 떨어졌다. 반면 겸업농가의 비율은 34.8%에서 37.4%로 증가하였는데 제1종 겸업농가는 절대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제2종 겸업농가는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농외취업 비율은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 6.7%에 달하며 2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경영주의 농외취업 비율은 16.1%이었다.

<표 5-15> 전·겸업별 농가 분포

(단위 : 천호, %)

구분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전 체		1,767	100.0	1,500	100.0	1,383	100.0	1,273	100.0
전업농가		1,052	59.6	849	56.6	902	65.2	796	62.6
겸업농가		715	40.4	652	43.4	481	34.8	476	37.4
1종 겸업농가		389	22.0	277	18.5	225	16.2	164	13.9
경영주 겸업		96	5.4	69	4.6	42	3.1	37	2.9
가구원 겸업		199	11.3	141	9.4	132	9.6	79	6.2
전가구 겸업		94	5.3	67	4.5	50	3.6	49	3.8
2종 겸업농가		326	18.4	374	25.0	257	18.6	312	24.5
경영주 겸업		75	4.2	87	5.8	62	4.5	86	6.8
가구원 겸업		126	7.1	139	9.3	91	6.6	106	8.3
전가구 겸업		124	7.0	149	9.9	103	7.5	119	9.3

지역별로 농외취업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동부의 겸업농가의 비중은 55.8%에 이

르르고 있다. 제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훨씬 높아서 45.3%에 달한다. 반면 면부에서는 제2종 겸업농가는 13.5%에 불과하였다.

전겸업별 경작규모는 제2종 겸업농가의 경우 연령별로 경작규모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반해 전업농과 제1종 겸업농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제1종 겸업농가가 전업농에 비해 평균 경작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6>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별 평균 경작면적

(단위 : ha)

구 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 균
전업농	1.64	2.01	2.20	1.78	1.18	0.77	1.28
제1종 겸업농	2.01	2.15	2.24	1.98	1.45	1.07	1.72
제2종 겸업농	0.66	0.62	0.69	0.68	0.64	0.56	0.65

3. 농가의 농관련 사업 실태

농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직판장 및 직거래가 6.9%, 농가식당이 0.4%, 농산물 가공업이 0.5%, 민박이 0.2%, 관광농원 주말 농장이 0.06%이었다. 농관련 사업은 주로 농산물의 판매활동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7> 농가의 농관련 사업 참여 실태

(단위 : 호, %)

구 분	전체농가	농관련 사업참여 농 가	농관련 사업				
			직판장, 직거래	농가식당	농산물 가공업	농가 민박	관광농원, 주말농원
참여농가수	1,272,908	99,879	88,290	5,174	6,503	3,278	736
비 율	100.0	7.8	6.9	0.4	0.5	0.2	0.06

V. 농업경영주의 특성과 그 변화

1. 농업경영주의 특성과 그 변화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60대 연령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 70대 이상의 순이다. 60세 이상 경영주가 58.3%에 이르며 65세 이상 노인 경영주의 비율은 43.2%이다. 이와 대조적

으로 30대와 40대 청년 경영주의 비중은 17.7%에 불과한데 2000년의 27.1%, 1990년의 33.6%와 비교해 볼 때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져 왔다.

<표 5-18>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단위 : 천호, %)

구분 \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전 체	1,767	100.0	1,500	100.0	1,383	100.0	1,273	100.0
30세 미만	37	2.1	12	0.8	7	0.6	2	0.2
30~39세	221	12.5	13	8.9	84	6.1	40	3.1
40~49세	373	21.1	272	18.2	238	17.2	186	14.6
50~59세	584	33.0	447	29.8	348	25.2	303	23.8
60~69세	403	22.8	445	29.6	479	34.7	430	33.8
70세 이상	150	8.5	190	12.7	227	16.4	311	24.5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로 여성경영주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여성경영주 농가는 21만 6천호로 전체농가의 17.0%에 해당한다.

2. 영농승계자의 확보와 승계자의 특성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45,163호로 전체 농가의 3.5%에 해당한다. 2000년 총조사 당시 15만 농가(전체 농가 중 10.8%), 1990년 29만 농가(전체 농가 중 16.4%)가 승계자를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영농후계자가 절대수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5-19> 영농승계자 확보농가 추이

(단위 : 호, %)

구분 \ 연도	1990년	2000년	2005년
	승계자확보 농가수	289,529	150,453
전체농가 중 승계자 확보농가 비율	16.4	10.8	3.5

VI. 농업의 기계화와 농작업 위탁실태

1. 농가의 농기계 보유 실태와 그 변화

농가 중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는 경운기 44.9%, 관리기 72.6%이었다. 반면 콤바인과 트랙터, 이앙기 보유농가는 3.8%, 16.1%, 2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동일 기종 농기계를 1대 이상 보유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률이 이보다 높아 경운기 55.1%, 이앙기 23.3%, 관리기 27.4%, 트랙터 1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하면 전 기종에서 농기계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특히 트랙터, 콤바인의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표 5-20> 주요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

(단위 : %)

년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이앙기
1990	22.3	1.4	1.5	2.0	1.5	2.2	5.4
1995	27.1	3.8	2.6	2.8	9.2	4.6	10.1
2000	33.0	7.8	3.8	3.3	14.2	7.7	14.2
2005	60.4	18.0	7.0	-	28.4	16.8	23.7
농기계 없는 농가비율(2005)	44.9	83.1	96.2	-	72.6	84.9	76.7

2. 농가의 농작업 위탁 실태와 그 변화

농작업의 위탁은 논농사의 주요작업을 기계를 보유한 농가 및 법인에게 도급 또는 위탁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농작업별 위탁 현황을 보면 수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85%의 농가가 위탁하였으며 경운과 이앙이 65% 내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위탁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전부 위탁하는 농가의 비중은 서서히 늘고 있음이 주목된다. 특히 벼베기는 79.2%의 농가가 전작업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영농의 비중이 컸던 농약살포의 경우에도 2005년에는 위탁작업이 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표 5-21> 벼농사 작업의 자기영농 및 위탁영농 비율

(단위 : %)

구분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논 갈 이	자가영농			52.3	48.2	40.2	35.9
	위탁영농	전 체		47.5	51.4	59.8	64.1
		전부 타인		39.4	42.4	54.7	57.0
		일부타인		8.2	9.0	5.1	7.1
모 내 기	자가영농			43.6	40.1	40.4	37.4
	위탁영농	전 체		56.2	59.5	59.6	67.6
		전부 타인		36.7	46.5	54.4	54.0
		일부 타인		19.5	13.1	5.2	8.2
농약살포	자가영농			64.9	70.7	70.1	66.9
	위탁영농	전 체		35.0	28.9	29.9	33.1
		전부 타인		22.1	20.1	25.5	25.3
		일부 타인		12.9	8.9	4.5	7.1
벼 베 기	자가영농			39.4	25.1	18.5	15.2
	위탁영농	전 체		60.4	74.5	81.5	84.7
		전부 타인		43.4	61.6	76.8	79.2
		일부 타인		16.0	13.9	5.7	5.5
탈 곡	자가영농			26.6	22.2	17.4	
	위탁영농	전 체		73.3	77.4	82.6	
		전부 타인		61.1	64.8	77.9	
		일부 타인		12.2	12.7	4.6	

<표 5-22> 주요 벼농사 작업의 위탁영농 비율(2005년)

(단위 : 호, %)

	미작농가수	미작농가 중 비율
전 작업 위탁농가(5개 작업)	158,357	20.0
1개 작업 위탁농가	135,295	14.6
2개 작업 위탁농가	131,576	14.2
이양+수확	51,657	5.5
3개 작업 위탁농가	194,047	20.9
경운+이양+수확	166,734	17.8
4개 작업 위탁농가	156,710	16.9
묘판+경운+이양+수확	57,409	6.2
위탁 작업 없음	123,309	13.3

주 : 전 작업 위탁은 묘판+경운+이양+농약살포+수확임.

자료 :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경영주의 연령별로 자가영농 비율은 40대 농가가 가장 컸지만 50대 연령층까지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60세를 기점으로 경운, 이양, 수확 작업에서 자가영농의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70세 이상 연령층의 자가 영농의 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과 비교하면 전 연령계층에서 전부위탁의 비중이 늘어났다. 2000년에는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위탁영농비율이 높아지다가 60~69세를 정점으로 70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2005년에는 70세 이상 고령층의 위탁영농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위탁작업을 통해 미작농업에 계속 잔존하는 고령경영주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23> 경영주 연령별 주요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비율(2005년)

(단위 : 호, %)

경영주 연령	미작농가수	경 운	이 앙	수 확
30세 미만	1,470 (100.0)	686 (46.7)	641 (43.6)	321 (21.8)
30~39세	25,551 (100.0)	12,602 (49.3)	12,014 (47.0)	6,266 (24.5)
40~49세	127,341 (100.0)	68,774 (54.0)	65,218 (51.2)	33,206 (26.0)
50~59세	218,836 (100.0)	101,940 (46.6)	102,760 (47.0)	45,088 (20.6)
60~69세	331,860 (100.0)	106,784 (32.1)	11,450 (36.0)	40,859 (12.3)
70세 이상	230,260 (100.0)	45,003 (19.5)	49,994 (21.7)	16,894 (7.3)

VII.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농산물 판매

1. 농업생산의 조직화 실태와 그 변화

2005년 농업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작목반 17.8%, 영농조합 3.5%, 농업회사 0.4%의 순으로 나타나서 작목반 형태의 느슨한 조직화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2000년과 비교하면 농가의 작목반 가입 농가는 상대적으로는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절대 농가 수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가입농가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가입농가의 수는 2000년 41,532농가에서 44,302농가로 늘어났으며 농업회사 법인 가입농가의 수는 3,471농가에서 4,898 농가로 늘어났다.

농가의 영농형태별로 작목반의 가입농가는 일반밭작물, 미작은 낮으며 화훼, 과수, 특용작물, 채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특용작물과 축산이 회사법인의 가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과수와 화훼는 영농조합법인 가입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각 품목별 작목반에 가입한 농가를 영농형태별 농가수로 나누어 계산함.

<표 5-24> 영농형태별 법인참여 농가비율

(단위 : %)

경영주 연령	2000년		2005년	
	영농조합	농업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미 작	1.9	0.2	2.2	0.3
과 수	5.7	0.3	7.4	0.5
특 용 작 물	3.8	0.2	5.7	0.7
채 소	3.7	0.2	3.9	0.4
화 휘	7.4	0.7	7.6	0.6
일 반 밭 작 물	2.0	0.1	1.8	0.2
축 산	7.4	0.6	6.6	0.7
기 타	4.9	0.1	5.8	0.5
전 체	3.0	0.3	3.5	0.4

2. 농가의 농산물 판매실태와 그 변화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을 판매규모별로 보면 2000~2005년간 500만원 미만의 소액 판매농가와 3,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이 함께 증가했다. 반면 판매액 500~3,000만원 판매액 계층의 비율은 절대적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미 위에서 농가의 경지규모별 양극분화의 경향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판매규모별로도 농가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500만원 이하 판매농가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51.7%에 이었는데 2000년 48.1%에 비해 더욱 비중이 높아져서 자급적 혹은 반자급적 영세소농의 비중이 더욱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5-25> 농가판매 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 천호, %)

구분	판매 없음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2억	2억 이상	계
2000년	90.6	214.2	362.3	291.1	334.7	59.5	23.1	5.8	1.8	1,383.4
	6.5	15.5	26.1	21.0	24.2	4.3	1.6	0.4	0.1	100.0
2005년	120.3	181.2	356.2	211.4	272.9	73.1	41.1	11.2	5.1	1272.9
	9.5	14.2	28.0	16.6	21.4	5.8	3.2	0.8	0.4	100.0
2000년~2005년 증감율(%)	5.8	-3.3	-0.3	-6.2	-4.0	4.2	12.2	14.1	23.2	-1.7

2005년 판매 없는 농가수는 12만 농가(9.5%)에 달하는데 2000년 6.6%에서 크게 늘었다. 이는 많은 농가가 경영을 축소하거나 조방화 함으로써 자급농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인의 직업범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100만원 미만 농가도 2005년 30만1,500농가로 전체농가 중 23.7%를 차지해서 2000년의 22.1%에 비해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주목되는 것은 1~2억 판매농가와 2억 이상 판매농가가 연평균 12.9%, 23.2%씩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농가의 특성별로 보면 여성경영주의 41.5%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며 제2종 겸업농가의 42.0%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농가의 판매액을 보면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가 28.4%에 불과하여 적어도 농촌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층에서도 활발하게 상업적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5세 이후에는 서서히 상업적 비중을 줄여 8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자급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표 5-26> 취약농가의 농산물 판매액 비중(2005년)

(단위 : %)

년 도	전체 농가 중 비율	판매 없는 농가의 비율	연간 50만원 미만 판매농가비중	연간 50~100만원 판매농가비중
65세 이상 경영주	43.2	44.4	57.7	55.9
제2종 겸업농가	24.5	53.9	37.8	35.4
여성경영주농가	17.0	24.4	35.6	31.8

<표 5-27> 65세 이상 고령층의 농산물 판매 실태(2005년)

구 분	경영주연령 65~69세 농가	경영주연령 70~74세 농가	경영주연령 75~79세 농가	경영주연령 80세 이상 농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 비중	22.3	28.5	37.4	46.7

2000년과 비교해 보면 노령층의 비중은 낮아졌으나 제2종 겸업농가는 그 비중이 높아졌다. 점차 경영주의 노령화와 함께 자급농으로 은퇴하는 연령은 높아지는 반면 겸업의 심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간 1억 이상 판매농가는 1.29%로 연간 1~2억 판매농가 가운데 축산농가의 비중은 61.1%이었으며 논벼가 15.3%이었으며, 2억 이상 판매농가는 축산 79%, 논벼가 5.8%, 채소가 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반 발작물의 경우 53.2%가 100만원 미만의 판매액을 보인 반면 논벼와 채소 역시 각각 23.3%, 24.3%가 100만원 미만의 판매액을 보인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은 화훼와 축산이

제6장 어업구조의 변화

I. 어업의 개념과 어업총조사

1. 어업의 개념

어업은 수산업법 2조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이다. 사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기르는 산업’이라고 한다. 어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어로활동(漁撈活動, fis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연계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칭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하는 경우 어업(fishery)라 할 수 있다. 수산업법에서 어업은 자연계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는 것만 기르는 어업 즉 양식어업까지 포함한다. 어업과 유사한 개념의 수산업(fishery)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양식은 물론 운반, 가공, 판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어로행위가 이루어지는 해역을 어장(fishing ground)이라 한다. 어장은 동식물의 생태, 습성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채취·포획하는 공간과 방법이 다르며, 법률적으로 행위제한이 수반된다. 이처럼 어업은 어장의 근거지, 잡는 방법(어법), 경영방법, 법규상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³⁾

- (1) 대상물에 따른 분류 : 어업의 대상물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 각종 수산동식물이다. 이중 어류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어업을 어류를 포획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류와 달리 고래 등 포유류를 잡는 것을 해수어업(海獸漁業), 조개류를 잡는 것을 채패업(採貝業),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채조업(採藻業)이라고도 한다.

3) 수산업법에 제2 조에 의하면 이외 어업과 관련된 용어로 ‘어업권’, ‘입어’, ‘입어자’, ‘어업인’, ‘어업종사자’, ‘바닷가’, ‘어구’ 등이 있다.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입어자(入漁者)’란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을 모두 ‘어업인’이라고 한다.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2) 어장(漁場)의 근거지에 따른 분류 :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역을 어장이라 하는데 크게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과 해양어업(海洋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내수면어업은 내수면, 즉 육지에 있는 수면에서 하는 어업으로, 하천·수로·저수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해양어업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으로서, 보통 연안어업(沿岸漁業)·근해어업(近海漁業)·원양어업(遠洋漁業)으로 나눈다. 연안어업이란 근거지나 육지로부터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어업이다. 원양어업은 수십 일이 걸리는 먼 바다에서 하는 어업이며, 그 중간 정도의 곳에서 하는 어업을 근해어업이라 한다. 이 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또 항해·운용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구분은 1986년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안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② 근해어업 : 총톤수 8t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③ 원양어업 :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해외수역이라 하며,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다. 또 원양어업은 영해(領海) 안에서 하는 경우와 공해(公海)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영해어업, 후자를 공해어업이라 한다. 영해어업은 연안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공해어업은 자유이지만 공해상에서도 일방적으로 연안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 exclusive economic zone) 또는 어업수역(fishery zone)이라고 하여 다른 나라 어선이 자유롭게 어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 (3) 근거지에 따른 분류 : 원양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기지에서 어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어선이 이 사이를 왕복하는 데 시간적 손실이 클 경우, 외국에 기지를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수가 있다. 한국에서는 태평양·인도양·대서양 등에서 하는 다랑어(참치)주낙어업과 선망어업, 대서양에서 하는 트롤어업 등이 이런 예인데, 이와 같은 어업을 국내기지어업(國內基地漁業)이라 한다. 예를 들면, 북양트롤어업은 어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양어업에 속하지만, 기지는 국내기지어업에 속한다.
- (4) 대상물과 어법에 따른 분류 :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와 어법을 알면 그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결합시켜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거기에 어장을 덧붙여서, 가령 태평양 다랑어주낙어업, 대서양 문어트롤어업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 (5) 경영형태에 따른 분류 : 어업을 경영하는 모체가 노동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에 따라 비자본가적 어업(非資本家的漁業)과 자본가적 어업(資本家的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비자본가적 어업이란 노동의 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업을, 자본가적 어업이란 자본의 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한다. 대규모 어업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 (6) 면허·허가 제도상의 분류 : 어업은 경제행위이므로 상호 경쟁이 심하고, 또 대상물인 생물자원을 영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잡도록 해야 하므로 어업관리상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을 크게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로 나누고 있다. 면허어업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어업이며,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전용하여 어업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하는 어업을 말한다. 공동어업·정치어업·양식어업 등이 이에 속한다. 허가어업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근해어업·원양어업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신고어업은 어업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감찰을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소규모 어업이다. 각 제도별 어업형태는 아래와 같다. 면허어업에는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어류 양식어업 등이 해당된다. 허가어업은 연근해 어선어업과 육상 양식, 육상종묘 생산어업이 해당된다. 신고어업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그리고 투망어업이 해당된다. 어업총조사의 어업분류체계는 수산업법의 어업분류체계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어가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6-1> 제도별 어업형태

제도상 분류	어업형태	비고
면허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양식어업
허가어업	8톤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8톤 미만의 근해어업(기선저인망어업, 트롤어업 등), 육상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어선어업
신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맨손어업

2. 어업총조사의 의의 및 한계

우리나라 어업총조사는 1970년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1990년까지 UN/FAO의 권장에 의해매 10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1995년은 간이어업총사를 실하는 해이지만 어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특별히 제4차 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어업총조사는 그동안 농림부가 주관해지만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업무가 통

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 어업총조사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며, 2005년 어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총조사 주기를 5년을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조사 실시 1년 전 1개월 이상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등 어업을 경영한 사업체(개인, 회사, 공동, 단체기관) 등이다. 어가란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 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 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어가인구는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2005년 12월 1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했던 사람을 말하며 고용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어업과 관련되면 포함한다.

<표 6-2> 연차별 어업총조사의 개요

연차	연도	조사기관	조사내용	특 징
1차	1970	농림부	사업체, 어업경영(종류, 종사자, 종사일수 등), 어가(가구원, 어가)	해면어업 조사만 실시
2차	1980	농림부	사업체(경영조직, 어업종류, 어업규모, 어업활동 및 어업 경영상황), 어가(어가, 가구원)	내수면어업, 수산연관시설 추가 조사
3차	1990	농수산부	경영조직(개인, 회사, 공동, 단체기관), 어업종류, 어선, 양식장, 어업활동, 어가, 어가인구	시·군·구 어업관련 부서에서 실시
4차	1995	해양수산부	경영체의 구조, 어업의 형태 및 종류, 양식장 시설, 어업활동 및 경영상황, 어가, 어가인구	지방농수산통계조직을 통해 조사 실시
5차	2000	통계청	가구, 가구원, 어로어업, 양식어업, 판매현황, 어선, 정보화, 생활여건, 주거, 기타(생산조직 참여 등)	통계청에서 농업총조사와 함께 실시. 농어가의 정보현황, 생산조직 참여현황 항목 추가
6차	2005	통계청	가구, 가구원, 어로어업, 양식어업, 판매현황, 어선, 정보화, 생활여건, 주거, 기타	농업, 임업, 어업 총조사 통합 실시. 어가인구의 특성, 신규취업가구 파악을 위한 혼인상태, 경영주의 어업종사기간 항목 추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해당부서에서 조사해 오던 어업총조사는 2000년부터 통계청이 주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어업총조사는 임업총조사와 함께 조사되었다. 이는 어업 관련 데이터 수집의 일관성과 농업과 임업은 물론 도시 근로자들의 경제활동과 상호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05년 어업총조사는 조사대상과 지표가 이전의 조사대상 및 지표와 차이가 있고 어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 어업총조사의 대상이 어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촌계(마을) 단위의 마을어업(공동경영)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1995년 어업총조사까지 회사경영체와 공동경영체 등을 포함한 어업경영상황이 조사되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지표에서 누락되었다. 어민들이 가장 쉽게 어업활동을 하는 형태가 신고어업인 맨손어업이다. 조간대에서 낙지를 잡고, 해조류를 뜯고, 굴을 까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해조류나 패류 등 양식어업의 경우도 공동경영의 대상이 마을어장을 마을공동체의 규약에 의해 분배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마을공동체(어촌계)의 지선어장의 범위, 면허현황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을공동어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업현황이 조사되어야 한다.

II. 어업형태 변화

1. 전·겸업별 어업형태

전업어가란 지난 1년간 어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어가를 말한다. 겸업어가란 지난 1년간 어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를 말한다. 이중 어업 수입이 어업 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1종 겸업어가', 어업 이외의 수입이 어업 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어가'로 구분한다. 어가는 1990년 121,525가구에서 2005년 79,942가구로 감소했고, 겸업어가 비중이 전업어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업의 경우 1990년 23.1%에서 2000년 36.4%, 2005년 31.7%를 차지했고 겸업은 1990

<표 6-3> 전·겸업별 어업형태 : 2005

년도	총어가		양식어가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 가	79,942	100.0	21,606	100.0	39,218	100.0	5,678	100.0	13,150	100.0	320	100.0
전 업	25,342	31.7	6,071	28.1	16,023	40.9	1,136	20.0	2,065	15.7	47	14.7
겸 업	54,600	68.3	15,535	71.9	23,195	59.1	4,512	80.0	11,085	84.3	273	85.3
1종 겸업	28,410	52.0	8,296	53.4	15,850	40.4	1,275	28.3	2,897	26.1	92	33.7
2종 겸업	26,190	48.0	7,239	46.6	7,345	59.6	3,237	71.7	8,188	73.9	181	66.3

자료 : 2005년 어업총조사.

년 76.9%에서 2005년에는 68.3%로 비중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어업비중이 높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지역이 겸업의 비중이 높았다.

2. 경영주 어업종사분야의 변화

어가의 형태를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 7만9천여 호의 어가를 어업형태별로 정리하면, 어선어업이 4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양식어업으로 27.0%, 맨손어업 16.4%, 나잠어업 7.1%, 기타 어로어업 0.4%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양식어가는 1990년 40.6%에서 2005년 27.0% 비중이 감소했고, 어선어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표 6-4> 경영주의 어업형태의 변화 : 1990~2005

년도	총어가		양식어가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1990	121,525	100.0	49,391	40.6	45,858	37.7	8,967	7.4	17,309*	14.2	-	-
1995	104,480	100.0	33,918	32.5	42,772	40.9	8,456	8.1	19,384*	18.6	-	-
2000	81,571	100.0	22,225	27.2	41,527	50.9	6,054	7.4	-	-	11,765**	14.4
2005	79,942	100.0	21,606	27.0	39,218	49.0	5,648	7.1	13,150	16.4	320	0.4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자연산 포획 및 채취어가

** 2000년 기타 어업의 어가는 맨손어업을 포함한 어가임.

지역별로는 양식어업은 전라남도·경상남도·충청남도, 맨손어업은 충청남도·전라남도, 어선어업은 전라남도·경상남도, 나잠어업은 제주도에서 많았다. 전라남도의 경우 양식어업의 52.7%를, 맨손어업의 27.4%, 어선어업의 26.1%를 차지했다. 충청남도는 맨손어업의 27.4%, 양식어업의 18.2%를 경상남도는 어선어업의 23.7%를, 제주도는 나잠어업의 65%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들은 어선어업종사자가 많은 반면에 여성들은 맨손어업과 양식어업의 비중이 높았다. 어업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어선어업은 남자가 58.0%, 여자가 28.9%로 남자가 19.1%포인트 높고, 나잠어업은 여자 10.6%, 남자 0.3%로 여자가 10.3% 높았다. 맨손어업의 경우도 여자 23.8%, 남자 12.3%로 여자가 11.5%포인트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맨손어업은 갯벌어장에서 바지락, 고막, 백합, 굴 등을 채취거나 조간대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어업을 대부분 여성들이 맡고 있다. 나잠어업은 잠수들이 물질을 해 소라와

전복 등을 채취하는 어업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맡고 있다. 반면에 양식어업은 해조류, 패류, 어류(가두리)양식 등으로 가족노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어선어업은 40~50대, 양식어업 50~60대, 맨손어업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나잠어업은 60~70대의 비중이 높았다.

Ⅲ. 잡는 어업의 변화

잡는 어업은 어로방법과 어업장소를 기준으로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나잠어업, 마을어업 등으로 구분한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지선어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어업과 나잠어업, 배를 이용해 가까운 바다로 나가 어로활동을 하는 연안어업과 아주 먼 바다(해외 포함)에 나가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이 있다. 근해어업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 중간 해역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두 어업을 총칭하여 흔히 연근해어업이라고도 한다. 연근해어업을 항해일수를 기준으로, 혹은 행정절차에 따라 구분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산행정상 기선선망어업(機船旋網漁業)·기선저인망어업(機船底引網漁業)·안강망어업(鮫鰵網漁業)·트롤어업·유자망어업(流刺網漁業)·근해통발어업 등을 포함해서 근해어업이라 한다.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점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권리를 가진 연안지선을 면허, 허가, 신고 등의 형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권을 얻어야 한다. 나잠어업은 잠녀들이 물질을 하는 어업을, 마을어업은 마을공동어장에서 어촌계원이나 성원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표 6-5> 지역별 어업형태 : 2005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총 어 가	4,329	100.0	45,400	100.0	1,918	100.0	21,771	100.0	8,838	100.0
서울특별시	1	0.02	3	0	-	-	-	-	2	0
부산광역시	264	6.1	2,546	5.6	3	0.2	50	0.2	531	6.0
대구광역시	3	0.06	-	-	-	-	-	-	-	-
인천광역시	121	2.8	1,292	2.8	32	1.7	2,314	10.6	155	1.7
광주광역시	2	0.02	-	-	-	-	1	0	-	-
울산광역시	98	2.3	945	2.1	13	0.7	23	0.1	497	5.6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경기도	26	0.6	743	1.6	7	0.4	858	3.9	72	0.8
강원도	1,051	24.3	3,645	8.0	37	1.9	83	0.4	243	2.7
충청남도	192	4.4	4,308	9.5	103	5.4	5,256	24.1	283	3.2
전라북도	137	3.2	2,163	4.7	126	6.5	2,084	9.6	168	1.9
전라남도	327	7.6	11,800	26.0	1,150	59.9	6,425	29.5	1,062	12.0
경상북도	1,288	29.7	4,363	9.6	178	9.3	452	2.1	1,020	11.5
경상남도	526	12.2	11,541	25.4	255	13.3	2,122	9.7	724	8.2
제주도	293	6.8	2,051	4.5	14	0.7	2,105	9.7	4,101	46.4

자료 : 2005 어업총조사

잡는 어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조류, 유속, 수온, 조간대의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해역은 크게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역으로 나누며, 필에 따라 동남해, 서남해를 추가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방위와 해역을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어업형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근해어업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동해해역에서 발달했다. 반면에 연안어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맨손어업은 갯벌과 조간대 어업이 발달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근해어업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동해해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근해어업은 근해채낚기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은 근해 연해자망, 근해연승 순이었다. 2005년 총 3,911가구 중 근해채낚기가 48.2%로 가장 많고, 다음은 근해자망 15.0%, 잠수기 13.5% 근해통발 10.1% 근해연승 10.0%, 근해 안강망 4.6 순이었다. 근해채낚기는 오징어잡이 등이 대표적인 어업이다.

2. 연안어업

연안어업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안복합은 2000년부터 연안어업의 조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연안복합어업은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구체적으로 낚시어업, 문어단지어업, 패류껍질어업(패류껍질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주꾸미잡이 등), 패류미끼

망어업, 손꽂치어업 등이다. 2005년 총 45,400가구 중 연안복합어업이 43.3%로 가장 많고, 연안자망 27.1 %, 연안통발 20.0%이었다.

3. 구획·맨손어업

또 다른 잡는 어업은 구획어업과 맨손어업, 나잡어업, 투망어업 등이 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이를 허가하는 어업을 말한다. 반면에 맨손어업과 나잡어업, 투망어업 등은 허가어업이다. 구획어업은 정치성과 이동성으로 나뉜다. 맨손어업은 어망을 이용하지 않고 수산 동·식물을 직접 손으로 또는 간단한 도구로 잡거나, 훈련된 동물(개, 수달, 가마우지 등)로써 잡는 것을 말한다. 사용하는 도구는 대체로 그 크기가 작으며 오히려 잡은 어획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주머니나 양동이 등이 사용하는 도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IV. 기르는 어업의 변화

1. 양식품종의 변화

양식어업은 어류양식, 갑각류양식, 패류양식, 해조류양식, 기타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을 주로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일제강점기 해태(김)와 굴 양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후 해조류 양식과 패류 양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김, 굴, 바지락 등을 수심이 깊지 않는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양식하였다. 1980년대 종묘생산, 인공포자와 양식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지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5년 양식어가 41,342가구 중, 패류양식이 57.1%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해조류양식이 26.9%, 어류양식이 10.0%, 기타 수산동물 3.1%, 종묘생산 1.9%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각 조사년도 별로 비교해보면 해조류양식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어류양식은 약간 증가했다. 해조류양식은 1990년 47.3%에서 2005년 26.9%로 감소했다. 어류양식은 1990년 0.9%에서 2005년 10.1%로 증가했다. 패류양식은 1990년 49.4%에서 2005년 57.1%로 약간 증가했다.

<표 6-6> 어업형태의 변화 - 양식어업

	1990		1995		2000		2005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양식어가	94,704	100.0	68,491	100.0	39,307	100.0	41,342	100.0
어류양식	912	0.9	4,431	6.5	4,514	11.5	4,157	10.1
갑각류양식	19*	0.02	145	0.2	189	0.5	351	0.8
패류양식	46,744	49.4	39,214	57.3	19,815	50.4	23,616	57.1
해 조 류	44,818	47.3	21,384	54.4	13,250	33.7	11,140	26.9
종묘생산			1,863	2.7	772	1.9	791	1.9
기타 수산동물	2,211	2.3	1,454	2.1	767	1.9	1,287	3.1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새우양식어가로 1990년 어업총조사에 기타 수산동물로 분류되었음.

2. 양식방법과 규모

2005년 양식어가 중 30.9%는 연승식을, 27.6%는 살포식을, 12.1%는 가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승식은 꽃게, 장어, 낙지, 문어 등 각종 통발에 많이 이용되며, 살포식은 바지락, 석화 양식에, 가두리는 어류양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가두리 양식이 살포식 양식이 증가한 반면에 부류식과 지주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류식과 지주식은 주로 김 양식 등 해조류 양식에 해당되는 양식방법으로 해조류양식이 침체되고 전복이나 어류 등 가두리 양식과 바지락 등 패류양식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양식어가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2005년의 경우 0.3ha 미만의 양식어장을 보유한 어가가 24.8ha, 10ha 이상은 5.6%, 0.5~10ha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표 6-7> 양식방법의 변화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양식어가	28,704	100.0	28,148	100.0
가 두 리	2,458	8.6	3,459	12.1
축 제 식	240	0.8	245	0.8
수 조 식	852	2.9	1,027	3.6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연 승 식	8,218	28.6	8,704	30.9
뗏 목 식	84	0.3	7	0.02
투 석 식	2,898	10.1	2,725	9.7
살 포 식	5,595	19.5	7,761	27.6
지 주 식	2,762	9.6	1,222	4.3
부 류 식	4,384	15.3	2,368	8.4
기 타	1,213	4.2	666	2.3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V. 어선어업의 변화

1. 어선보유형태

어선어업은 자기소유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어선어업은 대부분 허가어업이며, 어선의 규모, 어선운영의 목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⁴⁾

어가 중 어선이 없는 어가는 1990년 42.9%, 1995년 45.8%, 2000년 40.4%, 2005년 41.9%였다. 어선이 있는 어가들은 무동력선과 동력선으로 나뉜다. 무동력선의 비율은 매년 감소한 반면에 동력선의 비율은 약간 증가했다. 동력어선의 보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어선 감소에 비해서 어가의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어선보유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와 한중·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정책 때문이다. 근해어업의 경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635척을 감척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30%를 감척할 계획이다. 2005년 82,921어가 중 어선이 없는 어가는 40.4%,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59.6%였다.

4) 일반적으로 총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 무동력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은 시·도지사, 무동력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표 6-8> 어선어업 어가의 변화 : 1990~2005

년도	총어가		어선 없는 어가		무동력선		동력선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1990	121,525	100.0	52,077	42.9	6,331	5.2	63,117	51.9
1995	104,480	100.0	47,864	45.8	3,289	3.1	53,327	51.0
2000	82,921	100.0	32,685	40.4	3,051	3.7	47,184	56.9
2005	81,059	100.0	33,967	41.9	1,826	2.3	45,266	55.8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한 가구에 복수의 어선을 갖는 경우도 있음.

2005년 어업총조사 어가 중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43.6%이며 2000년과 큰 차이가 없다. 어선보유 어가 중 어선규모별로는 2톤 미만의 50%를 상회하며, 1톤 미만도 21.9%에 이른다. 부부나 가족노동으로 조업이 가능한 2~5톤 규모는 30.8%,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5톤 이상의 어선 15%대로 나타났다.

1990년 어업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무동력선의 크게 감소하였다. 당시 무동력선의 분포를 보면 5톤 이상의 큰 규모의 어선이 전라남도 113척, 경기도 25척, 전라북도 9척, 경상남도에 5척이 분포했다. 2~5톤 규모의 어선도 전라북도 52척, 경기도 27척, 전라남도 26척, 경상남도 20척이었다. 하지만 1995년에는 2톤 이상의 무동력선은 전혀 없다. 당시 무동력선의 종류에 대한 조사가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큰 규모의 무동력선은 새우잡이를 하는 해선망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무동력선 1990년대 초반이면 정부의 폐선 정책으로 많이 사라졌다.

2. 어선 규모

규모별 어선 보유어가는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보유어가가 줄어드는 반면에 2톤에서 10톤 크기의 어선 보유어가의 비율이 증가했다. 1990년 2톤 미만의 어선 보유어가는 64.4%였지만 2005년 같은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24.7%로 감소했다. 반면에 5-10톤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1990년 5.6%에서 2005년 28.5%로 크게 증가했다. 10-20톤의 연근해 어업을 하는 어선을 보유한 어가의 경우는 1990년 2.1%에서 2005년 10.3%로 증가했다.

<표 6-9> 규모별 어선 보유어가 : 1990~2005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체	63,117	100.0	53,327	100.0	52,914	100.0	52,048	100.0
2톤 미만	40,635	64.4	30,176	56.6	30,219	57.1	12,890	24.7
2~5	15,500	24.5	15,448	28.9	15,584	29.4	16,863	32.4
5~10	3,556	5.6	4,672	8.7	4,750	8.9	14,869	28.5
10~20	1,324	2.1	1,062	2.0	889	1.7	5,364	10.3
20~50	1,015	1.6	1,008	1.9	824	1.5	835	1.6
50~100	840	1.3	588	1.1	574	1.1	467	0.9
100 이상	247	0.4	373	0.7	74	0.1	91	0.2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어선규모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선의 숫자는 전남 16,606척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11,013척, 충남 3,295척, 부산 2,543척 순이었다. 2톤 미만의 어선의 비중이 울산 67.3%, 부산 63.5%, 전남 59.5% 순이며, 인천은 26.8%, 제주는 17.2%이었다. 5-10톤 규모는 제주도가 3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천이 35.0% 순이었다.

VI. 생산조직의 변화

1. 생산조직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생산조직은 수협, 영어법인, 어촌계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조직된 ‘어민 및 수산업 가공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한 상부상조단체’다. 수산업협동조합에는 현재 72개의 지구별 조합과 20개의 업종별 조합, 2개의 수산물가공조합이 있다. 지구별이란 목포, 군산, 통영 등 지역별로, 업종별은 굴수하식, 안강망, 통발, 잠수기 등으로 조직된 조합이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이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漁家)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아래에 있는 조직은 전국에 1969개가 조직되어 있다.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들은 대부분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다. 즉 수협조합원에 가입하고 마

을어촌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마을공동어장의 입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협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어가들 중 마을공동체(어촌계)에서 관행어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상대대로 마을공동어장에서 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해 온 경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관행어업이라고 한다.

<표 6-10> 생산조직의 변화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계		81,571	100.0	79,942	100.0
참여여부	불참여가	23,591	28.9	21,547	26.9
	참여어가	57,980	71.1	58,396	73.0
참여형태	업종별 수협	2,212	2.7	2,670	4.6
	지구별 수협	20,189	24.7	17,702	30.3
	영어조합법인	547	0.7	449	0.9
	일반회사법인	248	0.3	43	0.07
	어 촌 계	51,237	62.8	52,163	89.3
	기 타	690	0.8	977	1.7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005년 조사를 정리하면 생산조직에 참여하는 가구는 70.1%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가는 29.1%였다. 생산조직에 참여하는 어가 중 어촌계가 7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구별 수협 23.9%, 업종별 수협 3.6%였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생산조직에 참여하는 어가의 비율은 약간 증가했다. 생산조직별로는 어촌계의 비율만 증가하고, 일반법인회사,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업종별 조합 모두 작은 비율로 감소했다.

2. 유통구조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은 대부분 수협이나 어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 유통시장이 대형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가 저가의 자사브랜드 상품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유통 업계에도 지형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수산물 수입에 직접 나서는가 하면 국내 유명 수산물을 산지에서 생산·관리·유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

해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5년 유통구조를 보면, 어가의 43.1%가 생산한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유통하였다. 나머지 26.8% 수집상, 17.6% 소비자 직접판매, 5.9% 도매시장 순이었다.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수협, 도매시장, 수집상을 통한 유통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수협은 50.6%에서 43.1%로, 도매시장은 9.1%에서 5.9%로, 수집상은 31.2%에서 26.8%로 감소했지만 직접판매는 1.9%에서 17.6%로 증가했다. 이러한 직접판매의 증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어업총조사의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 즉 직접 어민들이 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도매나 수집상을 거치지 않고 유통업체에 넘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통시장이 대형화되면서 유통업체가 생산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11> 유통구조의 변화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계	75,292	100.0	78,967	100.0
수 협	38,118	50.6	34,061	43.1
도매시장	6,876	9.1	4,722	5.9
수 집 상	23,459	31.2	21,158	26.8
음 식 점	2,055	2.7	2,216	2.8
가공공장	2,447	3.3	2,468	3.1
양 식 장	852	1.1	396	0.5
소비자 직접판매	1,485	1.9	13,946	17.6
기 타	6,018	7.9	636	0.8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005년 어업총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어로어업 수집상과 음식점 비율이, 양식어업은 수집상과 도매시장 비율이 높았다. 활어나 선어를 공급하는 어가는 생산시기와 양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고 상품의 특성상 어획하는 대로 유통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집상이나 음식점을 선호하지만 양식어업은 수집상이나 도매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따라 잡히는 전어, 낙지, 오징어나 돔 등 활어 등은 대부분 수집상이나 음식점에 의해서 유통된다. 양식 바지락, 양식우럭과 양식광어 등은 수집상이나 도매시장에 공급된다.

3. 상품형태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저장 및 보관이 쉽지 않으며, 유통기간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생산된 수산물은 대부분 상품으로 유통된다. 수산물 생산어가의 99% 이상이 2000년과 2005년 모두 생산한 수산물을 상품으로 판매했다. 판매되는 상품의 형태를 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판매어가 79,603가구 중 37.4%가 활어, 37.3%는 패류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해조류 7.5%, 선어 7.1%, 가공품 5.6%, 갑각류 2.2% 순으로 분포되었다. 즉 어가들이 상품으로 판매하는 수산물 품목의 74% 이상이 활어와 패류였다.

<표 6-12> 상품형태의 변화 : 2000~200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어 가	8,1571	100.0	79,942	100.0
판 매 없 음	268	0.3	339	0.4
판 매	81,303	99.7	79,603	99.6
활 어	32,128	39.5	29,733	37.4
선 어	9,579	11.8	5,627	7.1
가 공 품	6,896	8.5	4,482	5.6
해 조 류	-		5,971	7.5
패 류	-		29,687	37.3
갑 각 류	-		1,752	2.2
기 타	32,703	40.2	2,351	2.9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제7장 임업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임업총조사는 1999년 처음 실시되었다. 임업총조사는 산림청의 주관 하에 임업정책 수립 및 국가경제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 임업의 기본구조를 파악할 목적으로 전국의 임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표와 조사방법 및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조사의 기본설계를 담당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5년 농임업총조사는 임가 및 임가 인구의 규모와 분포, 임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임업총조사 업무는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농림업총조사에 통합되어 조사되고, 조사주기는 과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2005년의 조사와 1999년의 조사가 단순히 조사기관의 이관에만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표본추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9년의 임업총조사에서는 조사기준 현재 산림 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으로 하였다. 2005년에는 농림총조사 결과 확보된 농림가 중에서 1999년의 임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가구를 추출하여 임가로 규정해서 통계표를 작성한 것이다. 또 2005년도 조사에서는 1999년의 임업총조사에서 정부기관, 산림조합 등 준임가를 제외하고, 종실류 보유(본수, 면적)에 의한 임가 편입, 임업종사일수에 의한 임가 편입 항목 등을 제외하였다.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1999년 조사항목 중 주관성이 강하다고 인정되어 임가로 볼 수 없는 조사항목으로 향후 경영계획, 경영예정기간, 가계총소득 및 부채, 휴양림 경영, 영림단 운영, 야생조수사육, 문화용품 등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005년 총조사에서는 임가를 전업·겸업으로 구분하고 경영주의 임업종사경력 및 혼인형태, 임업경영형태, 거쳐형태, PC 활용여부와 용도 및 홈페이지 개설 여부 등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임가 인구의 특성 및 임가의 실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 농림업총조사에서는 1999년에는 분류하지 않았던 전업임가와 겸업임가(1종 겸업임가, 2종 겸업임가)로 임가를 세분한 것 등에서 차이가 있다.

I. 임업경영실태

1. 산림소유 규모와 경영형태

전국의 개인임가는 1999년에 66,300가구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 46%(30,808가구)가

증가한 97,108가구이었다. 업종별로 2005년 총조사에서는 사육업, 경영업을 제외한 5개이었다. 주요 업종은 재배업, 채취업, 육림업 등이다.

2005년의 조사에는 광역구분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함축된 항목으로 조사되었지만, 1999년에는 산림청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고, 2005년과 1999년과의 통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조림은 나무를 심기위해서 나무를 심을 자리를 잘 골라주고 나무를 심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2005년 조사에서는 ‘나무심기’라는 우리말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1999년에는 조림 예정지작업과 조림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숲가꾸기’에는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등이 포함되고, 숲아베기는 ‘간벌’을 이르는 용어이다. 이외에도 1999년 조사에서는 임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충해 방제사업과 임도, 시비 등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생략되었다. 또한 2005년의 조사에서는 임가와 육림 작업별 임가의 합계가 다른 이유는 임가 중에서 육림작업을 실시한 복수응답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산림보유면적별 임가는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산림무소유 임가가 66.7%(64,636가구)로 높고, 산림보유임가는 33.4%(32,472가구)였다. 반면에 1999년에는 산림무소유 임가가 39%(26,296가구)이고 산림보유임가는 61%(41,073)였다. 위의 업종별 임가수에서 보듯이 채취와 재배업이 많은 것도 산림보유임가가 감소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의 변화는 산림무소유 임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산림보유임가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 변화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재배업에서도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의 변화 패턴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배업 임가에서 산림무소유 임가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해당 업종의 경영은 주로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배라기보다는 농업부문과 비슷한 형태로 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 경영형태별 특성

육림작업을 한 임가는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60.7%(17,804가구)가 감소한 11,522가구이고, 1999년에는 29,326가구였다. 육림작업을 한 임가의 차이는 1999년에는 산림을 소유하지 않은 임가 8.6%(2,518가구)도 육림작업을 시행하였으나 2005년에는 미소유 임가, 방제, 시비, 임도설치, 덩굴제거 등은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육림작업은 2005년 조사에서는 숲가꾸기 44.3%, 나무심기 44%, 숲아베기 43%로 각 육림작업이 비슷하게 실행되었으나, 1999년에는 숲가꾸기가 46.7%로 가장 많았다. 이는 1998년부터 시작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5년에는 2002년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으며,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육림사업으로 배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산림보유면적규모별로 별목한 임가분포를 보면 2005년에는 3~5ha 사이의 임가가 23.9%로 가장 높고, 5~10ha 사이의 임가가 22.5%, 10ha 이상의 임가가 21.1% 순이었다. 1999년에는 1ha 이하의 임가가 14.6%, 1~3ha 사이의 임가가 13.7%, 10ha 이상의 임가가 11.6% 순이었다.

별목량 규모별 임가분포에서 2005년에는 100~300m³ 사이의 임가가 30.2%, 500m³ 이상의 임가가 32.5%, 50m³ 이하의 임가가 11.4%이었다. 1999년에는 50m³ 이하의 임가가 30.9%, 100~300m³ 사이의 임가가 26.7%, 500m³ 이상의 임가가 18.8%이었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산림면적이 큰 임가 일수록 별목량이 늘어나고 있다.

양묘임가는 2005년에는 1999년도 대비 3.7배(1,168가구)가 증가한 1,484가구이다.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분포는 2005년에는 1ha 이하가 68.5%(1,017가구)로 높았고, 1ha 이상이 31.5%(467가구)로 낮았다. 1999년에는 1ha 이하가 61%(193가구)로 높았고, 1ha 이상이 39%(123가구)로 낮았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1ha 이하의 비중이 높고, 1ha 이상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은 1999년 대비 묘목재배 임가의 비중은 본수의 규모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영세화는 지난 수년 동안 농산촌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경수, 관상수 등의 재배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장려한 것과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녹지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조경수 및 관상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착근되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장들 도시녹화와 공원조성은 가장 현시적이고 주민의 수요가 많은 사업의 하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소규모이며 영세한 묘목 생산임가가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였다.

2005년도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는 송이버섯이 5,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사리가 2,146가구, 고로쇠가 1,938가구, 취나물이 1,086가구의 순으로 많다. 채취량으로는 송이버섯이 307t으로 가장 많고, 고사리가 287t, 취나물이 158t, 고로쇠는 3,727kl이다. 기타로는 기타 약용작물이 428t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버섯류가 418t, 기타 열매류가 300t, 기타산나물이 206t 순이었다.

2005년도 임산물 채취업은 겸업형태이고, 겸업형태 중 2종 겸업형태였다. 품목별로는 주로 송이버섯, 고사리, 취나물, 고로쇠 등이 중요품목이었다.

II. 임가 및 경영주 실태

1. 임가의 구성

임가의 가구원 구성에서 2005년 조사에서는 2인 가구가 47.1%(45,748가구)로 가장 높다. 5인 이상 가구는 11.6%(11,273가구)에 불과하다. 1999년에도 2인 가구가 43.7%(28,941가구)로 가장 높다. 5인 이상 가구가 10.2%(6,794가구)로 낮다. 그러나 2005년과 1999년 사이의 임가의 가족구성은 임가 수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가족 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가족구성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른 업종은 비교적 유사한 가족구성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채취업은 소규모 가족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4인 가구 이하가 가장 낮은 76%를 보이고 있어 다른 업종이 8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2. 경영주 특성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임업인의 인구가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2005년 조사와 1999년 조사와의 변화는 50대 이상 계층이 그대로 상향 이동하여 고령임가로 잔류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70대 이상이 18.8%에서 19.4%로, 60대가 31.8%에서 33.6%로, 50대가 26.5%에서 27%로 약간씩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4세 이하는 4%에서 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교육정도와 산림보유면적과의 관계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산림보유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림보유규모가 클수록 부재산주로서 외지에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산주는 소재산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연로한 가구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보다 2005년에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임가의 인구학적 특성

2005년의 임가인구는 1999년보다 61%(100천명)가 증가한 264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성별 임가 인구를 살펴보면, 2005년에 여성이 50.4%로 남성보다 약간 높으나, 1999년에 남성이 52.1%로 여성보다 약간 높아 보이고 있다.

연령계층별 임가 인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60대 인구가 22.3%가 가장 높다. 1999년에는 60대 인구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과 1999년 조사의 큰 특징은

50대 이상이 그대로 상향 이동하여 고령인구로 잔류하는 추세이고, 임가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임가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남성의 비중이 높았으나, 40대 이상 장년층, 고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Ⅲ. 임산물 생산 및 판매

1. 임산물 판매금액

임가의 임산물 판매처를 보면 2005년에는 수집상, 농협, 개인소비자의 순으로 높고, 산림조합의 통한 판매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99년에도 수집상, 계통출하, 공판장 등의 비중이 높고 산림조합을 통한 판매는 매우 낮았다. 임업생산물의 유통에 있어 산림조합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판매금액별로 보면, 2005년에는 100~500만원 사이가 43.2%로 가장 높았고, 5,000만원 이상은 1.6%에 불과하다. 임산물 판매금액이 없는 임가를 제외하고 68%의 임가가 1,000만원 이하로 나타나서 임산물 판매액이 매우 적다.

판매금액규모별 판매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1,000만원 이하의 임가는 수집상을 통한 판매에서 농협을 통하는 계통판매로 이행되었다. 판매규모가 클수록 공판장등 공적계통보다는 수집상을 통한 판매로 이행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 임산물 판매처

임산물의 업종별 판매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육림업과 양묘업에서 임산물 판매가 없는 임가의 비중이 높았다. 업종별 판매처로 육림업은 수집상이 높고, 벌목업은 수집상, 가공업체 순으로 높다. 채취업은 개인소비자, 수집상, 산림조합의 순으로 높다. 양묘업은 수집상이 가장 높고, 재배업은 농협, 수집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9년에는 임산물 판매가 없는 업종은 육림업, 벌목업의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 판매처로 벌목업은 자가매장, 수집상이 높고, 채취업은 산림조합, 수집상, 자가매장이 높다. 양묘업은 자가매장, 수집상의 순으로 높다. 재배업은 수집상, 계통출하, 공판장의 순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판매처는 각 업종이 수집상의 비중이 높고, 채취업은 산림조합, 자가매장에서 주로 판매하고, 재배업은 공판장과 계통출하를 보이고 있다.

IV. 임산물 채취 및 재배

1. 임산물 채취

버섯열매 채취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6,797임가 중에서 송이버섯이 77.3% (5,256가구)로 가장 높고, 1999년에는 총 3,787임가 중에서 송이버섯이 86.5%(3,271가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송이버섯 채취 임가의 비율은 낮아지고 채취버섯의 종류가 다양해 졌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 채취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은 송이버섯, 기타버섯류, 도토리 5~30kg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타 열매류는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 1999년은 송이버섯, 기타 버섯류, 도토리 5~30kg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열매류가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송이버섯과 기타버섯류가 채취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기타 열매류는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산나물 채취는 2005년에는 총 4,622가구 중에서 고사리가 46.4%(2,146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나물이 23.5%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2,654임가 중에서 고사리가 43.1%(1,143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나물이 41.8%를 차지했다.

채취규모에서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고사리와 더덕이 30kg 이하 임가의 비중이 줄어들고, 30kg 이상 임가의 비중이 커져 앞서 버섯·열매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산등 값싼 외국산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청정 먹거리인 우리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좀더 채취임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약용작물 채취는 2005년에는 총 992 임가 중에서 기타 약용작물이 76.3%(757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칩(갈근)이 15.8%를 점한다. 1999년에는 총 262임가 중에서 기타 약용작물이 65.6%(172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창출(백출)이 15.6%를 점한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기타 약용작물과 칩(갈근) 채취임가의 비율이 높아지고, 창출(백출)과 음양곽 채취임가의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수액채취 임가를 보면, 2005년은 총 1974임가 중 98.2%(1,938가구)가 고로쇠를 채취한 임가였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고로쇠 채취 임가의 비율이 높아졌고 이것은 전국의 여러 곳에서 고로쇠의 재배를 통해서 수액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는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최근 임업에 있어서도 3D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하여 특히 옷은 접촉성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것으로 젊은 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반면에 옷의 가치는 천연 칠 재료로서의 가치가 높이 인식되어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채취 옷의 비중은 저조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2. 임산물 재배

산나물 재배를 보면, 2005년은 총 15,528 임가 중에서 취나물이 23.1%(3,584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더덕이 19.6%를 차지한다. 1999년은 총 5,140 임가 중에서 취나물이 41.5%(2,132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라지가 22.9%를 차지하였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취나물과 도라지 재배 임가의 비율이 낮아지고, 두릅 재배 임가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약용작물 재배를 보면, 2005년은 총 12,338 임가 중 기타 약용작물이 6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오미자와 더덕이 각각 9.6%, 9.3%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3,035 임가 중 기타가 7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두충이 17.8%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창출, 산수유, 두충의 재배 임가 비중이 감소하고, 오미자 재배 임가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0.05~0.5ha 규모의 재배임가 비율이 감소하고, 0.5ha 이상의 재배임가의 비중이 커져 재배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상작물을 보면 2005년은 총 12,768임가 중에서 조경수가 60.3%(7,696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관상작물이 30.2%를 차지한다. 1999년은 관상작물의 재배 임가 4,820가구이고, 그 중 조경수가 77.4%(3,732가구)로 가장 많고, 분재 17.3%(836가구), 야생화 5.2%(252가구)의 순이었다. 2005년에는 기타 관상식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조경수, 분재, 야생화의 3개 항목만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2005년에는 각 항목의 비중이 축소되고 반면에 기타 관상작물이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재배규모에 있어서는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조경수와 야생화는 0.1ha 이하 규모 임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0.5ha 이상의 중·대규모의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소득사업으로서 관상수와 조경수 등의 재배가 확대되어 소규모 영세 재배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산림보유규모별 밤나무 재배임가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21,465임가 중 1.0~3.0ha 규모가 37.4%(8,030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6~1.0ha 규모가 22.7%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17,227임가 중 1.0~3.0ha 규모가 34.7%(5,981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6~1.0ha규모가 15.6%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산림보유규모별 밤나무 재배 임가의 비중은 0.1~3.0ha 규모의 비중이 높아지고, 3.0ha 이상 중·대규모 산림보유임가에서의 비중은 낮아 졌다.

잣나무 재배임가를 보면, 2005년에는 총 481 임가 중 5.0~10.0ha 사이가 17.7%(85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5.0ha 사이가 16.6%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1,907 임가 중 3.0~5.0ha 사이가 26.3%(501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10.0ha 사이가 24.4%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잣나무 재배면적의 비중이 1.0~5.0ha에

서 0.5ha 미만으로 급격하게 하향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호도나무 재배임가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209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65.7%로 매우 높고, 산림보유 규모별로 1.0~3.0ha 사이의 임가가 8.5%(103가구)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794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62%로 제일 높고, 산림보유 규모별로는 1.0~3.0ha 사이의 임가가 10.1%(80가구)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재배임가는 증가하였으나 재배규모가 매우 축소되고 임가의 산림보유규모에 있어서도 비소유의 임가가 증가한데 따라 전체적으로 재배임가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대추나무 재배 임가는 2005년에는 총 7,202 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1999년에는 총 4,974 임가 중 산림을 소유하지 않은 임가가 79.9%였는데 비해서도 산림을 임대하여 대추를 재배하는 임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고버섯 재배 임가의 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6,158 임가 중 시설재배가 65.2%(4,017가구)이고 노지재배가 34.8%(2,141가구)였다. 시설재배 임가의 평균재배면적은 0.4ha이고, 노지재배의 평균재배면적은 0.5ha이었다. 1999년은 총 6,888 임가 중 산림을 소유하지 않는 임가가 59.6%로 가장 많았다. 표고재배 임가가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소규모 재배임가의 비중은 축소되고 중대규모 재배 임가의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산 건표고 등 외부적인 충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표고재배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V. 임가 및 산촌사회

1. 정보화 수준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임가는 전국임가의 40.3%(39,156가구)를 점하고, 임가당 0.4대의 컴퓨터를 보유한다. 이 중 컴퓨터를 활용하여 임업활동을 하는 임가는 12.8%로 정보화 수준이 낮아 전체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편의

생활시설 이동수단은 자동차가 가장 높다. 도보로 이동하던 자동차를 이용하던 15분 미만으로 대부분 목적지에 닿을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 15~60분의 비중이 높았다. 가장 근거리 소재하는 기관으로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며, 병의원 등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아울러 소요시간도 비교적 장시간이 많았다.

3. 주거 및 난방

2005년 임가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 91.7%로 매우 높다. 난방시설별 비중은 기름보일러가 매우 높고, 그 다음이 전기보일러의 순으로 나타난다. 연탄보일러, 연탄아궁이, 재래식아궁이 등 재래식은 많이 개선되어 매우 낮다.

4. 산촌사회

본 절에서는 2003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산촌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촌이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경제적 위치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산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산촌의 중요성과 이의 진흥을 위한 개발요소와 진흥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가. 시·군별 산촌의 분포

산촌은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은 산악지에 위치하여 평균적인 해발고가 248m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의 산촌지역 해발고의 최저값 평균과 최고값 평균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전국 163개 시·군 1,415개 읍·면 15,277개 리 중 119개 시·군 508개 읍·면 4,972개 리가 산촌에 해당된다. 시·도별로 산촌을 포함하는 읍·면은 경북, 강원이 가장 많으며 경기, 광역시가 가장 적다.

나. 산림·인구·농가수·경지 분포 현황

산촌의 전체 면적은 4,569천ha로 전 국토 면적의 45.9%에 달하며 전체 산림면적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산촌의 전체 인구는 1,870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3.9%에 불과하고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전국평균의 4.8명/ha에 비해 그 1/10에 불과한 0.4인/ha를 보여주고 있어 대표적인 인구 과소지역이다.

산촌의 총 농가는 393천호로 전국 대비 29.0%를 차지하고 전국평균 세대당 경지면적은 1.50ha/세대에 비해 1.35ha/세대로 전국평균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더욱 영세하다.

다. 산촌의 현황분석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30%, 공유림 9%, 사유림이 61%를 점하고 있어 전국평균적인

소유비율보다 국유림의 비중이 매우 높은 대신에 사유림의 비율이 낮아 산촌주민의 생활 속에 국유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촌지역 주민의 산림자원 활용은 유실수와 산나물, 임산버섯 등의 순으로 채취임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재배를 통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산촌지역은 산지구분에 있어서는 임업진흥권역이 전국 대비 77.3%를 차지하고, 전국의 임업용 산지 중 임업진흥지역이 36%에 비해 산촌지역은 임업용 산지 중 임업진흥권역은 3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 임업진흥지역은 산촌지역과 비산촌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지정되어 있다.

산촌지역 총인구는 전국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촌지역내의 남녀성비는 거의 5: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이동은 전국평균의 인구이동률이 19.3%인데 비해 산촌은 전입율은 10.7%이고 전출율은 12.2%로 전출이 많고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면 인구이동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산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중 한려해상, 한라산, 태안해안, 북한산, 변산반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제외한 14개소로 녹색관광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밝고 전체 국립공원의 95%가 산림 내에 소재하고 있어 산촌은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개발여지가 매우 높은 곳이다.

산촌지역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당 소득의 56%에 불과하고 1인당 소득도 54%인 6백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산촌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촌지역에 인구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시설과 의료문화시설이 도시 지역이나 타 농촌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산촌지역의 교육시설은 극도로 열악하여 유치원은 전국의 9%, 초등학교는 15%, 중학교는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료시설은 교육시설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의 인구구성 및 세대구성이 급속하게 노령화, 취약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령사회를 유지하고 삶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도 의료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산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25.4%에 불과하여 전국의 87.8%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수도는 더욱 열악하여 전국평균 73%의 15% 수준인 10.9%에 머물고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생활 및 산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도 전국의 2.2%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시설도 전국 대비 7.6%에 그치고 있다.

산촌지역의 도로는 전국 도로연장의 52%에 달하고 있으나 비포장도로의 대부분이 산촌에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도로 상태는 열악하다.

제8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농촌사회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경지규모, 농지구조, 임대차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지역특화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뒤, 끝으로 농촌의 변화와 관련해서 고령화, 기계화, 친환경농업화, 그리고 정보화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

지난 50년 동안 가구당 경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농가 호수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970년을 기점으로 평균 1.9%씩 해마다 줄어들어왔다. 우리나라 농민 계층분화는 네 단계를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까지의 양극 집중, 1980년대 초까지의 중농 집중, 1990년대 중반까지의 상향 집중,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양극 분화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3ha 계층의 농가 비율이 감소하고, 0.5ha 미만과 3ha 이상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논농사, 밭농사, 과수, 시설원예, 축산 등 우리나라 농업의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상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에 적응하는 이러한 대규모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동시에 농업 위기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식품 소비 양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 구조의 변화는 생산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논벼의 감소와 과수, 채소, 축산의 생산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농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농업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농지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밭 면적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벼농사를 줄이고, 채소류를 늘려가는 추세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역특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논벼의 경우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사과와 감의 경우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배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남도, 복숭아의 경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도의 경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높은 특화계수 값을 보였다. 한편 한우의 경우 경주와 홍성이, 돼지의 경우에는 홍성과 이천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업화와 전문화는 일부 대규모 농가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판매액 1억 이상 농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화성시, 남제주군, 이천시 등이었다. 지역 농가 중 1억 이상 비율이 4%를 넘는 지역도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양주시와 이천시였다.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 전체의 43%가 65세 이상으로 앞으로 심각한 농가 재생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시·군별 농가 경영자 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20개 지역은 모두 65세를 넘는 농가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최상위권의 지역은 화순, 울진, 남해, 의령, 곡성, 고흥 등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후계자율과 작은 가구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주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영농이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계화는 농기계 종류에 따라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경운기의 보유 대수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정체되었고, 특히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운기가 다른 농기계에 비교적 일찍 농가에 보급되었으며, 농가수가 감소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1970년대에 경운기 보유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점이다. 이는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경지정리와 기계화 농업의 적극 도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운기와는 달리 트랙터의 보유대수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와 경상북도로 각각 29.5%와 25.3%였다.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이 높아지고, 웰빙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의 참여도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이며,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게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시도하였다. 친환경농업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가족수, 농사경력, 경지면적, 연령, 성별, 컴퓨터 활용, 교육 정도, 생산자조직 참여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 분석을 하였다. 농사경력, 경지면적, 교육수준, 생산자조직 참여 등이 (+)의 값을 갖는 반면 가족수, 연령, 성별, 컴퓨터 사용여부 등이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사경력이 길고, 경지면적이 넓고, 교육수준이 높고, 생산자 조직에 참여할수록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가족수가 많고, 연령이 높고, 남성이고, 컴퓨터를 사용할수록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보화와 관련해서, 컴퓨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판별하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학력이 높고, 농지규모가 크고, 판매액 클수록 컴퓨터 활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 많아지면 컴퓨터 활용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총조사에 관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고,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컴퓨터 활용을 통한 농업 관련 활동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제9장 농림어업총조사 개선 방안

I. 2005년 농업총조사 조사 내용 특징

2005년 농업총조사 조사 내용은 가. 가구에 관한 사항,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다. 경지에 관한 사항, 라. 작물에 관한 사항, 마. 가축에 관한 사항, 바. 농기계에 관한 사항, 사.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아.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자. 농업정보화 현황, 차.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카. 주거에 관한 사항, 타. 기타의 12개 사항으로 구분하여 하위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내용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가 가구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경영주를 포함하여 가구원의 성별, 나이, 경영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징에 관한 문항이 적지 않다. 이는 농업총조사의 기본 목적 중 하나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 농촌의 구조를 이해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식적인 조사 목적에서도 농가 및 농가인구의 규모와 분포의 파악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생활 여건과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항목의 비중이 높다.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시설 이용 이동수단과 소요시간, 자동차 보유여부를 주거에 관한 사항으로 거주 형태, 건축년도, 난방시설, 주거시설형태를 비교적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생활여건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전 조사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농가환경의 개선과 편의 시설의 확충이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생산과 관련해서 작물과 가축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경작면적을 조사하고 후자는 현재 사육 마리 수를 종류별로 조사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용도별 구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종류별 현황 파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현재 경작하거나 사육하고 있는 면적이나 보유량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생산된 양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

넷째, 판매 관련 조사 항목으로 전체 농축산물 판매액을 범주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작물이나 가축의 품목별로 판매 유무만 조사하며 금액에 관한 조사 항목은 전혀 없다. 판매처 및 판매 경로에 관한 항목은 친환경농산물과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농축산물을 대상의 두 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섯째, 소득에 관한 조사항목이 매우 적다.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를 구분하기 위한 농업수입과 농업 이외 수입의 비교 조사항목 이외에 소득에 관한 사항은 없다.

여섯째, 농업정보화에 관한 항목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PC 보유 여부를 비롯하여 PC 농업에 활용 여부, PC 농업 활용용도, 홈페이지 개설 여부의 4개 항목으로 농업정보화 항목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의 농업총조사는 농가구조의 인구학적 특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이나 생활 여건에 조사의 강조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농업 생산, 판매 및 소득에 관한 조사 항목은 주로 총량의 파악 위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항목의 구성은 한국농업의 구조적 특성 및 농업정책의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외국 센서스의 조사 항목 및 기본 방향과 차이점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II. 해외 사례와 비교 평가

일본, 캐나다, 미국의 농업총조사를 한국과 비교해보면 무엇보다 농업총조사라고 해도 국가마다 조사 목적과 주안점에 차이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사는 무엇보다 생산, 판매, 유통의 경영의 측면을 강조한다. 농업생산물의 생산과 경작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특히 판매수입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관한 조사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생산물의 용도에 따라서 조사 내용을 세분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주로 경작규모와 생산량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판매액이나 수입에 대한 항목은 매우 제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신에 한국과 일본은 가구주의 정보에 관한 조사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나 혼인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생활환경이나 거주 환경과 같은 농촌 환경에 관한 조사항목이 특히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같은 차이는 각 국가의 농업환경이 다르고 농촌구조 또한 크게 다르며 따라서 농업정책의 방향과 주안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업총조사의 비교 결과는 이와 같은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문화와 조사 환경의 차이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수입, 판매와 같은 재정이나 경제적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 때문에 경영에 관한 구체적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조사원에 의한 조사표 전달이나 면접을 통한 조사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정체성이 명확히 필요성이 있다. 경영 측면에 비해서 인구학적 요인과 생활환경적 항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칫 혼합적 조사의 약점을 지닐 수도 있다. 동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도별 조사문항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 정기 조사와 전수 조사라는 조사 상황 때문에 새로운 문항의 도입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항의 도입과 변화에 있어서 보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화 등으로 농업경영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시계열적 수집의 목적에만 치중할 경우에 조사의 효용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새로운 측면이 조사항목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관련 타 조사나 인구총조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조사 항목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Ⅲ. 개선 제안 사항

전문가 면접을 통해서 수집된 농어업 총조사의 개선사항을 주제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번호는 조사표 상의 번호를 뜻함)

1. 농가. 임가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 배우자의 원 국적 표시 : 조사항목에 출생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거나 구체적인 국적을 선택 혹은 표기하는 방안이 있음.
 - 농촌의 국제결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농촌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어 농가원의 국적 파악이 필요함.
- 2) 경영주와의 관계에서 응답범주의 조정 : “농업고용인 등”을 “농업고용인”과 “기타”로
 - 순수 농업고용인만의 통계가 필요함
- 3) 주 종사분야 응답범주 조정 : “기타 산업”을 2~3개로 세분
 - “기타 산업”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세분화가 필요함.

3. 작물관련

- 1) 시설재배 수확작물에서 방울토마토를 토마토와 구분
- 2) 파프리카 추가

4. 가축

- 1) “개”를 독립 범주화
- 2) “꿩” 포함.

5. 농기계

- 1) 벼농사 이외 분야의 기계화 현황 파악을 위한 항목 필요
 - 벼농사 중심의 종류라서 다른 분야(축산 분야)의 기계화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2) 임업에도 기계보유 현황 필요
 - 기계톱, 관리기, 고지톱 등
 - 3) 농업용 난방기 삭제
 - 너무 수가 많고 기계화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움.
 - 4) 선별기 추가
6. 생산자 조직참여
- 1) 참여 작목반/법인의 개수를 모두 기입토록
7. 농축산물 판매
- 1) 영농형태에서(28) 양잠을 “누에”와 “뽕잎”으로
 - 원래의 양잠 의미가 사라짐.
 - 2) 판매금액(26) 응답범주 50만원미만과 50~100만원은 합치는 방안
8. 친환경농업
- 1) 친환경 수확재배작물의 구체화
 - ① 먼저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3단계로 구분하고 ② 다음 채소 작물 등으로 세분할 것
 - 2) 친환경농산물 판매처에 “생활협동조합(생협)” 유무와 중개업자인지를 구분
 - 3) 자가 판매 포함 고려
 - 자가 운영 식당 등을 포함하기 위해서
9. 농업관련 사업
- 1) 농가민박의 정의 필요
 - 팬션이 농가민박에 포함되는가의 정의가 필요
 - 2) 직판장 운영과 직거래는 분리
 - 3) 직거래를 사업으로 볼 것인지 의문
10. 농업정보화 현황
- 1) 컴퓨터 활용 응답범주에서 “농가경영분석(수입지출관리, 재고관리 등)” 포함.
- IV. 생활여건
- 1) 생활시설 이용의 이용수단의 항목에서 “기타”를 구체화(경운기, 트랙터, 이륜차 등)
 - 2005년 조사에서 기타 비율이 매우 높음.

2) 생활시설 종류를 늘일 것

예 : 공연장, 학교 등

V. 주거관련 사항

1) 건축재료에 따른 구분(목조, 콘크리트, 벽돌, 흙 등)

2) 난방시설에서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등) 첨가

Ⅲ. 임업부분

2. 육림업

1) 육림작업의 응답범주에 ① 병해충 등 방제 ②산림토목 사업(임도, 사방산업 등) 포함.

4. 양묘업

조림용 묘목이지만 조사된 내용은 모든 임목의 묘목(즉 관상수, 조경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굳이 조림용 묘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임목재배”로 하여 조림용과 관상수용으로 구분하여 이 항목에서 조사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음(뒤에 임산물 재배의 관상작물이 조경수와 중복 조사될 수 있음).

관상작물 : 분재소재, 야생화, 잔디 등

5. 임산물 재배

1) 기타 약용작물에 포함된 구기자, 장뇌를 독립범주화

통계청 연구용역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2007년 11월

대한통계협회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방법 및 내용	1
2. 연구효과	5
제2장 농어업총조사 개관	6
I. 연역	6
II. 2005년 농어업총조사	7
1. 조사내용	7
2. 2000년도와 조사내용 비교	9
3. 농가 정의와 변화	13
제3장 한국 경제와 농림어업의 구조변화	15
I.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	15
1. 이론적 검토	15
2. 세계화와 농업 변화	16
II. 국내 총생산·고용과 농림어업	18
1. 국내 총생산과 농림어업	18
2.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21
제4장 농림어가 인구와 가족	24
I. 농림어가의 인구	24
1. 농림어가 인구변화 : 1980~2005	24
2. 농림어가 인구의 특성변화	35
3. 농가인구의 장래전망	47
4. 요약	54
II. 한국 농림어가의 가족	57
1. 분석의 주안점	57
2. 농가의 가족구조	63
3. 어가의 가족구조	80
4. 임가의 가족구조	87
5.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비교분석	92

제5장 농업의 구조와 변화	98
I. 농업구조의 개념과 한국농업	98
II. 농가수의 변화와 신규농가의 성격	100
1. 농가수의 변화	100
2. 신생농가의 성격	101
III.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105
1. 총경지 규모와 경지이용 형태	105
2. 농가의 경지면적과 그 변화	106
3. 농가의 농지소유와 임대차 현황	112
4. 경영의 집중화 경향	116
IV. 농가의 영농 및 사업형태	118
1. 농가의 영농형태와 그 변화	118
2. 친환경농업의 보급과 친환경농가의 특성	123
3. 농가의 농외취업 활동과 그 변화	125
4. 농가의 농관련 사업 실태	128
V. 농업경영주의 특성과 그 변화	129
1. 농업경영주의 특성과 그 변화	129
2. 영농승계자의 확보와 승계자의 특성	130
VI. 농업의 기계화와 농작업 위탁실태	131
1. 농가의 농기계 보유 실태와 그 변화	131
2. 농가의 농작업 위탁 실태와 그 변화	133
VII.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농산물 판매	135
1. 농업생산의 조직화 실태와 그 변화	135
2. 농가의 농산물 판매실태와 그 변화	137
3. 농가의 농산물 판매처	139
제6장 어업구조의 변화	141
I. 어업의 개념과 어업총조사	141
1. 어업의 개념	141
2. 어업총조사의 의의 및 한계	143
II. 어업형태 변화	145
1. 전·겸업별 어업형태	145
2. 경영주 어업종사분야의 변화	147
3. 성별·연령별 어업형태	149

III. 잡는 어업의 변화	150
1. 근해어업	151
2. 연안어업	152
3. 구획·맨손어업	153
IV. 기르는 어업의 변화	154
1. 양식품종의 변화	154
2. 양식방법의 변화	157
3. 양식규모의 변화	158
V. 어선어업의 변화	159
1. 어선보유형태	159
2. 어선 규모	162
VI. 생산조직의 변화	163
1. 생산조직	163
2. 유통구조	166
3. 상품형태	168
제7장 임업구조의 변화	169
I. 임업구조의 개념과 변화	169
1. 임업구조의 개념	169
2. 임업총조사에 의한 임업구조의 변화	170
II. 임업경영실태	172
1. 산림소유 규모와 경영형태	172
2. 경영형태별 특성	176
III. 임가 및 경영주 실태	193
1. 임가의 구성	193
2. 경영주 특성	197
3. 임가의 인구학적 특성	202
IV. 임산물 생산 및 판매	207
1. 임산물 판매금액	207
2. 임산물 판매처	210
V. 임산물 채취 및 재배	212
1. 임산물 채취	212
2. 임산물 재배	219
VI. 임가 및 산촌사회	237

1. 정보화 수준	237
2. 생활편의	239
3. 주거 및 난방	240
4. 산촌사회	243
제8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256
I. 농지 구조의 변화와 농민층 분화	256
1. 이론적 쟁점	256
2. 농지 규모와 농민계층분화	257
3. 농지 임대차와 위탁영농	258
II. 농업의 지역특화와 분화	259
1. 이론적 쟁점	259
2. 지역농업구조의 동향	260
3. 지역농업구조 변화의 특징	272
III.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273
1. 고령화와 농촌사회	273
2. 기계화와 농촌사회	275
3. 친환경농업과 농촌사회	277
4. 농업정보화와 농촌사회	280
5. 지역사회와 생활여건	282
제9장 농림어업총조사 개선 방안	284
I. 해외 농업총조사 사례 분석	284
1. 일본	284
2. 미국	289
3. 캐나다	292
4. 평가와 개선점	296
II. 한국의 농업총조사 : 평가와 개선점	298
1. 2005년 농업총조사 조사 내용 특징	298
2. 해외 사례와 비교 평가	299
3. 개선 제안 사항	300
〈참고문헌〉	303

〈부록〉 주요 국가의 농업총조사 조사표	307
1. 일본 농업총조사(2005년도) 조사표	
2. 미국 농업총조사(2007년도) 조사표	
3. 캐나다 농업총조사(2006년도) 조사표	

표 목 차

<표 2-1> 시기별 농업총조사의 명칭과 의의	6
<표 2-2> 2005년도 농업총조사 조사 항목	7
<표 2-3> 2005년도 농업총조사 조사 항목의 변화(2000년과 비교)	10
<표 2-4> 조사별 농가의 정의	13
<표 3-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추이(경상가격)	19
<표 3-2>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21
<표 4-1> 농림어가 총인구의 변화, 1980~2005	24
<표 4-2> 주요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1980~2005	26
<표 4-3>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 1980~2005	30
<표 4-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비교, 2005	31
<표 4-5>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변화, 2000 및 2005	37
<표 4-6> 성·교육정도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50~59세, 2000 및 2005	39
<표 4-7>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2005	41
<표 4-8> 성 및 혼인상태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	44
<표 4-9> 농가인구의 주종사분야별 인구구성비, 2005	46
<표 4-10> 농가인구의 농업종사기간별 인구구성비, 2005	47
<표 4-11> 성·연령별 장래 농가인구추계, 2005~2020	49
<표 4-12> 전국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의 변화, 1980~2020	51
<표 4-13> 농가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005~2020	53
<표 4-14> 세대구성의 변화 : 1975~2005	59
<표 4-15>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 : 1975~2005	60
<표 4-16>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62
<표 4-17> 연도별 농가수 변화 : 1960~2005	63
<표 4-18> 지역별 농가수 분포 변화 : 1960~2005	64
<표 4-19> 가구원수별 농가분포의 변화 : 1990~2005	66
<표 4-20>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67
<표 4-21>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67
<표 4-22>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68
<표 4-23> 세대별 농가구성의 변화 추이 : 2000~2005	69
<표 4-24> 전국 일반가구와 농가의 가족유형 비교 : 2005	70

<표 4-25> 가족유형별 농가구성 변화 추이 : 2000~2005	72
<표 4-26> 전국 일반가구와 농가구성의 비교 : 2005	74
<표 4-27> 연도별 농가 가족유형의 변화추세 : 2000~2005	75
<표 4-28>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변화 : 2000~2005	76
<표 4-29> 경영주 연령에 따른 농가특성 변화 : 2005	77
<표 4-30> 여성 경영주 가구의 연령별 분포	77
<표 4-31> 연령별 여성경영주 혼인상태 분포 : 2005	78
<표 4-32> 영농승계자 보유현황 변화 : 2000~2005	78
<표 4-33>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취학현황	80
<표 4-34> 연도별 어가수 변화 : 1960~2005	80
<표 4-35> 지역별 어가수 분포 변화 : 1970~2005	81
<표 4-36>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82
<표 4-37> 가구원수별 어가분포의 변화 : 2000~2005	82
<표 4-38>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83
<표 4-39>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83
<표 4-40> 세대별 어가구성의 변화 추이 : 2000~2005	84
<표 4-41> 가구형태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85
<표 4-42> 연도별 어가 가족유형의 다양화 추세 : 2000~2005	86
<표 4-43> 지역별 임가 분포 변화 : 2005	87
<표 4-44>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88
<표 4-45>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89
<표 4-46> 가구형태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90
<표 4-47> 임가 가족유형의 다양화 추세 : 2005	91
<표 4-48> 연령별 임가구성 다양화 분포 : 2005	92
<표 4-49>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94
<표 4-50>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94
<표 4-51> 연령별 1인가구 비교 : 2005	95
<표 4-52> 유형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96
<표 4-53> 가족유형 다양화 비교 : 2005	96
<표 5-1> 농업 관련지표 세부지표 구분과 출처	99
<표 5-2> 지역별 농가분포 추이	101
<표 5-3> 신규 경영주의 경작규모 분포	102
<표 5-4> 신규 경영주의 연령별 평균 경작규모	103
<표 5-5> 경영주 경력별 농가의 거주 지역 2005	103

<표 5-6>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의 특성별 분포	104
<표 5-7> 경작면적의 변화추이	105
<표 5-8>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및 연평균 변화율	107
<표 5-9> 대규모 경작농가수 추이	108
<표 5-10> 경지규모별 가구원수의 규모, 2005	109
<표 5-11>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09
<표 5-12> 노령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2005	110
<표 5-13> 전겸업별 농가의 경지규모 분포 비율 및 평균 경작규모(2005년)	111
<표 5-14> 경영주의 성별 경작규모 분포	111
<표 5-15> 경작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귀분석)	112
<표 5-16> 임차농가 비율과 평균 임차지 및 소유지 규모	113
<표 5-17> 경지규모별 임차지비율과 임차지 면적	113
<표 5-18> 논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귀분석)	115
<표 5-19> 밭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귀분석)	115
<표 5-20> 논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116
<표 5-21> 밭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117
<표 5-22> 경영규모별 농가수 및 면적 누적분포	117
<표 5-23> 축산규모별 농가비율 및 두수 비율	118
<표 5-24> 영농 형태별 농가 분포	119
<표 5-25> 채소류 시설농가 분포	119
<표 5-26> 과수류 품목별 농가 분포	120
<표 5-27> 축종별 농가 분포	120
<표 5-28> 영농형태별 농가의 판매규모별 비율	121
<표 5-29>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2005)	122
<표 5-30>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작규모 비교	124
<표 5-31>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영주 평균 연령	124
<표 5-32>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전·겸업 현황	125
<표 5-33>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판매처 비교	125
<표 5-34> 전·겸업별 농가 분포	127
<표 5-35>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별 평균 경작면적	128
<표 5-36> 농가의 농관련 사업 참여 실태	129
<표 5-37>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129
<표 5-38> 경영주 연령별 경영주의 성	130
<표 5-39> 영농승계자 확보농가 추이	131

<표 5-40> 주요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	132
<표 5-41>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및 위탁영농 비율	133
<표 5-42> 주요 벼농사 작업의 위탁영농 비율(2005년)	134
<표 5-43> 경영주 연령별 주요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비율(2005년)	135
<표 5-44> 영농형태별 법인참여 농가비율	136
<표 5-45> 농가판매 규모별 농가 분포	137
<표 5-46> 취약농가의 농산물 판매액 비중(2005년)	138
<표 5-47> 65세 이상 고령층의 농산물 판매 실태(2005년)	139
<표 5-48> 농가판매 규모별 판매처	140
<표 6-1> 제도별 어업형태	143
<표 6-2> 연차별 어업총조사의 개요	144
<표 6-3> 전·겸업별 어가의 변화 : 1990~2005	145
<표 6-4> 전·겸업별 어가의 변화 : 2005	146
<표 6-5> 전·겸업별 어업형태 : 2005	146
<표 6-6> 경영주의 어업형태의 변화 : 1990~2005	147
<표 6-7> 어업종사기간별 어업형태 : 2005	148
<표 6-8> 지역별 어업형태 : 2005	148
<표 6-9> 성별 어업종사원 : 2005	149
<표 6-10> 경영주의 연령별 어업종사분야 : 2005	150
<표 6-11> 지역별 어업형태 : 2005	151
<표 6-12> 어로방법의 변화-근해어업	152
<표 6-13> 어로방법의 변화-연안어업	153
<표 6-14> 어로방법의 변화-구획어업	154
<표 6-15> 기타-신고어업(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 2005	154
<표 6-16> 어업형태의 변화-양식어업	155
<표 6-17> 양식품종의 변화-어류양식	156
<표 6-18> 양식품종의 변화-패류양식	156
<표 6-19> 양식품종의 변화-해조류양식	157
<표 6-20> 양식방법의 변화	158
<표 6-21> 양식규모의 변화 : 1990~2005	158
<표 6-22> 어선어업 어가의 변화 : 1990~2005	160
<표 6-23> 지역별 동력선 보유어가 : 1990~2005	160
<표 6-24> 지역별 무동력선 보유어가 : 1990~2005	161
<표 6-25> 규모별 어선 보유어가 : 1990~2005	162

<표 6-26> 지역별 톤수별 동력어선 : 2005	163
<표 6-27> 생산조직 참여여가의 변화	164
<표 6-28> 지역별 생산조직 참여율 : 2005	164
<표 6-29> 지역별 생산조직 참여유형 : 2005	165
<표 6-30> 유통구조의 변화	166
<표 6-31> 어업형태별 유통현황 : 2005	167
<표 6-32> 지역별 유통형태 : 2005	167
<표 6-33> 상품형태의 변화 : 2000~2005	168
<표 7-1> 임업총조사(1999)와 농림업총조사(2005)의 차이	171
<표 7-2> 전·겸업별 임가	173
<표 7-3> 산림보유면적별 임가 및 산림면적	175
<표 7-4> 육림작업별 임가	178
<표 7-5> 벌목면적 규모별 임가 및 벌목면적	180
<표 7-6>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	182
<표 7-7>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및 묘포장면적	184
<표 7-8> 묘목재배본수별 임가	186
<표 7-9>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	189
<표 7-10>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	191
<표 7-11> 가구원수별 임가	194
<표 7-12> 임업종사 가구원수별 임가	195
<표 7-13> 경영주 연령별 임가	198
<표 7-14> 경영주 교육정도별 임가	200
<표 7-15> 연령계층 및 성별 임가 인구	202
<표 7-16> 15세 이상 주종사분야별 임가 인구	203
<표 7-17> 15세 이상 임업종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	205
<표 7-18> 임산물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별 임가	208
<표 7-19> 임산물 판매금액별 임가	210
<표 7-20> 임산물 판매처별 임가	211
<표 7-21>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12
<표 7-22>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14
<표 7-23>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16
<표 7-24> 수액채취 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218
<표 7-25>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20
<표 7-26>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22

<표 7-27>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24
<표 7-28> 기타 유실수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25
<표 7-29>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27
<표 7-30>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29
<표 7-31>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31
<표 7-32> 대추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34
<표 7-33> 표고버섯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236
<표 7-34> 정보화 현황 및 자동차 보유(2005)	238
<표 7-35> 생활시설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별 임가(2005)	239
<표 7-36> 문화용품 및 시설별 임가수(1999)	240
<표 7-37> 난방시설별 임가(2005)	241
<표 7-38> 주거시설형태별 임가(2005)	242
<표 7-39> 산촌이 분포하는 읍·면	243
<표 7-40> 산촌지역의 자연, 인적자원	244
<표 7-41> 시·도별 산촌의 산림면적	245
<표 7-42> 시·도별 산촌의 인구분포	245
<표 7-43> 시·도별 산촌의 농가수 및 경지면적	246
<표 7-44> 산촌의 산림자원	247
<표 7-45>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248
<표 7-46> 농지 및 산지의 이용	249
<표 7-47> 세대 및 인구	249
<표 7-48> 시·도별 산촌지역 총인구 변화 추이	250
<표 7-49> 연령별 인구 분포	251
<표 7-50>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자원	251
<표 7-51> 평균소득 현황	252
<표 7-52> 주 소득 작목	252
<표 7-53> 농림용 기구기계 현황	253
<표 7-54> 교육시설	253
<표 7-55> 의료 및 복지시설	254
<표 7-56> 상·하수도 및 분뇨·쓰레기 시설	255
<표 7-57> 도로 교통	255
<표 8-1> 경지규모별 임차지 비율 변화	258
<표 8-2> 논 경영규모별 임차비율	259
<표 8-3> 경영주 연령별 벼농사 위탁영농(전부 위탁) 비율 : 2005	259

<표 8-4> 시·군별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비율, 상위 20위	260
<표 8-5> 시·군별 논 면적 순위(상위 20위)	262
<표 8-6> 시·군별 밭 면적 순위(상위 20위)	264
<표 8-7> 시·군별 과수원 면적, 상위 20위	265
<표 8-8> 논벼의 연도별 지역 특화계수	266
<표 8-9> 사과와 지역특화계수	267
<표 8-10> 배의 지역특화계수	267
<표 8-11> 복숭아의 지역특화계수	268
<표 8-12> 포도의 지역특화계수	268
<표 8-13> 시·군별 한우 사육두수(상위 20위)	269
<표 8-14>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상위 20위)	270
<표 8-15> 농산물 판매액 1억원 이상 농가의 시·군별 분포(상위 20위)	271
<표 8-16> 시·도별 농민 연령구조	273
<표 8-17> 시·군별 경영자 65세 이상 비율, 상위 20	275
<표 8-18> 지역별 경운기 보유 현황 및 증가율	276
<표 8-19> 지역별 트랙터 보유현황 및 증가율	277
<표 8-20>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및 품목별 농가수 변화	278
<표 8-21>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처별 농가수	278
<표 8-22> 지역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및 품목	279
<표 8-23> 친환경농업 실시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280
<표 8-24> 지역별 정보화 현황	281
<표 8-25> 컴퓨터 활용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282
<표 8-26> 읍면동사무소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283
<표 8-27> 금융기관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283
<표 8-28> 병의원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283
<표 9-1> 2006년과 2001년의 조사 내용 변화(캐나다)	296

그림 목 차

<그림 3-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추이	20
<그림 3-2>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 추이	23
<그림 4-1>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 1980~2005	27
<그림 4-2> 일반농촌(1995, 2005)	28
<그림 4-3> 농림어가 인구와 읍면부 인구구조 비교, 2005	28
<그림 4-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32
<그림 4-5> 시·군·구별 농가 인구분포, 2005	33
<그림 4-6> 시·군·구별 어가 인구분포, 2005	34
<그림 4-7> 시·군·구별 임가 인구분포, 2005	35
<그림 4-8>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비교, 2005	38
<그림 4-9>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비교, 50~59세, 2005	40
<그림 4-10>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비교, 2005	42
<그림 4-11>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 ..	44
<그림 4-12> 장래 농가인구의 구조변화, 2005~2020	52
<그림 4-13> 여성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05. 12월 기준)	79
<그림 4-14> 농림어업 가구수의 변화 : 1970~2005	93
<그림 5-1> 농업구조 관련지표의 구분	98
<그림 5-2> 경지규모별 농가수	108
<그림 5-3>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110
<그림 5-4> 경지규모별 임차지 면적	114
<그림 5-5> 경영주 연령별 임차지 면적	114
<그림 5-6>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2000년)	122
<그림 5-7>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2005)	123
<그림 8-1>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 분포	261
<그림 8-2> 논벼 수확 면적의 시·군별 분포	263
<그림 8-3> 시·군·구별 고령 경영주의 비율	274
<그림 9-1> 2005년 농림업 센서스 통합체계	285

제1장 서론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농림어업관련 상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농업총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조사되어 온 총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총조사는 제7회 농업총조사, 제6회 어업총조사 및 제2회 임업총조사에 해당된다.

1990년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 및 본격적으로 농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농림어업 및 농촌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농림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결과에 의하면 총가구수는 1,454천 가구로 5년 전보다 5.3% 감소하였으며, 인구는 3,931천명으로 같은 기간에 11.9%가 감소하였음. 전국 전체 가구와 인구에 대한 비중은 각각 9.2%와 8.3%에 해당됨. 같은 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농림어업부문의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4%(한국은행의 2005년도 국내 총생산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농림어업분야의 실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림어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농림어업가구의 현황과 농림어업 관련 활동에 대한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림어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1. 연구방법 및 내용

통계청에서 매 10년(199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농림어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농림어업 구조, 농림어가의 현황 및 농촌사회에 대한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미래의 농림어업 및 농촌사회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림어가의 가족구조와 인구, 농림어가의 노동력, 토지이용, 농림어업의 생산 및 경영구조 등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농림어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농림어업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관련지표(인구, 가구, 경영, 생산, 유통 등)를 정리하여 그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농가의 노동력, 토지이용, 농업생산 및 경영구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농림어업, 농어가, 농촌사회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탐구를 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의 지역별 특화현상을 분석하고 농어가 및 농촌 지역에 대한 유형화하였다.

총조사 항목의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 분석하며, 농림어업 및 농촌사회의 변화를 반영

하고 농어촌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정책관련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검토하며 총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가. 경제성장과 농업(임업, 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구성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선진사회는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과거 다산다사형 인구구조로부터 소산소사형 인구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미 이 단계에 들어 왔으며, 그 동안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은 도시로 농촌인구의 이동을 촉발함으로써 전체 인구 중 농촌 및 농림어업인구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농업선진국의 경우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1~2%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인구 역시 수출위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생산적인 농촌인구를 흡인함으로써 전체인구 중 농림어업인구의 비율 감소는 물론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취학 및 취업을 위해 청장년 층 농림어가인구가 유출되고 여성의 농촌기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과 젊은 세대의 성비가 크게 높아졌다. 지역별 편차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특히 지역별로는 세대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림어업생산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로서 활력을 상실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공업용 토지, 도로 및 주거지용 토지의 확대 등으로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외연적 확대에 의한 토지의 집단적 전용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량농지의 전용이 총 농지면적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농림어업은 소비재 내수시장의 형성, 생산적 노동인구의 공급, 식품의 공급 등으로 경제성장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지향적 공업발전과정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에 농업이 경제성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문제, 도시문제의 심화, 웰빙과 같은 대안적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문화가 확산되면서 농림어업은 안전한 식품 공급, 풍요로운 자연이 제공하는 쾌적함의 제공, 국토의 균형발전과 같은 농림어업이 가진 비교역적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은퇴 후 농어촌 정착 희망자의 확산 등 농림어업,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농어촌 사회의 변화와 농림어가의 생산활동 및 그 변화를 국가간의 식량생산과 유통실태, 주민의 생활문화 변화 등의 외적 요인들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농림어업구조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장래 구조조정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나. 우리나라 농업(임업, 어업) 구조의 변화 분석

우리나라 농림어업구조분석을 위해 관련지표를 체계화(분류 및 지표)하고, 이들 지표의 변화(지역 및 시간적 변화)를 분석하여, 지표간의 특징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광의의 관점에서는 농림어업구조는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농림어업의 산업적 구조를 의미하지만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농지(임야 등)와 농림어업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결합되는 관계의 양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정책적으로 농림어업구조라는 용어는 주로 개별 농림어가에서의 농지(임업의 임야, 어업의 경우에는 다른 생산수단)와 농림어업노동력이 결합되어 전체 농림어업생산을 특징짓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농림어가단위의 생산요소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농림어가의 노동력 구성, 농지(임야 등)소유 및 이용형태(임대차), 주요 재배작물 및 사육 축종, 주요 생산수단(농기계 등)을 검토하고, 농림어업구조변화의 현황과 추세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림어가의 가족형태의 변화, 농림어가 인구의 성·연령별 구조와 농림어업종사자와 농림어업경영주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장래 농가 인구를 예측하여 농업중심 농촌사회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농업생산 규모 및 이용의 측면은 경종농가를 중심으로 논 및 밭농사의 경작규모별 농가분포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작규모별 농가의 분포는 농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들어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농가의 비중 역시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농민층분해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생산에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농가들이 분화되어 가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작규모별 농가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농민층의 분화현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업화를 계기로 농민층이 분화되는 현상과 더불어 자급적 성격의 농가특성을 파악하여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농촌에 잔존하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림어가의 친환경 농수산물의 품목별 수확(생산)량과 판매처를 살펴보고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림어가의 특성과 생산지역의 특화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농림어업 총조사의 주요 지표(경작규모, 판매규모, 생산품목 등)를 중심으로 농림어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농림어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병행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이에 주목하였다. 지역별 차이는 농림어업생산의 지역특화 정도를 품목별로

파악하고, 동시에 지역특화 정도를 시계열로 파악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지역집중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자료는 시군구별 인구 중 농림어가인구비율, 전업 또는 겸업농림어가비율, 논농사비율 등 농어촌지역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 우리나라 농림어업구조의 변화요인 분석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에 따라 농림어업의 역할은 저임금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낮은 가격의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 UR협상 이전부터 서서히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낮은 농수산물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상층농어의 형성이 저지되고 도농격차로 인한 이촌향도형 농림어업인구의 유출로 인구의 고령화와 농지(임야, 갯벌 등)의 비농업적 전용으로 인해 농림어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이은 WTO체제의 확립 등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전면화되면서 정부는 생산성있는 농림어를 중심으로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고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과의 FTA가 추진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림어업은 위기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일련의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농림어업구조 변화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장래 농림어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나라 농림어업정책의 기초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라. 향후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진로와 정책제언

향후 우리나라 농림어업은 농수산물 수입의 전면적 개방으로 인한 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수산물생산과 유통의 전문화를 통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농수산물수확 이후의 유통, 가공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후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로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자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상호신뢰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조달하여 판매하는 농수산식품체계에 대항하여 지역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매개로 한 새로운 농수산식품생

산체계, 지역농수산물식품체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활로를 찾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분석으로 지역별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구총조사와 각종 지역통계를 이용하여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농수산물식품체계의 확립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

농림어업과 농어촌사회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 -농림어가의 정보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외국인 이주자 결혼자 및 이주자 고용 여부 등- 를 개발하여 다음 총조사에 반영하도록 제시하였다.

농촌체험시설 수 및 경영농가와 이용자 수, 산림휴양시설, 삼림욕장 시설 수 및 이용자 등 농림어업부문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발굴하고, 중기국가통계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 농어촌지표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조사항목을 제시하였다.

농림어업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림어업총조사의 개선과 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연구효과

농림어업총조사결과를 이용한 농림어가 및 인구에 대한 종합분석 및 시계열 분석으로 우리나라 농어촌발전의 기초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UR, FTA 등으로 농림어업구조조정에 따라 농림어업부문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최근 농림어업환경변화에 따라 장래 농림어업총조사의 발전에 필요한 제안(지표설정, 조사항목 변경 또는 추가 및 조사방법의 개선)으로 총조사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 농어업총조사 개관

I. 연역

우리나라의 농업총조사는 1960년 ‘농업국세조사’라는 명칭으로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하여 2000년까지 10년 주기로 실시하여 왔으며, 1995년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제5차 농업총조사를 특별히 5년만에 실시하였다.

농업총조사는 1995년까지 농림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 업무가 통계청에 이관됨에 따라 2000년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부터 농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총 조사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농업총조사는 1) 농업정책 수립·평가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2) 농업관련 학술연구 및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모집단 자료 확보 3)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소지역 자료 생산 4) 국제간 자료 교류 및 분석을 통한 농업부문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공식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의 농업총조사는 지난 1980년 1차 농업국세조사 실시 이후 새로운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내용과 항목을 매년 수정해 오고 있는데 조사 항목과 내용의 변천은 우리나라 농업구조 및 농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0년 이후 정보화 현황과 친환경농업 항목을 포함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표 참조). 특히 2000년 이후 통계청으로 조사기관이 이관된 이후 어업총조사와 통합실시하고 2005년에는 임업과 통합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어업 구조와 변화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기대되고 있다.

<표 2-1> 시기별 농업총조사의 명칭과 의의

명 칭	조사기준일	의의 및 특징
제1차 농업국세조사	1960.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회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여 농업통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
제2차 농업센서스	1970.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결과를 읍·면별로 집계 및 공표
제3차 농업조사	1980.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을 지역실정과 농업부문에 정통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4H 회원 중에서 선발
제4차 농업총조사	1990.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5. 12. 1(간이농업조사) : 표본조사실시 영농형태, 농지임차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명 칭	조사기준일	의의 및 특징
제5차 농업총조사	1995.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정의를 판매금액 기준으로 변경 ▪ 농축산물 판매금액 및 방법 등 항목 추가
제6차 농업총조사	2000.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7. : 작성기관 변경(농림부 → 통계청) ▪ 통계청으로 이관 후 처음 실시 ▪ 어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 친환경농업, 농가의 정보화 현황 등 미래지향적 항목 추가
제7차 농업총조사	2005.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및 어업총조사와 통합 실시 ▪ 혼인상태, 농업관련사업 등 농가인구의 특성,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 파악을 위한 항목 추가

II. 2005년 농업총조사

1. 조사내용

2005년 농업총조사 조사 내용은 가. 가구에 관한 사항,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다. 경지에 관한 사항, 라. 작물에 관한 사항, 마. 가축에 관한 사항, 바. 농기계에 관한 사항, 사.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아.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자. 농업정보화 현황, 차.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카. 주거에 관한 사항, 타. 기타의 12개 사항으로 구분하여 하위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표 참조).

<표 2-2> 2005년도 농업총조사 조사 항목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1. 가구에 관한 사항	(1) 전·겸업 구분	
	(2) 영농형태	농업수입이 가장 많은 농업형태 : 논벼, 과수, 특용작물, 채소,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양잠 기타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성명	
	(2) 성별	
	(3) 나이	
	(4) 경영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농업고용인 등
	(5) 교육정도	학교별 졸업, 재학, 중퇴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6) 혼인상태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7) 주 종사분야	지난 1년간 주 종사 분야 : 농업, 어업, 임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산업, 종사하지 않았음.
	(8) 농업 종사기간	지난 1년간 농업이 종사한 기간 :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9) 농업이외의 종사기간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 :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10) 경영주 농사경력기간	
	(11) 영농승계자	자녀·손자녀 중 영농승계자
3. 경지에 관한 사항	(1) 논 면적	자기 논, 남의 논, 이모작 논, 경지 정리된 논
	(2) 밭 면적	자기 밭, 남의 밭
	(3) 과수원 면적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뽕은 감, 감귤, 자두, 참다래, 매실, 살구, 유자, 기타
	(4) 목초지 면적	
4. 작물에 관한 사항	(1) 노지재배 수확작물 면적 및 판매여부	논벼, 걸보리·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대파, 마늘, 참깨, 인삼
	(2) 노지재배 판매작물 면적	양배추, 시금치, 상추, 쪽갓, 오이, 수박, 호박, 당근, 들깨, 땅콩, 화훼 기타
	(3) 시설면적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기타 시설
	(4) 시설재배 수확작물 면적	무, 배추, 시금치, 상추, 토마토, 오이, 딸기, 수박, 참외, 호박, 고추, 대파, 서양채소, 포도, 감귤, 메론, 버섯, 감자, 화훼 기타
	(5) 시·군·구 작물 재배면적 및 판매여부	
5. 가축에 관한 사항	(1) 축종별 사육마리수	한·육우, 젖소암컷, 돼지, 멧돼지, 산란계, 육계, 젖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곰, 고라니, 기타의 사육마리 수
6. 농기계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보유대수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관리기, 건조기, 이앙기, 과수원용 SS 분무기, 농업용 난방기의 보유대수
	(2) 논벼 농사방법 및 위탁여부	벼모판 작업,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 베기/탈곡별 위탁 여부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7.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1) 농축산물 판매금액	1년 동안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
	(2) 농축산물 주 판매처	
8.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	(1) 친환경재배 수확작물 재배면적 및 재배방법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게 사용한 친환경농산물 :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작물별 수확면적 및 재배방법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2) 친환경농산물의 주 판매처	
9. 농업정보화 현황	(1) PC 보유 여부	
	(2) PC 농업에 활용 여부	
	(3) PC 농업 활용 용도	농업정보수집, 농축산물 판매, 주말농원·민박 안내 등 농촌관광, 기타 농업에 활용
	(4) 홈페이지 개설 여부	
10.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1) 생활시설이용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병·의원 이동 수단과 소요시간
	(2) 자동차 보유 여부	승용차(10인승 이상), 승합차(11승 이상) 화물 및 기타, 없음.
11. 주거에 관한 사항	(1) 거주형태	단독, 아파트, 다세대, 비거주용 주택 이외의 거주
	(2) 건축년도	
	(3) 난방시설	중앙난방, 지역난방,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프로판가스,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연탄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4) 주거시설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부엌 : 입식, 재래식, 없음. 수도 : 상수도, 마을상수도, 자가수도, 없음. 화장실 : 수세식, 재래식, 없음. 목욕시설 : 온수시설, 비온수시설, 없음.
12. 기타	(1) 생산자조직 참여현황	작목반(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화훼, 기타)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활동여부
	(2) 농업관련사업	직판장·직거래, 농가식당, 농산물 가공업, 농가민박, 주말농원·관광농원 사업

2. 2000년도와 조사내용 비교

2005년도 조사 내용을 2000년도와 비교함으로써 2005년도 조사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2005년도 조사 항목의 대 분류 주제에서 2000년도와 큰 변화는 없지만 주제별로 일부 항목이 새로 도입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목으로는 1) 생활시설이용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2) 주거 시설 형태에서 화장실과 목욕시설 3) 농업관련 사업 4) 혼인 상태 등이다. 생활시설 이용 관련 항목은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병·의원의 생활편의 시설의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으로 농촌생활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의미가 있다. 주거 시설에서 새로 추가된 화장실과 목욕시설에 관한 항목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농업관련 사업 항목의 추가는 농업사업활동이 점차 다양화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동일한 조사 항목의 응답 범주가 바뀐 경우는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주거에 관한 사항에서 응답 범주가 보다 세분화되고 새로운 범주가 추가되었다 2) 농업경영에서 농업관련 사업에 관한 응답 범주가 추가되었다. 3) 새로운 경작 작물이나 사육 가축이 추가되었다. 4) 유기농에 대한 규정 변화이다.

응답 범주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주거관련 응답범주의 변화로 거처 형태, 건축년도, 난방 시설 등에서 새로운 응답 범주가 추가되거나 세분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주거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업관련 사업에 관한 항목과 범주의 추가는 판매처나 경로의 범주가 첨가, 세분화되었고 사업 형태로 관광과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농업경영이 전통적인 경작과 사육에서 판매, 가공, 관광 등의 영역으로 다각화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세 번째 작물과 가축 종류의 첨가와 삭제는 특정 농산물의 생산량과 판매량의 변화에 의한 것인데 2005년도 조사항목에서는 삭제보다 첨가되거나 세분화된 종류가 많다. 넷째 유기농에 대한 정의는 2000년 조사에서는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것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년 재배한 것으로 규정을 현실화하였으며 유기농 판매처도 소비자 단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첨가하였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 이외에도 가구원 정보에서는 농업종사기간 농업 이외 종사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 정보를 파악코자 한 것도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이다.

<표 2-3> 2005년도 농업총조사 조사 항목의 변화(2000년과 비교)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1. 가구에 관한 사항	(1) 전·겸업 구분	<동일>
	(2) 영농형태	한·육우 → 한우와 육우, 젃소 → 젃소암컷, 닭 → 산란계와 육계로 구분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1) 성명	<동일>
	(2) 성별	<동일>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3) 나이	생년월일 관련 항목 <삭제> 집에서 지낸 생일 <추가>	
	(4) 경영주와의 관계	<동일>	
	(5) 교육정도	학교별 졸업, 재학, 중퇴로 <구분>	
	(6) 혼인상태	<신규>	
	(7) 주 종사분야	임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산업 <추가> 가사, 학생, 군인, 무직 등 → “종사하지 않았음”의 범주로 <변경>	
	(8) 농업 종사기간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종사여부 →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으로 세분화	
	(9) 농업 이외 종사기간	지난 1년간 농업 이외의 일에 종사여부 →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으로 <구분>	
	(10) 경영주 농사경력기간	<동일>	
	(11) 영농승계자	<동일>	
	3. 경지에 관한 사항	(1) 논 면적	수리불안전 논 <삭제>
		(2) 밭 면적	<동일>
(3) 과수원 면적		살구, 유자 <추가> 대추 <삭제>	
(4) 목초지 면적		<동일>	
4. 작물에 관한 사항	(1) 노지재배 수확작물 면적 및 판매여부	<동일>	
	(2) 노지재배 판매작물 면적	- 토마토 <삭제> - 양배추, 수박, 호박 <추가>	
	(3) 시설면적	비닐하우스 → 자동화 비닐하우스와 비닐온실하우스로 구분	
4. 작물에 관한 사항	(4) 시설재배 수확작물 면적	호박, 대파, 서양 채소 <추가> 양채류 <삭제>	
	(5) 시·군·구 작물 재배면적 및 판매여부	<동일>	
5. 가축에 관한 사항	(1) 축종별 사육마리수	- 멧돼지, 곰, 고라니 <추가> - 한·육우 → 한우, 육우 <구분> - 닭 → 산란계와 육계로 <구분>	

조사 사항	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범주
6. 농기계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보유대수	- 정미기 <삭제> - 과수원용 SS 분무기, 농업용 난방기 <추가>
	(2) 논벼 농사방법 및 위탁여부	벼모판 작업 <추가>
7.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1) 농축산물 판매금액	<동일>
	(2) 농축산물 주 판매처	농수산물 가공업체 <추가>
8.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	(1) 친환경재배 수확작물 재배면적 및 재배방법	“유기농”의 정의 <변경>
	(2) 친환경농산물의 주 판매처	- 정부수매, 수집장, 재래시장 <삭제> - 소비자 단체,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추가>
9. 농업정보화 현황	(1) PC 보유 여부	<동일>
	(2) PC 농업에 활용 여부	<동일>
	(3) PC 농업 활용 용도	- 농업경영관리, 전자상거래 → 농축산물 판매, 주말농원, 민박안내 등 농촌관광 <변경> - 시설자동화 <삭제>
	(4) 홈페이지 개설 여부	<동일>
10.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1) 생활시설이용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신규>
	(2) 자동차 보유 여부	승용·승합차 → 승용차와 승합차 <구분>
11. 주거에 관한 사항	(1) 거주형태	- 연립과 다세대 주택 <분리> - 비거주용 건물 <추가>
	(2) 건축년도	2000년 이후 1년 단위 1969년 이전 → 1959년 이전 <구분>
	(3) 난방시설	4개 난방연료 → 9개 난방시설 <구분>
	(4) 주거시설형태(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 부엌 : <동일> - 수도 : <동일> - 화장실 : <신규> - 목욕시설 : <신규>
12. 기타	(1) 생산자조직 참여현황	<동일>
	(2) 농업관련사업	<신규>

3. 농가 정의와 변화

조사 시기별로 농가의 정의는 농가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있다. 1960년의 농업국세조사에서는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가 정의를 따라서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로서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경지(전, 답, 과수원) 300평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1960년의 농가 정의는 1970년대 조사에서 대폭 보완되었는데 '70년 조사에서 농가의 정의는 ① 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⑤ 소가축(토끼) 40마리

<표 2-4> 조사별 농가의 정의

조 사	농가의 정의
1960년 농업국세 조사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경지(전, 답, 과수원) 300평 이상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
1970년 농업센서스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가구 ① 경지 300평 이상 직접 경작 ② 고등원예나 특용작물을 100평, 과수나 묘목을 200평 이상 재배 ③ 대가축(소) 1마리 이상 사육 ④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이상 사육 ⑤ 소가축(토끼) 40마리 이상 사육, 가금(닭, 오리) 30마리 이상 사육 ⑥ 꿀벌 5군 이상 사육 ⑦ 누에씨 12g 이상 사육 ⑧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 ⑨ 가구원 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1980년 농업조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1970년의 농업센서스 ①~⑦ ⑧ 연간 총 수입 중 농업수입이 위의 각 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
1990년, 1995년 농업총조사	① 경지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시설 작물 3a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소) 1마리, 중가축(돼지, 양) 3마리, 소가축(토끼),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2000년, 2005년 농업총조사	① 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 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포함.

이상 사육, 가금(닭, 오리) 30마리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⑥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⑦ 누에씨 12g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⑧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인 가구 ⑨ 가구원 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농가로 규정하였다.

1980년대에도 1970년대의 정의 가운데 “복합경영의 농업수입이 1만원 이상”에서 복합경영한 연간 농업수입이 위의 각 호별 수입보다 많은 가구로 고치고 “가구원 중 30일 이상 농업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있는 가구”를 삭제한 것 이외에는 그대로 따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농가 정의는 이전에 비해 단순화되고 있다. 1990년대 조사에서는 ① 경지 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시설 작물 3a 과수나 묘목은 각각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소) 1마리 중 가축(돼지, 양) 3마리 소 가축(토끼), 가금(닭, 오리, 거위, 칠면조)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로 농가를 정의하고 있다.

2000년대 조사에서 농가 정의는 더욱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2000년과 2005년 조사에서 농가는 ① 조사기준 현재 경지 10a 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포함으로 직접 경작 면적과 농업 수입만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3장 한국 경제와 농림어업의 구조변화

I.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

1. 이론적 검토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국민총생산(GDP)의 성장이나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즉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의 이행까지를 포함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경제성장은 주로 공업화에 의존하였고, 농업 인구의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본주의 발전의 전범으로 간주되어온 영국의 경우, 인클로저에 의해 전통적인 장원제도가 해체되고 농민들이 경작지를 잃고 자유노동자가 된 것이 산업자본주의의 기원으로 묘사된다. 전통적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산업계급이 성장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의 보편적 내용으로 간주되어왔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하였고, 산업사회의 심화는 농림어업 부분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왔다. 농림어업 부분의 경제적 중요성이 떨어지고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곧 경제성장의 다른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3세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은 뒤늦은 근대화(late modernization)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의 뒤늦은 근대화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국가’의 역할이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긴 역사를 갖고 진행되었던 서구의 그것과는 달리 제3세계에서의 근대화는 늦게 시작된 것이므로, 그것을 조직하고 추동할 주체로서의 강력한 국가조직이 필요했다. 즉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경제성장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낙후된’ 농림어업을 해체시키고, 공업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 모델은 한국에서도 적용되었는데, 강력한 국가는 19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은 공업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은 급감하였고, 농어촌사회는 인구 부족과 경제적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심각한 재생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뒤늦은 근대화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들을 정리하면, 크게 근대화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을 꼽을 수 있다. 근대화론은 전통과 현대라는 이분법을 강조하고,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공업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회로의 전환을 기획한다. 근대화에 있어 중요한 시장 경제, 근대적 국가, 그리고 합리성 등이 도입되면

서 후진국들은 점차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이며 낙후된 농림어업의 해체와 이를 대신하는 근대적인 공업의 성장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통적인 농민들은 도시로의 이주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근대화의 시각에서 농업은 낙후성(backwardness)의 상징이며, 농민들은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편으로 공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과학적 영농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정당화된다.

종속이론은 후진국의 저발전은 선진국들이 불균등 교환을 통해 제3세계의 경제를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발도상국의 저발전 자체가 선진국의 발전과 인과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후진국의 농산물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선진국으로 수입되며, 선진국들은 자신이 만든 공산품을 제3세계의 농민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제3세계의 저 발전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 농림어업 부문과 공업 부문 간의 불균등 교역이야말로 주변부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제3세계의 산업구조는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없으며 선진국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왜곡된 형태로 구조화되고 재편된다.

세계체제론은 종속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분석적 경직성을 역사적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실제로 제3세계의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저 발전을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며, 일부 선진국들은 경제적 역동성을 상실한 채 쇠퇴의 길을 걷기도 한다. 윌러스틴을 비롯한 세계체제론자들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국제 분업구조는 다양한 국가 간 관계와 경제변동에 의해 재편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농업 중심의 저개발 주변국가가 공업 중심의 반주변부 국가로 상향이동하기도 하며 중심부 국가가 반주변부국가로 떨어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분업구조 속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적이지만 효율적인 국가의 지도하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업화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한다. 신흥공업국가들의 성공은 농촌 인구를 빠르게 도시로 내보낸 뒤, 이 인구를 효율적으로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 활용하여 세계분업구조의 일정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과 깊이 관련된다. 동아시아의 성공은 또한 20세기 후반 미국 중심의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 중심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미국 잉여농산물 제공, 저곡가 정책, 농촌 인적 자원의 도시로의 유출, 농촌사회 인프라의 해체 등 농업과 농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2. 세계화와 농업 변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는 표준화된 세계시장을

보편적 규범화하는 과정이다. 사회·역사적 맥락이 다른 많은 국가들의 농업과 농민들을 세계 시장에 의해 통합시키겠다는 것이 세계화가 농업에 대해 함의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McMichael, 1994). 우리나라의 농업 세계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의 변화와 깊이 관련된다. 첫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기획되었던 국가 중심적 발전 프로젝트의 해체와 시장의 중심의 세계화 프로젝트로의 전환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 자본주의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국내 재벌 기업들이 초국적화하면서 국내 정치경제의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도시 근로자 계층이 글로벌 자본과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의해 다수의 도시 계층들이 WTO와 FTA 등에 의한 세계화가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농업 부문의 희생 불가피론에 동조하게 된 것이다(Kim, 2006).

농업 부문에 대한 세계화는 중기적인 흐름으로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왔고, 1997년 IMF체제에 의해 보다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이후 농산물 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은 중기적인 흐름으로서의 세계화를 나타낸다. 반면 IMF 체제 이후 추진되고 있는 FTA와 농업 및 농민 보호에 대한 도시 계층의 반대는 세계화의 급속한 물결을 예이다. 2004년 추곡수매제가 완전 폐지된 것은 상징적으로 남아있던 농민에 대한 국가 보호적 장치가 세계화 프로젝트 속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995년 UR협정이 발효되면서 추곡수매제가 대표적인 감축대상 보조금(AMS)으로 분류돼 해마다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쌀 가격 지지기능은 약화되어왔다. 결국 추곡수매제는 쌀의 경쟁력을 왜곡하는 주범으로 몰리게 되면서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국민경제 부문으로서의 농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농업의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포함한다. 첫째, 전체 식품 부문에서 차지하는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의 역할 강화이다. ConAgra, Delmonte, Cargill 등 초국적 농기업들이 전세계를 시장으로서뿐 아니라 생산요소 확보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은 종자에서부터 최종 소비되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의 모든 부문을 전방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들 초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농식품 체계 전체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는 농민들의 농업 활동을 거대화되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식품체계(food system)의 일부로 포섭시킨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경제적 역할의 축소와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농민의 임노동자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개별 국가들의 농업과 농민들은 단작화 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흉작의 경우 농민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 기업들은 전문화된 농민들로부터 최소의 가격으로 농업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흉작에 따른 위험은 생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게 된다. 넷째, 전체 식품체계에서 대량소비형 유통조직과 초국적 패스트푸드점의 시장 장악력이 증대된다. 유통조직에 의한 농축산 생산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들의 의사결정권이 커지는 것이다. 결국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라 음식 문화의 표준화와 지역문화의 상품화가 동시에 추동된다.

이러한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탈농업화(de-agriculturalization)를 초래하고 있다. 이념형으로 상정되던 공업과 농업의 균형경제로서의 국민국가 개념이 와해되고, 공업과 서비스업만으로 이루어진 국민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농산물을 단지 상품으로만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먹거리를 이윤 극대화의 논리에 취약하게 만든다. 또한 비교우위론과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한국 자체가 공업국가(industrial state)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와 공업만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허상을 좇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농업에 의해 생산되는 먹거리는 생명의 기본이고, 인간 존재와 재생산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농촌은 농민이 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단기적이고, 도구적인 합리성과 그러한 합리성의 표현인 화폐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다.

II. 국내 총생산·고용과 농림어업

1. 국내 총생산과 농림어업

세계 각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농림어업의 상대적 비중의 감소 현상이다. 산업화 초기 농림어업의 광범위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하다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비교우위에서 밀리는 농림어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세계화 추세는 농림어업 산물의 국제적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농림어업의 기반이 열악할 경우에는 세계 경쟁체제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산업적 경쟁은 국내의 정치적 힘의 관계와 깊이 관련된다. 재벌이 주도하는 산업 부문의 힘의 우위는 농업에 기반한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한다. 1990년대 WTO체제의 등장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의 한국-칠레, 한국-미국 FTA 체결과정에서 산업부문과 비교해서 농림어업 부문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몰고 갔던 언론이나 정부의 입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의 상대적 비중 감소 경향은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산업별 경제활동인구구조에서 농림어업 종사자의 단계적 축소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1>은 국내 총생산에서 각 산업이 차

<표 3-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추이(경상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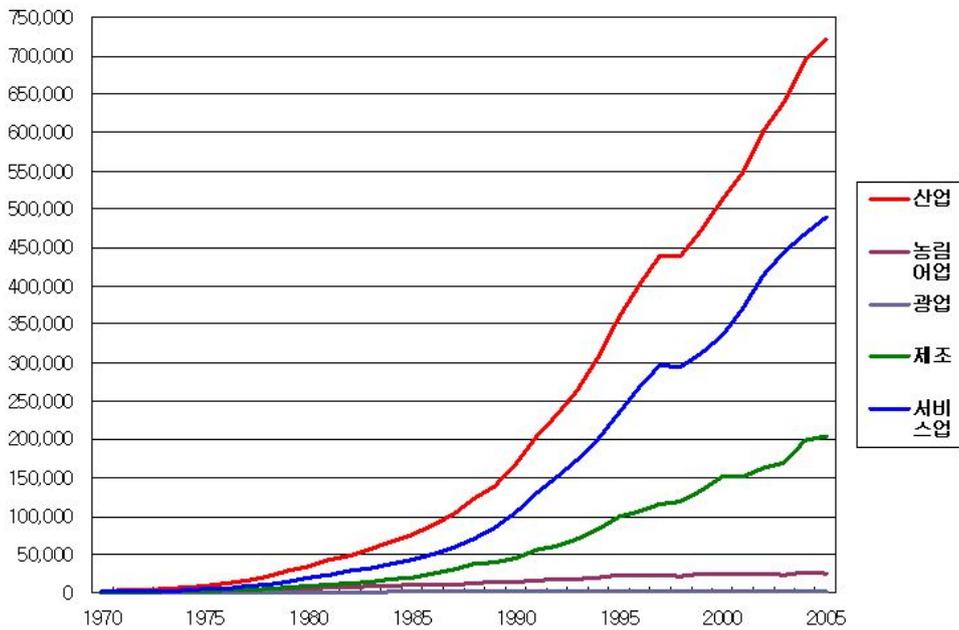
(단위 : 10억원)

연도	국내 총생산	농림어업	광업	제조	서비스업 및 기타
1970	2,519.1	736.8	44.3	448.2	1,289.8
1971	3,131.5	927.0	52.0	553.6	1,598.8
1972	3,907.6	1,123.2	55.7	756.6	1,972.1
1973	5,047.1	1,349.7	74.8	1,122.1	2,500.4
1974	7,117.1	1,895.3	121.6	1,540.2	3,560.1
1975	9,433.2	2,559.5	177.6	2,042.1	4,654.3
1976	12,838.8	3,304.9	198.1	3,059.2	6,276.9
1977	16,450.9	4,012.3	309.2	3,892.0	8,237.3
1978	22,123.7	4,956.5	391.0	5,300.2	11,476.0
1979	28,385.6	5,942.3	453.5	6,911.6	15,078.3
1980	34,489.7	5,576.1	670.9	8,431.4	19,811.2
1981	43,226.6	7,339.4	840.3	10,858.5	24,188.6
1982	49,370.3	7,873.6	839.3	12,471.1	28,186.5
1983	57,775.2	8,427.1	888.3	15,241.3	33,218.6
1984	66,815.2	9,143.1	967.3	18,515.7	38,188.7
1985	75,132.3	10,173.5	1,066.9	20,520.2	43,371.4
1986	87,838.3	10,534.6	1,245.1	25,483.4	50,575.3
1987	103,338.9	11,120.5	1,296.8	31,212.1	59,709.0
1988	123,327.8	13,220.8	1,351.7	37,803.6	70,951.9
1989	139,822.2	13,894.3	1,272.9	40,587.2	84,067.6
1990	167,713.4	14,998.4	1,399.0	45,724.8	105,591.1
1991	204,461.0	16,240.4	1,610.7	56,003.3	130,606.7
1992	232,782.2	17,995.7	1,363.3	61,988.7	151,434.8
1993	263,197.8	18,241.0	1,397.1	70,522.3	173,037.8
1994	306,557.9	20,652.3	1,755.9	83,461.6	200,688.2
1995	359,582.3	22,829.3	2,130.8	99,369.5	235,252.6
1996	402,230.4	23,961.5	2,123.1	107,356.3	268,789.9

연도	국내 총생산	농림어업	광업	제조	서비스업 및 기타
1997	438,596.6	23,896.3	2,236.4	115,464.5	296,999.2
1998	438,638.2	22,355.4	1,998.3	119,920.4	294,364.2
1999	472,742.2	24,812.1	1,981.4	132,980.6	312,967.8
2000	514,054.0	25,029.7	2,036.8	151,243.0	335,744.3
2001	550,008.1	24,806.2	2,020.6	151,766.0	371,415.0
2002	602,091.9	24,654.8	2,051.4	161,952.0	413,433.4
2003	639,761.9	24,166.2	2,062.6	169,145.4	444,387.6
2004	694,317.5	26,246.2	2,276.5	198,554.4	467,240.5
2005	721,474.2	24,631.4	2,626.4	204,701.1	489,515.6

주 : ‘서비스업 및 기타’에는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 운수 및 통신업, 전기가스, 개인 및 사회서비스 부문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통계청, 인터넷자료(<http://www.kosis.kr/>)



<그림 3-1>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추이

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1970년 기준으로 정리하여 본 것이다. 전통적으로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컸던 우리나라는 1977년까지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제조업을 앞서고 있으나 1978년 이후 역전되어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현재 국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한 반면 제

조업의 비중은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부문은 6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림어업의 개방이 본격화된 지난 '90년대 초반 이후 농림어업 생산규모가 거의 정체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농림어업의 감소경향은 <그림 3-1>에 의해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국내 총고용과 농림어업

국내 총고용 구조에서 농림어업 인구의 고용현황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2>이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963년 4,763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7,563천명의 63.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제조업 고용인구는 601천명으로 7.9%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1986년 역전이 되기 전까지 농림어업의 고용인구가 제조업의 고용인구보다 많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농림어업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제조업보다는 고용비중이 높았던 것이다.

'80년대 들어 농림어업의 고용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산업구조의 패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1970년대 후반 우리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 시작하고 수출시장에서 제조업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의 지위는 열악해진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적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농림어업에 대한 수입개방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용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표 3-3>에 의하여 '80년대 중반 이후 농림어업 고용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05년 현재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인구는 1,815천명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고용인구가 가장 많았던 1976년의 5,601천명에 비해서는 3,786천명이 줄어든 것이다.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1963년의 63.0%보다는 55.1%p나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농림어업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경향을 다른 산업 부문과 비교하여 보다 확연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 <그림 3-2>다.

<표 3-2>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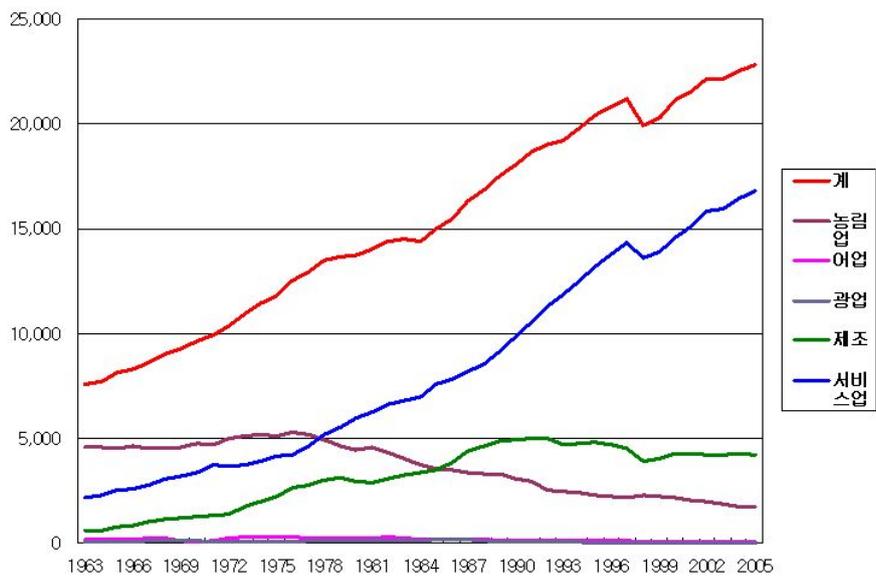
(단위 : 천명)

연도	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63	7,563	4,573	190	56	601	2,144
1964	7,698	4,580	167	56	630	2,269
1965	8,112	4,538	204	76	764	2,530
1966	8,325	4,631	180	80	819	2,616
1967	8,624	4,545	211	93	1,001	2,775

연도	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68	9,061	4,531	217	110	1,153	3,050
1969	9,285	4,608	136	114	1,219	3,208
1970	9,617	4,756	90	109	1,268	3,395
1971	9,946	4,682	115	81	1,332	3,737
1972	10,379	5,006	232	53	1,415	3,674
1973	10,942	5,143	302	47	1,732	3,719
1974	11,421	5,205	276	50	1,977	3,914
1975	11,830	5,123	302	60	2,205	4,140
1976	12,556	5,323	278	65	2,678	4,212
1977	12,929	5,161	244	103	2,798	4,623
1978	13,490	4,920	261	107	3,016	5,186
1979	13,664	4,642	245	111	3,126	5,540
1980	13,706	4,433	225	123	2,972	5,952
1981	14,048	4,560	246	124	2,872	6,247
1982	14,424	4,324	299	110	3,047	6,644
1983	14,515	4,043	271	108	3,275	6,818
1984	14,417	3,727	182	142	3,351	7,015
1985	14,970	3,554	179	155	3,504	7,578
1986	15,505	3,477	185	187	3,826	7,830
1987	16,354	3,400	180	186	4,416	8,172
1988	16,870	3,319	165	140	4,667	8,580
1989	17,560	3,291	147	90	4,882	9,150
1990	18,085	3,100	137	79	4,911	9,858
1991	18,677	2,928	129	66	5,026	10,528
1992	19,009	2,550	117	61	4,980	11,301
1993	19,234	2,481	111	52	4,720	11,871
1994	19,848	2,382	109	39	4,758	12,560
1995	20,414	2,289	114	26	4,818	13,168

연도	계	농림업	어업	광업	제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996	20,853	2,218	105	23	4,725	13,782
1997	21,214	2,177	108	27	4,537	14,365
1998	19,938	2,318	79	20	3,917	13,603
1999	20,291	2,219	83	19	4,027	13,943
2000	21,156	2,162	81	17	4,294	14,603
2001	21,572	2,065	83	18	4,267	15,139
2002	22,169	1,999	70	18	4,241	15,841
2003	22,139	1,877	73	17	4,205	15,967
2004	22,557	1,749	76	16	4,290	16,427
2005	22,856	1,747	68	17	4,234	16,789

자료 : 통계청, 인터넷 자료(<http://www.kosis.kr/>)



<그림 3-2> 국내 총생산 산업별 변화 추이

제4장 농림어가 인구와 가족

I. 농림어가의 인구

1. 농림어가 인구변화 : 1980~2005

가. 농림어가 총인구의 변화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80년에 총인구의 28.9%에 해당되는 1,083만 명이였다(<표 4-1> 참조). 그 후 농가인구는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에 총인구의 15.3%인 666만 명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8.7%인 40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감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7.3%인 343만 명으로 지난 25년 만에 농가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 5년간 총 27.2%나 감소하였으나 그 후에는 감소속도가 둔화되어 2000년 전과 후 5년간 각각 16.9%와 14.8%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4-1> 농림어가 총인구의 변화, 1980~2005

(단위 : 천명, %)

	1980	1990	1995	2000	2005
농 가	10,827	6,661	4,851	4,031	3,434
(총인구대비)	28.9	15.3	10.9	8.7	7.3
(증 감 률)*	-	-	-27.2	-16.9	-14.8
어 가	-	496	347	251	221
(총인구대비)	-	1.1	0.8	0.5	0.5
(증 감 률)*	-	-	-30.0	-27.6	-12.0
임 가	-	-	-	164**	264
(총인구대비)	-	-	-	0.4	0.6

주 : * 지난 5년간 증감률임.

** 산림청에 임가로 등록된 가구대상 조사 결과

어가인구도 농가인구와 같이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에 50만 명으로 총인구의 1.1%였으나 2000년에는 10년 전보다 꼭 반에 해당하는 25만 명이 되었으며, 이 감소는 계속 이어지면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22만 명이 되었다. 1990년대 전, 후반 각 5년 동안 각각 30.0%와 27.6%씩 감소하여 농가인구의 감소속도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감소속도는 많이 둔화되었으나 첫 5년 동안 12.0%나 감소하였다. 임가의 경우는 2000년 조사대상이 산림청에 등록된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2000년에 임가로 조사된 164천명을 2005년의 임업총조사결과인 264천명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임가인구도 농가나 어가 인구와 같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될 것이다.

나. 농림어가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농림어가와 전국 평균, 전국 읍면부의 인구구조를 <표 4-2>에서 비교하였다. 어가 인구는 1995년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임가의 경우 2000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산림청 등록 임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2005년 총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곤란하였다. 전국 읍면부는 1990년대 초에 광역시 또는 통합시로 발족하면서 농촌의 개념(중전에는 ‘군부’)으로 쓰고 있다.

1980년의 농가와 읍면부 및 전국평균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매우 유사하였다. 총 인구의 약 3분의 1이 0~14세의 유소년 인구이고, 생산연령가능인구(15~64세)는 60% 정도이며,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3.9~6.7%에 불과하였다. 특히, 농가와 읍면부의 연령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각각 6.7%와 6.5%로 아주 유사한 것은 농촌의 전통사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농촌의 산업이 농업중심으로 농가인구와 읍면부(농촌) 인구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오면서 농촌과 전국인구의 연령별 특성이 달라졌다. 전국 인구의 경우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의 69.3%로 70%에 육박하지만, 농가와 읍면부 인구의 경우에는 67% 수준에서 머물면서 인구는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였다. 더욱이 농가인구와 읍면부 인구의 연령별 특성도 크게 달라졌다. 1980년까지만 하여도 유사하였으나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가인구는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5%로 읍면부의 9.0%를 훨씬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급감하여 겨우 20%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이후 더욱 뚜렷하였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21%를 상회함으로써 초 고령인구로 변환되었으며, 0~14세 인구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읍면부의 인구도 전국 평균에 비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농가인구의 변화에 비하면 그 속도는 훨씬 느린 편이다. 2000년의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8.7%로 감소하여 읍면부 인구 중에서도 그 비중이 낮아졌으므로 농가인구는 과거의 농촌인구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2> 주요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 198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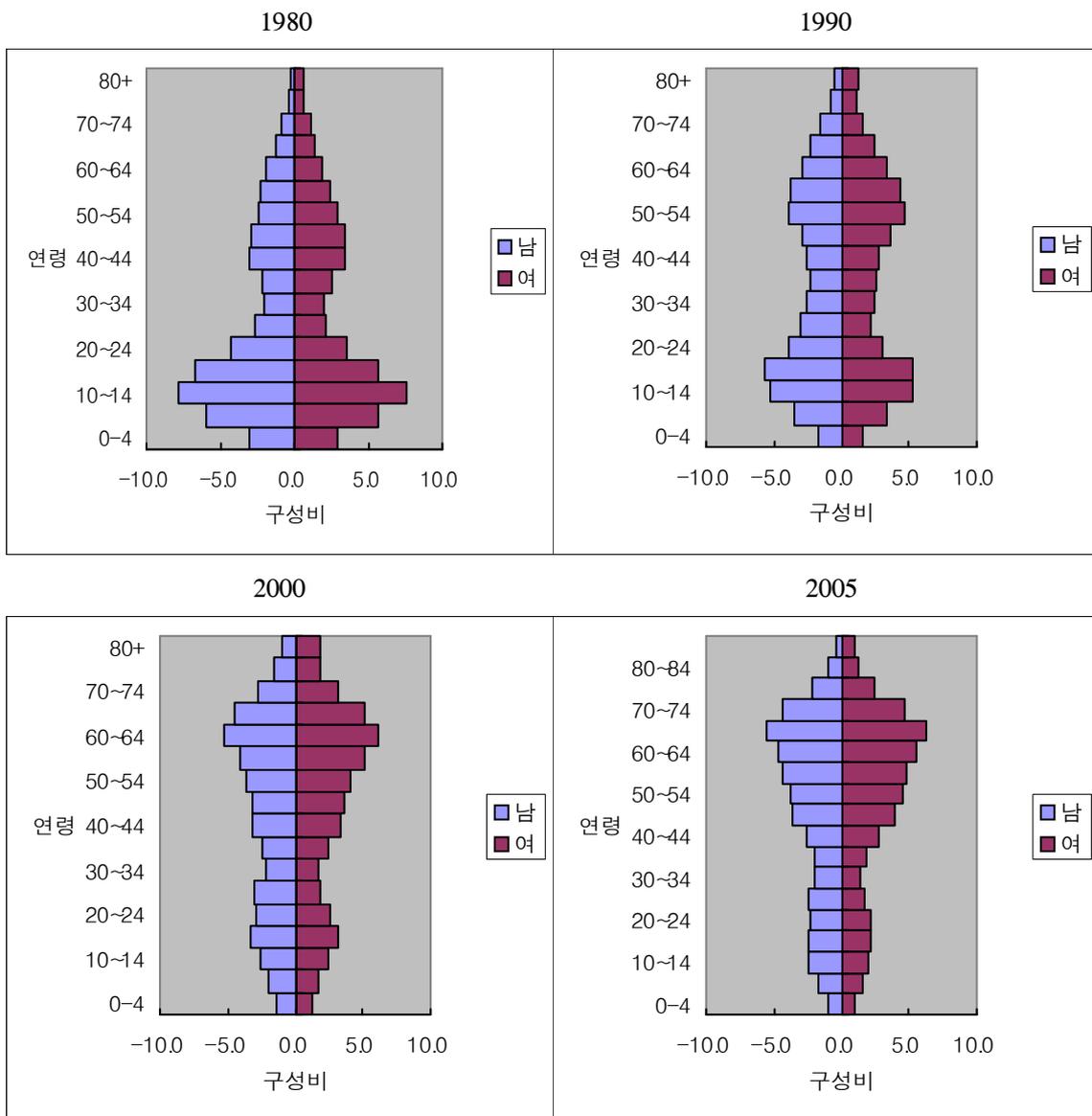
(단위 : %)

연도 및 연령	농가	어가	임가	읍면부	전국
1980	100.0	-	-	100.0	100.0
0~14	33.0	-	-	35.7	33.8
15~64	60.3	-	-	59.6	62.3
65+	6.7	-	-	6.5	3.9
1990	100.0	-	-	100.0	100.0
0~14	20.6	-	-	23.6	25.7
15~64	67.9	-	-	67.3	69.3
65+	11.5	-	-	9.0	5.0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11.4	13.2	5.0	18.6	21.0
15~64	66.9	74.6	73.5	66.7	71.7
65+	21.7	12.2	21.5	14.7	7.3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0~14	9.8	10.9	9.7	17.2	19.1
15~64	61.1	70.3	63.2	64.2	71.6
65+	29.1	18.8	27.1	18.6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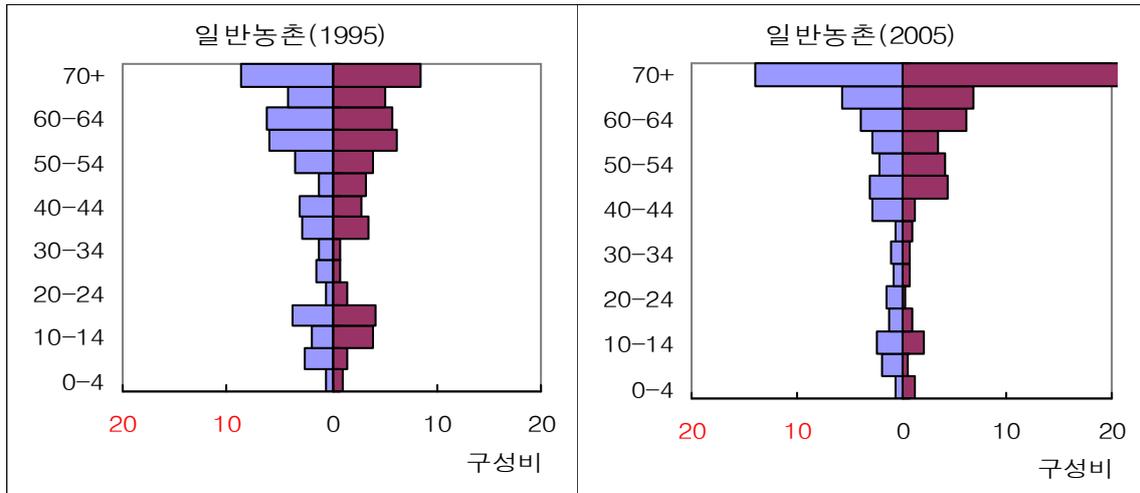
다음 <그림 4-1>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농가인구의 성·연령구조를 피라미드로 그려놓은 것이다. 1980년 인구피라미드는 전형적인 농촌인구형이다.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연령층이 도시로 전출함에 따라 40대 이후와 10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10세 미만의 인구가 적은 것은 부모세대의 전출에 따른 출생아수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의 유입없이 지속적인 전출은 10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인구의 상대적 구성비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인구피라미드에서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년 전에 40대가 많았으나 이 때는 50대로 연령이 높아졌고, 2000년 피라미드에서 60대의 고령층 인구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전입은 없고, 전출만 꾸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구성비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도에 더욱 극심하였다. 고령층은 60대 이후로 높아지고, 젊은 연령층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현상이 지속된다면 노인인구의 사망과 젊은 인구의 전출로 농가인구는 극소해지고, 농가 중심의 농촌사

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충북의 일반농촌조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그림 4-2> 참조). 농업중심의 농촌마을의 인구구조는 60대 이상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사회이며, 이 고령층 인구가 사망하는 시기에는 농촌사회 자체가 사라지거나 농업중심의 농촌과 다른 형태의 사회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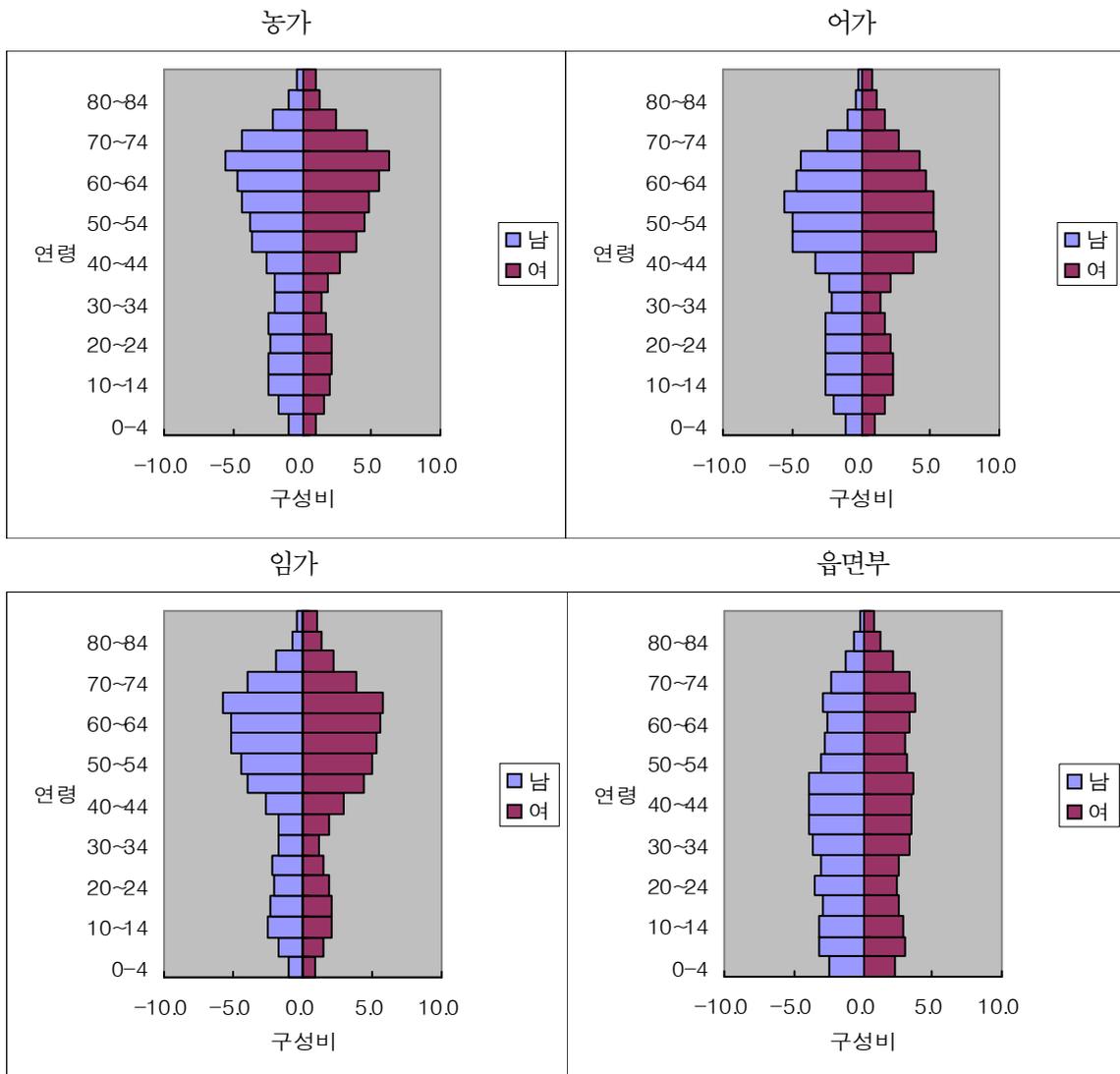
농림어가 인구와 읍면부의 인구구조를 <그림 4-3>에서 비교하였다. 농가, 임가, 어가 인구 모두 젊은 젊은 연령층 인구가 두터운 고령층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가와 임가의 인구구조가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읍면부의 인구구조는 위의 세 인구구조와 매우 달랐다. 어린 연령층부터 70대 고령층 까지 인구구조가 균형이 잡혀 있다. 40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림 4-1> 농가인구 구조의 변화, 1980~2005



<그림 4-2> 일반농촌(1995, 2005)



<그림 4-3> 농림어가 인구와 읍면부 인구구조 비교, 2005

같은 농촌이면서 읍면부 인구구조와 농림어가인구의 인구구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농촌, 즉 Rural areas의 인구와 농림어가인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특성도 다르다는 것이다. 총인구의 약 30%가 농가인구이던 1980년경까지는 농촌인구의 대부분이 농가인구와 일치하였으나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7~8%에 불과한 2000년 이후에는 농촌(읍면부)인구의 대다수가 비농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농가인구의 연령구조와 차이가 컸다고 하겠다.

다. 농어가인구의 성비변화

우리나라 인구의 특성 중 하나는 남아선호로 나타나는 높은 출생성비이다. 1980년대 초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높은 출생시 성비는 1990년에 11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농가인구의 규모와 연령별 구성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도 높았던 출생성비의 영향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1980년 0~4세 인구의 성비가 106.0으로 정상수준이었으나 1990년에 112.6으로 급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5년까지 이어졌다(<표 4-3> 참조). 2000년 0~4세 인구의 성비(111.7)와 2005년의 성비(110.7) 모두 여전히 110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0년 5~9세 인구의 성비는 115.2로 1990년대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들의 성비가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연령층의 코호트는 2005년에 10~14세가 되며, 이때의 성비(115.8)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농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별 이동의 차이로 일부 연령층에서는 성비가 매우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젊은 연령층에서 여성의 도시진출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서 남자가 이동한다. 여성의 이동이 쉬운 것은 서비스직이나 단순 직종에 취업이 수월하기 때문이며, 남자의 경우 앞으로 생업을 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며,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생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로의 이동이 늦어지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이것은 이 연령대에서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980년까지 성비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25~29세이며, 그 이전에는 20~24세에서 성비가 가장 높았다. 성비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2000년까지 변동이 없었으나 2005년에는 30~34세에서 성비가 가장 높았다. 물론 1990년, 2000년에도 성비가 높은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2000년의 25~29세 연령층의 성비가 167.7로 가장 높았다. 이것은 주위 연령층으로 성비의 높은 수준이 분산되면서 가장 높은 성비는 점차 낮아졌다.

먼저 1990년까지 20~24세 인구의 성비가 높았으나 그 후에는 110 전후로 낮아졌다.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혼인의 영향으로 먼저 진출하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이 성비가 낮아지는 것은 남녀 모두 진학 등으로 진출이 심화되면서 이동이 어려운 그룹만 농가에 잔류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25~29세와 30~34세의 성비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그 동안 남녀의 성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진출이 먼저 일어나고, 남자의 진출이 이어지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표 4-3>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 1980~2005

	1980	1990	2000	2005
계	100.1	96.9	95.7	95.4
0~4	106.0	112.6	111.7	110.7
5~9	106.0	104.9	115.2	113.0
10~14	104.2	100.9	108.5	115.8
15~19	117.4	107.0	105.3	111.1
20~24	122.9	128.5	111.3	107.8
25~29	124.2	139.3	167.7	139.4
30~34	98.8	105.3	131.5	148.9
35~39	84.4	91.4	101.2	109.9
40~44	88.4	93.1	96.8	94.5
45~49	88.2	82.7	88.0	92.2
50~54	82.4	85.7	90.1	86.1
55~59	89.9	85.9	80.8	90.2
60~64	96.6	84.9	85.9	83.9
65~69	90.5	93.9	87.7	88.2
70~74	75.1	91.9	86.8	92.3
75~79	59.3	70.6	85.0	87.4
80+	40.4	38.7	48.0	54.9

노년층의 성비도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연령별 성비의 패턴은 출생시 성비가 105 전후로 시작되어 서서히 낮아지다가 40~50세경부터 빠르게 감소한다. 이것은 성별 사망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가인구에서는 60세가 지나면서 성비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4-3>에 의하면 1980년에 60~64세 인구의 성비가 96.6으로 주변보다 높았으며, 1990년에는 65~69세 인구의 성비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2005년에 다시 70~74세로 높아졌다. 노년층에 들어가면서 성비가 낮아져야 하는데 높아지는 이유도 성별 이동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층에서 할아버지

의 진출보다는 할머니의 진출이 유리한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할머니들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에 자녀들과 재결합하는데 할아버지들보다 수월하다. 할머니들은 성년 자녀와 동거하면서 아이들 관리, 집안관리 등과 같은 역할이 있지만 할아버지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성년 자녀들과 재결합이 어려운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층에서 성비가 상승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배우자 사망시기가 늦어지는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80세 이상 노인의 성비도 빠르게 상승한다. 이것은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정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림어가인구의 연령별 성비를 비교하고, 전국의 읍면부(농촌)의 성비와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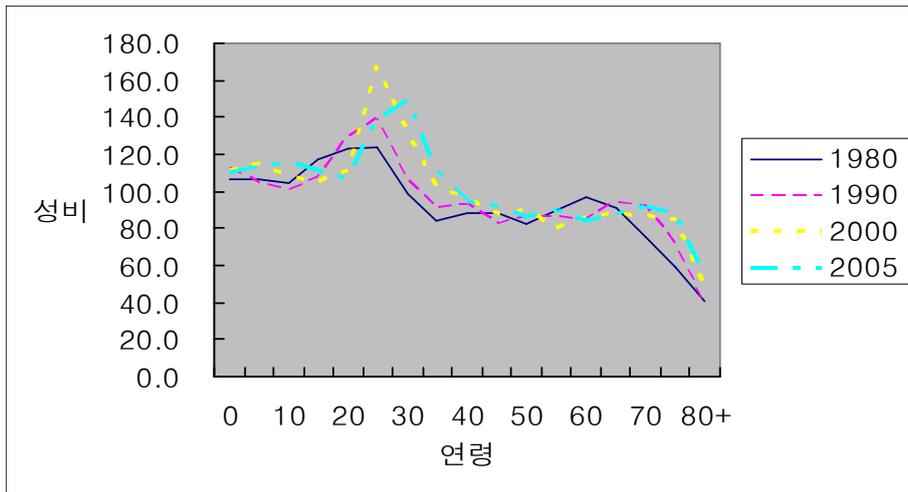
<표 4-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비교, 2005

	농가	어가	입가	전국 읍면부
계	95.4	100.2	98.3	98.5
0~4	110.7	111.5	111.1	108.6
5~9	113.0	115.7	115.8	108.8
10~14	115.8	115.3	118.7	111.2
15~19	111.1	108.8	113.8	111.3
20~24	107.8	120.6	114.1	143.9
25~29	139.4	148.8	146.4	117.2
30~34	148.9	152.2	142.7	110.2
35~39	109.9	108.5	96.6	113.6
40~44	94.5	88.2	90.1	114.4
45~49	92.2	90.3	90.3	107.0
50~54	86.1	94.4	88.0	98.9
55~59	90.2	107.2	97.3	94.1
60~64	83.9	99.8	93.0	80.7
65~69	88.2	102.7	101.0	76.0
70~74	92.3	89.1	103.7	68.4
75~79	87.4	57.9	84.4	56.8
80~84	69.0	34.9	57.8	50.2
85+	35.8	19.7	34.9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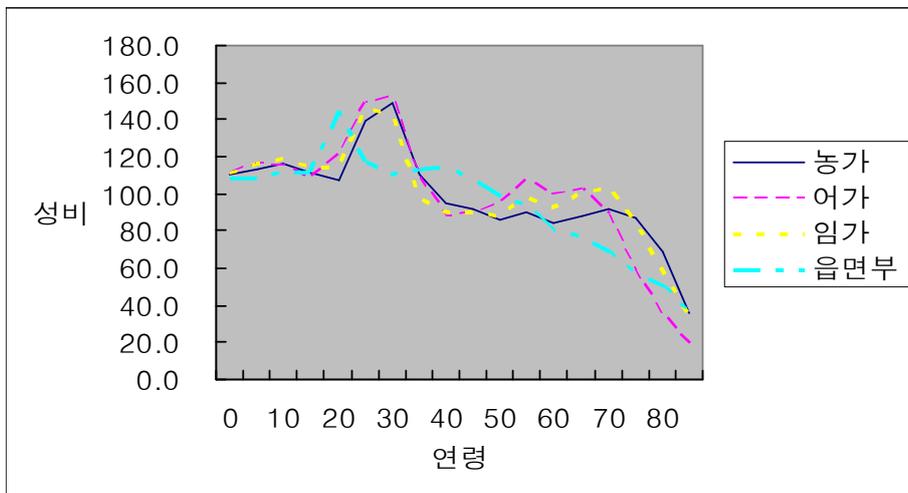
(<표 4-4> 및 <그림 4-4> 참조). 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임가가 25~29세이고, 농어가는 모두 30~34세였다. 그러나 읍면부에서는 20~24세의 성비가 가장 높았다. 이것도 읍면부 인구의 직업은 비농림어업이 중심이고, 대부분의 인구는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 밀집하고 있으므로 젊은 여성의 도시진출이 훨씬 수월한데서 나타난 결과이다.

60세 이상 노인계층에서 성비의 상승현상은 농림어업가구 인구에서는 배우자 사망 후 도시의 성인자녀들과 재결합하는 경우로 설명하였으나, 읍면부에서는 일시적인 상승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의 인근 읍면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도시자녀와의 재결합과 같은 현상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대 초까지 나타났던 근교농촌 고령인구에서의 성비상승현상(문옥표 외, 1995)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1. 농가인구의 연령별 성비 변화, 1980~2005



2.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비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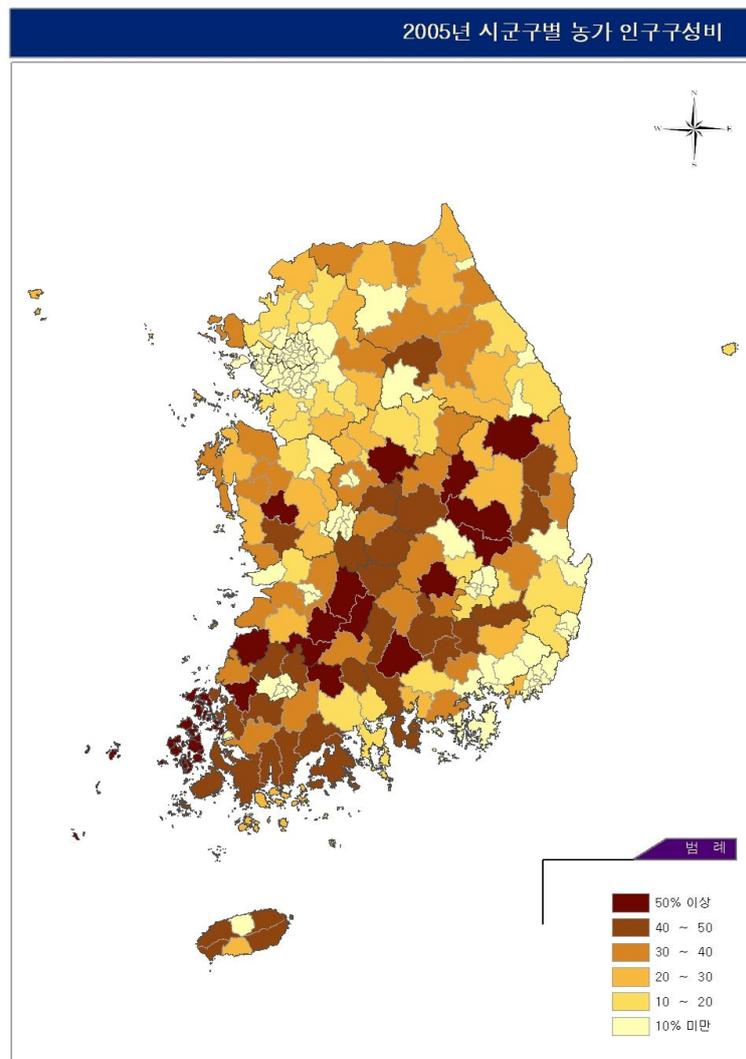


<그림 4-4> 농림어가 인구의 연령별 성비

라. 지역별 인구의 비교

시·군·구별 농가, 어가 및 임가의 인구분포를 <그림 4-5>, <그림 4-6> 및 <그림 4-7>에 지도로 그렸다. 대도시 부근과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을 중심으로 시·군·구별 총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았다.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40% 이상인 군은 남부권의 북동쪽에서 서남방향의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주위의 순수 농업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에 농가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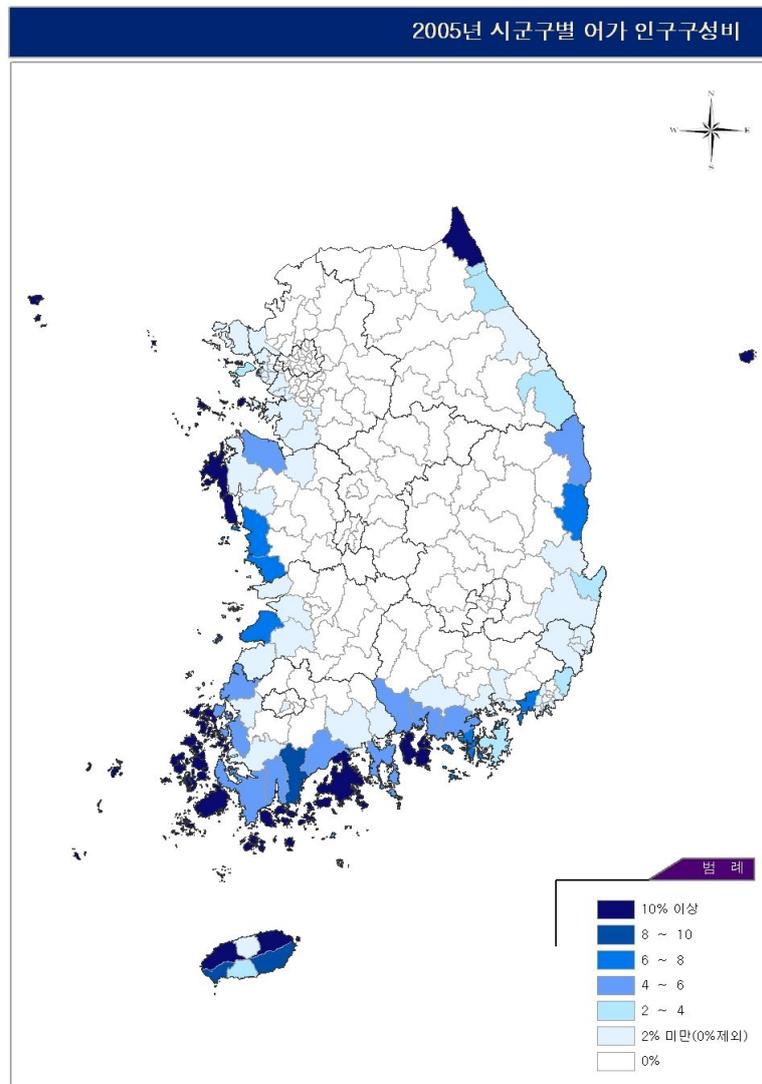
어가인구의 경우에는 특성상 해안에 분포되어 있다.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와 강원도의 고성군, 그리고 도서지역 어가 인구의 비중이 그 시군 총인구의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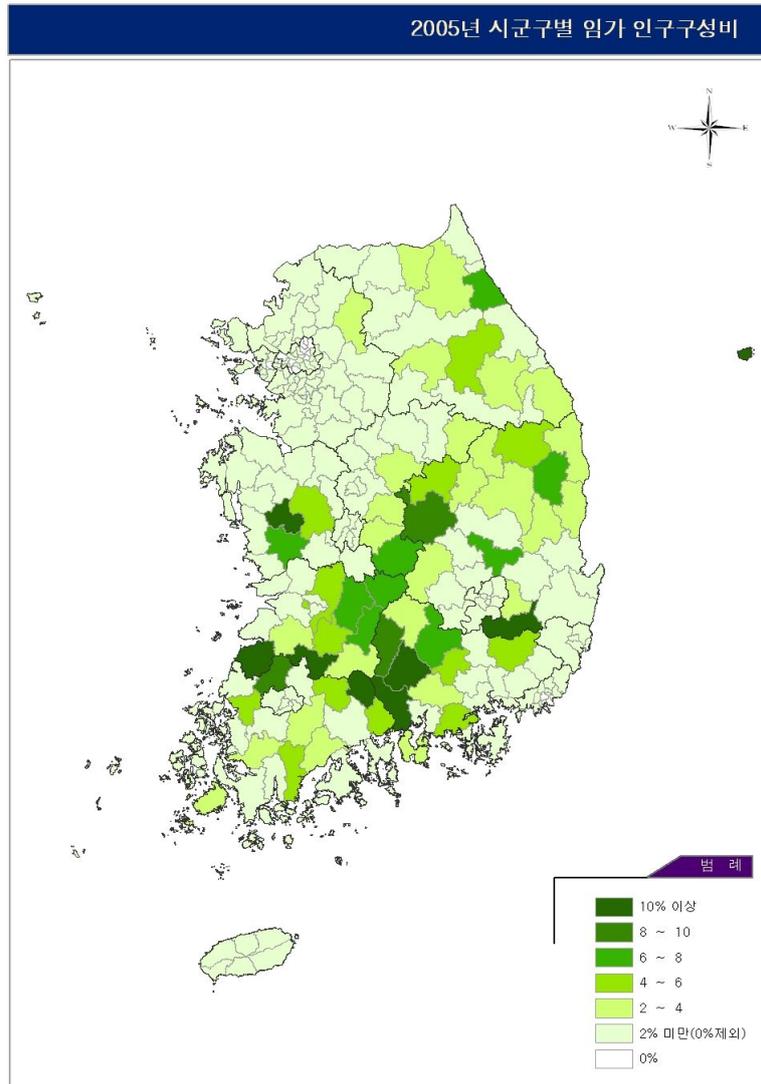
<그림 4-5> 시·군·구별 농가 인구분포, 2005

임가 인구의 경우 어가인구분포와 달리 내륙 시군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산간지역중심으로 임가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농가인구의 분포와 유사하게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중심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외 지역으로는 충남 칠갑산 부근(청양군), 강원도 양양군 등 일부지역에서 임가 인구가 총인구의 6% 이상을 차지하였다. 임가 인구의 경제활동이 과거 벌목 중심에서 채취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태백산맥 주위의 군보다 남부의 산간지역의 임가 인구분포가 높아졌다.

이상의 분포특성으로 볼 때 농가, 어가 및 임가 인구의 분포는, 그 중에서 특히 농가와 임가 인구의 분포는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산간지역 소재 군의 특성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를 들 수 있으며, 농가와 임가 인구의 비중이 높은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4-6> 시·군·구별 어가 인구분포, 2005



<그림 4-7> 시·군·구별 임가 인구분포, 2005

2. 농림어가 인구의 특성변화

농림어가 인구의 특성으로 교육정도와 혼인상태를 선택하였다. 이 두 특성은 인구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교육정도는 직업, 소득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혼인상태는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고, 가족형태를 설명해 주는 요인이다. 그리고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이 두 항목 모두 조사되었으므로 농가, 임가, 어가인구 간에 비교가 가능하고, 전국 읍면부의 인구특성과 비교할 수 있다.

가. 교육정도별 인구

농가 20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교육정도를 2000년과 2005년의 총조사결과를 <표 4-5>

에서 비교하였다. 연령은 20세 이상만 비교하였다. 조사결과는 5세 이상에 대한 결과가 있으나 고등학교까지의 취학은 거의 100%에 접근하고,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극히 낮으므로 실제 농림어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계층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20세 미만에서는 재학의 구성비가 높으므로 완결기준의 교육정도를 비교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도 있다.

남자의 20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는 2000년에 초등학교(33.7%), 고등학교(25.8%), 중학교(16.2%)의 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초등학교의 구성비(31.5%)가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변동이 없었다. 대신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의 구성비가 2000년에 12.3%에서 2005년에는 16.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나 남자와 달리 20세 이상 인구에서 초등학교 졸업자가 감소하고, 중·고등학교 모두 증가하였다. 전문대 이상도 6.3%에서 9.1%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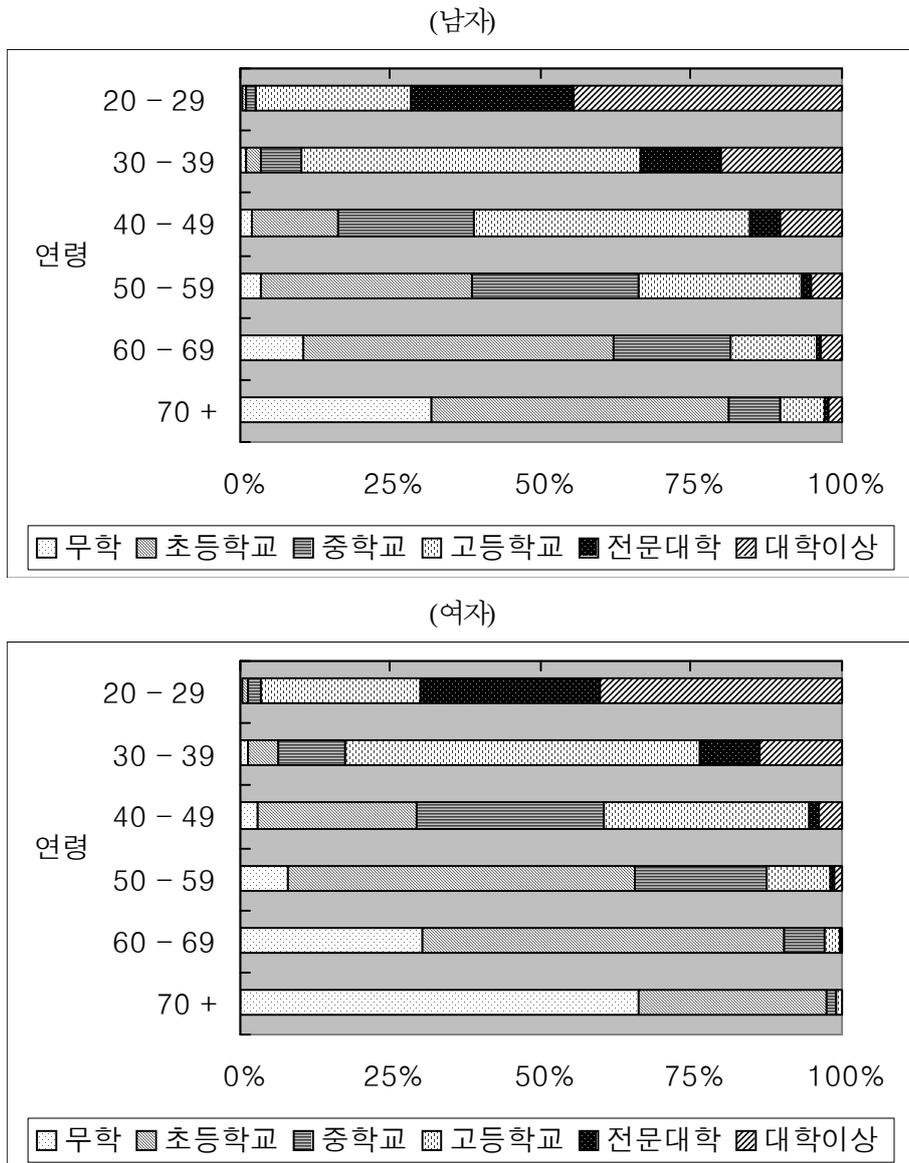
농림어업 종사자의 중심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의 학력별 인구구성비를 비교하였다. 40대(40~49)에서 전문대(대졸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가 2000년에 그 연령의 인구 중에서 6.6%였으나 2005년에는 2.3배나 되는 15.3%로 급증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1.6%에서 5.6%로 3.5배나 되어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학력수준이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남녀 공히 중심 학력소지자가 되었다. 2000년에 40대 남자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총인구의 34.2%(2000)에서 5년 만에 45.7%(200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여자는 같은 기간에 16.5%에서 34.1%로 증가하여 고졸이 중심학력이 되었다. 2000년의 중심학력이 여자의 경우 초등졸업이었으므로 중심학력이 고등학교로 상승한 것은 고령자의 학력수준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대에서도 학력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여 40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농가인구의 학력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므로 전문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학력수준의 상승은 농업경영의 전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인구의 2005년 성·연령별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남녀 모두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수준의 변화가 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남자의 경우 50대까지 초등학교 졸업이 중심 학력이었으나 40대에서는 중심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높아졌으며, 30대에서는 전체의 56.5%가 고졸이었다. 그리고 전문대 이상이 33.3%로 중학교 이하 10.2%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학력상승은 20대에서 전문대 이상이 전체의 71.6%로 농가인구에서도 대졸이 보편적인 학력수준으로 변화하였다.

<표 4-5>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변화, 2000 및 2005

연도	성·연령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2000	남자	100.0	12.1	33.7	16.2	25.8	5.0	7.3
	20~29	100.0	0.4	0.9	3.7	46.5	21.8	26.6
	30~39	100.0	1.2	7.4	15.2	56.1	8.2	11.9
	40~49	100.0	2.2	27.1	29.9	34.2	2.6	4.0
	50~59	100.0	6.0	47.2	25.4	18.0	0.8	2.7
	60~69	100.0	16.5	55.2	13.8	11.4	0.7	2.4
	70+	100.0	48.1	42.2	5.2	3.1	0.4	0.9
	여자	100.0	28.7	40.2	11.4	13.3	3.1	3.2
	20~29	100.0	0.4	1.5	4.2	45.5	25.1	23.4
	30~39	100.0	1.7	15.0	25.4	48.7	4.0	5.2
	40~49	100.0	4.2	47.4	30.4	16.5	0.6	1.0
	50~59	100.0	16.6	66.6	12.1	4.1	0.2	0.4
	60~69	100.0	43.2	52.0	3.5	1.2	0.1	0.1
	70+	100.0	79.9	18.8	0.7	0.4	0.1	0.1
2005	남자	100.0	9.8	31.5	16.3	25.8	5.7	10.9
	20~29	100.0	0.4	0.5	1.7	25.9	27.1	44.5
	30~39	100.0	1.0	2.4	6.8	56.5	13.2	20.1
	40~49	100.0	2.1	14.2	22.7	45.7	5.1	10.2
	50~59	100.0	3.5	34.9	27.8	27.1	1.6	5.0
	60~69	100.0	10.6	51.5	19.3	14.4	0.6	3.5
	70+	100.0	31.7	49.4	8.6	7.5	0.6	2.3
	여자	100.0	24.5	39.2	12.5	14.7	3.7	5.4
	20~29	100.0	0.4	0.8	2.3	26.5	29.7	40.2
	30~39	100.0	1.4	4.9	11.2	58.8	9.9	13.8
	40~49	100.0	2.8	26.6	31.0	34.1	1.9	3.7
	50~59	100.0	8.1	57.4	22.2	10.6	0.5	1.3
	60~69	100.0	30.4	59.9	6.7	2.5	0.1	0.4
	70+	100.0	66.2	31.3	1.6	0.7	0.0	0.1



<그림 4-8>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비교, 2005

여자의 경우도 남자와 아주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령이 낮아지면서 학력 상승의 정도가 늦은 것은 있지만 오히려 상승 속도는 더욱 빨랐다. 50대까지 초등학교 졸업이 중심학력으로 남자와 동일하였으나 남자의 경우 초등졸업이 34.9%인데 비하여 여자는 59.9%로 그 차이가 25%p나 되었다. 그러나 40대에서는 중심학력이 중·고등학교 졸업으로 옮겨가면서 초등졸업은 26.6%로 낮아져서 남자의 경우(14.2%)에 배하여 그 차이가 12.4%p로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한 여자 30대의 학력의 중심이 고등학교졸업으로 상승하였으며, 20대에서는 전문대 이상이 전체의 69.9%로 남자(71.6%)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농림어가인구와 읍면부 인구의 학교육정도 비교(50~59세)를 비교하였다. 농림어가 인

구에 비하여 읍면부 인구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2000 농가인구(남)는 대학이상이 전체의 2.7%, 읍면부는 6.0%로 농가인구의 두 배를 넘었으나 2005년에는 농가인구의 경우 구성비가 5.0%로 상승하였고, 읍면부 인구는 8.4%가 되어 농가인구의 고학력화가 읍면동 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6> 및 <그림 4-9> 참조). 앞서서도 논의한 것과 같이 과거 읍면부의 산업은 농림어업중심이었으나 최근에서는 비농림어업 인구가 중심이 되면서 과거 농촌의 직업 및 산업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림어가 인구의 교육수준은 비농림어가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00년 자료에서는 농가와 어가인구의 교육수준만 비교할 수 있었으며 임가인구의 교육수준은 2005년에만 비교하였다. 읍면부 인구의 교육정도가 농림어가 중에서는 농가(2000 및 2005)와 임가(2005)인구의 교육정도가 어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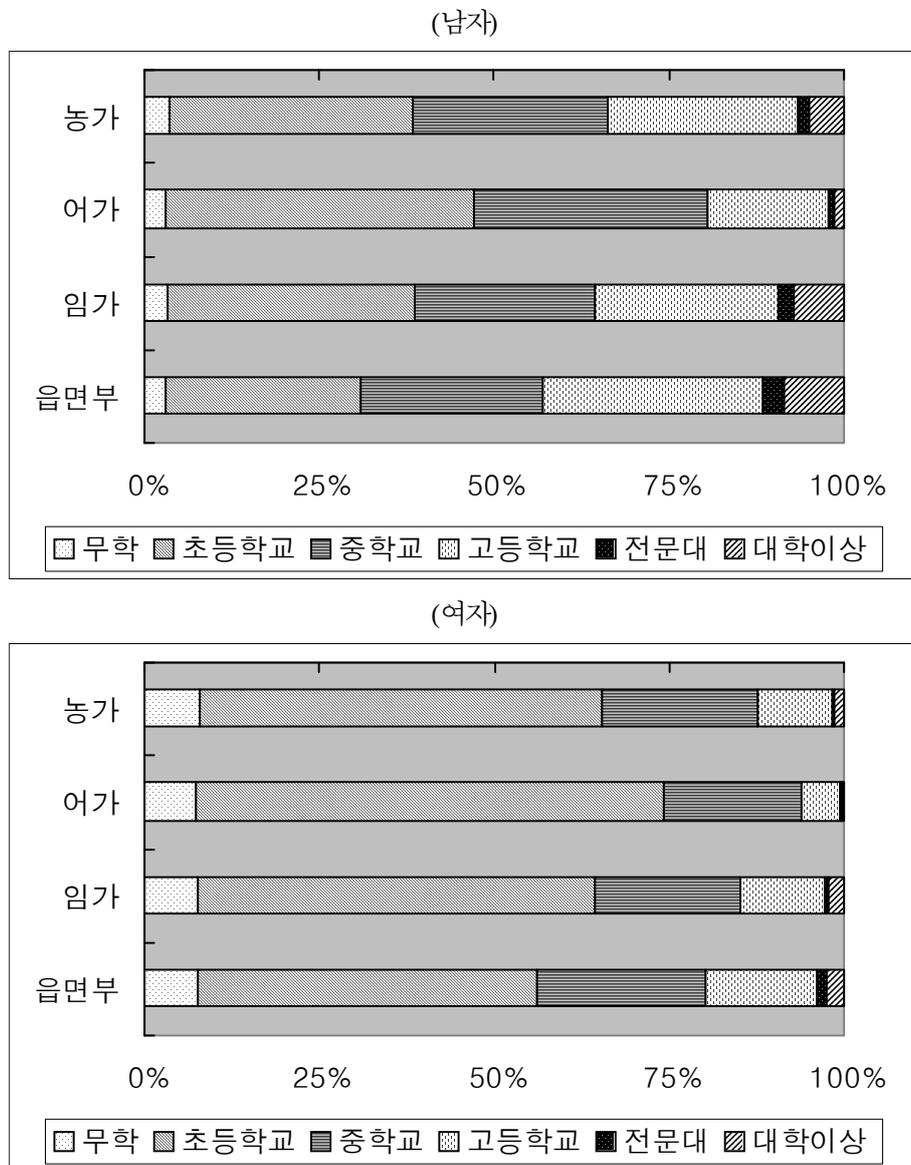
<표 4-6> 성·교육정도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50~59세, 2000 및 2005

연도	성 지역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2000	남자							
	농 가	100.0	6.0	47.2	25.4	18.0	0.8	2.7
	어 가	100.0	4.5	53.6	29.1	11.6	0.4	0.7
	읍면부	100.0	5.2	38.7	24.9	23.0	2.2	6.0
	여자							
	농 가	100.0	16.6	66.6	12.1	4.1	0.2	0.4
	어 가	100.0	16.0	70.8	10.5	2.5	0.1	0.1
2005	남자							
	농 가	100.0	3.5	34.9	27.8	27.1	1.6	5.0
	어 가	100.0	3.1	44.0	33.5	17.3	0.9	1.3
	임 가	100.0	3.2	35.3	25.9	26.2	2.2	7.2
	읍면부	100.0	3.1	28.0	26.0	31.5	3.1	8.4
	여자							
	농 가	100.0	8.1	57.4	22.2	10.6	0.5	1.3
	어 가	100.0	7.4	66.8	19.7	5.6	0.2	0.3
	읍면부	100.0	7.6	48.6	24.1	15.9	1.2	2.6

남자 50대의 전문대 이상 학력인구는 2000년에 전체의 3.5%에서 2005년에 6.6%로 증가 하였으며, 어가인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1.3%에서 2.2%로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오히려 커졌다.

임가 인구의 교육 수준은 2005년에만 비교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전문대 이상 학력인구가 전체의 9.4%로 농가인구보다 크게 앞서고, 읍면부의 12.5%에 비교되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농가와 임가 인구의 교육수준이 어가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더 낳은 교육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가인구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것(<표 4-2> 참조)도 지역적 영향과



<그림 4-9>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의 교육정도별 인구구성비 비교, 50~59세, 2005

산업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교육수준이 다른 농가와 임가 인구보다 낮은 것도 지역적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도시진출에 제약을 받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혼인상태

농림어가인구에 대한 혼인상태 자료는 2005년 총조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농가인구의 성, 연령별 혼인상태를 비교하였고, 농림어가와 읍면부 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의 비교는 30대 인구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도 총조사에서는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혼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에 대해서만 <표 4-7>과 <그림 4-10>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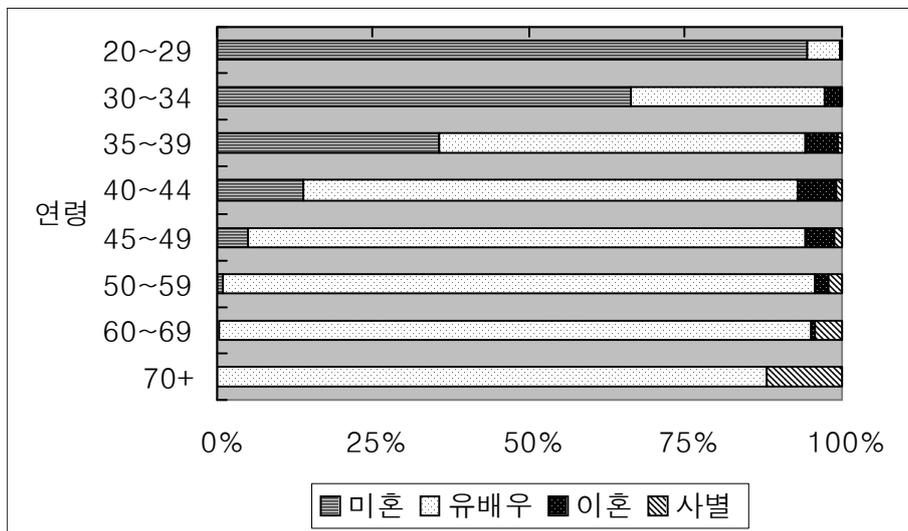
<표 4-7>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2005

성·연령	계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남자	100.0	17.3	76.9	1.8	4.0
20~29	100.0	94.3	5.2	0.3	0.1
30~34	100.0	66.3	30.8	2.5	0.3
35~39	100.0	35.6	58.5	5.4	0.6
40~44	100.0	13.9	79.1	6.0	1.0
45~49	100.0	4.8	89.5	4.3	1.4
50~59	100.0	1.0	94.7	2.1	2.1
60~69	100.0	0.2	94.9	0.5	4.4
70+	100.0	0.1	87.9	0.1	11.9
여자	100.0	8.5	69.6	0.4	21.4
20~29	100.0	83.4	16.1	0.3	0.1
30~34	100.0	26.6	71.0	1.8	0.6
35~39	100.0	6.5	91.0	1.7	0.9
40~44	100.0	1.7	95.7	1.0	1.6
45~49	100.0	0.6	95.6	0.6	3.2
50~59	100.0	0.2	90.5	0.3	9.0
60~69	100.0	0.1	75.4	0.2	24.3
70+	100.0	0.1	40.8	0.2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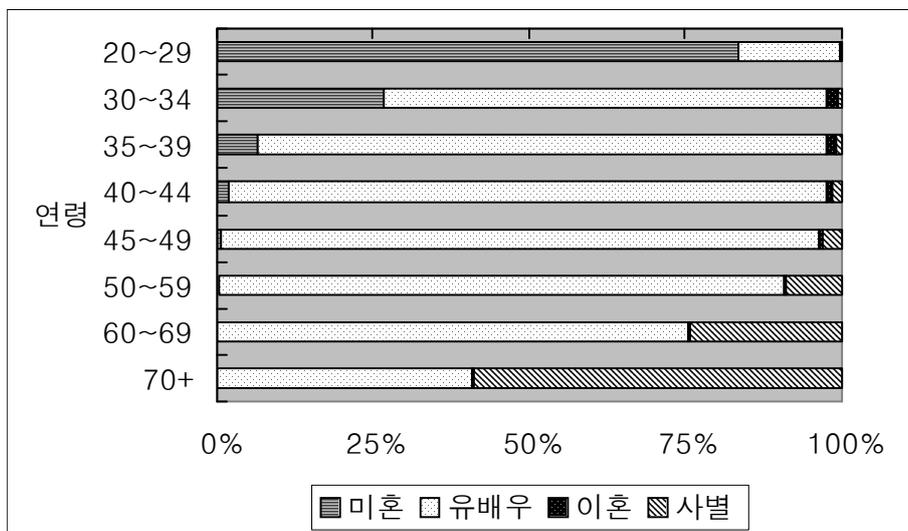
농가인구 중 남자의 경우 20세 이상 전체에서 미혼율과 유배우율이 각각 17.3%와 76.9%로 여자보다 미혼율(8.5%)과 유배우율(69.6%) 모두 높았다. 미혼율이 높으면 유배우율이 낮아지지만 우리나라 여자의 경우 사별율(21.4%)이 남자에 비하여 극히 높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자의 미혼율은 30대 후반에서도 35.6%를 유지하였으며, 40대 후반에서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30대 초에 26.6%까지 낮아졌으며 후반에는 6.5%가 되었다. 그러므로 유배우율은 남자의 경우 40대가 되어서 79.1%로 80%에 접근하고, 50대에 약 95%에 근접하는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30대 후반에 90%를 넘고, 40대 초에는 95.7%로 최고점에 도달하여

(남자)



(여자)



<그림 4-10>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비교, 2005

60대 이후에 빠르게 감소한다.

이혼율은 여자(0.4%)에 비하여 남자(1.8%)의 경우 높았으며, 특히 남자 30대와 40대에서 5~6%까지 높아진다. 여자의 경우도 3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비율은 2% 미만으로 낮다. 대신 여자의 경우 사별율이 50대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70세 이상에서도 58.9%가 사별상태이다. 이것은 남자의 11.9%에 비하여 크게 높았다. 그 이유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에 비하여 6~7년 높은 것과 재혼율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농림어가인구와 읍면부 인구의 혼인상태를 비교하였다. 혼인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 25-29세가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30-39세 인구의 혼인상태를 <표 4-8> 및 <그림 4-11>에 수록하였다.

농림어가 남자인구의 미혼율(43.9~51.3%)이 읍면부 인구(29.6%)에 비하여 특히 높았으며, 이혼율도 함께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 농가와 임가의 미혼율(15.3%, 12.2%)이 높으며, 이혼율(1.1~1.8%)은 읍면부(2.8%)에 비하여 낮았다. 여기서 농림어가의 혼인긴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읍면부인구보다 미혼율이 높았으나 그 정도는 남자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농림어가 30대 남자인구의 미혼율은 43.9~51.3%로 읍면부 인구의 29.6%보다 2배 가까이 되었다. 농가와 임가인구의 경우 더욱 심하였으며 어가인구의 미혼상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동이 더 자유스러운 농가인구와 임가인구에서 남자의 이혼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여자의 미혼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남녀 모두 이 연령층의 인구구성비가 낮으며 혼인이 어려운 사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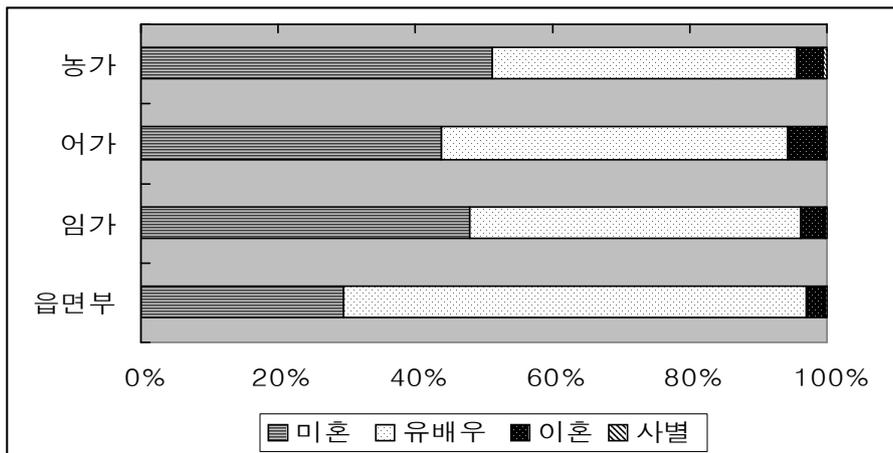
농림어가 인구의 이혼상태인 경우가 남자의 경우 읍면부 인구에 비하여 높으나 여자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이혼율이 농림어가 인구에서 3.4%(임가)까지로 높았으나 읍면부 인구는 2.8%로 낮았다. 여자의 경우는 농림어가인구에서 1.1%(임가)~1.8%(어가)이지만 읍면부 인구는 2.8%로 약 2배나 되었다.

이혼율의 지역별, 성별 차이는 지리적 차이와 성별 이동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우선 농림어가 인구 중에서 이혼할 경우 남자의 경우 타지역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여자의 경우 그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자의 경우 읍면부 인구에 비하여 이혼율이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반대로 낮았던 이유이다. 또한 농림어가 중 어가인구에서 남녀 모두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어촌의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데서 오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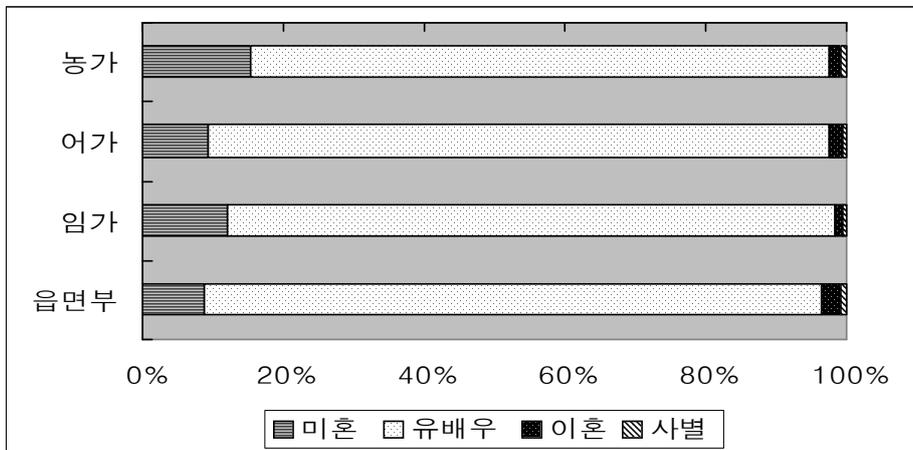
<표 4-8> 성 및 혼인상태별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

성·지역	계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남자					
농 가	100.0	51.3	44.3	3.9	0.5
어 가	100.0	43.9	50.2	5.5	0.4
임 가	100.0	48.0	48.2	3.4	0.4
읍면부	100.0	29.6	67.3	2.8	0.3
여자					
농 가	100.0	15.3	82.2	1.7	0.8
어 가	100.0	9.3	88.3	1.8	0.6
임 가	100.0	12.2	86.1	1.1	0.6
읍면부	100.0	8.8	87.6	2.8	0.8

(남자)



(여자)



<그림 4-11> 농림어가 및 읍면부 인구의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의 비교, 30~39세, 2005

다. 농가인구의 주 종사분야 및 주 종사기간별 인구, 2005

농가인구의 2005년 주 종사분야별 인구분포를 <표 4-9>에서 연령별로 비교하였다. 20세 이상 남자인구의 72.3%가 농림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비율도 72.4%로 높았다. 연령별로 볼 때 40대부터 전체의 70%(남자는 69.5%)가 농림업에 종사하고, 남녀 모두 60대에서 농림업종사 인구가 90%를 상회하였다. 70세 이상에서도 남자는 9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71.6%로 낮아졌다. 고령자가 많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농림업 이외에 종사비율이 높은 분야는 남녀 모두 20대와 30대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가타산업이며, 인구구성비는 남녀 각각 12.0%와 13.9%로 여자의 경우가 높았다.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남녀 각각 8.9%와 14.8%였으며 주로 20대에서 재학이나 군 복무 또는 취업 준비 중, 여자의 경우 혼인에 의한 가사일도 “종사하지 않음”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농가인구의 특성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면부인구의 특성과 비교하였다(<표 4-9> 참조). 농가인구의 농림업 종사자가 남녀 모두 7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면부 인구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의 경우 “종사하지 않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나머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극히 낮았으나 면부 인구의 경우는 “종사하지 않음”에 남녀 각각 23.2%와 43.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타 산업(13.9%), 제조업(남자 : 10.7%; 여자 : 4.7%)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도 남녀 각 7% 내외가 되었다.

전국면부에서는 남자(38.5%), 여자(34.9%)만이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 과거(1980년 이전)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30%에 근접할 때 면부(또는 읍면부) 인구의 특성이 유사하던 것이 농가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그 특성의 차이는 커졌다. 대신, 전국 면부의 인구의 주 종사분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농촌(여기서는 면부)의 직업특성이 빠르게 바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가인구의 2005년 농업종사기간별 인구구성비를 <표 4-10>에 정리하였다. 20세 이상 전체의 15.0%(남자)와 20.1%(여자)는 농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으며 종사자의 65.0%와 67.9%(남자)가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4-9> 농가인구의 주종시분야별 인구구성비, 2005

		계	농업 및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산업	종사하지 않았음
농가	남자	100.0	72.3	0.9	2.2	1.8	1.3	0.6	12.0	8.9
	20~29	100.0	8.4	0.2	6.1	1.7	1.5	0.6	27.3	54.2
	30~39	100.0	37.1	0.7	6.9	5.4	3.0	1.0	36.0	9.9
	40~49	100.0	69.5	1.2	3.1	3.7	2.2	1.1	17.5	1.8
	50~59	100.0	82.4	1.4	1.6	1.8	1.5	0.8	10.1	0.5
	60~69	100.0	94.3	1.0	0.3	0.4	0.6	0.3	2.5	0.6
	70+	100.0	92.1	0.4	0.1	0.1	0.2	0.1	0.5	6.7
	여자	100.0	72.4	0.8	1.3	0.2	1.3	1.5	7.6	14.8
	20~29	100.0	7.3	0.1	3.9	0.6	1.6	0.7	36.7	49.2
	30~39	100.0	46.5	0.6	3.2	0.5	2.8	2.8	23.2	20.4
	40~49	100.0	71.2	1.2	2.7	0.2	2.8	4.1	10.2	7.7
	50~59	100.0	84.2	1.2	1.3	0.1	1.7	2.2	4.4	4.8
	60~69	100.0	92.6	0.8	0.3	0.0	0.7	0.5	1.1	4.1
	70+	100.0	71.6	0.3	0.0	0.0	0.2	0.1	0.2	27.5
면부	남자	100.0	38.5	1.8	10.7	5.1	4.3	2.5	13.9	23.2
	20~29	100.0	7.1	0.7	22.0	3.9	5.0	2.3	15.0	43.8
	30~39	100.0	16.0	1.5	22.1	10.2	7.9	3.4	26.1	12.8
	40~49	100.0	32.5	2.6	13.0	9.3	6.0	4.0	20.8	11.7
	50~59	100.0	49.7	3.0	6.7	5.0	4.0	3.5	14.7	13.4
	60~69	100.0	66.5	2.0	2.1	1.1	2.0	1.4	4.8	20.2
	70+	100.0	52.0	0.5	0.4	0.1	0.9	0.2	0.9	44.9
	여자	100.0	34.9	1.0	4.7	0.4	3.2	4.4	7.5	43.8
	20~29	100.0	3.6	0.2	11.7	1.3	4.8	3.2	24.7	50.4
	30~39	100.0	13.2	0.7	7.8	0.7	6.1	7.0	16.9	47.6
	40~49	100.0	33.3	1.9	8.9	0.5	5.6	10.8	9.9	29.2
	50~59	100.0	50.5	1.9	4.7	0.3	3.5	6.8	5.0	27.3
	60~69	100.0	58.3	1.1	1.4	0.1	1.7	1.6	1.5	34.3
	70+	100.0	29.5	0.4	0.2	0.0	0.6	0.2	0.3	68.7

<표 4-10> 농가인구의 농업종사기간별 인구구성비, 2005

	계	없음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남자	100.0	15.0	1.9	5.2	10.0	67.9
20~29	100.0	77.6	7.4	5.4	2.2	7.4
30~39	100.0	37.2	6.9	10.2	9.8	35.9
40~49	100.0	6.1	1.6	8.6	15.0	68.7
50~59	100.0	1.2	0.4	5.6	13.0	79.8
60~69	100.0	0.7	0.1	2.6	9.1	87.5
70+	100.0	6.5	0.2	2.7	8.5	82.1
여자	100.0	20.1	1.9	4.7	8.3	65.0
20~29	100.0	84.5	5.1	2.9	1.3	6.1
30~39	100.0	37.5	5.2	7.9	7.8	41.7
40~49	100.0	12.9	3.1	7.5	10.4	66.1
50~59	100.0	6.5	1.6	5.0	9.6	77.4
60~69	100.0	4.1	0.5	3.2	8.9	83.3
70+	100.0	26.7	0.7	3.8	7.9	60.8

주 종사분야가 농업 및 임업인 인구가 대다수인 농가인구에서 농업의 경직성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연령대인 40대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는 비중이 특히 높았다. 다만, 30대 이전의 젊은 연령층에서 농업 및 임업 종사자가 급감하면서 타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주 종사기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농촌의 주 종사업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3. 농가인구의 장래전망

가. 장래 농가인구의 추계방법

장래인구를 추계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흔히 이용하는 방법이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별 출생, 사망 및 이동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 외에 수리적 모형으로 Gompertz method, 지수법(exponential method)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지수법을 이용하였다.

농가인구의 감소유형은 1980년 이후 처음에는 빨리,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속도가 둔화되었다(<표 4-11> 참조).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1980년에 총인구의 29.8%였으나 그 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에는 반으로 줄어든 15.1%였고, 1995년에는 10.6%로 낮아졌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지속되어 2000년에 8.5%이던 것이 2005년에는 7.1%로 되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후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는 빨리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소유형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인구의 구성비는 아무리 감소하여도 “0”이 될 수 없으므로 시간이 무한히 흐르면 이 구성비가 “0”에 접근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농가 총인구의 특성에 따라 성·연령별 인구도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구성비의 수준에 따라 변화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성·연령별 농가인구가 성·연령별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모형을 추정하여 장래 온가인구를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전국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0%에 접근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성·연령별 인구감소 유형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기준시점의 인구구성비 수준에 따라 감소속도가 다르다.

지수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성·연령별로 인구변화를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가와 어가인구의 구성비는 1%에 미치지 못한다. 농가인구의 경우 성·연령별 유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임가와 어가인구의 경우 절대규모가 작으므로 성·연령별 유형을 고려한 장래인구추계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농가인구에 대해서만 장래인구를 추계하였다.

여기에서 작용하고자 하는 지수모형(exponential model)은 다음과 같다.

$$Y_i = e^{(a+bX_i)}$$

이 모형에서 Y절편은 e(a)의 값을 지닌다. 또한 b>0이면 이 지수모형의 기울기는 +의 값을 지니며 Xi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반면, b<0이면 기울기는 -가 되고 Xi 값의 증가와 함께 점점 감소하여 X축에 접근한다(김두섭, 2000: 249).

농가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면서 그 속도가 줄어들므로 b<0의 기울기를 가지며, e(a)값이 “1”, 즉 구성비는 “0”에 근접하게 된다.

장래 농가인구의 추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 이후 성·연령별 농가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를 계산한다. 이 구성비는 처음에는 빠르게, 다음은 느리게 변화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구성비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Y_i = e^{(a+bX_i)} \text{ ----- (1)}$$

Y_i 는 특성 i 의 인구구성비 이고, X_i 는 특성 i 의 인구구성비가 나타난 시점이다. a 와 b 는 상수이다. 식 (1)의 양변을 자연대수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1차식을 얻는다.

$$\ln(Y_i) = a + bX_i \text{ ----- (2)}$$

1980년도부터 2005년까지의 시점 X_i 와 그 때의 특성별 인구구성비(Y_i)를 이용하여 최소승법으로 상수 a 와 b 를 산출하여 회귀선을 추정하였다. 2005년 이후에 5년 단위로 2020년까지 인구구성비를 연장하였다. 2005년 이후의 추정 인구구성비는 전국인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통계청에서 추계한 전국 장래인구에 해당되는 농가인구구성비를 곱하여 특성 i 의 농가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추정한 특성별 농가인구를 합하면 연도별 전국 농가인구가 된다.

나. 농가의 장래인구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추정한 2020년까지의 전국 농가인구를 성·연령별로 정리하여 <표 4-11>에 수록하였다.

<표 4-11> 성·연령별 장래 농가인구추계, 2005~2020

	2005	2010	2015	2020
전체	3,433,573	2,960,825	2,602,257	2,342,267
0~4	67,250	35,369	23,054	14,777
5~9	114,808	51,259	28,850	17,675
10~14	153,027	89,522	45,074	25,225
15~19	157,792	119,651	76,040	40,864
20~24	149,235	91,397	71,714	47,863
25~29	143,100	99,832	62,243	50,572
30~34	118,706	71,106	48,119	28,214
35~39	129,144	88,246	52,927	34,546
40~44	185,074	122,468	83,326	50,067
45~49	263,521	193,173	133,844	94,987

	2005	2010	2015	2020
50~54	284,385	291,258	228,590	167,185
55~59	316,478	329,928	355,608	298,382
60~64	351,747	364,963	374,423	424,450
65~69	408,521	383,119	383,023	416,710
70~74	309,279	309,713	292,059	294,312
75~79	158,942	177,831	183,203	168,208
80+	122,564	141,990	160,160	168,231
남자	1,676,592	1,451,433	1,271,789	1,142,516
0~4	35,333	18,662	12,193	7,808
5~9	60,898	27,089	15,243	9,369
10~14	82,118	47,107	23,651	13,237
15~19	83,046	61,872	38,320	20,218
20~24	77,377	46,797	36,469	23,462
25~29	83,323	63,247	40,540	33,651
30~34	71,006	44,184	30,977	19,016
35~39	67,606	47,806	29,552	19,813
40~44	89,934	60,466	41,789	25,475
45~49	126,426	91,037	62,883	44,918
50~54	131,538	132,301	102,493	73,996
55~59	150,058	150,035	158,859	130,822
60~64	160,513	168,879	169,149	186,914
65~69	191,400	185,450	188,312	202,263
70~74	148,482	163,042	158,161	165,620
75~79	74,114	92,631	101,843	97,626
80+	43,420	50,828	61,354	68,309
여자	1,756,981	1,509,392	1,330,469	1,199,751
0~4	31,917	16,708	10,861	6,968
5~9	53,910	24,170	13,608	8,306
10~14	70,909	42,415	21,423	11,988
15~19	74,746	57,778	37,719	20,646

	2005	2010	2015	2020
20~24	71,858	44,600	35,246	24,401
25~29	59,777	36,585	21,703	16,921
30~34	47,700	26,923	17,143	9,198
35~39	61,538	40,440	23,375	14,734
40~44	95,140	62,001	41,537	24,591
45~49	137,095	102,136	70,961	50,069
50~54	152,847	158,957	126,097	93,190
55~59	166,420	179,893	196,749	167,560
60~64	191,234	196,083	205,273	237,536
65~69	217,121	197,669	194,710	214,447
70~74	160,797	146,671	133,897	128,692
75~79	84,828	85,200	81,361	70,581
80+	79,144	91,162	98,806	99,923

1980년 이후 성별 농가인구와 전국인구를 <표 4-12>에서 비교하였다. 2005년까지의 농가인구는 농업총조사결과이고, 2010년 이후는 위에서 추정된 장래인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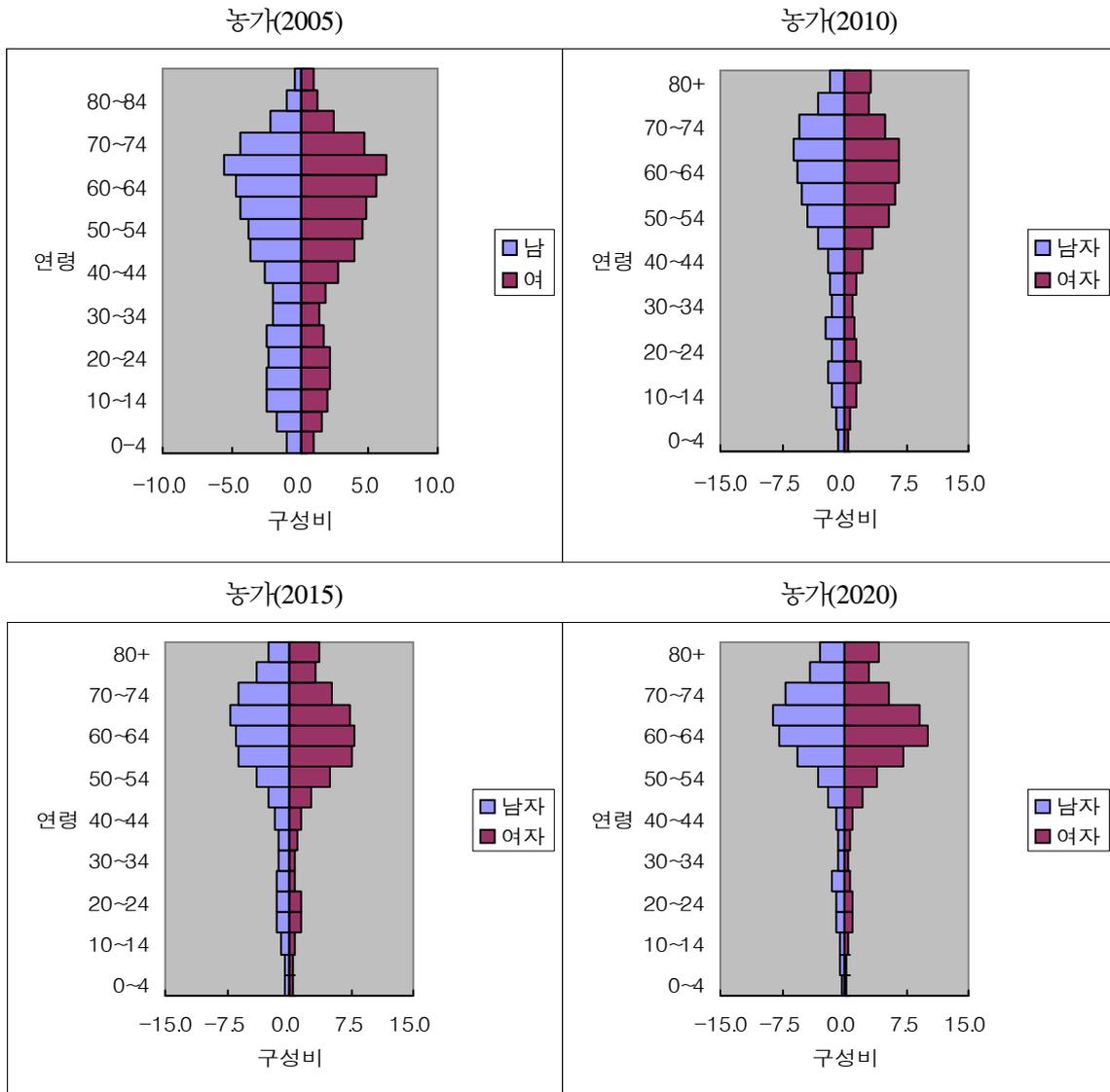
<표 4-12> 전국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중의 변화, 1980~2020

연 도	농가인구			전국인구에 대한 농가인구비중(%)
	계	남자	여자	
1980	10,826,748	5,414,805	5,411,943	29.8
1990	6,661,322	3,278,764	3,382,558	15.1
1995	4,851,080	2,372,999	2,478,081	10.6
2000	4,031,065	1,970,989	2,060,076	8.5
2005	3,433,573	1,676,592	1,756,981	7.1
2010	2,960,825	1,451,433	1,509,392	6.1
2015	2,602,257	1,271,789	1,330,469	5.3
2020	2,342,267	1,142,516	1,199,751	4.7

자료 : 1980~2005 : 농업총조사결과, 2010~2020 : 장래인구추계결과

우리나라 농가의 인구는 1980년에 1,083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29.8%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에도 빠르게 감소하여 2005년에 전국인구의 6.1%에 해당되는 343만 명으로 25년 전보다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다(<표 4-12> 참조). 앞에서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농가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0년에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9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것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지속되어 2020년에는 전국인구의 4.7%에 해당되는 243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농가인구는 규모에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큰 변화는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그림 4-12>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인구의 성·연령별 인구를 피라미드로 그려놓은 것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농가인구의 젊은 연령층이 좀 있고, 노동력的高령화가 뚜렷하지만 50대와 60대의 농업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



<그림 4-12> 장래 농가인구의 구조변화, 2005~2020

러나 2010년에는 고연령층 노동인력은 더욱 고령화되고, 젊은 연령층의 감소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인구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는 현재 고령층의 사망과 함께 다른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인구의 구조를 보면(<표 4-13> 참조), 200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1%로 전국인구 2005년에 9.1%에 비하면 고령화가 극도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인력의 진입은 낮은 출산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노인인구만 급증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에 34.2%, 2020년에 44.7%에 도달함으로써 전국인구의 15.6%(통계청, 2006)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하게 된다.

노인구성비의 증가로 노년부양비가 커진다. 다만, 1~14세의 영유아일 경우 0~14세 인구는 2.5%(20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때 전국 평균은 15.6%로 농가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소년인구의 감소로 유소년부양비는 2005년의 16.0에서 2020년에 4.7로 감소하지만 반대로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에 47.6에서 84.7로 급증한다. 그러므로 농가인구의 총부양비는 2050년에 63.6에서 2020년에 89.3으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비인 노령화지수는 2005년에 296.7로 노년인구가 유소년인구의 약 3배였으나 그 후 급증하여 2020년에는 18배가 넘게 된다. 이것은 농가인구의 고령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그림 4-12>와 <표 4-13>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젊은 노동력 부족현상은

<표 4-13> 농가의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005~2020

(단위 : %, 인구 백명당)

	2005	2010	2015	2020
인구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0~14	9.8	5.9	3.7	2.5
15~64	61.1	59.8	57.1	52.8
65+	29.1	34.2	39.1	44.7
총부양비	63.6	67.1	75.0	89.3
유소년부양비	16.0	9.9	6.5	4.7
노년부양비	47.6	57.1	68.5	84.7
노령화지수	296.9	574.9	1050.2	1816.1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음은,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없으면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하고, 이것은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끝으로, 유소년인구를 비롯하여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의 지속은 농업중심의 농촌사회가 사라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4. 요약

가. 농림어가 인구의 규모 및 구조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1980년에 총인구의 28.9%에 해당되는 1,083만 명이었다. 그 후 농가인구는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에 총인구의 15.3%인 666만 명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8.7%인 40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감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7.3%인 343만 명으로 지난 25년 만에 농가인구는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었다. 1990년부터 5년간 총 27.2%나 감소하였으나 그 후에는 감소속도가 둔화되어 2000년 전과 후 5년간 각각 16.9%와 14.8%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어가인구도 농가인구와 같이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에 50만 명으로 총인구의 1.1%였으나 2000년에는 10년 전보다 꼭 반에 해당하는 25만 명이 되었으며, 이 감소는 계속 이어지면서 5년 후인 2005년에는 22만 명이 되었다. 1990년대 전, 후반 각 5년 동안 각각 30.0%와 27.6%씩 감소하여 농가인구의 감소속도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감소속도는 많이 둔화되었으나 첫 5년 동안 12.0%나 감소하였다. 임가의 경우는 2000년 조사대상이 산림청에 등록된 임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2000년에 임가로 조사된 164천명을 2005년의 임업총조사결과인 264천명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임가인구도 농가나 어가 인구와 같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도 될 것이다.

1980년의 농가와 읍면부 및 전국평균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매우 유사하였다. 농촌의 전통사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농촌의 산업이 농업중심으로 농가인구와 읍면부(농촌) 인구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오면서 농촌과 전국인구의 연령별 특성이 달라졌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가인구는 빠르게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5%로 읍면부의 9.0%를 훨씬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0~14세의 유소년 인구는 급감하여 겨우 20%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이후 더욱 뚜렷하였다.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농가인구의 21%를 상회함으로써 초 고령인구로 변환되었으며, 0~14세 인구는 11.4%까지 감소하였다. 읍면부의 인구도 전국 평균에 비하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농가인구의 변화에 비하면 그 속도는 훨씬 느린 편이다. 2000

년의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8.7%로 감소하여 읍면부 인구 중에서도 그 비중이 낮아졌으므로 농가인구는 과거의 농촌인구와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까지 20~24세 인구의 성비가 먼저 높았으나 그 후에는 110 전후로 낮아졌다. 이 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혼인의 영향으로 먼저 전출하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이 성비가 낮아지는 것은 남녀 모두 진학 등으로 전출이 심화되면서 이동이 어려운 그룹만 농가에 잔류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25~29세와 30~34세의 성비가 급증하는데 이것은 그 동안 남녀의 성비가 높아지면서 여성의 전출이 먼저 일어나고, 남자의 전출이 이어지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나. 농림어가인구의 사회적 특성

농림어업 종사자의 중심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의 학력별 인구구성비를 비교하였다. 40대(40~49)에서 전문대(대졸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가 2000년에 그 연령의 인구 중에서 6.6%였으나 2005년에는 2.3배나 되는 15.3%로 급증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1.6%에서 5.6%로 3.5배나 되어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학력수준이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남녀 공히 중심 학력소지자가 되었다. 2000년에 40대 남자의 고등학교 졸업자는 총인구의 34.2%(2000)에서 5년 만에 45.7%(200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여자는 같은 기간에 16.5%에서 34.1%로 증가하여 고졸이 중심학력이 되었다. 2000년의 중심학력이 여자의 경우 초등졸업이었으므로 중심학력이 고등학교로 상승한 것은 고령자의 학력수준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0대에서도 학력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여 40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자료에서는 농가와 어가인구의 교육수준만 비교할 수 있었으며 임가인구의 교육수준은 2005년에만 비교하였다. 읍면부 인구의 교육정도가 농림어가 중에서는 농가(2000 및 2005)와 임가(2005)인구의 교육정도가 어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가 남자 50대의 전문대이상 학력인구는 2000년에 전체의 3.5%에서 2005년에 6.6%로 증가하였으며, 어가인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1.3%에서 2.2%로 유사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오리려 커졌다.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자의 미혼율은 30대 후반에서도 35.6%를 유지하였으며, 40대 후반에서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30대 초에 26.6%까지 낮아졌으며 후반에는 6.5%가 되었다. 그러므로 유배우율은 남자의 경우 40대가 되어서 79.1%로 80%에 접근하고, 50대에 약 95%에 근접하는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30대 후반에 90%를 넘고, 40대 초에는 95.7%로 최고점에 도달하여 60대 이후에 빠르게 감소한다. 농림어가 남자인구의 미혼율(43.9~51.3%)이 읍면부 인구(29.6%)에 비하여 특히 높았으며, 이혼율도 함께 높아졌다. 여자의 경우 농가와 임가의 미혼

율(15.3%, 12.2%)이 높으며, 이혼율(1.1~1.8%)은 읍면부(2.8%)에 비하여 낮았다. 여기서 농림어가의 혼인긴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읍면부인구보다 미혼율이 높았으나 그 정도는 남자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다. 농가인구의 장래전망

우리나라 농가의 인구는 1980년에 1,083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29.8%를 차지하였으나 그 후에도 빠르게 감소하여 2005년에 전국인구의 6.1%에 해당되는 343만 명으로 25년 전보다 약 3분의 1로 감소하였다. 지수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농가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0년에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96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것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지속되어 2020년에는 전국인구의 4.7%에 해당되는 243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농가인구는 규모에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큰 변화는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농가인구의 젊은 연령층이 좀 있고, 노동력의 고령화가 뚜렷하지만 50대와 60대의 농업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고연령층 노동인력은 더욱 고령화되고, 젊은 연령층의 감소가 더욱 뚜렷해 졌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2020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60세 이상 노인만으로 인구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는 현재 고령층의 사망과 함께 다른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젊은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음은, 젊은 연령층의 전입이 없으면 유소년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하고, 이것은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끝으로, 유소년인구를 비롯하여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의 지속은 농업중심의 농촌사회가 사라지는 것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 농림어가의 가족

1. 분석의 주안점

가. 선행연구 및 관련 보고서 검토

흔히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은 형태상으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기능상으로 생산단위로서의 기능이 축소되고 소비단위로서의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특히 출산과 양육, 사회화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특화된 공간으로 변화한다고 알려져 왔다(Parsons, 1955; Ogburn, 1955; Goode, 1963). 그러나 최근의 많은 사회사적 연구는 근대화 이후에도 가족이 생산의 단위로서 기능하는 과정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과 가치를 통제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국 농림어업에서 가족은 바로 이러한 사회사적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산과 소비의 단위 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공간이자 사회관계 일차적 소재지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유지와 지속, 해체와 관련되는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족구조와 변동과정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농림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가족 분석은 농림어업의 구조와 변동을 설명할 때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는 단서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사회가 해체되는 구조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과 인구의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경동, 1983; 김홍주, 1991).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림어가도 도시가구와 마찬가지로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가구원수도 소인수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연구관점의 등장으로 이들 가족의 변화가 농림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농가의 경우 지난 '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사회경제적 전환비용을 농가 자원의 대거 동원에서 찾으려는 농정 때문에 농가가 해체되고,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의 재생산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박길성, 1990; 김홍주, 1994). 소규모 단순생산형태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농림어업 체계는 가족자원의 지속적인 동원 여부가 생산의 지속에 중요한데, 이들의 가족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농림어업의 위기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및 생산 측면의 회생 가능성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연구가 소홀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2년 통계청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된 『농업총조사 종합분석』(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보고서에는 농가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빠져 있다. 2003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에는 가족분석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다(제3장 가족구조와 농가 형태의 변화). 그러나 분석내용을 보면, 농가의 구성원과 세대구성 실태, 농업경영주 분포와 영농후계자 존재여부, 농가의 전업과 겸업 현황 등에 한정되어 있어 최근 농가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족구조의 질적 측면과 다양한 농가의 존재형태, 이들 농가의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 분석수준 또한 단순한 통계수치의 연도별 배열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농가의 가족구조 변화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원자료 분석이 미약한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보고서 모두에게 농가 이외의 임어업 가족의 구조변화와 특징이 전혀 분석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림어업총조사’에 대한 종합 분석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어가에 대한 가족정책 수립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농림어가의 가족구조와 다양한 가족들,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가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나. 한국 가족의 변화 경향

농림어가의 가족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존재 형태가 어떠한 가’와 ‘이러한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특히 농림어가의 가족변동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의 가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이며, 이는 결국 변화한 가족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이러한 가족구조는 농림어업의 지속성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가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림어가의 가족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 전국의 가족변화 경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가족구조와 농림어가의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가족의 등장배경, 이들의 가족특성, 그리고 향후 변화전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한국 가족의 변화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안호용·김홍주(2000)의 연구결과를 보면, 산업화 이후 한국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족가치의 증가가 특징이다. 이 중에서 가족구조의 단순화 추이는 세대 깊이의 축소,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 가구 규모의 축소 경향에서 찾을 수 있었다. <표 4-14>에 의해 1975년 이후 전국 가구의 세대구성 변화를 보면, 1세대와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에 2세대 이상의 가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지역의 경우, 1세대 가구는 1975년 8.1%에서 2005년 14.1%로, 1인 가구는 동기간 동안 0.5%에서 19.1%로 증가하고 있으나 2세대

가구의 경우는 76.4%에서 58.7%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적 농림어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 1세대 가구(5.2% → 24.9%)와 1인 가구(0.5% → 24.9%)는 크게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24.9%에서 7.0%로 같은 기간 동안 17.9%p나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3세대 이상의 가구가 줄어들고, 1세대나 2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변화 추이는 한국 가족의 세대깊이(generation depth of family)가 그 만큼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구조의 단순화 경향을 확인해주고 있다.

<표 4-14> 세대구성의 변화 : 1975~2005

지역	연도	총일반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1인가구	비혈연가구
동지역	1975	3,177,468(100.0)	8.1	76.4	14.5	0.5	0.5	0.0
	1980	4,661,626(100.0)	9.1	71.6	12.7	0.1	4.7	1.8
	1985	6,220,346(100.0)	9.6	71.1	12.0	0.3	6.9	0.1
	1990	8,340,647(100.0)	9.7	70.4	10.8	0.2	8.7	0.2
	1995	10,031,978(100.0)	10.6	67.0	9.0	0.2	11.8	1.4
	2000	11,229,476(100.0)	12.0	64.5	7.6	0.1	14.6	1.2
	2005	12,744,940(100.0)	14.1	58.7	6.6	0.1	19.1	1.4
읍면지역	1975	3,276,130(100.0)	5.2	64.5	24.9	1.4	4.0	0.0
	1980	3,299,225(100.0)	7.2	64.3	21.8	0.9	4.9	0.9
	1985	3,138,608(100.0)	12.2	63.4	20.3	0.7	7.2	0.9
	1990	2,892,523(100.0)	14.1	57.2	16.8	0.6	10.3	1.0
	1995	2,926,293(100.0)	19.8	50.6	12.4	0.4	15.6	1.2
	2000	3,082,331(100.0)	22.1	47.3	10.3	0.3	18.9	1.1
	2005	3,142,188(100.0)	24.9	42.2	7.9	0.2	23.3	1.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다음으로 <표 4-15>의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를 보면 ‘가구의 소인수화’ 경향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평균 가구원수도 지난 30년 사이 급감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지역의 경우, 6인 이상 가구는 1975년 35.5%에서 2005년 2.1%로 감소해 감소폭이 무려 33.4%p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인 이하 소규모 가구는 1975년 9.6%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39.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6인 이상의 가구는 42.9%p나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균 가구원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지난 30년 동안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를 보면 동지역의 경우 1.9명이 감소한 반면에 읍면지역의 경우는 2.6명이 감소하여 가구 규모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만큼 가구 규모가

소인수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4-14>에서 보여준 세대 깊이의 축소와 <표 4-15>에서 보여준 가구의 소인수화 경향은 결국 한국 가족구조가 지난 30년 동안에 급격하게 단순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초혼연령의 상승, 합계출산율의 감소 및 결혼연령층 여성인구의 감소경향 등의 인구학적 변화를 볼 때 이러한 가족의 소규모화·단순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단순화는 가족부양체제나 생산단위로서의 가족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족기능과 사회 전체의 부양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농림어가의 가족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는 어떠한 가를 분석해보면 이들 가족의 사회재생산 기능과 부양체제의 변화 특징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표 4-15>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 : 1975~2005

지역	연도	총일반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평균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동지역	1975	3,177,468(100.0)	0.5	9.1	15.5	19.9	19.5	35.5	4.8
	1980	4,661,626(100.0)	4.7	10.7	15.3	22.3	20.8	26.1	4.4
	1985	6,220,346(100.0)	6.8	11.6	16.8	27.4	20.0	17.4	4.0
	1990	8,340,647(100.0)	8.6	12.2	19.5	31.9	19.1	8.6	3.7
	1995	10,031,978(100.0)	11.8	14.5	20.8	34.5	13.2	5.2	3.4
	2000	11,229,476(100.0)	14.6	16.8	21.5	33.6	10.3	3.0	3.2
	2005	12,744,940(100.0)	19.1	20.1	21.7	29.1	7.9	2.1	2.9
읍면지역	1975	3,276,130(100.0)	3.9	7.6	11.0	14.4	17.1	45.8	5.3
	1980	3,299,225(100.0)	4.9	10.3	13.3	17.5	18.9	35.1	4.7
	1985	3,973,749(100.0)	7.2	13.7	15.9	21.2	18.3	23.7	4.2
	1990	2,892,523(100.0)	10.3	18.3	17.6	22.4	18.1	13.3	3.7
	1995	2,926,293(100.0)	15.6	24.9	18.7	22.3	11.6	6.9	3.1
	2000	3,082,331(100.0)	18.9	27.3	18.4	21.7	9.2	4.5	2.9
	2005	3,142,188(100.0)	23.3	30.6	17.6	18.7	6.9	2.9	2.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한국 가족의 또 다른 변화 특징은 다양한 가구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의 일반가구 중 가족이 함께 사는 친족가구는 78.6%로 2000년의 83.4%보다 4.8%p 감소하였다. 이러한 친족가구는 지난 1990년에 비하면 10.9%p나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친족가구의 감소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인 가구는 2005년 현재 3,171천 가구로 1995년의 1,642천 가구에 비하여는 1,529천

가구로 93.1%가 증가하였고, 2000년의 2,224천 가구에 비하여는 947천 가구로 42.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	2000	2005
가구수(천가구)	1,642	2,224	3,171
증가율(%)		35.4	42.5

연령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30~40대 취업연령 계층에서, 농촌지역에서는 7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의 경우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층이 대부분인 반면에 농촌지역의 경우는 해체기 가구 중 부부의 한 명이 사망하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형태가 대부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발적 선택이든 해체기의 자연적 형성이든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는 출산이나 양육 등과 같은 특화된 가족기능이 수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전체의 유지·지속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친족가구 중 2세대로서 핵가족 형태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2005년에 55.4%로 2000년에 비해 1.3%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에 여러 세대가 직계가족의 형태로 구성되는 3세대 이상의 가구는 지난 5년 동안 34.7%나 감소하였다. 이는 핵가족이나 직계가족과 같은 전형적인 가족유형은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1세대인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족이나 1인가구는 크게 증가함으로써 가구형태가 다양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세대로서 핵가족 형태로 구성된 가구에서도 한부모나 조손가구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형태는 지난 5년 사이 2.8%가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녀’와 ‘조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형태는 모두 9.0%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부의 이혼이나 사별과 같은 결혼 해체로 인해 나타나는 가구구성으로, 지난 5년 사이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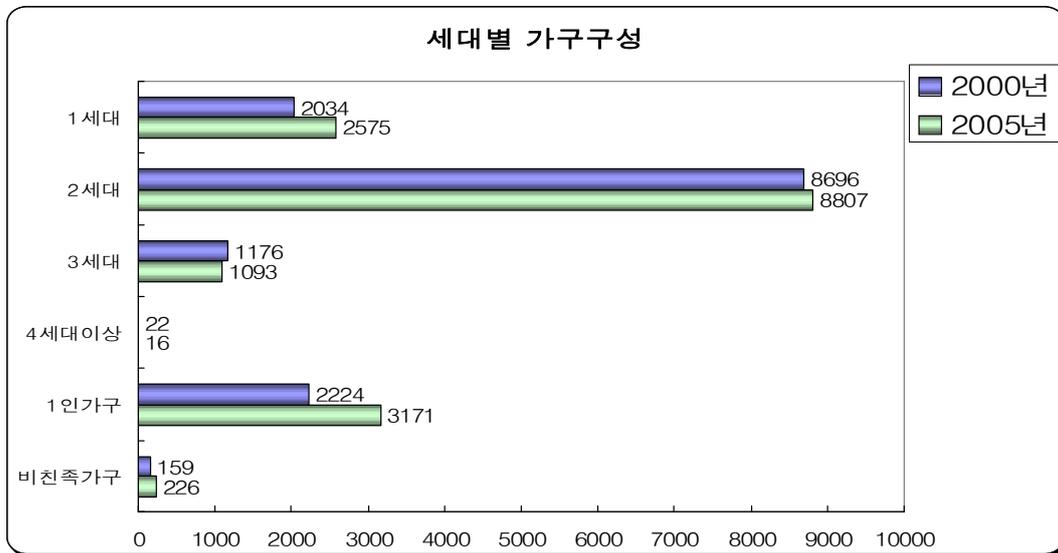
요약하면 한국가족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인원수가 감소하고 세대수가 적어지며, 구성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독신과 이혼·재혼 등의 증가로 인해 1인 가구, 한부모가구, 복합가구 등 유형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16> 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단위 : 천가구, %)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증 감	증감률
계		14,312	(100.0)	15,887	(100.0)	1,575	11.0
친 족 가 구	· 1세대 가구	2,034	(14.2)	2,575	(16.2)	541	26.6
	· 2세대 가구	8,696	(60.8)	8,807	(55.4)	111	1.3
	부부+자녀	6,892	(48.2)	6,702	(42.2)	-190	-2.8
	한부모+자녀	1,124	(7.9)	1,370	(8.6)	246	21.9
	조부모+손자녀	45	(0.3)	58	(0.4)	13	28.5
	· 3세대 가구	1,176	(8.2)	1,093	(6.9)	-84	-7.1
	· 4세대 이상가구	22	(0.2)	16	(0.1)	-6	-27.6
1인 가구		2,224	(15.5)	3,171	(20.0)	946	42.5
비친족 가구		159	(1.1)	226	(1.4)	67	41.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다. 분석의 주안점

이상 선행연구 검토와 한국 가족의 변화 경향을 고려하여 여기에서 농림어가의 가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의 농림어업총조사 분석에 빠져 있는 임가와 어가를 분석하여 도시지역과 대

비되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림어업의 사회 재생산 체계를 이해하여 이의 지속가능성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한국 가족의 변화 특성인 가구규모의 축소와 소인수화 경향, 가족형태의 다양화 경향이 농림어업의 가족구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농림어업에서 가족은 단순히 소비의 단위이거나 출산과 양육과 같은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가족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계유지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 해체된다면 농림어업의 지속가능성은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농림어가의 가족구조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변화하는 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가족구조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있는 독거노인가구나 노부부만의 1세대 가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등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농림어가의 구조적 특징이나 생활방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이들에 대한 맞춤형 가족 정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가구의 다양한 존재형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분석의 주안점으로 하고자 한다.

2. 농가의 가족구조

가. 가구수의 변화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산업 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농업부문의 축소와 이로 인한 농가수의 감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1970년 2,483천 가구로 정점을 이루던 농가는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273천 가구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35년 사이 무려 1,210천 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폭은 45.3%p에 이른다. 1960년 이후 농가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4-17>에 의하면, 1980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농가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5년 사이의 감소폭이 무려 15%p에 이르고 있다.

<표 4-17> 연도별 농가수 변화 : 1960~2005

(단위 : 천가구)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농가수	2,329	2,483	2,155	1,767	1,501	1,383	1,273
증감률	-	6.6	-13.2	-18	-15.0	-7.8	-8.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러한 농가의 집중적인 감소 요인은 시기별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70년대의 감소가 도시산업 부문의 유인요인(pull factor)에 따른 것이라면, '80년대와 '90년대는 농산물 가격파동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유출요인(push factor) 영향이 크고, 2000년 이후는 농가 생애주기상 해체기에 해당하는 농가의 자연소멸 요인으로 인한 감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농가경제의 악화나 도시산업 부문의 유인으로 농가수가 감소하는 것은 경제적 회생전략이 일정 부분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하는 해체기 농가의 소멸은 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점이 농촌사회의 구조적 해체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가수의 감소 추세를 지역별로 보면, <표 4-18>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대도시 배후가 없는 순수농업 지역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농가수가 최대이던 1970년을 기준으로 2005년의 농가수의 증감률을 분석해본 결과, 경남이 56.1%p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전북(△54.8%p), 전남(△51.4%p)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감소폭이 비교적 큰 지역은 대도시나 공업단지 등 경제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배후지역이 없는 순수 농업지역인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에 광역시는 작은 수치지만 꾸준히 농가가 늘고 있고, 제주(△26.1%p)나 경기(△44.2%p), 충남(△39.6%p)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은데, 이들 지역은 경기도와 같이 수도권에 배후에 있는 지역이거나 제주도와 같이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4-18> 지역별 농가수 분포 변화 : 1960~2005

(단위 : 천가구)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증감률 (70-05)
전 국	2,329	2,483	2,155	1,767	1,501	1,383	1,273	-45.3
특광역시	6	18	14	50	64	70	78	1135
경 기	254	254	235	203	161	149	142	-44.2
강 원	151	150	124	101	83	77	76	-49.7
충 북	159	173	147	116	99	92	86	-46.2
충 남	270	306	276	225	192	180	163	-39.6
전 북	270	282	235	188	152	137	122	-54.8
전 남	409	454	392	298	252	233	199	-51.4
경 북	406	436	381	308	259	236	216	-46.7
경 남	356	355	297	238	198	170	156	-56.1
제 주	49	55	53	40	40	39	36	-26.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감소폭을 분석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지난 5년 동안 감소폭을

비교해보면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전남에서 14.6%p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전북 10.9%p, 충남 9.4%p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특·광역시 지역은 오히려 11.4%p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 산업화 영농의 기반이 잘 갖추어진 경기지역은 4.7%p 감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농가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국 총가구수 대비 농가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06년 통계청이 작성한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2006년 총가구수 대비 농가비중은 7.8%로 나타나 2000년 9.7%에 비해 1.9%p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업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농가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총가구(천가구) :	14,312	14,834	15,064	15,298	15,539	15,789	15,989
· 농 가(천가구) :	1,383	1,354	1,280	1,264	1,240	1,273	1,245
· 농가비중(%) :	9.7	9.1	8.5	8.3	8.0	8.1	7.8

나. 가구 크기의 변화

앞서 살펴본 한국 가족의 변화 특징에서 전국 가구의 인원상 규모 축소와 세대 구성의 단순화 경향은 농가에서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농가의 가구 규모를 보면, 1990년 이후 지난 1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에 2인 이하의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지난 5년 사이 가구원이 5인 이상인 농가는 74.2%p, 4인 가구는 52.1%p, 3인 가구는 33.0%p가 줄어든 반면에 1인 가구는 58.4%p가 증가하였고, 2인 가구 또한 39.4%p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 2005년 현재 2인 가구가 4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3인 가구(16.7%)와 1인 가구(14.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1) 2000년부터 농가수가 감소하다가 2005년도 농가수가 2.6% 증가한 이유는 2005 농림어업총조사 시에 농지원부 등 행정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농가누락이 많은 동지역의 출입경작 농가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실제로 2000년도 동지역 농가수는 197천가구지만 2005년에는 241천가구로 22.2%가 증가함.

<표 4-19> 가구원수별 농가분포의 변화 : 1990~2005

	총농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990	1,767,033(100.0)	6.7	22.7	17.9	18.9	33.8
1995	1,500,745(100.0)	10.0	32.9	18.3	16.6	22.3
2000	1,383,468(100.0)	13.1	38.7	17.6	14.4	16.3
2005	1,272,908(100.0)	14.8	43.9	16.7	12.5	12.1
증감률(90-05)	-38.8	58.4	39.4	-33.0	-52.1	-74.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4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대폭 줄어들고 2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는 2005년 현재 2.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전국의 2.88명보다 적으며, 특히 도시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동지역의 2.93명보다는 0.23명이나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농가의 가구 규모가 도시에 비해 축소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2.15명으로 가장 적은 반면에 30대는 3.85명, 40대는 3.90명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를 보면 가족 생애주기상 해체기에 들어선 농가의 규모가 형성기나 확장기 농가보다 더욱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역시 지역이 평균 3.0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전북(2.6명), 전남(2.4명), 경북(2.5명), 경남(2.5명)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시 지역이 농가이지만 도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가의 가구규모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국 일반가구의 규모와 비교해본 것이 <표 4-20>이다. 가장 커다란 특징은 도시지역에 비해 농가에서는 2인 가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현재 농가에서는 2인 가구의 비중이 43.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인 가구(16.7%)와 1인 가구(14.8%)의 순서이다. 이러한 2인 가구의 비중은 전국의 22.2%, 동지역의 20.1%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이며,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30.6%에 비교해서도 13.3%p나 높은 수치이다. 2인 가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가구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농가의 구조적 해체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1인 가구 비율은 14.8%로 동지역의 19.1%나 읍면지역의 23.3%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노인단독가구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동지역의 경우 혼인 적령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분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점은 농가의 1인 가구가 자녀가 도시로 떠나 노부부만의 가구형태로 있다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 형성되는 해체기에 놓여 있다면 동지역의 경우는 비교적 젊은 층의 자발적 혼인지연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인 가구 특성이

그만큼 다르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표 4-20>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단위 : 천가구)

구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국	15,887(100.0)	20.0	22.2	20.9	27.0	10.0
동지역	12,745(100.0)	19.1	20.1	21.7	29.1	10.0
읍면지역	3,142(100.0)	23.3	30.6	17.6	18.7	9.8
농가	1,272(100.0)	14.8	43.9	16.7	12.5	12.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분포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여성은 노인 단독가구, 남성은 2인 가구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4-21>에 의하면 여성 경영주의 경우, 1인 가구가 64.6%로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2인 가구(18.3%), 3인 가구(7.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성 경영주의 경우는 2인 가구가 49.2%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3인 가구(18.6%)와 4인 가구(13.5%) 순이며, 1인 가구는 4.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성별에 따른 사망력 차이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 가구원수에서도 성별로 차이가 있다. 2005년 현재 남성 경영주의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으로 농가 전체의 평균 2.7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1.7명으로 평균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볼 때, 여성가구의 소인수화와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1>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농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가구원수
남자	1,056,202(100.0)	4.6	49.2	18.6	14.2	13.5	2.9
여자	216,706(100.0)	64.6	18.3	7.5	4.6	5.1	1.7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를 보아도 농가는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농가는 1세대와 2세대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경우 1세대와 2세대 가구 비중이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세대 가구의 비중

이 39.9%로서 전국의 일반가구 16.2%보다 23.7%p 높고, 도시 특성을 보이는 동지역보다는 25.8%p나 높다. 반면에 전국의 일반 가구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55.4%로 가장 높으며, 이는 농가의 34.0% 보다 21.4%p나 높은 수치이고 동지역의 경우는 58.7%로서 농가보다 24.7%p나 높다.

이러한 세대별 가구구성의 차이는 곧 농가에서 세대구성의 단순화 경향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전통적으로 3세대 이상의 직계가족 유형이 주류였던 농촌사회에서 이처럼 세대 구성이 도시보다 더 축소되고 단순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농가의 구조적 변화가 심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세대가 단순할수록 중심 세대의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 만큼 농가의 구조적 해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22>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 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전 국	15,887,128(100.0)	16.2	55.4	7.0	20.0	1.4
동 지역	12,744,940(80.2)	14.1	58.7	6.7	19.1	1.4
읍면지역	3,142,188(19.8)	24.9	42.2	8.1	23.3	1.5
농 가	1,272,908(100.0)	39.9	34.0	11.3	14.8	0.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러한 사실은 세대별 농가구성의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대비 2005년의 세대구성 변화 추이를 정리한 <표 4-23>에 의하면, 1세대 가구만 증가하고 2세대 가구 이상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세대 깊이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0년에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38.0%로 가장 많았으나 2005년에는 1세대 가구의 비중이 39.9%로 순위가 바뀌고 있다. 이는 지난 5년 사이, 1세대 가구는 6.5%p가 증가한 반면에 4세대 이상의 가구는 29.7%p, 3세대 가구는 27.3%p, 2세대 가구는 17.9%p가 감소한 탓에 나타난 현상이다.

농가의 세대구성 변화추이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2000년과 200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통계청, 2006), 지난 5년 사이 전국의 2세대 가구는 1.3%p 증가한 반면에 농가는 17.9%p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세대 가구의 경우는 전국이 26.6%p가 증가한 반면에 농가는 6.5%p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의 경우 2세대가 줄어들면서 세대깊이가 축소되고 있지만, 전국 일반가구의 경우 1세대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세대깊이 축소를 가져온 요인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전국 일반가구의 1세대는 대부분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의 형성기 가족임에 비해

농가의 2세대와 1세대는 해체기에 들어선 경우임을 주목한다면, 향후 농가가 지속적으로 해체되리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4-23> 세대별 농가구성의 변화 추이 : 2000~2005

		2000		2005		증감(2000~2005)	
						증감	증감률
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0,560	-8.0
친족 가구	1세대 가구	477,079	34.5	508,195	39.9	31,116	6.5
	2세대 가구	527,445	38.0	432,866	34.0	-94,579	-17.9
	3세대 가구	191,876	13.9	139,518	11.0	-52,358	-27.3
	4세대 이상	5,465	0.4	3,844	0.3	-1,621	-29.7
1인 가구		181,225	13.1	188,091	14.8	6,866	3.8
비혈연 가구		348	0.1	394	0.1	46	13.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다. 가족 유형의 변화

일반적으로 가구의 인원상 형태나 세대별 구성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의 크기나 세대 깊이, 그리고 구성상 형태의 다양성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접근법이지만 가족구성의 ‘의미의 차(差)’에 대한, 그리고 가족해체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적 특질에 근거한 가족유형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가의 경우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그 실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한 가족유형의 존재양상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먼저 <표 4-24>에 의하여 2005년 농가의 가족유형 존재양상을 분석해보면, 중심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형(family of procreation)이 전체의 66.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중심 부부와 그가 부양하는 부모세대가 결합하는 직계가족형(family of orientation)은 9.6%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전국의 일반가구와 비교해보면, 핵가족형은 비슷한 분포이나 직계가족형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1인 가구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직계가족형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도 전통적 농촌사회의 특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24> 전국 일반가구와 농가의 가족유형 비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농업총조사	
계		15,887,128	100.0	1,272,908	100.0
핵가족형	부부	2,258,982	14.2	502,183	39.5
	부부+기타 친인척	16,081	0.1	2,785	0.2
	경영주+기타 친인척	32,902	0.2	2,785	0.2
	부부+자녀	6,701,759	42.2	286,367	22.5
	경영주+자녀	1,369,943	8.6	44,905	3.5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73,562	0.5	7,654	0.6
	소 계	10,453,229	65.8	846,679	66.5
직계가족형	부부+자녀+양친	140,535	0.9	10,303	0.8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3.6	64,820	5.1
	부부+양친	23,279	0.1	4,046	0.3
	부부+한부(모)	131,544	0.8	43,633	3.4
	소 계	862,508	5.4	122,802	9.6
기타	부(부)+형제자매	221,492	1.4	-	0.0
	조부모+손자녀	58,101	0.4	12,817	1.0
	4세대 이상 가구	15,902	0.1	3,844	0.3
	비혈연가구	225,946	1.4	394	0.1
	기타*	879,275	5.5	98,281	7.7
	소 계	1,400,716	8.8	115,336	9.1
1인 가구		3,170,675	20.0	188,091	14.8

주 : *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가구주, 농업총조사의 경우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임.

**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핵가족형 가구 중에서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형태가 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국 일반가구의 비중보다도 25.3%p나 높은 수치인 점이 특징적이다. 농가의 경우 이들 부부가구의 연령별 분포가 대부분 60대 이후이지만 전국 일반가구의 경우는 결혼 직후 연령대인 30대에 모여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가의 부부가구는 구조적 해체에 직면한 유형이라면 전국의 일반가구의 부부가구는 이제 형성단계에 있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핵가족형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부부+자녀'가구의 비중도 22.5%에 머물러 전국 일반가구의 42.2%보다 19.7%p나 적다. 이런 사실은 농가의 핵가족형이 매우 빠르게 해체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 있는 가구유형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가족 생애주기 단계에서 자녀가 포함되는 '자녀포함형' 가구는 가족의 특화 기능인 양

육과 사회화가 수행되고 있는 비교적 건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농가 중에서는 자녀가 포함된 가구가 전체의 32.5%로 불과한 반면에 전국의 일반가구는 55.8%로 23.3%p나 차이가 나고 있다. 농가에서 자녀포함형 가구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 가구주의 연령분포와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는 가구의 축소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만약 도시로 떠난 자녀가 귀농하여 다시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유형을 구성하지 않는 한 향후 농가의 가구유형이 더욱 더 구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농가의 가족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00년에 비해 2005년의 유형별 농가분포의 변화 사항을 정리한 것이 <표 4-25>이다.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자녀포함형’ 가구형태가 크게 줄어들고 1인가구와 노인 부부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 사이 농가의 가구 형태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경우는 ‘부부+자녀’ 형태로서 78,561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폭은 21.5%p에 이른다. 다음으로 ‘부부+자녀+한부(모)’ 형태이며, 29,108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폭은 더욱 커져 31%p에 이른다. 반면에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30,935가구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도 6,866가구나 늘어나 비교적 증가폭이 큰 가구형태이다.

농가의 가구구성에서 자녀가 포함된 가구형태는 ‘부부+자녀’, ‘경영주+자녀’,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한부(모)’, ‘조부모+손자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5년 사이 이들 자녀가 포함된 가구형태는 모두 125,931가구가 줄어들었으며($\Delta 92.2\%$ p), 증가한 경우는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형태의 2,561가구에 불과하다. 자녀포함형 가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은 농가의 구조적 해체와 사회재생산 기능의 약화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가족유형 변화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포함된 방계형 가족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방계형 가족은 지난 2000년 10,506가구였던 것이 2005년에는 13,224가구로 5년 사이 2,718가구나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전국 일반가구에 비해서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지난 5년 사이에 6,866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유형은 대부분 정상적인 가족주기에 따라 형성되기 보다는 다른 가족이 해체되면서 일시적으로 위탁·보호되는 경우이거나 일시적으로 비혈연 가구원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1인 가구의 대부분은 65세 이후의 연령층이기 때문에 도시의 혼인지연으로 인해 형성되는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사실들에서 농가의 다양화·복잡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25> 가족유형별 농가구성 변화 추이 : 2000~2005

		2000		2005		증감(2000~2005)	
						증감	증감률
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0,560	-8.0
핵가족형	부부	471,248	34.1	502,183	39.5	30,935	6.6
	부부+기타 친인척	2,670	0.2	2,785	0.2	115	4.3
	경영주+기타 친인척	2,743	0.2	2,785	0.2	42	1.5
	부부+자녀	364,928	26.4	286,367	22.5	-78,561	-21.5
	경영주+자녀	56,453	4.1	44,905	3.5	-11,548	-0.2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5,093	0.4	7,654	0.6	2,561	50.2
	소 계	903,135	65.3	846,679	66.5	-56,456	-6.3
직 계 가족형	부부+자녀+양친	17,017	1.2	10,303	0.8	-6,714	-39.5
	부부+자녀+한부(모)	93,928	6.8	64,820	5.1	-29,108	-31.0
	부부+양친	4,813	0.3	4,046	0.3	-767	-16.0
	부부+한부(모)	46,957	3.4	43,633	3.4	-3,324	-7.1
	소 계	162,715	11.8	122,802	9.6	-39,913	-24.5
기 타	조부모+손자녀	16,160	1.1	12,817	1.0	-3,343	-20.7
	4세대 이상 가구	5,465	0.4	3,844	0.3	-1,621	-29.7
	비혈연가구	348	0.1	394	0.1	46	13.2
	기타*	114,390	8.3	98,281	7.7	-16,109	-14.1
	소 계	136,363	9.9	115,336	9.1	-21,027	-15.4
1인 가구		181,225	13.1	188,091	14.8	6,866	3.8

주 : *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한편 농가 가족유형의 변화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핵가족형과 직계가족형의 구별보다 더욱 세밀한 조합에 의해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의 분포와 변화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가의 경우는 가구원의 고령화와 가족주기상 해체기에 해당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형태상 분류를 통해서는 유형별 의미의 차이와 가족구성의 변화가 지니는 구조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중심 부부의 연령, 가족성장 단계, 가구원의 구성범위, 가계계승자의 존재여부와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념형 가구와 비이념형 가구, 과도기형 가구를 구별하여 그 분포와 변화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²⁾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념형, 비이념형, 과도기형 가

2) 장현섭(1993)은 한국 가족유형의 구조적 특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서스 자료의

족유형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념형(ideal type) 가구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monolithic nuclear family)과 ‘부부+자녀+양친’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직계가족을 의미함.
- 과도기형(transitional type) 가구는 전이과정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형태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한부모 형태로 있는 핵가족이나 직계가족형 가구를 의미함.
 - ‘부부’ 가구의 경우 결혼후 자녀를 갖지 않은 형성기 가구나 자녀가 모두 독립한 쇠퇴기 가구를 모두 포함하며, ‘부부+양친’의 경우 중심부부의 자녀가 독립한 경우임.
- 비이념형(non-ideal type) 가구는 과도기형 가구가 해체되어 1인 가구나 조손가구로 구성되는 형태와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포함된 방계형, 비혈연가구 등이 포함된 형태임.

이런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2005년 농가와 전국의 일반가구 가족유형을 재구성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 <표 4-26>이다. 2005년 농가의 가구구성에서 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형태는 전체의 23.3%로서 전국 일반가구의 43.2%와 비교할 때 20%p나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이념형 가족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농가가 28.4%임에 비해 전국의 일반가구는 38.2%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의 가족유형 특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과도기형 가족유형이다. 전체의 48.3%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8.6%보다 무려 29.7%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부부가 가구를 이루는 형태가 농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국 일반농가에서 비이념형 가족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 1인 가구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국의 일반농가와 농가의 가족유형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농가는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전형적인 가족유형이 점차 해체되어 과도기형 가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의 중심 부부 연령이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념형에서 과도기형으로, 과도기형에서 비이념형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이념형 가족유형이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 가족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의 자녀포함형 가구의 감소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일방적인 가구형태 분류에서 나아가 한국인의 가족가치 지향에 터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핵가족과 직계가족으로 구성되는 이념형과 노인 부부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으로 구성되는 비이념형,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념형이나 비이념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이념형 개념은 Weber가 설명한 바, 논리적 일관성에 의해서 같이 묶여질 수 있는 측면들을 선택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개념적 구성물을 의미한다.

농가의 사회재생산 기능과 가족부양체제가 약화되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4-26> 전국 일반가구와 농가구성의 비교 : 2005 (단위 : 가구, %)

		인구센서스(일반가구)		농업총조사(농가)	
계		15,887,128	100.0	1,272,908	100.0
이 념 형	부부+자녀(핵가족)	6,701,759	42.2	286,367	22.5
	부부+자녀+양친(직계가족)	140,535	1.0	10,303	0.8
	소 계	6,842,294	43.2	296,670	23.3
과도기형	부부	2,258,982	14.2	502,183	39.5
	부부+양친	23,279	0.1	4,046	0.3
	부부+한부(모)	131,544	0.8	43,633	3.4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3.6	64,820	5.1
	소 계	2,980,955	18.6	614,682	48.3
비이념형	1인 가구	3,170,675	20.0	188,091	14.8
	방계형(친인척 포함가구)	344,037	2.2	13,224	1.0
	한부모가족형	1,369,943	8.6	44,905	3.5
	조부모+손자녀	58,101	0.4	12,817	1.0
	비혈연가구	225,946	1.4	394	0.1
	4세대 이상 가구	15,902	0.1	3,844	0.3
	기타*	879,275	5.5	98,281	7.7
	소 계	5,063,879	38.2	361,556	28.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다음은 2000년에 비해 2005에의 농가 가족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지난 5년 사이 전체 농가 수 감소경향을 반영하여 모든 유형의 가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가구가 줄어든 것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핵가족이며, 감소폭이 큰 가구유형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양친’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직계가족 유형이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에 이념형 가족은 85,275가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감소폭은 22.3%p에 이른다.

이념형 가족이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과도기형 가족과 비이념형 가족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 44.6%를 차지하던 과도기형 가족은 2005년에 48.3%로 증가하여 반수에 육박하고 있으며, 비이념형 가족은 27.8%에서 28.4%로 증가하고 있다. 과도기형 가족이 증가한 이유는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면서 만들어지는 노인 부부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자녀가 포함된 ‘부부+자녀+한부(모)’

형태는 자녀가 도시로 떠나고, 부모가 사망하면서 부부가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감소폭이 커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도기형 가족의 증가폭은 억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이념형 가족에서는 1인 가구와 방계형 가구의 증가폭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에 조손가족이나 비혈연가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이념형은 줄어들고, 과도기형이나 비이념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절대 농가의 감소와 더불어 농가의 구조적 해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과도기형의 부부가구나 비이념형의 1인가구는 중심부부 연령층이 6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자연 소멸될 농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중심부부의 연령을 고려하여 가족유형을 재구성하면, 부부형 가구나 1인 가구의 대부분은 고령화된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의 구성비가 높은 것은 그 만큼 농가의 가족구조가 허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농가의 회생전략을 수립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부분일 것이다.

<표 4-27> 연도별 농가 가족유형의 변화추세 : 2000~2005

		2000		2005		증감(2000~2005)	
						증감	증감률
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0,560	-8.0
이념형	부부+자녀 (핵가족)	364,928	26.4	286,367	22.5	-78,561	-21.5
	부부+자녀+양친(직계가족)	17,017	1.2	10,303	0.8	-6,714	-39.5
	소 계	381,945	27.6	296,670	23.3	-85,275	-22.3
과도기형	부부	471,248	34.1	502,183	39.5	30,935	6.6
	부부+양친	4,813	0.3	4,046	0.3	-767	-15.9
	부부+한부(모)	46,957	3.4	43,633	3.4	-3,324	-7.1
	부부+자녀+한부(모)	93,928	6.8	64,820	5.1	-29,108	-31.0
	소 계	616,946	44.6	614,682	48.3	-2,264	-2.4
비이념형	1인 가구	181,225	13.1	188,091	14.8	6,866	3.8
	방계형(친인척 포함가구)	10,506	0.8	13,224	1.0	2,718	25.9
	한부모가족형	56,453	4.1	44,905	3.5	-11,548	-20.5
	조부모+손자녀	16,160	1.1	12,817	1.0	-3,343	-20.7
	비혈연가구	348	0.1	394	0.1	46	13.2
	4세대 이상 가구	5,465	0.4	3,844	0.3	-1,621	-29.7
	기타*	114,390	8.3	98,281	7.7	-16,109	-14.1
	소 계	384,547	27.8	361,556	28.4	-22,991	-6.0

주 : *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라. 다양한 농가의 특성

농가 구성의 다양화와 복잡화는 전국 일반가구와 비교되는 특성을 가진 농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독거노인 가족과 고령의 부부가족과 여성가구주 가족,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등이다.

먼저 농가의 1인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이들이 대부분 독거노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현재 농가 1인 가구의 81.3%가 60세 이상의 노인층이며, 40세 미만 비교적 젊은 1인 가구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반면에 전국 일반가구 중에서 60세 이상 1인 가구는 30.9%에 불과하지만, 30세 미만은 22.8%, 30대는 19.9%로 40세 미만이 42.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구성비 변화를 보더라도 농가의 경우는 70세 이상의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의 일반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30대와 40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농가의 1인 가구는 대다수가 독거노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전국의 일반 1인 가구는 젊은 층의 결혼기피로 인해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는 비혼(非婚) 인구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8>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변화 : 2000~2005

		2000년		2005년		증감(2000~2005)	
		가구수(천)	구성비	가구수(천)	구성비	증감	증감률
인구센서스 (전국)	30세 미만	561	25.2	723	22.8	162	28.9
	30~39세	415	18.7	629	19.9	214	51.6
	40~49세	295	13.3	474	15.0	179	60.7
	50~59세	246	11.1	366	11.5	120	48.8
	60~69세	352	15.8	430	13.6	78	22.2
	70세 이상	355	16.0	548	17.3	193	54.4
	합 계	2,224	100.0	3,171	100.0	947	42.6
농업총조사 (농가)	30세 미만	565	0.3	271	0.1	-294	-52.0
	30~39세	3,156	1.7	2,040	1.1	-1,116	-35.4
	40~49세	9,009	5.0	8,613	4.6	-396	-4.4
	50~59세	30,081	16.7	24,378	13.0	-5,703	-19.0
	60~69세	81,836	45.1	74,599	39.7	-7,237	-8.8
	70세 이상	56,608	31.2	78,190	41.6	21,582	38.1
	합 계	181,255	100.0	188,091	100.0	6,836	3.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농가의 고령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 부부의 경영주 연령층을 살펴본 결과, 60대가 33.0%(411천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23.8%)와 70대(24.5%)의 순이었다. 연도별 변화 추세를 보면 70세 이상 경영주는 전년에 비해 3.8%(12천명) 증가한 반면 50대 이하의 경영주는 3.8%(-20천명)가 감소하여 2005년 현재 4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농가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균가구원수도 농가의 고령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시기인 40대의 평균가구원수가 3.9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독립하는 50대 이하부터 가구원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사실은 농가가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소인수화 문제로 정서적 소외와 가족부양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29> 경영주 연령에 따른 농가특성 변화 : 2005

(단위 : 천가구, %)

	합계(%)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농가수	1,273(100.0)	42(3.3)	186(14.6)	303(23.8)	430(33.8)	311(24.5)
평균가구원수	2.7	3.4	3.9	2.9	2.4	2.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다음으로 농가의 여성화와 이들의 고령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다음의 <표 4-30>이다. 2006년 12월 현재 여자 경영주 가구는 213천 가구로 전체 농가의 17.1%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4천 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경영주의 고령화 현상이다. 60세 이상에서는 13.1%(163천명)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 경영주의

<표 4-30> 여성 경영주 가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가구, %)

		전체농가	여자경영주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5		1,273 (100.0)	217 (17.0)	2 (0.2)	12 (0.9)	34 (2.6)	169 (13.3)
2006		1,245 (100.0)	213 (17.1)	2 (0.2)	13 (1.0)	35 (2.8)	163 (13.1)
전년 대비	증 감	-28	-4	0	1	1	-6
	증감률	-2.2	-1.9	3.4	8.8	1.9	-3.5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통계청, 『농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2006.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연령이 높을수록 이들 대부분이 1인 가구 형태를 이룬다는 점을 볼 때, 도시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여성 독거노인의 빈곤화 문제가 농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여성가구의 형성은 사별로 인한 자연적 형성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국 일반가구가 이혼으로 인해서 여성가구(한부모가구)가 형성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여성가구는 90% 이상이 사별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에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 형성은 50세 미만에서 5% 이내로 나타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40세 미만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가 되는 경우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이다.

<표 4-31> 연령별 여성경영주 혼인상태 분포 : 2005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합계
40세 미만	6.6	77.9	10.9	4.7	2,271(100.0)
40~49세	2.4	51.5	41.0	4.9	11,605(100.0)
50~59세	0.9	21.1	75.8	2.2	34,102(100.0)
60~69세	0.3	7.3	91.8	0.6	87,711(100.0)
70세 이상	0.3	5.8	93.6	0.1	81,037(1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농가의 영농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영농승계자 보유여부를 살펴본 것이 <표 4-32>이다. 영농승계자 보유가구는 지난 2000년 151천명에서 2005년 45천명으로 줄어들어 지난 5년 사이 106천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현재 영농승계자 보유가구는 45천명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영농승계자의 연령분포 변화를 보면, 전 연령층에서

<표 4-32> 영농승계자 보유현황 변화 : 200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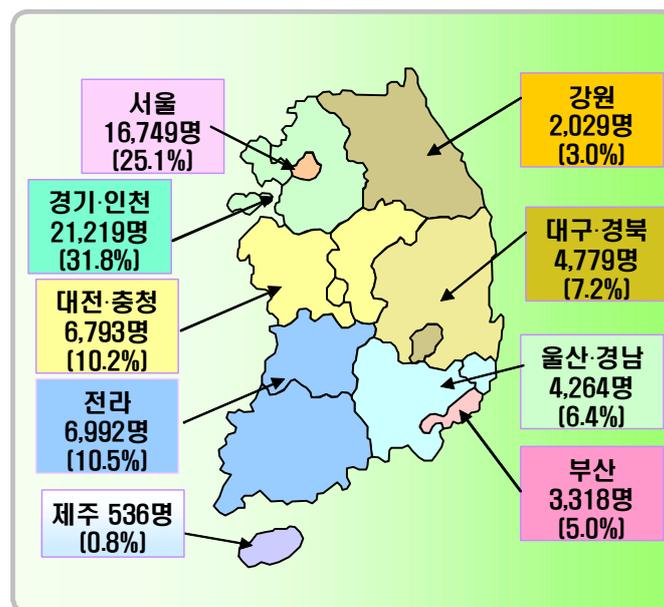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

		전체농가	영농승계자 보유가구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2000		1,383(100.0)	151(11.0)	16(1.2)	54(3.9)	53(3.8)	28(2.0)
2005		1,273(100.0)	45(3.5)	3(0.2)	12(0.9)	18(1.4)	12(0.9)
전년 대비	증 감	-110	-106	-13	-42	-35	-16
	증감률	-8	-70.2	-83.9	-77.2	-65.1	-58.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고루 감소하고 있지만 특히 20대의 감소폭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에서 전체 농가의 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욱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재생산 구조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최근 들어 농가의 새로운 형성은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다. 2005년 현재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결혼이 2,885건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06). 이제 결혼이민자가족은 농촌사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75%는 도시(동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25%는 농촌(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인천에 전체의 31.8%, 서울에 25.1%가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호남지역(10.5%)과 충청지역(10.2%)에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중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태국·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2006.

<그림 4-13> 여성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05. 12월 기준)

결혼이민자가족이 농림어촌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대 이후부터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이제 취학연령이 되어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4-33>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중 6,121명이 재학 중이며, 이중에서 읍면지역은 40.9%를 차지한다. 취학자녀 중 87.1%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고등학교는 아직 3.4%에 불과하다. 이는 결혼이민자가족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408명(23.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688명, 전남 587명, 전북 51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3>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 취학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초	555	203	133	243	117	82	10	1,259	288	253	312	475	550	411	394	47	5,332
중	108	36	15	25	8	14	0	176	14	19	24	29	28	30	56	1	583
고	25	11	9	19	2	17	0	45	2	7	9	13	9	27	7	4	206
합계	688	250	157	287	127	113	10	1,480	304	279	345	517	587	468	457	52	6,12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농림어촌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은 가족주기상 형성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유형에 비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가 가족 내에 상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자녀의 교육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어가의 가족구조

가. 가수수의 변화

어가의 가구수는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 1970년 149,107가구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5년 현재 79,942가구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35년 사이 69,165가구가 줄어들었으며, 감소폭은 무려 46.4%p에 이른다. 이러한 감소폭은 농가의 45.3%p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1970년 이후 어가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 4-34>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감소폭은 21.9%p에 이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농가가 '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최근에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4-34> 연도별 어가수 변화 : 1960~2005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어가수	149,107	134,109	121,525	104,480	81,571	79,942
증감률	-	-10	-9.3	-14.0	-21.9	-2.0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러한 어가수의 감소 추세를 지역별로 보면, <표 4-35>에 나와 있듯이 특광역시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970년 대비 2005년의 어가수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감소폭이 85.8%p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강원 77.8%p, 전남 60.7%p, 제주도 54.6%p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충남과 경남의 감소폭은 10%p 이내였으며, 특·광역시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6,116가구나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총가구(천가구)	14,609	14,834	15,064	15,298	15,539	15,789	15,989
· 어 가(천가구)	82	78	73	73	73	80	77
· 어가 비중(%)	0.6	0.5	0.5	0.5	0.5	0.5	0.5

이러한 어가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국 총가구수 대비 어가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 2006년 통계청이 작성한 『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어가 비중은 0.5%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이다.

<표 4-35> 지역별 어가수 분포 변화 : 1970~2005

(단위 : 천가구)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증감수(증감률)*
전 국	149,107	134,109	121,525	104,480	81,571	79,942	-69,165(△46.4)
특광역시	1,579	2,171	7,431	9,775	7,793	7,695	6,116(387.3)
경 기	9,138	8,502	6,286	2,398	1,807	1,295	-7,843(△85.8)
강 원	19,023	12,298	7,208	5,997	4,814	4,221	-14,802(△77.8)
충 북	-	-	-	-	-	-	-
충 남	10,552	13,469	12,934	12,357	9,444	10,505	-47(△0.4)
전 북	4,278	3,796	5,623	5,056	4,275	3,695	-583(△13.6)
전 남	64,905	53,917	45,566	36,647	26,936	25,489	-39,416(△60.7)
경 북	8,225	11,164	7,451	6,723	5,778	5,517	-2,708(△32.9)
경 남	16,647	20,107	20,843	17,728	14,009	14,827	-1,820(△10.9)
제 주	14,760	8,685	8,183	7,799	6,715	6,698	-8,062(△54.6)

주 : *는 1970년 대비 2005년의 증감수와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나. 가구 크기의 변화

어가의 가구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2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가 전체의 54.7%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42.4%보다 12.3%p나 높

게 나타났다. 반면에 4인 이상의 대가구는 26.3%에 머물러 전국 일반가구의 37.0%보다 10.7%p가 적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가구원수는 2.8명으로 농가의 2.7명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적은 수치였다.

<표 4-36>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가구원
전국	15,887,128(100.0)	20.0	22.2	20.9	27.0	10.0	2.9
어가	79,942(100.0)	12.0	42.7	19.1	14.8	11.5	2.8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구원수별 어가 분포의 변화추세를 알기 위하여 2000년 결과와 비교해본 결과, 2인 이하의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3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가 줄어들고 있어 전체 어가 가구규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5년 사이 어가 규모의 증감률을 보면, 1인 가구가 27.2%p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2인 가구의 21.6%p였다. 반면에 5인 가구 이상은 33.3%p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4인 가구($\Delta 24.9\%$ p), 3인 가구($\Delta 7.4\%$ p) 순이었다. 이러한 증감 경향은 농가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37> 가구원수별 어가분포의 변화 : 2000~2005

	총어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00	81,571(100.0)	9.2	34.4	20.2	19.3	16.9
2005	79,942(100.0)	12.0	42.7	19.1	14.8	11.5
증감률 (00-05)	-2.0	27.2	21.6	-7.4	-24.9	-33.3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성별에 따른 어가의 가구원수별 분포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여성은 노인단독가구, 남성은 2인 가구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4-38>에 의하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 1인 가구가 3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2인 가구(33.5%), 3인 가구(13.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남성 가구주의 경우는 2인 가구가 45.1%로 압도적이고, 다음으로 3인 가구(20.6%)와 4인 가구(16.9%) 순이며, 1인 가구는 4.8%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포를 농가와 비교해보면 남성 가구주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2인 가구가 농가보

다 훨씬 높은 비율인 점이 차이가 있다.

<표 4-38> 성별에 따른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남 자	62,988(100.0)	4.8	45.1	20.6	16.9	12.6
여 자	16,954(100.0)	38.7	33.5	13.5	7.0	7.3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4-39>이다. 이를 보면, 어가는 먼저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1세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2세대 이상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1세대 가구의 경우 어가는 39.1%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6.1%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세대 가구는 전국의 일반 가구가 55.4%를 차지한데 비해 어가는 39.2%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어가의 세대별 가구 구성은 농가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39>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전 국	15,887,128(100.0)	16.2	55.4	7.0	20.0	1.4
어 가	79,942(100.0)	39.1	39.2	9.5	12.0	0.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6.

어가의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추이를 알기 위하여 2000년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지난 5년 사이에 1세대 가구는 6,050가구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24.0%p에 이르렀다. 1인 가구의 경우도 모두 2,047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27.1%p이다. 이에 비해 2세대 가구는 모두 7,357가구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19.0%p에 이르며, 3세대 가구는 2,347가구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23.9%p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가의 세대별 가구구성 변화추이는 농가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즉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와 2세대 이상의 가구 감소로 인해 어가의 세대 깊이가 그 만큼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농가와 마찬가지로 어가도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가 심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깊이가 축소되고 가구구성이 단순해지는 것과 더불어 이들 가구의 중심 부부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을 조합해보면, 농가와 마찬가지로 어가도 구조적 측면에서의 해체가 지속되리라 하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4-40> 세대별 어가구성의 변화 추이 : 2000~2005

		2000		2005		증감(2000~2005)	
						증감	증감률
계		81,571	100.0	79,942	100.0	-1,629	-2.0
친족 가구	1세대 가구	25,237	31.0	31,287	39.1	6,050	24.0
	2세대 가구	38,653	47.4	31,296	39.2	-7,357	-19.0
	3세대 가구	9,803	12.0	7,456	9.3	-2,347	-23.9
	4세대 이상	265	0.3	192	0.2	-73	-27.5
1인 가구		7,538	9.2	9,585	12.0	2,047	27.1
비혈연 가구		93	0.1	126	0.2	33	35.5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다. 가족 유형의 변화

어가의 경우도 농가와 마찬가지로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가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어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한 가족유형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의 차이에 대한 해석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 어가의 가족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가족연구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표 4-41>에 의하여 2005년 어가의 가족유형 존재양상을 분석해보면, 중심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형(family of procreation)이 전체의 7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심 부부와 그가 부양하는 부모세대가 결합하는 직계가족형(family of orientation)은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수치 측면에서 농가와 달리 전국 일반가구의 핵가족형이나 직계가족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핵가족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가구형태이고, 이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농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형태는 핵가족이지만 내용은 해체과정에 놓여 있는 과도기적 가구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직계가족형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 또한 농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는 어업지역의 특성이 전통적 농촌사회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이 전국 일반가구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 또한 어가와 농가의 가족구조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4-41> 가구형태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단위 : 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어업총조사	
계		15,887,128	100.0	79,942	100.0
핵가족형	부부	2,258,982	14.2	30,691	38.4
	부부+기타 친인척	16,081	0.1	232	0.3
	경영주+기타 친인척	32,902	0.2	198	0.2
	부부+자녀	6,701,759	42.2	21,580	27.0
	경영주+자녀	1,369,943	8.6	2,990	3.7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73,562	0.5	610	0.8
	소 계	10,453,229	65.8	56,301	70.4
직계가족형	부부+자녀+양친	140,535	0.9	491	0.6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3.6	3,411	4.3
	부부+양친	23,279	0.1	253	0.3
	부부+한부(모)	131,544	0.8	2,855	3.6
	소 계	862,508	5.4	7,010	8.8
기타	부(부)+형제자매	221,492	1.4	-	-
	조부모+손자녀	58,101	0.4	793	1.0
	4세대 이상 가구	15,902	0.1	192	0.2
	비혈연가구	225,946	1.4	126	0.2
	기타*	879,275	5.5	5,935	7.4
	소 계	1,400,716	8.8	7,046	8.8
1인 가구		3,170,675	20.0	9,585	12.0

주 : *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가구주, 어업총조사의 경우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임.

**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어가의 가족유형 변화를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가 전체의 가구구성 형태를 이념형 가족, 과도기형 가족, 비이념형 가족으로 재구성하여 지난 5년 사이 변화추세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4-42>이다. 2005년 어가의 가구구성에서 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형태는 전체의 27.6%로서 전국 일반가구의 43.2%와 비교할 때 15.6%p나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이념형 가족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어가가 25.8%임에 비해 전국의 일반가구는 38.2%를 차지하고 있다.

어가의 가족유형 특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과도기형 가족유형이다. 전체의 46.6%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8.6%보다 무려 28.0%p나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노인 부부가 가구를 이루는 형태가 어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국 일반농가에서 비이념형 가족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 1인 가구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4-42> 연도별 어가 가족유형의 다양화 추세 : 2000~2005

(단위 : 가구, %)

		2000		2005		증감(2000~2005)	
						증감	증감률
계		81,571	100.0	79,942	100.0	-1,629	-2.0
이념형	부부+자녀 (핵가족)	29,076	35.6	21,580	27.0	-7,496	-25.8
	부부+자녀+양친(직계가족)	864	1.1	491	0.6	-373	-43.2
	소 계	29,940	36.7	22,071	27.6	-7,869	-26.3
과도기형	부부	24,770	30.4	30,691	38.4	5,921	23.9
	부부+양친	304	0.4	253	0.3	-51	-16.8
	부부+한부(모)	2,740	3.4	2,855	3.6	115	4.2
	부부+자녀+한부(모)	5,034	6.2	3,411	4.3	-1,623	-32.3
	소 계	32,848	40.4	37,210	46.6	4,362	13.3
비이념형	1인 가구	7,538	9.2	9,585	12.0	2,047	27.2
	방계형(친인척 포함가구)	809	1.0	1,040	1.3	231	28.6
	한부모가족형	3,222	3.9	2,990	3.7	-232	-7.2
	조부모+손자녀	729	0.9	793	1.0	64	8.8
	비혈연가구	93	0.1	126	0.2	33	35.5
	4세대 이상 가구	265	0.3	192	0.2	-73	-27.5
	기타*	6,127	7.5	5,935	7.4	-192	-3.1
	소 계	18,783	22.9	20,661	25.8	1,878	1.0

자료 : 통계청, 『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다음은 2000년에 비해 2005년의 어가 가족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5년 사이 이념형 가족유형에서는 모두 7,869가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26.3%p에 이른다. 농가와 마찬가지로 어가의 가족구조 또한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핵가족의 해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어가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요인이라 하겠다.

이념형 가족이 감소하는 대신에 과도기형 가족과 비이념형 가족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농가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도기형 가족은 지난 5년 사이 4,362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13.3%p이다. 이에 비해 농가는 같은 기간 동안 2.4

%p가 감소하고 있다. 비이념형 가족 또한 1,878가구가 증가한 반면에 농가는 22,991가구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6.0%p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어가 전체의 가구수 감소폭 보다 농가의 가구수 감소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각 유형의 하위 가구구성 형태의 변화방향이나 변화폭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포함형 가구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유사한데, 농가에서 지난 5년 사이 자녀포함형 가구가 92.4%p가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가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94.2%p가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어가의 구조적 해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4. 임가의 가족구조

가. 전체 가구수와 지역별 분포

임가에 대한 총조사는 2005년 처음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준거에 의해 임가 가구수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2005년 조사 결과에 의거 임가의 총가구수와 임가 가구수가 전국 총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하자. 2005년 통계청의 임업총조사에 의하면 임가 총가구수는 97,108가구이다. 이러한 임가의 전국 비중은 0.6%로 농가의 8.1%보다는 적고, 어가의 0.5%와는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임가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4-43>이다. 가장 많은 임가가 분포한 곳은 경북으로 총 23,175가구이며, 전체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남 18,087가

<표 4-43> 지역별 임가 분포 변화 : 2005

	가구수	구성비
합 계	97,108	100.0
특 광 역 시	3,892	4.0
경 기 도	4,359	4.5
강 원 도	6,195	6.4
충 청 북 도	4,710	4.9
충 청 남 도	9,526	9.8
전 라 북 북	12,091	12.5
전 라 남 도	13,496	13.9
경 상 북 도	23,175	23.9
경 상 남 도	18,087	18.6
제 주 도	1,037	1.1

자료 :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구(18.6%), 전남 13,496가구(13.9%), 전북 12,091가구(12.5%) 순이다. 흔히 산악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강원도의 경우 임가는 총 6,195가구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나. 가구 크기의 변화

임가의 가구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 2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42.4%보다 16.1%p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4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는 24.0%에 머물러 전국 일반가구의 37.0%보다 13.0%p가 적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지역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와 비교해보면 임가의 가구규모가 얼마나 단순화되고 축소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즉, 2인 이하의 소인수 가구는 임가가 18.8%p나 많은 반면에, 4인 이상의 대규모 가구는 동지역에 비해 15.1%p나 적다. 이렇기 때문에 평균가구원수는 2.72명으로 농가의 2.71명보다는 높지만 전국 동지역의 2.93명보다는 0.21명이나 적게 나타났다.

<표 4-44>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 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 국	15,887(100.0)	20.0	22.2	20.9	27.0	10.0
동 지역	12,745(100.0)	19.1	20.1	21.7	29.1	10.0
읍면지역	3,142(100.0)	23.3	30.6	17.6	18.7	9.8
임 업	97,108(100.0)	11.3	47.1	17.5	12.5	11.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를 보아도 임가는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매우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임가는 1세대와 2세대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가의 경우 1세대와 2세대 가구 비중이 전체의 7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세대 가구의 비중이 44.4%로서 전국의 일반가구 16.2%보다 28.2%p나 높고, 도시 특성을 보이는 동지역의 14.1%보다는 30.3%p나 높다. 반면에 전국의 일반 가구는 2세대 가구의 비중이 55.4%로 가장 높으며, 이는 임가의 34.0% 보다 21.4%p나 높은 수치이고 동지역의 경우는 58.7%로서 임가보다 24.7%p나 높다.

이러한 세대별 가구구성의 차이는 곧 임가에서 세대구성의 축소와 단순화 경향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전통적으로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유형이 주로 나타났던 산촌 지역에서 이처럼 세대 구성이 축소되고 단순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임가의 구조적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이러한 세대 깊이의 축소와 가구규모의 단순화·소인수화 경향은 농가와 어가, 임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림어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는 것과 더불어 단순상품생산형태의 특징 때문에 재생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45>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 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전 국	15,887,128(100.0)	16.2	55.4	7.0	20.0	1.4
동 지역	12,744,940(80.2)	14.1	58.7	6.7	19.1	1.4
읍면지역	3,142,188(19.8)	24.9	42.2	8.1	23.3	1.5
임 가	97,108(100.0)	44.0	34.0	10.4	11.3	0.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다. 가족 유형의 변화

2005년 임업총조사 결과를 가지고 임가의 가족유형을 세대별 가구구성 형태를 조합하여 핵가족형과 직계가족형, 기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 <표 4-46>이다.

핵가족형은 전체의 69.1%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조사된 전국 일반가구의 70.4%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부의 가구형태 분포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의 경우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가 전체의 42.2%를 차지하는 반면에 임가의 경우는 22.1%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임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4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심부부의 연령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임가의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부부만의 가구형태는 가족주기에서 자녀가 떠나고 노인부부만 남게 되는 해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임가는 주 기상 해체기에 해당하는 가구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직계가족형은 1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일반가구의 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자녀가 떠난 후 고령의 중심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부+양친’이나 ‘부부+한부(모)’ 형태가 5.2%나 되기 때문에 ‘고령화된’ 직계가족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가족 생애주기 단계에서 자녀가 포함되는 ‘자녀포함형’ 가구는 가족의 특화 기능인 양육과 사회화가 수행되고 있는 비교적 건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가 중에서는 자녀가 포함된 가구가 전체의 32.6%에 불과한 반면에 전국의 일반가구는 55.8%로

23.2%p나 차이가 나고 있다. 임가에서 자녀포함형 가구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전체 가구의 연령분포와 임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는 가구의 축소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만약 도시로 떠난 자녀가 귀농하여 다시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거나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유형을 구성하지 않는 한 향후 임가의 가구유형이 더욱 더 구조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자녀포함형 가구의 축소 경향은 농가나 어가, 임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4-46> 가구형태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인구주택총조사		임업총조사	
계		15,887,128	100.0	97,108	100.0
핵가족형	부부	2,258,982	14.2	42,139	43.4
	부부+기타 친인척	16,081	0.1	280	0.3
	경영주+기타 친인척	32,902	0.2	221	0.2
	부부+자녀	6,701,759	42.2	21,425	22.1
	경영주+자녀	1,369,943	8.6	2,408	2.5
	부부+자녀+기타 친인척	73,562	0.5	607	0.6
	소 계	10,453,229	65.8	67,080	69.1
직계가족형	부부+자녀+양친	140,535	0.9	950	1.0
	부부+자녀+한부(모)	567,150	3.6	5,237	5.4
	부부+양친	23,279	0.1	499	0.5
	부부+한부(모)	131,544	0.8	4,575	4.7
	소 계	862,508	5.4	11,261	11.6
기타	부(부)+형제자매	221,492	1.4	-	0.0
	조부모+손자녀	58,101	0.4	924	1.0
	4세대 이상 가구	15,902	0.1	320	0.3
	비혈연가구	225,946	1.4	50	0.1
	기타*	879,275	5.5	6,471	6.7
	소 계	1,400,716	8.8	7,765	8.0
1인 가구		3,170,675	20.0	11,002	11.3

주 : * 인구센서스의 경우에는 가구주, 농업총조사의 경우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구성한 것임.

** 기타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구의 '기타'를 모두 포함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임가의 가족유형별 의미의 차이와 구조적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농

가·어가와 마찬가지로 임가 전체의 가구구성 형태를 이념형 가족, 과도기형 가족, 비이념형 가족으로 재구성한 것이 <표 4-47>이다. 2005년 임가의 가구구성에서 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형태는 전체의 23.0%로서 전국 일반가구의 43.2%와 비교할 때 20.2%p나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이념형 가족유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농가가 23.0%임에 비해 전국의 일반가구는 38.2%를 차지하고 있어 15.2%p나 차이가 난다.

임가 가족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과도기형 가족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체의 54.0%를 차지하여 전국 일반가구의 18.6%보다 무려 35.4%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 부부가 가구를 이루는 형태가 농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임가의 경우 이러한 노인부부만의 가구형태는 43.4%로 전국 일반가구는 물론 농가나 어가보다도 비중이 높다. 노인부부만의 가구형태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노인단독가구의 형태로 바뀌는 가족주기상 '해체기' 단계에 놓여 있는 경우다. 때문에 이들의 가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1인 가구의 대거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4-47> 임가 가족유형의 다양화 추세 : 2005

		2005	
계		97,108	100.0
이념형	부부+자녀(핵가족)	21,425	22.1
	부부+자녀+양친(직계가족)	950	1.0
	소 계	22,375	23.0
과도기형	부부	42,139	43.4
	부부+양친	499	0.5
	부부+한부(모)	4,575	4.7
	부부+자녀+한부(모)	5,237	5.4
	소 계	52,540	54.0
비이념형	1인 가구	11,002	11.3
	방계형(친인척 포함가구)	1,108	1.1
	한부모가족형	2,408	2.5
	조부모+손자녀	924	1.0
	비혈연가구	50	0.1
	4세대 이상 가구	320	0.3
	기타*	6,471	6.7
	소 계	22,283	23.0

자료 : 통계청, 『임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와 대비되는 것이 전국 일반가구의 1인 가구형태인데, 이들은 주로 결혼을 지피하거나 지연시킨 20대와 30대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때문에 전국 일반가구의 비이념형 가족은 향후 이념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고 하겠다.

임가의 다양한 가족유형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경영주의 연령별 가족유형이 어떻게 분포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표 4-48>에 의하면, 이념형 가족은 30대 미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반면에 과도기형 가족은 6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경영주 연령이 30대인 경우 이념형 가족이 48.5%로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에 과도기형 가족은 20.2%에 머무르고 있다. 경영주 연령이 40대인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이념형 가족이 49.2%를 차지한 반면에 비이념형 가족은 18.1%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영주 연령이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60대인 경우는 과도기형 가족이 63.8%로 높아지며, 70대도 6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념형 가족은 각각 14.0%, 6.3%로 낮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임가의 과도기형 가족은 전국 일반가구, 특히 도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동지역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적 해체가 진행되는 가족유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4-48> 연령별 임가구성 다양화 분포 : 2005

	이념형 가족	과도기형 가족	비이념형 가족	합계
30세 미만	45(25.9)	23(13.2)	106(60.9)	174(100.0)
30~39세	1,602(48.5)	666(20.2)	1,037(31.4)	3,305(100.0)
40~49세	7,820(49.2)	5,189(32.7)	2,872(18.1)	15,879(100.0)
50~59세	7,775(29.6)	14,019(53.4)	4,451(17.0)	26,245(100.0)
60~69세	4,570(14.0)	20,826(63.8)	7,232(22.2)	32,628(100.0)
70세 이상	1,193(6.3)	11,727(62.1)	5,957(31.6)	18,87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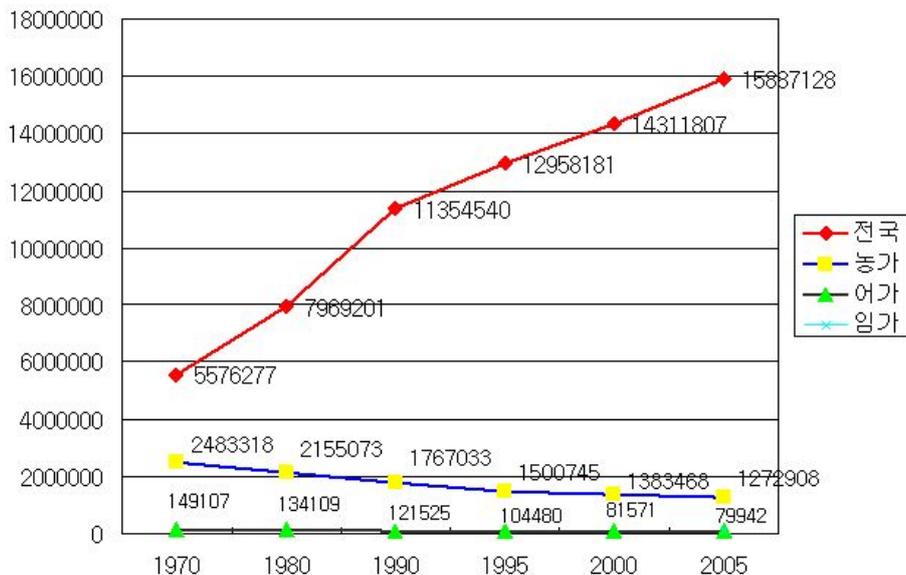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임업총조사 원자료 분석.

5. 농림어가의 가족구조 비교분석

지금까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한 가족구조의 특징과 변화 과정을 농가, 어가, 임가 순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종합하여 전국 일반가구와의 비교분석, 농가·어가·임가와 상호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중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한 부분만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농림어업의 가구 수 변화를 보면 지난 1970년 이후 농가와 어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의 일반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그림 4-14>을 통해 알 수 있다.³⁾ 1970년 이후 전국의 일반가구는 총 10,310,851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증가폭은 무려 184.9%p에 이른다. 하지만 농가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210,410가구가 줄어들어 감소폭은 48.7%p를 나타내고 있다. 어가도 농가와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35년 동안 총 69,165가구가 줄어들어 감소폭은 46.4%p이다. 농가와 어가의 감소폭이 거의 일치하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농가와 어가의 가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전국 일반가구에서 농림어업의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1970년 전국 일반농가 중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44.5%였지만 2005년에는 7.8%에 불과하다. 35년 동안 36.7%p가 떨어진 것이다. 어가 또한 1970년에는 2.7%를 차지하였지만 2005년에는 0.5%에 불과하다. 2005년 전국의 일반가구에서 임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이다. 이를 합하면 농림어업 전체가 전국 일반가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밖에 되지 않는다.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그림 4-14> 농림어업 가구수의 변화 : 1970~2005

다음으로 전국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의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을 비교해본 결과가 <표 4-49>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 첫째, 1인 가구 비율은 전국의 일반 가구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농림어가 모두에서 2인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이

3) 임가는 2005년 총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전의 임업 가구 수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2005년 가구 수만 비교한다.

들의 가구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 일반 가구의 1인 가구는 대부분 30대에 몰려 있어 결혼지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지만, 농림어가의 1인 가구는 대부분 60대 이후의 노인단독가구 형태이기 때문에 자연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이를 볼 때 앞으로 획기적인 사회재생산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한 농림어가의 가구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표 4-49>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평균가구원수
전국	15,887,128(100.0)	20.0	22.2	20.9	27.0	10.0	2.9
농가	1,272,908(100.0)	14.8	43.9	16.7	12.5	12.1	2.7
어가	79,942(100.0)	12.0	42.7	19.1	14.8	11.5	2.8
임가	97,108(100.0)	11.3	47.1	17.5	12.5	11.6	2.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보고서』, 2006.

전국의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의 세대별 가구 구성의 분포를 비교하여 <표 4-50>에 정리해 보았다. 주로 부부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의 경우 전국 일반가구는 16.2%에 불과하지만 농어가는 40%대에 육박하고 있고, 임가는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부부와 자녀, 부부와 부모가 결합하는 형태인 2세대 가구는 전국의 일반농가가 55.4%에 이르지만 농림어가는 30%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농림어가의 세대 깊이(generation depth of family)가 매우 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0> 세대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혈연가구
전국	15,887,128(100.0)	16.2	55.4	7.0	20.0	1.4
농가	1,272,908(100.0)	39.9	34.0	11.3	14.8	0.1
어가	79,942(100.0)	39.1	39.2	9.5	12.0	0.2
임가	97,108(100.0)	44.0	33.9	10.7	11.3	0.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일반적으로 가족구조에서 세대깊이가 단축된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직계가족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알려주며, 인구 고령화와 가구 규모 축소와 맞물려 노인가구나 노인만의 부부가구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림어가의 세대 깊이 축소는 가족의 구조적 해체라는 내적 문제와 이들의 부양체계 붕괴하는 사회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농림어가의 이러한 문제는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표 4-51>은 전국의 일반가구와 농림어가에서 1인 가구만을 선택하여 연령별로 구분해본 것이다. 먼저 전국 일반가구의 1인 가구는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42.7%가 집중되어 있으며, 60대 이상의 해체기에 놓여 있는 경우는 30.9% 정도이다. 이에 비해 농림어가는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출현하는 비율은 2% 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60대 이상에 몰려 있다. 농가의 경우는 60대 이상이 81.3%에 이르며, 어가는 65.6%, 임가는 7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농림어가의 가족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앞으로 얼마나 가속화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다.

<표 4-51> 연령별 1인가구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전국	3,170,675(100.0)	22.8	19.9	15.0	11.5	13.6	17.3
농가	188,091(100.0)	0.1	1.1	4.6	13.0	39.7	41.6
어가	9,585(100.0)	0.4	2.7	10.8	20.5	36.6	29.0
임가	11,002(100.0)	0.2	1.7	6.6	16.9	39.2	35.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농림어가의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세대별 가구형태를 핵가족형과 직계가족형,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여 전국의 일반농가와 비교해보았다. 먼저 핵가족형은 전국의 65.8%에서 어가의 70.4%까지 큰 차이 없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커다란 차이가 있었는데,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전국의 일반농가는 부부와 자녀가 결합한 전형적인 핵가족이 중심인 반면에 농림어가는 60대 이상의 노인부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점은 농림어가 가족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계가족형은 전국 일반가구가 5.4%에 머무른 반면에 임가는 1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농가의 9.6%, 어가의 8.8%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 아직은 부모부양의 가족가치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농림어가의 직계가족형이 대부분 고령의 중심 부부가 더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해체될 수 있는 형태라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표 4-52> 유형별 가구구성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핵가족형	직계가족형	기타	1인 가구
전 국	15,887,128(100.0)	65.8	5.4	8.8	20.0
농 가	1,272,908(100.0)	66.5	9.6	9.1	14.8
어 가	79,942(100.0)	70.4	8.8	8.8	12.0
임 가	97,108(100.0)	69.1	11.6	8.0	11.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농림어가의 가족유형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별 가구구성 코드를 새롭게 조합하여 이념형 가족유형과 과도기형 가족유형, 비이념형 가족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형적 핵가족으로서 ‘부부+자녀’, 전형적 직계가족으로서 ‘부부+자녀+양친’의 형태가 결합되는 이념형 가족유형은 전국의 일반가구가 43.2%를 차지하는 반면에 농림어가는 20%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농림어가의 가족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특성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과도기형 가족유형의 분포 차이이다. 과도기형 가족유형은 ‘부부’와 ‘부부+부(모)’가 조합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중심부부의 연령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이념형적 가족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전국의 일반농가에서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어가의 경우는 50% 전후에 걸쳐 있으며, 특히 임가는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농림어가의 가족이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급격하게 해체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표 4-53> 가족유형 다양화 비교 : 2005

구분	총가구수(%)	이념형	과도기형	비이념형
전 국	15,887,128(100.0)	43.2	18.6	38.2
농 가	1,272,908(100.0)	23.3	48.3	28.4
어 가	79,942(100.0)	27.6	46.6	25.8
임 가	97,108(100.0)	23.0	54.0	23.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2006;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6.

이상 우리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를 전국의 일반 농가에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듯 농림어가수는 1970년을 정점으로 지난 35년 사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어가 전국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현재 농가는 7.8%, 어가는 0.5%, 임가는 0.6%에 불과하다. 특히 농가는 1970년에 전국 가구의 44.5%를 차지하였던 것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은 무려 36.7%p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농림어가의 가족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충원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한 가구수의 감소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데에 있다.

둘째, 농림어가의 가구규모는 급격하게 단순화되고 축소되고 있으며, 세대 깊이 또한 단축되고 있어 가족의 구조적 해체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림어가의 가족부양 체계는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으며, 사회재생산 기능도 전국의 일반가구에 비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농림어가에 대한 맞춤형 가족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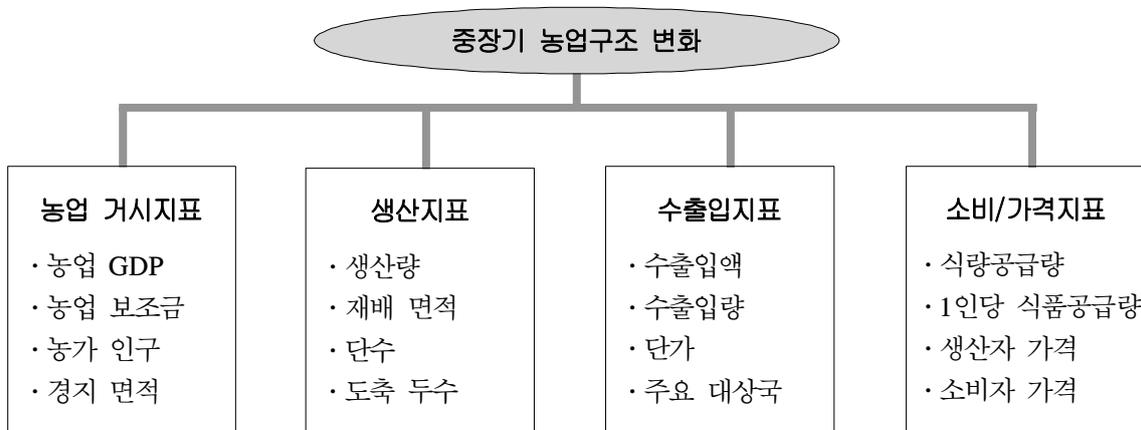
셋째, 전국의 일반가구도 다양화와 복잡화 추세로 가족유형이 변화하고 있지만 농림어가의 가족유형 변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었다. 특히 전형적인 핵가족과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진 이념형적 가족유형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와 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가족도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증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향후 이러한 다양한 농림어가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제5장 농업의 구조와 변화

I. 농업구조의 개념과 한국농업

농업구조라는 용어가 농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나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농업구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농업구조’란 용어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김정호 외, 2003; p. 8).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농업구조가 광의로는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농업의 산업적 구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협의로는 농업생산의 관점에서 고정적 생산요소의 결합관계, 특히 농업노동력과 농지의 결합관계를 함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원인에 대해서 김정호 등은 우리나라 농업이 가진 구조적 특징인 가족노동력에 토지가 결합된 가족노작적 영세소농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농가를 자립 가능한 경영단위로 육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한편 김태훈 등(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각 국의 농업구조의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에서 중장기 농업구조 변화의 지표로서 농업거시지표(=총량지표), 생산지표, 수출입지표, 소비 및 가격지표로서 파악하고 이 지표를 기준으로 각 국의 농업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그림 5-1> 참조). 이러한 지표는 농업의 산업적 관점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지적인 광의의 농업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할 수 있다. 김태훈 등이 제시하



자료 : 김태훈 등, 2007

<그림 5-1> 농업구조 관련지표의 구분

<표 5-1> 농업 관련지표 세부지표 구분과 출처

지표구분	세부지표	자료 출처
농업 거시지표	농림어업 GDP, GDP 변화, 농업 총생산액, 농업부분 보조금, PSE, TSE, 농가인구, 농촌인구, 경지면적, 농업 자본액, 농업용수 사용량, 유기농업 면적 및 농가수, 비료 사용량, 농기계 보유대수, 농업노동자 임금, 농업자본액 및 자본액 구성	세계식량농업기구 OECD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국제유기농업운동연합 국제통계연감 농림통계연보
생산지표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육류 생산량, 사육두수, 도축두수, 도축중량	세계식량농업기구 농림통계연보 농림업 주요통계
수출입지표	수출입량, 수출입액, 수출입 단가, 무역수지	세계식량농업기구 농수산물유통공사
소비·가격지표	총 식품공급량, 1인당 1일 식품공급량, 생산자 가격, 소비자 가격	세계식량농업기구 국제노동기구

자료 : 김태훈 등, 2007

고 있는 4가지 지표 가운데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거시지표의 일부, 농가인구와 경지면적 등이 조사되고 있으며 생산지표 중 일부인 품목별 생산지표 등이 조사되고 있다.

한편 농업총조사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전반적 농업상황을 총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농업총조사의 조사대상은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체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총조사가 실시될 때마다 조사대상자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농가이외의 사업체를 포함한 해가 있기는 했지만 농업총조사의 대상을 농가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참여하는 임노동 가구까지 포함하고 있다.⁴⁾ 즉 농업총조사에서는 ‘농업사업체’가 아닌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체를 조사한 자료이다. 따라서 농업총조사는 농업이라는 산업에 초점이 두어지기 보다는 사실상 농가에 대한 총조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근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까지를 포함하는 농식품의 생산 유통방식을 농식품체계(agro-food syste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념 속에는 농업(agriculture)이라는 산업을 단순히 농장에서의 생산(farming)보다는 보다 광의로 해석하여 생산 이후의 수집, 포장, 가공, 유통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인식을 확대하고 있다.(Tanssey &

4)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업총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농가에 한정되고 있는 반면 법인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농업총조사’는 ‘농가총조사’와 다르지 않다.

Worsley, 1996)⁵⁾ 즉 위에서 지적한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보다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식품체계란 개념을 빌려서 농식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지역적 범위가 한 국가내로 한정되고 있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총조사가 농업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인식한 위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총조사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국의 농업구조와 그 변화는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총조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농업의 구조와 변화를 살펴보자 한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농업의 구조적 특징이 ‘가족노작적 영세소농적 농업구조’란 관점을 적극 수용하여 주로 생산측면의 협의의 관점에서 농업 생산요소의 현황과 그 요소들간의 결합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농가수의 변화와 신규농가의 성격

1. 농가수의 변화

2005년 총 농가수는 127만 2천호로 2000년 대비 11만호가 감소하였다. 이는 연평균 1.7%씩 감소한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농가수의 감소경향이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율이 줄어들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소율은 거의 정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앞의 <표 4-17> 참조).

지역별로 농가수를 보면 도시지역인 동부가 21만2천호로 16.6%를 차지한 반면, 농촌 지역인 읍부가 17.9%, 면부가 83만2천호로 65.4%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농가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조사기간 동안 행정구역의 변화로 인해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1990년 총조사에서는 행정구역을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부의 경우에는 19만1천호로 10.8%를 차지한 반면, 군부는 89.2%인 157만6천호이었다. 2005년에는 읍면부와 동부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5년 농가 수는 1990년 대비 71.9%의 수준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부의 농가 수는 지난 15년 동안 2만1천호가 증가하여 1990년의 1.1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가의 증가는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도시지역의 증가가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도시지역

5) 미국에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총 식료품비 가운데 농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불과 7%에 불과할 만큼(Halwell, 2006)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협의의 농업구조 개념은 농업의 산업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된 의미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에서 출퇴근하는 농가의 증가도 그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⁶⁾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농가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는 패널조사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표 5-2> 지역별 농가분포 추이

(단위 : 천호, %)

연도 \ 지역	면부	읍부	동부(시부)	계
1990년	1,576 (89.2)		131 (10.8)	1767 (100.0)
2005년	832 (65.4)	228 (17.9)	212 (16.6)	1272 (100.0)

2. 신생농가의 성격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농가수의 변화와 변화의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생농가수와 소멸농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멸농가의 경우에도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소멸과 이농으로 인한 폐농 및 탈농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신생농가의 경우에는 가구원의 분가에 의한 새로운 농가의 탄생과 도시로부터의 이주를 통한 신규 취농, 그리고 재촌 비농업 인구가 신규로 취농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농가가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업총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개별 농가의 변화를 추적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소멸된 농가에 대해서는 총조사에서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 소멸의 요인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신생농가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생농가의 규모와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의 농업후계인력의 규모와 성격을 전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또한 신규 취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생산적 후계 인력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2000~2005년간 신생농가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생 농가와 가장 유사한 농가는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

6) 최근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인근도시 및 대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인근대도시에서 출퇴근하거나 자녀와 부인 등 일부 가족원이 도시에 거주하고 경영주는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위 ‘기러기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농민신문, 2005. 7. 18).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도시와 농촌의 학력격차와 함께 농촌지역의 도로망의 발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기존 농가 가운데 경영주가 교체된 농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후계자가 농업을 승계하였거나 남편의 사망 등으로 부인이 농업을 승계한 농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생농가는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 수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현재 경영주 경력이 5년 미만인 농가는 49,840농가이었으며 이는 전체 농가의 3.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00년 이후 매년 1만 농가 정도 새로운 경영주가 생겨난 것이다. 이를 2000년 총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00년 당시에는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가 55,128농가이었으며 전체 농가 중 4.0%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 신규경영주의 수도 감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생농가의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총조사에서 나타난 5년 미만 신규 경영주 농가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현재 신규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1.3세로서 5년 이상 경영주 농가의 평균연령 61.9세에 비해 10.5세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구해보면 29.2%가 50대 연령층이었으며 60대 연령층도 21.0%에 달해서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55.6%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도시에서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은퇴 이후에 농업에 신규 취농하는 인구가 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반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인구로 볼 수 있는 20대, 30대 연령층은 8,901명으로 신규 경영주의 15.9%에 불과하다. 또한 50세미만 연령층의 비율도 39.1%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2000년의 신규 경영주 연령과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50세 미만의 청·장년층의 비중이 55%에 달하였다. 그리고 35~45세 연령층이 최빈값이었지만 2005년에는 최빈값이 50대로 높아져서 2000년 이후 신규 경영주의 수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경영주의 취농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신규 경영주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1,741평으로 기존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 3,665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생농가의 60.8%에 해당하는 농가가 경작지가 1,500평 미만의 소규모 경영층이었다.

<표 5-3> 신규 경영주의 경작규모 분포

(단위 : 가구수, %)

구분	경작지 없음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합계	평균경작 규모	전체농가 평균 경작규모
농가수	2,185	30,307	9,698	3,934	1,428	1,251	1,037	49,840	0.57ha	1.2ha
비율	(4.4)	(60.8)	(19.5)	(7.9)	(2.9)	(2.5)	(2.1)	(100.0)		

<표 5-4> 신규 경영주의 연령별 평균 경작규모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평균경작규모(평)	2,835	2,235	1,813	1,605	1,531	1,230	1,741

경영주 5년 미만 농가의 거주 지역은 19.2%가 읍지역이며 동지역이 37.1%, 면지역이 43.7%이었다. 이에 반해 경영주 5년 이상 농가의 면지역 거주자 비율은 66.3%이며 동지역 거주자의 비율은 15.8%에 머무르고 있다. 신규 경영주 농가가 기존 농가에 비해 동지역 거주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읍지역 거주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경영주 경력별 농가의 거주 지역 2005

거주지	읍부	면부	동부	전체
경영주 5년 미만 농가	9,573 (19.2)	21,801 (43.7)	18,466 (37.1)	49,840 (100.0)
경영주 5년 이상 농가	218,766 (17.9)	810,756 (66.3)	193,546 (15.8)	1,223,068 (100.0)
전체	228,339	832,557	212,012	1,272,908

또한 신생농가 가운데 전업농가수는 19,526농가로 신생농가의 39.2%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평균 3,905호의 전업농가가 신규로 생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 전업적 농업후계인력의 육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1종 겸업농가는 3,495호로서 신규 경영주 농가의 7.0%에 해당한다. 전업적 농업 인력으로 볼 수 있는 50세 미만 전업농가와 제1종 겸업농가수는 7,996명에 불과하여 5년 미만 경영주 농가의 16.0%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남성이 7,356명으로 14.8%에 이른다.

경영주 5년 미만 농가의 경영주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여성경영주가 6,333명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는데 5~20년 경력의 여성경영주 비율이 9%에 이르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남성경영주의 사망으로 인해 여성이 경영을 승계한 경우이다. 5년 미만 여성경영주 가운데 60세 이상이 33.7%, 50세 이상이 6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주로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경영을 승계한 농가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신생농가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여성이 신규로 농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타 직업에서 전직하거나 농업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우대조치로 여성의 신규 취농이 늘어난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40세 미만의 여성경영주는 162농가로 전체 5년 미만

경영주 농가의 0.3%에 이르는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 여성후계농의 육성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6> 경영주 경력 5년 미만 농가의 특성별 분포

연 령	전점업별	남	여	계
29세 이하 (2.0)	전업농	401(0.8)	19(0.04)	420(0.8)
	제1종 겸업농	124(0.2)	5(0.01)	129(0.3)
	제2종 겸업농	420(0.8)	55(0.1)	475(1.0)
	계	945(1.9)	79(0.2)	1,024(2.1)
30~39세 (13.8)	전업농	1,995(4.0)	143(0.3)	2,138(4.3)
	제1종 겸업	574(1.2)	32(0.1)	606(1.2)
	제2종 겸업	3,571(7.2)	564(1.1)	4,135(8.3)
	계	6,140(12.3)	739(1.5)	6,879(13.8)
40~49세 (28.5)	전업농	3,347(6.7)	355(0.7)	3,702(7.4)
	제1종 겸업	915(1.8)	86(0.2)	1,001(2.0)
	제2종 겸업	8,382(16.8)	1,141(2.3)	9,523(19.1)
	계	12,644(25.4)	1,582(3.2)	14,226(28.5)
50~59세 (29.2)	전업농	4302(8.6)	700(1.4)	5,002(10.0)
	제1종 겸업	856(1.7)	129(0.3)	985(2.0)
	제2종 겸업	7588(15.2)	968(1.9)	8,556(17.2)
	계	12,746(25.6)	1,797(3.6)	14,543(29.2)
60세 이상 (26.4)	전업농	6,794(13.6)	1,470(2.9)	8,264(16.6)
	제1종 겸업	667(1.3)	107(0.2)	774(1.6)
	제2종 겸업	3,571(7.2)	559(1.1)	4,130(8.3)
	계	11,032(22.1)	2,136(4.3)	13,168(26.4)
합 계		43,507(87.3)	6,333(12.7)	49,840(10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농가의 과반수 이상이 도시 은퇴자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자급적 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5년 미만 경영주의 연령별 평균 경작규모를 보면 위의 <표 5-6>과 같이 연령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경작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신규 경영주 역시 젊

고 경영규모가 큰 신규경영농가와 함께 중고령의 자급적, 은퇴농적 성격의 농가로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규농가의 거주지는 면부 거주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읍부와 동부거주 비중이 커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Ⅲ. 농가의 농지소유와 이용의 변화

1. 총경지 규모와 경지이용 형태

2005년 농가의 총 경지 면적은 151만ha로 2000년 160만2천ha와 비교해 볼 때 9만2천ha 감소하였다. 이는 연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1990년대 후반 경지면적의 감소율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다시 그 감소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경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보면 논 면적은 948천ha이며 밭 면적은 562천ha에 이른다. 2005년 논은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5만ha가 감소하였으며 밭은 4만2천ha가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000~2005년 동안 연평균 각각 1.0%, 1.4% 감소한 것으로써 논보다는 밭의 감소율이 더욱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밭 가운데 특히 과수원의 감소가 두드러져서 2000년 149천ha에서 2005년 136천ha로 감소하여 지난 5년간 1만3천ha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8% 감소한 수치이다. 1990년대 후반 과수원이 크게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설면적은 오히려 연평균 0.6% 증가하여 2005년 53천ha에 이르게 되었다.

<표 5-7> 경작면적의 변화추이

(단위 : 천호, 천ha, %)

구 분	농가수	경지면적 (천ha)	논면적 (천ha)	밭면적(천ha)		호당 평균면적 (ha)	호당	
				과수원 (천ha)	논(ha)		밭(ha)	
1990년	1,769	1,823	1,206	617	111	1.03	0.68	0.35
2000년	1,383	1,602	999	604	149	1.15	0.72	0.44
2005년	1,273	1,511	948	562	136	1.19	0.75	0.44
2000~2005년 연평균증감율	-1.7	-1.2	-1.0	-1.4	-1.8	0.7	0.8	0.0

주 : 호당 평균면적은 경지면적/농가수(경지 없는 농가포함)임.

그러나 총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의 감소로 인해 호당 경작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2ha에 이른다.7) 이를 논과 밭을 구분해 보면 논의 호당 경

7) 이는 전체 농경지를 전체농가로 나눈 것으로 경작지가 없는 농가까지 포함한 수치이다.

작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밭의 호당 경작규모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농가의 경지면적과 그 변화

가.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와 그 변화

다음으로는 경지규모별로 농가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1965년부터 1990년까지는 영세농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규모가 큰 대농층이 증가하는 전반적인 상향이동의 방향으로 농가의 경영규모별 분포가 변화되어 왔다. 1.0ha 미만층의 소규모 농가는 1965년 전체 농가의 67.6%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에는 58.9%로 감소하였다. 반면 1.0ha 이상 경작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1985년까지는 1.5ha 계층까지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2.0ha 계층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작규모의 변화는 그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농업소득에 의한 가계비충족 가능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영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영규모를 늘이지 않을 수 없는 압박에 놓이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1990년까지의 농가의 경작규모의 변화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3가지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박민선, 1993; pp. 57-9). 첫째 시기는 1960~1967년까지로 총농가수가 계속 증가하는 시기로 농가의 소멸보다는 농가의 신설이 보다 많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0.5ha 미만 농가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1~2ha 층과 3ha 이상층이 증가하고 특히 3ha 이상층의 증가가 두드러진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67~1982년까지로 총농가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계층별 구성에서 0.5ha 이하의 영세소농층과 2ha 이상 상층 양극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0.5ha~1.5ha의 중간층이 비율이 증가하였다.⁸⁾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0.5ha 미만 영세소농의 이농과 잔존농가의 농지매입이나 임차에 의한 규모 확대가 지적되고 있다. 반면 2ha 이상층의 비율이 감소한 원인은 이농으로 인한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노임 상승으로 인해 자가노동력 규모로 영농규모를 축소한 것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박진도, 1987; 이영기, 1984).

세 번째 시기는 1983년~1990년까지의 시기로 총 농가의 감소는 지속되지만 0.5ha~1.0ha 층의 비율이 감소하고 1ha 이상층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즉 1ha를 기점으로 1ha 미만층의 비율이 감소하는 동시에 1ha 이상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규모가 클수록 그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 이는 영세농층의 탈농이나 이농이 격화되는 가운데 잔존하는 농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원인은 1990년대 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중대형 농기계의 보급으로 자가영농의 상한이 커지면서 규모 확대의 생산기반이 만들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의

8) 이러한 특징을 ‘중농비대화’ 혹은 ‘중농표준화’의 경향이라고 파악하기도 하였다.

가계비 충족도가 낮아지면서 중농의 하한을 유지하기 위해 규모 확대의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농가의 경영규모별 농가분포가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0.5ha 이하층과 2.0ha 이상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계층의 분기점이 상향 이동하여 1.0ha 미만층의 농가수는 절대수에 있어서나 상대적 비중에 있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농가의 증가하는 계층의 분기점 역시 상향 이동하여 3.0ha 이상 층에서도 절대적으로 농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1~3ha 경영농가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농가의 계층간 이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3ha층을 중심으로 일부의 농가가 경영규모를 축소하여 하향 이동한 반면 일부의 농가는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상향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9) 3.0ha 이상 대규모 농가들의 경영규모가 크게 늘어나서 특히 5ha 이상 대규모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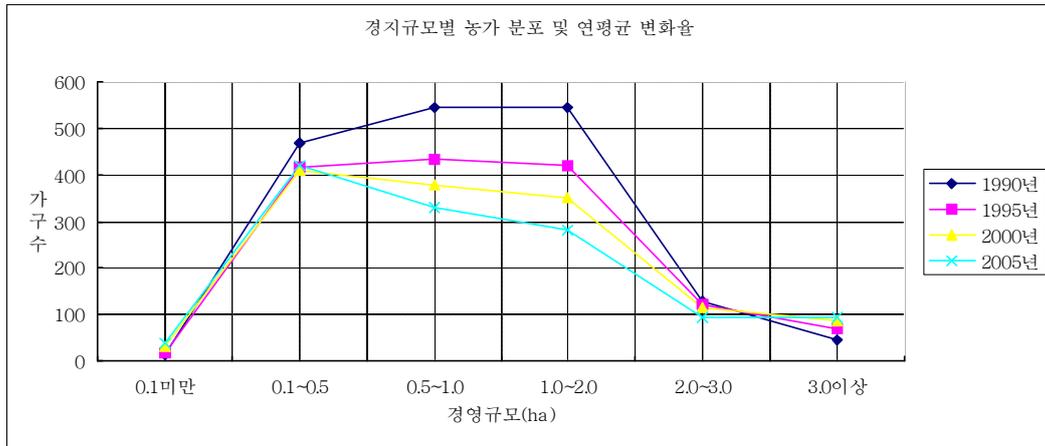
<표 5-8>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및 연평균 변화율

(단위 : 천호, %)

경영규모 연도	0.1ha 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계
1990년	15	468	544	543	130	44	1,767
	(0.8)	(26.5)	(30.8)	(30.7)	(7.3)	(2.5)	(100.0)
1995년	16	417	432	418	123	70	1,501
	(1.1)	(27.8)	(28.8)	(27.8)	(8.2)	(4.7)	(100.0)
2000년	30	410	379	352	114	85	1,383
	(2.2)	(29.7)	(27.4)	(25.4)	(8.2)	(6.1)	(100.0)
2005년	38	419	330	281	93	93	1,272
	(3.0)	(32.9)	(26.0)	(22.1)	(7.3)	(7.3)	(100.0)
1990~1995	1.25	-2.16	-4.13	-4.61	-0.95	12.36	-3.14
1995~2000	18.49	-0.33	-2.47	-3.18	-1.55	4.05	-1.56
2000~2005	4.84	0.43	-2.73	-4.40	-3.99	1.82	-1.66
1990~2000	10.44	-1.23	-3.08	-3.53	-1.22	9.46	-2.17

자료 : 해당연도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9)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개별농가에 대한 패널조사를 통해 자세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경지규모별 농가수

<표 5-9> 대규모 경작농가수 추이

(단위 : 천호)

구 분	2~3ha	3~5ha	5~7ha	7~10ha	10ha 이상
1990년	129.9	43.5	0		
1995년	123.3	54.9	13.8		1.7
2000년	113.8	61.1	14.4	6.0	3.2
2005년	93.2	60.7	17.8	8.9	6.1

가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에는 3만2천호를 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농가 중 2.5%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구조의 협의적 개념, 즉 농업생산요소간의 결합관계 특히 농지와 농업노동력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파악될 수 있다.

나. 경작규모의 결정요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경작규모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농가를 중심으로 경작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경작규모의 결정요인으로서 가족원의 수를 들 수 있다. 가족노작적 소농구조에서는 가족노동력에 투여하여 가족의 재생산을 피하는 것이 경영의 목적이므로 차야노프(A. V. Chayanov)에 따르면 가족 노동력의 성격과 소비를 결정하는 가족원의 수, 그리고 가족의 주기는 경작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5년 가구원수와 농가의 경작규모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종 농업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 농가의 평균 가족원수는 2.8명인데 반해 1.5~2ha를 기점

으로 2ha 이상은 가족원이 2.8명을 초과하는데 반해 1.5ha 경작농가에서는 가족원의 수가 2.8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족원수가 경작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원의 수는 가족노동력의 수와 함께 가계의 소비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¹⁰⁾

<표 5-10> 경지규모별 가구원수의 규모, 2005

(단위 : 명)

경지규모 가족원수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ha 이상	평균
평균가족원수	2.5	2.6	2.7	2.8	3.0	3.3	2.8

주 : 평균가족원수는 경작규모가 없는 농가는 제외함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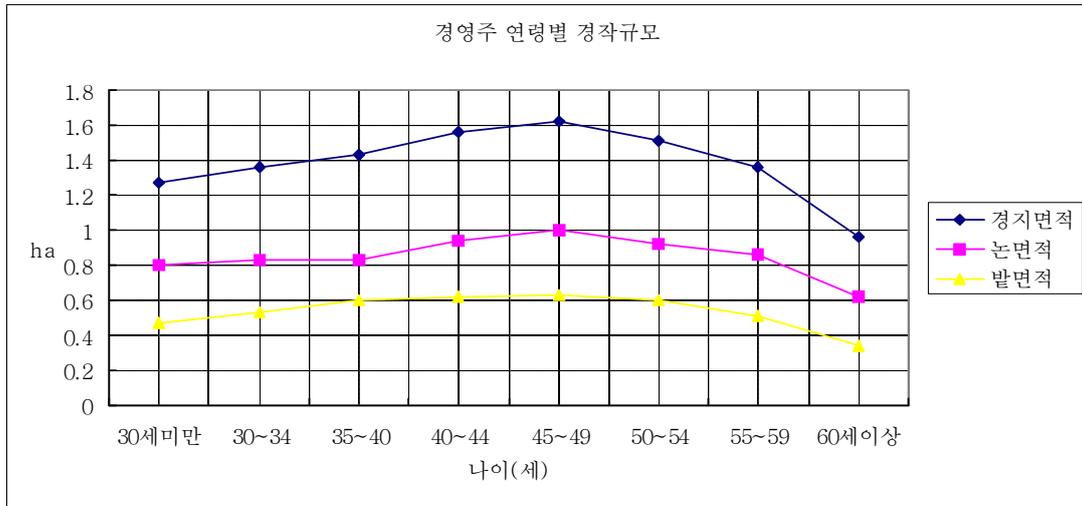
둘째, 경영주의 연령은 가족의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특히 가족원의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가의 특성상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가족 노동력의 질과 량, 그리고 가족의 생애주기가 경작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05년 경영주의 연령별로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50세를 기점으로 50세까지는 평균 경작규모가 증가하다가 50세 이후에는 경작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령 경영주 역시 다른 연령계층보다는 경작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1>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단위 : ha)

나이	경지용도	경지면적	논면적	밭면적
30세 미만		1.27	0.80	0.47
30 ~ 34세		1.36	0.83	0.53
35 ~ 40세		1.43	0.83	0.60
40 ~ 44세		1.56	0.94	0.62
45 ~ 49세		1.62	1.00	0.63
50 ~ 54세		1.51	0.92	0.60
55 ~ 59세		1.36	0.86	0.51
60세 이상		0.96	0.62	0.34
합 계		1.18	0.74	0.44

10) 농가의 가족주기는 노동력의 양과 질 그리고 소비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농가가족의 크기가 크게 축소된 현실에서 가족주기와 가족원수는 노동력보다는 소비수준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3> 경영주 연령별 경작규모

<표 5-12> 노령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2005

(단위 : ha, %)

연령 \ 경지규모	논	밭	계
전체 농가	1.18	0.74	0.44
65~69세	.66	.35	1.01
70~75세	.53	.28	.81
75세 이상	.41	.23	.64

자료 : 2005년 농업총조사 원자료에서 분석함.

셋째, 가족원의 농외취업 역시 농가의 경영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겸업별로 농가의 경영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에는 전업농가의 평균경지면적이 1.3ha이며 제1종 겸업농가는 1.7ha, 제2종 겸업농가는 0.6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평균경작규모가 전업농가에 비해서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겸업농가와 전업농가의 차이보다는 제1종 겸업농가와 제2종 겸업농가의 겸업농 내부 차이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업농가가 제1종 겸업농가와 비교해서 경지규모가 적은 것은 경영주의 노령화와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전겸업별로 농가의 경작규모를 비교해 보면 전업농의 경우에는 제1종 겸업농가에 비해 1.0ha 미만 경작농가의 비중이 높다. 반면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다른 농가들에 비해 1.0ha 이상 경영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2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57.2%의 농가가 0.5ha 미만 경작농가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82.4%의 농가가 1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이다. 전업농가 중

영세농의 다수는 노령층으로서 농외취업기회를 얻기 힘들거나 농외취업을 할 수 없는 영세노령 전업농가일 것으로 보인다.

<표 5-13> 전겸업별 농가의 경작규모 분포 비율 및 평균 경작규모(2005년)

(단위 : %, ha)

경작규모 가주원수	경지 없음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5.0ha 이상	5.0ha 이상	평균경작 규모
전업농	1.5	31.5	26.3	14.9	9.3	8.3	5.4	2.9	1.28
제1종 겸업농	1.3	17.5	26.0	17.5	12.4	11.8	8.5	5.0	1.71
제2종 겸업농	1.0	57.2	25.2	8.6	3.9	2.5	1.2	0.4	0.64

넷째, 농업경영주의 성(性)으로 노령화는 농업의 여성경영주의 비중을 크게 높이게 되는데 여성경영주의 대부분이 노령경영주이다. 여성경영주는 대부분 경작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자급적 농가로서 농업에 잔존하게 된다. 2005년 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경영주의 60.3%가 0.5ha 미만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5.5%가 0.5~1.0ha 경작농가로서 여성경영주의 85.8%가 1.0ha 미만을 경작하고 있다.

<표 5-14> 경영주의 성별 경작규모 분포

(단위 : ha)

경작규모 성별	경작지 없음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5ha	5ha 이상
남 자	1.48	30.98	26.08	14.87	9.48	8.47	5.59	3.05
여 자	0.62	60.25	25.49	7.81	3.07	1.78	0.73	0.25

다음으로는 경작규모에 위의 변수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경작규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겸업여부, 경영주의 성, 농기계보유수준, 가구원수로서 이 가운데 겸업여부는 전업농과 제1종 겸업농 1, 제2종 겸업농을 0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으며, 경영주의 성은 남성 1, 여성 0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농기계보유수준은 농기계보유 대수로 처리하였다.¹¹⁾

11) 경영주의 연령도 경작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선형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경영주의 연령과 경작규모는 2차 함수의 관계라고 가정하여 경영주연령과 경영주연령의 제곱을 위의 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하였으나 R제곱은 각각 0.01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가 유의확률 .000으로 경작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농기계의 보유수준으로 규모가 큰 농가가 보유하고 농기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임차에 나서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제2종 겸업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5> 경작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 수)	-533.254	14.590		-36.550	.000
	성 더 미	376.473	11.399	.027	33.027	.000
	겸업더미	1,306.481	10.205	.108	128.020	.000
	농기계합	1,203.722	2.209	.450	544.837	.000
	가구원수합	309.019	3.275	.082	94.345	.000

주 : 종속변수 = 경작규모

성 더 미 : 남성=1, 여성=0

겸업더미 : 전업농, 제1종 겸업농=1, 제2종 겸업농=0

3. 농가의 농지소유와 임대차 현황

농가의 호당 경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경작규모의 증가가 농가의 소유 농지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혹은 농지임차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현재 농가의 호당 평균 소유 농지규모는 총 2,234평으로 총 경지 중 농가의 소유농지 비율은 62.6%에 이른다. 반면 평균 임차지의 규모는 1,355평에 이르고 있다. 임차지의 규모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보면 논 임차지의 비중이 65.4%, 밭의 임차지 비중이 34.6%를 차지해서 농지의 임대차가 밭보다는 논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가 가운데 임차지가 있는 농가는 논인 경우 30.6%에 이르며 69.4%의 농가는 임차지가 없는 농가이었다. 밭의 경우에는 임차지가 있는 농가가 26.9%이며 임차지가 없는 농가는 73.1%로 논을 임차한 농가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차지가 있는 농가의 평균 임차규모는 논인 경우 2,897평, 밭의 경우 1,740평으로 임차지 규모에 있어서도 논이 밭의 1.7배에 이른다. 한편 논 임차농가와 밭 임차 농가 모두 자작지에 비해 임차지의 규모가 각각 1.7배와 2.4배에 이르고 있어 경작규모의 확대에 있어 임차지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작농의 경우 논 평균 소유규모는 1,227평으로 임차농가에 비해 적는데 비해 밭의 경우에는 자작농의 평균 밭 소유면

적은 925평으로 임차농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임차농가 비율과 평균 임차지 및 소유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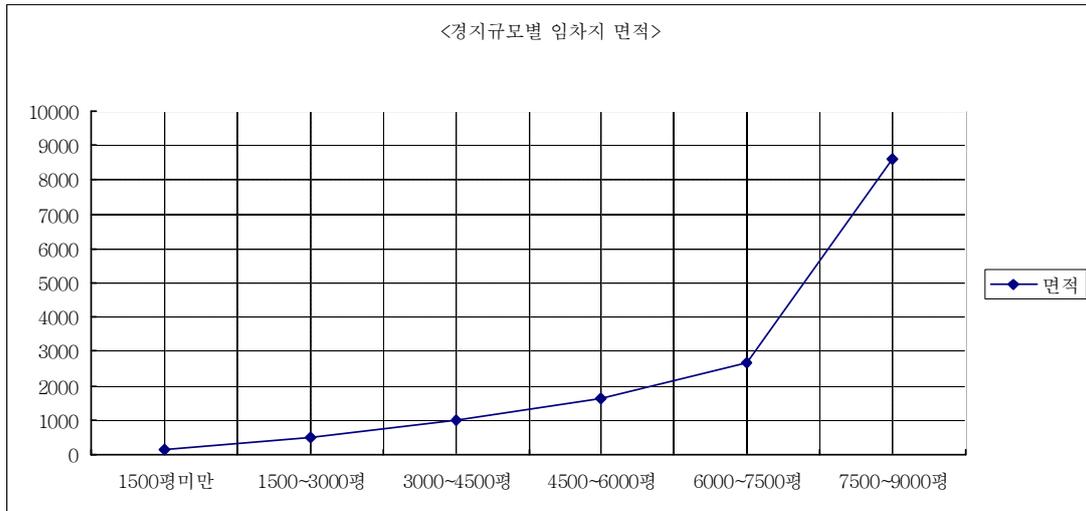
(단위 : %, 평)

논 임차농가 비율	임차농가 논 경작규모	논평균	논평균	밭임차 농가비율	임차농가 밭 경작규모	밭평균	밭평균
		임차규모	소유규모			임차면적	소유면적
30.6	4,590평 (100.0)	2,897평 (34.6)	1,683평 (65.4)	26.9%	2,453	1,740평 (69.4)	713평 (30.6)

한편 농가의 경지규모별로 농지의 유동화가 어느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가의 임차지 면적은 경작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작규모가 클수록 임차지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ha 이상 농가층의 평균 임차지 규모는 8,625평으로 다른 계층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임차지의 비율에 있어서도 경작규모가 클수록 임차지 비율도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보면 1,500평 미만은 밭의 임차지 비율이 높은 반면 중규모 계층에서는 논과 밭의 임차지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3ha 이상 대규모 경작농가에서는 논에 임차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경작농가가 임차지를 확대함으로써 규모 확대를 꾀하는 가운데 특히 논에 임차를 통한 규모 확대에 보다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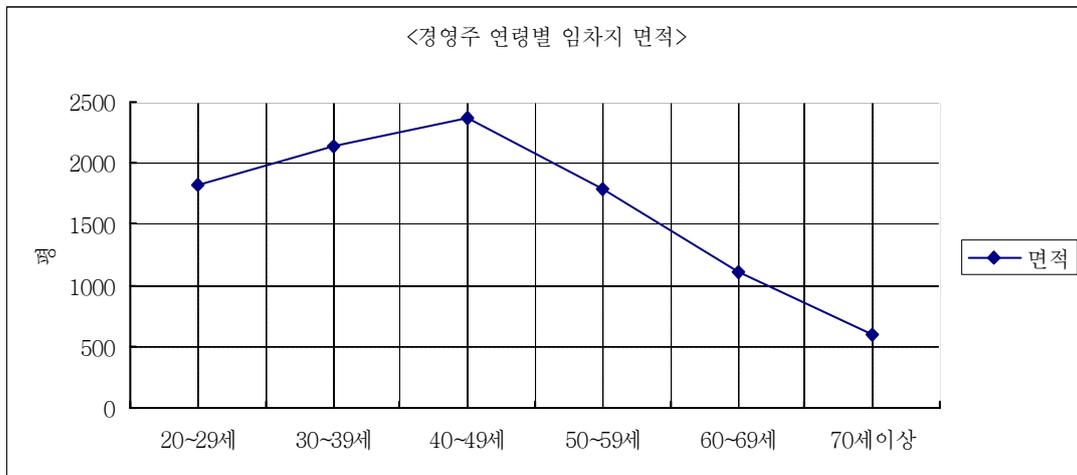
<표 5-17> 경지규모별 임차지비율과 임차지 면적

경지분류	임차비율 (%)	밭임차비율 (%)	논임차비율 (%)	평균임차지면적 (평)
0.5ha 미만	20.8	22.2	18.2	164
0.5~1.0ha	23.0	21.9	22.4	487
1~1.5ha	27.4	24.0	27.8	984
1.5~2ha	31.9	27.0	32.8	1,625
2~3ha	37.5	30.5	38.7	2,673
3ha 이상	50.8	39.0	50.6	8,625
합 계	27.1	25.0	27.6	1,354



<그림 5-4> 경지규모별 임차지 면적

한편 경영주 연령별로 임차지 규모를 보면 40대를 정점으로 40대 이하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차에 적극 나서는 반면 40대를 지나면서 임차지 면적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경영주 연령별 임차지 면적

다음으로는 임차지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논임차지면적과 밭임차지 면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변수는 농기계보유수준, 논 소유규모, 가구원수, 성더미, 겸업더미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논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3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변수별 설명력의 차이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수준 .000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임차지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농기계 보유수준이며 논 소유 규모가 클수록 임차지의 규모도 큰 것을 확인하였다.

<표 5-18> 논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귀분석)

구 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농 기계	.354*	.125	.316*	.136	.284*	.140
논소유규모			.111*			
가구원수						
성 더 미						
겸업더미						

* : p=.000

한편 밭의 경우에는 농기계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만 논에 비해서는 상대적 영향력이 훨씬 적다. 밭의 소유규모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 영향력은 논에 비해 역시 떨어진다. 오히려 가구원 수나 제2종 겸업여부가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밭의 경우에는 모형 적합성은 유의수준 .000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R제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명력이 크게 떨어진다.

<표 5-19> 밭 임차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회귀분석)

구 분	모형 1		모형2		모형 3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베타	R제곱
농 기계	.145*	.021	.060*	.024	.106*	.029
밭소유규모			.131*			
가구원수						
성 더 미						
겸업더미						

* : p=.000

농지의 유동화의 관점에서 볼 때 농업총조사에서는 농가의 임대농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민층내부의 농지유동화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비농민 소유농지 뿐만 아니라 농민층 내부에서 농지유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역시 중요하다. 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가 농민층 내부에서도 어떤 층으

로 집중되고 있는가는 농업구조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농가의 노령화에 따른 농업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 농지의 유동화가 농민층내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4. 경영의 집중화 경향

경작규모별 분포를 통해 2000년대 들어 경영의 양극화 현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농지의 임대차를 통해 경지규모가 큰 농가가 임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논인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집중화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농지 중 경지규모별로 경작지의 비중을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논인 경우에는 2005년 3.0ha 이상 농가가 전체 면적의 30.9%를 차지하고 2.0ha 이상 농가가 4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지난 1990년과 비교하면 각각 24.7%포인트, 28.0%포인트 증가하여 경영의 집중도가 크게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0.5ha 미만 농가의 논 경작지 비중은 15.7%에서 11.6%로 축소되었고 1.0ha 미만 농가는 46.9%에서 29.5%로 축소되었다.

<표 5-20> 논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단위 : %)

구분 \ 연도	1990년		2000년		2005년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실수합계	1,508천호	1,194천ha	1,078천호	999천ha	938천호	948천ha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ha 이상	59.6	84.3	57.8	86.2	56.0	88.4
1.0ha 이상	25.7	53.1	27.2	61.6	27.1	70.5
1.5ha 이상	10.7	29.9	15.4	45.7	16.7	53.7
2.0ha 이상	4.7	16.9	8.4	32.3	10.0	44.9
3.0ha 이상	1.2	6.2	3.8	20.0	5.4	30.9

밭의 경우 3ha 이상이 2005년 20.4%로 1990년 6.8%에 비해 13.6%포인트 늘어났고 2ha 이상 농가는 12.6%에서 30.5%로 17.9%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반해 0.5ha 미만과 1.0ha 미만 농가의 경우에는 각각 13.4%포인트, 21.2%포인트 줄어들었다. 논과 밭 모두 대규모 경영에 경작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논인 경우 양극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 5-21> 밭 경영규모별 농가 및 면적의 누적분포

(단위 : %)

구분 \ 연도	1990년		2000년		2005년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호 수	면 적
실수합계	1,469천호	613천ha	1,202천호	604천ha		567천ha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5ha 이상	24.7	61.8	27.7	70.5	31.9	75.2
1.0ha 이상	7.9	33.2	10.6	45.2	14.7	54.4
1.5ha 이상	3.3	19.6	5.9	33.4	7.1	38.5
2.0ha 이상	1.6	12.6	3.2	24.0	4.5	30.5
3.0ha 이상	0.6	6.8	1.5	15.8	2.1	20.4

과수농업 역시 경영의 집중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수원 1ha이상 재배농가의 농가호수는 14.4%인데 반해 면적비율은 46.3%를 차지하고, 시설원예 2천평 이상 농가도 10.6%의 농가가 42.9%의 면적을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2> 경영규모별 농가수 및 면적 누적분포

(단위 : %)

경영규모 \ 연도	1990		1995		2000		2005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호수비율	면적비율
과수원 1ha 이상	10.5	38.2	13.6	42.9	14.1	44.3	14.4	46.3
시설 2천평 이상	6.1	25.5	12.4	38.3	10.5	47.1	10.6	42.9

한편 축산의 규모화와 집중화도 나타나고 있다.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는 1990년 1.1%에서 2005년에는 9.0%로 급증하였다. 또한 돼지 1천두 이상 사육농가 역시 1990년 0.2%의 농가에서 2005년 19.2%로 증가하였고, 이들 대규모 농가가 돼지 생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닭 1만수 이상 농가가 사육농가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전체 생산의 97.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집중이 심화되었다.

<표 5-23> 축산규모별 농가비율 및 두수 비율

경영규모 \ 연도	1990		1995		2000		2005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호수비율	두수비율
한우 20두 이상	1.1	14.1	4.4	28.6	6.5	49.9	9.0	52.8
젖소 50두 이상	1.7	8.7	6.0	18.9	26.4	54.1	40	66.0
돼지 1천두 이상	0.2	13.3	2.2	27.7	9.8	62.1	19.2	70.6
닭 1만수 이상	1.8	59.2	3.1	76.8	2.7	94.1	6.3	97.8

IV. 농가의 영농 및 사업형태

1. 농가의 영농형태와 그 변화

2005년 농가의 영농형태는 논벼가 51.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 과수, 일반밭작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농가의 영농형태의 변화를 보면 미작과 채소, 특용작물 농가는 절대 농가수가 감소한 반면, 과수, 화훼, 일반밭작물과 축산농가는 총 농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절대 농가수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일반밭작물은 연평균 6.4%씩 증가함으로써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 외 화훼농가는 연평균 4.7%씩 증가하였으며 축산농가 역시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논벼 재배농가는 지난 5년 동안 13만9천 농가가 감소하여 연평균 3.8%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농업성장을 주도하던 축산, 특용작물, 화훼 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가수가 감소세로 반전되었던 반면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논벼, 과수, 채소 등의 경종농업이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러한 경향이 다시 반전되어 논벼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축산, 화훼농가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

한편 채소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다. 채소농가 가운데 시설채소와 노지채소의 구성은 2005년 노지채소 16만5천 농가로 전체 채소재배농가의 71.7%를 차지한 반면, 시설채소농가는 2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2000년에는 노지채소 농가수가 16만 9천호로 전체 채소재배농가의 71.0%, 시설채소농가는 29.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전문화와 시설화 등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채소농가는 여전히 노지채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노지채소 농가가 시설채소 농가에 비해 2.5배 수준에 이른다.

<표 5-24> 영농 형태별 농가 분포

(단위 : 천호, %)

구분 \ 연도	전체 농가	영농 형태별 농가 수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1990	1,767	1,232	107	172	39	6	114	89	8
	(100.0)	(69.7)	(6.1)	(9.8)	(2.2)	(0.4)	(6.5)	(5.0)	(0.4)
1995	1,501	823	144	247	46	10	70	156	5
	(100.0)	(54.9)	(9.6)	(16.4)	(3.0)	(0.7)	(4.7)	(10.4)	(0.4)
2000	1,383	787	143	238	38	8	92	72	5
	(100.0)	(56.9)	(10.4)	(17.2)	(2.7)	(0.6)	(6.6)	(5.2)	(0.3)
2005	1,272	648	145	230	27	10	126	82	3
	(100.0)	(51.0)	(11.4)	(18.1)	(2.2)	(0.9)	(9.9)	(6.5)	(0.3)
1995~2000년 증감율	-1.6	-0.9	-0.1	-0.7	3.8	-4.4	5.6	-14.3	0.0
2000~2005년 증감율	-1.6	-3.8	-0.4	-0.7	-5.8	4.8	6.5	2.7	-5.1

<표 5-25> 채소류 시설농가 분포

(단위 : 호, %)

영농형태 \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체	172,350	100.0	246,648	100.0	238,291	100.0	230,011	100.0
노지채소	133,045	77.2	175,237	71.0	169,468	71.1	164,777	71.7
시설채소	39,305	22.8	71,411	29.0	68,823	28.9	65,234	28.3

과수 농가의 경우에는 2000년과 2005년 사이 1,874농가가 증가하여 전체 농가 중 과수농가의 비중이 2005년 11.4%를 차지하고 있다. 과수농가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감귤을 제외하면 전 품목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한 품목은 사과, 복숭아, 기타 품목인 반면 감소한 품목은 배, 포도, 감귤이다. 포도와 감귤의 경우 한·칠레 FTA로 인한 수입산 포도와 수입산 오렌지 등 수입개방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이후로 감귤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복숭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포도는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축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한우의 증가가 두드러져서 한우 사육농가가 축산농가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5%로부터 2005년 54.8%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금지로 인한 소고기 가격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젓소, 돼지, 기타 축산은 감소하였고 닭 사육 농가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5-26> 과수류 품목별 농가 분포

(단위 : 호, %)

연도 영농형태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107,363	100.0	143,600	100.0	143,362	100.0	145,236	100.0
사 과	38,950	36.3	41,542	28.9	25,392	17.7	25,989	17.9
배	7,104	6.6	11,556	8.0	19,045	13.3	18,815	13.0
포 도	16,456	15.3	30,170	21.0	31,222	21.8	15,864	10.9
복숭아	12,472	11.6	10,998	7.7	13,962	9.7	27,849	19.2
감 꺾	18,575	17.3	22,797	15.9	22,836	15.9	20,272	14.0
기 타	13,705	12.8	26,537	18.5	30,905	21.6	36,447	25.1

자료 : 해당연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 5-27> 축종별 농가 분포

(단위 : 호, %)

연도 영농형태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 체	88,522	100.0	155,923	100.0	72,173	100.0	82,283	100.0
한육우	26,136	29.5	97,702	62.7	25,270	35.0	45,127	54.8
젓 소	23,690	26.8	18,882	12.1	10,717	14.8	7,535	9.2
돼 지	21,323	24.1	16,631	10.7	9,621	13.3	6,952	8.4
닭	9,490	10.7	8,557	5.5	6,110	8.5	6,124	7.4
기 타	7,883	8.9	14,151	9.1	20,455	28.3	16,535	20.1

나. 농가의 영농형태의 분화와 전문화

한편 농가의 영농형태의 변화는 농가의 분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전체 농가의 영농규모의 변화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세농화와 대규모화의 양극화로의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농층의 경우에는 화훼, 축산 등으로 더욱 특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영세농층의 경우에는 일반밭작물, 채소, 논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는 농가의 영농형태별 판매금액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일반밭작물 농가의 경우에는 53.2%의 농가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인 반면, 논벼, 채소, 특용작물 농가의 그것은 각각 23.3%, 24.3%, 22.2%로서 약 1/4에 해당하는 농가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었다.¹²⁾ 이에 반해 축산농가, 화훼농가, 특용작물 농가는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율이 각각 21.0%, 25.6%, 1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밭작물, 논벼, 채소농가의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 비중은 각각 0.9%, 1.9%, 5.7%에 불과하였다.

영농형태별 판매액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0년과 2005년의 판매액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논벼, 특용작물, 화훼는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 비중과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양극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과수, 채소, 축산, 일반밭작물의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 비중은 줄어든 반면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은 늘어나서 전반적인 상향이동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축산, 과수, 채소농가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서 규모화, 전문화의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5-28> 영농형태별 농가의 판매규모별 비율

(단위 : %)

구분	년도	논벼	과수	특용작물	채소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	기타	전체
100만원 미만	2005	23.3	8.7	22.2	24.3	12.5	53.2	7.7	36.4	23.7
	2000	20.2	10.1	21.5	25.5	7.7	56.3	12.6	24.1	22.0
5,000만원 이상	2005	1.9	5.7	10.9	5.7	25.6	0.9	21.0	4.3	4.5
	2000	1.1	1.7	4.1	2.0	12.4	0.6	16.4	3.2	2.2

경영주의 연령별로 영농형태를 보면 일반밭작물과 논벼의 경우 60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각각 65.7%, 6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작물생산 농가의 경영의 영세성과 자급농화가 경영주의 노령화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에 반해 화훼와 축산의 경우에는 50세 미만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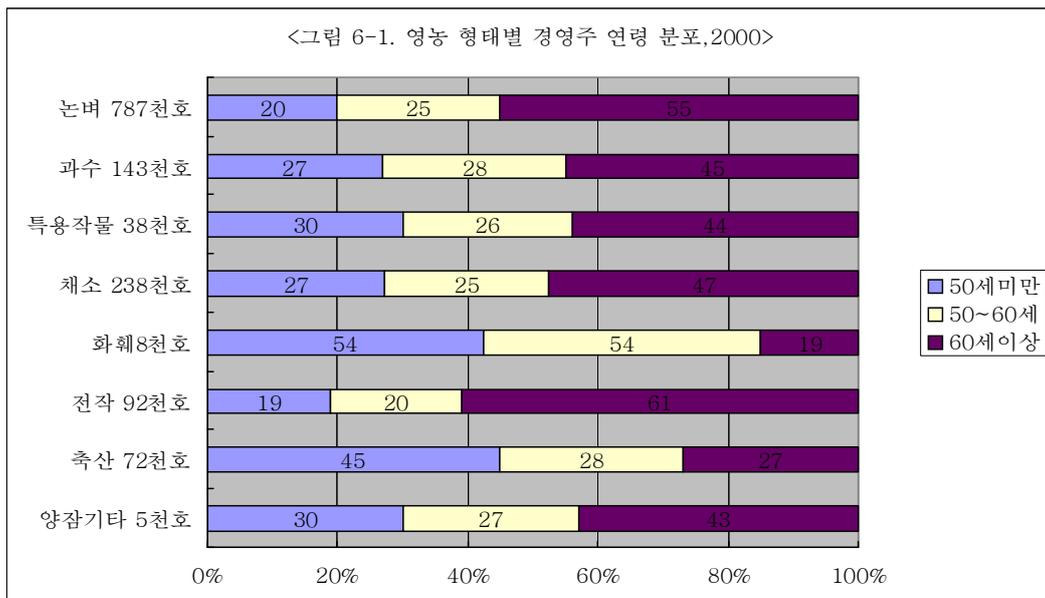
12)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르면 판매액 100만원 이상인 생산자를 농업인(가)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상 판매액을 기준으로 보면 법적으로도 농업인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29.0%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의 경우에는 50대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화훼 역시 50대 연령층의 비중이 다른 품목에 대해 현저하게 높았다. 이러한 자료 역시 농가의 분화가 경영주의 연령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동시에 품목별 특화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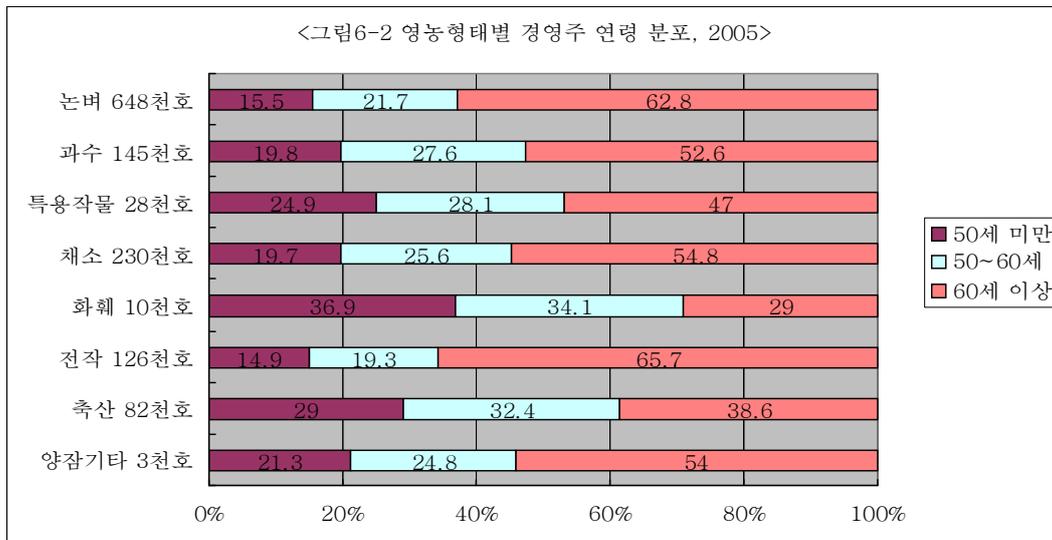
<표 5-29>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2005)

(단위 : %)

	50세 미만		50~59세		60세 이상	
	2000년	2005년	2000년	2005년	2000년	2005년
논 벼	20	15.4	25	21.7	55	62.8
과 수	27	19.8	28	27.6	45	52.6
특 용 작 물	30	24.9	26	28.1	44	47.0
채 소	27	19.7	25	25.6	47	54.8
화 훼	54	36.9	27	34.1	19	29.0
일 반 밭 작 물	19	14.9	20	19.3	61	65.7
축 산	45	29.0	28	32.4	27	38.6
기 타	30	21.3	27	24.8	43	54.0
전 체		17.9		23.8		58.3



<그림 5-6>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2000년)



<그림 5-7> 영농형태별 경영주 연령분포(2005)

경영주의 연령별 영농형태를 2000년과 비교하면 모든 영농형태에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작목에 비해 논벼와 일반 밭작물의 노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친환경농업의 보급과 친환경농가의 특성

새로운 영농의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의 확산이다. 2005년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가 8만7천 농가로서 전체 농가의 6.9%에 해당한다. 이는 2000년 60,275농가(전체 농가의 4.3%)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가는 논벼 재배농가로서 5만3천호로 전체 농가의 4.2%를 차지하는데 친환경농가의 60.7%를 차지한다. 그 다음 채소농가로서 26.6%를 차지한다.

친환경농가의 재배규모는 1~2ha 규모의 농가가 30.1%로 최빈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체농가와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다. 친환경농가의 평균경작규모가 1.8ha인 반면 비친환경농가의 평균경작규모는 1.1ha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친환경재배 농가의 경영주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고 전업적 농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8.3세인 반면 비친환경 농가의 평균 연령은 61.2세로 전체농가에 비해 친환경농가의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주 연령의 표준 편차 역시 전체 농가에 비해 적다. 또한 친환경농가의 전업별 여부를 살펴보면 친환경농가가 전업 및 제1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비친환경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작규모 비교

(단위 : 호, %, ha)

경작규모 \ 친환경여부	친환경농가	비친환경농가	전 체
경지 없음	2 (-)	17,015 (1.4)	17,017 (1.3)
0.5ha 미만	13,648 (15.7)	414,177 (34.9)	427,825 (33.6)
0.5 ~ 1.0ha	20,502 (23.5)	302,488 (25.5)	322,990 (25.4)
1.0 ~ 1.5ha	17,227 (19.8)	183,450 (15.5)	200,677 (15.8)
1.5 ~ 2.0ha	10,232 (11.7)	91,717 (7.7)	101,949 (8.0)
2.0 ~ 3.0ha	11,794 (13.5)	91,227 (7.7)	103,021 (8.1)
3ha 이상	13,794 (15.8)	85,635 (7.2)	1,272,908 (7.8)
전 체	87,199	1,185,709	1,272,908
평균경지면적	1.8	1.1	1.2

<표 5-31>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경영주 평균 연령

(단위 : 세)

	평 균	표준편차
친환경농가	58.4	10.85
비친환경농가	61.2	11.15
계	61.0	11.15

<표 5-32>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전·겸업 현황

(단위 :호, %)

농가구분	친환경농가	비친환경농가	전 체
전 업 농	57,000 (65.2)	739,000 (62.4)	796,000 (62.6)
제1종 겸업농	16,000 (18.1)	149,000 (12.6)	165,000 (13.0)
제2종 겸업농	15,000 (16.7)	297,000 (25.1)	312,000 (24.5)
전 체	87,000 (100.0)	1186,000 (100.0)	1273,000 (100.0)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로는 농협 및 농업법인이 46.9%, 친환경유통업체가 6.6%로 생산 및 유통의 조직화 수준이 다른 농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율도 19.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단체의 비중이 2.2%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5-33> 친환경농가와 비친환경농가의 판매처 비교

(단위 : %)

구분	도매시장	산지 공판장	농협 농업법인	소비자 단체	친환경 유통 전문업체	개인 소비자	대형 유통업체	기타
친환경농가	10.6	6.1	46.9	2.2	6.6	19.6	1.6	6.4
전체농가	5.6	3.7	24.5	-	-	17.5	0.4	

3. 농가의 농외취업 활동과 그 변화

농가의 농외취업 활동은 농업구조 변화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소농의 특징은 가족노작적 경영을 통해 가족을 재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농가의 계층구분에 있어 가족원을 재생산하기에 충분한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자가노동력을 판매하거나 타인 노동력을 구매하지 않는 농가를 ‘중농’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외 취업은 자가노동력에 비해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여 노동력의 판매에 나서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업과 공업의 불균등 발전과 농업 외 노동시장의 성장은 농업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생산적 농업 노동을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통적 농민층의 계층구분과는 달리 농외

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 농업에 잔존하고 생산적인 인력이 농업 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농업의 노령화와 여성화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유발되어 온 것이며 농외노동시장의 성장으로 농업 내에는 농외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다수의 인구층이 잔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¹³⁾

농업총조사에서 농가의 농외취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업농과 겸업농과의 구분이다. 농업총조사의 분류에 따르면 전업농가는 농가구내의 가구원이 농사에만 전업적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농외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더라도 연간 농업 이외의 노동 종사일수가 30일 미만인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한다. 이에 반해 겸업농가는 농사 이외의 일에 연간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이다. 그리고 겸업농가 가운데 제1종 겸업농가는 농업수입이 농외 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말하며 제2종 겸업농가는 농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를 지칭한다.

농가의 전·겸업별 실태를 시계열로 보면 1960년 이후 1995년까지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전업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이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 등으로 농촌으로 귀농하여 취농한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내부의 농외취업기회가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업농가의 비율은 1990년 59.6%에서 1995년 56.6%로 축소되었다가 2000년에는 65.2%로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 동안에는 총 농가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업농가가 5만3천호 절대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제1종 겸업농가는 5만2천호 감소하였고 제2종 겸업농가는 11만7천호가 감소하였다. 이는 도시 실업자의 귀농뿐만 아니라 농촌 내부의 농외 노동시장의 축소도 동시에 있었음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2005년에는 전업농가의 비율이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그 비율이 62.6%로 떨어져 지난 5년간 2.6% 포인트 낮아졌다. 그에 따라 겸업농가의 비율은 34.8%에서 37.4%로 증가하였다. 겸업농가를 제1종 겸업과 제2종 겸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제1종 겸업농가는 절대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제2종 겸업농가는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농외취업을 경영주와 가족원으로 구분하여 보면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 경영주만의 겸업농가는 전체 농가의 2.9%에 불과하며 가족원을 포함한 경영주의 겸업농가는 6.7%에 해당한다. 반면 2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경영주가 겸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가족원 겸업까지 포함하여 16.1%이었다.

13) 농업 내에 잔존하는 농업외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인구층은 정상적 노동능력을 갖추지 못해 농외취업이 불가능하고 기계화를 비롯한 농업의 평균적 생산력 수준을 갖추지 못해 경영의 규모 확대에도 한계를 가진 농가로서 ‘농업침전층’으로 불리워진다. 영세 전업노령농가들이 이러한 계층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5-34> 전·겸업별 농가 분포

(단위 : 천호, %)

구분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전 체		1,767	100.0	1,500	100.0	1,383	100.0	1,273	100.0
전업농가		1,052	59.6	849	56.6	902	65.2	796	62.6
겸업농가		715	40.4	652	43.4	481	34.8	476	37.4
1종 겸업농가		389	22.0	277	18.5	225	16.2	164	13.9
경영주 겸업		96	5.4	69	4.6	42	3.1	37	2.9
가구원 겸업		199	11.3	141	9.4	132	9.6	79	6.2
전가구 겸업		94	5.3	67	4.5	50	3.6	49	3.8
2종 겸업농가		326	18.4	374	25.0	257	18.6	312	24.5
경영주 겸업		75	4.2	87	5.8	62	4.5	86	6.8
가구원 겸업		126	7.1	139	9.3	91	6.6	106	8.3
전가구 겸업		124	7.0	149	9.9	103	7.5	119	9.3

농가의 농외취업은 농외노동시장의 발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농외취업의 기회는 매우 차이를 보인다. 2005년의 경우 동부의 겸업농가의 비중은 55.8%에 이르러서 농가의 과반수 이상이 겸업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겸업농가 중 제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훨씬 높아서 45.3%의 농가가 제2종 겸업농가이었다. 이에 반해 읍부와 면부의 겸업농가 비중은 각각 41.9%와 31.6%로 지역별 농외취업률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면부의 경우에는 제1종 겸업은 18.1%, 제2종 겸업은 13.5%에 불과하였다.

농가의 농외취업은 농업경영의 규모와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확인하였던 것처럼 제1종 겸업농가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오히려 겸업농가의 영농규모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겸업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경영주의 연령에 따른 효과라고 판단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겸업별로 경영주 연령별로 평균 경작규모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제2종 겸업농가의 경우 연령별로 경작규모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반해 전업농과 제1종 겸업농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제1종 겸업농가가 전업농에 비해 평균 경작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5> 전·겸업별 경영주 연령별 평균 경작면적

(단위 : ha)

구 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 균
전업농	1.64	2.01	2.20	1.78	1.18	0.77	1.28
제1종 겸업농	2.01	2.15	2.24	1.98	1.45	1.07	1.72
제2종 겸업농	0.66	0.62	0.69	0.68	0.64	0.56	0.65

노령경영주의 경우에는 농외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여의치 않아 전업농가가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즉 노령전업농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전업농의 경작규모가 제1종 겸업농가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을 비교해 보아도 전업농가의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가 20.4%에 달하는 반면, 제2종 겸업농가는 4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판매가 전혀 없는 농가 가운데 제2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54%를 차지한다.

4. 농가의 농관련 사업 실태

농가의 농관련 사업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소득의 기회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2005년 농업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농가의 농업관련 사업실태를 조사하였다. 2005년 총조사를 중심으로 농가의 농관련 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¹⁴⁾

2005년 전체 농가 가운데 농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7.9%에 이르고 있다. 사업참여 농가의 사업활동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판장 및 직거래가 6.9%, 농가식당이 0.4%, 농산물 가공업이 0.5%, 민박이 0.2%, 관광농원 주말 농장이 0.06%이었다. 즉 아직까지 농가의 농관련 사업은 주로 농산물의 판매활동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주5일제 근무, 웰빙을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여가문화의 변화로 인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극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농가의 농관련 사업 조사와 관련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농가의 사업활동을 농업소득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혹은 농업의 취업활동으로 보아 농외소득으로 파악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농가식당은 농가 및 주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득의 발생이 농업보다는 서비스에 근거하고 있어 농업외 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활동과 농가의 겸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36> 농가의 농관련 사업 참여 실태

(단위 : 호, %)

구 분	전체농가	농관련 사업참여 농 가	농관련 사업 참여 실태				
			직판장, 직거래	농가식당	농산물 가공업	농가 민박	관광농원, 주말농원
참여농가수	1,272,908	99,879	88,290	5,174	6,503	3,278	736
비 율	100.0	7.8	6.9	0.4	0.5	0.2	0.06

한편 직판장의 운영과 직거래활동은 사업규모나 내용면에서 매우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거래 활동은 농산물 판매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관련 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V. 농업경영주의 특성과 그 변화

1. 농업경영주의 특성과 그 변화

2005년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60대 연령층이 가장 많고 70대 이상이 24.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58.3%에 이르며 65세 이상 노인 경영주의 비율은 43.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0년 대비 노인 경영주의 비율과 비교할 때 10.5% 포인트 증가한 것이어서 경영주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37> 경영주 연령별 농가 분포

(단위 : 천호, %)

구분 \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호 수	비 율
전 체	1,767	100.0	1,500	100.0	1,383	100.0	1,273	100.0
30세 미만	37	2.1	12	0.8	7	0.6	2	0.2
30~39세	221	12.5	13	8.9	84	6.1	40	3.1
40~49세	373	21.1	272	18.2	238	17.2	186	14.6
50~59세	584	33.0	447	29.8	348	25.2	303	23.8
60~69세	403	22.8	445	29.6	479	34.7	430	33.8
70세 이상	150	8.5	190	12.7	227	16.4	311	24.5

이와 대조적으로 30대와 40대 청년 경영주의 비중은 2005년 17.7%에 불과한데 2000년의 27.1%, 1990년의 33.6%와 비교해 볼 때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5-38> 경영주 연령별 경영주의 성

(단위 : %)

성별 \ 연령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 체
남성경영주	2,248 (94.4)	37,873 (94.7)	174,264 (93.8)	268,750 (88.7)	342,762 (79.6)	230,305 (74.0)	1,056,202 (83.0)
여성경영주	134 (5.6)	2,137 (5.3)	11,585 (6.2)	34,102 (11.3)	87,711 (20.4)	81,037 (26.0)	216,706 (17.0)
계	2,382 (100.0)	40,010 (100.0)	185,849 (100.0)	302,852 (100.0)	430,473 (100.0)	311,342 (100.0)	1,272,908 (100.0)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면부의 최빈값은 65~69세의 노인연령층이고 65세 이상 노인 경영주의 비중이 46.3%로 약 반수의 경영주가 노인층이었다. 이에 반해 동부와 읍부의 노인 경영주 비중은 이보다는 낮아서 각각 33.5%와 40.7%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는 후계자에 의해 농가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 의해 경영이 승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여성경영주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여성경영주 농가는 21만 6천호로 전체농가의 17.0%에 해당한다. 여성경영주의 비율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동부는 13.5%인 반면 면부에는 18.2%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높다. 경영주의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경영주의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60세를 기점으로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서 여성경영주의 61.5%가 65세 이상 노인층이었다. 이는 남성경영주의 39.4%가 65세 이상 노인층인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는 농업경영주의 노령화가 농업경영주의 여성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영농승계자의 확보와 승계자의 특성

농업총조사에서 영농 승계자란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 중 현재 경영주의 대를 이어 농사에 종사할 사람을 말한다. 영농 승계자는 현재 농가에서 동거하고 있는 승계자와 비동거 승계자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다. 일부 동거 승계자의 경우에는 현재 농업에 취업하고 있는 승계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영농 승계자는 농가의 존속이란 측면에서도 중

요할 뿐만 아니라 영농승계자의 확보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과제이기도 한다. 특히 수입개방 이후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란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후계자의 확보가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2005년 영농승계자가 확보된 농가는 약 45,163호로 이는 전체 농가의 3.5%에 해당한다. 2000년 총조사 당시 15만 농가(전체 농가 중 10.8%), 1990년 29만 농가(전체 농가 중 16.4%)가 승계자를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영농후계자가 절대수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업농가 가운데서도 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3.1%에 불과하여 장차 농업승계에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에는 전업농가 가운데 농업승계자가 있는 농가가 13.4%, 2000년에는 8.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농업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우 승계자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67.9%이었으며, 비동거 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32.1%에 달하였다.

<표 5-39> 영농승계자 확보농가 추이

(단위 : 호, %)

구분 \ 연도	1990년	2000년	2005년
승계자확보 농가수	289,529	150,453	45,163
전체농가 중 승계자 확보농가 비율	16.4	10.8	3.5

이처럼 가족구성원의 승계에 의한 영농후계자의 확보는 앞으로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집과정이 필요한데 특히 비농가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모집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최근 농업의 전문화, 대규모화 그리고 지가의 상승에 따른 경지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영농기반이 전혀 없는 비농가 자녀의 영농취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 등을 통해 농장을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는 등 적극적인 모집과정이 필요하다.

VI. 농업의 기계화와 농작업 위탁실태

1. 농가의 농기계 보유 실태와 그 변화

농가의 노동력 부족과 함께 농업의 기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작은 거의 모든 작업이 기계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작의 기계화는 자가 보유 농기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농기계를 가진 농가에 농작업을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농업구조와 같은 영세소규모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소토지 분산적 농지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는 농기계의 보급은 농기계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농작업의 수위탁은 한편으로는 농가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을 보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는 자작지만으로는 농기계의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는 수요와 공급의 요인이 작용하여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기계의 보급과 함께 농작업 수위탁이 일반화되면서 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노령농가를 비롯한 열악한 생산조건을 가진 농가가 농업에 끈질기게 잔존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영세소농적 농업구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농가 중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인 경운기가 44.9%, 관리기가 72.6%이었다. 경운기와 관리기와 같은 다목적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노령 영세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콤파인과 트랙터, 이앙기의 보유농가는 전체 농가 중 3.8%, 16.1%, 2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농기계의 보급대수는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1대 이상 보유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데 2005년 현재 농기계 보급률은 경운기 55.1%, 이앙기 23.3%, 관리기 27.4%, 트랙터 1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하면 전 기종에서 농기계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트랙터의 공급이 2000년 대비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콤파인의 보급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벼 수확작업의 일관기계화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바인더와 정미기와 같은 농기계의 사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2005년에는 총조사에서는 바인더와 정미기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주목된다.

<표 5-40> 주요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

(단위 : %)

년도	경운기	트랙터	콤파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이앙기
1990	22.3	1.4	1.5	2.0	1.5	2.2	5.4
1995	27.1	3.8	2.6	2.8	9.2	4.6	10.1
2000	33.0	7.8	3.8	3.3	14.2	7.7	14.2
2005	60.4	18.0	7.0	-	28.4	16.8	23.7
농기계 없는 농가비율(2005)	44.9	83.1	96.2	-	72.6	84.9	76.7

2. 농가의 농작업 위탁 실태와 그 변화

농작업의 위탁은 논농사에서 기계를 보유한 농가 및 법인에게 가족원이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작업을 도급 또는 위탁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2005년 농가의 농작업별 위탁 현황을 보면 수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85%의 농가가 위탁하였으며 경운과 이앙이 65% 내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논농사의 농작업위탁은 1980년대에 이미 일반화되어 1990년에는 이앙 작업은 56.2%, 벼베기 작업은 60.4%가 위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000년에는 경운 역시 59.8%를 차지하였으며 이앙은 59.6%, 벼베기는 81.5%에 이르는 등 농작업위탁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작업별로 위탁작업 농가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농작업의 일부 위탁의 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전부 위탁하는 농가의 비중은 서서히 늘고 있음이 주목된다. 주요 농작업인 모내기의 경우 전부 위탁한 농가의 비중이 54.0%에 이르며 벼베기는 79.2%의 농가가 전작업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과 이앙의 자가영농 비율은 각각 15.2%와 37.4%에 머무르고 있는데 콤바인과 이앙기의 보유농가가 각각 3.8%와 23.3%인 것을 고려하면 타인의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농작업을 하는 농가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자가영농의 비중이 컸던 농약살포의 경우에도 2005년에는 위탁작업이 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표 5-41>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및 위탁영농 비율

(단위 : %)

구분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논 갈 이	자가영농		52.3	48.2	40.2	35.9
	위탁영농	전 체	47.5	51.4	59.8	64.1
		전부 타인	39.4	42.4	54.7	57.0
		일부타인	8.2	9.0	5.1	7.1
모 내 기	자가영농		43.6	40.1	40.4	37.4
	위탁영농	전 체	56.2	59.5	59.6	67.6
		전부 타인	36.7	46.5	54.4	54.0
		일부 타인	19.5	13.1	5.2	8.2
농약살포	자가영농		64.9	70.7	70.1	66.9
	위탁영농	전 체	35.0	28.9	29.9	33.1
		전부 타인	22.1	20.1	25.5	25.3
		일부 타인	12.9	8.9	4.5	7.1

구분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벼 배 기	자가영농		39.4	25.1	18.5	15.2
	위탁영농	전 체	60.4	74.5	81.5	84.7
		전부 타인	43.4	61.6	76.8	79.2
		일부 타인	16.0	13.9	5.7	5.5
탈 곡	자가영농		26.6	22.2	17.4	
	위탁영농	전 체	73.3	77.4	82.6	
		전부 타인	61.1	64.8	77.9	
		일부 타인	12.2	12.7	4.6	

<표 5-42> 주요 벼농사 작업의 위탁영농 비율(2005년)

(단위 : 호, %)

	미작농가수	미작농가 중 비율
전 작업 위탁농가(5개 작업)	158,357	20.0
1개 작업 위탁농가	135,295	14.6
2개 작업 위탁농가	131,576	14.2
이양+수확	51,657	5.5
3개 작업 위탁농가	194,047	20.9
경운+이양+수확	166,734	17.8
4개 작업 위탁농가	156,710	16.9
묘판+경운+이양+수확	57,409	6.2
위탁 작업 없음	123,309	13.3

주 : 전 작업 위탁은 묘판+경운+이양+농약살포+수확임.

자료 : 해당 연도 농업총조사에서 작성.

농작업의 위탁실태를 경영주의 연령별로 살펴보기 위해 경영주의 연령별 자가영농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연령별로 자가영농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 농가이었지만 50대 연령층 까지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60세를 기점으로 경운, 이양, 수확 작업에서 자가영농의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70세 이상 연령층의 자가영농의 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확작업 농가에서는 농기계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작업능률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가의 농기계의 손익분기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의 농기계 임작업과 비교하면 전 연령계층에서 전부위탁의 비중이 늘어났다. 또한 2000년에는 경영주가 고령화될수록 위탁영농비율이 높아지다가 60~69세를 정점으로 70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던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2005년에는 70세 이상 고령층의 위탁영농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점차 경영주가 고령화에 따라 위탁작업을 통해 미작농업에 계속 잔존하는 고령경영주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5-43> 경영주 연령별 주요 벼농사 작업의 자가영농 비율(2005년)

(단위 : 호, %)

경영주 연령	미작농가수	경운	이앙	수확
30세 미만	1,470 (100.0)	686 (46.7)	641 (43.6)	321 (21.8)
30~39세	25,551 (100.0)	12,602 (49.3)	12,014 (47.0)	6,266 (24.5)
40~49세	127,341 (100.0)	68,774 (54.0)	65,218 (51.2)	33,206 (26.0)
50~59세	218,836 (100.0)	101,940 (46.6)	102,760 (47.0)	45,088 (20.6)
60~69세	331,860 (100.0)	106,784 (32.1)	11,450 (36.0)	40,859 (12.3)
70세 이상	230,260 (100.0)	45,003 (19.5)	49,994 (21.7)	16,894 (7.3)

Ⅶ. 농업생산의 조직화와 농산물 판매

1. 농업생산의 조직화 실태와 그 변화

농업생산의 조직화는 소규모 농가의 생산 및 판매의 조직화를 통한 비효율을 극복하고 시장 교섭력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특히 수입개방 등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대형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나타나면서 연중 생산을 요구하고 균질적인 표준화된 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조직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5년 농업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은 작목반 17.8%, 영농조합 3.5%, 농

업회사 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농가의 조직화는 작목반 형태의 느슨한 조직화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작목반은 개별 농가의 경영을 독립적으로 유지한 채 농자재 구매나 농산물 판매의 협업화를 피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생산과정에 대한 보다 높은 조직력의 영향력을 가진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와 같은 회사형태의 조직화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2000년과 비교하면 농가의 작목반 가입 농가는 상대적으로는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절대 농가 수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가입농가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가입농가의 수는 2000년 41,532농가에서 44,302농가로 늘어났으며 농업회사 법인 가입농가의 수는 3,471농가에서 4,898 농가로 늘어났다.

농가의 영농형태별로 작목반의 가입농가는 화훼(46.1%), 과수(45.2%), 특용작물(42.4%), 채소(29.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⁵⁾ 그러나 일반밭작물 농가와 미작 농가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농조합법인 가입 농가는 화훼(7.6%), 축산(6.6%), 특용작물(5.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회사 가입비율은 특용작물, 축산, 화훼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특용작물과 축산이 회사법인의 가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과수와 화훼는 영농조합법인 가입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44> 영농형태별 법인참여 농가비율

(단위 : %)

경영주 연령	2000년		2005년	
	영농조합	농업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미 작	1.9	0.2	2.2	0.3
과 수	5.7	0.3	7.4	0.5
특 용 작 물	3.8	0.2	5.7	0.7
채 소	3.7	0.2	3.9	0.4
화 훼	7.4	0.7	7.6	0.6
일 반 밭 작 물	2.0	0.1	1.8	0.2
축 산	7.4	0.6	6.6	0.7
기 타	4.9	0.1	5.8	0.5
전 체	3.0	0.3	3.5	0.4

15) 각 품목별 작목반에 가입한 농가를 영농형태별 농가수로 나누어 계산함.

농가의 영농의 조직화를 2000년과 비교하면 특용작물과 축산의 작목반 가입 비중이 늘어났지만 화훼, 과수의 작목반 가입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2000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축산, 화훼, 과수의 순으로 높은 가입비율을 보였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축산, 화훼의 순이었다.

2. 농가의 농산물 판매실태와 그 변화

그동안 농가의 분화는 주로 경작규모를 기준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2000년부터 총조사에서 농가의 판매현황이 조사되어 있어 농가의 분화현상을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가의 경작규모는 작목별로 집약도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토지이용형 농업에 대한 분석에는 적합하지만 축산이나 화훼, 시설채소와 같은 비교적 토지이용으로부터 자유로운 농업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가의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분석은 농업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농가의 판매실태와 그에 따른 농가의 분화현상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을 판매규모별로 보면 2000~2005년간 500만원 미만의 소액 판매농가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3,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도 함께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판매액 500~3,000만원 판매액 계층의 비율은 축소되었다. 이미 위에서 농가의 경지규모별 양극분화의 경향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판매규모별로도 농가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500만원 이하 판매농가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51.7%에 이었는데 2000년 48.1%에 비해 더욱 비중이 높아져서 자급적 혹은 반자급적 영세소농의 비중이 더욱 많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5-45> 농가판매 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 천호, %)

구분	판매 없음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2억	2억 이상	계
2000년	90.6	214.2	362.3	291.1	334.7	59.5	23.1	5.8	1.8	1,383.4
	6.5	15.5	26.1	21.0	24.2	4.3	1.6	0.4	0.1	100.0
2005년	120.3	181.2	356.2	211.4	272.9	73.1	41.1	11.2	5.1	1272.9
	9.5	14.2	28.0	16.6	21.4	5.8	3.2	0.8	0.4	100.0
2000년~2005년 증감율(%)	5.8	-3.3	-0.3	-6.2	-4.0	4.2	12.2	14.1	23.2	-1.7

판매액 기준별 계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가 전혀 없는 농가의 경우에는 그 절대수와 상대적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판매 없는 농가수는 12만 농가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농가 중 9.5%에 해당한다. 반면 2000년에는 판매 없는 농가가 9만 농가로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5년간 판매 없는 농가가 연평균 5.8%씩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많은 농가가 경영을 축소하거나 조방화 함으로써 자급농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의 직업범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100만원 미만 농가도 2005년 30만1,500농가로 전체 농가 중 23.7%를 차지해서 2000년의 22.1%에 비해 증가하였다. 현재 농가의 약 1/4에 해당하는 법적으로 농업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범주의 농가들이다.

한편 100~500만원 미만 판매 농가는 농가 수는 감소하였지만 상대비율에 있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500만원~3,000만원에 이르는 중규모 농가는 절대적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적 비중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3,000만원 이상 판매 농가는 절대수에 있어서나 상대적 비중 역시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판매규모가 클수록 증가비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지규모별 농가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양극분화의 양상을 판매규모별 농가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극분화의 분기점을 이루는 계층은 500~3000만원 판매계층으로 이들이 분화의 분기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 경작규모에 따른 농가분화 현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농가의 계층적 분화 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2억 판매농가수가 크게 늘어나서 200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2.9%씩 증가하였으며, 2억 이상 판매농가 역시 크게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23.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46> 취약농가의 농산물 판매액 비중(2005년)

(단위 : %)

년 도	전체 농가 중 비율	판매 없는 농가의 비율	연간 50만원 미만 판매농가비중	연간 50~100만원 판매농가비중
65세 이상 경영주	43.2	44.4	57.7	55.9
제2종 겸업농가	24.5	53.9	37.8	35.4
여성경영주농가	17.0	24.4	35.6	31.8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판매농가의 농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여성경영주 농가 그리고 제2종 겸업농가 중에서 판매규모가 100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판매 없는 농가 중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가 44.4%에 이르며, 여성경영주는 24.4%, 제2종 겸업농가는 53.9%에 이른다. 한편 농가의 특성별로 보면 여성경영주의 41.5%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며 제2종 겸업농가의 42.0

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농가의 판매액을 보면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가 28.4%에 불과하여 적어도 농촌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층에서도 활발하게 상업적 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5세 이후에는 서서히 상업적 비중을 줄여 8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자급화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연령별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의 비율은 고령일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5-47> 65세 이상 고령층의 농산물 판매 실태(2005년)

구 분	경영주연령 65~69세 농가	경영주연령 70~74세 농가	경영주연령 75~79세 농가	경영주연령 80세 이상 농가
100만원 미만 판매농가 비중	22.3	28.5	37.4	46.7

농가의 2005년 100만원 미만 판매 농가의 비중을 2000년과 비교해 보면 노령층과 제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기본적 구조를 같이함에도 불구하고 노령층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제2종 겸업농가는 더욱 그 비중이 높아졌다. 점차 경영주의 노령화와 함께 자급농으로 은퇴하는 연령은 높아지는 반면 겸업의 심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간 1억 이상 판매농가는 2000년 0.6%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1.29%로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연간 1억~2억 판매농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40-59세의 장년층이 77.1%이었으며 2억 이상 판매 농가 역시 이들 연령층의 비중은 77.3%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연간 1~2억 판매농가 가운데 축산농가의 비중은 61.1%이었으며 논벼가 15.3%이었으며, 2억 이상 판매농가는 축산 79%, 논벼가 5.8%, 채소가 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로 농가의 판매액을 보면 일반 밭작물의 경우 53.2%가 100만원 미만의 판매액을 보인 반면 논벼와 채소 역시 각각 23.3%, 24.3%가 100만원 미만의 판매액을 보인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의 비중은 화훼와 축산이 각각 25.6%, 21.0%를 보이고 있어 전체 품목에서 경영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의 <표 5-28> 참조).

3. 농가의 농산물 판매처

농가의 농산물의 주요 판매처는 농협 및 농업법인이 24.6%, 개인소비자가 17.5%, 정부판매가 14.4%, 개인수집상이 1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공 및 외식업체의 성장과 신유통업체의 출현 등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가 나타

나고 있지만 가공업체와 대량수요처 그리고 대량유통업체의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다. 그러나 가공업체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들 대량수요처는 소규모 농가와 직접 거래하기 보다는 농협이나 농업법인과 같은 조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들을 통한 우회 판매도 점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농업총조사는 농가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가 판매한 농산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농가의 농산물 판매처는 농가의 판매금액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대량주요처의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보다는 대규모 농가와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농가의 판매금액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판매처를 정리하였다. 먼저 100만원 미만의 소액 판매농가는 대부분 개인소비자와의 직거래, 정부, 농협, 재래시장과 거래를 하는데 반해, 1억 이상 대량 판매농가에서는 가공업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수집상, 농협 등의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 규모의 판매농가는 농협에 판매하는 농가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농가의 판매금액별로 판매경로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앞으로 점차 이러한 차별적 경로를 통한 판매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특히 2억 이상 판매농가의 경우 가공업체를 비롯한 대량유통업체와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48> 농가판매 규모별 판매처

(단위 : 천호, %)

순위	전체	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0~2,000만원	3,000~5,000만원	5,000~1억	1억~2억	2억 이상
1순위	농협&농업법인 (24.6%)	개인 소비자	개인 소비자	농협&농업법인	농협	농협	가공업체	가공업체
2순위	개인소비자 (7.5%)	정부	정부	수집상	수집상	수집상	농협	수집상
3순위	수집상 (14.3%)	농협&농업법인	농협&농업법인	정부	도매시장	가공업체	수집상	농협
4순위	정부판매 (14.4%)	재래시장	수집상	가공업체	가공업체	도매시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5순위	가공업체 (6.9%)							대량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제6장 어업구조의 변화

I. 어업의 개념과 어업총조사

1. 어업의 개념

어업은 수산업법 2조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이다. 사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따위를 잡거나 기르는 산업’이라고 한다. 어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어로활동(漁撈活動, fis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연계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칭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하는 경우 어업(fishery)라 할 수 있다. 수산업법에서 어업은 자연계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하는 것만 기르는 어업 즉 양식어업까지 포함한다. 어업과 유사한 개념의 수산업(fishery)은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양식은 물론 운반, 가공, 판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어로행위가 이루어지는 해역을 어장(fishing ground)이라 한다. 어장은 동식물의 생태, 습성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채취·포획하는 공간과 방법이 다르며, 법률적으로 행위제한이 수반된다. 이처럼 어업은 어장의 근거지, 잡는 방법(어법), 경영방법, 법규상의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⁶⁾

- (1) 대상물에 따른 분류 : 어업의 대상물은 어류, 패류, 해조류 등 각종 수산동식물이다. 이중 어류가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어업을 어류를 포획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류와 달리 고래 등 포유류를 잡는 것을 해수어업(海獸漁業), 조개류를 잡는 것을 채패업(採貝業),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채조업(採藻業)이라고도 한다.

16) 수산업법에 제2조에 의하면 이외 어업과 관련된 용어로 ‘어업권’, ‘입어’, ‘입어자’, ‘어업인’, ‘어업종사자’, ‘바닷가’, ‘어구’ 등이 있다.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어(入漁)’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입어자(入漁者)’란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을 모두 ‘어업인’이라고 한다.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 (2) 어장(漁場)의 근거지에 따른 분류 :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역을 어장이라 하는데 크게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과 해양어업(海洋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내수면어업은 내수면, 즉 육지에 있는 수면에서 하는 어업으로, 하천·수로·저수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해양어업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으로서, 보통 연안어업(沿岸漁業)·근해어업(近海漁業)·원양어업(遠洋漁業)으로 나눈다. 연안어업이란 근거리나 육지로부터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어업이다. 원양어업은 수십 일이 걸리는 먼 바다에서 하는 어업이며, 그 중간 정도의 곳에서 하는 어업을 근해어업이라 한다. 이 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또 항해·운용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구분은 1986년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안어업 :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② 근해어업 : 총톤수 8t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③ 원양어업 :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해외수역이라 하며,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이다. 또 원양어업은 영해(領海) 안에서 하는 경우와 공해(公海)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영해어업, 후자를 공해어업이라 한다. 영해어업은 연안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공해어업은 자유이지만 공해상에서도 일방적으로 연안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 exclusive economic zone) 또는 어업수역(fishery zone)이라고 하여 다른 나라 어선이 자유롭게 어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 (3) 근거지에 따른 분류 : 원양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기지에서 어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어선이 이 사이를 왕복하는 데 시간적 손실이 클 경우, 외국에 기지를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수가 있다. 한국에서는 태평양·인도양·대서양 등에서 하는 다랑어(참치)주낙어업과 선망어업, 대서양에서 하는 트롤어업 등이 이런 예인데, 이와 같은 어업을 국내기지어업(國內基地漁業)이라 한다. 예를 들면, 북양트롤어업은 어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양어업에 속하지만, 기지는 국내기지어업에 속한다.
- (4) 대상물과 어법에 따른 분류 :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와 어법을 알면 그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결합시켜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거기에 어장을 덧붙여서, 가령 태평양 다랑어주낙어업, 대서양 문어트롤어업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 (5) 경영형태에 따른 분류 : 어업을 경영하는 모체가 노동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에 따라 비자본가적 어업(非資本家的漁業)과 자본가적 어업(資本家的漁業)으로 나

늘 수 있다. 비자본가적 어업이란 노동의 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업을, 자본가적 어업이란 자본의 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한다. 대규모 어업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 (6) 면허·허가 제도상의 분류 : 어업은 경제행위이므로 상호 경쟁이 심하고, 또 대상물인 생물자원을 영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잡도록 해야 하므로 어업관리상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을 크게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로 나누고 있다. 면허어업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어업이며,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전용하여 어업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하는 어업을 말한다. 공동어업·정치어업·양식어업 등이 이에 속한다. 허가어업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근해어업·원양어업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신고어업은 어업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감찰을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소규모 어업이다. 각 제도별 어업형태는 아래와 같다. 면허어업에는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어류 양식어업 등이 해당된다. 허가어업은 연근해 어선어업과 육상 양식, 육상종묘 생산어업이 해당된다. 신고어업은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그리고 투망어업이 해당된다. 어업총조사의 어업분류체계는 수산업법의 어업분류체계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어가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6-1> 제도별 어업형태

제도상 분류	어업형태	비고
면허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양식어업
허가어업	8톤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8톤 미만의 근해어업(기선저인망어업, 트롤어업 등), 육상양식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어선어업
신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맨손어업

2. 어업총조사의 의의 및 한계

우리나라 어업총조사는 1970년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1990년까지 UN/FAO의 권장에 의해 매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1995년은 간이어업총사를 실하는 해이지만 어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특별히 제4차 어업총조사를 실시하였다. 어업총조사는 그동안 농림부가 주관해지만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동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0년 어업총조사부터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며, 2005년 어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총조사 주기를 5년을 단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조사 실시 1년 전 1개월 이상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등 어업을 경영한 사업체(개인, 회사, 공동, 단체기관) 등이다. 어가란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 중 1개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 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어가인구는 호적이나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2005년 12월 1일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했던 사람을 말하며 고용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어업과 관련되면 포함한다.

<표 6-2> 연차별 어업총조사의 개요

연차	연도	조사기관	조사내용	특 징
1차	1970	농림부	사업체, 어업경영(종류, 종사자, 종사일수 등), 어가(가구원, 어가)	해면어업 조사만 실시
2차	1980	농림부	사업체(경영조직, 어업종류, 어업규모, 어업활동 및 어업 경영상황), 어가(어가, 가구원)	내수면어업, 수산연관시설 추가 조사
3차	1990	농수산부	경영조직(개인, 회사, 공동, 단체기관), 어업종류, 어선, 양식장, 어업활동, 어가, 어가인구	시·군·구 어업관련 부서에서 실시
4차	1995	해양수산부	경영체의 구조, 어업의 형태 및 종류, 양식장 시설, 어업활동 및 경영상황, 어가, 어가인구	지방농수산통계조직을 통해 조사 실시
5차	2000	통계청	가구, 가구원, 어로어업, 양식어업, 판매현황, 어선, 정보화, 생활여건, 주거, 기타(생산조직 참여 등)	통계청에서 농업총조사와 함께 실시. 농어가의 정보현황, 생산조직 참여현황 항목 추가
6차	2005	통계청	가구, 가구원, 어로어업, 양식어업, 판매현황, 어선, 정보화, 생활여건, 주거, 기타	농업, 임업, 어업 총조사 통합 실시. 어가인구의 특성, 신규취업가구 파악을 위한 혼인상태, 경영주의 어업종사기간 항목 추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해당부서에서 조사해 오던 어업총조사는 2000년부터 통계청이 주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어업총조사는 임업총조사와 함께 조사되었다. 이는 어업 관련 데이터 수집의 일관성과 농업과 임업은 물론 도시 근로자들의 경제활동과 상호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05년 어업총조사는 조사대상과 지표가 이전의 조사대상 및 지표와 차이가 있고 어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 어업총조사의 대상이 어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촌계(마을) 단위의 마을어업(공동경영)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1995년 어업총조사까지 회사경영체와 공동경영체 등을 포함한 어업경영상황이 조사되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지표에서 누락되었다. 어민들이 가장 쉽게 어업활동을 하는 형태가 신고어업인 맨손어업이다. 조간대에서 낙지를 잡고, 해조류를 뜯고, 굴을 까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해조류나 패류 등 양식어업의 경우도 공동경영의 대상이 마을어장을 마을공동체의 규약에 의해 분배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마을공동체(어촌계)의 지선어장의 범위, 면허현황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을공동어장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업현황이 조사되어야 한다.

II. 어업형태 변화

1. 전·겸업별 어업형태

전업어가란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어가를 말한다. 겸업어가란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를 말한다. 이중 어업 수입이 어업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1종 겸업어가', 어업이외의 수입이 어업 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어가'로 구분한다. 어가는 1990년 121,525가구에서 2005년 79,942가구로 감소했고, 겸업어가 비중이 전업어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업의 경우 1990년 23.1%에서 2000년 36.4%, 2005년 31.7%를 차지했고 겸업은 1990년 76.9%에서 2005년에는 68.3%로 비중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어업비중이 높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지역이 겸업의 비중이 높았다.

<표 6-3> 전·겸업별 어가의 변화 : 1990~2005

년도	어가		전업		겸업					
					계		1종 겸업		2종 겸업	
1990	121,525	100.0	28,051	23.1	93,474	76.9	55,510	59.4	37,964	40.6
1995	104,480	100.0	26,016	24.9	78,464	75.1	48,455	61.8	30,009	38.2
2000	81,571	100.0	29,699	36.4	51,872	63.6	29,266	56.4	22,639	33.6
2005	79,942	100.0	25,342	31.7	54,600	68.3	28,410	52.0	26,910	48.0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6-4> 전·겸업별 어가의 변화 : 2005

년도	어가		전업		겸업					
					계		1종 겸업		2종 겸업	
총 어 가	79,942	100.0	25,342	31.7	54,600	68.3	28,410	52.0	26,910	48.0
서울특별시	6	0	2	25.0	4	75.0	4	100.0	-	-
부산광역시	3,216	4.0	1,387	43.1	1,829	56.9	1,134	62.0	695	48.0
대구광역시	3	0	2	667	1	33.4	1	100.0	-	-
인천광역시	3,320	4.0	1,035	31.2	2,285	68.8	1,115	48.8	1,170	51.2
광주광역시	13	0.01	3	23.1	10	76.9	4	40.0	6	60.0
울산광역시	1,137	1.4	395	34.7	742	65.3	441	59.4	301	40.6
경 기 도	1,295	1.6	359	27.7	936	72.3	386	41.2	550	58.8
강 원 도	4,221	5.3	2,380	56.4	1,841	43.6	1,237	67.2	604	32.8
충 청 남 도	10,505	13.1	2,182	20.8	8,323	79.2	3,594	43.2	4,729	56.8
전 라 북 도	3,695	1.7	1,609	43.5	2,086	56.4	1,081	51.8	1,005	48.2
전 라 남 도	25,489	31.9	7,425	29.1	18,064	70.9	9,937	55.0	8,127	45.0
경 상 북 도	5,517	6.9	2,572	46.6	2,945	53.4	2,101	71.3	844	28.7
경 상 남 도	14,827	18.5	4,526	30.5	10,301	69.5	5,897	57.2	4,422	42.8
제 주 도	6,698	8.4	1,465	21.9	5,233	78.1	1,496	28.6	3,737	71.4

자료 : 2005년 어업총조사.

전·겸업별 어업형태를 보면, 어선어업은 전업의 비중이, 나잠어어업과 맨손어업은 겸업의 비중이 높다. 2005년 어업총조사에서 어선어업은 전업의 비중이 40.9%,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은 겸업의 비중이 80%, 84.3%였다. 특히 겸업비중이 높은 어업의 경우는 2종 겸업의 비중이 높았다.

<표 6-5> 전·겸업별 어업형태 : 2005

년도	총어가		양식어가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 가	79,942	100.0	21,606	100.0	39,218	100.0	5,678	100.0	13,150	100.0	320	100.0
전 업	25,342	31.7	6,071	28.1	16,023	40.9	1,136	20.0	2,065	15.7	47	14.7

년도	총어가		양식어가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검 업	54,600	68.3	15,535	71.9	23,195	59.1	4,512	80.0	11,085	84.3	273	85.3
1종 검업	28,410	52.0	8,296	53.4	15,850	40.4	1,275	28.3	2,897	26.1	92	33.7
2종 검업	26,190	48.0	7,239	46.6	7,345	59.6	3,237	71.7	8,188	73.9	181	66.3

자료 : 2005년 어업총조사.

2. 경영주 어업종사분야의 변화

어가의 형태를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 7만9천여 호의 어가를 어업형태별로 정리하면, 어선어업이 49.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양식어업으로 27.0%, 맨손어업 16.4%, 나잠어업 7.1%, 기타 어로어업 0.4%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양식어가는 1990년 40.6%에서 2005년 27.0% 비중이 감소했고, 어선어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표 6-6> 경영주의 어업형태의 변화 : 1990~2005

년도	총어가		양식어가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1990	121,525	100.0	49,391	40.6	45,858	37.7	8,967	7.4	17,309*	14.2	-	-
1995	104,480	100.0	33,918	32.5	42,772	40.9	8,456	8.1	19,384*	18.6	-	-
2000	81,571	100.0	22,225	27.2	41,527	50.9	6,054	7.4	-	-	11,765**	14.4
2005	79,942	100.0	21,606	27.0	39,218	49.0	5,648	7.1	13,150	16.4	320	0.4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자연산 포획 및 채취어가

** 2000년 기타어업의 어가는 맨손어업을 포함한 어가임.

어업종사기간별로 살펴보면, 가구주의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중 6개월 이상인 가구는 어선어업 가구가 71.5%로 가장 많고, 다음은 양식어업이 52.1%, 나잠어업 46.0% 순이었다. 1~3개월로 단기간 어업에 종사한 경우는 맨손어업이 34.8%로 가장 높았다. 호미, 조새, 삼(가래)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맨손어업은 어종에 따라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간이 매우 짧다. 하지만 어선어업처럼 그물을 바꿔가며 철따라 다른 어종을 잡을 수 있는 경우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표 6-7> 어업종사기간별 어업형태 : 2005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1~3개월	5,541	25.6	3,215	8.2	1,169	20.7	4,582	34.8	118	36.9
3~6개월	4,818	23.3	7,975	20.3	1,880	33.3	3,916	29.8	87	27.2
6개월 이상	11,247	52.1	28,028	71.5	2,599	46.0	4,652	35.4	115	35.9
합 계	21,606	100.0	39,218	100.0	5,648	100.0	13,150	100.0	320	100.0

자료 : 2005년 어업총조사

지역별로는 양식어업은 전라남도·경상남도·충청남도, 맨손어업은 충청남도·전라남도, 어선어업은 전라남도·경상남도, 나잠어업은 제주도에서 많았다. 전라남도의 경우 양식어업의 52.7%를, 맨손어업의 27.4%, 어선어업의 26.1%를 차지했다. 충청남도는 맨손어업의 27.4%, 양식어업의 18.2%를 경상남도는 어선어업의 23.7%를, 제주도는 나잠어업의 65%를 차지했다.

<표 6-8> 지역별 어업형태 : 2005

	양식어업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총 어가	21,606	100.0	39,218	100.0	5,648	100.0	13,150	100.0	320	100.0
서울특별시	2	0	4	0.01	-	-	-	-	-	-
부산광역시	502	2.3	2,278	5.8	408	7.2	28	0.2	-	-
대구광역시	1	0	2	0	-	-	-	-	-	-
인천광역시	93	0.4	1,145	2.9	2	0.03	2,025	15.4	55	17.2
광주광역시	12	0.05	1	0	-	-	-	-	-	-
울산광역시	127	0.6	671	1.7	325	5.8	13	0	1	0.3
경기도	179	0.8	627	1.6	1	0	474	3.6	14	4.4
강원도	39	0.2	4,001	10.2	149	2.6	27	0.2	5	1.6
충청남도	3,937	18.2	2,887	7.4	54	0.9	3,607	27.4	20	6.3
전라북도	598	2.8	1,642	4.2	3	0.05	1,421	10.8	31	9.7
전라남도	11,395	52.7	10,253	26.1	92	1.6	3,604	27.4	145	45.3
경상북도	309	1.4	4,346	11.1	638	11.3	213	0.2	11	3.4
경상남도	4,048	18.7	9,283	23.7	216	3.9	1,253	9.5	177	55.3
제주도	364	1.7	2,078	5.3	3,670	65.0	485	3.7	11	3.4

자료 : 2005 어업총조사

3. 성별·연령별 어업형태

성별로는 남자들은 어선어업종사자가 많은 반면에 여성들은 맨손어업과 양식어업의 비중이 높았다. 어업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어선어업은 남자가 58.0%, 여자가 28.9%로 남자가 19.1%포인트 높고, 나잠어업은 여자 10.6%, 남자 0.3%로 여자가 10.3% 높았다. 맨손어업의 경우도 여자 23.8%, 남자 12.3%로 여자가 11.5%포인트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맨손어업은 어장에서 바지락, 고막, 백합, 굴 등을 채취거나 조간대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어업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맡고 있다. 나잠어업은 잠수들이 물질을 해 소라와 전복 등을 채취하는 어업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맡고 있다. 반면에 양식어업은 해조류, 패류, 어류(가두리)양식 등으로 가족노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함께 여성들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9> 성별 어업종사원 : 2005

	계		남		녀	
	어업종사원	%	어업종사원	%	어업종사원	%
어업종사가구원	130,589	100.0	70,307	100.0	60,282	100.0
양식어업	41,631	31.9	20,282	28.8	21,349	35.4
어선어업	58,257	44.6	40,812	58.0	17,445	28.9
나잠어업	6,574	5.0	214	0.3	6,360	10.6
맨손어업	22,950	17.6	8,616	12.3	14,334	23.8
기타 어로어업	1,177	0.9	383	0.5	794	1.3

자료 : 2005년 어업총조사

연령별로 어선어업은 40~50대, 양식어업 50~60대, 맨손어업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나잠어업은 60~70대의 비중이 높았다.

<표 6-10> 경영주의 연령별 어업종사분야 : 2005

년도	총어가		양식어가		어선어업		나잠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로어업	
	총어가	0.03	9	0.04	21	0.05	-	-	-	-	-	-
20~24	30	0.03	9	0.04	21	0.05	-	-	-	-	-	-
25~29	262	0.3	94	0.4	131	0.3	-	-	37	0	-	-
30~34	1,102	1.3	387	1.8	590	1.5	7	0.1	115	0.9	3	0.9
35~39	2,753	3.4	793	3.7	1,649	4.2	25	0.4	280	2.1	6	1.9
40~44	6,293	7.9	1,559	7.2	3,964	10.1	140	2.5	599	4.6	31	9.7
45~49	10,694	13.3	2,548	11.8	6,686	17.0	395	7.0	1,031	7.8	34	10.6
50~54	11,785	14.7	2,792	12.9	6,973	17.8	697	12.3	1,287	9.8	36	11.3
55~59	13,448	16.8	3,405	15.8	7,216	18.4	1,000	17.7	1,830	13.9	37	11.6
60~64	12,155	15.2	3,355	15.5	5,329	13.6	1,170	20.7	2,251	17.1	50	15.6
65~69	11,509	14.4	3,356	15.5	4,290	10.9	1,192	21.1	2,609	19.8	62	19.4
70~74	6,572	8.2	2,135	9.9	1,793	4.6	700	12.4	1,906	14.5	38	11.9
75~79	2,532	3.2	878	4.1	483	1.2	267	4.7	887	6.7		175.3
80 이상	757	0.1	295	1.4	93	0.2	55	1.0	318	2.4		61.9
계	79,942	100.0	21,606	100.0	39,218	100.0	5,648	100.0	13,150	100.0	320	100.0

자료 : 2005 어업총조사

Ⅲ. 잡는 어업의 변화

잡는 어업은 어로방법과 어업장소를 기준으로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나잠어업, 마을어업 등으로 구분한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지선어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어업과 나잠어업, 배를 이용해 가까운 바다로 나가 어로활동을 하는 연안어업과 아주 먼 바다(해외 포함)에 나가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이 있다. 근해어업은 연안어업과 원양어업 중간 해역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을 말한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구별하기가 어려우므로 두 어업을 총칭하여 흔히 연근해어업이라고도 한다. 연근해어업을 항해일수를 기준으로, 혹은 행정절차에 따라 구분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산행정상 기선선망어업(機船旋網漁業)·기선저인망어업(機船底引網漁業)·안강망어업(鮫鰵網漁業)·트롤어업·유자망어업(流刺網漁業)·근해통발어업 등을 포함해서 근해어업이라 한다.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점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권리를 가진 연안지선을 면허, 허가, 신고 등의 형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권을 얻어야 한다. 나잠어업은 잠녀들이 물질을 하는 어업을, 마을어업은 마을공동어장에서 어촌계원이나 성원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표 6-11> 지역별 어업형태 : 2005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맨손어업		기타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총 어 가	4,329	100.0	45,400	100.0	1,918	100.0	21,771	100.0	8,838	100.0
서울특별시	1	0.02	3	0	-	-	-	-	2	0
부산광역시	264	6.1	2,546	5.6	3	0.2	50	0.2	531	6.0
대구광역시	3	0.06	-	-	-	-	-	-	-	-
인천광역시	121	2.8	1,292	2.8	32	1.7	2,314	10.6	155	1.7
광주광역시	2	0.02	-	-	-	-	1	0	-	-
울산광역시	98	2.3	945	2.1	13	0.7	23	0.1	497	5.6
경 기 도	26	0.6	743	1.6	7	0.4	858	3.9	72	0.8
강 원 도	1,051	24.3	3,645	8.0	37	1.9	83	0.4	243	2.7
충 청 남 도	192	4.4	4,308	9.5	103	5.4	5,256	24.1	283	3.2
전 라 북 도	137	3.2	2,163	4.7	126	6.5	2,084	9.6	168	1.9
전 라 남 도	327	7.6	11,800	26.0	1,150	59.9	6,425	29.5	1,062	12.0
경 상 북 도	1,288	29.7	4,363	9.6	178	9.3	452	2.1	1,020	11.5
경 상 남 도	526	12.2	11,541	25.4	255	13.3	2,122	9.7	724	8.2
제 주 도	293	6.8	2,051	4.5	14	0.7	2,105	9.7	4,101	46.4

자료 : 2005 어업총조사

1. 근해어업

잡는 어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조류, 유속, 수온, 조간대의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해역은 크게 동해, 서해, 남해, 제주해역으로 나누며, 경우에 따라 동남해, 서남해를 추가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방위와 해역을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어업형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근해어업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동해해역에서 발달했다. 반면에 연안어업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등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맨손어업은 갯벌과 조간대 어업이 발달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조류, 조간대의 성격, 갯벌생태, 수온 등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표 6-12> 어로방법의 변화 - 근해어업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근해어업 어가	4,461	100.0	6,142	100.0	4,523	100.0	3,911	100.0
대형기선저인망	199	4.5	163	2.6	69	1.5	91	2.3
중형기선저인망	167*	3.7	881	19.7	91	2.0	116	2.9
기선선인망	-	-	-	-	49	1.1	60	1.8
근해봉수망	-	-	-	-	2	0.04	5	0.1
근해선망	39	0.9	127	2.1	51	1.1	69	1.7
근해안강망	556	12.5	379	6.2	360	7.9	196	5.8
근해연승	-	-	734	12.1	471	10.4	340	10.0
근해자망	-	-	843	13.7	472	10.4	509	15.0
근해채낚기	2,945	66.0	2,151	35.0	2,074	45.9	1,885	48.2
근해외줄낚기	491	11.0	-	-	-	-	-	-
근해통발	-	-	736	12.0	350	7.7	395	10.1
근해트롤	64	1.4	60	0.9	114	2.5	75	2.2
근해형망	-	-	68	1.1	58	1.3	130	3.8
잠수기	-	-	-	-	365	7.9	458	13.5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근해어업은 2000년 전후로 조사지표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해어업의 경향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작성한 표이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동해해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근해어업은 근해채낚기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은 근해 연해자망, 근해연승 순이었다. 2005년 근해어업 총 3,911가구 중 근해채낚기가 48.2%로 가장 많고, 다음은 근해자망 15.0%, 잠수기 13.5% 근해통발 10.1% 근해연승 10.0%, 근해 안강망 5.8% 순이었다. 근해채낚기는 오징어잡이 등이 대표적인 어업이다.

2. 연안어업

연안어업은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안복합은 2000년부터 연안어업의 조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연안복합어업은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

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구체적으로 낚시어업, 문어단지어업, 패류껍질어업(패류껍질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주꾸미잡이 등), 패류미끼망어업, 손꽂치어업 등이다. 2005년 총 45,400가구 중 연안복합어업이 43.3%로 가장 많고, 연안자망 27.1 %, 연안통발 20.0%이었다. 연안연승, 연안형망 등 1990년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어법들은 2000년대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 6-13> 어로방법의 변화- 연안어업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연안어업어가	31,732	100.0	57,928	100.0	36,001	100.0	45,400	100.0
연안(개량)안강망	1,391	4.3	1,344	4.2	774	2.1	680	1.5
연안들망	-	-	-	-	240	0.7	492	1.1
연안복합어업	-	-	-	-	16,320	45.3	19,882	43.8
연안선망	130	0.4	217	0.7	348	0.9	538	1.2
연안선인망	-	-	-	-	162	0.4	188	0.4
연안자망	18,606	58.6	14,069	44.3	9,142	25.4	12,302	27.1
연안조망	52	0.2	537	1.7	382	1.1	718	1.6
연안형망	1,152*	3.6	548	1.7	-	-	-	-
분기초망, 부망	536	1.7	576	1.8	-	-	-	-
기선권형망	108	0.3	99	0.3	-	-	-	-
연안채낚기	9,757	30.7	11,354	35.8	-	-	-	-
연안연승	-	-	12,926	40.7	-	-	-	-
연안통발	-	-	13,772	43.4	6,940	19.3	9,077	20.0
정 치 망	-	-	2,486	7.8	1,693	4.7	1,523	3.4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기선형망(1103)+범선형망(49)

3. 구획·맨손어업

또 다른 잡는 어업은 구획어업과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등이 있다.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이를 허가하는 어업을 말한다. 반면에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투망어업 등은 허가어업이다. 구획어업은 정치성과 이동성으로 나뉜다.

<표 6-14> 어로방법의 변화 - 구획어업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구획어업 가구	1,393	100.0	1,918	100.0
정치성 구획	1,055	75.7	1,464	76.3
이동성 구획	338	24.3	454	23.7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맨손어업은 어망을 이용하지 않고 수산 동·식물을 직접 손으로 또는 간단한 도구로 잡거나, 훈련된 동물(개, 수달, 가마우지 등)로써 잡는 것을 말한다. 사용하는 도구는 대체로 그 크기가 작으며 오히려 잡은 어획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주머니나 양동이 등이 사용하는 도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표 6-15> 기타 - 신고어업(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 2005

어업형태	가구수
맨손어업	21,771
나잠어업	6,742
투망어업	219
기 타	1,867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IV. 기르는 어업의 변화

1. 양식품종의 변화

양식어업은 어류양식, 갑각류양식, 패류양식, 해조류양식, 기타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어업을 주로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일제강점기 해태(김)와 굴 양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후 해조류 양식과 패류 양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김, 굴, 바지락 등을 수심이 깊지 않는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양식하였다. 1980년대 종묘생산, 인공포자와 양식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고, 1990년대 후반부터 전복 등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

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5년 양식어가 41,342가구 중, 패류양식이 57.1%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해조류양식이 26.9%, 어류양식이 10.0%, 기타 수산동물 3.1%, 종묘생산 1.9%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각 조사년도 별로 비교해보면 해조류양식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어류양식은 약간 증가했다. 해조류양식은 1990년 47.3%에서 2005년 26.9%로 감소했다. 어류양식은 1990년 0.9%에서 2005년 10.1%로 증가했다. 패류양식은 1990년 49.4%에서 2005년 57.1%로 약간 증가했다.

<표 6-16> 어업형태의 변화-양식어업

	1990		1995		2000		2005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양식어가	94,704	100.0	68,491	100.0	39,307	100.0	41,342	100.0
어류양식	912	0.9	4,431	6.5	4,514	11.5	4,157	10.1
갑각류양식	19*	0.02	145	0.2	189	0.5	351	0.8
패류양식	46,744	49.4	39,214	57.3	19,815	50.4	23,616	57.1
해 조 류	44,818	47.3	21,384	54.4	13,250	33.7	11,140	26.9
종묘생산			1,863	2.7	772	1.9	791	1.9
기타 수산동물	2,211	2.3	1,454	2.1	767	1.9	1,287	3.1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새우양식어가로 1990년 어업총조사에 기타 수산동물로 분류되었음.

2005년 어업총조사에 의하면, 어류양식어가 중 조피볼락 양식이 47.5%로 가장 많으며, 돔류 26.2%, 넙치류 18.5%, 송어류 7.9% 순으로 분포했다. 2005년 패류양식어가 중 바지락류 양식이 32.1%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굴류 30.3%, 전복류 17.8%, 고막류 8.3%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굴양식은 감소하는 반면에 전복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류의 경우에는 2000년 조사 통계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005년에는 17.8%로 조사되었다.

<표 6-17> 양식품종의 변화 - 어류양식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어류양식어가	912	100.0	4,431	100.0	4,514	100.0	3,683	100.0
넙 치 류	240	26.3	1,421	32.1	772	21.8	680	18.5
조피볼락	184	20.2	1,899	42.8	2,363	69.0	1,749	47.5
돔 류	81	8.9	248	5.6	558	2.2	964	26.2
송 어 류	-	-	-	-	-	-	290	7.9
농 어	83	9.1	-	-	65	2.1	-	-
방 어	99	10.8	161	3.6	77	0.2	-	-
기 타	225	24.7	702	18.8	340	4.6	474	12.9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6-18> 양식품종의 변화 - 패류양식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패류양식어가	46,774	100.0	39,214	100.0	19,815	100.0	23,616	100.0
굴 류	17,269	36.9	15,501	39.5	9,140	46.1	7,161	30.3
홍 합 류	783	1.7	993	2.5	535	2.7	628	2.6
피조개류	2,938	6.3	2,660	6.8	675	3.4	806	3.4
전 복 류	734	1.6	-	-	-	-	4,214	17.8
바지락류	14,578	31.2	12,716	32.4	5,897	29.8	7,571	32.1
고 막 류	7,179*	15.4	5,537	14.1	1,779	8.9	1,953	8.3
가무락류	1,442	3.1	-	-	-	-	397	1.7
동 죽	-	-	28	0.07	-	-	-	-
가 리 비	-	-	205	0.5	60	0.3	-	-
기 타	1,821	3.9	1,574	4.0	1,729	8.7	886	3.7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새고막 2610 포함.

해조류의 양식어가는 1990년 44,818가구에서 1995년 21,384가구, 2000년 13,250가구 2005년에는 11,140가구로 감소했다. 특히 김 양식은 1990년 29,441가구 65.7%에서 2005년 3,503가구 31.4%로 많이 감소했다. 2005년의 경우 전체 해조류 양식어가 중 31.4%가 김 양식을, 31.7%가 미역양식, 22.7%가 다시마 양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역과 다시마 양식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전복양식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이들 해조류는 전복의 먹이로 이용되기 때문에 겨울이나 이른 봄 말린 미역과 다시마를 전복의 먹이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조류 양식 중 2005년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매생이와 파래양식이다. 이들 해조류 양식은 청정한 폐쇄형 및 반폐쇄형의 고흥, 완도, 해남, 장흥, 신안, 무안 등 서남해역지역에서만 양식되고 있다.

<표 6-19> 양식품종의 변화 - 해조류양식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해조류양식어가	44,818	100.0	21,384	100.0	13,250	100.0	11,140	100.0
김	29,441	65.7	11,291	52.8	5,628	42.5	3,503	31.4
미역	1,904	4.2	5,087	23.8	3,713	28.0	3,536	31.7
다시마류	824	1.8	1,101	5.1	1,803	13.6	2,530	22.7
툫	4,119	9.2	3,335	15.6	-	-	922	8.3
매생이	-	-	-	-	-	-	202	1.8
파래	500	1.1	-	-	-	-	160	1.4
기타	30	0.06	570	2.7	419	3.2	287	2.6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 양식방법의 변화

양식방법은 조류와 수심, 양식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어류양식의 경우 가두리와 축제식, 수조식, 뗏목식을, 해조류 양식은 지주식, 부류식, 패류양식의 경우는 투석식, 살포식, 연승식 등이 있다. 2005년 양식어가 중 30.9%는 연승식을, 27.6%는 살포식을, 12.1%는 가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승식은 꽃게, 장어, 낙지, 문어 등 각종 통발에 많이 이용된다. 살포식은 바지락, 석화 양식에, 가두리는 어류양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2000년과 비교할 때 가두리 양식과 살포식 양식이 증가한 반면에 부류식과 지주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류식과 지주식은 주로 김 양식 등 해조류 양식에 해당

되는 양식방법으로 해조류양식이 침체되고 전복이나 어류 등 가두리 양식과 바지락 등 패류양식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6-20> 양식방법의 변화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양식어가	28,704	100.0	28,148	100.0
가 두 리	2,458	8.6	3,459	12.1
축 제 식	240	0.8	245	0.8
수 조 식	852	2.9	1,027	3.6
연 승 식	8,218	28.6	8,704	30.9
멧 목 식	84	0.3	7	0.02
투 석 식	2,898	10.1	2,725	9.7
살 포 식	5,595	19.5	7,761	27.6
지 주 식	2,762	9.6	1,222	4.3
부 류 식	4,384	15.3	2,368	8.4
기 타	1,213	4.2	666	2.3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3. 양식규모의 변화

양식어가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2005년의 경우 0.3ha 미만의 양식어장을 보유한 어가가 24.8ha, 10ha 이상은 5.6%, 0.5~10ha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표 6-21> 양식규모의 변화 : 1990~2005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양식어가	59,515	100.0	43,718	100.0	31,402	100.0	27,184	100.0
0.1ha 미만	2,350	3.9	2,135	4.9	5,776	20.1	2,127	7.6
0.1~0.3	6,469	10.9	6,973	15.9			4,855	17.2
0.3~0.5	6,339	10.6	4,532	10.4			3,543	12.3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0.5~1.0	11,226	18.8	8,376	19.1	5,486	19.1	4,730	15.5
1.0~1.5	9,387	15.8	5,051	11.6	3,356	11.7	3,477	12.4
1.5~3.0	13,404	22.5	7,307	16.7	4,061	13.9	4,214	14.5
3.0~6.0	7,630	12.8	5,740	13.1	6,301	21.9	3,220	11.4
6.0~10.0	1,560	2.6	1,997	4.6	1,373	4.8	1,444	5.1
10.0~15.0	636	1.1	932	2.1	873	3.0	773	2.7
15.0~20.0	196	0.3	252	0.6	344	1.2	327	1.7
20.0~25.0	112	0.2	145	0.3	144	0.5	138	0.5
25.0~30.0	43	0.07	50	0.1	64	0.2	66	0.2
30ha 이상	163	0.3	228	0.5	81	0.3	137	0.5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V. 어선어업의 변화

1. 어선보유형태

어선어업은 자기소유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어선어업은 대부분 허가어업이며, 어선의 규모, 어선운영의 목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¹⁷⁾

어가 중 어선이 없는 어가는 1990년 42.9%, 1995년 45.8%, 2000년 40.4%, 2005년 41.9%였다. 어선이 있는 어가들은 무동력선과 동력선으로 나뉜다. 무동력선의 비율은 매년 감소한 반면에 동력선의 비율은 약간 증가했다. 동력어선의 보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어선 감소에 비해서 어가의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어선보유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와 한중·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정책 때문이다. 근해어업의 경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635척을 감척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30%를 감척할 계획이다. 2005년 82,921어가 중

17) 일반적으로 총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 무동력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선은 시·도지사, 무동력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어선이 없는 어가는 40.4%,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59.6%였다.

<표 6-22> 어선어업 어가의 변화 : 1990~2005

년도	총어가		어선 없는 어가		무동력선		동력선	
	어가	%	어가	%	어가	%	어가	%
1990	121,525	100.0	52,077	42.9	6,331	5.2	63,117	51.9
1995	104,480	100.0	47,864	45.8	3,289	3.1	53,327	51.0
2000	82,921	100.0	32,685	40.4	3,051	3.7	47,184	56.9
2005	81,059	100.0	33,967	41.9	1,826	2.3	45,266	55.8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한 가구에 복수의 어선을 갖는 경우도 있음.

2005년 어업총조사 어가 중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43.6%이며 2000년과 큰 차이가 없다. 어선보유 어가 중 어선규모별로는 2톤 미만의 50%를 상회하며, 1톤 미만도 21.9%에 이른다. 부부나 가족노동으로 조업이 가능한 2~5톤 규모는 30.8%,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5톤 이상의 어선 15%대로 나타났다.

<표 6-23> 지역별 동력선 보유어가 : 1990~2005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 국	63,117	100.0	53,327	100.0	52,914	100.0	52,048	100.0
서울특별시	-	-	-	-	-	-	10	0.01
부산광역시	3,471	5.5	3,497	6.6	3,357	6.3	2,996	5.7
대구광역시	-	-	-	-	3	0	5	0
인천광역시	770	1.2	1,146	2.1	1,417	2.7	1,291	2.5
광주광역시	-	-	-	-	-	-	8	0.01
울산광역시	-	-	-	-	731	1.4	723	1.4
경 기 도	1,462	2.3	631	1.2	640	1.2	666	1.3
강 원 도	2,591	4.1	2,680	5.0	2,654	5.0	2,754	5.3
충 청 남 도	3,645	5.8	3,235	6.1	3,571	6.7	3,842	7.4
전 라 북 도	2,573	4.1	2,092	3.9	2,532	4.8	2,502	4.8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라남도	29,470	46.7	22,833	42.8	20,150	38.1	19,408	37.3
경상북도	3,271	5.2	3,220	6.0	3,189	6.0	3,193	6.1
경상남도	14,202	22.5	12,116	22.7	12,717	24.0	12,712	24.4
제주도	1,662	2.6	1,877	3.5	1,953	3.7	1,938	3.7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6-24> 지역별 무동력선 보유어가 : 1990~2005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국	6,331	100.0	3,289	100.0	3,394	100.0	2,126	100.0
서울특별시	-	-	-	-	-	-	1	0.04
부산광역시	408	6.4	359	10.9	-	-	132	6.2
대구광역시	-	-	-	-	-	-	-	-
인천광역시	29	0.5	52	1.6	30	0.9	55	2.6
광주광역시	-	-	-	-	-	-	-	-
울산광역시	-	-	-	-	27	0.8	17	0.8
경기도	297	4.7	62	1.9	28	0.8	16	0.7
강원도	339	5.3	91	2.7	30	0.9	28	1.3
충청남도	500	7.9	198	6.0	87	2.6	35	1.6
전라북도	185	2.9	87	2.6	87	2.6	79	3.7
전라남도	2,379	37.6	915	27.8	1,498	44.1	1,085	51.0
경상북도	433	6.8	223	6.8	184	5.4	71	3.3
경상남도	1,687	26.6	1,280	38.9	1,143	33.7	609	28.6
제주도	74	1.2	22	0.7	12	0.4	8	0.4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1990년 어업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무동력선의 크게 감소하였다. 당시 무동력선의 분포를 보면 5톤 이상의 큰 규모의 어선이 전라남도에 113척, 경기도 25척, 전라북도 9척, 경상남도에 5척이 분포했다. 2~5톤 규모의 어선도 전라북도 52척, 경기도 27척, 전라남

도 26척, 경상남도 20척이었다. 하지만 1995년에는 2톤 이상의 무동력선은 전혀 없다. 당시 무동력선의 종류에 대한 조사가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큰 규모의 무동력선은 새우잡이를 하는 해선망으로 추정된다. 새우잡이를 비롯한 무동력선은 1990년대 정부의 폐선정책으로 많이 사라졌다.

2. 어선 규모

규모별 어선보유어가는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보유어가가 줄어드는 반면에 2톤에서 10톤 크기의 어선 보유어가의 비율이 증가했다. 1990년 2톤 미만의 어선보유어가는 64.4%였지만 2005년 같은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24.7%로 감소했다. 반면에 5~10톤 규모의 어선을 보유한 어가는 1990년 5.6%에서 2005년 28.5%로 크게 증가했다. 10~20톤의 연근해 어업을 하는 어선을 보유한 어가의 경우는 1990년 2.1%에서 2005년 10.3%로 증가했다.

<표 6-25> 규모별 어선 보유어가 : 1990~2005

	1990		199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체	63,117	100.0	53,327	100.0	52,914	100.0	52,048	100.0
2톤 미만	40,635	64.4	30,176	56.6	30,219	57.1	12,890	24.7
2~5	15,500	24.5	15,448	28.9	15,584	29.4	16,863	32.4
5~10	3,556	5.6	4,672	8.7	4,750	8.9	14,869	28.5
10~20	1,324	2.1	1,062	2.0	889	1.7	5,364	10.3
20~50	1,015	1.6	1,008	1.9	824	1.5	835	1.6
50~100	840	1.3	588	1.1	574	1.1	467	0.9
100 이상	247	0.4	373	0.7	74	0.1	91	0.2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어선규모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선의 숫자는 전남 16,606척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11,013척, 충남 3,295척, 부산 2,543척 순이었다. 2톤 미만의 어선의 비중이 울산 67.3%, 부산 63.5%, 전남 59.5% 순이며, 인천은 26.8%, 제주는 17.2%이었다. 5~10톤 규모는 제주도가 31.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천이 35.0% 순이었다.

<표 6-26> 지역별 톤수별 동력어선 : 200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동력선어가	4	2,543	2	1,165	6	680	553	2,619	3,295	1,953	16,606	2,966	11,013	1,861
1톤 미만	-	24.7	-	10.0	16.7	25.0	16.3	14.7	19.1	13.0	26.2	20.9	22.7	6.8
1~2	0.25	38.8	-	16.8	33.3	42.3	28.7	22.0	26.6	36.5	33.3	21.7	31.4	10.4
2~5	-	23.5	-	30.9	33.3	16.2	27.1	39.8	18.5	21.9	28.7	13.2	35.4	40.2
5~10	-	7.1	-	35.0	-	10.3	20.4	14.0	21.1	22.1	8.8	15.8	6.7	31.9
10~20	0.25	1.0	50	3.8	-	2.2	6.5	2.8	3.0	4.8	1.2	4.0	1.7	2.2
20~30	-	1.4	-	0.8	16.7	1.2	0.2	3.1	1.4	0.8	0.3	2.8	0.5	5.1
30~50	-	0.5	-	0.4	-	1.2	0.5	1.1	0.2	0.2	0.3	0.7	0.3	0.5
50~100	0.25	1.2	-	1.8	-	1.5	0.2	2.1	0.2	0.6	0.5	1.7	0.6	0.8
100톤 이상	0.25	1.8	50.0	0.4	-	0.1	-	0.4	0.03	0.2	0.1	0.1	0.5	0.05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VI. 생산조직의 변화

1. 생산조직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생산조직은 수협, 영어법인, 어촌계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조직된 ‘어민 및 수산업 가공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한 상부상조단체’다. 수산업협동조합에는 현재 72개의 지구별 조합과 20개의 업종별 조합, 2개의 수산물가공조합이 있다. 지구별이란 목포, 군산, 통영 등 지역별로, 업종별은 굴수하식, 안강망, 통발, 잠수기 어업형태로 조직된 조합이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이 협동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어가(漁家)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아래에 있는 조직은 전국에 1969개가 조직되어 있다. 어업활동을 하는 어가들은 대부분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다. 즉 수협조합원에 가입하고 마을어촌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마을공동어장의 입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협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어가들 중 마을공동체(어촌계)에서 관행어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조상대대로 마을공동어장에서 패류나 해조류를 채취해 온 경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관행어업이라고 한다.

<표 6-27> 생산조직 참여여가의 변화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계		81,571	100.0	79,942	100.0
참여여부	불참여가	23,591	28.9	21,547	26.9
	참여여가	57,980	71.1	58,396	73.0
참여형태	업종별 수협	2,212	2.7	2,670	4.6
	지구별 수협	20,189	24.7	17,702	30.3
	영어조합법인	547	0.7	449	0.9
	일반회사법인	248	0.3	43	0.07
	어촌계	51,237	62.8	52,163	89.3
	기타	690	0.8	977	1.7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005년 조사를 정리하면 생산조직에 참여하는 가구는 70.1%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가는 29.1%였다. 생산조직에 참여하는 어가 중 어촌계가 7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지구별 수협 23.9%, 업종별 수협 3.6%였다. 2000년과 비교할 때 생산조직에 참여하는 어가의 비율은 약간 증가했다. 생산조직별로는 어촌계의 비율만 증가하고, 일반법인회사, 영어조합법인, 지구별·업종별 조합 모두 작은 비율로 감소했다.

<표 6-28> 지역별 생산조직 참여율 : 2005

	총어가		참여여가		참여하지 않는 어가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국	79,942	100.0	58,395	100.0	21,547	100.0
서울특별시	6	0	4	0	2	0
부산광역시	3,216	4.0	2,727	4.7	489	2.3
대구광역시	3	0	2	0	1	0
인천광역시	3,320	4.2	2,117	3.6	1,203	5.6
광주광역시	13	0.01	5	0	8	0.03
울산광역시	1,137	1.4	849	1.5	288	1.3
경기도	1,295	1.6	1,084	1.8	211	1.0

	총어가		참여어가		참여하지 않는 어가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강 원 도	4,221	5.3	2,472	4.2	1,749	8.1
충 청 남 도	10,505	13.1	6,225	10.7	4,280	19.9
전 라 북 도	3,695	4.6	2,179	3.7	1,516	7.0
전 라 남 도	25,489	31.9	19,068	32.6	6,421	29.8
경 상 북 도	5,517	6.9	3,845	6.6	1,672	7.7
경 상 남 도	14,827	18.5	11,859	20.3	2,968	13.8
제 주 도	6,698	8.4	5,959	1.2	739	3.4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6-29> 지역별 생산조직 참여유형 : 2005

	총어가		업종별수협		지구별수협		영어조합법인		일반회사법인		어촌계		기타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 국	58,395		2,670		17,702		449		43		52,163		997	
서울특별시	4		1		2		-		-		1		-	
부산광역시	2,727		96		784		4		3		2,282		44	
대구광역시	2		-		1		-		-		-		4	
인천광역시	2,117		44		200		6		1		1,946		56	
광주광역시	5		-		1		-		-		4		-	
울산광역시	849		34		239		5		-		780		18	
경 기 도	1,084		21		115		97		1		976		3	
강 원 도	2,472		195		901		18		-		1,954		97	
충 청 남 도	6,225		162		1,119		76		8		2,279		78	
전 라 북 도	2,179		229		973		22		4		1,773		53	
전 라 남 도	19,068		595		4,219		144		11		17,652		260	
경 상 북 도	3,845		208		1,148		16		4		3,388		106	
경 상 남 도	11,859		898		4,631		44		7		10,608		136	
제 주 도	5,959		187		3,369		17		4		5,220		125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 유통구조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은 대부분 수협이나 어민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접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 유통시장이 대형화되면서 대형유통업체가 저가의 자사브랜드 상품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에도 지형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수산물 수입에 직접 나서다가 하면 국내 유명 수산물을 산지에서 생산·관리·유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05년 유통구조를 보면, 어가의 43.1%가 생산한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유통하였다. 나머지 26.8% 수집상, 17.6% 소비자 직접판매, 5.9% 도매시장 순이었다.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수협, 도매시장, 수집상을 통한 유통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수협은 50.6%에서 43.1%로, 도매시장은 9.1%에서 5.9%로, 수집상은 31.2%에서 26.8%로 감소했지만 직접판매는 1.9%에서 17.6%로 증가했다. 이러한 직접판매의 증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어업총조사의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 즉 직접 어민들이 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아니면 도매나 수집상을 거치지 않고 유통업체에 넘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통시장이 대형화되면서 유통업체가 수산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30> 유통구조의 변화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계	75,292	100.0	78,967	100.0
수 협	38,118	50.6	34,061	43.1
도매시장	6,876	9.1	4,722	5.9
수 집 상	23,459	31.2	21,158	26.8
음 식 점	2,055	2.7	2,216	2.8
가공공장	2,447	3.3	2,468	3.1
양 식 장	852	1.1	396	0.5
소비자 직접판매	1,485	1.9	13,946	17.6
기 타	6,018	7.9	636	0.8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005년 어업총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어로어업 수집상과 음식점 비율이, 양식어업은 수집상과 도매시장 비율이 높았다. 활어나 선어를 공급하는 어가는 생산시기와 양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고 상품의 특성상 어획하는 대로 유통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집상이나 음식점을 선호하지만 양식어업은 수집상이나 도매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따라 잡히는 전어, 낙지, 오징어나 돔 등 활어 등은 대부분 수집상이나 음식점에 의해서 유통된다. 양식 바지락, 양식우럭과 양식광어 등은 수집상이나 도매시장에 공급된다.

<표 6-31> 어업형태별 유통현황 : 2005

	어로어업		양식어업		총합	
	가구	%	가구	%	가구	%
도매시장	279	7.74	342	9.49	621	17.23
수 집 상	1,108	30.74	385	10.68	1,493	41.43
음 식 점	404	11.21	178	4.94	582	16.15
양 식 장	7	0.19	58	1.61	65	1.8
자기매장	281	7.8	107	2.97	388	10.77
기 타	300	8.32	155	4.3	455	12.62
총 합	2,379	66.01	1,225	33.99	3,604	100

자료 : 2005 어업총조사 원자료.

<표 6-32> 지역별 유통형태 : 2005

	계		수협		도매상		수집상		음식점		가공공장		양식장		직접판매		기타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전 국	79,603		34,061		4,722		21,158		2,216		2,468		396		13,946		636	
서울특별시	6		2		-		2		1		-		1		-		-	
부산광역시	3,255		985		255		821		299		25		155		683		32	
대구광역시	3		2		-		1		-		-		-		-		-	
인천광역시	3,314		885		105		925		79		4		5		1,280		31	
광주광역시	12		4		3		1		-		2		-		2		-	
울산광역시	1,137		484		102		217		85		2		1		240		6	
경 기 도	1,294		495		54		409		42		99		5		179		11	
강 원 도	4,216		3,703		50		131		73		37		7		200		15	

	계		수협		도매상		수집상		음식점		가공공장		양식장		직접판매		기타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충청남도	10,497		1,702		267		5,170		258		162		37		2,838		63	
전라북도	3,693		701		359		1,865		82		179		9		469		29	
전라남도	25,287		8,002		2,717		7,416		389		1,315		138		5,123		187	
경상북도	5,510		3,640		140		813		92		147		8		644		26	
경상남도	14,731		8,061		545		2,671		716		487		53		2,027		171	
제주도	6,650		5,395		125		716		100		9		17		261		27	

자료 : 2005 어업총조사 원자료.

3. 상품형태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저장 및 보관이 쉽지 않으며, 유통기간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생산된 수산물은 대부분 상품으로 유통된다. 수산물 생산어가의 99% 이상이 2000년과 2005년 모두 생산한 수산물을 상품으로 판매했다. 판매되는 상품의 형태를 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판매어가 79,603가구 중 37.4%가 활어, 37.3%는 패류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해조류 7.5%, 선어 7.1%, 가공품 5.6%, 갑각류 2.2% 순으로 분포되었다. 즉 어가들이 상품으로 판매하는 수산물 품목의 74% 이상이 활어와 패류였다.

<표 6-33> 상품형태의 변화 : 2000~2005

	2000		2005	
	가구수	%	가구수	%
어 가	8,1571	100.0	79,942	100.0
판 매 없 음	268	0.3	339	0.4
판 매	81,303	99.7	79,603	99.6
활 어	32,128	39.5	29,733	37.4
선 어	9,579	11.8	5,627	7.1
가 공 품	6,896	8.5	4,482	5.6
해 조 류	-		5,971	7.5
패 류	-		29,687	37.3
갑 각 류	-		1,752	2.2
기 타	32,703	40.2	2,351	2.9

자료 : 어업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제7장 임업구조의 변화

I. 임업구조의 개념과 변화

1. 임업구조의 개념

임업은 산림의 육성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적 활동이다. 광의로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육성한 임산물을 생산·수확하는 육성임업과, 천연적으로 생육한 임산물을 채취·수확하는 채취임업이 다 같이 존재한다. 또한 국토보전, 수원함양, 자연환경보전, 보건휴양 증진 등 사회적·환경적으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동시에 얻게 된다.

협의로는 임업이 다른 농업이나 타 산업분야와 달리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행위로서 생산기간이 매우 길고, 투자가 장기간 소요되어 자본의 회전성이 매우 느리다. 또한 소규모 영세임가 구조로 인해 목재, 버섯, 수실, 산채, 약초 등 산림투자의 주된 대상이 되는 임산물의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대외개방이라는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UR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을 배경으로 임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임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2년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임업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전국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구조 등 임업구조를 개선하여 산림소유자의 자율경영능력과 소득을 증진시킴으로써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와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7년 『임업진흥촉진법』이 제정되어 임업구조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2001년에는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임업의 구조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의 소유구조개선은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사유림의 소유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산림의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구조개선은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임업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겸업임업·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유통구조개선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 및 산촌진흥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임업총조사에 의한 임업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에서 임업총조사는 1999년 처음 실시되었다. 임업총조사는 산림청의 주관 하에 임업정책 수립 및 국가경제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 임업의 기본구조를 파악할 목적으로 전국의 임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표와 조사방법 및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조사의 기본설계를 담당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5년 임업총조사는 임가 및 임가 인구의 규모와 분포, 임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임업총조사 업무는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농업총조사와 통합하여 농림업총조사로 변경되어 조사주기를 과거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였다.

2005년의 조사와 1999년의 조사가 단순히 조사기관의 이관에만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표본추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9년의 임업총조사에서는 조사기준 현재 산림 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으로 하였다. 2005년에는 농림총조사 결과 확보된 농림가 중에서 1999년의 임가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가구를 추출하여 임가로 규정해서 통계표를 작성한 것이다. 또 2005년도 조사에서는 1999년의 임업총조사에서 정부기관, 산림조합 등 준임가를 제외하고, 종실류 보유(본수, 면적)에 의한 임가 편입, 임업종사일수에 의한 임가 편입 항목 등을 제외하였다.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1999년 조사항목 중 주관성이 강하다고 인정되어 임가로 볼 수 없는 조사항목으로 향후 경영계획, 경영예정기간, 가계총소득 및 부채, 휴양림 경영, 영림단 운영, 야생조수사육, 문화용품 등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005년 총조사에서는 임가를 전업·겸업으로 구분하고 경영주의 임업종사경력 및 혼인형태, 임업경영형태, 거쳐형태, PC 활용여부와 용도 및 홈페이지 개설 여부 등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임가 인구의 특성 및 임가의 실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 농림업총조사에서는 1999년에는 분류하지 않았던 전업임가¹⁸⁾와 겸업임가¹⁹⁾(1종 겸업임가, 2종 겸업임가)로 임가를 세분한 것 등에서 차이가 있다.

18) 전업 임가라 함은 지난 1년간 임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임가를 말함.

19) 겸업 임가라 함은 지난 1년간 임업 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임가를 말하며, 1종 겸업임가는 임업수입이 임업 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임가를, 2종 겸업임가는 임업 이외 수입이 임업수입보다 많은 임가를 말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두 시점의 비교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조사내용의 차이를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표 7-1> 임업총조사(1999)와 농림업총조사(2005)의 차이

	이관 전 (1999)	이관 후 (2005)
1.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정책대상으로서의 임업인과 관련업종 현황 파악 • 임업경영실태파악 등 임업진흥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 및 임가 인구의 규모와 분포, 임업의 경영구조 및 특성 파악
2. 조사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번호 : 13621호(1999.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1차 개정 (2005. 7. 21) • 승인번호 : 10163호(2004. 2. 27)
3. 조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4.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11. 8~11. 17(10일간) 준비조사기간 2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2. 12~2. 28(17일간) 준비조사기간 2일 포함
5.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2월 1일 현재 규모 이상의 임업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3ha(약 9,000평)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 1998년 1년간 벌목 실적이 있는 가구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 관상수업자에 등록 한 가구 • 유실수를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는 가구 • 야생조수를 사육 하는 가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물 1마리 이상 - 중동물 3마리 이상 - 소동물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12월 1일 현재 임가 정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임업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정부기관, 산림조합 등 준임가 제외) • 준임가 제외
6.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사항(7), 문화용품시설(6), 임업 경영(6), 임업생산(10) 총 29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사항(9), 정보화현황(4), 생활여건(2), 주거환경(4), 임업경영(5), 임업생산(6) 총 30개 항목
7.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8. 조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 산림청 임업정책과 • 실시기관 : 특·광역시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실시기관 : 특·광역시 및 시·군·구

	이관 전 (1999)	이관 후 (2005)
9. 자료처리	• 외주 입력	• web방식을 이용한 자료 현지 입력 및 내검 프로그램 개발
10. 결과공표	• 잠정결과 공표 : 2000년 3월 • 확정결과 공표 : 2000년 12월	• 잠정결과 공표 : 2006년 4월 • 확정결과 공표 : 2006년 11월
11. 결과표	• 총 80종 총 임 가 : 2 개인임가 : 70개 준 임 가 : 8개	• 개인임가 : 47개
12. 보고서	• 전국편 : 1, 지역편 : 3	• 전국편 : 1, 지역편 : 5, cd, 보고서 1
13. 조사인력	• 조사요원 : 1,170명	• 조사요원 : 15천명(농업, 어업공동) (조사원 : 13천명, 총조사관리자 등 2천명) • 지도공무원 : 2천명(통계청 및 지자체공무원)
14. 소요예산	• 7억원	• 179억원
15. 조사표 설계	• A3 시트형	• 조사원 및 응답자 친화적인 조사표 설계(글자크기·글씨체·색상 보완, A4책자형) • 농가조사표 통합

II. 임업경영실태

1. 산림소유 규모와 경영형태

전국의 개인임가는 1999년에 66,300가구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 46%(30,808가구)가 증가한 97,108가구이었다. 업종별로 2005년 총조사에서는 사육업, 경영업을 제외한 5개였다. 주요 업종은 재배업, 채취업, 육림업 등이다.

업종별 임가는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재배업이 90%(87,643가구)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육림업이 2%(1,929가구)에 불과하다. 1999년에는 재배업이 68.6%(45,468가구)로 가장 높고, 육림업이 22%(14,568가구), 채취업이 6%(4,241가구)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임가의 변화는 재배업의 증가와 육림업의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생산성 등으로 목재생산을 위주로 한 육림업은 위축되고 반면에 단기소득 임산물을 채취, 재배하는 임가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전·겸업별 임가에서 2005년에는 겸업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고, 전업이 8.2%에 불

<표 7-2> 전·겸업별 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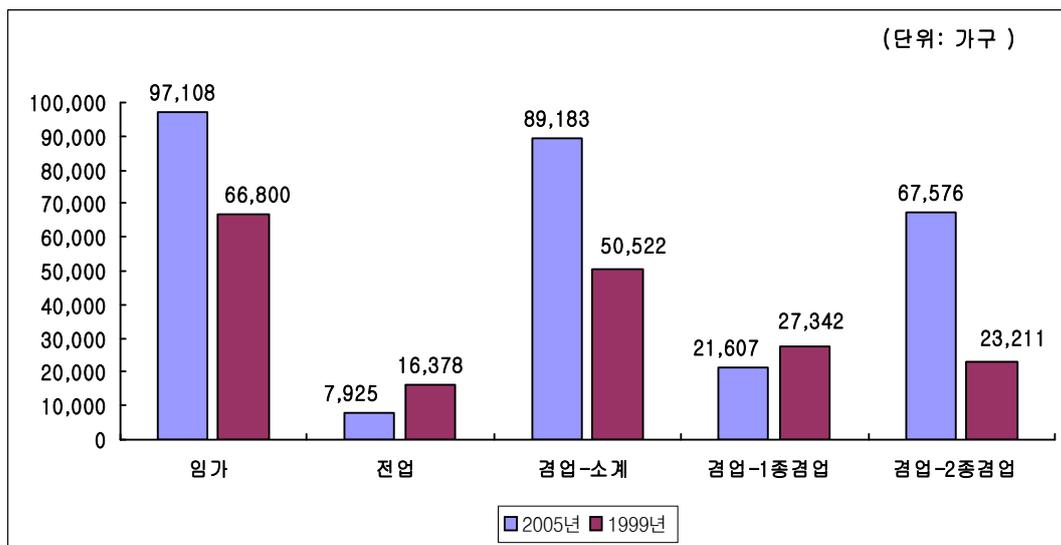
특성별 (전국)	전·겸업별 임가(2005)				
	임가	전업	겸업-소계	겸업-1종 겸업	겸업-2종 겸업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계	97,108	7,925	89,183	21,607	67,576
(%)	100	8.2	91.8	24.2	75.8
육림업	1,929	92	1,837	85	1,752
(%)	2.0	4.8	95.2	4.6	95.4
벌목업	126	22	104	47	57
(%)	0.1	17.5	82.5	45.2	54.8
채취업	6,883	376	6,507	1,998	4,509
(%)	7.1	5.5	94.5	30.7	69.3
양묘업	527	63	464	101	363
(%)	0.5	12.0	88.0	21.8	78.2
재배업	87,643	7,372	80,271	19,376	60,895
(%)	90.3	8.4	91.6	24.1	75.9

특성별 (전국)	전·겸업별 임가(1999)				
	임가	전업	겸업-소계	겸업-1종 겸업	겸업-2종 겸업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계	66,800	16,378	50,522	27,342	23,211
(%)	100	24.5	75.6	54.1	45.9
육림업	14,568	1,177	13,391	1,385	12,006
(%)	21.8	8.1	91.9	10.3	89.7
벌목업	943	208	735	548	187
(%)	1.4	22.1	77.9	74.6	25.4
채취업	4,241	440	3,801	2,934	867
(%)	6.3	10.4	89.6	77.2	22.8
양묘업	141	76	65	37	28
(%)	0.2	53.9	46.1	56.9	43.1
재배업	45,468	13,812	31,656	22,002	9,654
(%)	100	30.4	69.6	69.5	30.5
사육업	939	488	451	187	264
(%)	1.4	52.0	48.0	41.5	58.5

주 : 경영업은 1999년의 임업총조사에서 정부기관, 산림조합 등 준임가로 조사하였으나, 2005년 농림업총조사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영업을 하는 준임가를 제외함.

과하다. 1999년에 겸업이 75.6%로 높고, 전업이 24.4%로 낮았다. 겸업별 임가에서 2005년에는 2종 겸업이 75.8%로 높고, 1종 겸업이 24.2%로 낮았다.

1999년에 1종 겸업이 54.1%, 2종 겸업이 45.9%로 점하고, 겸업별 임가의 변화는 2종 겸업의 증가가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임지소유구조가 점차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부재산주가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림경영 의욕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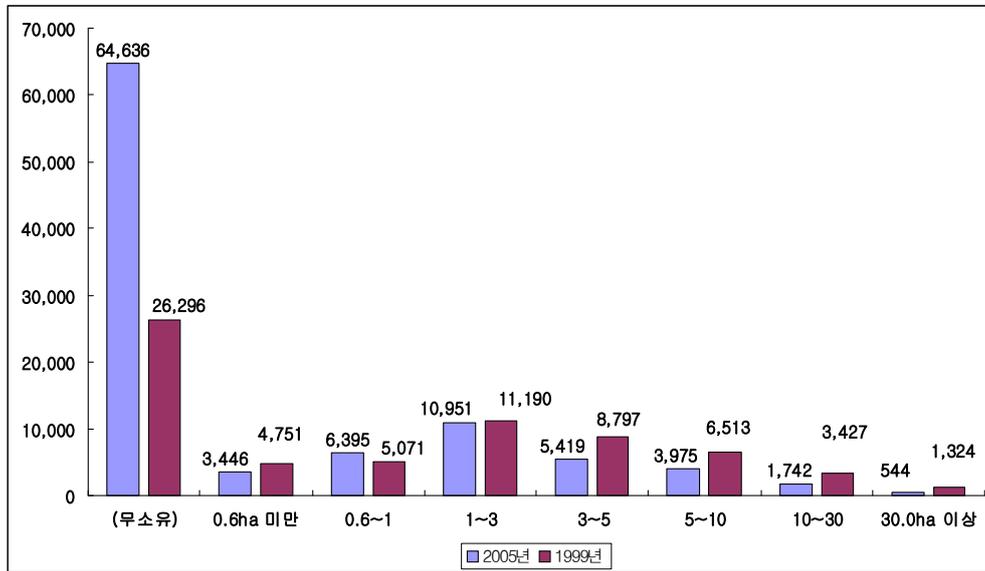
산림보유면적별 임가는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산림무소유 임가가 66.7%(64,636가구)로 높고, 산림보유임가는 33.4%(32,472가구)였다. 반면에 1999년에는 산림무소유 임가가 39%(26,296가구)이고 산림보유임가는 61%(41,073)였다. 위의 업종별 임가수에서 보듯이 채취와 재배업이 많은 것도 산림보유임가가 감소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의 변화는 산림무소유 임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산림보유임가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 변화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재배업에서도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의 변화 패턴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배업 임가에서 산림무소유 임가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해당 업종의 경영은 주로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배라기보다는 농업부문과 비슷한 형태로 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산림보유면적별 임가분포는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1~3ha 미만 33.7%, 1ha 미만 30.3% 등의 순으로 3ha 미만이 64%를 점하였다, 1999년에는 1~3ha 미만 27.2%, 1ha 미만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3ha 미만이 51.1%를 차지하였다. 산림보유면적별 임가의 계층변화는 상대적으로 영세화되어 산림소유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 산림면적은 148,183ha이고, 임가당 평균 1.5ha를 보유하고 있다. 업종별 임가 분포는 재배업이 66.1%로 가장 높고, 채취업 17.4%, 육림업 14.1% 등

의 순이다. 1999년에는 재배업이 67.9%로 가장 높고, 육림업이 22.1%, 채취업이 6.3% 등의 순이다. 업종별 임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육림업, 채취업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표 7-3> 산림보유면적별 임가 및 산림면적

특성별 (전국)	산림보유면적별 임가 및 산림면적(2005)										
	임가	산림면적 없음 (무소유)	산림보유면적 규모별 임가계								산림 면적 (ha)
			계	0.6ha 미만	0.6 ~1.0	1.0 ~3.0	3.0 ~5.0	5.0 ~10.0	10.0 ~30.0	30.0ha 이상	
계	97,108	64,636	32,472	3,446	6,395	10,951	5,419	3,975	1,742	544	148,183
(%)	100	66.6	33.4	10.6	19.7	33.7	16.7	12.2	5.4	1.7	
육림업	1,929	0	1,929	0	22	309	681	534	268	115	20,937
(%)	2.0	0.0	100	0.0	1.1	16.0	35.3	27.7	13.9	6.0	
벌목업	126	41	85	10	11	15	13	17	8	11	1,661
(%)	0.1	32.5	67.5	11.8	12.9	17.6	15.3	20.0	9.4	12.9	
채취업	6,883	3,337	3,546	213	382	935	668	779	448	121	25,745
(%)	7.1	48.5	51.5	6.0	10.8	26.4	18.8	22.0	12.6	3.4	
양묘업	527	266	261	55	36	64	34	32	27	13	1,965
(%)	0.5	50.5	49.5	21.1	13.8	24.5	13.0	12.3	10.3	5.0	
재배업	87,643	60,992	26,651	3,168	5,944	9,628	4,023	2,613	991	284	97,876
(%)	90.3	69.6	30.4	11.9	22.3	36.1	15.1	9.8	3.7	1.1	

특성별 (전국)	임가	무소유	산림보유면적 규모별 임가계(1999)								산림 면적 (ha)
			계	0.6 미만	0.6 ~1.0	1.0 ~3.0	3.0 ~5.0	5.0 ~10.0	10.0 ~30.0	30.0ha 이상	
계	67,369	26,296	41,073	4,751	5,071	11,190	8,797	6,513	3,427	1,324	
(%)	100	39.0	61.0	4.7	12.3	27.2	21.4	15.9	8.3	3.2	
육림업	14,869	758	14,111	507	401	2,107	4,638	3,529	2,057	872	
(%)	22.1	5.1	94.9	2.3	2.8	14.9	32.9	25.0	14.6	6.2	
벌목업	958	410	548	83	70	130	88	79	63	35	
(%)	1.4	42.8	57.2	5.1	12.8	23.7	16.1	14.4	11.5	6.4	
채취업	4,241	2,601	1,640	151	204	416	334	305	177	53	
(%)	6.3	61.3	38.7	2.8	12.4	25.4	20.4	18.6	10.8	3.2	
양묘업	177	95	82	23	7	18	9	16	6	3	
(%)	0.3	53.7	46.3	20.7	8.5	22.0	11.0	19.5	7.3	3.7	
재배업	45,766	21,354	24,412	3,879	4,349	8,460	3,695	2,565	1,113	351	
(%)	67.9	46.7	53.3	5.9	17.8	34.7	15.1	10.5	4.6	1.4	
사육업	947	739	208	53	36	57	24	17	11	10	
(%)	1.4	78.0	22.0	13.0	17.3	27.4	11.5	8.2	5.3	4.8	
경영업	411	339	72	55	4	2	9	2			
(%)	0.6	82.5	17.5	63.9	5.6	2.8	12.5	2.8	0.0	0.0	

나타났다. 육림업의 감소와 벌목업이 매우 낮은 이유는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임금의 단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왔기 때문에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임업노동력 자체가 감소, 고령화되어 건전한 산림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취업은 천연적으로 생육한 임산물을 채취하는 업종으로 기후조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경영형태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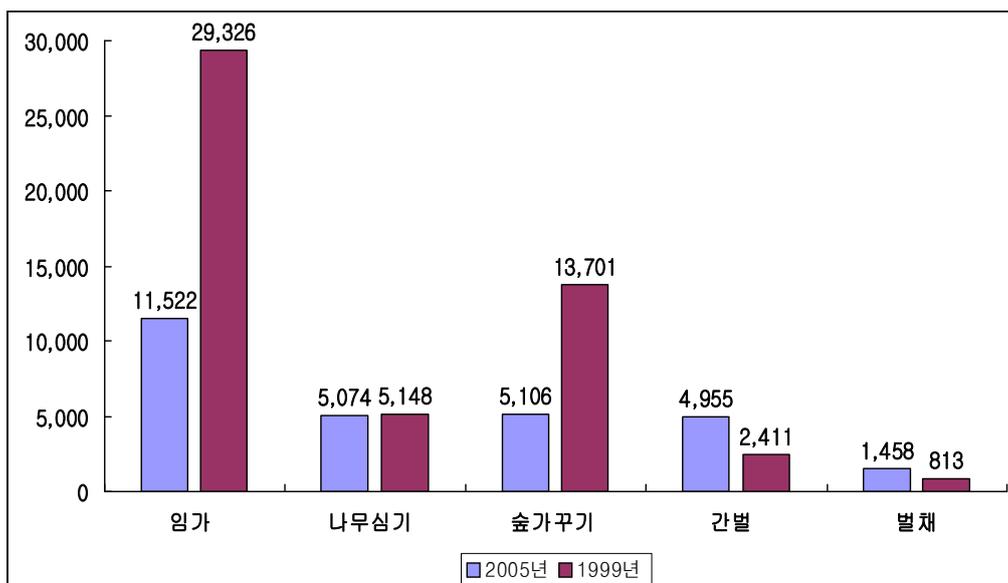
가. 육림

2005년의 조사에는 광역구분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함축된 항목으로 조사되었지만, 1999년에는 산림청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고, 2005년과 1999년과의 통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조림은 나무를 심기위해서 나무를 심을 자리를 잘 골라주고 나무를 심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2005년 조사에서는 ‘나무심기’라는 우리말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1999년에는 조림 예정지작업과 조림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숲가꾸기’에는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등이 포함되고, 숲아베기는 ‘간벌’을 이르는 용어이다. 이 외에도 1999년 조사에서는 임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충해 방제사업과 임도, 시비 등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생략되었다. 또한 2005년의 조사에서는 임가와 육림 작업별 임가의 합계가 다른 이유는 임가 중에서 육림작업을 실시한 복수응답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육림작업을 한 임가는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60.7%(11,522가구)가 감소한 11,522가구이고, 1999년에는 29,326가구였다. 육림작업을 한 임가의 차이는 1999년에는 산림을 소유하지 않은 임가 8.6%(2,518가구)도 육림작업을 시행하였으나 2005년에는 미소유 임가, 방제, 시비, 임도설치, 덩굴제거 등은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육림작업은 2005년 조사에서는 숲가꾸기 44.3%, 나무심기 44%, 숲아베기 43%로 각 육림작업이 비슷하게 실행되었으나, 1999년에는 숲가꾸기가 46.7%로 가장 많았다. 이는 1998년부터 시작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5년에는 2002년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었으며,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육림사업으로 배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산림보유면적규모별 임가 분포에서 육림작업은 2005년에는 1~3ha 사이의 임가가 30.5%, 3~5ha 사이의 임가가 21.1%, 1ha 이하가 19.9%, 5~10ha 사이의 임가가 16.8%의 순

이고, 10ha 이상의 임가가 11.7%이었다. 1~5ha 사이의 임가가 전체의 51.6%를 차지하였다. 1999년에는 3~5ha 사이의 임가가 25.2%, 5~10ha 사이의 임가가 20.1%, 1~3ha 사이의 임가가 19.9%의 순이고, 10ha 이상의 임가가 29.2%이었다. 1~5ha 사이의 임가가 전체의 45.1%를 차지하였다. 2005년은 1999년 대비 육림작업을 한 산림보유면적규모별 임가의 변화는 5ha 이하에서는 증가하고 10ha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별로는 숲아베기(간벌)와 벌채사업을 한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이 그 만큼 성숙하여 간벌기에 달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7-4> 육림작업별 임가

특성별 (전국)	육림 작업별 임가(2005)				
	임가	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	벌채
계	11,522	5,074	5,106	4,955	1,458
(%)	144.0	44.0	44.3	43.0	12.7
0.6ha 미만	773	437	305	219	62
(%)	132.3	56.5	39.5	28.3	8.0
0.6~1.0	1,520	725	744	528	142
(%)	140.7	47.7	48.9	34.7	9.3
1.0~3.0	3,509	1,642	1,644	1,372	360
(%)	143.0	46.8	46.9	39.1	10.3
3.0~5.0	2,435	987	1,019	1,086	337
(%)	140.8	40.5	41.8	44.6	13.8
5.0~10.0	1,935	768	796	994	294
(%)	147.4	39.7	41.1	51.4	15.2
10.0~30.0	967	358	403	523	158
(%)	149.1	37.0	41.7	54.1	16.3
30.0ha 이상	383	157	195	233	105
(%)	180.2	41.0	50.9	60.8	27.4

특성별 (전국)	육림 작업별 임가(1999)					
	임가	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	벌채	기타
계	29,326	5,148	13,701	2,411	813	7,253
(%)	100.0	17.6	46.7	8.2	2.8	24.7
무소유	2,518	349	1,113	220	87	749
(%)	8.6	13.9	44.2	8.7	3.5	29.7
0.6ha 미만	849	154	338	56	51	250
(%)	2.9	18.1	39.8	6.6	6.0	29.4
0.6~1.0	1,728	305	701	74	51	597
(%)	5.9	17.7	40.6	4.3	3.0	34.5
1.0~3.0	5,849	1,090	2,581	293	136	1,749
(%)	19.9	18.6	44.1	5.0	2.3	29.9
3.0~5.0	7,381	1,270	3,571	665	177	1,698
(%)	25.2	17.2	48.4	9.0	2.4	23.0
5.0~10.0	5,885	1,028	2,878	548	151	1,280
(%)	20.1	17.5	48.9	9.3	2.6	21.8
10.0~30.0	3,450	617	1,722	349	105	657
(%)	11.8	17.9	49.9	10.1	3.0	19.0
30.0ha 이상	1,666	335	797	206	55	273
(%)	5.7	20.1	47.8	12.4	3.3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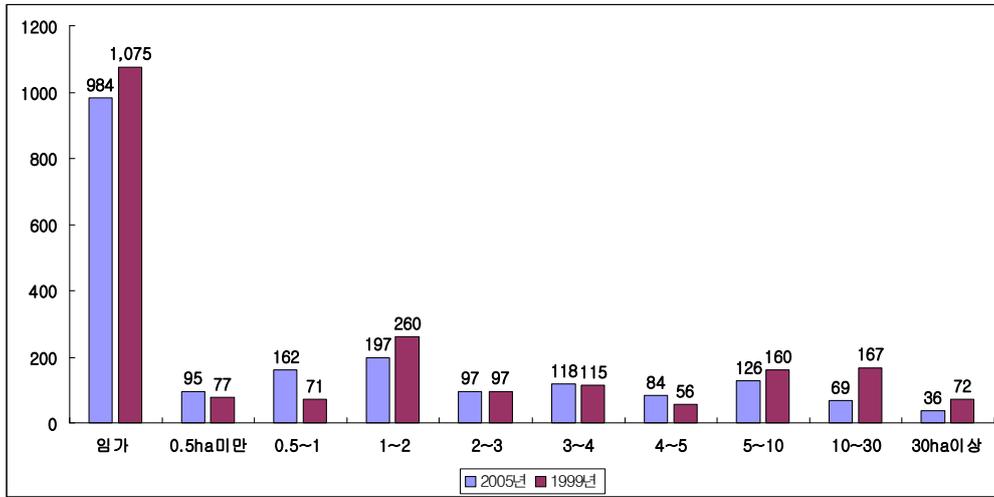
주 : 1) 나무심기(99)에는 조림예정지 작업, 조림이 합하여진 것임.

숲가꾸기(99)에는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와 천연림보육이 합쳐진 것임.

2) 2005년의 조사에서 임가와 육림 작업별 임가의 합계가 다른 이유는 임가 중에서 육림작업을 실시한 복수응답임.

나. 벌목

산림보유면적규모별로 벌목한 임가 분포에서 2005년에는 3~5ha 사이의 임가가 23.9%로 가장 높고, 5~10ha 사이의 임가가 22.5%, 10ha 이상의 임가가 21.1% 순이었다. 1999년에는 1ha 이하의 임가가 14.6%, 1~3ha 사이의 임가가 13.7%, 10ha 이상의 임가가 11.6% 순이었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산림보유면적 규모가 큰 임가일수록 벌목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5> 별목면적 규모별 임가 및 별목면적

특성별 (전국)	별목면적 규모별 임가 및 별목면적(2005)										별목 면적 (ha)
	임가	0.5ha 미만	0.5~1	1~2	2~3	3~4	4~5	5~10	10~30	30ha 이상	
계	984	95	162	197	97	118	84	126	69	36	6,504
(%)	100.0	9.7	16.5	20.0	9.9	12.0	8.5	12.8	7.0	3.7	
무소유	100	4	10	18	7	9	12	16	13	11	1,477
(%)	10.2	4.0	10.0	18.0	7.0	9.0	12.0	16.0	13.0	11.0	
0.6ha 미만	24	10	4	5	2	0	1	2	0	0	11
(%)	2.4	41.7	16.7	20.8	8.3	0.0	4.2	8.3	0.0	0.0	
0.6~1	32	7	9	2	2	2		4	5	1	198
(%)	3.3	21.9	28.1	6.3	6.3	6.3	0.0	12.5	15.6	3.1	
1~3	164	27	45	53	31		1	4	3		319
(%)	16.7	16.5	27.4	32.3	18.9	0.0	0.6	2.4	1.8	0.0	
3~5	235	22	44	53	26	54	29	4	2	1	656
(%)	23.9	9.4	18.7	22.6	11.1	23.0	12.3	1.7	0.9	0.4	
5~10	221	15	33	41	17	27	20	59	3	6	1,139
(%)	22.5	6.8	14.9	18.6	7.7	12.2	9.0	26.7	1.4	2.7	
10~30	127	6	12	19	4	17	14	29	25	1	1,012
(%)	12.9	4.7	9.4	15.0	3.1	13.4	11.0	22.8	19.7	0.8	
30ha 이상	81	4	5	6	8	9	7	8	18	16	1,661
(%)	8.2	4.9	6.2	7.4	9.9	11.1	8.6	9.9	22.2	19.8	

특성별 (전국)	임가	별채면적 규모별 임가 및 면적(1999년)									별채 면적 (ha)
		0.5ha 미만	0.5~1	1~2	2~3	3~4	4~5	5~10	10~30	30ha 이상	
계	1,075	77	71	260	97	115	56	160	167	72	12,460
(%)	100.0	7.2	6.6	24.2	9.0	10.7	5.2	14.9	15.5	6.7	
무소유	446	11	12	147	53	38	19	56	85	25	4,167
(%)	41.5	2.5	2.7	33.0	11.9	8.5	4.3	12.6	19.1	5.6	
0.6ha 미만	81	31	17	13	0	5	2	6	5	2	31
(%)	7.5	38.3	21.0	16.0	0.0	6.2	2.5	7.4	6.2	2.5	
0.6~1	76	10	23	26	3	3	1	5	3	2	31
(%)	7.1	13.2	30.3	34.2	3.9	3.9	1.3	6.6	3.9	2.6	
1~3	149	10	9	39	16	23	2	13	24	13	561
(%)	13.9	6.7	6.0	26.2	10.7	15.4	1.3	8.7	16.1	8.7	
3~5	99	7	5	12	7	23	13	19	8	5	295
(%)	9.2	7.1	5.1	12.1	7.1	23.2	13.1	19.2	8.1	5.1	
5~10	99	4	5	9	8	13	8	32	11	9	532
(%)	9.2	4.0	5.1	9.1	8.1	13.1	8.1	32.3	11.1	9.1	
10~30	75	3	0	12	8	7	9	15	12	9	707
(%)	7.0	4.0	0.0	16.0	10.7	9.3	12.0	20.0	16.0	12.0	
30ha 이상	50	1	0	2	2	3	2	14	19	7	382
(%)	4.7	2.0	0.0	4.0	4.0	6.0	4.0	28.0	38.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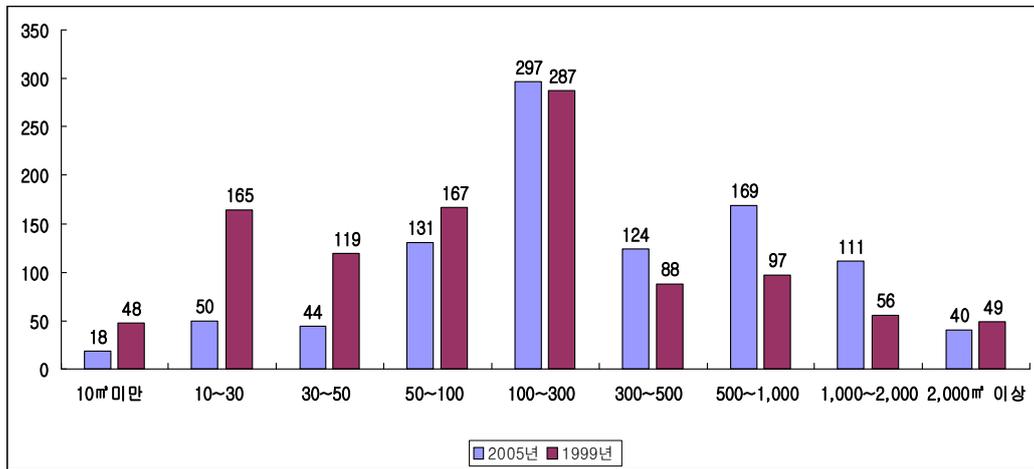
별목면적 규모별 임가 분포에서 2005년에는 1~3ha 사이의 임가가 29.9%로 가장 높고, 1ha 이하의 임가가 26.1%, 3~5ha 사이의 임가가 20.5%, 10ha 이상의 임가가 10.7% 순이었다. 1999년에는 1~3ha 이하의 임가가 33.2%, 3~5ha 사이의 임가가 15.9% 순이고, 10ha 이상의 임가가 22.2%이었다.

별목면적은 2005년에는 1999년도 대비 47.8%(5,956ha)가 감소한 6,504ha였다. 보유규모별 별목면적에서 5ha 이상은 2005년에 58.6%(3,812ha)이고, 1999년에는 23.4%(2,920ha)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해 산림보유면적이 큰 임가일 수록 별목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숲가꾸기 산물, 수종갱신 등 버려지는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펄프·보드용,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겸용 보일러 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벌목량 규모별 임가 분포에서 2005년에는 100~300m³ 사이의 임가가 30.2%, 500m³ 이상의 임가가 32.5%, 50m³ 이하의 임가가 11.4%이었다. 1999년에는 50m³ 이하의 임가가 30.9%, 100~300m³ 사이의 임가가 26.7%, 500m³ 이상의 임가가 18.8%이었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벌목량이 적은 임가가 감소하고, 벌목량이 많은 임가가 증가하고 있다.

벌목량은 2005년에는 1999년도 대비 16.7%(99,836m³)가 감소한 499,904m³이었다. 산림 보유 규모별 벌목량은 2005년에는 10ha 이상이 33.1%(165,478m³)로 가장 높고, 1~3ha 사이가 18.8%(94,182m³), 5~10ha 사이가 17%(85,105m³)의 순이다. 1999년에는 1~3ha 사이가 15.9%(95,190m³), 5~10ha 사이가 11.7%(70,227m³), 3~5ha 사이가 10.4%(62,225m³)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산림보유면적이 큰 임가일수록 벌목량이 높아지고 있다.



<표 7-6>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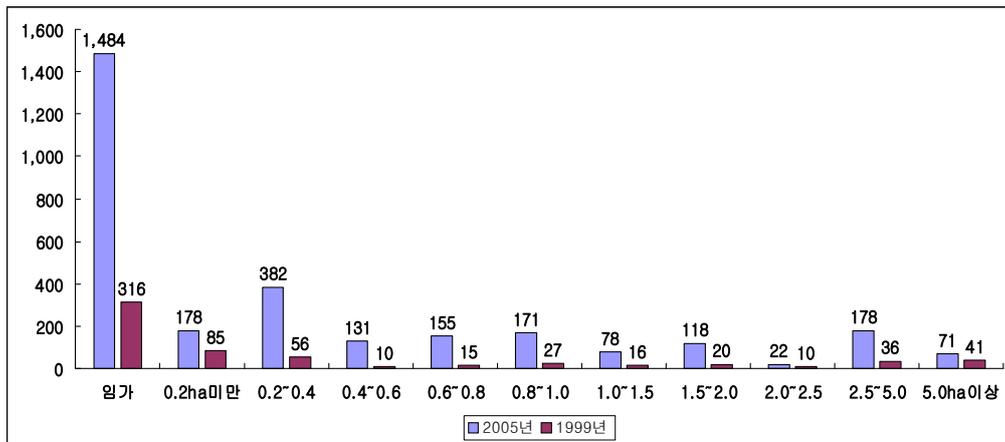
특성별 (전국)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2005)										벌목량 (m³)
	임가	10m³ 미만	10~30	30~50	50~100	100~300	300~500	500~1,000	1,000~2,000	2,000m³ 이상	
계	984	18	50	44	131	297	124	169	111	40	499,904
(%)	100.0	1.8	5.1	4.5	13.3	30.2	12.6	17.2	11.3	4.1	
1ha 미만	257	17	36	23	60	40	17	34	27	3	26,417
(%)	26.1	6.6	14.0	8.9	23.3	15.6	6.6	13.2	10.5	1.2	
1~2	197	1	9	12	46	70	18	16	21	4	70,057
(%)	20.0	0.5	4.6	6.1	23.4	35.5	9.1	8.1	10.7	2.0	
2~3	97		1	3	3	72	6	9	2	1	24,125
(%)	9.9	0.0	1.0	3.1	3.1	74.2	6.2	9.3	2.1	1.0	

특성별 (전국)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2005)										벌목량 (m)
	임가	10m ³ 미만	10 ~30	30 ~50	50 ~100	100 ~300	300 ~500	500 ~1,000	1,000 ~2,000	2,000m ³ 이상	
3~4	118		3	3	7	66	21	13	5		34,880
(%)	12.0	0.0	2.5	2.5	5.9	55.9	17.8	11.0	4.2	0.0	
4~5	84		1	1	9	22	28	12	7	4	41,917
(%)	8.5	0.0	1.2	1.2	10.7	26.2	33.3	14.3	8.3	4.8	
5~10	126				4	15	28	58	15	6	85,105
(%)	12.8	0.0	0.0	0.0	3.2	11.9	22.2	46.0	11.9	4.8	
10~30	69			2	2	10	5	21	27	2	58,645
(%)	7.0	0.0	0.0	2.9	2.9	14.5	7.2	30.4	39.1	2.9	
30ha 이상	36					2	1	6	7	20	106,833
(%)	3.7	0.0	0.0	0.0	0.0	5.6	2.8	16.7	19.4	55.6	

특성별 (전국)	벌목량 규모별 임가 및 벌목량(1999)										벌목량 (m)
	임가	10m ³ 미만	10 ~30	30 ~50	50 ~100	100 ~300	300 ~500	500 ~1,000	1,000 ~2,000	2,000m ³ 이상	
계	1,076	48	165	119	167	287	88	97	56	49	599,740
(%)	100.0	4.5	15.3	11.1	15.5	26.7	8.2	9.0	5.2	4.6	
1ha 미만	447	10	89	61	56	103	42	44	25	17	250,434
(%)	41.5	2.2	19.9	13.6	12.5	23.0	9.4	9.8	5.6	3.8	
1~2	162	15	38	30	36	25	1	3	8	6	1,453
(%)	15.1	9.3	23.5	18.5	22.2	15.4	0.6	1.9	4.9	3.7	
2~3	89	5	13	7	20	23	8	8	4	1	34,120
(%)	8.3	5.6	14.6	7.9	22.5	25.8	9.0	9.0	4.5	1.1	
3~4	57	5	6	1	12	17	2	9	2	3	61,070
(%)	5.3	8.8	10.5	1.8	21.1	29.8	3.5	15.8	3.5	5.3	
4~5	58	5	10	6	5	20	5	6	1		12,124
(%)	5.4	8.6	17.2	10.3	8.6	34.5	8.6	10.3	1.7	0.0	
5~10	41	2	4	2	5	15	6	2	2	3	50,101
(%)	3.8	4.9	9.8	4.9	12.2	36.6	14.6	4.9	4.9	7.3	
10~30	102	3	4	8	15	40	9	9	6	8	45,341
(%)	9.5	2.9	3.9	7.8	14.7	39.2	8.8	8.8	5.9	7.8	
30ha 이상	70	2	1	4	15	27	8	7	0	6	26,202
(%)	6.5	2.9	1.4	5.7	21.4	38.6	11.4	10.0	0.0	8.6	
30ha 이상	50	1	0	0	3	17	7	9	8	5	18,914
(%)	4.6	2.0	0.0	0.0	6.0	34.0	14.0	18.0	16.0	10.0	

다. 양묘

양묘임가는 2005년에는 1999년도 대비 3.7배(1,168가구)가 증가한 1,484가구이다.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분포는 2005년에는 1ha 이하가 68.5%(1,017가구)로 높았고, 1ha 이상이 31.5%(467가구)로 낮았다. 1999년에는 1ha 이하가 61%(193가구)로 높았고, 1ha 이상이 39%(123가구)로 낮았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1ha 이하의 비중이 높고, 1ha 이상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7>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및 묘포장면적

특성별 (전국)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및 묘포장면적(2005)											묘포장 면적 (ha)
	임가	0.2ha 미만	0.2 ~0.4	0.4 ~0.6	0.6 ~0.8	0.8 ~1.0	1.0 ~1.5	1.5 ~2.0	2.0 ~2.5	2.5 ~5.0	5.0ha 이상	
계	1,484	178	382	131	155	171	78	118	22	178	71	2,311
(%)	100.0	12.0	25.7	8.8	10.4	11.5	5.3	8.0	1.5	12.0	4.8	
육림업	78	2	19	2	5	9	2	13		17	9	235
(%)	5.3	2.6	24.4	2.6	6.4	11.5	2.6	16.7	0.0	21.8	11.5	
벌목업	8		1		1	1		1		1	3	54
(%)	0.5	0.0	12.5	0.0	12.5	12.5	0.0	12.5	0.0	12.5	37.5	
채취업	32		10		7	3		3	1	8		45
(%)	2.2	0.0	31.3	0.0	21.9	9.4	0.0	9.4	3.1	25.0	0.0	
양묘업	526	144	110	41	44	51	19	39	7	48	23	791
(%)	35.4	27.4	20.9	7.8	8.4	9.7	3.6	7.4	1.3	9.1	4.4	
재배업	840	32	242	88	98	107	57	62	14	104	36	1,186
(%)	56.6	3.8	28.8	10.5	11.7	12.7	6.8	7.4	1.7	12.4	4.3	

특성별 (전국)	묘포장면적 규모별 임가 및 묘포장면적(1999)											묘포장 면적 (ha)
	임가	0.2ha 미만	0.2 ~0.4	0.4 ~0.6	0.6 ~0.8	0.8 ~1.0	1.0 ~1.5	1.5 ~2.0	2.0 ~2.5	2.5 ~5.0	5.0ha 이상	
계	316	85	56	10	15	27	16	20	10	36	41	1,158
(%)	100.0	26.9	17.7	3.2	4.7	8.5	5.1	6.3	3.2	11.4	13.0	
무소유	139	36	24	3	5	14	10	7	4	22	14	267
(%)	44.0	25.9	17.3	2.2	3.6	10.1	7.2	5.0	2.9	15.8	10.1	
0.2ha 미만	7	3	1		1			1			1	13
(%)	2.2	42.9	14.3	0.0	14.3	0.0	0.0	14.3	0.0	0.0	14.3	
0.2~0.6	16	4	8			1	1	1		1		9
(%)	5.1	25.0	50.0	0.0	0.0	6.3	6.3	6.3	0.0	6.3	0.0	
0.6~1.0	15	4	2		3	2		1	1	1	1	255
(%)	4.7	26.7	13.3	0.0	20.0	13.3	0.0	6.7	6.7	6.7	6.7	
1~3	43	14	5	1	3	5	3	5		4	3	60
(%)	13.6	32.6	11.6	2.3	7.0	11.6	7.0	11.6	0.0	9.3	7.0	
3~5	29	12	4	2	1	3	1	1		2	3	82
(%)	9.2	41.4	13.8	6.9	3.4	10.3	3.4	3.4	0.0	6.9	10.3	
5~10	34	4	5	2		1	1	3	3	4	11	341
(%)	10.8	11.8	14.7	5.9	0.0	2.9	2.9	8.8	8.8	11.8	32.4	
10~30	23	7	6	1	1	1			1	1	5	60
(%)	7.3	30.4	26.1	4.3	4.3	4.3	0.0	0.0	4.3	4.3	21.7	
30ha 이상	10	1	1	1	1			1	1	1	3	78
(%)	3.2	10.0	10.0	10.0	10.0	0.0	0.0	10.0	10.0	1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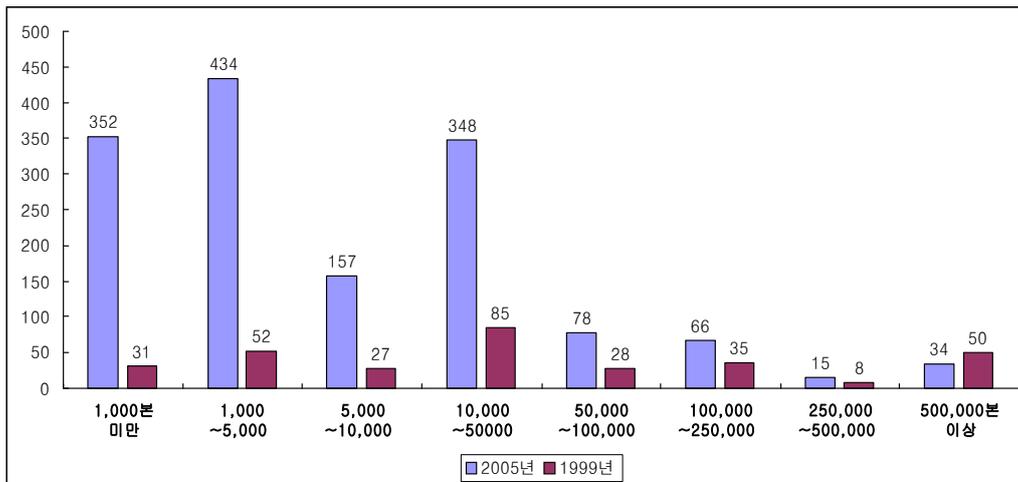
묘목재배의 산림보유면적 규모별 임가는 2005년에는 1ha 이하가 68.5%(1,017가구)였으나, 1999년에는 12%(38가구)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이다. 산림보유묘목재배 본수별 임가 분포에서 2005년에는 1만본 이하가 63.5%(943가구)로 가장 높고, 1만~5만본 사이가 23.5%(348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1만본 이하가 34.8%(110가구)로 가장 높고, 1만~5만본 사이가 26.9%(85가구)의 순이다. 2005년은 1999년 대비 묘목재배 임가의 비중은 본수의 규모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영세화는 지난 수년 동안 농산촌의 소득향상을 위해 조경수, 관상수 등

의 재배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장려한 것과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녹지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조경수 및 관상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착근되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지자체장들 도시녹화와 공원조성은 가장 현시적이고 주민의 수요가 많은 사업의 하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소규모이며 영세한 묘목 생산임가가 각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하였다.

재배본수는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20.9%(22백만본)이 감소한 84백만본이다. 산림보유 규모별 재배본수에서 2005년에는 5ha 이상이 33.7%(28백만본)로 가장 높고, 2.5~5ha 사이가 26.2%(23백만본), 1ha 이하가 19%(16백만본)의 순이다. 1999년에는 무소유임가가 62%(66백만본)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산림보유 임가가 38%(40백만본)로 낮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조사에서의 묘목생산임가는 주로 정부의 지정에 의한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지정양묘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정부의 지정양묘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7-8> 묘목재배본수별 임가

특성별 (전국)	임가	묘목재배본수별 임가(2005)								재배본수 (본)
		1,000본 미만	1,000~ 5,000	5,000~ 10,000	1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250,000~ 500,000	500,000 이상	
계	1,484	352	434	157	348	78	66	15	34	83,826,096
(%)	100.0	23.7	29.2	10.6	23.5	5.3	4.4	1.0	2.3	
0.2ha 미만	178	86	56	15	16	3	2			986,324
(%)	12.0	48.3	31.5	8.4	9.0	1.7	1.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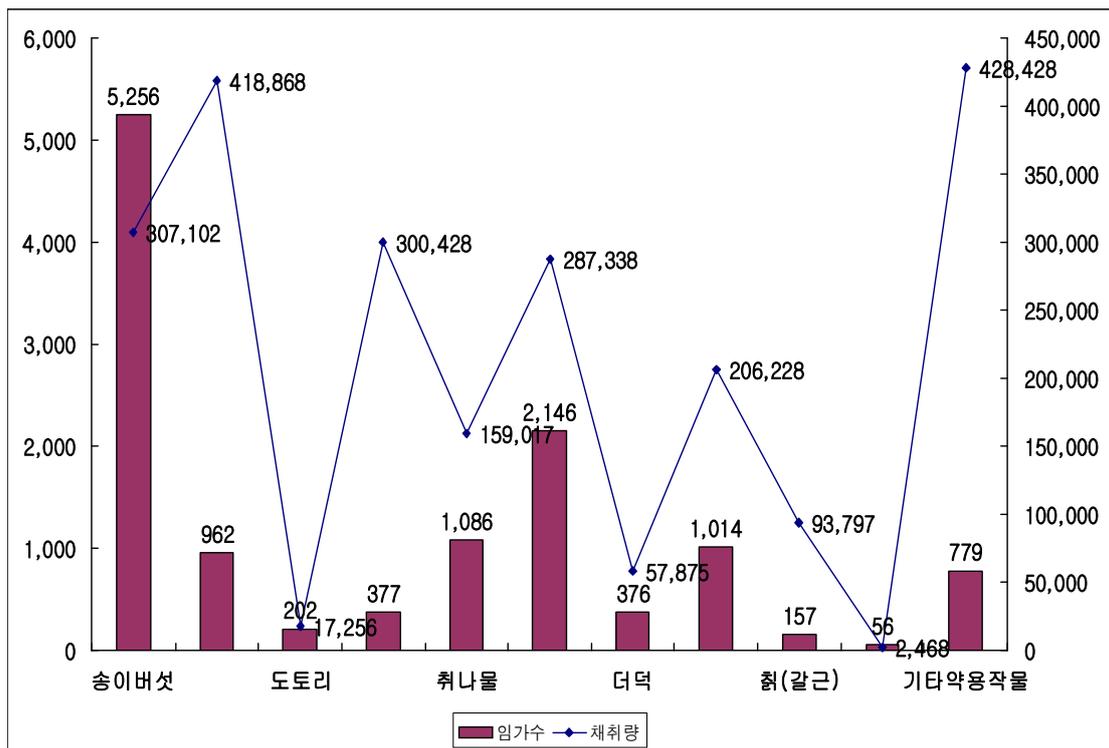
특성별 (전국)	임가	묘목재배본수별 임가(2005)								재배본수 (본)
		1,000본 미만	1,000~ 5,000	5,000~ 10,000	1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250,000~ 500,000	500,000 이상	
0.2~0.6	513	146	180	40	104	23	17	1	2	4,965,114
(%)	34.6	28.5	35.1	7.8	20.3	4.5	3.3	0.2	0.4	
0.6~1.0	326	74	106	43	70	18	12	0	3	2,041,685
(%)	22.0	22.7	32.5	13.2	21.5	5.5	3.7	0.0	0.9	
1.0~5.0	396	44	86	55	129	27	30	8	17	4,131,110
(%)	26.7	11.1	21.7	13.9	32.6	6.8	7.6	2.0	4.3	
5.0ha 이상	71	2	6	4	29	7	5	6	12	28,282,250
(%)	4.8	2.8	8.5	5.6	40.8	9.9	7.0	8.5	16.9	

특성별 (전국)	묘목재배 규모별 임가수 및 재배본수(1999)									재배본수 (본)
	임가	1,000본 미만	1,000~ 5,000	5,000~ 10,000	1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250,000	250,000~ 500,000	500,000 이상	
계	316	31	52	27	85	28	35	8	50	105,913,189
(%)	100.0	9.8	16.5	8.5	26.9	8.9	11.1	2.5	15.8	
무소유	139	12	15	11	43	11	15	2	30	66,486,093
(%)	44.0	8.6	10.8	7.9	30.9	7.9	10.8	1.4	21.6	
0.2ha 미만	7	2	1	3		1			0	70,800
(%)	2.2	28.6	14.3	42.9	0.0	14.3	0.0	0.0	0.0	
0.2~0.6	16	4	4	1	4	3	0	0	0	244,670
(%)	5.1	25.0	25.0	6.3	25.0	18.8	0.0	0.0	0.0	
0.6~1.0	16	1	3	2	5	0	3	0	2	38,000
(%)	5.1	6.3	18.8	12.5	31.3	0.0	18.8	0.0	12.5	
1.0~5.0	72	9	17	7	16	3	7	1	45	5,382,102
(%)	22.8	12.5	23.6	9.7	22.2	4.2	9.7	1.4	62.5	
5.0ha 이상	66	3	12	3	17	10	10	5	6	7,298,230
(%)	20.9	4.5	18.2	4.5	25.8	15.2	15.2	7.6	9.1	

라. 임산물 채취 및 재배

2005년도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는 송이버섯이 5,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사리가 2,146가구, 고로쇠가 1,938가구, 취나물이 1,086가구의 순으로 많다. 채취량으로는 송이버섯이 307,102t으로 가장 많고, 고사리가 287t, 취나물이 158t, 고로쇠는 3,727kl이다. 기타로는 기타약용작물이 428t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버섯류가 418t, 기타 열매류가 300t, 기타산나물이 206t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겸업별 임가에서 대부분의 임산물 채취임가는 겸업형태이다. 전업임가는 송이버섯이 234가구, 고사리가 119가구의 순으로 많다. 겸업임가는 송이버섯이 5,022가구로 가장 많고, 고사리가 2,027가구, 고로쇠가 1,848가구, 취나물이 1,024가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채취량에서도 송이버섯, 고사리, 고로쇠 등이 높았다. 겸업별 임가에서는 2종 겸업형태가 많았다. 1종 겸업과 2종 겸업에서 채취임가와 채취량이 많은 임산물은 송이버섯, 고사리, 고로쇠 등이고, 그 외에는 기타 버섯류, 기타 산나물 등이다.



2005년도 임산물 채취업은 겸업형태가 많고, 겸업형태 중 2종 겸업형태가 주종이었다. 품목별로는 주로 송이버섯, 고사리, 취나물, 고로쇠 등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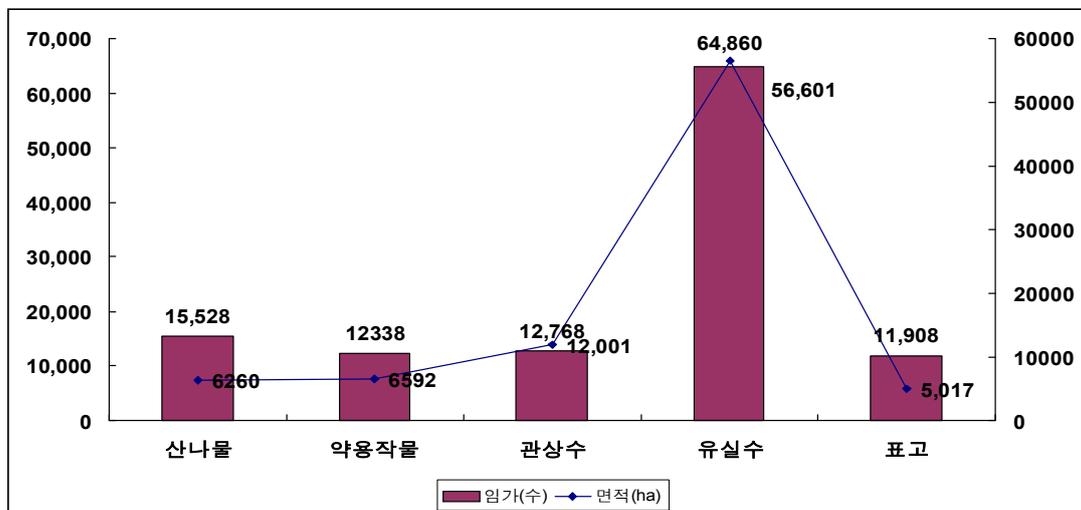
<표 7-9>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

특성별 (전국)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2005)									
	송이버섯		기타버섯류		도토리		기타 열매류		취나물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계	5,256	307,102	962	418,868	202	17,256	377	300,428	1,086	159,017
(%)	50.5		9.2		1.9		3.6		10.4	
전업	234	14,527	71	54,832	14	1,495	33	24,799	62	12,322
(%)	41.3		12.5		2.5		5.8		11.0	
겸업	5,022	292,575	891	364,036	188	15,761	344	275,629	1,024	146,695
(%)	51.0		9.1		1.9		3.5		10.4	
1종 겸업	1,412	106,578	319	174,577	75	8,188	127	98,019	394	58,694
(%)	42.8		9.7		2.3		3.9		11.9	
2종 겸업	3,610	185,997	572	189,459	113	7,573	217	177,610	630	88,001
(%)	55.2		8.7		1.7		3.3		9.6	

특성별 (전국)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2005)							
	고사리		더덕		기타 산나물		취(갈근)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계	2,146	287,338	376	57,875	1,014	206,228	157	93,797
(%)	20.6		3.6		25.5		3.9	
전업	119	27,231	33	5,207	89	21,370	14	12,800
(%)	21.0		5.8		29.8		4.7	
겸업	2,027	260,107	343	52,668	925	184,858	143	80,997
(%)	20.6		3.5		25.1		3.9	
1종 겸업	833	117,438	138	15,318	344	63,678	53	33,430
(%)	25.3		4.2		21.5		3.3	
2종 겸업	1,194	142,669	205	37,350	581	121,180	90	47,567
(%)	18.3		3.1		27.9		4.3	

특성별 (전국)	임산물 채취품목별 임가 및 채취량(2005)							
	창출(백출)		기타 약용작물		고로쇠		기타 수액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kg)	임가	채취량(ℓ)	임가	채취량(ℓ)
계	56	2,468	779	428,428	1,938	3,727,941	36	30,347
(%)	1.4		19.6		48.7		0.9	
전업	14	542	90	51,460	90	144,876	2	1,180
(%)	4.7		30.1		30.1		0.7	
겸업	42	1,926	689	376,968	1,848	3,583,065	34	29,167
(%)	1.1		18.7		50.2		0.9	
1종 겸업	19	993	316	158,682	853	1,883,336	13	14,537
(%)	1.2		19.8		53.4		0.8	
2종 겸업	23	933	373	218,286	995	1,699,729	21	14,630
(%)	1.1		17.9		47.8		1.0	

2005년의 임산물 재배임가는 뽕은 감이 23,621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밤이 21,465가구, 대추가 7,202가구, 조경수가 7,696가구, 복분자가 7,742가구, 표고가 5,750가구의 순으로 많다. 재배면적으로는 밤이 41,046ha로 가장 많고, 뽕은 감이 7,602ha, 조경수가 7,600ha의 순으로 많다. 전·겸업별 임가에서 대부분의 임산물 재배임가는 겸업으로 2종 겸업형태이다. 품목별로는 주로 밤, 뽕은 감, 조경수, 대추, 복분자, 표고 등이 중요 품목이었다.



<표 7-10>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

특성별 (전국)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취나물 (임가)	취나물 면적 (ha)	더덕 (임가)	더덕 면적 (ha)	도라지 (임가)	도라지 면적 (ha)	두릅 (임가)	두릅 면적 (ha)	기타 산나물 (임가)	기타 산나물 면적(ha)	창출 (임가)	창출 면적 (ha)
계	3,584	848	3,042	2,279	2,939	932	2,914	968	3,049	1,233	68	13
(%)	3.1	0.7	2.6	1.9	2.5	0.8	2.5	0.8	2.6	1.1	0.1	0.0
전업	371	110	259	378	207	122	138	61	273	133	1	0
(%)	4.0	1.2	2.8	4.0	2.2	1.3	1.5	0.6	2.9	1.4	0.0	0.0
겸업	3,213	738	2,783	1,900	2,732	810	2,776	907	2,776	1,099	67	13
(%)	3.0	0.7	2.6	1.8	2.5	0.7	2.6	0.8	2.6	1.0	0.1	0.0
1종 겸업	1,044	282	509	633	545	226	698	256	763	403	15	3
(%)	3.6	1.0	1.7	2.2	1.9	0.8	2.4	0.9	2.6	1.4	0.1	0.0
2종 겸업	2,169	456	2,274	1,267	2,187	584	2,078	651	2,013	696	52	10
(%)	2.7	0.6	2.9	1.6	2.8	0.7	2.6	0.8	2.5	0.9	0.1	0.0

특성별 (전국)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산수유 (임가)	산수유 면적 (ha)	오미자 (임가)	오미자 면적 (ha)	두충 (임가)	두충 면적 (ha)	옻 (임가)	옻 면적 (ha)	기타 약용작물 (임가)	기타 약용작물 면적(ha)
계	708	123	1,180	490	1,150	499	637	248	8,595	5,219
(%)	0.6	0.1	1.0	0.4	1.0	0.4	0.5	0.2	7.3	4.4
전업	42	10	70	47	76	55	33	46	431	614
(%)	0.4	0.1	0.7	0.5	0.8	0.6	0.4	0.5	4.6	6.6
겸업	666	114	1,110	442	1,074	444	604	202	8,164	4,605
(%)	0.6	0.1	1.0	0.4	1.0	0.4	0.6	0.2	7.6	4.3
1종 겸업	262	51	309	166	185	106	134	45	1,597	1,465
(%)	0.9	0.2	1.1	0.6	0.6	0.4	0.5	0.2	5.5	5.0
2종 겸업	404	63	801	277	889	339	470	157	6,567	3,140
(%)	0.5	0.1	1.0	0.4	1.1	0.4	0.6	0.2	8.3	4.0

특성별 (전국)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조경수 (임가)	조경수 면적 (ha)	분재 (임가)	분재 면적 (ha)	야생화 (임가)	야생화 면적 (ha)	기타관상 작물 (임가)	기타관상 작물면적 (ha)	밤 (임가)	밤 면적 (ha)
계	7,696	7,600	716	262	495	248	3,861	3,891	21,465	41,046
(%)	6.6	6.5	0.6	0.2	0.4	0.2	3.3	3.3	18.3	35.0
전업	1,119	1,773	221	92	113	78	774	945	1,136	2,727
(%)	12.0	19.0	2.4	1.0	1.2	0.8	8.3	10.1	12.1	29.2
겸업	6,577	5,828	495	171	382	171	3,087	2,947	20,329	38,318
(%)	6.1	5.4	0.5	0.2	0.4	0.2	2.9	2.7	18.8	35.5
1중 겸업	1,725	2,814	188	82	162	93	1,214	1,536	6,207	15,532
(%)	5.9	9.7	0.6	0.3	0.6	0.3	4.2	5.3	21.3	53.4
2중 겸업	4,852	3,013	307	88	220	77	1,873	1,411	14,122	22,786
(%)	6.1	3.8	0.4	0.1	0.3	0.1	2.4	1.8	17.9	28.9

특성별 (전국)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호두 (임가)	호두 면적 (ha)	대추 (임가)	대추 면적 (ha)	뽕은감 (임가)	뽕은감 면적 (ha)	잣 (임가)	잣 면적 (ha)	은행 (임가)	은행 면적 (ha)
계	1,209	445	7,202	2,797	23,621	7,602	481	1,117	1,213	442
(%)	1.0	0.4	6.1	2.4	20.1	6.5	0.4	1.0	1.0	0.4
전업	118	47	601	341	1,230	481	21	63	74	58
(%)	1.3	0.5	6.4	3.6	13.2	5.1	0.2	0.7	0.8	0.6
겸업	1,091	398	6,601	2,456	22,391	7,121	460	1,054	1,139	384
(%)	1.0	0.4	6.1	2.3	20.7	6.6	0.4	1.0	1.1	0.4
1중 겸업	322	159	2,153	1,174	4,246	1,819	100	326	234	99
(%)	1.1	0.5	7.4	4.0	14.6	6.2	0.3	1.1	0.8	0.3
2중 겸업	769	239	4,448	1,282	18,145	5,302	360	728	905	285
(%)	1.0	0.3	5.6	1.6	23.0	6.7	0.5	0.9	1.1	0.4

특성별 (전국)	임산물 재배작물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복분자 (임가)	복분자 면적 (ha)	기타 유실수 (임가)	기타 유실수 면적(ha)	표고 (임가)	표고 면적 (ha)	표고 시설 (임가)	표고 시설면적 (ha)	표고 노지 (임가)	표고 노지면적 (ha)
계	7,742	2,197	1,927	955	5,750	2,509	4,017	1,412	2,141	1,096
(%)	6.6	1.9	1.6	0.8	4.9	2.1	3.4	1.2	1.8	0.9
전업	745	213	124	101	570	383	456	222	150	161
(%)	8.0	2.3	1.3	1.1	6.1	4.1	4.9	2.4	1.6	1.7
겸업	6,997	1,985	1,803	853	5,180	2,125	3,561	1,190	1,991	935
(%)	6.5	1.8	1.7	0.8	4.8	2.0	3.3	1.1	1.8	0.9
1종 겸업	1,485	636	473	263	2,165	1,245	1,611	695	757	550
(%)	5.1	2.2	1.6	0.9	7.4	4.3	5.5	2.4	2.6	1.9
2종 겸업	5,512	1,349	1,330	591	3,015	881	1,950	495	1,234	386
(%)	7.0	1.7	1.7	0.7	3.8	1.1	2.5	0.6	1.6	0.5

Ⅲ. 임가 및 경영주 실태

1. 임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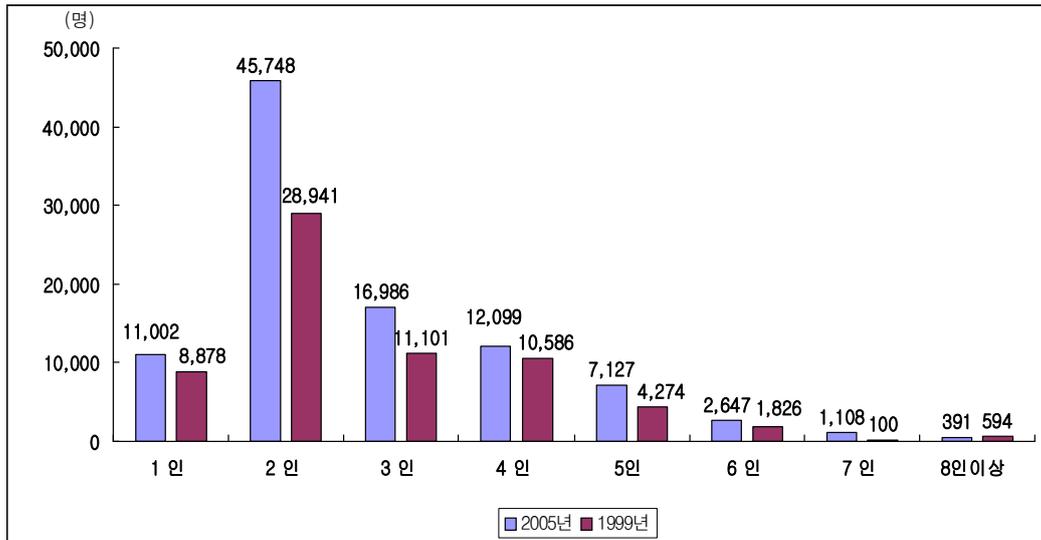
임가의 가구원 구성에서 2005년 조사에서는 2인 가구가 47.1%(45,748가구)로 가장 높다. 5인 이상 가구는 11.6%(11,273가구)에 불과하다. 1999년에도 2인 가구가 43.7%(28,941가구)로 가장 높다. 5인 이상 가구가 10.2%(6,794가구)로 낮다. 그러나 2005년과 1999년 사이의 임가의 가족구성은 임가 수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의 가족구성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른 업종은 비교적 유사한 가족구성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채취업은 소규모 가족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4인 가구 이하가 가장 낮은 76%를 보이고 있어 다른 업종이 8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임업 종사인원별 가구원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2인 가구가 51.5%(50,044가구)로 가장 높고, 1인 가구가 44.5%(43,210가구)로 2인 가구 이하가 96%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에 2인 가구가 43.8%(29,018가구), 1인 가구가 20.1%(13,339가구)로 2인 가구 이하가 63.9%인 것에 비해 임가에서 임업활동에 종사하는 가족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1> 가구원수별 임가

특성별 (전국)	가구원수별 임가(2005)									
	임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이상 (가구)	가구원 총수(명)
계	97,108	11,002	45,748	16,986	12,099	7,127	2,647	1,108	391	264,416
(%)	100.0	11.3	47.1	17.5	12.5	7.3	2.7	1.1	0.4	
육림업	1,929	132	901	379	264	154	70	24	5	5,527
(%)	2.0	6.8	46.7	19.6	13.7	8.0	3.6	1.2	0.3	
벌목업	126	10	48	22	25	15	4	1	1	386
(%)	0.1	7.9	38.1	17.5	19.8	11.9	3.2	0.8	0.8	
채취업	6,883	644	3,203	1,248	919	537	221	80	31	19,300
(%)	7.1	9.4	46.5	18.1	13.4	7.8	3.2	1.2	0.5	
양묘업	527	41	172	109	107	62	23	11	2	1,681
(%)	0.5	7.8	32.6	20.7	20.3	11.8	4.4	2.1	0.4	
재배업	87,643	10,175	41,424	15,228	10,784	6,359	2,329	992	352	237,522
(%)	90.3	11.6	47.3	17.4	12.3	7.3	2.7	1.1	0.4	

특성별 (전국)	가구원수별 임가(1999)									
	임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이상 (가구)	
계	66,300	8,878	28,941	11,101	10,586	4,274	1,826	100	594	
(%)	100.0	13.4	43.7	16.7	16.0	6.4	2.8	0.2	0.9	
육림업	14,568	2,576	5,403	2,322	2,568	1,082	430	29	158	
(%)	22.0	17.7	37.1	15.9	17.6	7.4	3.0	0.2	1.1	
벌목업	943	241	310	126	158	59	30	2	17	
(%)	1.4	25.6	32.9	13.4	16.8	6.3	3.2	0.2	1.8	
채취업	4,241	412	1,767	759	677	354	195	6	71	
(%)	6.4	9.7	41.7	17.9	16.0	8.3	4.6	0.1	1.7	
양묘업	141	19	46	24	30	14	6	1	1	
(%)	0.2	13.5	32.6	17.0	21.3	9.9	4.3	0.7	0.7	
재배업	45,468	5,483	21,135	7,722	6,922	2,675	1,137	60	334	
(%)	68.6	12.1	46.5	17.0	15.2	5.9	2.5	0.1	0.7	
사육업	939	147	280	148	231	90	28	2	13	
(%)	1.4	15.7	29.8	15.8	24.6	9.6	3.0	0.2	1.4	



임업 주 종사인원별 분포는 2005년에 8.4%(8,126가구)를 차지하고, 1999년에 20.8% (13,805가구)을 차지하여 위의 임업참여 가족수의 감소와 더불어 임업에 있어 노동력확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임업 주 종사 인원별 임가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인 가구 49.8%(4,046가구), 2인 가구가 46.5%(3,775가구)이며 2인 가구 이하가 96%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는 2인 가구가 47.7%(6,587가구), 1인 가구가 46.3%(6,398가구)로 2인 가구 이하가 95%를 나타내고 있어 큰 변화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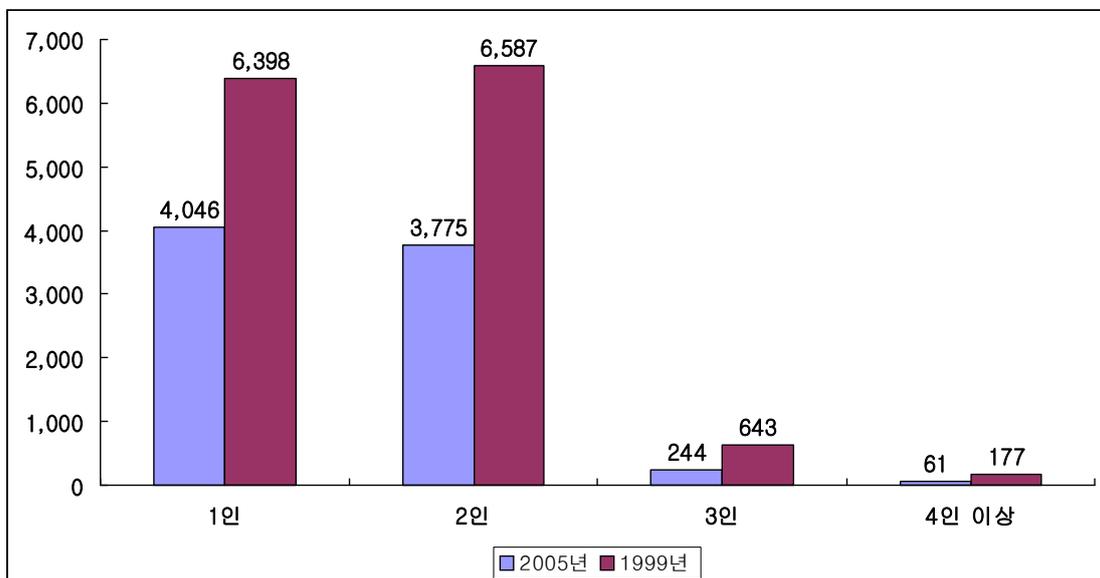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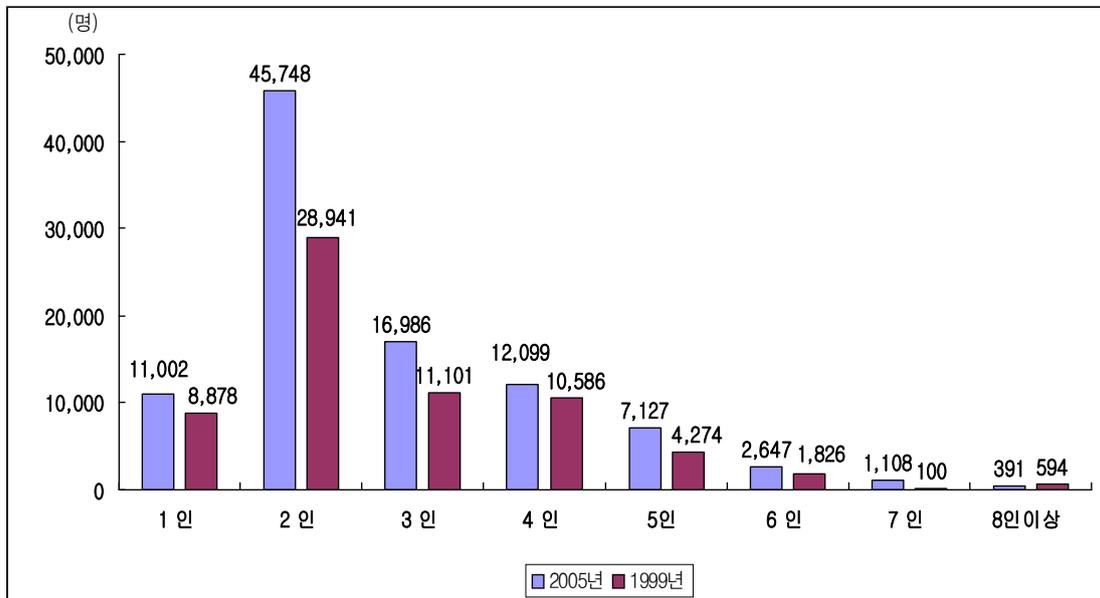
<표 7-12> 임업종사 가구원수별 임가

특성별 (전국)	임가	임업종사 가구원수별 임가(2005)									
		임업 종사인원별 임가				임업 주종사인원별 임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계	1인	2인	3인	4인 이상	
계	97,108	43,210	50,044	3,030	824	8,126	4,046	3,775	244	61	
(%)	100.0	44.5	51.5	3.1	0.8	8.4	49.8	46.5	3.0	0.8	
무소유	64,636	29,612	32,618	1,896	510	4,234	2,083	2,006	125	20	
(%)	66.6	45.8	50.5	2.9	0.8	6.6	49.2	47.4	3.0	0.5	
0.6ha 미만	3,446	1,541	1,799	88	18	400	225	171	3	1	
(%)	3.5	44.7	52.2	2.6	0.5	11.6	56.3	42.8	0.8	0.3	
0.6~1	6,395	2,460	3,686	192	57	630	353	259	14	4	
(%)	6.6	38.5	57.6	3.0	0.9	9.9	56.0	41.1	2.2	0.6	
1~3	10,951	4,041	6,418	383	109	1,196	591	555	37	13	
(%)	11.3	36.9	58.6	3.5	1.0	10.9	49.4	46.4	3.1	1.1	

특성별 (전국)	임가	임업종사 가구원수별 임가(2005)									
		임업 종사인원별 임가				임업 주종사인원별 임가					
		1인	2인	3인	4인이상	계	1인	2인	3인	4인이상	
3~5	5,419	2,387	2,757	221	54	644	296	314	26	8	
(%)	5.6	44.0	50.9	4.1	1.0	11.9	46.0	48.8	4.0	1.2	
5~10	3,975	1,955	1,817	158	45	590	271	287	25	7	
(%)	4.1	49.2	45.7	4.0	1.1	14.8	45.9	48.6	4.2	1.2	
10~30	1,742	906	737	76	23	294	147	134	9	4	
(%)	1.8	52.0	42.3	4.4	1.3	16.9	50.0	45.6	3.1	1.4	
30ha 이상	544	308	212	16	8	138	80	49	5	4	
(%)	0.6	56.6	39.0	2.9	1.5	25.4	58.0	35.5	3.6	2.9	

특성별 (전국)	임가	임업종사 인원별 임가수(1999)									
		임업종사					그 중 임업주종사				
		1인	2인	3인	4인 이상	계	1인	2인	3인	4인이상	
계	66,300	13,339	29,018	9,885	14,058	13,805	6,398	6,587	643	177	
(%)	100.0	20.1	43.8	14.9	21.2	20.8	46.3	47.7	4.7	1.3	
무소유	25,791	4,685	11,059	4,020	6,027	6,523	2,950	3,189	314	70	
(%)	38.9	18.2	42.9	15.6	23.4	25.3	45.2	48.9	4.8	1.1	
0.6ha 미만	4,217	829	1,965	623	800	1,132	503	567	51	11	
(%)	6.4	19.7	46.6	14.8	19.0	26.8	44.4	50.1	4.5	1.0	
0.6~1	5,059	1,027	2,481	708	843	1,084	487	540	46	11	
(%)	7.6	20.3	49.0	14.0	16.7	21.4	44.9	49.8	4.2	1.0	
1~3	11,186	2,265	5,450	1,581	1,890	2,242	1,054	1,047	104	37	
(%)	16.9	20.2	48.7	14.1	16.9	20.0	47.0	46.7	4.6	1.7	
3~5	8,788	2,012	3,610	1,303	1,863	1,134	550	513	51	20	
(%)	13.3	22.9	41.1	14.8	21.2	12.9	48.5	45.2	4.5	1.8	
5~10	6,508	1,448	2,600	974	1,486	937	448	428	47	14	
(%)	9.8	22.2	40.0	15.0	22.8	14.4	47.8	45.7	5.0	1.5	
10~30	3,427	752	1,345	503	827	496	247	218	23	8	
(%)	5.2	21.9	39.2	14.7	24.1	14.5	49.8	44.0	4.6	1.6	
30ha 이상	1,324	321	508	173	322	257	159	85	7	6	
(%)	2.0	24.2	38.4	13.1	24.3	19.4	61.9	33.1	2.7	2.3	

산림이 없는 가구의 임업 종사인원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66.6%(64,636가구)를 차지하고, 1999년에는 38.9%(25,791가구)를 차지하여 비 산주 임업인의 증가가 눈에 띈다.



2. 경영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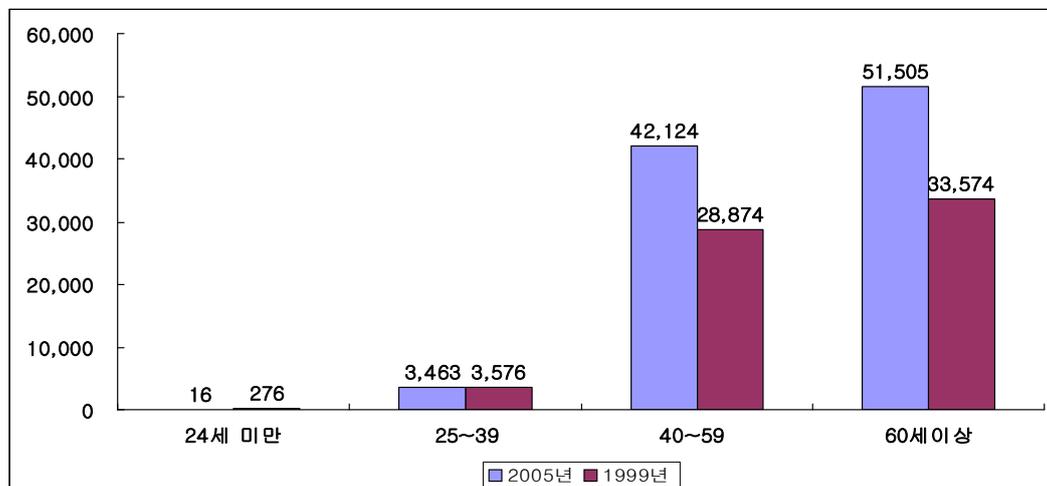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조사에서는 60대가 33.6%(32,628가구)로 가장 높고, 50대가 27%(26,245가구), 70대 이상이 19.4%(18,877가구)로 높다. 30대 3.4%(3,305가구), 20대가 0.2%(174가구)로 가장 낮다. 1999년 조사에서는 60대가 31.8%(21,102

가구)로 가장 높고, 50대가 26.5%(17,596가구), 70대 이상이 18.8%(12,472가구)로 높다. 30대 4.9%(3,279가구), 20대 이하가 0.6%(395가구)로 젊은 층은 매우 낮다. 이는 우리나라 임업인의 인구가 고령화 현상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 될 수 있다. 2005년 조사와 1999년 조사와의 변화는 50대 이상 계층이 그대로 상향 이동하여 고령임가로 잔류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3> 경영주 연령별 입가

특성별 (전국)	입가	경 영 주 연 령 별(2005)			
		24세 미만	25~39	40~59	60세 이상
계	97,108	16	3,463	42,124	51,505
(%)	100.0	0.02	3.6	43.4	53.0
무소유	64,636	13	2,418	29,016	33,189
(%)	66.6	0.02	3.7	44.9	51.3
0.6ha 미만	3,446	1	113	1,251	2,081
(%)	3.5	0	3.3	36.3	60.4
0.6~1	6,395		167	2,155	4,073
(%)	6.6	0	2.6	33.7	63.7
1~3	10,951	1	346	4,203	6,401
(%)	11.3	0.01	3.2	38.4	58.5
3~5	5,419	1	174	2,433	2,811
(%)	5.6	0.02	3.2	44.9	51.9
5~10	3,975		152	1,891	1,932
(%)	4.1	0	3.8	47.6	48.6
10~30	1,742		75	878	789
(%)	1.8	0	4.3	50.4	45.3
30ha 이상	544		18	297	229
(%)	0.6	0	3.3	54.6	42.1

특성별 (전국)	임가	경 영 주 연 령 별(1999)			
		24세 미만	25~39	40~59	60세 이상
계	66,300	276	3,576	28,874	33,574
(%)	100.0	0.4	5.4	43.6	50.6
무소유	25,791	111	1,364	11,216	13,100
(%)	38.9	0.4	5.3	43.5	50.8
0.6ha 미만	4,217	15	206	1,842	2,154
(%)	6.4	0.4	4.9	43.7	51.1
0.6~1	5,059	18	261	2,092	2,688
(%)	7.6	0.4	5.2	41.4	53.1
1~3	11,186	36	593	4,695	5,862
(%)	16.9	0.3	5.3	42.0	52.4
3~5	8,788	45	499	3,895	4,349
(%)	13.3	0.5	5.7	44.3	49.5
5~10	6,508	30	369	2,946	3,163
(%)	9.8	0.5	5.7	45.3	48.6
10~30	3,427	12	211	1,549	1,655
(%)	5.2	0.4	6.2	45.2	48.3
30ha 이상	1,324	9	73	639	603
(%)	2.0	0.7	5.5	48.3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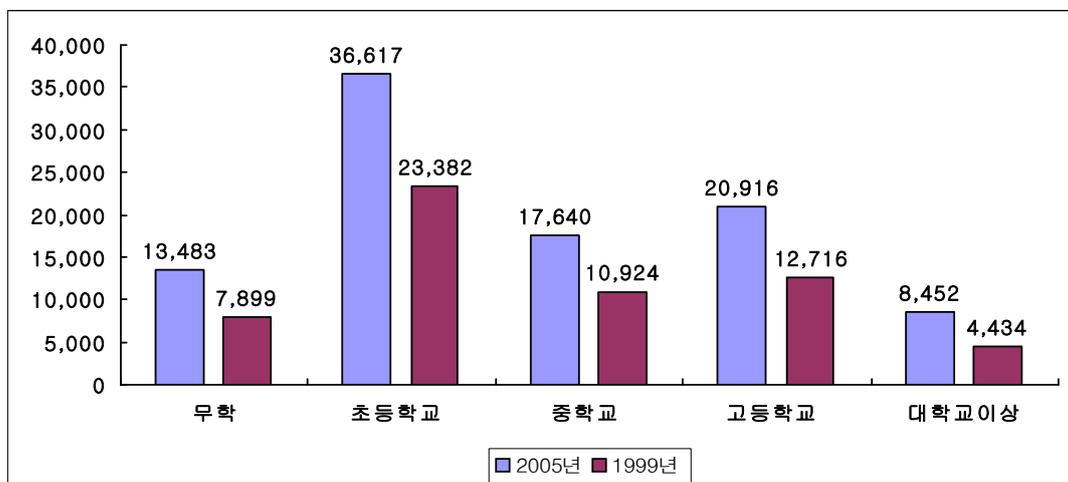


경영주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무학이나 초졸이 51.6%(50,100가구)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은 30.2%로 낮다. 1999년에는 무학이나 초졸이 47.2%(31,281가구)로 가장 높고, 고졸 이상이 26%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도와 산림보유면적과의 관계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산림보유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림보유규모가 클수록 부재산주로서 외지에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산주는 소재산주로 지역에 거주하는 연로한 가구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1999년보다 2005년에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14> 경영주 교육정도별 임가

특성별 (전국)	임가	경 영 주 교 육 정 도 별(2005)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무응답
계	97,108	13,483	36,617	17,640	20,916	8,452	
(%)	100.0	13.9	37.7	18.2	21.5	8.7	
무소유	64,636	8,605	23,957	12,112	14,356	5,606	
(%)	66.6	13.3	37.1	18.7	22.2	8.7	
0.6ha 미만	3,446	665	1,306	564	658	253	
(%)	3.5	19.3	37.9	16.4	19.1	7.3	
0.6~1	6,395	1,390	2,701	1,000	964	340	
(%)	6.6	21.7	42.2	15.6	15.1	5.3	
1~3	10,951	1,778	4,677	1,813	1,993	690	
(%)	11.3	16.2	42.7	16.6	18.2	6.3	
3~5	5,419	580	2,049	1,010	1,237	543	
(%)	5.6	10.7	37.8	18.6	22.8	10.0	
5~10	3,975	319	1,358	744	1,030	524	
(%)	4.1	8.0	34.2	18.7	25.9	13.2	
10~30	1,742	120	469	317	509	327	
(%)	1.8	6.9	26.9	18.2	29.2	18.8	
30ha 이상	544	26	100	80	169	169	
(%)	0.6	4.8	18.4	14.7	31.1	31.1	

특성별 (전국)	임가	경 영 주 교 육 정 도 별(1999)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무응답
계	69,700	7,899	23,382	10,924	12,716	4,434	10,345
(%)	100	11.3	33.5	15.7	18.2	6.4	14.8
무소유	25,791	3,189	9,415	4,639	5,007	1,405	2,136
(%)	37.0	12.4	36.5	18.0	19.4	5.4	8.3
0.6ha 미만	4,217	503	1,521	698	792	296	407
(%)	6.1	11.9	36.1	16.6	18.8	7.0	9.7
0.6~1	4,959	630	1,888	825	856	186	574
(%)	7.1	12.7	38.1	16.6	17.3	3.8	11.6
1~3	11,186	1,450	4,009	1,742	1,957	732	1,296
(%)	16.0	13.0	35.8	15.6	17.5	6.5	11.6
3~5	8,788	985	2,916	1,368	1,737	736	1,046
(%)	12.6	11.2	33.2	15.6	19.8	8.4	11.9
5~10	10,008	680	2,135	926	1,359	620	4,288
(%)	14.4	6.8	21.3	9.3	13.6	6.2	42.8
10~30	3,427	352	1,091	521	727	324	412
(%)	4.9	10.3	31.8	15.2	21.2	9.5	12.0
30ha 이상	1,324	110	407	205	281	135	186
(%)	1.9	8.3	30.7	15.5	21.2	10.2	14.0



3. 임가의 인구학적 특성

2005년의 임가 인구는 1999년보다 61%(100천명)가 증가한 264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성별 임가 인구를 살펴보면, 2005년에 여성이 50.4%로 남성보다 약간 많으나, 1999년에 남성이 52.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계층별 임가 인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60대가 22.3%로 가장 높고 1999년에도 60대가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5년과 1999년 조사의 큰 특징은 50대 이상이 그대로 상향 이동하여 고령인구로 잔류하는 추세이고, 임가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 임가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은 남성의 비중이 높았으나, 40대 이상 장년층, 고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7-15> 연령계층 및 성별 임가 인구

특성별 (전국)	연령계층 및 성별 임가 인구(2005)			특성별 (전국)	연령계층 및 성별 임가 인구(1999)		
	계(명)	남(명)	여(명)		계(명)	남(명)	여(명)
0~9세	13,675	7,287	6,388	0~9세	3,680	1,961	1,719
(%)	5.2	53.3	46.7	(%)	2.2	53.3	46.7
10~19세	23,826	12,809	11,017	10~19세	12,874	6,891	5,983
(%)	9.0	53.8	46.2	(%)	7.8	53.5	46.5
20~29세	20,108	11,305	8,803	20~29세	17,382	10,589	6,793
(%)	7.6	56.2	43.8	(%)	10.6	60.9	39.1
30~39세	17,432	9,326	8,106	30~39세	13,977	7,425	6,552
(%)	6.6	53.5	46.5	(%)	8.5	53.1	46.9
40~49세	36,895	17,502	19,393	40~49세	26,373	12,981	13,392
(%)	14.0	47.4	52.6	(%)	16.1	49.2	50.8
50~59세	52,211	25,130	27,081	50~59세	33,748	16,866	16,882
(%)	19.7	48.1	51.9	(%)	20.5	50.0	50.0
60~69세	58,950	29,033	29,917	60~69세	36,239	18,978	17,261
(%)	22.3	49.3	50.7	(%)	22.1	52.4	47.6
70세 이상	41,319	18,682	22,637	70세 이상	19,975	9,886	10,089
(%)	15.6	45.2	54.8	(%)	12.2	49.5	50.5
총계	264,416	131,074	133,342	총계	164,248	85,577	78,671
(%)	100.0	49.6	50.4	(%)	100.0	52.1	47.9

15세 이상 주종사 분야별 임가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임가 인구 중 임업 종사인구가 65.3%를 차지하였다. 15세 이상 주종사 분야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농업이 67.1%로 가장 높고, 임업은 5.3%에 불과하다. 1999년에는 농업이 48.5%로 가장 높고, 임업은 13.9%로 제일 낮았으나 2005년에는 임업과 농업이 공히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업노동력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기피가 심화되고 있고 반면 40대 이하 젊은 층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상대적으로 더 유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6> 15세 이상 주종사분야별 임가 인구

특성별 (전국)	임가 인구 (명)	임업 종사 인구 (명)	15세 이상 주종사분야별 임가 인구(2005)								
			농업 (명)	임업 (명)	어업 (명)	제조업 (명)	건설업 (명)	도· 소매업 (명)	숙박 및 음식점업 (명)	기타 산업 (명)	무종사 (명)
19세 미만	11,761	105	76	5		12	2	6	3	92	11,559
(%)	4.9	0.1	0.05	0.04	0.00	0.55	0.11	0.21	0.11	0.52	30.21
20~29세	20,108	1,625	1,948	163	18	610	255	306	163	5,511	11,134
(%)	8.4	1.0	1.2	1.3	3.6	28.0	14.1	10.6	6.0	31.3	29.1
30~39세	17,432	8,068	8,358	866	39	467	486	426	376	4,211	2,203
(%)	7.3	5.2	5.2	6.9	7.7	21.5	26.9	14.8	13.9	23.9	5.8
40~49세	36,895	27,570	26,490	2,238	130	531	566	799	996	3,804	1,341
(%)	15.5	17.7	16.5	17.8	25.6	24.4	31.3	27.7	36.9	21.6	3.5
50~59세	52,211	42,786	42,209	3,116	162	403	364	898	837	3,044	1,178
(%)	21.9	27.5	26.4	24.8	32.0	18.5	20.1	31.2	31.0	17.3	3.1
60~69세	58,950	49,780	52,171	3,631	124	132	119	377	271	797	1,328
(%)	24.7	32.0	32.6	28.9	24.5	6.1	6.6	13.1	10.0	4.5	3.5
70세 이상	41,319	25,831	28,895	2,564	34	22	17	69	56	148	9,514
(%)	17.3	16.6	18.0	20.4	6.7	1.0	0.9	2.4	2.1	0.8	24.9
계	238,676	155,765	160,147	12,583	507	2,177	1,809	2,881	2,702	17,607	38,257
(%)	100.0	65.3	67.1	5.3	0.2	0.9	0.8	1.2	1.1	7.4	16.0

특성별 (전국)	임가 인구 (명)	15세 이상 주종사분야별 임가 인구(1999)			
		농업(명)	임업(명)	학생(명)	기타(명)
무소유	61,785	31,901	10,281	5,377	14,226
(%)	39.6	42.1	47.5	42.6	30.9
0.6ha 미만	9,885	4,816	1,787	812	2,470
(%)	6.3	6.4	8.3	6.4	5.4
0.6~1.0	11,404	6,259	1,700	811	2,634
(%)	7.3	8.3	7.9	6.4	5.7
1.0~3.0	25,566	13,359	3,511	1,767	6,929
(%)	16.4	17.6	16.2	14.0	15.0
3.0~5.0	20,598	8,854	1,752	1,672	8,320
(%)	13.2	11.7	8.1	13.3	18.1
5.0~10.0	15,491	6,353	1,463	1,248	6,427
(%)	9.9	8.4	6.8	9.9	13.9
10~30	8,186	3,196	764	677	3,549
(%)	5.2	4.2	3.5	5.4	7.7
30ha 이상	3,124	987	364	250	1,523
(%)	2.0	1.3	1.7	2.0	3.3
계	156,039	75,725	21,622	12,614	46,078
(%)	100.0	48.5	13.9	8.1	29.5

15세 이상 임업종사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가 29.5%였다. 임업종사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이 26.4%로 가장 높고, 3개월 미만은 22.8%를 차지하였다.

1999년에는 1~3개월 사이가 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개월 미만이 30.4%로 높아 3개월 미만은 63.4%를 차지하였다. 3개월 미만의 종사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임업종사기간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은 6개월 이상이 가장 높고, 여성도 6개월 이상이 가장 높다. 1999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6개월 이상이 가장 높고, 3~6개월 사이가 다음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17> 15세 이상 임금종사기간 및 성별 임금 인구

특성별 (전국)	15세 이상 임금종사기간 및 성별 임금 인구(2005)								
	15세 이상 임금 인구			없음			1개월 미만		
	계	남자(명)	여자(명)	계	남자(명)	여자(명)	계	남자(명)	여자(명)
19세 미만	11,761	6,260	5,501	11,656	6,200	5,456	40	26	14
(%)	4.9	53.2	46.8	14.1	53.2	46.8	0.4	65.0	35.0
20~29세	20,108	11,305	8,803	18,483	10,221	8,262	260	171	89
(%)	8.4	56.2	43.8	22.3	55.3	44.7	2.3	65.8	34.2
30~39세	17,432	9,326	8,106	9,364	4,667	4,697	685	423	262
(%)	7.3	53.5	46.5	11.3	49.8	50.2	6.1	61.8	38.2
40~49세	36,895	17,502	19,393	9,325	1,608	7,717	2,127	1,310	817
(%)	15.5	47.4	52.6	11.2	17.2	82.8	18.8	61.6	38.4
50~59세	52,211	25,130	27,081	9,425	801	8,624	2,992	1,869	1,123
(%)	21.9	48.1	51.9	11.4	8.5	91.5	26.5	62.5	37.5
60~69세	58,950	29,033	29,917	9,170	821	8,349	3,349	2,068	1,281
(%)	24.7	49.3	50.7	11.1	9.0	91.0	29.6	61.7	38.3
70세 이상	41,319	18,682	22,637	15,488	2,940	12,548	1,846	1,157	689
(%)	17.3	45.2	54.8	18.7	19.0	81.0	16.3	62.7	37.3
계	238,676	117,238	121,438	82,911	27,258	55,653	11,299	7,024	4,275

특성별 (전국)	15세 이상 임금종사기간 및 성별 임금 인구(2005)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계	남자(명)	여자(명)	계	남자(명)	여자(명)	계	남자(명)	여자(명)
19세 미만	25	15	10	11	6	5	29	13	16
(%)	0.1	60.0	40.0	0.0	54.5	45.5	0.05	44.8	55.2
20~29세	471	314	157	331	219	112	563	380	183
(%)	1.1	66.7	33.3	0.9	66.2	33.8	0.9	67.5	32.5
30~39세	2,134	1,229	905	1,930	1,079	851	3,319	1,928	1,391
(%)	4.9	57.6	42.4	5.1	55.9	44.1	5.3	58.1	41.9
40~49세	7,579	4,390	3,189	6,732	3,806	2,926	11,132	6,388	4,744
(%)	17.5	57.9	42.1	17.6	56.5	43.5	17.7	57.4	42.6
50~59세	11,565	6,632	4,933	10,470	5,807	4,663	17,759	10,021	7,738
(%)	26.7	57.3	42.7	27.4	55.5	44.5	28.2	56.4	43.6

특성별 (전국)	15세 이상 임업종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2005)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계	남자(명)	여자(명)	계	남자(명)	여자(명)	계	남자(명)	여자(명)
60~69세	14,093	7,941	6,152	12,583	7,041	5,542	19,755	11,162	8,593
(%)	32.6	56.3	43.7	32.9	56.0	44.0	31.4	56.5	43.5
70세 이상	7,407	4,516	2,891	6,155	3,770	2,385	10,423	6,299	4,124
(%)	17.1	61.0	39.0	16.1	61.3	38.7	16.5	60.4	39.6
계	43,274	25,037	18,237	38,212	21,728	16,484	62,980	36,191	26,789

특성별 (전국)	15세 이상 임업종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1999)											
	1개월 미만						1~3개월					
	종사인구			임업주종사인구			종사인구			임업주종사인구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무소유	11,172	5,669	5,503	385	179	206	12,229	6,592	5,637	1,133	588	545
(%)	40.7	50.7	49.3	42.8	46.5	53.5	41.5	53.9	46.1	37.3	51.9	48.1
0.2ha 미만	487	240	247	22	10	12	607	302	305	47	25	22
(%)	1.8	49.3	50.7	2.4	45.5	54.5	2.1	49.8	50.2	1.5	53.2	46.8
0.2~0.6	976	496	480	42	22	20	1,337	707	630	166	93	73
(%)	3.6	50.8	49.2	4.7	52.4	47.6	4.5	52.9	47.1	5.5	56.0	44.0
0.6~1	2,165	1,071	1,094	76	35	41	2,865	1,494	1,371	271	143	128
(%)	7.9	49.5	50.5	8.4	46.1	53.9	9.7	52.1	47.9	8.9	52.8	47.2
1~3	4,785	2,514	2,271	171	87	84	6,177	3,232	2,945	648	343	305
(%)	17.4	52.5	47.5	19.0	50.9	49.1	20.9	52.3	47.7	21.3	52.9	47.1
3~5	3,446	2,072	1,374	75	41	34	2,980	1,632	1,348	321	170	151
(%)	12.6	60.1	39.9	8.3	54.7	45.3	10.1	54.8	45.2	10.6	53.0	47.0
5~10	2,554	1,585	969	76	45	31	2,065	1,159	906	289	164	125
(%)	9.3	62.1	37.9	8.4	59.2	40.8	7.0	56.1	43.9	9.5	56.7	43.3
10~30	1,389	895	494	35	24	11	909	557	352	127	73	54
(%)	5.1	64.4	35.6	3.9	68.6	31.4	3.1	61.3	38.7	4.2	57.5	42.5
30ha 이상	481	306	175	18	13	5	330	214	116	36	23	13
(%)	1.8	63.6	36.4	2.0	72.2	27.8	1.1	64.8	35.2	1.2	63.9	36.1
계	27,455	14,848	12,607	900	456	444	29,499	15,889	13,610	3,038	1,622	1,416
(%)	30.4	54.1	45.9	4.7	50.7	49.3	32.7	53.9	46.1	16.0	53.4	46.6

특성별 (전국)	15세 이상 임업종사기간 및 성별 임가 인구(1999)											
	3~6개월						6개월 이상					
	종사인구			임업주종사인구			종사인구			임업주종사인구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무소유	7,252	4,069	3,183	2,131	1,217	914	9,445	5,227	4,218	5,486	3,071	2,415
(%)	47.6	56.1	43.9	44.6	57.1	42.9	52.5	55.3	44.7	53.2	56.0	44.0
0.2ha 미만	470	254	216	137	82	55	606	322	284	323	182	141
(%)	3.1	54.0	46.0	2.9	59.9	40.1	3.4	53.1	46.9	3.1	56.3	43.7
0.2~0.6	854	482	372	252	152	100	1,171	624	547	581	322	259
(%)	5.6	56.4	43.6	5.3	60.3	39.7	6.5	53.3	46.7	5.6	55.4	44.6
0.6~1	1,289	734	555	426	263	163	1,335	725	610	717	399	318
(%)	8.5	56.9	43.1	8.9	61.7	38.3	7.4	54.3	45.7	7.0	55.6	44.4
1~3	2,625	1,525	1,100	933	566	367	2,296	1,255	1,041	1,309	740	569
(%)	17.2	58.1	41.9	19.5	60.7	39.3	12.8	54.7	45.3	12.7	56.5	43.5
3~5	1,311	751	560	416	248	168	1,289	749	540	709	430	279
(%)	8.6	57.3	42.7	8.7	59.6	40.4	7.2	58.1	41.9	6.9	60.6	39.4
5~10	859	495	364	282	167	115	1,052	611	441	641	396	245
(%)	5.6	57.6	42.4	5.9	59.2	40.8	5.8	58.1	41.9	6.2	61.8	38.2
10~30	413	247	166	151	89	62	530	333	197	346	223	123
(%)	2.7	59.8	40.2	3.2	58.9	41.1	2.9	62.8	37.2	3.4	64.5	35.5
30ha 이상	150	95	55	52	35	17	268	175	93	204	142	62
(%)	1.0	63.3	36.7	1.1	67.3	32.7	1.5	65.3	34.7	2.0	69.6	30.4
계	15,223	8,652	6,571	4,780	2,819	1,961	17,992	10,021	7,971	10,316	5,905	4,411
(%)	16.9	56.8	43.2	25.1	59.0	41.0	20.0	55.7	44.3	54.2	57.2	42.8

IV. 임산물 생산 및 판매

1. 임산물 판매금액

임가의 임산물 판매처를 보면 2005년에는 수집상, 농협, 개인소비자의 순으로 높고,

산림조합의 통한 판매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99년에도 수집상, 계통출하, 공판장 등의 비중이 높고 산림조합을 통한 판매는 매우 낮았다. 임업생산물의 유통에 있어 산림조합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을 반증하고 있다.

판매금액별로 보면, 2005년에는 100~500만원 사이가 43.2%로 가장 높았고, 5,000만원 이상은 1.6%에 불과하다. 임산물 판매금액이 없는 임가를 제외하고 68%의 임가가 1,000만원 이하로 나타나서 임산물 판매액이 매우 적다.

판매금액 규모별 판매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00만원 이하의 임가가 농협 판매 비율이 가장 높고, 1,000만원 이상의 임가는 수집상을 통한 판매가 가장 높다. 1999년에는 2,000만원 이하의 임가가 수집상을 통한 판매가 가장 높고, 2,000만원 이상의 임가는 공판장을 통한 판매 비중이 가장 높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1,000만원 이하의 임가는 수집상을 통한 판매에서 농협을 통하는 계통판매로 이행되었다. 판매규모가 클수록 공판장보다는 개인 수집상을 통한 판매로 이행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8> 임산물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별 임가

특성별 (전국)	임산물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별 임가(2005)											
	임가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농협	산림 조합	수집상	개인 소비자	대량 유통 업체	대량 수요처	가공 업체	채매 시장	기타 (판매없 음포함)
계	97,108	5,460	5,694	25,085	2,950	22,542	14,467	268	224	1,993	1,865	16,560
판매없음	16,099	-	-	-	-	-	-	-	-	-	-	16,099
50만원 미만	2,704	105	226	436	27	488	1,089	5	4	22	204	98
50~100만원	6,953	332	503	2,124	101	1,632	1,783	7	6	74	321	70
100~200만원	19,327	774	1,312	6,736	774	4,741	4,001	19	17	231	637	85
200~500만원	22,649	1,237	1,685	7,604	898	6,468	3,584	49	35	587	440	62
500~ 1,000만원	14,382	1,009	952	4,597	576	4,405	2,029	35	30	529	171	49
1,000~ 2,000만원	8,228	784	600	2,275	314	2,654	1,096	42	36	337	59	31
2,000~ 3,000만원	3,356	475	205	816	118	1,089	447	35	20	116	18	17
3,000~ 5,000만원	1,843	367	112	327	71	604	237	35	19	49	9	13
5,000~1억원	1,041	262	67	130	41	332	129	21	21	26	6	6
1~2억원	356	79	21	32	20	91	56	12	19	14	-	12
2억원 이상	170	36	11	8	10	38	16	8	17	8	-	18

특성별 (전국)	임산물 판매금액규모 및 판매처별 임가(1999)								
	도매시장	공관장	계통출하	수매	수집상	자가매장	재래시장	산림조합	기타
계	3,702	9,194	9,446	3,298	13,146	8,417	4,044	3,057	25,451
100만원 미만	10	11	9	3	13	22	2	4	15,483
100~500만원	240	796	890	296	2,091	1,544	908	464	5,916
500~1,000만원	1,431	4,265	4,957	1,805	7,512	3,886	2,215	1,611	2,397
1,000~2,000만원	726	2,011	2,016	675	2,098	1,426	542	471	724
2,000~3,000만원	624	1,228	981	393	889	834	234	307	527
3,000~4,000만원	303	452	328	78	300	297	71	90	183
4,000~5,000만원	149	201	106	17	108	153	32	54	90
5,000~1억원	105	107	72	6	69	94	18	22	46
1~2억원	88	101	68	18	52	129	19	23	55
2억원 이상	26	22	19	7	14	32	3	11	30

업종별 임산물 판매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임산물을 판매하지 않은 임가의 비율이 육림업이 85.4%(1,647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묘업이 52.8%(278가구)로 높다. 각 업종이 공통적으로 100~500만원 사이의 판매액이 가장 높다. 그 중에서 채취업이 67.4%(4,638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배업이 42.4%(37,156가구)였다. 벌목업과 양묘업이 판매금액 규모가 큰 임가의 비율이 높아 타 업종에 비해 거래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100만원 미만은 육림업이 66.9%(9,743가구)로 가장 높고, 양묘업이 28.4%(40가구)로 높다. 500~1,000만원 사이는 채취업이 58.5%(2,482가구)로 가장 높고, 재배업이 43.3%(19,672가구), 벌목업이 30.3%(286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양묘업과, 벌목업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육림업과 양묘업은 판매금액이 적은 임가의 비중이 높아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거래규모가 소규모인 것을 알 수 있다. 채취업과 재배업의 판매금액은 500~1,000만원 사이에서 100~500만원으로 하향 이동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많은 소규모 임가가 새롭게 재배업과 채취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표 7-19> 임산물 판매금액별 임가

특성별 (전국)	임산물 판매금액별 임가 (2005)									
	임가	100만원 미만	100~ 500	500~ 1,000	1,000~ 2,000	2,000~ 3,000	3,000~ 5,000	5,000~ 10,000	10,000~ 20,000	2억원 이상
계	97,108	25,756	41,976	14,382	8,228	3,356	1,843	1,041	356	170
(%)	100.0	26.5	43.2	14.8	8.5	3.5	1.9	1.1	0.4	0.2
육림업	1,929	1,686	100	55	26	21	14	14	8	5
(%)	2.0	87.4	5.2	2.9	1.3	1.1	0.7	0.7	0.4	0.3
벌목업	126	26	27	13	19	11	7	9	10	4
(%)	0.1	20.6	21.4	10.3	15.1	8.7	5.6	7.1	7.9	3.2
채취업	6,883	193	4,638	1,209	588	162	67	20	3	3
(%)	7.1	2.8	67.4	17.6	8.5	2.4	1.0	0.3	0.0	0.0
양묘업	527	307	55	41	34	29	21	14	12	14
(%)	0.5	58.3	10.4	7.8	6.5	5.5	4.0	2.7	2.3	2.7
재배업	87,643	23,544	37,156	13,064	7,561	3,133	1,734	984	323	144
(%)	90.3	26.9	42.4	14.9	8.6	3.6	2.0	1.1	0.4	0.2

2. 임산물 판매처

업종별 임산물 판매처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육림업과 양묘업에서 임산물 판매가 없는 임가의 비중이 높다. 업종별 판매처로 육림업은 수집상이 높고, 벌목업은 수집상, 가공업체 순으로 높다. 채취업은 개인소비자, 수집상, 산림조합의 순으로 높다. 양묘업은 수집상이 가장 높고, 재배업은 농협, 수집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9년에는 임산물 판매가 없는 업종은 육림업, 벌목업의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 판매처로 벌목업은 자가매장, 수집상이 높고, 채취업은 산림조합, 수집상, 자가매장이 높다. 양묘업은 자가매장, 수집상의 순으로 높다. 재배업은 수집상, 계통출하, 공판장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판매처는 대부분 수집상의 비중이 높고, 채취업은 산림조합, 자가매장에서 주로 판매하고, 재배업은 공판장과 계통출하의 비중이 높다.

<표 7-20> 임산물 판매처별 임가

특성별 (전국)	임산물 판매처별 임가(2005)											
	임가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농협	산림 조합	수집상	개인 소비자	대량 유통 업체	대량 수요처	가공 업체	채래 시장	기타 (판매없 음포함)
계	97,108	5,460	5,694	25,085	2,950	22,542	14,467	268	224	1,993	1,865	16,560
(%)	100.0	5.6	5.9	25.8	3.0	23.2	14.9	0.3	2.3	2.1	1.9	17.1
육림업	1,929				79	143	5		3	26	5	1,668
(%)	2.0	0.0	0.0	0.0	4.1	7.4	0.3	0.0	1.6	1.3	0.3	86.5
벌목업	126				17	45	1		9	30		24
(%)	0.1	0.0	0.0	0.0	13.5	35.7	0.8	0.0	71.6	23.8	0.0	19.0
채취업	6,883	76	234	233	1,912	1,972	2,270	19	2	7	126	32
(%)	7.1	1.1	3.4	3.4	27.8	28.7	33.0	0.3	0.3	0.1	1.8	0.5
양묘업	527	1			54	159	6		8	2	8	289
(%)	0.5	0.2	0.0	0.0	10.2	30.2	1.1	0.0	15.2	0.4	1.5	54.8
재배업	87,643	5,383	5,460	24,852	888	20,223	12,185	249	202	1,928	1,726	14,547
(%)	90.3	6.1	6.2	28.4	1.0	23.1	13.9	0.3	2.3	2.2	2.0	16.6

특성별 (전국)	임산물 판매처별 임가(1999)										
	임가	도매시장	공판장	계통출하	수매	수집상	자가매장	채래시장	산림조합	기타	
계	79,733	3,702	9,194	9,446	3,298	13,145	8,408	4,043	3,057	25,440	
(%)	100.0	4.6	11.5	11.8	4.1	16.5	10.5	5.1	38.5	31.9	
육림업	14,907	82	142	116	121	521	448	167	184	13,126	
(%)	18.7	0.6	1.0	0.8	0.8	3.5	3.0	1.1	12.4	88.1	
벌목업	1,031	23	23	65	30	153	157	9	25	546	
(%)	1.3	2.2	2.2	6.3	2.9	14.8	15.2	0.9	24.3	53.0	
채취업	5,227	64	233	187	42	1,145	998	416	1,549	593	
(%)	6.6	1.2	4.5	3.6	0.8	21.9	19.1	8.0	297.2	11.3	
양묘업	183	8	6	17	12	25	41	3	13	58	
(%)	0.2	4.4	3.3	9.3	6.6	13.7	22.4	1.6	71.3	31.7	
재배업	57,365	3,510	8,783	9,013	3,085	11,214	6,513	3,432	1,283	10,532	
(%)	71.9	6.1	15.3	15.7	5.4	19.5	11.4	6.0	22.4	18.4	
사육업	1,020	15	7	48	8	87	251	16	3	585	
(%)	1.3	1.5	0.7	4.7	0.8	8.5	24.6	1.6	3.0	57.4	

V. 임산물 채취 및 재배

1. 임산물 채취

가. 종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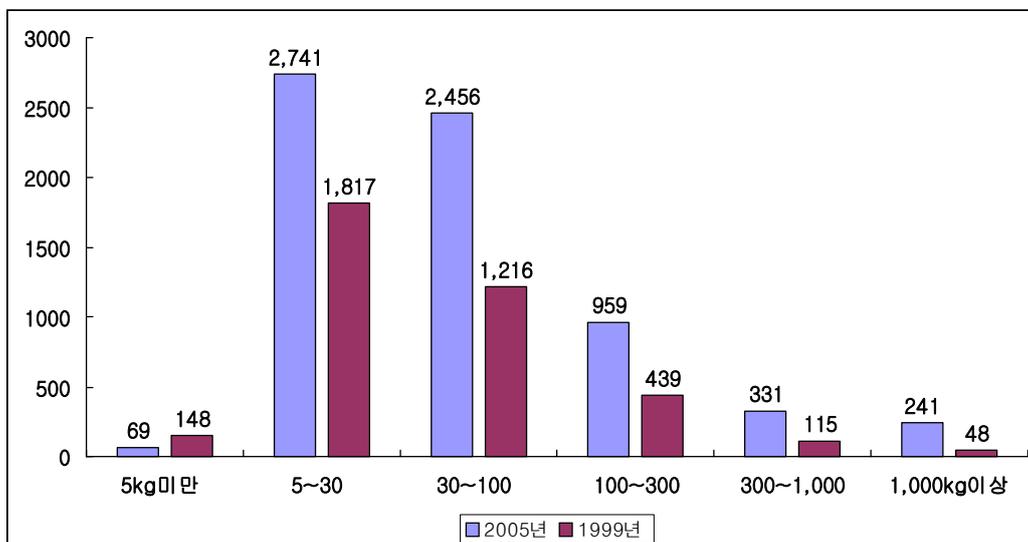
버섯과 열매 채취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6,797임가 중에서 송이버섯이 77.3%(5,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1999년에도 총 3,787임가 중에서 송이버섯이 86.5%(3,271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999년에 비해 2005년에는 송이버섯 채취 임가의 비율이 낮아지고 채취버섯의 종류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채취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5~30kg 사이가 4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100kg 사이가 36.1%를 차지한다. 임가 당 채취량은 153.5kg이고, 품목별 채취량은 기타 열매류가 796.9kg, 기타 버섯류가 435.4kg, 도토리가 85.4kg, 송이버섯이 58.4kg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5~30kg 사이가 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100kg 사이가 32.1%를 차지한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30kg 이하의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에 30kg 이상의 임가 비중이 높아져 임가당 채취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1>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특성별 (전국)	임가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2005)						채취량 (kg)
		5kg 미만	5~30	30~100	100~300	300~ 1,000	1,000kg 이상	
계	6,797	69	2,741	2,456	959	331	241	1,043,654
(%)	100.0	1.0	40.3	36.1	14.1	4.9	3.5	
송이버섯	5,256	42	2,339	2,092	621	138	24	307,102
(%)	77.3	0.8	44.5	39.8	11.8	2.6	0.5	
기타 버섯류	962	21	264	245	193	108	131	418,868
(%)	14.2	2.2	27.4	25.5	20.1	11.2	13.6	
도토리	202	3	69	62	54	14		17,256
(%)	3.0	1.5	34.2	30.7	26.7	6.9	0.0	
기타 열매류	377	3	69	57	91	71	86	300,428
(%)	5.5	0.8	18.3	15.1	24.1	18.8	22.8	

특성별 (전국)	임가	버섯·열매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1999)						채취량 (kg)
		5kg 미만	5~30	30~100	100~300	300~ 1,000	1,000kg 이상	
계	3,783	148	1,817	1,216	439	115	48	
(%)	100.0	3.9	48.0	32.1	11.6	3.0	1.3	
송이버섯	3,271	128	1,651	1,096	319	72	5	
(%)	86.5	3.9	50.5	33.5	9.8	2.2	0.2	
기타 버섯류	192	9	74	50	42	7	10	
(%)	5.1	4.7	38.5	26.0	21.9	3.6	5.2	
도토리	263	10	80	67	68	35	3	
(%)	7.0	3.8	30.4	25.5	25.9	13.3	1.1	
기타 열매류	57	1	12	3	10	1	30	
(%)	1.5	1.8	21.1	5.3	17.5	1.8	52.6	



품목별 채취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은 송이버섯, 기타버섯류, 도토리가 5~30kg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타 열매류는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 1999년은 송이버섯, 기타 버섯류, 도토리가 5~30kg 사이의 비율이 가장 높고, 기타 열매류는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송이버섯과 기타버섯류가 채취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기타 열매류는 1,000kg 이상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나. 산채 및 약용식물

산나물 채취는 2005년에는 총 4,622가구 중에서 고사리가 46.4%(2,146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나물이 23.5%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2,654임가 중에서 고사리가 43.1%(1,143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나물이 41.8%를 차지했다.

채취규모별 임가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5~30kg 사이가 3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0~100kg 사이가 28.5%를 차지한다. 임가 당 산나물의 채취량은 전국평균이 153.7kg이고, 품목별로 기타 산나물이 203.4kg, 더덕이 153.9kg, 취나물이 146.4kg, 고사리가 133.9kg의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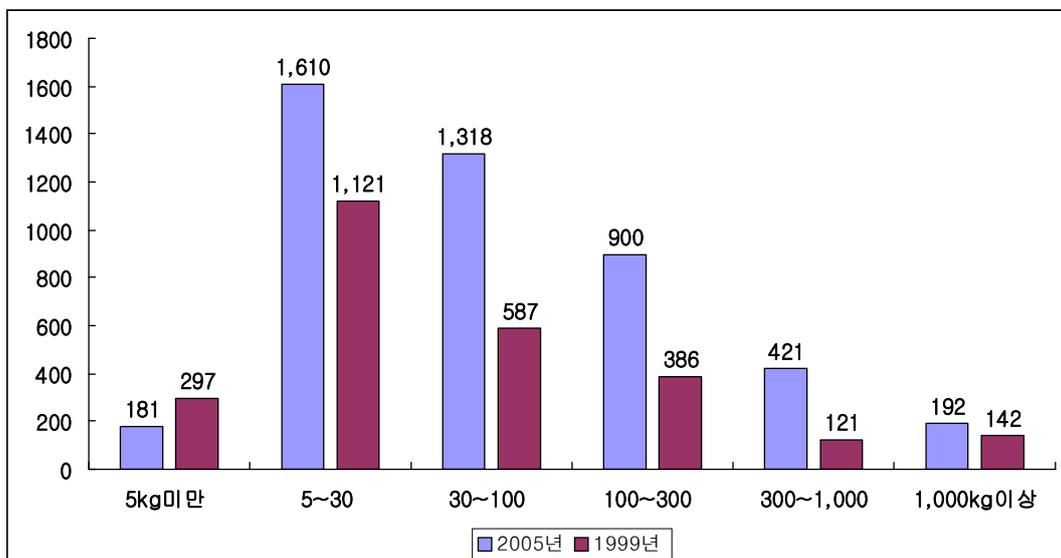
1999년에는 5~30kg 사이가 4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100kg 사이가 22.1%를 차지하였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산나물 채취 임가의 비율이 낮아졌다.

품목별 채취규모를 보면, 2005년은 취나물, 고사리, 더덕이 5~30kg 사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100kg 사이가 많고, 기타 산나물은 30~100kg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1999년에는 취나물, 고사리, 더덕의 경우, 5~30kg 사이가 가장 높고, 기타 산나물은 100~300kg 사이가 가장 높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고사리와 더덕이 30kg 이하의 비중이 줄어들고, 30kg 이상의 비중이 커져 앞서 버섯·열매와 같은 추세를 보이고

<표 7-22>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특성별 (전국)	임가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2005)						채취량 (kg)
		5kg 미만	5~30	30~100	100~300	300~ 1,000	1,000kg 이상	
계	4,622	181	1,610	1,318	900	421	192	710,458
(%)	100.0	3.9	34.8	28.5	19.5	9.1	4.2	
취나물	1,086	38	370	304	245	92	37	159,017
(%)	23.5	3.5	34.1	28.0	22.6	8.5	3.4	
고사리	2,146	95	849	602	347	175	78	287,338
(%)	46.4	4.4	39.6	28.1	16.2	8.2	3.6	
더 덕	376	25	148	96	56	34	17	57,875
(%)	8.1	6.6	39.4	25.5	14.9	9.0	4.5	
기타 산나물	1,014	23	243	316	252	120	60	206,228
(%)	21.9	2.3	24.0	31.2	24.9	11.8	5.9	

특성별 (전국)	임가	산나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1999)						채취량 (kg)
		5kg 미만	5~30	30~100	100~300	300~ 1,000	1,000kg 이상	
계	2,654	297	1,121	587	386	121	142	
(%)	100.0	11.2	42.2	22.1	14.5	4.6	5.4	
취나물	1,110	116	404	220	188	67	115	
(%)	41.8	10.5	36.4	19.8	16.9	6.0	10.4	
고사리	1,143	129	554	300	124	30	6	
(%)	43.1	11.3	48.5	26.2	10.8	2.6	0.5	
더덕	245	49	137	35	15	5	4	
(%)	9.2	20.0	55.9	14.3	6.1	2.0	1.6	
기타 산나물	156	3	26	32	59	19	17	
(%)	5.9	1.9	16.7	20.5	37.8	12.2	10.9	



있다. 이는 중국산 등 값싼 외국산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청정 먹거리인 우리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좀 더 채취임산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약용작물 채취는 2005년에는 총 992 임가 중에서 기타 약용작물이 76.3%(757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갈근)이 15.8%를 점한다. 1999년에는 총 262임가 중에서 기타 약용작물이 65.6%(172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창출(백출)이 15.6%를 점한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기타 약용작물과 칩(갈근) 채취 임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창출(백출)과 음양곽 채취 임가의 비중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채취규모별 임가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0~1,000kg 사이가 25~26%의 범위로 높다. 임가당 약용작물의 채취량은 전국 임가가 528.9kg이고, 품목별로 칩(갈근)이 597.4kg, 기타 약용작물이 565.4kg, 창출(백출)이 44.1kg, 음양곽이 19.5kg의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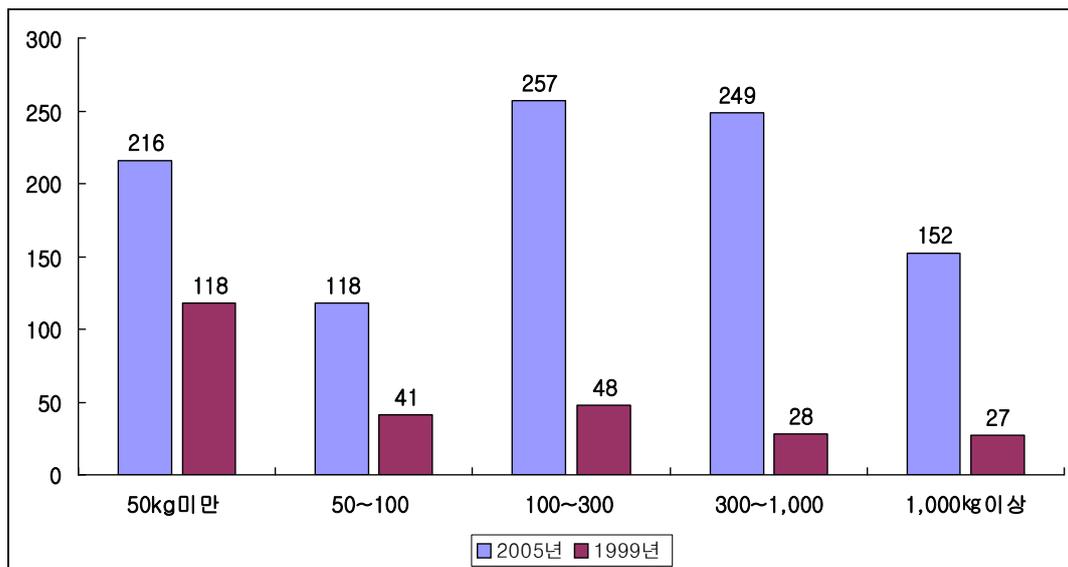
<표 7-23>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특성별(전국)	임가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2005)					채취량 (kg)
		50kg 미만	50~100	100~300	300~1,000	1,000kg 이상	
계	992	216	118	257	249	152	524,693
(%)	100.0	21.8	11.9	25.9	25.1	15.3	
칩(갈근)	157	28	20	48	19	42	93,797
(%)	15.8	17.8	12.7	30.6	12.1	26.8	
창출(백출)	56	22	269	8	0		2,468
(%)	5.6	39.3	480.4	14.3	0.0	0.0	
음양곽	22	19	3	0	0		429
(%)	2.2	86.4	13.6	0.0	0.0	0.0	
기타 약용작물	757	147	69	201	230	110	427,999
(%)	76.3	19.4	9.1	26.6	30.4	14.5	

특성별(전국)	임가	약용작물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1999)					채취량 (kg)
		50kg 미만	50~100	100~300	300~1,000	1,000kg 이상	
계	262	118	41	48	28	27	
(%)	100.0	45.0	15.6	18.3	10.7	10.3	
칩(갈근)	31	12	6	8	2	3	
(%)	11.8	38.7	19.4	25.8	6.5	9.7	
창출(백출)	41	29	5	5	1	1	
(%)	15.6	70.7	12.2	12.2	2.4	2.4	
음양곽	18	12	4	1	0	1	
(%)	6.9	66.7	22.2	5.6	0.0	5.6	
기타 약용작물	172	65	26	34	25	22	
(%)	65.6	38	15	20	15	13	

1999년에는 50kg 미만인 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0~300kg 사이가 18.3%를 차지한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50kg 이상 약용작물 채취 임가의 비율이 높아진다.

품목별 채취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에 칩(갈근)이 100~300kg 규모, 창출(백출)이 50~100kg 규모, 음양곽이 50kg 이하 규모, 기타 약용작물이 300~1,000kg 규모의 임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에는 각 품목이 50kg 미만의 임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에 비하여 전 품목에서 채취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수액채취 임가를 살펴보면, 2005년은 총 1,974임가 중 98.2%(1,938가구)가 고로쇠를 채취한 임가였다. 임가당 수액 채취량은 1,903.9ℓ 이고, 품목별로 고로쇠가 1,923.6ℓ, 기타 수액이 843ℓ의 순으로 나타난다.

1999년에는 총 873 임가 중에서 91.2%(796가구)가 고로쇠 채취 임가이고 옷 수액채취 임가는 16(1.8%)였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고로쇠 채취 임가의 비율이 높아졌고 이것은 전국의 여러 곳에서 고로쇠의 재배를 통해서 수액을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는 현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수액채취에 있어서는 1999년에는 고로쇠, 거제수, 자작나무, 옷 등을 조사하였으나, 2005년에는 고로쇠와 기타 수액으로 단순화시켜서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렵고, 특히 옷은 타 수액과 성격이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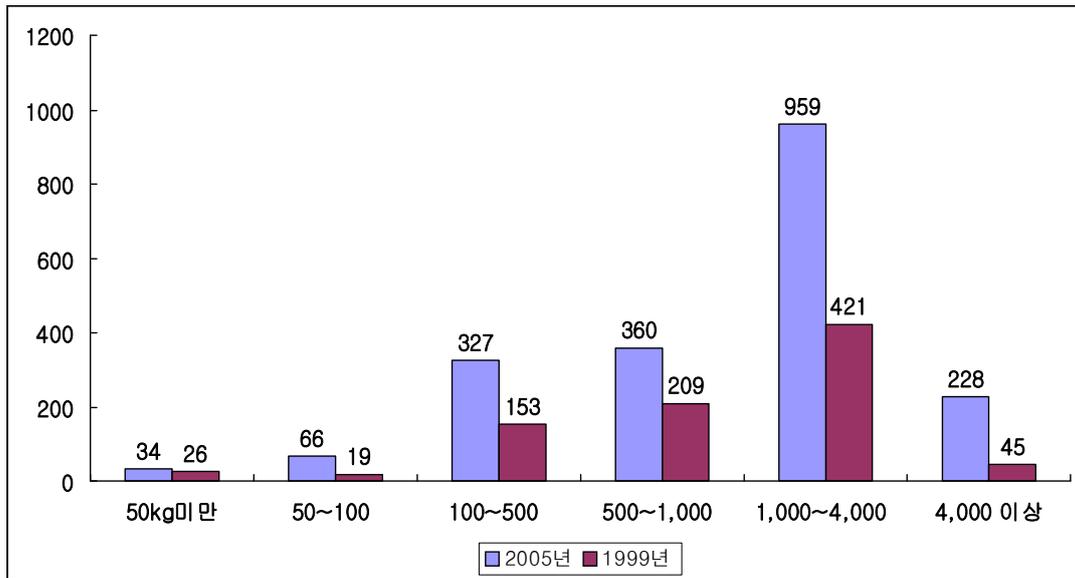
최근 임업에 있어서도 3D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하여 특히 옷은 접촉성 앨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을 가진 것으로 젊은 인력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반면에 옷의 가치는 천연 칠 재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인식되어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채취 옷의 비중은 저조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7-24> 수액채취 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

특성별 (전국)	수액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2005)							채취량 (ℓ)
	임가	50 미만	50~ 100	100~ 500	500~ 1,000	1,000~ 4,000	4,000 이상	
계	1,974	34	66	327	360	959	228	3,758,288
(%)	100.0	1.7	3.3	16.6	18.2	48.6	11.6	
고로쇠	1,938	30	64	311	352	954	227	3,727,941
(%)	98.2	1.5	3.3	16.0	18.2	49.2	11.7	
기타 수액	36	4	2	16	8	5	1	30,347
(%)	1.8	11.1	5.6	44.4	22.2	13.9	2.8	

특성별 (전국)	임가	수액 채취규모별 임가 및 채취량(1999)					
		50kg 미만	50~ 100	100~ 500	500~ 1,000	1,000~ 4,000	4,000 이상
계	873	26	19	153	209	421	45
(%)	100.0	3.0	2.2	17.5	23.9	48.2	5.2
고로쇠	796	13	12	129	196	403	43
(%)	91.2	1.6	1.5	16.2	24.6	50.6	5.4
거제수	46	1		19	12	14	
(%)	5.3	2.2	0.0	41.3	26.1	30.4	0.0
자작나무	6	1		2	1	2	
(%)	0.7	16.7	0.0	33.3	16.7	33.3	0.0
웃	16	10	5			1	
(%)	1.8	62.5	31.3	0.0	0.0	6.3	0.0
기 타	9	1	2	3		1	2
(%)	1.0	11.1	22.2	33.3	0.0	11.1	22.2

수액채취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과 1999년 조사에서 1,000~4,000 ℓ 와 1,000~4,000 kg 사이가 각각 48.6%,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999년에 비해 채취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임산물 재배

가. 산채 및 약용식물

산나물 재배를 보면, 2005년은 총 15,528 임가 중에서 취나물이 23.1%(3,584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더덕이 19.6%를 차지한다. 1999년은 총 5,140 임가 중에서 취나물이 41.5%(2,132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라지가 22.9%를 차지하였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취나물과 도라지 재배 임가의 비율이 낮아지고, 두릅 재배 임가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산나물 재배면적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1~0.5ha 사이가 46.3%로 가장 높다.

임가 당 산나물 재배면적은 0.4ha이고, 품목별로 더덕이 0.7ha, 기타 산나물이 0.4ha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0.1~0.5ha 사이가 53.7%로 가장 높았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0.05~0.5ha 사이의 비율이 낮아지고, 0.5ha 이상의 비율이 높아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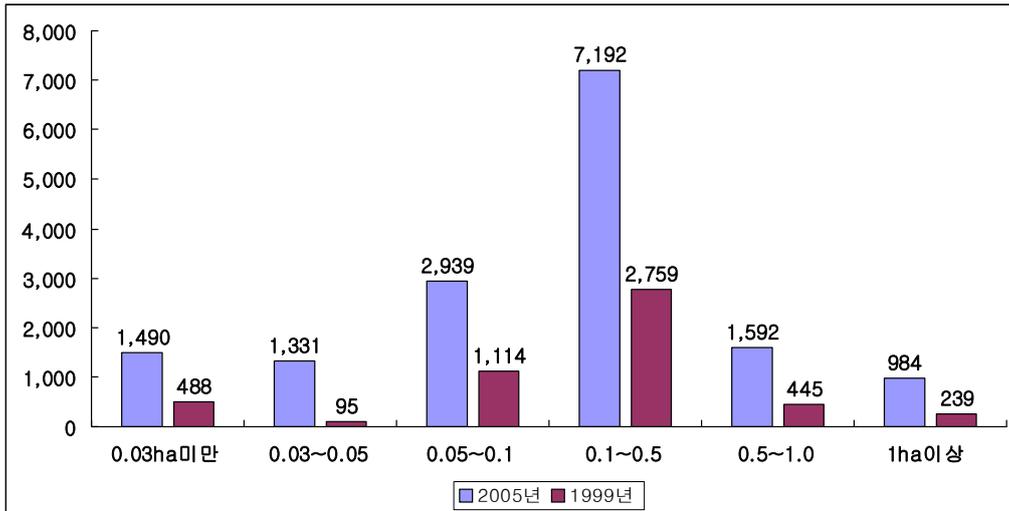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0.5ha 이상의 재배규모에서 더덕재배 임가의 비율이 높아지고, 두릅 재배 임가의 비율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7-25>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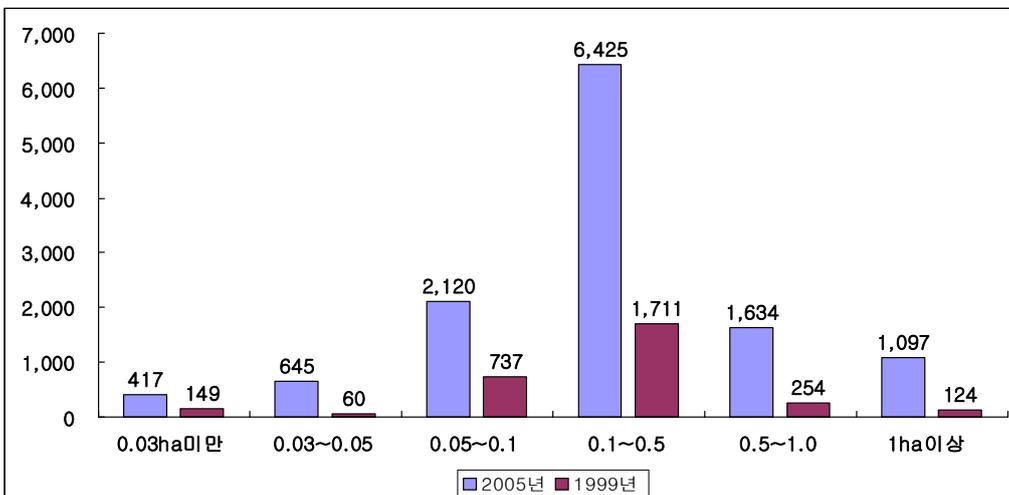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	0.05~0.1	0.1~0.5	0.5~1.0	1ha 이상	
계	15,528	1,490	1,331	2,939	7,192	1,592	984	6,259
(%)	100.0	9.6	8.6	18.9	46.3	10.3	6.3	
취나물	3,584	331	306	711	1,917	253	66	848
(%)	23.1	9.2	8.5	19.8	53.5	7.1	1.8	
더덕	3,042	231	193	438	1,297	451	432	2,279
(%)	19.6	7.6	6.3	14.4	42.6	14.8	14.2	
도라지	2,939	439	328	645	1,179	217	131	932
(%)	18.9	14.9	11.2	21.9	40.1	7.4	4.5	
두릅	2,914	338	314	574	1,270	283	135	968
(%)	18.8	11.6	10.8	19.7	43.6	9.7	4.6	
기타 산나물	3,049	151	190	571	1,529	388	220	1,233
(%)	19.6	5.0	6.2	18.7	50.1	12.7	7.2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산나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	0.05~0.1	0.1~0.5	0.5~1.0	1ha 이상	
계	5,140	488	95	1,114	2,759	445	239	
(%)	100.0	9.5	1.8	21.7	53.7	8.7	4.6	
취나물	2,132	210	52	432	1,242	159	37	
(%)	41.5	9.8	2.4	20.3	58.3	7.5	1.7	
더덕	1,014	73	12	209	501	129	90	
(%)	19.7	7.2	1.2	20.6	49.4	12.7	8.9	
도라지	1,179	100	14	315	620	77	53	
(%)	22.9	8.5	1.2	26.7	52.6	6.5	4.5	
두릅	415	60	8	77	196	44	30	
(%)	8.1	14.5	1.9	18.6	47.2	10.6	7.2	
기타 산나물	400	45	9	81	200	36	29	
(%)	7.8	11.3	2.3	20.3	50.0	9.0	7.3	

약용작물 재배를 보면, 2005년은 총 12,338 임가 중 기타약용작물이 6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오미자와 더덕이 각각 9.6%, 9.3%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3,035 임가 중 기타가 7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두충이 17.8%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창출, 산수유, 두충의 재배임가 비중이 감소하고, 오미자 재배 임가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은 0.1~0.5ha 사이가 5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5~0.1ha 사이가 17.2%의 순으로 나타난다. 임가 당 재배면적은 0.5ha이고, 품목별로 기타 약용작물이 0.6ha, 오미자와 두충이 각각 0.4ha를 기록한다. 1999년은 0.1~0.5ha 사이가 5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05~0.1ha가 24.3%를 차지한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0.05~0.5ha 규모의 재배임가 비율이 감소하고, 0.5ha 이상의 재배임가의 비중이 커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6>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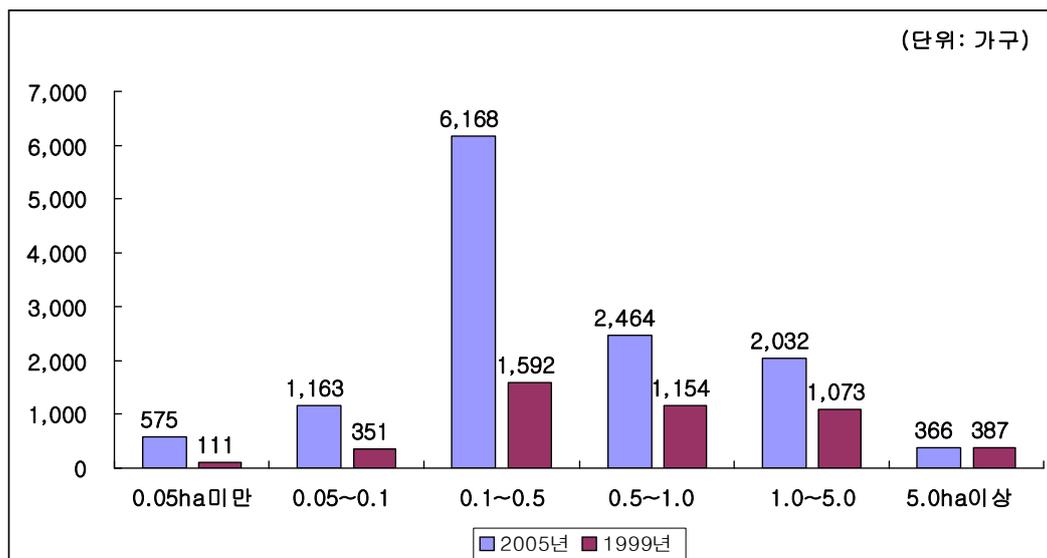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	0.05~0.1	0.1~0.5	0.5~1.0	1ha이상	
계	12,338	417	645	2,120	6,425	1,634	1,097	6,593
(%)	100.0	3.4	5.2	17.2	52.1	13.2	8.9	
창출	68	12	4	23	26	1	2	13
(%)	0.6	17.6	5.9	33.8	38.2	1.5	2.9	
산수유	708	88	105	165	317	24	9	123
(%)	5.7	12.4	14.8	23.3	44.8	3.4	1.3	
오미자	1,180	28	20	137	749	177	69	490
(%)	9.6	2.4	1.7	11.6	63.5	15.0	5.8	
두충	1,150	33	47	177	664	164	65	499
(%)	9.3	2.9	4.1	15.4	57.7	14.3	5.7	
웃	637	91	59	98	288	63	38	248
(%)	5.2	14.3	9.3	15.4	45.2	9.9	6.0	
기타 약용작물	8,595	165	410	1,520	4,381	1,205	914	5,219
(%)	69.7	1.9	4.8	17.7	51.0	14.0	10.6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약용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	0.05~0.1	0.1~0.5	0.5~1.0	1ha이상	
계	3,035	149	60	737	1,711	254	124	
(%)	100.0	4.9	2.0	24.3	56.4	8.4	4.1	
창출	46	5		14	19	5	3	
(%)	1.5	10.9	0.0	30.4	41.3	10.9	6.5	
산수유	204	58	26	55	59	5	1	
(%)	6.7	28.4	12.7	27.0	28.9	2.5	0.5	
오미자	85	9		15	50	7	4	
(%)	2.8	10.6	0.0	17.6	58.8	8.2	4.7	
두충	539	18	7	88	324	72	30	
(%)	17.8	3.3	1.3	16.3	60.1	13.4	5.6	
기타	2,161	59	27	565	1,259	165	86	
(%)	71.2	2.7	1.2	26.1	58.3	7.6	4.0	

나. 관상작물

관상작물 재배를 보면, 2005년은 총 12,768 임가 중 조경수가 60.3%(7,696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타 관상작물이 30.2%를 차지한다. 1999년은 관상작물의 재배 임가 4,820가구이고, 그 중 조경수가 77.4%(3,732가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분재가 17.3%(836가구), 야생화가 5.2%(252가구)의 순으로 차지한다. 2005년에는 기타 관상식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조경수, 분재, 야생화의 3개항목만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2005년에는 각 항목의 비중이 축소되고 반면에 기타 관상작물이 30%를 차지하게 되었다.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1~0.5ha 사이가 4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5~1.0ha 규모가 19.3%였다. 관상작물의 임가 당 재배면적은 전국평균이 0.9ha이고, 품목별로 조경수와 기타관상작물이 각각 1.0ha, 야생화가 0.5ha, 분재가 0.4ha 순이었다.



관상작물별 재배규모의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은 0.1~0.5ha 사이의 재배임가가 가장 높다. 1999년에는 조경수와 야생화가 0.1~0.5ha 규모의 재배임가가 가장 높고, 분재는 0.5~1.0ha 규모의 재배임가가 높다.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조경수와 야생화는 0.1ha 이하 규모 임가의 비중이 높아지고, 0.5ha 이상의 중·대규모의 비율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소득사업으로서 관상수와 조경수 등의 재배가 확대되어 소규모 영세 재배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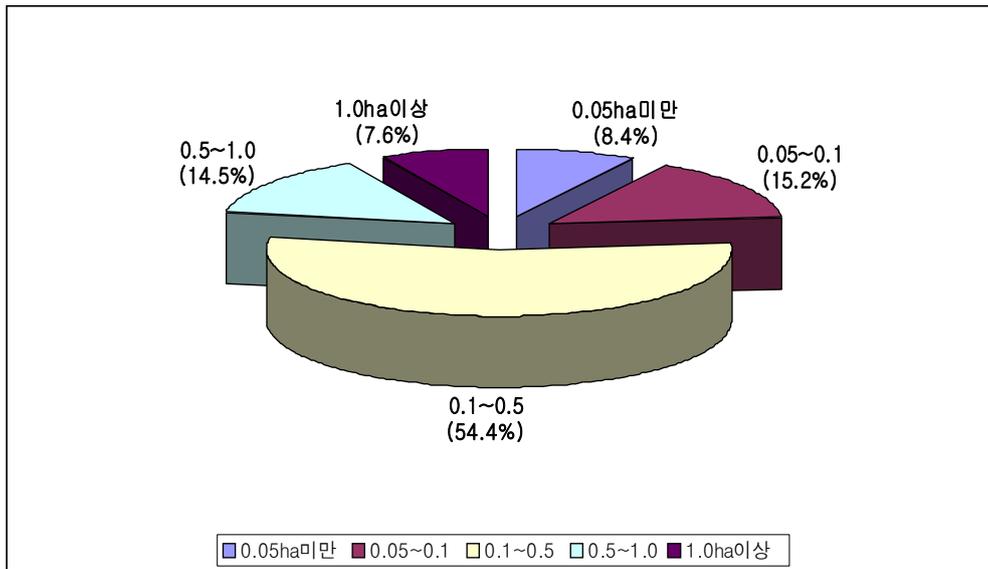
<표 7-27>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5ha 미만	0.05~0.1	0.1~0.5	0.5~1.0	1.0~5.0	5.0ha 이상	
계	12,768	575	1,163	6,168	2,464	2,032	366	12,002
(%)	100.0	4.5	9.1	48.3	19.3	15.9	2.9	
조경수	7,696	192	671	3,941	1,456	1,189	247	7,600
(%)	60.3	2.5	8.7	51.2	18.9	15.4	3.2	
분재	716	154	141	299	77	42	3	262
(%)	5.6	21.5	19.7	41.8	10.8	5.9	0.4	
야생화	495	111	82	192	51	55	4	248
(%)	3.9	22.4	16.6	38.8	10.3	11.1	0.8	
기타 관상작물	3,861	118	269	1,736	880	746	112	3,891
(%)	30.2	3.1	7.0	45.0	22.8	19.3	2.9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관상작물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05ha 미만	0.05~0.1	0.1~0.5	0.5~1.0	1.0~5.0	5.0ha 이상	
계	4,668	111	351	1,592	1,154	1,073	387	
(%)	100.0	2.4	7.5	34.1	24.7	23.0	8.3	
조경수	3,732	75	253	3,214	787	902	292	
(%)	100.0	2.0	6.8	38.1	21.1	24.2	7.8	
분재	836	29	89	128	348	152	90	
(%)	100.0	3.5	10.6	15.3	41.6	18.2	10.8	
야생화	252	18	22	103	47	49	13	
(%)	100.0	7.1	8.7	40.9	18.7	19.4	5.2	

다. 종실류

2005년의 기타 유실수 재배 임가를 살펴보면, 총 1,927 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59.6%(1,148가구)를 차지하고, 산림보유 규모별로는 1.0~3.0ha 규모의 임가가 12.9%를 차지한다.



재배면적 규모로 살펴보면, 0.1~0.5ha 사이가 5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5~0.1 ha 사이가 15.2%를 차지한다. 임가당 평균재배면적은 0.5ha이다. 산림보유 면적별로 30.0 ha 이상이 평균 1ha, 10.0~30.0ha 규모 임가가 평균 2.4ha, 5.0~10.0ha 규모 임가가 평균 1ha로 나타난다.

기타 유실수 재배규모 0.1~0.5ha 규모는 산림보유규모 중 0.1~1.0ha 사이의 비율이 50% 이상이고, 기타 유실수 재배규모가 1.0ha 이상인 임가는 산림보유규모가 5ha 이상인 임가의 비율이 28~40%로 높게 나타났다.

<표 7-28> 기타 유실수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기타 유실수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5ha 미만	0.05~0.1	0.1~0.5	0.5~1.0	1.0ha 이상	
계	1,927	161	292	1,048	280	146	955
(%)	100.0	8.4	15.2	54.4	14.5	7.6	
무소유	1,148	79	165	698	153	53	425
(%)	59.6	6.9	14.4	60.8	13.3	4.6	
0.1ha 미만	10	2	6	1	1	0	2
(%)	0.5	20.0	60.0	10.0	10.0	0.0	
0.1~0.6	131	23	21	79	8	0	30
(%)	6.8	17.6	16.0	60.3	6.1	0.0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기타 유실수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5ha 미만	0.05~0.1	0.1~0.5	0.5~1.0	1.0ha 이상	
0.6~1.0	117	16	15	59	27	0	39
(%)	6.1	13.7	12.8	50.4	23.1	0.0	
1.0~3.0	248	18	44	117	41	28	121
(%)	12.9	7.3	17.7	47.2	16.5	11.3	
3.0~5.0	113	9	15	45	29	15	77
(%)	5.9	8.0	13.3	39.8	25.7	13.3	
5.0~10.0	104	9	20	32	14	29	109
(%)	5.4	8.7	19.2	30.8	13.5	27.9	
10.0~30.0	46	5	6	13	5	17	110
(%)	2.4	10.9	13.0	28.3	10.9	37.0	
30.0ha 이상	10			4	2	4	41
(%)	0.5	0.0	0.0	40.0	20.0	40.0	

라. 밤

산림보유 규모별 밤나무 재배임가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21,465 임가 중 1.0~3.0ha 사이가 37.4 % (8,030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6~1.0ha 사이가 22.7%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17,227 임가 중 1.0~3.0ha 사이가 34.7% (5,981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6~1.0ha 사이가 15.6 %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산림보유 규모별 밤나무 재배 임가의 비중은 0.1~3.0ha 규모의 비중이 높아지고, 3.0ha 이상 중·대규모 산림보유 임가의 밤나무 재배 비중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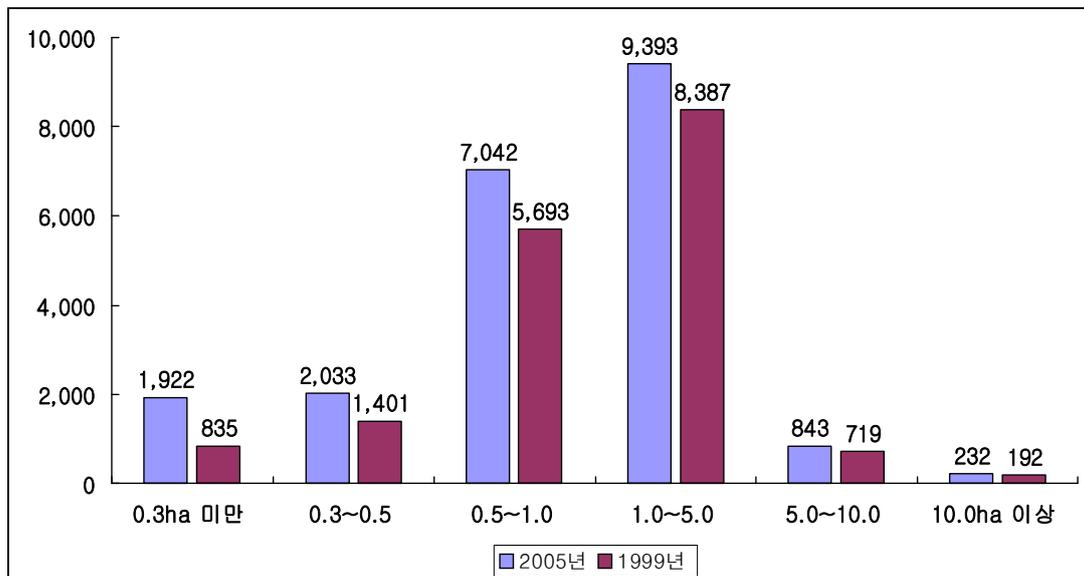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5.0ha 규모가 43.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5~1.0ha 규모가 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산림보유 임가당 밤나무 재배면적은 1.9ha 이고, 산림보유규모별 밤나무 재배면적은 10.0~30.0ha 규모가 평균 7.2 ha, 5.0~10.0ha 규모의 평균 4.2ha, 3.0~5.0ha 규모가 평균 2.7ha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1.0~5.0ha 규모의 비중이 4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0.5~1.0ha 사이가 33.0%의 순이었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0.5ha 이하의 비율은 높아지고, 0.5~10.0ha 사이의 비율은 낮아진다.

<표 7-29>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3ha 미만	0.3~0.5	0.5~1.0	1.0~5.0	5.0~10.0	10.0ha 이상	
계	21,465	1,922	2,033	7,042	9,393	843	232	41,046
(%)	100.0	9.0	9.5	32.8	43.8	3.9	1.1	
무소유	1,396	680	240	284	168	17	7	1,029
(%)	6.5	48.7	17.2	20.3	12.0	1.2	0.5	
0.1ha 미만	68	67		1	0	0		7
(%)	0.3	98.5	0.0	1.5	0.0	0.0	0.0	
0.1~0.6	1,539	550	855	116	18	0		549
(%)	7.2	35.7	55.6	7.5	1.2	0.0	0.0	
0.6~1.0	4,867	159	379	4,288	37	4		4,125
(%)	22.7	3.3	7.8	88.1	0.8	0.1	0.0	
1.0~3.0	8,030	220	333	1,664	5,808	3	2	13,514
(%)	37.4	2.7	4.1	20.7	72.3	0.0	0.0	
3.0~5.0	3,008	120	121	408	2,356	0	3	8,271
(%)	14.0	4.0	4.0	13.6	78.3	0.0	0.1	
5.0~10.0	1,854	79	76	204	787	704	4	7,815
(%)	8.6	4.3	4.1	11.0	42.4	38.0	0.2	
10.0~30.0	585	36	28	63	179	97	182	4,237
(%)	2.7	6.2	4.8	10.8	30.6	16.6	31.1	
30.0ha 이상	118	11	1	14	40	18	34	1,500
(%)	0.5	9.3	0.8	11.9	33.9	15.3	28.8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3ha 미만	0.3~0.5	0.5~1.0	1.0~5.0	5.0~10.0	10.0ha 이상	
계	17,227	835	1,401	5,693	8,387	719	192	
(%)	100.0	4.8	8.1	33.0	48.7	4.2	1.1	
무소유	2,727	185	264	896	1,216	125	41	
(%)	15.8	6.8	9.7	32.9	44.6	4.6	1.5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밤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3ha 미만	0.3~0.5	0.5~1.0	1.0~5.0	5.0~10.0	10.0ha 이상	
0.1ha 미만	202	121	8	34	35	2	2	
(%)	1.2	59.9	4.0	16.8	17.3	1.0	1.0	
0.1~0.6	759	142	374	147	89	6	1	
(%)	4.4	18.7	49.3	19.4	11.7	0.8	0.1	
0.6~1.0	2,689	95	266	2,100	198	20	10	
(%)	15.6	3.5	9.9	78.1	7.4	0.7	0.4	
1.0~3.0	5,981	154	268	1,657	3,861	30	11	
(%)	34.7	2.6	4.5	27.7	64.6	0.5	0.2	
3.0~5.0	2,506	62	114	464	1,824	33	9	
(%)	14.5	2.5	4.5	18.5	72.8	1.3	0.4	
5.0~10.0	1,708	53	66	264	856	385	84	
(%)	9.9	3.1	3.9	15.5	50.1	22.5	4.9	
10.0~30.0	517	14	35	111	239	91	27	
(%)	3.0	2.7	6.8	21.5	46.2	17.6	5.2	
30.0ha 이상	138	9	6	20	69	27	7	
(%)	0.8	6.5	4.3	14.5	50.0	19.6	5.1	



마. 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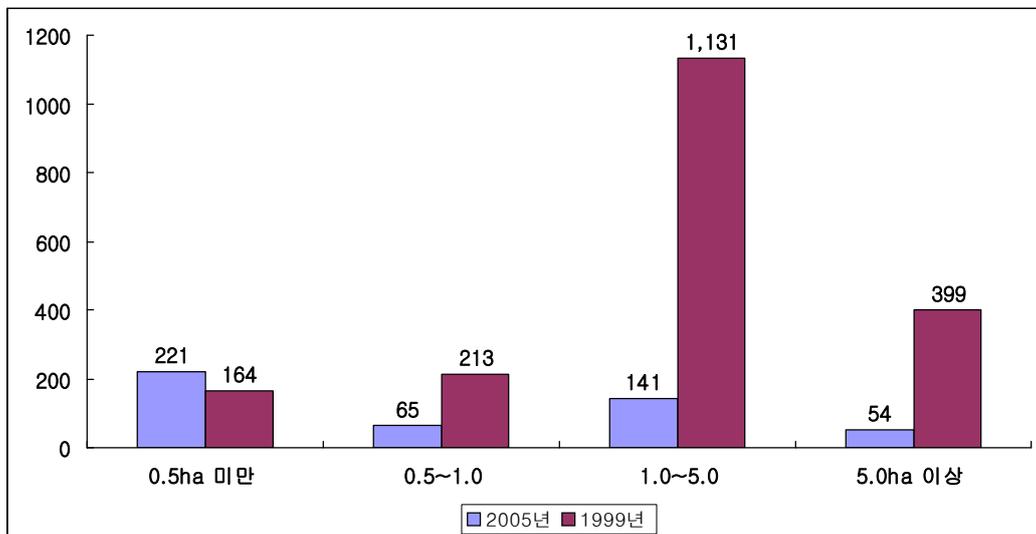
잣나무 재배임가를 보면, 2005년에는 총 481 임가 중 5.0~10.0ha 사이가 17.7%(85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5.0ha 사이가 16.6%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1,907 임가 중 3.0~5.0ha 사이가 26.3%(501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10.0ha 사이가 24.4%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재배임가의 수도 줄었을 뿐 아니라 중·대형규모 산림보유 임가의 비중도 축소되어 잣 생산의 감소를 대변하고 있다.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5ha 미만이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0~5.0ha 사이가 29.3%로 나타난다. 산림보유 임가 당 평균 잣나무 재배면적은 2.3ha 이고, 산림보유 규모별 잣나무 재배면적은 30.0ha 이상이 평균 11ha, 10.0~30.0ha 규모가 평균 4.9ha, 5.0~10.0ha 규모가 평균 2.9ha를 보이고 있다.

<표 7-30>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5ha 미만	0.5~1.0	1.0~5.0	5.0ha 이상	
계	481	221	65	141	54	1,117
(%)	100.0	45.9	13.5	29.3	11.2	
무소유	110	88	13	8	1	59
(%)	22.9	80.0	11.8	7.3	0.9	
0.1ha 미만	1	1		0		0
(%)	0.2	100.0	0.0	0.0	0.0	
0.1~0.6	21	20		1		8
(%)	4.4	95.2	0.0	4.8	0.0	
0.6~1.0	24	16	7	0	1	15
(%)	5.0	66.7	29.2	0.0	4.2	
1.0~3.0	80	34	19	26	1	88
(%)	16.6	42.5	23.8	32.5	1.3	
3.0~5.0	80	19	10	50	1	173
(%)	16.6	23.8	12.5	62.5	1.3	
5.0~10.0	85	25	8	31	21	248
(%)	17.7	29.4	9.4	36.5	24.7	
10.0~30.0	58	17	5	18	18	286
(%)	12.1	29.3	8.6	31.0	31.0	
30.0ha 이상	22	1	3	7	11	241
(%)	4.6	4.5	13.6	31.8	50.0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잣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5ha 미만	0.5~1.0	1.0~5.0	5.0ha 이상	
계	1,907	164	213	1,131	399	
(%)	100.0	8.6	11.2	59.3	20.9	
무소유	79	17	11	41	10	
(%)	4.1	21.5	13.9	51.9	12.7	
0.2ha 미만	3	3			0	
(%)	0.2	100.0	0.0	0.0	0.0	
0.2~0.6	25	16	5	4	0	
(%)	1.3	64.0	20.0	16.0	0.0	
0.6~1.0	47	22	21	3	1	
(%)	2.5	46.8	44.7	6.4	2.1	
1.0~3.0	326	29	55	241	1	
(%)	17.1	8.9	16.9	73.9	0.3	
3.0~5.0	501	30	45	422	4	
(%)	26.3	6.0	9.0	84.2	0.8	
5.0~10.0	466	25	43	243	155	
(%)	24.4	5.4	9.2	52.1	33.3	
10.0~30.0	317	13	23	132	149	
(%)	16.6	4.1	7.3	41.6	47.0	
30ha 이상	143	9	10	172	79	
(%)	7.5	6.3	7.0	120.3	55.2	



1999년에는 1.0~5.0ha 사이가 5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5ha 이상이 20.9%의 순으로 높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잣나무 재배면적의 비중이 1.0~5.0ha에서 0.5ha 미만으로 급격하게 하향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바. 호도

호도나무 재배임가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1,209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65.7%로 매우 높고, 산림보유 규모별로 1.0~3.0ha 사이의 임가가 8.5%(103가구)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총 794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62%로 제일 높고, 산림보유 규모별로는 1.0~3.0ha 사이의 임가가 10.1%(80가구)를 차지한다. 2005년에는 1999년에 비하여 재배임가는 증가하였으나 재배규모가 매우 축소되고 임가의 산림보유규모에 있어서도 비소유의 임가가 증가한데 따라 전체적으로 재배임가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1~0.5ha 사이가 4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5~0.1ha 사이가 15.8%의 순으로 높다. 산림보유 임가당 호도나무 재배면적은 0.4ha이고, 산림보유 규모별로 30.0ha 이상이 1.0ha, 10.0~30.0ha 사이가 0.7ha, 3.0~10.0ha 사이가 0.5ha의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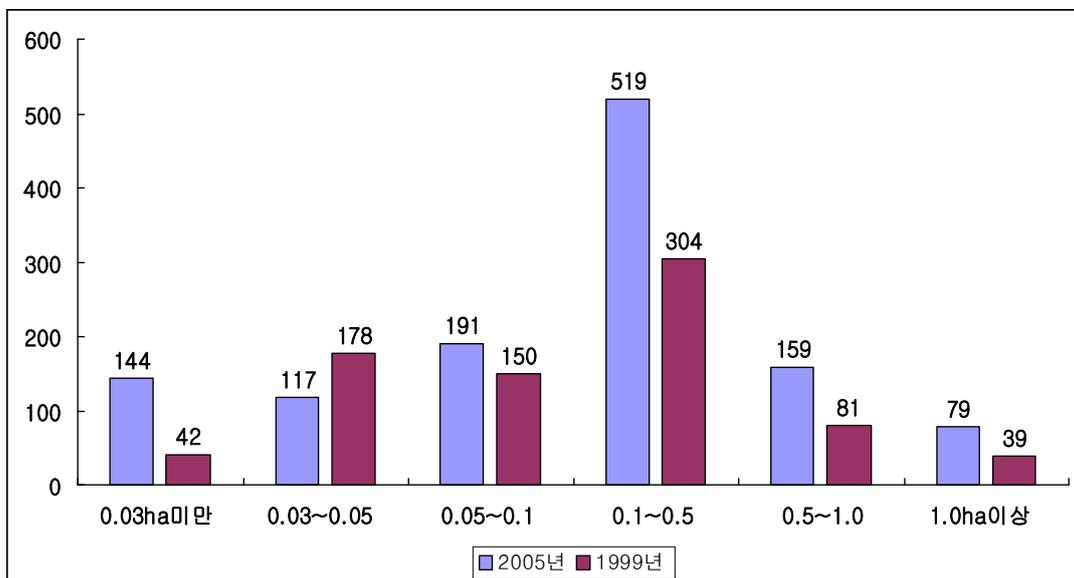
<표 7-31>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	0.05~0.1	0.1~0.5	0.5~1.0	1.0ha 이상	
계	1,209	144	117	191	519	159	79	445
(%)	100.0	11.9	9.7	15.8	42.9	13.2	6.5	
무소유	794	82	79	123	374	105	31	254
(%)	65.7	10.3	9.9	15.5	47.1	13.2	3.9	
0.1ha 미만	6	2		1	3	0		1
(%)	0.5	33.3	0.0	16.7	50.0	0.0	0.0	
0.1~0.6	43	8	5	7	20	2	1	10
(%)	3.6	18.6	11.6	16.3	46.5	4.7	2.3	
0.6~1.0	61	9	6	11	24	11		16
(%)	5.0	14.8	9.8	18.0	39.3	18.0	0.0	
1.0~3.0	103	13	7	18	38	15	12	44
(%)	8.5	12.6	6.8	17.5	36.9	14.6	11.7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	0.05~0.1	0.1~0.5	0.5~1.0	1.0ha 이상	
3.0~5.0	80	10	7	12	29	13	9	41
(%)	6.6	12.5	8.8	15.0	36.3	16.3	11.3	
5.0~10.0	71	14	9	11	18	7	12	37
(%)	5.9	19.7	12.7	15.5	25.4	9.9	16.9	
10.0~30.0	35	4	4	6	8	4	9	25
(%)	2.9	11.4	11.4	17.1	22.9	11.4	25.7	
30.0ha 이상	16	2		2	5	2	5	16
(%)	1.3	13	0	13	31	1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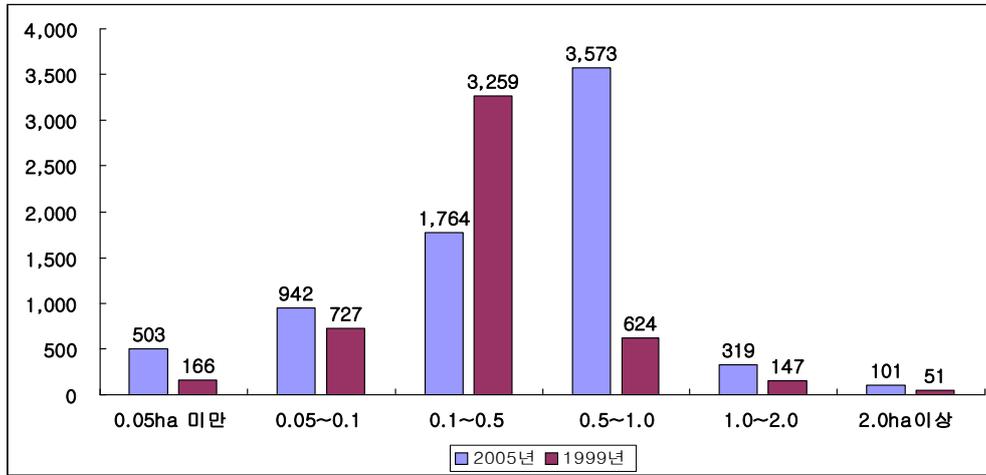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호도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03ha 미만	0.03~0.05	0.05~0.1	0.1~0.5	0.5~1.0	1.0ha 이상	
계	794	42	178	150	304	81	39	
(%)	100.0	5.3	22.4	18.9	38.3	10.2	4.9	
무소유	492	22	138	105	173	41	13	
(%)	62.0	4.5	28.0	21.3	35.2	8.3	2.6	
0.2ha 미만	11			6	5	0	0	
(%)	1.4	0.0	0.0	54.5	45.5	0.0	0.0	
0.2~0.6	24	2	3	4	10	2	3	
(%)	3.0	8.3	12.5	16.7	41.7	8.3	12.5	
0.6~1.0	49	4	4	7	24	10	0	
(%)	6.2	8.2	8.2	14.3	49.0	20.4	0.0	
1.0~3.0	80	5	16	11	35	7	6	
(%)	10.1	6.3	20.0	13.8	43.8	8.8	7.5	
3.0~5.0	49	4	10	6	20	8	1	
(%)	6.2	8.2	20.4	12.2	40.8	16.3	2.0	
5.0~10.0	47	4	4	5	19	5	10	
(%)	5.9	8.5	8.5	10.6	40.4	10.6	21.3	
10.0~30.0	31	1	2	5	12	6	5	
(%)	3.9	3.2	6.5	16.1	38.7	19.4	16.1	
30ha 이상	11		1	1	6	2	1	
(%)	1.4	0	9	9	55	18	9	

1999년에는 0.1~0.5ha 사이가 3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5~0.1ha 사이가 18.9%의 순으로 높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0.03~0.05ha 사이의 비중은 낮아지고, 0.05ha 이상의 비중은 높아진다. 호도나무 재배규모별 산림보유면적의 임가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호도나무 재배면적 0.1~0.5ha 사이의 임가 중 산림보유면적 0.1~5.0ha 사이의 비율이 30~40% 범위로 높다. 1999년에는 호도나무 재배면적 0.1~0.5ha 사이의 임가 중 산림보유면적 0.6~10.0ha 사이의 비율이 40%대로 높다. 2005년은 1999년 대비 호도나무 재배 임가가 0.1~0.5ha 사이에 산림보유면적의 비중이 0.6ha 이하에서 높아지고, 0.6ha 이상 중·대규모 임가에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사. 대추

대추나무 재배 임가는 2005년에는 총 7,202 임가 중 산림이 없는 임가가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1999년에는 총 4,974 임가 중 산림을 소유하지 않은 임가가 79.9%였는데 비해서도 산림을 임대하여 대추를 재배하는 임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32> 대추나무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대추나무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5ha 미만	0.05~0.1	0.1~0.5	0.5~1.0	1.0~2.0	2.0ha 이상	
계	7,202	503	942	1,764	3,573	319	101	2,797
(%)	100.0	7.0	13.1	24.5	49.6	4.4	1.4	
무소유	6,580	351	854	1,666	3,328	289	92	2,574
(%)	91.4	5.3	13.0	25.3	50.6	4.4	1.4	
0.1ha 미만	10	6	2	1	1			1
(%)	0.1	60.0	20.0	10.0	10.0	0.0	0.0	
0.1~0.6	118	36	10	17	52	3		29
(%)	1.6	30.5	8.5	14.4	44.1	2.5	0.0	
0.6~1.0	91	21	9	17	42	2		32
(%)	1.3	23.1	9.9	18.7	46.2	2.2	0.0	
1.0~3.0	143	31	28	22	48	13	1	55
(%)	2.0	21.7	19.6	15.4	33.6	9.1	0.7	
3.0~5.0	134	29	14	24	59	4	4	59
(%)	1.9	21.6	10.4	17.9	44.0	3.0	3.0	
5.0~10.0	68	19	9	7	27	6		25
(%)	0.9	27.9	13.2	10.3	39.7	8.8	0.0	
10.0~30.0	47	8	12	9	14	1	3	18
(%)	0.7	17.0	25.5	19.1	29.8	2.1	6.4	
30.0ha 이상	11	2	4	1	2	1	1	5
(%)	0.2	18.2	36.4	9.1	18.2	9.1	9.1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대추나무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05ha 미만	0.05~0.1	0.1~0.5	0.5~1.0	1.0~2.0	2.0ha 이상	
계	4,974	166	727	3,259	624	147	51	
(%)	100.0	3.3	14.6	65.5	12.5	3.0	1.0	
무소유	3,304	101	484	2,200	395	98	26	
(%)	66.4	3.1	14.6	66.6	12.0	3.0	0.8	
0.2ha 미만	291	12	68	197	11	1	2	
(%)	5.9	4.1	23.4	67.7	3.8	0.3	0.7	
0.2~0.6	391	5	24	319	39	3	1	
(%)	7.9	1.3	6.1	81.6	10.0	0.8	0.3	
0.6~1.0	290	7	27	161	88	7	0	
(%)	5.8	2.4	9.3	55.5	30.3	2.4	0.0	
1.0~3.0	352	13	62	197	50	23	7	
(%)	7.1	3.7	17.6	56.0	14.2	6.5	2.0	
3.0~5.0	139	15	23	76	16	5	4	
(%)	2.8	10.8	16.5	54.7	11.5	3.6	2.9	
5.0~10.0	120	8	22	63	16	5	6	
(%)	2.4	6.7	18.3	52.5	13.3	4.2	5.0	
10.0~30.0	67	4	13	35	8	3	4	
(%)	1.3	6.0	19.4	52.2	11.9	4.5	6.0	
30ha 이상	20	1	4	11	1	2	1	
(%)	0.4	5.0	20.0	55.0	5.0	10.0	5.0	

대추나무 재배면적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0.5~1.0ha 사이가 49.6%로 가장 높고, 1999년에는 0.1~0.5ha 사이가 65.5%로 가장 높다. 대추나무 재배면적은 임가당 0.4ha의 수준이다. 2005년에는 1999년 대비 호두나무 재배면적규모의 최빈층이 0.1~0.5ha에서 0.5~1.0ha로 상향 이동하였다.

아. 표고

표고버섯 재배조사는 2005년은 시설재배와 노지재배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되었기

<표 7-33> 표고버섯 재배면적 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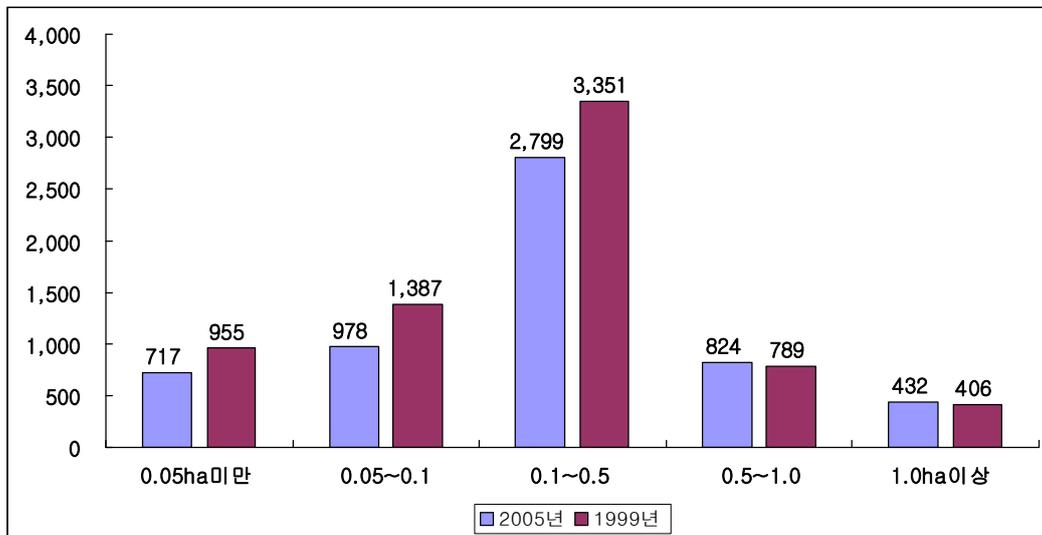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표고버섯 재배면적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2005)					면적 (ha)
		0.05ha 미만	0.05~0.1	0.1~0.5	0.5~1.0	1.0ha 이상	
시설	4,017	344	719	2,218	564	172	1,412
(%)	65.2	8.6	17.9	55.2	14.0	4.3	
노지	2,141	453	408	769	295	216	1,096
(%)	34.8	21.2	19.1	35.9	13.8	10.1	
계	6,158	717	978	2,799	824	432	2,509
(%)	100.0	11.6	15.9	45.5	13.4	7.0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표고버섯 재배규모별 임가 및 재배면적(1999)					면적 (ha)
		0.05ha 미만	0.05~0.1	0.1~0.5	0.5~1.0	1.0ha 이상	
계	6,888	955	1,387	3,351	789	406	
(%)	100.0	13.9	20.1	48.6	11.5	5.9	
무소유	4,107	581	861	2,031	432	202	
(%)	59.6	14.1	21.0	49.5	10.5	4.9	
0.2ha 미만	221	36	64	100	17	4	
(%)	3.2	16.3	29.0	45.2	7.7	1.8	
0.2~0.6	375	35	59	229	38	14	
(%)	5.4	9.3	15.7	61.1	10.1	3.7	
0.6~1.0	492	57	86	245	83	21	
(%)	7.1	11.6	17.5	49.8	16.9	4.3	
1~3	739	120	146	327	81	65	
(%)	10.7	16.2	19.8	44.2	11.0	8.8	
3~5	369	56	76	159	41	37	
(%)	5.4	15.2	20.6	43.1	11.1	10.0	
5~10	314	38	59	139	49	29	
(%)	4.6	12.1	18.8	44.3	15.6	9.2	
10~30	181	19	28	88	29	17	
(%)	2.6	10.5	15.5	48.6	16.0	9.4	
30ha 이상	90	13	8	33	19	17	
(%)	1.3	14.4	8.9	36.7	21.1	18.9	

때문에 1999년 조사와 차이가 난다.

표고버섯 재배 임가의 면적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6,158 임가중 시설재배가 65.2%(4,017가구)이고 노지재배가 34.8%(2,141가구)였다. 시설재배 임가의 평균재배면적은 0.4ha이고, 노지재배의 평균재배면적은 0.5ha이었다. 1999년은 총 6,888 임가 중 산림을 소유하지 않는 임가가 59.6%로 가장 많았다.

표고버섯 재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0.1~0.5ha 사이가 4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05~0.1ha 사이가 15.9%를 차지한다. 1999년에는 0.1~0.5ha 사이가 4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0.05~0.1ha 사이가 20.1%를 차지한다. 표고재배 임가 비율이 2005년은 1999년에 비하여 소규모 재배임가의 비중은 축소되고 중대규모 재배임가의 비중이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산 건표고 등 외부적인 충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표고재배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2005년도 조사에서는 재배방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재배기술의 개발로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향을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다.



VI. 임가 및 산촌사회

1. 정보화 수준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임가는 전국 임가의 40.3%(39,156가구)를 점하고, 임가당 0.4대의 컴퓨터를 보유한다. 컴퓨터 보유 임가 중 남성이 93.2%로

여성보다 매우 높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임가는 전국 임가의 12.8%를 점하고, 그 중에서 임업정보수집이 10.6%로 가장 높다. 반면 임산물 판매 등예의 활용은 2% 이하로 극히 낮다. 홈페이지 개설 임가는 전국 임가의 0.8%(799가구)에 불과하다.

<표 7-34> 정보화 현황 및 자동차 보유(2005)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컴퓨터 보유 임가	임업활용				
			컴퓨터 활용 임가	활용용도			홈페이지 개설임가
				임업정보 수집	임산물 판매	기타임업에 활용	
계	97,108	39,156	12,406	10,264	1,635	1,823	799
(%)	100.0	40.3	12.8	10.6	1.7	1.9	0.8
남자	84,754	36,479	11,761	9,731	1,580	1,718	769
(%)	87.3	43.0	13.9	11.5	1.9	2.0	0.9
여자	12,354	2,677	645	533	55	105	30
(%)	12.7	21.7	5.2	4.3	0.4	0.8	0.2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자동차 보유현황				
		자동차 보유 임가	자동차 종류별			
			승용차	승합차	화물 및 기타	없음
계	97,108	58,154	31,293	3,888	34,573	38,954
(%)	100.0	59.9	32.2	4.0	35.6	40.1
남자	84,754	54,594	28,855	3,693	33,135	30,160
(%)	87.3	64.4	34.0	4.4	39.1	35.6
여자	12,354	3,560	2,438	195	1,438	8,794
(%)	12.7	28.8	19.7	1.6	11.6	71.2

자동차 보유 임가는 전국 임가의 60%를 점하고, 임가당 0.6대의 자동차를 보유한다. 자동차 종류별로는 승용차의 비중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전국 여성 임가 중 20%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생활편의

생활시설 이동수단은 자동차가 가장 높다. 도보로 이동하던 자동차를 이용하던 15분 미만으로 대부분 목적지에 닿을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 15~60분의 비중이 높았다. 가장 근거리에 소재하는 기관으로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며, 병의원 등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아울러 소요시간도 비교적 장시간이 많았다.

<표 7-35> 생활시설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별 임가(2005)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걸어서				자동차			
		소계	15분미만	15~60	60분이상	소계	15분미만	15~60	60분이상
읍면동사무소	97,108	17,741	11,557	5,886	298	66,234	39,299	26,576	359
(%)	100.0	18.3	11.9	6.1	0.3	68.2	40.5	27.4	0.4
금융기관	97,108	18,649	12,955	5,422	272	65,411	38,982	26,133	296
(%)	100.0	19.2	13.3	5.6	0.3	67.4	40.1	26.9	0.3
병·의원	97,108	12,248	8,487	3,564	197	72,907	23,295	46,837	2,775
(%)	100.0	12.6	8.7	3.7	0.2	75.1	24.0	48.2	2.9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기타			
		소계	15분미만	15~60	60분이상
읍면동사무소	97,108	13,133	6,204	6,712	217
(%)	100.0	13.5	6.4	6.9	0.2
금융기관	97,108	13,048	6,290	6,561	197
(%)	100.0	13.4	6.5	6.8	0.2
병·의원	97,108	11,953	3,608	7,758	587
(%)	100.0	12.3	3.7	8.0	0.6

2005년의 임업총조사는 문화용품보유 현황을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1999년 문화용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휴대용전화기, 비디오 등 전자정보통신기기의 보유가 높고, 수세식화장실 등 현대화된 시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36> 문화용품 및 시설별 임가수(1999)

특성별 (전국)	계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승용차	원동기 자전거	휴대용 전화기	입식부엌	도시가스	에어컨	수세식 화장실
계	325,441	75,977	17,725	40,154	28,920	19,457	65,345	25,376	5,885	5,885	40,717
(%)	100.0	23	5	12	9	6	20	8	2	2	13
무소유	104,512	25,493	5,300	12,891	9,347	6,976	21,588	8,360	1,027	1,303	12,227
(%)	32.1	24	5	12	9	7	21	8	1	1	12
0.2ha 미만	5,896	1,402	307	709	484	451	1,188	437	103	85	730
(%)	1.8	24	5	12	8	8	20	7	2	1	12
0.2~1.0	37,590	9,188	1,868	4,549	2,957	2,572	7,889	2,663	576	549	4,779
(%)	11.6	24	5	12	8	7	21	7	2	1	13
1.0~10	153,654	35,273	8,507	18,991	13,573	8,573	30,615	11,707	3,426	3,073	19,916
(%)	47.2	23	6	12	9	6	20	8	2	2	13
10~50	19,981	3,953	1,433	2,546	2,103	768	3,474	1,822	619	682	2,581
(%)	6.1	20	7	13	11	4	17	9	3	3	13
50~100	2,304	408	184	287	276	73	365	227	77	106	301
(%)	0.7	18	8	12	12	3	16	10	3	5	13
100ha 이상	1,504	260	126	181	180	44	226	160	57	87	183
(%)	0.5	17	8	12	12	3	15	11	4	6	12

3. 주거 및 난방

2005년 임가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이 91.7%로 매우 높다. 난방시설별 비중은 기름보일러가 매우 높고, 그 다음이 전기보일러의 순으로 나타난다. 연탄보일러, 연탄아궁이, 채래시아궁이 등 채래식은 많이 개선되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난방시설을 살펴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도시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의 이용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37> 난방시설별 임가(2005)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난방시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계	97,108	702	295	3,173	68,279	1,405	12,350	3,906	320	2,945	3,733
(%)	100.0	0.7	0.3	3.3	70.3	1.4	12.7	4.0	0.3	3.0	3.8
단독주택	89,038		2	623	65,715	214	11,932	3,783	315	2,906	3,548
(%)	91.7	0.0	0.0	0.7	73.8	0.2	13.4	4.2	0.4	3.3	4.0
아파트	4,648	695	288	2,261	385	1,007	9	3			
(%)	4.8	15.0	6.2	48.6	8.3	21.7	0.2	0.1	0.0	0.0	0.0
연립주택	613	7	5	114	390	89	7	1			
(%)	0.6	1.1	0.8	18.6	63.6	14.5	1.1	0.2	0.0	0.0	0.0
다세대주택	363			102	197	58	6				
(%)	0.4	0.0	0.0	28.1	54.3	16.0	1.7	0.0	0.0	0.0	0.0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294			69	856	22	284	18		2	43
(%)	1.3	0.0	0.0	5.3	66.2	1.7	21.9	1.4	0.0	0.2	3.3
주택 이외 거처	1,152			4	736	15	112	101	5	37	142
(%)	1.2	0.0	0.0	0.3	63.9	1.3	9.7	8.8	0.4	3.2	12.3

주거시설형태를 살펴보면, 부엌은 입식이 96.3%로 매우 높다. 수도는 마을상수도가 40.3%를 점하고, 상수도가 없는 임가도 26.3%로 높은 편이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72.2%, 목욕시설은 온수시설이 90.2%를 점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43.5%의 임가가 마을상수도를 이용한다. 수도가 없는 임가가 27.8%, 화장실은 재래식이 29.5%로 높아 생활환경시설은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상수도와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표 7-38> 주거시설형태별 임가(2005)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부업			수도			
		입식	채래식	없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자가 수도	없음
계	97,108	93,479	3,521	108	27,237	39,106	5,253	25,512
(%)	100.0	96.3	3.6	0.1	28.0	40.3	5.4	26.3
단독주택	89,038	85,625	3,382	31	20,777	38,725	4,816	24,720
(%)	91.7	96.2	3.8	0.0	23.3	43.5	5.4	27.8
아파트	4,648	4,648			4,587	32	17	12
(%)	4.8	100.0	0.0	0.0	98.7	0.7	0.4	0.3
연립주택	613	613			578	15	13	7
(%)	0.6	100.0	0.0	0.0	94.3	2.4	2.1	1.1
다세대주택	363	363			342	7	8	6
(%)	0.4	100.0	0.0	0.0	94.2	1.9	2.2	1.7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294	1,241	42	11	826	220	56	192
(%)	1.3	95.9	3.2	0.9	63.8	17.0	4.3	14.8
주택 이외 거처	1,152	989	97	66	127	107	343	575
(%)	1.2	85.9	8.4	5.7	11.0	9.3	29.8	49.9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화장실			목욕시설		
		수세식	채래식	없음	온수시설	비온수시설	없음
계	97,108	70,126	26,870	112	87,614	1,210	8,284
(%)	100.0	72.2	27.7	0.1	90.2	1.2	8.5
단독주택	89,038	62,686	26,299	53	80,018	1,153	7,867
(%)	91.7	70.4	29.5	0.1	89.9	1.3	8.8
아파트	4,648	4,648			4,648		
(%)	4.8	100.0	0.0	0.0	100.0	0.0	0.0
연립주택	613	613			613		
(%)	0.6	100.0	0.0	0.0	100.0	0.0	0.0

특성별 (전국)	임가 (가구)	화장실			목욕시설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시설	비온수시설	없음
다세대주택	363	363			363		
(%)	0.4	100.0	0.0	0.0	100.0	0.0	0.0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294	1,184	100	10	1,198	12	84
(%)	1.3	91.5	7.7	0.8	92.6	0.9	6.5
주택 이외 거처	1,152	632	471	49	774	45	333
(%)	1.2	54.9	40.9	4.3	67.2	3.9	28.9

4. 산촌사회

본 절에서는 2003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산촌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촌이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경제적 위치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산촌의 현실을 파악하고 산촌의 중요성과 이의 진흥을 위한 개발요소와 진흥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가. 시·군별 산촌의 분포

전국 163개 시·군 1,415개 읍·면 15,277개 리 중 119개 시·군 508개 읍·면 4,972개 리가 산촌에 해당된다. 시·도별로 산촌을 포함하는 읍·면은 경북, 강원이 가장 많으며 경기도와 광역시가 가장 적다.

<표 7-39> 산촌이 분포하는 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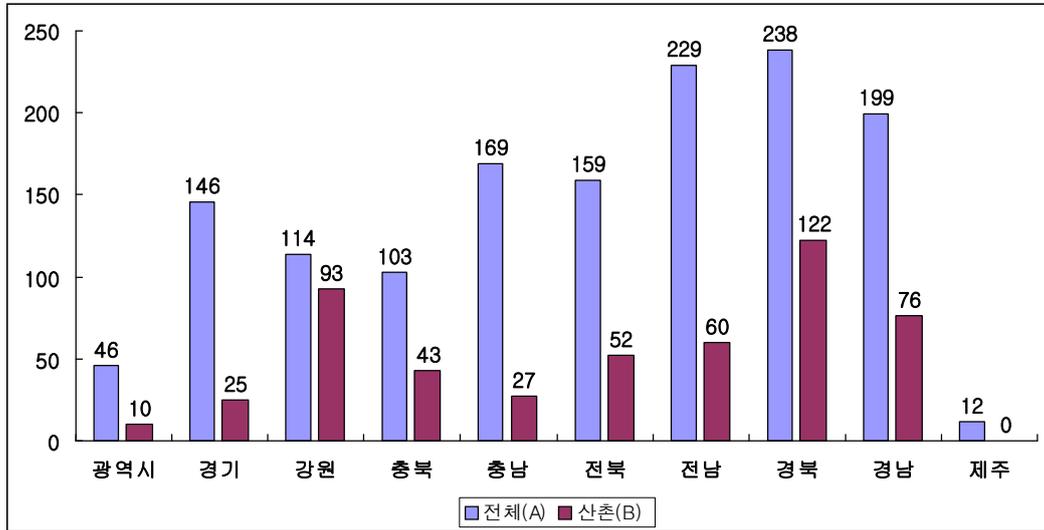
(단위 : 개소, %)

읍·면수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A)	1,415	46	146	114	103	169	159	229	238	199	12
산촌(B)	508	10	25	93	43	27	52	60	122	76	0
비율(B/A)	35.9	21.7	17.1	81.6	41.7	16.0	32.7	26.2	52.3	38.2	0

도별로 보면 강원도가 81.6%로 산촌 비율이 제일 높고 충남이 20.8%로 제일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각 도별 평균은 40.5%였다.

산촌은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은 산악지에 위치하여 평균적인 해발고가 248m로 나타

났는데 이는 전국의 산촌지역 해발고의 최저값 평균과 최고값 평균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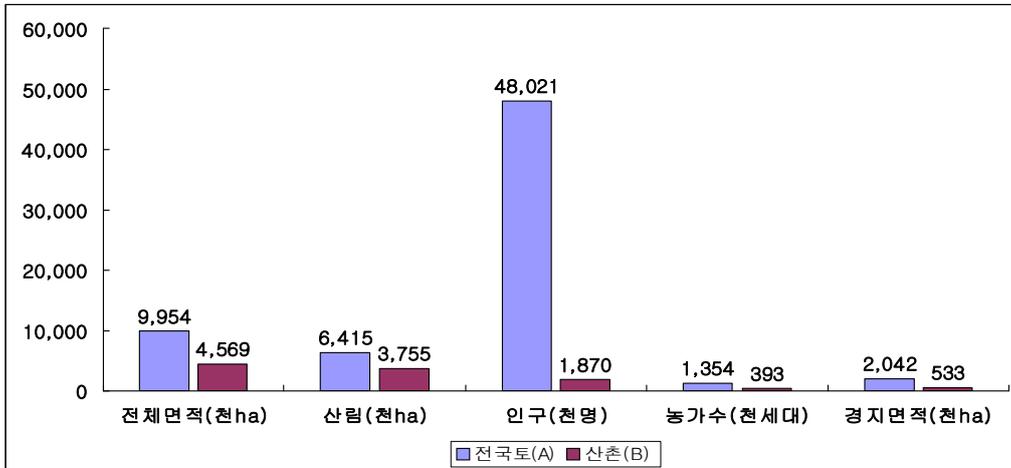
나. 산림·인구·농가수·경지 분포 현황

산촌의 전체 면적은 4,569천ha로 전 국토 면적의 45.9%에 달하며 전체 산림면적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은 전체 침엽수림의 55%, 활엽수림은 전체 활엽수림의 67%가 산촌에 분포하고 있다.

<표 7-40> 산촌지역의 자연, 인적자원

구분	전체면적 (천ha)	산림 (천ha)	인구 (천명)	농가수 (천세대)	경지면적 (천ha)
전국토(A)	9,954	6,415	48,021	1,354	2,042
산촌(B)	4,569	3,755	1,870	393	533
비율(B/A)	45.9%	58.5%	3.9%	29.0%	26.1%

지역별로는 산림면적은 강원도가 전체 산림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과 전북, 전남이 그 뒤를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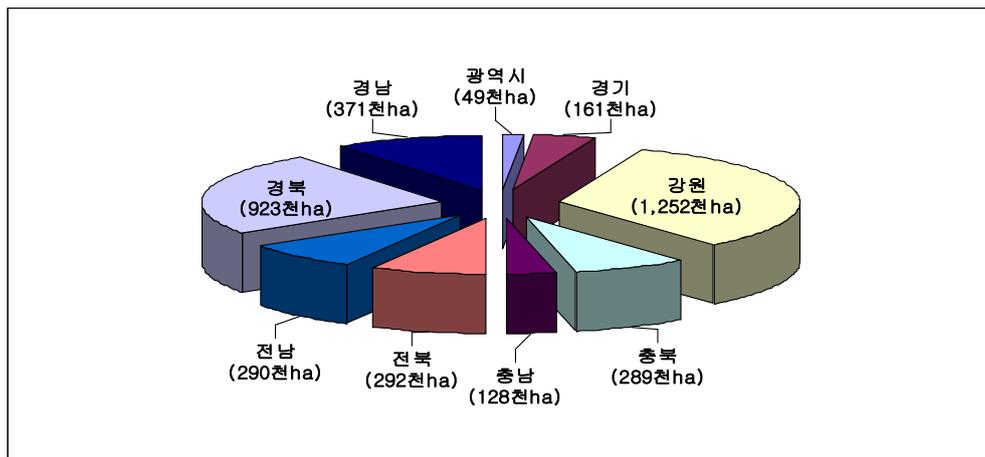


<표 7-41> 시·도별 산촌의 산림면적

(단위 : 천ha)

구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촌	3,755	49	161	1,252	289	128	292	290	923	371	-

산촌의 전체 인구는 1,870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3.9%에 불과하고 인구밀도에 있어서도 전국평균의 4.8명/ha에 비해 그 1/10에 불과한 0.4인/ha를 보여주고 있어 대표적인 인구 과소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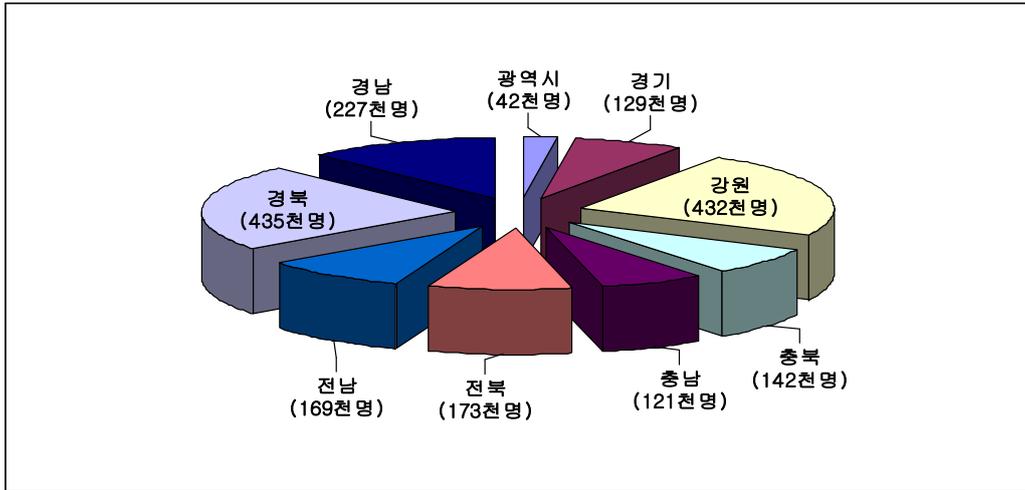


<표 7-42> 시·도별 산촌의 인구분포

(단위 : 천명)

구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촌	1,870	42	129	432	142	121	173	169	435	2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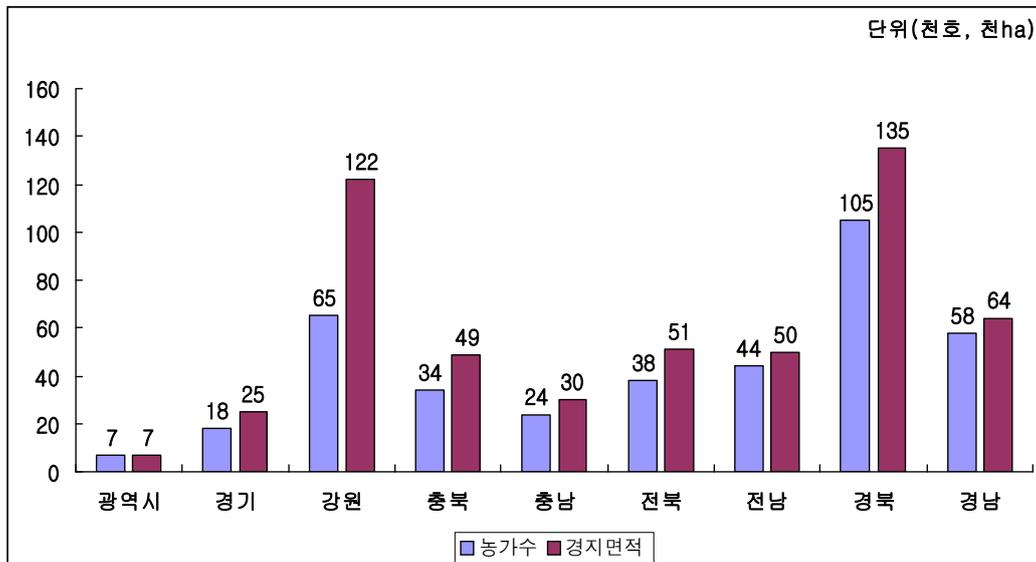
산촌의 총 농가는 393천호로 전국 대비 농가의 29.0%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전국 대비 26.1%를 점유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산촌 이외의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영농규모에 있어서도 전국평균 세대당 경지면적은 1.50ha/세대에 비해 1.35ha/세대로 전국평균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영농규모도 영세하다.



<표 7-43> 시·도별 산촌의 농가수 및 경지면적

(단위 : 천호, 천ha)

구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수	393	7	18	65	34	24	38	44	105	58	-
경지면적	533	7	25	122	49	30	51	50	135	64	-



다. 산촌의 현황분석

1) 산림자원의 현황

소유별로 보면 국유림이 30%, 공유림 9%, 사유림이 61%를 점하고 있어 전국평균적인 소유비율보다 국유림의 비중이 매우 높은 대신에 사유림의 비율이 낮아 산촌주민의 생활 속에 국유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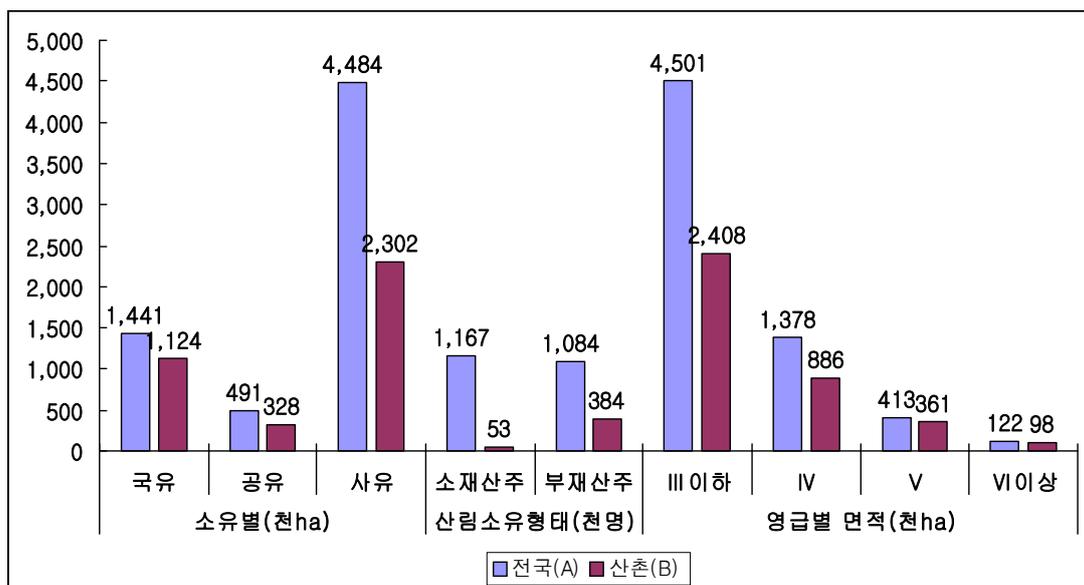
산림소유형태는 전국 자료와 비교하여 소재산주가 부재산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산촌지역 산림 중 국유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산촌지역의 영급별 면적은 영급이 커질수록(IV~VI영급 이상) 비중이 커지고 있어 향후 용재생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촌지역의 장령림에 대한 관리와 경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7-44> 산촌의 산림자원

(단위 : 천ha, 천명, %)

구분	합계	소유별(천ha)			산림소유형태(천명)		영급별 면적(천ha)			
		국유	공유	사유	소재산주	부재산주	III이하	IV	V	VI이상
전국(A)	6,415	1,441	491	4,484	1,167	1,084	4,501	1,378	413	122
산촌(B)	3,755	1,124	328	2,302	53	384	2,408	886	361	98
비율(%)(B/A)	58.5	78.0	66.9	51.3	45.8	35.4	53.5	64.3	87.3	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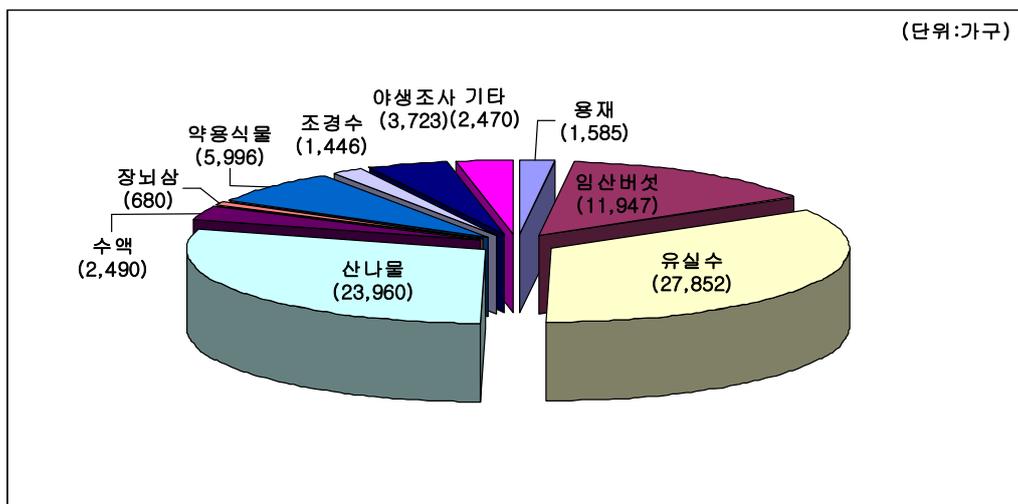
2) 산림자원 활용

산촌지역 주민의 산림자원 활용은 유실수와 산나물, 임산버섯 등의 순으로 채취임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재배를 통한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표 7-45> 산림자원활용 가구수

(단위 : 가구, %)

구분	용재	임산버섯	유실수	산나물	수액	장뇌삼	약용식물	조경수	야생조수	기타
산촌	1,585	11,947	27,852	23,960	2,490	680	5,996	1,446	3,723	2,470
비율	1.9	14.5	33.9	29.2	3.0	0.8	7.3	1.8	4.5	3.0



3) 농지 등의 분포 및 이용

산촌지역은 전체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이 42.9%를 차지하여 전국의 51.9%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이는 산촌지역이 아직도 경지정리·관배수·기계화 등의 사업에서 불리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지구분에 있어서는 임업진흥권역이 전국 대비 77.3%를 차지하고, 전국의 임업용 산지 중 임업진흥지역이 36%에 비해 산촌지역은 임업용 산지 중 임업진흥권역은 3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 임업진흥지역은 산촌지역과 비 산촌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지정되어 있다. 즉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은 산촌뿐 아니라 비산촌 지역에도 필요한 시설인 것이다.

<표 7-46> 농지 및 산지의 이용

(단위 : 천ha, %)

구분	농지구분			산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외	임업용산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전 체	임업진흥권역
전 국(A)	952	196	1,063	3,548	1,280
산 촌(B)	178	47	307	2,506	989
비율(B/A)	18.7	24.2	57.7	70.6	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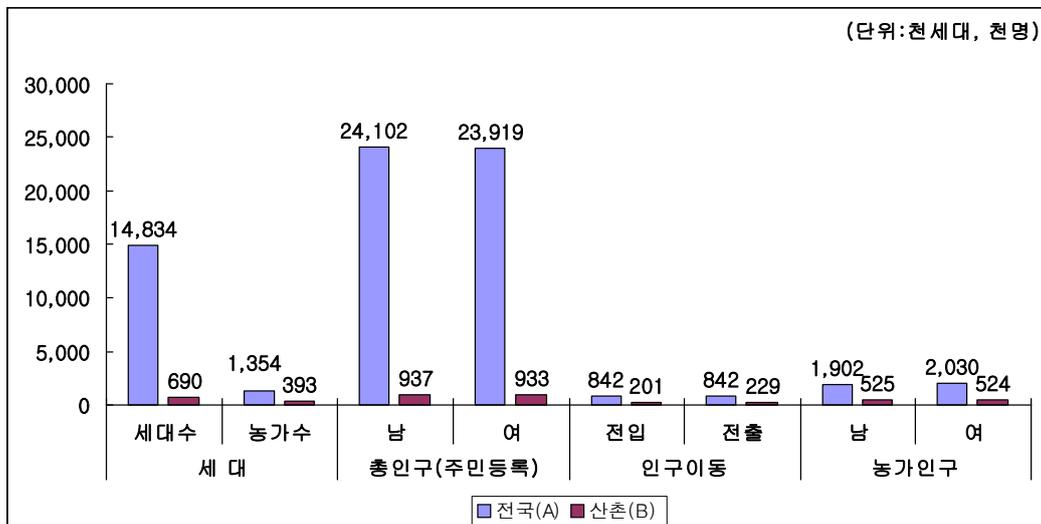
4) 세대 및 인구 변동

산촌지역 총인구는 전국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촌지역내의 남녀성비는 거의 5: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이동은 전국평균의 인구이동률이 19.3%인데 비해 산촌은 전입율은 10.7%이고 전출율은 12.2%로 전출이 많고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면 인구이동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7-47> 세대 및 인구

(단위 : 천세대, 천명, %)

구분	세 대		총인구(주민등록)			인구이동		농가인구		
	세대수	농가수	합계	남	여	전입	전출	소계	남	여
전 국(A)	14,834	1,354	48,021	24,102	23,919	842	842	3,932	1,902	2,030
산 촌(B)	690	393	1,871	937	933	201	229	1,049	525	524
비율(B/A)	4.7	29.0	3.9	3.9	3.9	2.2	2.5	26.7	27.6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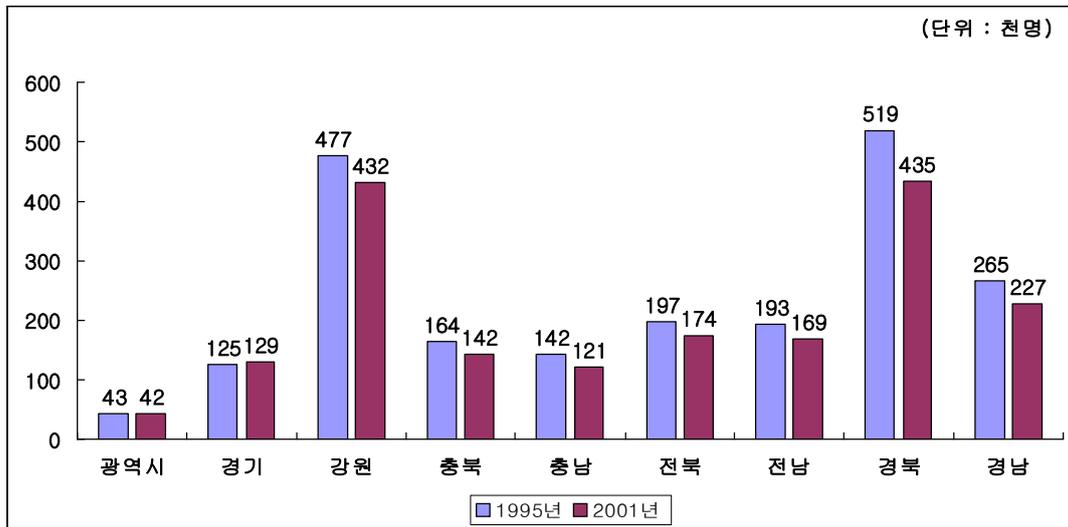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경북과 강원도의 인구 유출이 타 시도보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북과 강원도는 산림이 풍부하고 산촌도 많은 곳으로 산림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표 7-48> 시·도별 산촌지역 총인구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95년	2,125	43	125	477	164	142	197	193	519	265
2001년	1,871	42	129	432	142	121	174	169	435	227
증·감	△254	△1	4	△45	△22	△21	△23	△24	△8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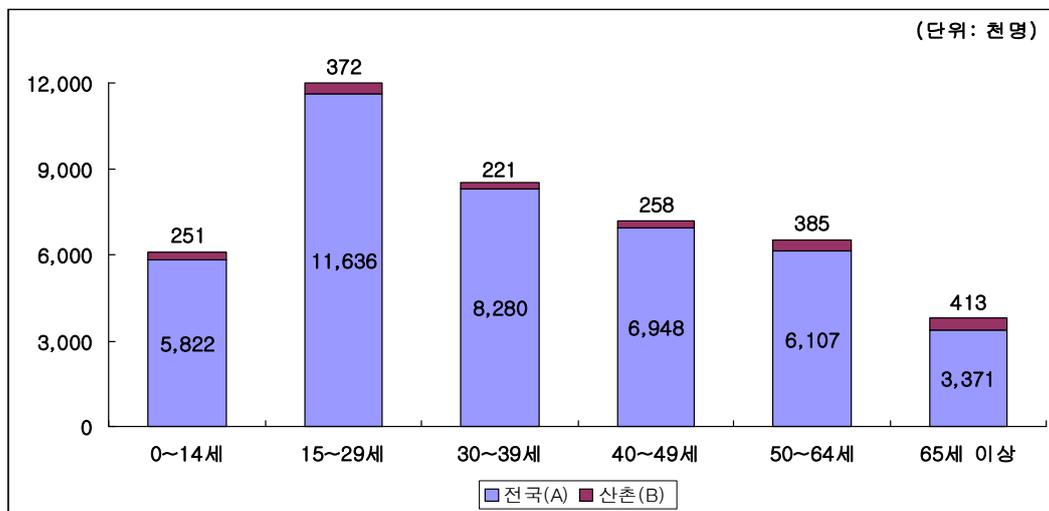
연령별로는 청장년층(30~49세)이 전국 대비 3.1% 수준이며,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타 연령층 보다 비율이 높아 산촌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따라서 산촌의 주된 노동력은 50세 이상의 장령 인구로서 노동 생산성과 안전성 문제에 있어 산림작업이 위험성이 제일 높은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이다. 산촌의 노령화 지수는 164.5%(65세 이상의 인구/14세 이하의 인구×100)로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 57.9%보다 월등히 높아 향후 산촌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야기하여 임업 노동 문제의 발생이 예상된다.

<표 7-49> 연령별 인구 분포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0~14세	15~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 국(A)	42,166	5,822	11,636	8,280	6,948	6,107	3,371
산 촌(B)	1,900	251	372	221	258	385	413
비율(B/A)	4.5	4.3	3.2	2.7	3.7	6.3	12.3

※ 외국인 제외,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실거주 인구 기준



5)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자원

산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중 한려해상, 한라산, 태안해안, 북한산, 변산반도,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을 제외한 14개소로 녹색관광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밝고 전체 국립공원의 95%가 산림 내에 소재하고 있어 산촌은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개발여지가 매우 높은 곳이다.

관광객이용시설과 기념품점은 한국관광공사에 지정, 등록된 59개소 외의 소규모 운영점까지 계상되어 전국값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7-50>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자원

(단위 : 개소, 천ha, %)

구분	국립공원	도·군립공원	유원지	자연휴양림	관광객이용시설	기념품점
전 국(A)	20	53		97		59
산 촌(B)	14	53	250	84	159	114
비율(B/A)	70	100	-	86.6	-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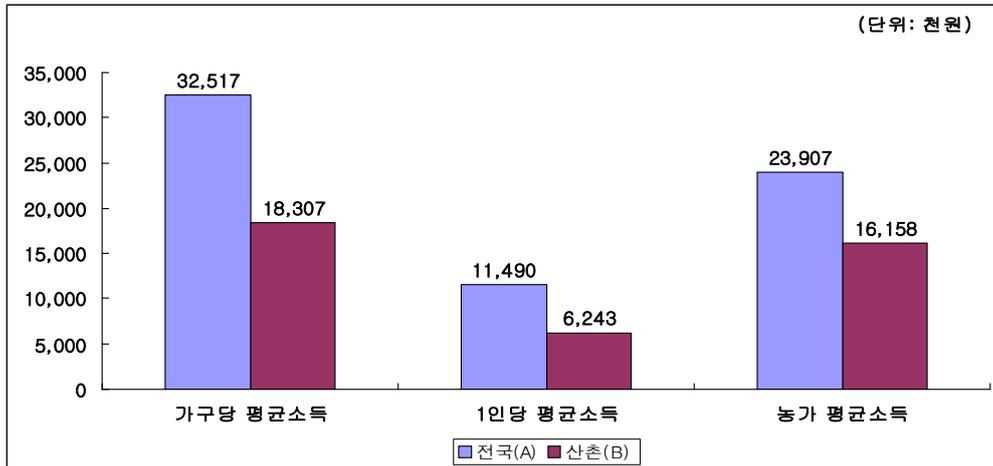
6) 소득 및 생산기반

산촌지역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당 소득의 56%에 불과하고 1인당 소득도 54%인 6백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산촌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51> 평균소득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가구당 평균소득	1인당 평균소득	농가 평균소득
전 국(A)	32,517	11,490	23,907
산 촌(B)	18,307	6,243	16,158
비율(B/A)	56.3	54.3	67.6



산촌의 주요 소득작목은 일반 농가와 마찬가지로 수도작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채소재배 농가가 많은 반면에 산촌은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각 지역의 환경 및 유통구조, 지역적 산업특성에 따라 축산과 채소, 과수 등도 주요 작목으로 선택되었다.

<표 7-52> 주 소득 작목

(단위 : 천 가구,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작목명	세대수
전 국(A)	수도작	794	채소	225	과수	143	밭작물	102
산 촌(B)	수도작	487	고추	28	채소	12	밭작물	9
비율(B/A)		61.5		12.4		8.8		9.5

산촌은 주민의 고령화와 작업조건이 험난하여 많은 작업에 기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림작업 기계는 개발된 것이 많지 않고 산림작업용 기계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산촌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용 기계는 많지 않다. 다만 산촌의 많은 가구가 농업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의 농업기계보유에 비교하면 20% 내외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향후 더욱 고령화 될 사회를 대비하여 산촌지역의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53> 농림용 기구기계 현황

(단위 : 천대, %)

구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양수기	관리기	운반차
전 국(A)	922	201	342	87	642	352	-	-
산 촌(B)	247	39	76	17	153	89	99	19
비율(B/A)	26.9	19.6	22.2	20.0	23.9	25.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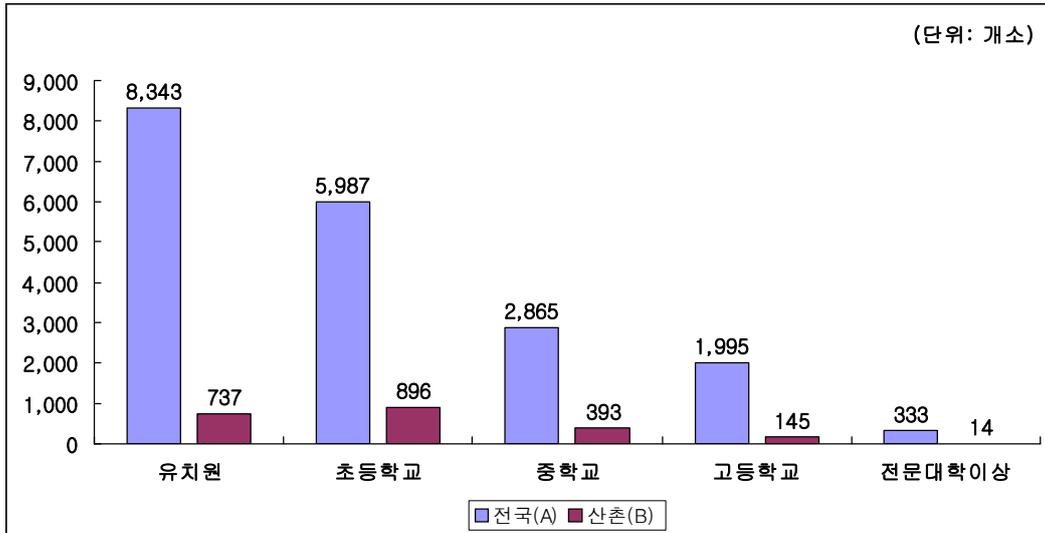
7) 교육·의료·생활편의시설

산촌지역에 인구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육시설과 의료문화시설이 도시 지역이나 타 농촌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산촌지역의 교육시설은 극도로 열악하여 현재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중학교까지도 유치원은 전국의 9%, 초등학교는 15%, 중학교는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산촌의 인구과소화가 농산촌 지역에서의 교육시설의 퇴출을 가져온 면도 적지 않으나 교육의 경제논리에 따르기보다는 학교의 존재가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인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 간접시설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54> 교육시설

(단위 : 개소,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전 국(A)	8,343	5,987	2,865	1,995	333
산 촌(B)	737	896	393	145	14
비율(B/A)	8.8	15.0	13.7	7.3	4.2



산촌의 의료시설은 교육시설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앞서 본바와 같이 산촌지역의 인구구성 및 세대구성이 급속하게 노령화, 취약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령사회를 유지하고 삶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도 의료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표 7-55> 의료 및 복지시설

(단위 : 개소, %)

구분	의료기관			복지시설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한의원)	마을 회관	복지 회관	구관장	경로당	목욕탕	보육 시설	체육 시설
전 국(A)	21,686	3,401	26,194				33,486	10,098	653	6,150
산 촌(B)	309	824	544	7,554	332	623	7,161	232	188	427
비율(B/A)	1.4	24.2	2.1				21.4	2.3	28.8	6.9

병원과 약국의 수는 전국의 1~2%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기관인 보건소가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그나마도 전국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 보건소만이라도 많은 산촌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근래 산촌 종합개발 등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결과 목욕탕과 경로당의 건설이 많아져 경로당은 전국의 21%, 목욕탕은 2.3% 수준에 달했다. 보육시설은 개인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기에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비교적 높은 전국대비 29%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 생활환경에 중요한 상하수도 시설은 이전에는 공동우물이나 자체 관정 등을 이용한 지하수 활용과 하수의 무단 방출에 의존하였으나 환경의식의 강화와 주민건강을

위한 지역투자의 결과 상하수도 보급률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산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25.4%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87.8%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수도는 더욱 열악하여 하수도 보급률이 10.9%로 전국 평균 73%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생활 및 산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은 아직도 전국의 2.2%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시설도 전국 대비 7.6%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오폐수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래 농산촌 개발 사업의 결과 소규모 마을 단위의 시설이 도입되어 시설 수는 많아졌으나 전국 규모 통계에는 누락되어있는 시설이 많아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7-56> 상·하수도 및 분뇨·쓰레기 시설

(단위 : 개소, %)

구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소각장	오폐수처리 시설	분뇨처리 시설	쓰레기처리 시설
전 국(A)	87.8	73.2	6,168	183	187	879
산 촌(B)	25.4	10.9	137	2,503	402	67
비율(B/A)	28.9	14.9	2.2	1,367.7	215.0	7.6

8) 도로 교통

산촌지역의 도로는 전국 도로연장의 52%에 달하고 있으나 비포장도로의 대부분이 산촌에 분포되어있을 정도로 도로 상태는 열악하다. 산촌을 달리는 도로는 농촌도가 많고 정비가 잘된 고속국도나 일반국도는 산촌지역 도로의 15%에 불과하고 농촌도가 전체 산촌 지역 도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도로의 경우 산촌지역의 도로연장의 합계가 전국 합계보다 많이 집계될 정도로 아직도 비포장도로의 비율이 매우 높다.

<표 7-57> 도로 교통

(단위 : km, %)

구분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촌도
총연장	전 국(A)	73,587	2,637	14,254	15,704	40,992	-
	산 촌(B)	38,346	720	5,108	6,838	8,189	17,491
	비율(B/A)	52.1	27.3	35.8	43.5	20.0	-
비포장	전 국(A)	13,418	-	85	2,246	11,087	-
	산 촌(B)	15,551	7	206	967	3,678	10,693
	비율(B/A)	115.9	-	242.4	43.1	33.2	-

제8장 농촌사회의 변화와 분화

I. 농지 구조의 변화와 농민층 분화

1. 이론적 쟁점

해방 이후 미군정기부터 시작되어 한국 전쟁을 통해 완성되었던 농지개혁은 한국의 농업을 소규모 가족농체제로 만들었다. 농지개혁을 통해 형성되고, 이후 농업 정책 내에서 유지된 소농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농지개혁은 해방 이후의 복잡한 계급 갈등과 깊이 관련되며, 미국의 대외 정책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군정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확산시켰으며, 보수적 지주들과의 연대함으로써 적지 않은 반발에 직면하였다. 미국은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소작제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농지개혁을 시행하였던 것이다(Cumings, 1981).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지주들의 저항에 부딪혀 표류하다가 한국 전쟁의 정치구조 변화 속에서 겨우 완성될 수 있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을 기반으로 했던 북한식 농지개혁을 염두에 둔 급진주의 시각에서의 남한 농지개혁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중요한 점은 남한의 농지개혁이 거대한 사회 변화의 조건이 되었다는 점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소작 관계에 근거한 경제체제의 유지는 불가능해졌으며,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배 계층은 빠르게 해체되었고, 상업 및 산업적 계층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농지개혁은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공고화 속에서 동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본주의적 아시아를 기획하였다. 이 기획에서 농지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대만, 한국 등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본주의적 농지개혁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첫째, 전통적인 농민(peasants)과는 구별되는 시장 의존적 농민(farmers)을 만들어냈다. 둘째,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으로서의 농민층을 만들어냈는데, 소규모이긴 하지만 사유지를 지니게 된 다수의 농민들은 집권당의 보수적 지지 세력이 되었다. 셋째, 개별 국가 내에서 농업이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자리 잡게 되어, 현대적 농업정책의 단위가 되었다. 농지개혁은 다수의 소규모 자영농 형성의 계기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가 경제를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구조는 잠재적 '과잉인구' 혹은 산업예비군을 형성하였고, 특히 젊은 여성인구가 1960년대 이후 도시로 급격하게 유입되어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이다

(김철규, 2003).

국가에 의한 엄격한 농지 규모 제한과 공업 중심의 근대화는 소규모 가족농 체제를 장기간 지속시켰고, 농촌사회의 전반적 궁핍화를 야기하였다. 도시 및 공업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은 일반적으로 배제되었다. 농업은 낙후성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엄청난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초기 산업화의 역군이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 차이는 농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농촌 사회 부흥운동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농지 정리, 도로 건설, 배수로 건설 등 농업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일부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농업 기술 및 지식의 확산 등은 현대적인 농업(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가진)의 틀을 만드는 데도 새마을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에 들어 국가주의적 농업이 쇠퇴하면서, 개방농정의 틀 속에서 농촌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민들간에도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미작농과 과수나 채소 재배 농가 사이에도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대농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적극적인 기업농들은 전통적인 농민과 농촌사회의 개념을 낡은 것으로 만들고 있다.

2. 농지 규모와 농민계층분화

우리나라의 농지 규모는 세계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영세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가구당 경지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농가 호수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970년을 기점으로 평균 1.9%씩 해마다 줄어들어 왔다.

우리나라 농민 계층분화는 네 단계를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즉, 1960년까지의 양극 집중, 1980년대 초까지의 중농 집중, 1990년대 중반까지의 상향 집중,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양극 분화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3ha 계층의 농가 비율이 감소하고, 0.5ha 미만과 3ha 이상 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극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김정호, 2005). 또한 4장에서 보았듯이 농가 계층분화는 경영주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고령농일수록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경지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30~40대 경영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5ha 이상 농가의 절반은 40대 이하의 농민이 경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농업으로의 전환이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농가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1990년 이후 15년 사이에 2ha 이상의 농가수가 전체 농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에서 10.1%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규모화는 밭, 과수원, 시설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축산의 대규모화 역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키워오던 한우의 경우에도 대규모화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0년에 20두 이상을 키우던 농가는 전체 호수 대비 1.1%에 지나지 않았지만 2005년에는 9.0%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대규모화는 돼지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데, 1990년 1천두 이상을 키우던 농가의 비율은 0.2%였는데 15년 만에 19.2%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총 돼지 생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논농사, 밭농사, 과수, 시설원예, 축산 등 우리나라 농업의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상업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에 적응하는 이러한 대규모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동시에 농업 위기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3. 농지 임대차와 위탁영농

농산물 시장이 커지고 시장지향적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경지규모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토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임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농의 경우 농업 경영에 있어 임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표 8-1>에 따르면, 2ha 이상의 농가의 경우 임차지의 비율은 54.5%였는데, 이는 1980년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표 8-1> 경지규모별 임차지 비율 변화

(단위 : %)

연 도	평 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ha 이상
1980	21.3	15.5	20.8	24.0	23.5	17.2
1985	30.5	23.5	28.9	32.3	30.7	30.9
1990	37.4	26.8	31.1	36.0	37.7	44.1
1995	42.2	25.6	32.1	34.7	39.3	50.6
2000	43.6	25.5	33.3	38.4	39.2	51.2
2005	42.5	26.3	34.4	36.9	42.5	54.5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이러한 임차지의 중요성은 농산물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논외의 경우에는 대농의 임차 비중이 41.12%로 <표 8-2>의 그것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임차가 쌀보다는 훨씬 시장형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2> 논 경영규모별 임차비율

논 면적	비율(%)
0.5ha 미만	24.78
0.5~1ha	14.93
1.0~2.0ha	19.16
2.0ha 이상	41.1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전통적 농업의 해체와 농가의 고령화 등은 위탁영농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상당수의 고령 농가가 농사의 전부를 영농회사 등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3> 참조). 60세 이상의 농가의 겨우 경우의 69.5%, 이양의 경우 68.1%, 그리고 수확의 경우 64.1%를 위탁하였다. 앞으로 한국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벼농사의 위탁영농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3> 경영주 연령별 벼농사 위탁영농(전부 위탁) 비율 : 2005

(단위 : %)

연령별	경 운	이 양	수 확
30세 미만	0.2	0.2	0.2
30~39세	2.0	2.1	2.3
40~49세	9.3	10.2	11.6
50~59세	19.1	19.4	21.7
60~69세	37.8	36.4	36.9
70세 이상	31.7	31.7	27.2
합 계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II. 농업의 지역특화와 분화

1. 이론적 쟁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은 빠르게 시장화, 전문화, 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정 작물의 특정 지역에서의 특화, 농업 성장

과 쇠락의 지역적 편포, 특정 지역으로의 새로운 시장형 농업 집중 등을 낳고 있다. 지역 농업이 이처럼 분화와 특화를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체의 역할, 농업 경영주 연령구조의 차이, 후계자 문제, 시장과의 사회·물리적 거리, 기존 작물 품목, 농민들의 농가 경영 전략 등 다양한 변수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지역 간의 분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2. 지역농업구조의 동향

가. 농지구조의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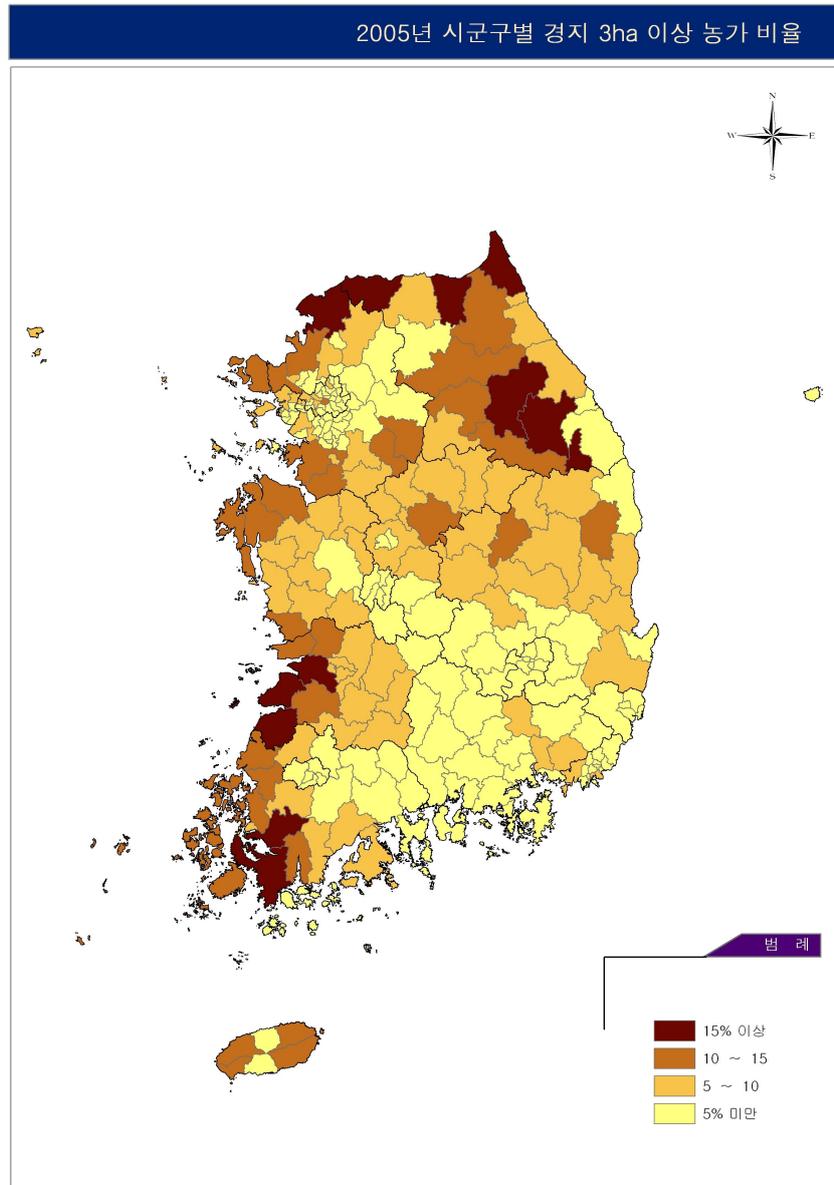
<표 8-4>는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의 비율이 높은 시·군 상위 20개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 현재 철원, 평창, 태백, 정선 등 강원도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철원은 전체 농가의 무려 32%가 3ha 이상이어서 대농의 비율이 높다.

<표 8-4> 시·군별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비율, 상위 20위

순위	시·군	%	순위	시·군	%
1	철 원	32	10	고 성	18
2	평 창	21	12	고 창	17
2	태 백	21	13	당 진	15
2	정 선	21	14	익 산	14
2	부 안	21	14	북 제 주	14
6	연 천	20	14	군 산	14
6	김 제	20	17	평 택	13
8	해 남	19	17	정 읍	13
8	영 암	19	17	영 광	13
10	양 구	18	17	남 제 주	13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그림 8-1>는 GIS를 통해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 분포를 정리한 지도이다. 시·군별로 3ha 이상의 대농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에서부터, 10~15% 지역, 5~10% 지역, 5% 미만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전라도 평야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3ha 이상의 농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림 8-1> 경지면적 3ha 이상 농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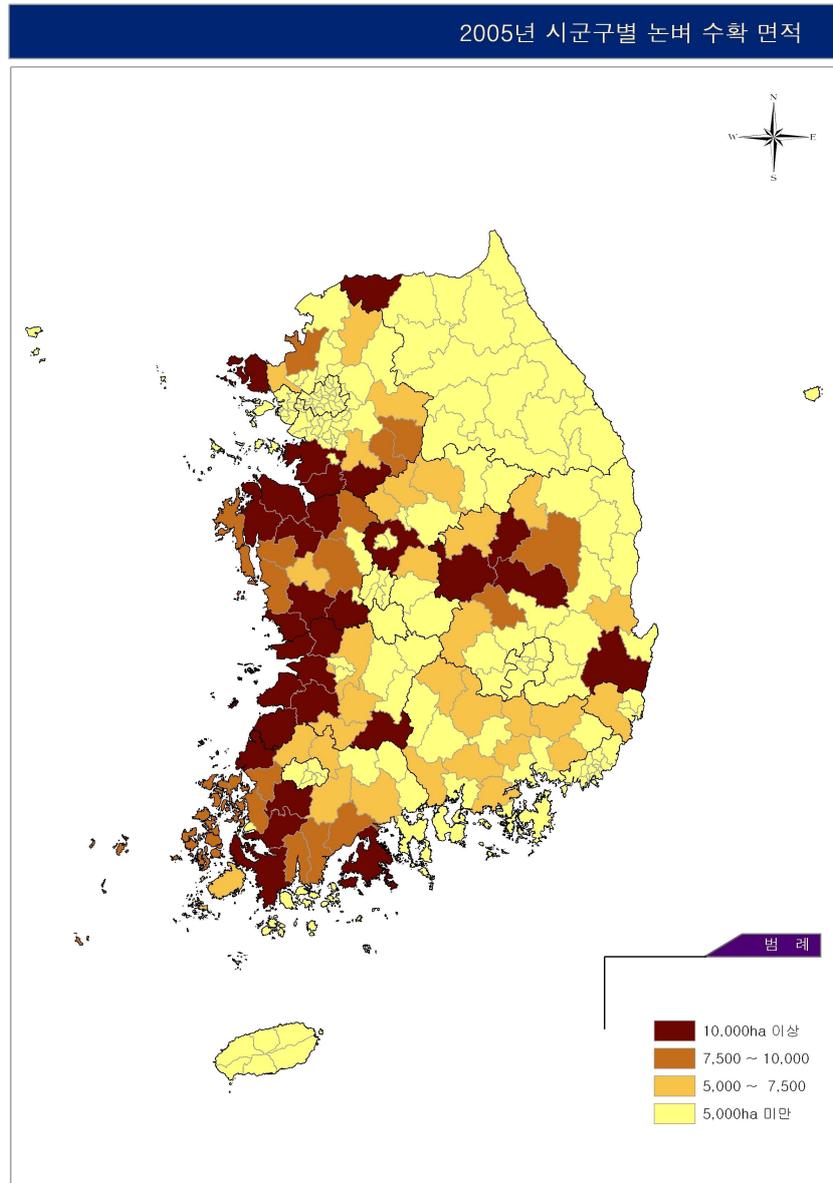
<표 8-5>는 시·군별 논 면적의 순위를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논 분포 지역은 김제, 당진, 익산, 해남, 서산, 평택, 정읍, 영암, 화성 등 주로 전라남북도와 충청도 등 서해안 평야지역이다. 이를 2000년도 자료와 비교해보면 상위권 순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개별 시·군들의 실제 논 면적에서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벼농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자료가 <그림 8-2>인데, 이 그림은 논벼 수확면적의 시·군별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을 보면 역시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북도 서해안 지역에 논벼 재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5> 시·군별 논 면적 순위(상위 20위)

순위	2005		2000	
	시·군	면적	시·군	면적
1	김 제 시	22,638	김 제 시	22,594
2	당 진 군	21,502	당 진 군	20,939
3	익 산 시	20,537	익 산 시	20,647
4	해 남 군	19,703	해 남 군	18,861
5	서 산 시	16,326	정 읍 시	16,829
6	평 택 시	16,291	평 택 시	16,670
7	정 읍 시	15,948	상 주 시	16,405
8	영 암 군	15,697	화 성 군	16,023
9	화 성 시	15,225	부 안 군	15,475
10	상 주 시	14,904	영 암 군	15,286
11	부 안 군	14,886	고 창 군	14,540
12	고 창 군	13,988	논 산 시	14,234
13	경 주 시	13,699	경 주 시	14,160
14	군 산 시	13,638	서 산 시	14,143
15	논 산 시	13,521	나 주 시	14,121
16	나 주 시	13,186	부 여 군	13,459
17	부 여 군	12,077	군 산 시	13,361
18	고 흥 군	11,981	고 흥 군	12,520
19	아 산 시	11,955	의 성 군	12,109
20	예 산 군	11,584	아 산 시	12,057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그림 8-2> 논벼 수확 면적의 시·군별 분포

<표 8-6>은 과수원을 포함한 전체 밭 면적 상위 20개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를 보면 북제주군, 남제주군, 해남군, 안동시, 평창군 등으로 2000년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순위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밭 면적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벼농사를 줄이고 채소류를 늘려가는 추세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농민들이 시장성이 좋은 채소류 생산을 통해 소득향상을 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6> 시·군별 밭 면적 순위(상위 20위)

순위	2005		2000	
	시·군	면적	시·군	면적
1	북제주군	18,997	북제주군	14,830
2	남제주군	17,857	해남군	11,340
3	해남군	11,076	남제주군	11,334
4	안동시	10,678	평창군	9,858
5	평창군	8,980	안동시	8,280
6	고창군	7,847	무안군	7,786
7	충주시	7,561	고창군	7,720
8	제주시	7,555	정선군	7,463
9	상주시	7,541	신안군	6,600
10	무안군	7,294	홍천군	6,479
10	영주시	7,294	서산시	6,474
12	의성군	7,210	제천시	5,719
13	김천시	7,167	봉화군	5,545
14	연천시	7,106	고흥군	5,421
15	정성군	6,900	여주군	5,391
16	신안군	6,633	충주시	5,322
17	나주시	6,274	횡성군	5,307
18	서산시	6,266	화성군	5,185
19	봉화군	6,219	태안군	5,151
20	제천시	6,120	괴산군	5,138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8-7>은 시·군별 과수원 면적 상위 20개 지역의 현황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상위권 지역의 순위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 지역의 과수원 절대면적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앞의 <표 8-6>이 과수 포함 밭의 면적이었음을 분석에 고려한다면 (광의의 밭 면적 감소와 과수 면적 증가) 상대적으로 과수의 비중이 더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북제주군의 경우 과수원을 포함한 밭의 면적이 2000년부터 5년 사이 14,830ha에서 18,997ha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과수원의 면적

은 5,285ha에서 3,652ha로 감소하였다. 결국 전체 밭에서 과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수한 밭의 면적은 더 급격히 감소하고, 밭작물의 재배가 급증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8-7> 시·군별 과수원 면적, 상위 20위

순위	2005		2000	
	시·군	면적	시·군	면적
1	남 제주 군	6,355	남 제주 군	8,128
2	영 천 시	5,028	서 귀 포 시	5,930
3	서 귀 포 시	4,977	영 천 시	5,723
4	상 주 시	4,804	북 제주 군	5,285
5	김 천 시	4,794	김 천 시	5,254
6	의 성 군	3,966	상 주 시	4,829
7	제 주 시	3,756	제 주 시	4,703
8	북 제주 군	3,652	경 산 시	4,573
9	영 도 군	3,431	청 도 군	3,926
10	경 산 시	3,188	의 성 군	3,899
11	청 도 군	3,170	영 동 군	3,704
12	영 주 시	3,100	나 주 시	3,256
13	나 주 시	2,927	천 안 시	3,173
14	안 동 시	2,847	영 주 시	3,080
15	천 안 시	2,803	진 주 시	2,913
16	진 주 시	2,365	밀 양 시	2,860
17	청 송 군	2,197	안 동 시	2,845
18	충 주 시	2,047	충 주 시	2,427
19	밀 양 시	2,037	청 송 군	1,984
20	창 원 시	1,836	창 원 시	1,934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나. 농산물의 특화

농산물의 특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특화계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특화계수는 특정 작물이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

로 생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작물의 지역 특화계수가 1이면 이는 그 지역의 해당 작물 집중도가 전국 분포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계수 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품목이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text{특화계수} = \frac{\text{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 \text{해당지역경지면적}}{\text{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 \text{전국경지면적}}$$

<표 8-12>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식량 작물인 논벼의 지역별 특화계수의 변화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논벼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960년 이후 45년 동안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리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일정 지역이 특화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특화계수는 45년 사이 1.12에서 1.07로 감소한 반면 충청남도 경우는 같은 기간 1.09에서 1.16으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1960년에는 지역 간 특화계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8-8> 논벼의 연도별 지역 특화계수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60	1.04	0.65	0.84	1.09	1.20	1.07	0.93	1.12	0.04
1970	1.27	0.56	0.76	1.05	1.17	1.02	0.95	1.11	0.04
1980	1.11	0.75	0.84	1.08	1.18	1.02	0.93	1.12	0.03
1990	1.08	0.72	0.86	1.11	1.18	1.05	0.91	1.11	0.02
1995	1.11	0.72	0.84	1.14	1.22	1.08	0.85	1.10	0.00
2000	1.09	0.70	0.84	1.14	1.23	1.09	0.88	1.09	0.00
2005	1.10	0.70	0.83	1.16	1.21	1.09	0.88	1.07	0.00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8-9>부터 <표 8-16>까지는 주요 과수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의 지역특화계수를 보여준다. 표에 따르면 사과의 주산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이며, 그 집중도가 다른 과수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3.99로 대단히 높은 특화계수를 보여주어 대표적인 사과 전문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 역시 2.02의 높은 특화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8-9> 사과 지역의 지역특화계수

지 역	경지면적			특화계수
		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경 기	191,821	444	29,554	0.12
강 원	104,064	168	29,554	0.08
충 북	99,985	3,961	29,554	2.02
충 남	220,476	2,028	29,554	0.47
전 북	187,373	1,217	29,554	0.33
전 남	264,942	263	29,554	0.05
경 북	242,085	18,882	29,554	3.99
경 남	149,278	2,591	29,554	0.89
제 주	50,525	-	29,554	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8-10>은 배의 지역특화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배의 특화계수가 1을 넘는 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으로 이들 지역이 주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과에 비하면 비교적 전국에서 고르게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표 8-10> 배의 지역특화계수

지 역	경지면적			특화계수
		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경 기	191,821	4,208	21,441	1.55
강 원	104,064	417	21,441	0.28
충 북	99,985	1,108	21,441	0.78
충 남	220,476	4,495	21,441	1.44
전 북	187,373	1,116	21,441	0.42
전 남	264,942	4,356	21,441	1.16
경 북	242,085	3,076	21,441	0.90
경 남	149,278	2,655	21,441	1.25
제 주	50,525	9	21,441	0.0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8-11> 복숭아의 지역특화계수

지역	경지면적			특화계수
		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경기	191,821	1,233	14,696	0.66
강원	104,064	896	14,696	0.88
충북	99,985	3,503	14,696	3.60
충남	220,476	1,019	14,696	0.48
전북	187,373	1,038	14,696	0.57
전남	264,942	400	14,696	0.16
경북	242,085	6,258	14,696	2.66
경남	149,278	350	14,696	0.24
제주	50,525	-	14,696	0.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8-12> 포도의 지역특화계수

지역	경지면적			특화계수
		해당지역 해당작목 수확면적	전국 해당작목 수확면적	
경기	191,821	2,660	15,928	1.32
강원	104,064	204	15,928	0.19
충북	99,985	2,190	15,928	2.08
충남	220,476	2,003	15,928	0.86
전북	187,373	689	15,928	0.35
전남	264,942	317	15,928	0.11
경북	242,085	7,440	15,928	2.91
경남	149,278	417	15,928	0.26
제주	50,525	9	15,928	0.0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8-11>과 <표 8-12>는 각각 복숭아와 포도의 지역 특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비교적 주산지가 선명한 편이다. 충청북도의 복숭아 특화계수는 3.60이나 되고, 그 뒤를 2.66의 경상북도가 따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 두 지역이 복숭아의 핵심적인

생산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포도의 경우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기도 등이 높은 특화계수를 보이고 있다.

다. 축산물 산지 변화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축산혁명’(livestock revolution) 이후 육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류의 대량생산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육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와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축산 농가의 전문화는 지역적인 집중을 낳고 있다.

<표 8-13> 시·군별 한우 사육두수(상위 20위)

순위	시·군	2005년 사육두수	시·군	2000년 사육두수
1	경 주	45,556	경 주	42,021
2	홍 성	38,208	안 성	32,757
3	상 주	34,627	홍 성	28,928
4	정 읍	32,716	정 읍	27,951
5	공 주	29,828	청 원	26,957
6	장 흥	29,454	합 천	26,537
7	안 동	28,275	상 주	24,463
8	예 천	27,371	공 주	21,471
9	영 주	27,228	장 흥	20,620
10	합 천	26,151	예 천	20,334
11	횡 성	22,465	고 성	20,144
12	고 흥	21,769	당 진	19,863
13	나 주	21,655	고 흥	19,843
14	예 산	21,220	안 동	19,448
15	김 제	20,311	밀 양	18,776
16	무 안	20,298	영 주	18,177
17	영 암	20,139	나 주	17,621
18	영 천	19,566	예 산	17,192
19	안 성	19,474	창 녕	16,961
20	당 진	19,110	거 창	15,80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8-13>은 2000년과 2005년 한우 사육두수 상위지역을 보여준다. 이 표에 따르면 2000년에 비해 2005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육두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쇠고기 소비의 일반적인 증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주, 홍성, 상주, 정읍, 공주 등이 한우의 주요 생산지역이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쇠고기 값의 하락이 예측되는데, 이에 따라 한우 농가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5년 후 통계치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표 8-14>는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 현황과 5년간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 따르면

<표 8-14> 시·군별 돼지 사육두수(상위 20위)

순위	시·군	2005년 사육두수	시·군	2000년 사육두수
1	홍 성	366,124	홍 성	379,161
2	이 천	260,381	북 제 주	194,626
3	북 제 주	224,061	안 성	186,018
4	당 진	181,192	용 인	180,935
5	용 인	177,145	이 천	173,521
6	안 성	175,807	포 천	166,169
7	김 제	172,387	당 진	160,632
8	김 해	151,098	익 산	160,232
9	정 읍	150,119	나 주	152,305
10	나 주	146,322	김 해	148,533
11	화 성	144,279	경 주	147,251
12	임 실	141,828	김 제	139,132
13	영 천	139,841	파 주	123,554
14	공 주	133,356	양 주	119,828
15	여 주	128,896	화 성	115,708
16	논 산	127,712	정 읍	114,249
17	무 안	127,457	평 택	110,145
18	익 산	126,625	영 천	100,446
19	포 천	124,398	천 안	98,484
20	예 산	124,380	무 안	95,555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국내 최대의 돼지 사육 지역은 홍성이다. 홍성은 2000년에 이어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으며, 2000년부터 5년 사이에 순위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이천의 사육두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거의 9만 두나 증가하여 5위에서 2위로 급부상한 점이 눈에 띈다.

라. 판매액 변화

<표 8-15>는 판매액 1억원 이상 농가의 시·군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에

<표 8-15> 농산물 판매액 1억원 이상 농가의 시·군별 분포(상위 20위)

순위	시·군구명	농가수	2005년 1억 이상 농가수	비율(%)	시·군구명	2000년 1억 이상 농가수	비율(%)
1	화 성 시	14,065	478	3.40	화 성 군	243	1.6
2	남제주군	10,267	409	3.98	포 천 군	243	2.6
3	이 천 시	9,722	392	4.03	파 주 시	241	2.6
4	파 주 시	8,479	333	3.93	이 천 시	218	2.2
5	안 성 시	10,594	323	3.05	안 성 시	186	1.7
6	천 안 시	12,574	319	2.54	평 택 시	176	1.3
7	나 주 시	14,732	316	2.15	김 제 시	176	1.1
8	당 진 군	14,591	315	2.16	당 진 군	159	1.0
9	포 천 시	7,870	308	3.91	익 산 시	159	1.0
10	평 택 시	12,185	284	2.33	여 주 군	151	1.6
11	북제주군	11,393	269	2.36	용 인 시	136	1.7
12	여 주 군	8,787	266	3.03	홍 성 군	136	1.1
13	정 읍 시	13,003	266	2.05	양 주 군	128	2.6
14	익 산 시	13,757	258	1.88	정 읍 시	128	0.9
15	논 산 시	13,120	248	1.90	천 안 시	122	1.0
16	용 인 시	8,194	245	3.00	북제주군	117	0.9
17	양 주 시	4,777	233	4.88	나 주 시	112	0.7
18	김 해 시	8,661	231	2.67	청 원 군	111	0.8
19	홍 성 군	11,108	226	2.04	부 안 군	111	1.0
20	김 제 시	13,192	215	1.63	연 천 군	110	2.3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따르면 2005년의 경우 화성시, 남제주군, 이천시, 파주시, 안성시 등이 1위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2000년의 경우는 화성, 포천, 파주, 이천, 안성의 순이었다. 포천의 순위가 내려왔고 남제주군이 부상한 것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표에 따르면 2005년의 2000년도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농가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주의 경우 2005년에 전체 농가 4,777호 가운데 233호가 1억 이상의 판매를 보여 무려 4.88%의 지역농가가 1억원 이상의 판매액을 올렸다. 이는 전반적으로 상업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채소류 등 환금 작물로의 전문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시장에 인접해 있어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농업구조 변화의 특징

전통적인 미작과 이를 보조하는 채소, 과수의 형태는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으며, 시장을 지향하는 전문화와 규모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식품 소비 양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 구조의 변화는 생산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논벼의 감소와 과수, 채소, 축산의 생산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농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농업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농지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밭 면적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벼농사를 줄이고, 채소류를 늘려가는 추세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역특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논벼의 경우는 전라북도과 충청남도, 사과와 감의 경우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배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남도, 복숭아의 경우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도의 경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높은 특화계수 값을 보였다. 한편 한우의 경우 경주와 홍성이, 돼지의 경우에는 홍성과 이천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업화와 전문화는 일부 대규모 농가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판매액 1억 이상 농가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화성시, 남제주군, 이천시 등이었다. 지역 농가 중 1억 이상 비율이 4%를 넘는 지역도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양주시와 이천시였다.

농업의 지역 특화와 분화는 일부 대규모 기업형 농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농촌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와 연계된 대규모 농가들의 연계구조가 강화된 식품체계로 단일화됨으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위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먹거리의 수송거리(food mileage)를 연장시켜 소비자들의 식량시민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Ⅲ.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1. 고령화와 농촌사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2006년 일본이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인구는 9.5% 정도이고, 머지않아 1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농촌의 경우는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농가 및 농촌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20>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농민의 연령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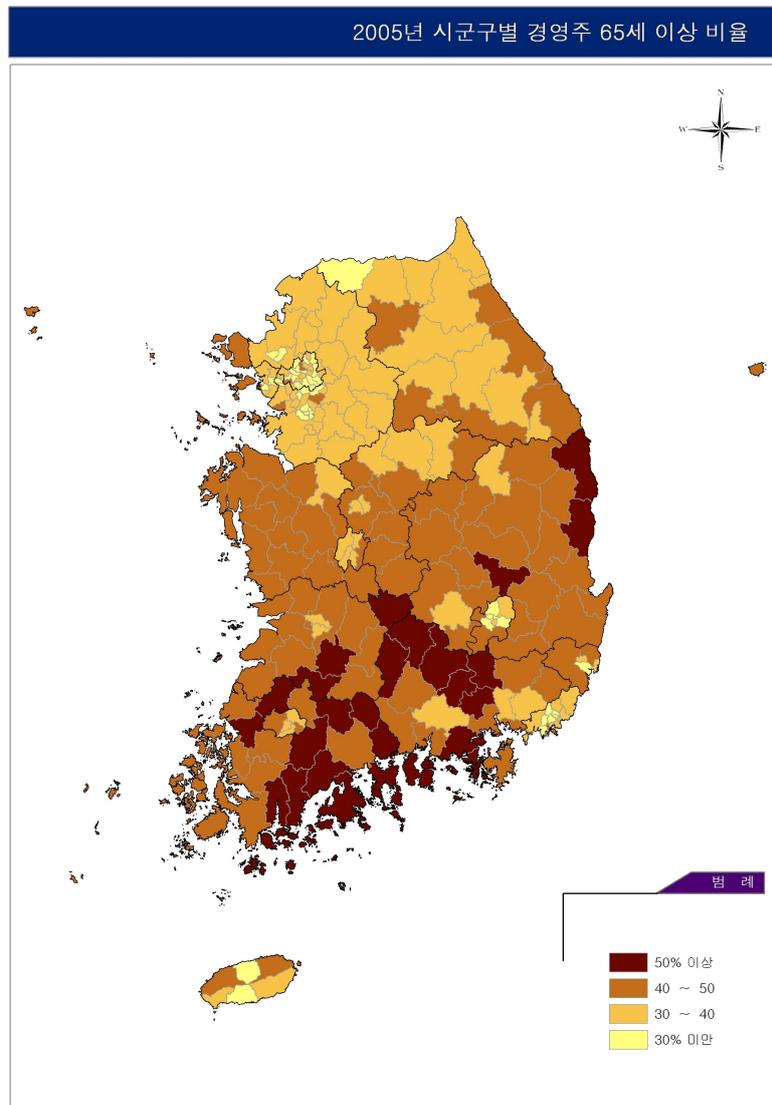
<표 8-16> 시·도별 농민 연령구조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서울특별시	3,735	1,178	1,554	2,499	1,949	937
부산광역시	7,994	2,267	3,702	5,265	4,793	3,189
대구광역시	14,441	4,164	6,795	9,676	9,372	6,045
인천광역시	9,267	3,142	6,019	7,424	8,798	6,823
광주광역시	12,430	3,500	5,169	7,274	7,887	5,625
대전광역시	8,486	2,624	3,874	4,800	4,827	3,605
울산광역시	9,187	2,960	4,345	6,159	6,785	5,376
경 기 도	132,349	42,346	70,383	73,320	79,774	60,995
강 원 도	50,551	17,107	33,002	35,587	46,227	32,870
충 청 북 도	55,238	17,240	33,745	40,880	51,710	40,572
충 청 남 도	99,514	30,992	59,409	78,882	97,553	81,876
전 라 북 도	70,409	22,430	39,045	57,054	74,377	56,745
전 라 남 도	92,358	29,215	54,854	82,505	123,227	96,804
경 상 북 도	104,027	34,057	67,637	102,256	132,280	104,867
경 상 남 도	82,106	27,181	48,610	70,964	91,983	73,174
제 주 도	36,047	13,653	15,783	16,337	18,727	11,282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 전체의 43%가 65세 이상으로 앞으로 심각한 농가 재생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 <표 8-17>은 시·군·구별 농가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20개 지역을 보여준다. 상위 20개 시·군은 경영주 연령이 65세를 넘는 농가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최상위권의 지역은 화순, 울진, 남해, 의령, 곡성, 고흥 등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후계자율과 작은 가구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주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영농이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8-3>은 시·군·구별 고령 경영주의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농업 경영자들의 전반적인 고령화를 보여주고, 특히 미작지역인 전라남도 일부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심각한 경영승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8-3> 시·군·구별 고령 경영주의 비율

<표 8-17> 시·군별 경영자 65세 이상 비율, 상위 20

순위	시·군	%	순위	시·군	%
1	화 순	57	15	함 평	51
2	울 진	56	16	완 도	51
3	남 해	56	17	영 덕	51
4	의 령	55	18	고 성	51
5	곡 성	54	19	거 창	51
6	고 흥	54	20	부 산 중	50
7	보 성	53	20	무 주	50
8	강 진	52	20	여 수	50
9	군 위	52	20	광 양	50
10	통 영	52	20	구 례	50
11	함 양	52	20	장 흥	50
12	합 천	52	20	장 성	50
13	임 실	51	20	함 안	50
14	순 창	51	20	창 녕	5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2. 기계화와 농촌사회

1970년대 이후 급속히 확산된 근대적 농업 혹은 산업적 농업(industrial farming)은 우리나라 농업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급속히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농업도 많은 자본과 화학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적 농업으로 변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농기계는 경운기로서 보급률이 55.1%에 달한다. 이어서 관리기, 이앙기, 트랙터 등도 널리 보급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경운기의 보유 대수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정체되었다. <표 8-18>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특히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모든 지역에서 경운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운기가 다른 농기계에 비교적 일찍 농가에 보급되었으며, 농가수가 감소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표가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은 1970년대에 경운기 보유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점이다. 이는 이 시기에 진행되었던 경지정리와 기계화 농업의 적극 도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 8-19>에 따르면 트랙터는 경운기 보유 대수 변화와는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경운기와는 달리 트랙터의 보유대수는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트랙터에 있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와 경상북도로 각각 29.5%와 25.3%였다.

<표 8-18> 지역별 경운기 보유 현황 및 증가율

(단위 : 대,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계	9,889	312,212 (3,057)	804,369 (157)	854,604 (6.2)	868,328 (1.6)	769,150 (-0.01)
경 기도	1,696	52,659 (3,005)	124,539 (137)	112,998 (-9.3)	100,330 (-11.2)	85,478 (-0.15)
강 원 도	254	14,976 (5,796)	50,311 (236)	51,639 (2.6)	51,436 (-0.4)	45,465 (-11.6)
충청북도	489	21,893 (4,377)	57,296 (162)	58,153 (1.5)	57,289 (-1.5)	51,084 (-10.8)
충청남도	1,061	34,383 (3,140)	102,668 (199)	106,802 (4.0)	108,023 (1.1)	97,147 (-10.1)
전라북도	1,156	21,995 (1,802)	61,168 (178)	71,015 (16.1)	73,187 (3.1)	65,082 (-11.1)
전라남도	1,180	38,311 (3,147)	102,166 (167)	124,005 (21.4)	138,103 (11.4)	121,947 (-11.7)
경상북도	2,261	71,765 (3,074)	172,460 (140)	183,580 (6.4)	185,790 (1.2)	166,630 (-10.3)
경상남도	1,508	46,440 (2,980)	111,541 (140)	123,826 (11.0)	132,847 (7.3)	118,682 (-10.7)
제 주 도	284	9,790 (3,347)	22,220 (127)	22,586 (1.6)	21,323 (-5.6)	17,635 (-17.3)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8-19> 지역별 트랙터 보유현황 및 증가율

(단위 : 대,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계	1,778	3,124 (75.7)	49,927 (1,498)	114,303 (129)	193,574 (69.3)	229,479 (18.5)
경 기 도	306	517 (69.0)	12,660 (2,349)	26,498 (109)	38,363 (44.7)	41,888 (9.2)
강 원 도	79	113 (43.0)	2,318 (1,951)	6,945 (200)	12,674 (82.5)	15,494 (22.3)
충청북도	109	141 (29.4)	2,669 (1,793)	6,586 (147)	11,459 (74.0)	13,377 (16.7)
충청남도	218	412 (89.0)	7,232 (1,655)	15,973 (121)	26,512 (66.0)	31,452 (18.6)
전라북도	172	406 (136.0)	5,927 (1,360)	11,846 (100)	19,919 (68.1)	23,252 (16.8)
전라남도	217	544 (150.7)	7,072 (1,200)	16,140 (128)	27,773 (72.1)	32,523 (17.1)
경상북도	343	545 (58.9)	5,921 (986)	15,628 (164)	29,639 (89.7)	37,271 (25.7)
경상남도	265	345 (30.2)	5,631 (1,532)	13,486 (139)	25,097 (86.1)	31,453 (25.3)
제 주 도	69	101 (46.4)	497 (392)	1,201 (142)	2,138 (78.0)	2,769 (29.5)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3. 친환경농업과 농촌사회

식량증산을 목표로 도입된 1970년대 이후의 녹색혁명과 화학농업은 많은 농민들의 건강을 해쳤고, 농촌의 환경을 파괴했으며,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높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농회를 비롯한 일부 생명운동단체와 그 회원들이 일찍부터 환경농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표 8-20>은 2000년과 2005년 사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5년 사이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가 60,275에서 87,199로 44.7% 증가하여, 친환경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인 품목별 변화를 보면

논벼는 25.2%, 과수는 80.4%, 채소는 23.5%, 특용작물은 122% 각각 증가하였다. 즉 다른 작목에 비해 특용작물과 과수 농가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다.

<표 8-20>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및 품목별 농가수 변화

연도	실천농가수(가구)	품목별 농가수(가구)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작물
2000	60,275	41,494	7,886	18,776	1,993	2,718
2005	87,199	51,964	14,225	23,180	4,417	6,541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각 년도

<표 8-21>은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처별 분포를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생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유통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46.93%가 농협이나 다른 농업법인을 통해, 19.6%가 개인소비자에게 직접, 그리고 10.59%가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농산물 판매 경로 자체가 빠르게 분화되고 있으므로 조사문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8-21>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처별 농가수

판 매 처	농가수(가구)	비 율
도매시장	9,232	10.59
산지공판장	5,340	6.12
농협·농업법인	40,920	46.93
소비자단체	1,941	2.23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단체	5,726	6.57
개인소비자	17,087	19.60
대형유통업체	1,412	1.62
기타(판매 없음 포함)	5,541	6.35
합 계	87,199	100%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8-22>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지역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와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에 따르면 논벼의 경우는 경기도가 전체 친환경생산 농가의

19.09%를 차지했고, 그 뒤를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이 쫓았다. 한편 과수의 경우는 경상북도가 전체 친환경 농가의 33.98%의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채소의 경우는 전체 친환경 농가의 반 이상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에서 차지했다.

소비자들의 건강 의식이 높아지고, 웰빙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참여도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이며, 앞으로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게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짓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제 조사에서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의 3단계와 관련된 문항이 있고, 유기농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분석에서는 “지난 1년간 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한 친환경농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부만을 종속변수에 활용하였다. 즉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놓고 분석한 것이다. 친환경농업에 영

<표 8-22> 지역별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수 및 품목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작물
서울특별시	58(0.14%)	91(0.14%)	288(0.44%)	6(0.05%)	14(0.12%)
부산광역시	338(0.79%)	89(0.14%)	870(1.32%)	17(0.14%)	31(0.27%)
대구광역시	178(0.41%)	691(1.05%)	1,092(1.66%)	35(0.30%)	76(0.66%)
인천광역시	676(1.58%)	349(0.53%)	364(0.55%)	98(0.83%)	102(0.88%)
광주광역시	410(0.96%)	215(0.33%)	886(1.35%)	80(0.68%)	35(0.30%)
대전광역시	242(0.56%)	602(0.92%)	292(0.44%)	44(0.37%)	44(0.38%)
울산광역시	261(0.61%)	527(0.80%)	109(0.17%)	26(0.22%)	125(1.08%)
경 기 도	7,762(18.09%)	5,172(7.88%)	5,366(8.16%)	845(7.15%)	1,227(10.63%)
강 원 도	2,186(5.09%)	1,010(1.54%)	5,277(8.02%)	1,440(12.19%)	1,250(10.83%)
충 청 북 도	2,713(6.32%)	9,684(14.76%)	3,798(5.78%)	1,360(11.51%)	1,121(9.71%)
충 청 남 도	6,614(15.41%)	4,410(6.72%)	10,284(15.64%)	2,167(18.35%)	1,271(11.01%)
전 라 북 도	3,237(7.54%)	4,060(6.19%)	3,691(5.61%)	1,239(10.49%)	1,251(10.84%)
전 라 남 도	6,564(15.3%)	3,495(5.33%)	6,314(9.60%)	1,246(10.55%)	1,144(9.91%)
경 상 북 도	7,194(16.76%)	22,296(33.98%)	12,467(18.96%)	2,000(16.93%)	2,209(19.14%)
경 상 남 도	4,477(10.43%)	5,794(8.83%)	12,242(18.61%)	1,109(9.39%)	974(8.44%)
제 주 도	4(0.01%)	71,27(1 0.86%)	2,425(3.69%)	100(0.85%)	665(5.76%)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표 8-23> 친환경농업 실시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변 수	추정값	표준오차	p값
가족 수	-0.025	0.004	0.0001
농사경력	0.010	0.001	0.0001
경지면적	0.000021	0.001	0.0001
연 령	-0.009	0.001	0.0001
성 별	-0.264	0.024	0.0001
컴퓨터 활용	-0.501	0.011	0.0001
생산자조직 참여	1.264	0.011	0.0001
교육정도	0.026	0.005	0.0001

자료 : 2005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가족수, 농사경력, 경지면적, 연령, 성별, 컴퓨터 활용, 교육 정도, 생산자조직 참여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짓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8-23>인데, 이에 따르면 농사경력, 경지면적, 교육수준, 생산자조직 참여 등이 (+)의 값을 갖는 반면 가족수, 연령, 성별, 컴퓨터 사용여부 등이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사경력이 길고, 경지면적이 넓고, 교육수준이 높고, 생산자 조직에 참여할수록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고, 가족수가 많고, 연령이 높고, 남성이고, 컴퓨터를 사용할수록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도에 수행된 2000년도 농업총조사에 대한 분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002년 연구에 따르면 가족수는 친환경농업에 (+)의 영향을 주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수가 (-)의 값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포함된 경지면적이 (+)의 값을 갖는 것도 의외의 결과이다. 앞으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친환경농업이 점차 대형화되고, 상품화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농업정보화와 농촌사회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근대화의 길을 걸어온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정보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나 초고속 통신망 등의 새로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에 정부는 많은 투자해왔다. 그러나 근대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보화도 도시-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화되고,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은 정보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보화

를 위한 투자가 컴퓨터의 보급 확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의 효율성이나 수용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화는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 관련 정보 수집과 판매 등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활용 능력의 차이가 농가들 간의 소득 격차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표 8-24>은 지역별 정보화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컴퓨터 보유율은 36%이고, 컴퓨터 활용률은 전체 농가수 대비로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가 도시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는 소비단위이기도 하지만 도시 가구와는 달리 생산단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낮은 정보화율은 도시 가구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 8-24> 지역별 정보화 현황

(단위 : 가구)

구 분	농가수	컴퓨터 보유	컴퓨터 활용	홈페이지 개설
계	1,272,908	470,379	135,098	4,669
경 기도	159,568	90,170	24,364	714
강 원 도	75,790	33,051	11,564	595
충청북도	85,723	85,723	9,718	397
충청남도	171,854	62,362	16,356	518
전라북도	121,749	40,006	11,714	352
전라남도	212,814	54,998	17,898	531
경상북도	232,420	77,130	22,748	782
경상남도	176,772	59,194	14,955	567
제 주 도	36,218	19,223	5,781	213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 2005년

2005년 농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실 정보화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낮은 농촌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컴퓨터 활용 여부, 즉 “농업에 조금이라도 컴퓨터를 활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부를 기준으로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농지규모, 판매액을 택하였다. 11개 구간으로 조사된 판매액은 구간의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²⁰⁾ 그 결과가 <표 8-31>에 제

20) 변수 선택과 리코딩 방식은 선행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용하였다. 한국농촌

시되어 있다.

<표 8-25> 컴퓨터 활용 결정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변 수	추정값	표준오차	p값
연 령	-0.18	0.000	0.0001
교육수준	0.261	0.003	0.0001
농지규모	0.000	0.000	0.0001
판 매 액	0.219	0.001	0.0001

자료 : 2005년도 농업총조사 원자료 분석에 의함.

표에 따르면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은 모두 컴퓨터 활용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냈다. 교육수준, 농지규모, 판매액 등은 모두 컴퓨터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연령은 유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농지 규모가 크고, 판매액 클수록 컴퓨터 활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면 연령이 많아지면 컴퓨터 활용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총조사에 관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지수가 매우 높고,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컴퓨터 활용을 통한 농업 관련 활동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5. 지역사회와 생활여건

농촌사회의 열악성은 다양한 생활시설의 부족과도 깊이 관련된다. 소득이나 다른 사회적 기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농촌 지역사회는 도시에 비해 불편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총조사에서는 생활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그리고 병의원 등 세 가지 주요시설에 대한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26>, <표 8-27>, <표 8-28>와 같다.

<표 8-2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6%는 자동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걸어서 가는 경우는 21.5%에 불과하여 자동차가 농촌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7>은 금융기관 방문시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았고,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도 약간 많았다. 이동수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기타’를 선택하였는데, 선택지를

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2」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업총조사 종합분석」(2002)을 참조할 것.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도보와 자동차 이외에 농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동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선택지를 늘려야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8-26> 읍면동사무소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변 수	사용자수	평균시간(분)	
도 보	273,767	14.75	
자 동 차	797,190	13.20	
기 타	201,951	16.67	

<표 8-27> 금융기관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변 수	사용자수	평균시간(분)	
도 보	293,011	13.76	
자 동 차	780,129	13.10	
기 타	199,768	16.56	

<표 8-28> 병의원 방문시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

변 수	사용자수	평균시간(분)	
도 보	194,358	14.54	
자 동 차	889,428	20.22	
기 타	189,122	22.29	

끝으로 <표 8-28>은 고령화된 농촌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병의원 방문시의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표와는 차별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소요시간이 훨씬 길고, 자동차 이용률도 높다. 즉 자동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69.7%에 달했고,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은 20.22분으로 읍면동사무소의 13.20분이나 금융기관의 13.10분에 비해 7분 이상 길었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시설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9장 농림어업총조사 개선 방안

I. 해외 농업총조사 사례 분석

1. 일본

가. 연역

일본의 농림업에 관한 최초 전수 조사로서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관) 전신인 만국농사협회가 제창하는 「1930년 세계 농업 센서스」의 실시에 따라서 실시한 「쇼와 4년 농업조사」이며 전쟁 전까지, 쇼와 13년 전국일제조사, 쇼와 16년 농림수산업 기본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후 농업 센서스로는 쇼와 20년 종전으로 증가한 인구를 농업-농촌에 흡수할 필요가 있었는데, 쇼와 21년 「농가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식량 관리나 농지 개혁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쇼와 22년 임시농업센서스를 실시하였고 이 때 처음으로 「센서스(census)」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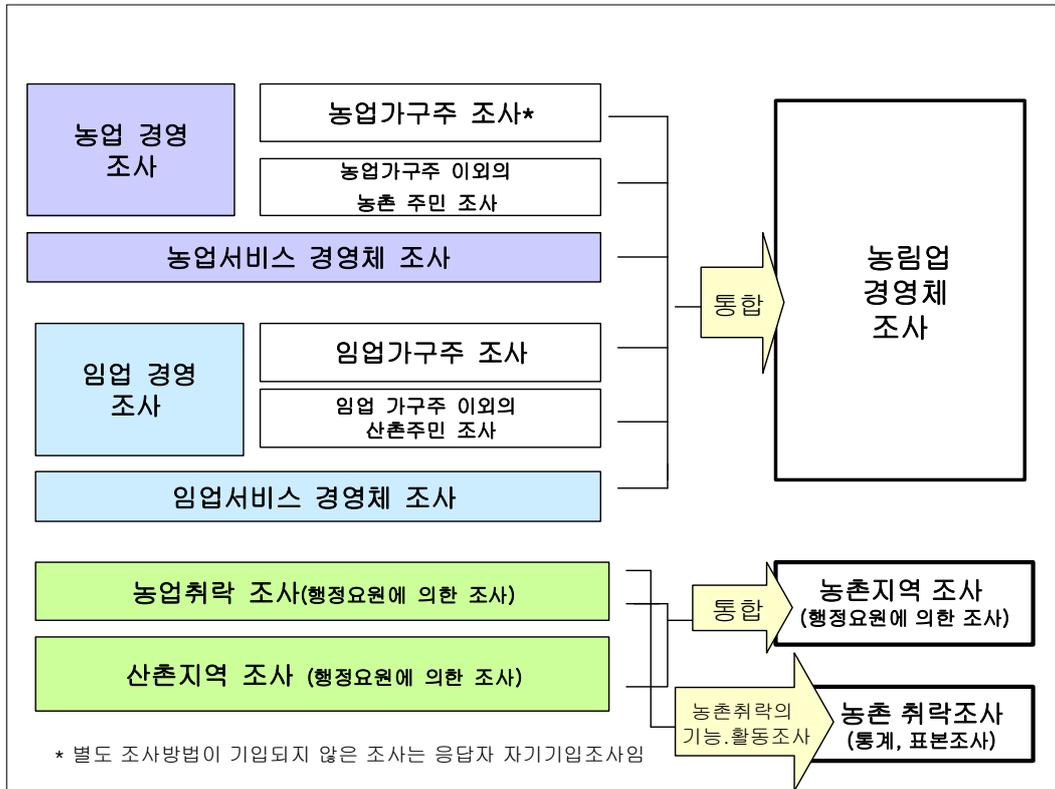
전후 직후에 농림업 조사는 농업 과잉인구, 식량부족, 농지 개혁 등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을 적지 않은 것이었는데,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FAO가 제안한 「1950년 세계 농업 센서스 요강」에 준거하여 「1950년 세계 농업 센서스」를 쇼와 25년 2월에 실시하였는데 이때부터 기본적인 농업 구조를 본격적으로 파악하려는 방향으로 조사가 전환하기에 이른다. 조사 항목이나 센서스 상 제반 정의가 FAO 요강에 따라서 설계되게 됨으로써 농산물 생산고 항목이 없어지는 대신에 생산·취업구조의 파악에 중점이 놓이는 경향이 센서스 이후 한층 강조된다. 이후 조사 항목이나 정의 등에 대해서 재차 수정을 거쳐 쇼와 25년 이후 10년마다 세계 농업 센서스에 참가해 세계농림업 센서스를 실시해, 그 중간에 해당하는 5년째 마다, 독자로 농업 센서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가장 최근 센서스인 2005년 농림업 센서스의 특성과 향후 과제를 통해서 일본 농림업 센서스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조사개요

2005년 농림업 센서스는, 농림업 경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 조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와 농산촌지역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읍면이나 농업 취락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구성되었다. 2005년 센서스의 주 변경사항으로는 첫째 지금까지 농가, 농림업 서비스 사업체 등 세대 혹은 법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기 다

른 조사표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모든 생산 활동(농림업경영체)을 대상으로 하나의 조사표로 통합하였다. 2005년 센서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동안 따로 실시해 오던 농업취락조사와 임업지역 조사를 농산촌지역조사로 통합한 것이다.



<그림 9-1> 2005년 농림업 센서스 통합체계

농림업 경영체 조사와 지역관련 조사(농산촌지역조사와 농촌취락조사)의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농림업 경영체 조사

- ㄱ. 경영 형태(세대인 농림업 경영체에 있어서는, 경영의 모양 및 세대원 상태)
- ㄴ. 농업 노동 및 임업 노동
- ㄷ. 경지(해당 농림업 경영체가 소유하는 경지에서 해당 농림업 경영체 이외의 사람이 실시하는 농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포함) 및 그 외의 토지(해당 농림업 경영체의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
- ㄹ. 가축 및 누에
- ㅁ. 농업용 기계 및 시설
- ㅂ. 농업 생산물

- 스. 농사일
- ㅇ. 산림
- 저. 육림 및 소재 생산
- 츠. 그 외 농림업 경영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2) 농산촌지역조사

- ㄱ. 자연적 및 사회경제적인 입지 조건
- ㄴ. 임야의 구성
- ㄷ. 삼림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 상황
- ㄹ. 토지 및 그 이용 상황
- ㅁ. 그 외 농림업 경영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3) 세부 사항

농림업 경영체 및 농가의 조사대상자의 정의, 조사기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농림업 경영체

모든 농림업 경영체 가운데, 시험연구기관, 교육기관, 복리후생 시설 그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림업 경영체 이외의 농림업 경영체이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ㄱ. 경영 경지 면적이 30아르 이상의 규모의 농업
- ㄴ.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면적, 가축의 사육 또는 출하 그 외의 사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업외형을 기준으로 한다.
- ㄷ. 육림 또는 벌채(입목대나무만을 양도하고 하는 벌채를 제외)(을)를 실시할 수 있는 산림(이하 「보유 산림」이라고 한다.)의 면적이 3헥타르 이상의 규모의 임업(육림 또는 벌채를 적절히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 ㄹ. 농사일의 수탁 사업
- ㅁ.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육림 혹은 소재 생산 또는 입목을 구입해 실시하는 소재 생산의 사업

② 농가 등의 정의

- 「농가」란, 다음의 해당하는 농업을 실시하는 세대를 말한다.

- ㄱ. 경영 경지 면적이 10아르 이상의 규모의 농업
- ㄴ. 조사 기일 전 1년간 농업 생산물의 총 판매액이 15만엔 이상의 규모의 농업

- 「농업 취락」이란, 시·구·읍·면의 구역의 일부에 있어 농업상 형성되고 있

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 「임업가구」란, 보유 산림의 면적이 1헥타르 이상의 세대를 말한다.
- 「농산촌지역」이란, 그 지역 내에 있어 공통의 자연적 및 경제적인 입지 조건 아래에 농업 또는 임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세부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을 말한다.

다. 평가와 개선 방향

일본 통계위원회에서는 2005년 센서스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차기 센서스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차기 센서스의 기본 방향

2005년 센서스는 이제까지 농가, 농가 이외의 농업 사업체 및 농업 서비스 사업체 등 형태별로 나누어져 있던 조사를 농림업경영체 조사로 하나로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농림업·농산촌지역의 실태를 일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농업 취약 조사와 임업 지역 조사를 통합해 농산촌지역 지역 조사로서 실시했다.

2010년 센서스 역시 위와 같은 2005년 센서스의 조사 체계를 계속하여 농림업·농산촌지역의 기본 구조의 실태를 계속해 파악하고 동시에, 정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업 경영체 조사에 대해서는 2005년 센서스로 도입한 경영체의 개념에 따라서 실시하고, 농산촌지역 지역 조사에서는, 농산촌지역 지역의 활성화의 추진 등 새로운 시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구체적 과제와 대응 방안

① 조사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

조사환경의 변화에의 대응하기 위해 조사 수법의 효율화가 지속되어 왔는데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의 고양으로 인해서 조사 대상자에게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등, 조사 환경이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5년 센서스에서 지적된 구체적 문제들로는 먼저 조사방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1) 외형 기준에 근거한 농가 판정의 문제점 2) 조사 대상후보 명부의 작성과 관련된 작업의 어려움 3) 농가 등 조사 대상자가, 기입한 조사표를 직접 조사원에게 보는 것에 저항감을 가지는 등 조사표의 제출 방법에 있어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 대상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조사원이 실시하는 조사 대상 후보 명부의 작성에서부터 조사표의 배포·회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업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ㄱ. 조사 대상의 개념·정의·범위의 재검토

농림업 경영체 조사에 대해서는, 이번, 산업 통계로서의 정비의 방향을 목표로 해, 조사 단위의 개념·정의를 변경하고, 아울러 조사 사항 등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향후의 산업 통계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의 개념·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농림업 경영체를 조사 단위로 하는 조사의 정확성, 유효성에 대해서,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ㄴ. 조사의 중점화·간소화를 통한 효율화

조사 항목과 관련해서는 항목의 재검토와 감량화 문제가 제기되었다. 2005년 센서스의 농림업 경영체 조사표는 전체로 12페이지에 이르고 있는데 조사 대상자의 기입 부담이 증가하고 조사표 심사를 실시하는 조사원이나 시읍면 직원에 있어서도, 큰 부담이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국가의 통계조사에 협력해야한다는 의식이 점차 희박해지고 조상대상자의 고령화로 조사표 작성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조사 협력을 얻기 위한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사표 검토 과정에서 미기입이 조사 항목이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센서스 결과의 활용가능성, 기존의 행정 기록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해, 반드시 전수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조사 항목을 대해서는 간소화 혹은 폐지하는 등 조사 항목의 재검토를 통한 감량화가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조사대상자의 오기입과 기입 누락을 막기 위해서 용어를 간소화하고 용어의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ㄷ. 다른 산업 통계와 데이터 연결에 의한 통계 정비

농림업 경영체 조사는 농림업 경영체 중 회사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조사 내용이 농림업과 관련되는 생산 활동에만 한정되어 있어 해당 법인과 관련되는 다른 사항은 조사할 수 없다. 법인에 있어서 농림업 경제활동의 실태는 법인의 개설년도나 자본금 등의 조직 특성을 연계하여 법인 경제활동의 전모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농림업 경영체 조사 중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통계조사 등과의 데이터 연결을 링크지를 실시해, 필요한 통계 정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ㄹ. 일부 조사 방법의 변경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 개혁에 따라서 농림 수산 통계 분야의 지방 통계 직원의 정원이 줄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방 통계 직원이 실시하고 있던 조사는 조사원 조사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가 모색되고 있다. 2005년 센서스에서 농림수산성 직원의 면접

으로 실시하였던 농산촌지역 조사는 조사원이나 우편으로 조사표를 배포·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신고 조사로 변경토록 하는 방안으로 이에 따른 자기기입식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기입하기 쉽고, 정확한 회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의 내용이나 레이아웃이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② 새로운 농업환경과 농업정책 도입으로 인한 통계 수요에 대응

ㄱ. 새로운 농업정책의 도입에 따른 조사항목의 신설

2005년 센서스의 농림업 경영체 조사에서는, 농림업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사 항목에 새로 포함되고, 환경보전형 농업에의 대응, 가족 경영 협정 유무, 농업 경영 개선 계획 유무 등, 새로운 정책 요구에 대응한 항목을 도입한 바 있다. 센서스 이후에 경영 소득 안정 대책, 농산물·환경보전 대책 도입, 농산어촌 활성화법의 제정 등 지역활성화 대책 추진 등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이에 따른 통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센서스에서 조사 대상자의 부담에 고려하는 선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 항목의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ㄴ. 장기적 구조 변화의 파악

2010년 센서스에서는 경영체 개념에 의해 농림업 경영체 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시계열적 데이터를 구성해 활용도를 높여 갈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가구의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대(농가) 개념에 의한 통계 데이터에 대해서도 과거의 센서스와 데이터 연속성을 확보해, 제공 가능한 조사 항목을 설정한다.

③ 농업 취락 단위의 통계 데이터가 필요한 항목의 도입

농산어촌 활성화법의 제정 등으로 지역활성화 대책 추진에 따른 대응 통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기본 방향은 1) 지역 영농 유형별 경영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한 농업 경영 통계 조사의 체계 정비 2) 소비 구조의 변화 등에 수반하는 생산 동향의 변화 3) 농업 정책의 변화 요인인 농작물 등 생산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작물 통계조사를 중심으로 한 생산 통계조사의 체계 정비 4) 시장 외 유통을 포함한 물류의 전체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통 통계조사의 체계 정비 등이다

2. 미국

가. 조사 내용

2007년 센서스의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농업센서스의 조사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총 35개 사항에 걸쳐 24page에 달하는 조사표에 매우 구체적인 조사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 1) 토지 면적 : 소유 면적, 임차에 관한 사항, 농장 소유 지역
- 2) 토지 유형
- 3) 관계
- 4) 정부 보조금 등
- 5) 곡물 : 12개 지정 곡물과 이외에 3개의 곡물을 기입할 수 있음. 각각 곡물별로 수확면적과 관계시설 경작면적
- 6) 곡물저장 능력
- 7) 건초와 사료작물 : 8개 품목별 재배 면적
- 8) 관상수 : 재배 면적과 재배 수
- 9) 시설재배 작물 : 재배량과 판매액
- 10) 채소, 감자, 메론 : 총 수확 면적과 총 노지 재배 면적, 작물별 수확 면적 - 콩, 파브리카, 후추, 감자, 호박, 옥수수, 토마토의 전체 재배 면적, 판매 면적, 자급 면적 기타 3가지 작물까지 개방형 기입
- 11) 과일과 견과 : 총 수확 면적과 총 노지 재배 면적, 작물별 수확 면적 - 사과, 살구, 체리(단), 체리(신맛), 밤, 포도, 헤즐넛, 복숭아, 배, 개량 피칸, 재래 피칸, 감, 자두, 영국 호두의 15개 작물의 전체 재배면적, 결과수 면적, 비결과수 면적, 15개 작물 이외의 4개 작물까지 개방형으로 기입
- 12) 소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마리 수, 고기용, 우유용, 기타 용도별 마리 수, 전체 마리 수 수, 2007년 한 해 동안 팔거나 이동한 마리 수, 00파운드 이하와 500파운드 이상으로 구분, 피드락에 사용되는 소 두수 - 피드락에서 사육되는 500파운드 이상의 소 두수
- 13) 양 : 전체 양 두수, 1년 이상 양 두수
- 14) 가금류 : 닭, 칠면조, 오리, 거위, 타조, 꿩, 비둘기 또는 새끼 비둘기, 메추라기의 9개 가금류별(기타 개방형 하나 포함) 사육 두수 및 2007년에 팔거나 옹진 두수 수, 기타, 2007년에 부화한 가금류 수
- 15) 꿀벌 : 판매량, 현재 소유량 등
- 16) 계약 판매 사항
- 17) 농산물 판매액 : 16개별 농업생산물의 한 해 동안 판매액과 전체 판매액
- 18) 유기농산물 : 경작면적, 품목별 판매액
- 19) 농업관련 사업의 수입 : 7개 사업유형별 수입
- 20) 생산비용 : 17개 항목별 생산(지출) 비용
- 21) 노동자 고용 : 농업일에 고용한 노동자 숫자 - 150일 이상과 이하

- 22) 개간과 화학제 사용 토지면적
- 23) 토지, 건물, 기계의 경제적 가치
- 24) 농기계 : 8종류 농기계 보유대수
- 25) 기타
- 26) 농장 조직 유형
- 27) 경영주 인적 특성 : 성별, 연령, 인종, 현 거주지 거주연한, 가구원 수, 피고용 여부, 겸업여부, 현 사업 참여시기, 한 해 동안 일한 날수(하루 평균 4시간 이상) 등

나. 조사 내용 변화

2002년 센서스에서 첨가된 주요 항목은 복수 경영인과 생산물 계약에 관한 것이다. 1997년까지 경영자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는데 2002년 센서스에서는 3명까지 경영자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수집한다. 이를 통해서 모든 농업 가구에서 경영자의 총 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특히 여성경영자의 수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한 가구에서 3명까지 경영자 정보를 조사하기 때문에 인종 정보도 이전 조사에 비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 변화가 있는데 2002년 센서스 내용의 주요 변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물

- 개별 작물 수확 면적
- 딸기류 수확 면적 관개시설이 있는 딸기재배지 면적
- 건초, 헤일리지(haylage) 등의 면적
- 총 목초재배지 면적
- 인증된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 연방 정부나 기타 생산물 보험 정책 하에 있는 면적
- 별목한 크리스마스 추리의 수

② 가축

- 돼지 : 생산 방식과 생산자 세분화

③ 기타

-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은 비용
- 이민 노동자
- 농업경영에 컴퓨터 활용정도

- 인터넷 접근성
- CRP, WRP, and CCC이외에 연방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은 액수
- 주 경영자에 관한 가구주 정보(가구에 거주하는 사람 수와 총 수입에서 농업경영수입의 비율)
- 주 경영자 이외의 경영참가자의 개인적 특성
- 생산비 중 농기구와 기계의 임차 비용
- 토지 소유주에게 지불하는 생산비
- 가축사육에 쓰는 목초지 면적
- 경영으로 발생한 순 농업수입을 같이 쓰는 가구원 수
- 주 경영자가 경영에서 얻는 수입이 전체 가구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캐나다

가. 연역

1867년 BNA법안(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of 1867)에서 1871년부터 매 10년마다 센서스를 실시기도 규정하였는데 서부 캐나다의 급격한 팽창으로 센서스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5년 주기의 독립된 농업센서스가 1896년부터 1906년까지 manitoba, alberta 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조사 주기가 보다 짧아져야 했는데 1956년 5년 주기의 농업총조사가 전 국가에 확대되었으며(몇몇 지역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5년 주기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인구총조사 역시 같은 년도에 동시에 출발하게 된다. 두 개의 조사를 같이 실시하지만 물론 조사표는 분리되어 있으며 자료 수집과 관리는 별도 체계로 가지고 있고 담당 부서도 다르다. 그러나 두 조사 동시실시에 따른 또 다른 잇점은 농업조사와 인구조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1971년부터 단일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농업인구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사용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나. 조사 개요

1) 자료수집 방법

① 우편을 통한 조사표 전달

2006년 조사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자들에게 처음으로 우편에 의해서 조사표가 발송되었다. 이전까지는 지역 조사원이 인편으로 직접 조사표를 전달하던 방식이었다(농촌지역의 대부분 조사대상자는 이전처럼 인편으로 조사표를 전달받았다).

② 중앙에서의 자료회수와 자료 보완

지금까지 완성된 조사표를 조사원이 회수하고 지역 사무실별로 수집되던 방식에서 모든 조사표는 오타와 소재 통계청에 메일로 회수토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고유 접근코드를 사용하여 조사표에 접근하여 기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작성을 완료한 조사표는 오타와에 있는 Data Processing Centre에 전자 우송된다. 메일이건 인터넷이건 작성 완료된 조사표는 지역조사원에게 다시 보내지는 경우는 없다.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전화조사도(follow-up study) 중앙에서 시행되었다. 이전 조사에서는 이 같은 조사표는 지역 사무실로 반송해서 지역조사원에 의해서 보완되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주로 조사표 내용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2) 조사항목 도입

농업총조사와 같은 정기적이고 대규모 조사에서 대부분의 조사 항목은 센서스마다 일정한 내용과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시계열적 경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정과 신설이 불가피하고 필요하기도 하다. 캐나다 농업센서스는 이 과정에서 공적, 사적 기관의 여러 전문가와 수요자의 다양한 피크백 과정을 중시한다. 차기 센서스에 대한 준비는 현 센서스 사이클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작하는데 2006년 센서스의 경우 2002년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러 형태의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새로운 제안들은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06년 센서스의 항목에 반영되었다.

제안된 항목에 대한 평가의 일반적 검토는 1) 국가적 관심사인지의 여부 : 즉 주의 특성에 따른 관심인지, 아니면 일부 주에 한정된 관심사인지 2) 조사대상자에 설문용이하게 응답할 수 있는가?(조사대상자가 관련 정부를 알고 있는가) 3) 조사대상자가 설문용에 응답할 용의가 있는가? 4) 응답에 따라 산출된 자료가 광범위한 활용도가 있는가? 4) 네와 아니요의 응답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가? 양적 특성을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가?의 평가로부터 시작한다.

담당 기관에서 일반적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항목들은 여러 번의 실사와 검증을 거친다. 캐나다 전국의 여러 지역에 걸쳐서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와 FGI를 시행하며 다양한 농작형태, 생산기술, 언어 등에 있어서 적용가능한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한다. 응답담자 부담, 내용 분석 결과, 수요자의 우선순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는데, 2006년 센서스 최종 조사표 문항은 2005년 봄 내각에서 승인되었다.

다. 조사내용

2007년 센서스 조사항목은 총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량은 16page로 비교

적 많은 분량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경영자 인적 사항
 - 3명의 경영자까지 기입하며 경영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경영주만)를 조사한다.
- 2) 농업활동 종사여부와 기타 일에 대한 종사
 - ① 지난 12개월 동안 현직(현재 농업활동) 종사 여부
 - ② 지난 1년 동안(2005년) 현직(현재 농업활동)에 종사한 시간 : 일주일 평균 40시간 이상
 - ③ 일주일 평균 20~40시간, 일주일 평균 20시간 이하, 지난 1년 동안 현직 이외의 일에 종사한 시간
 - ④ 현직 이외에 임금이나 급료를 받고 일한 시간 : 일주일 평균 40시간 이상, 일주일 평균 20~40시간, 일주일 평균 20시간 이하
- 3) 지난 12개월 동안 농사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나 질병 (경영주, 가구원, 기타 다른 사람)
 - 9개 질병 발생 여부 및 기타 질병 개방형 기입
- 4) 농장명 있는지 여부, 경영형태 : 단독 경영(solo proprietorship), 서면 계약없는 동업, 서면계약 동업, 가족협업, 비가족협업, 경영형태에 대해서 첨가할 사항 개방형 기입
- 5) 유기농산물 : ① 판매용 유기농산물 수확 여부 ② 수확 유기농산물 인증 여부 ③ 유기농산물조직에서 인증, 비인증, 중간 ④ 인증 유기농조직명 기입 ⑤ 판매용 수확 유기농산물의 작물별 인증여부 : 곡물 밭작물(hay, field crop), 과수, 채소, 비닐하우스 재배작물, 가축, 기타(기입)
- 6) 기입 토지 규모의 측정 단위
- 7) 주 농장 위치
- 8) 토지 정보 : ① 전체 소유 토지 면적(경작 면적과 비경작 면적 포함) ② 정부로부터 불하 면적 ③ 타인으로부터 불하한 면적 ④ 타인과 공동 경작 면적 ⑤ 기타 경작 면적 ⑥ 전체 경작 면적 ⑦ 타인에게 빌려준 토지 : 타인에게 렌트나 리스 ⑧ 타인과 공동 경작 ⑨ 기타 타인이 경작하는 토지 ⑩ 타인이 경작하는 전체 면적 ⑪ 전체 토지 면적(21~25)
- 9) 곡물 경작 면적 : 밀, 귀리, 보리, 혼합 곡물, 옥수수, 호밀, 카놀라(canola), 콩, 아마씨, 건조 사료용 완두 칩피스(병아리콩), 팥, 건조 밀콩, 기타 밀콩, 알팔파, 기타, 건조 사일로에 저장한 풀 건조와 사료작물, 2006년 수확 마초종자, 감자, 겨자씨, 해바라기, 카나리아시드(canary seed), 담배, 인삼, 메밀, 사탕 무, 회양씨(캐

- 러웨이시드 caraway seed), 라이밀, 기타(3개까지), 전체
- 10) 채소 : 옥수수, 고구마, 호박, 녹색완두, 녹두와 강낭콩, 양배추, 중국양배추, 꽃양배추, 모란채, 방울다다기, 양배추, 당근, 루터베이거와 순무, 사탕무우, 무, 골과류, 양파, 셀러리, 상추, 시금치, 고추, 호박, 서양호박, 아스파라거스(producing), 아스파라거스(non-producing) 기타 : 3가지까지
 - 11) 판매용 잔디, 묘목식물, 크리스마스트리 경작 면적(각각)
 - 12) 과수 : 사과, 배, 자두와 말린 자두, 버찌(단맛), 버찌(신맛), 복숭아, 살구, 포도, 딸기, 나무딸기, 덩굴월귤, 월귤나무 saskatoons, 기타 과수(3가지 종류까지) 전체 과수 재배 면적
 - 13) 토지 모든 경작가능·불가능 경작 면적 포함.
 - 14) 판매용 시설작물 재배 식물
 - 15) 비료사용 경작면적
 - 16) 단풍나무
 - 17) 제초제, 살균제, 상업적 개간이나 석회 사용 면적
 - 18) 퇴비생산량
 - 19) 관개시설 경작면적
 - 20) 꿀벌생산량
 - 21) 양계 사육마리 수
 - 22) 닭과 칠면조 생산량
 - 23) 상업적 세부화 마리 수
 - 24) 축산 : 품목별 마리 수
 - 25) 땅과 건물의 경제적 가치 : 화폐로 환산
 - 26) 농기계 : 기계별 소유 개수와 현재의 경제적 가치(화폐로 환산)
 - 27) 경영비용 : 16개 비목별 지출비용, 총 경영비용
 - 28) 농업 경영 순 수입액
 - 29) 유급노동자 수 : 연봉단위, 부정기적 계절별
 - 30) 농업경영에 컴퓨터 사용 여부 : 부기, 농산물 기록과 관리, 은행거래, 인터넷, 이메일 등 항목별 사용여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해마다 농업환경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해 오고 있는데 2006년 조사내용을 2001년과 비교하면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다. 적지 않은 조사항목이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는데 대표적인 부분은 양봉, 상해와 질병(직업병), 유기농산물 생산, 관개, 비료 사용에 관한 것이다.

농사일로 인한 상해와 질병(직업병)은 2001년 본인 질병을 병명을 직접 기입하는 것에

서 2006년에는 가구주를 비롯하여 가구원 기타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병명도 9개 병을 제시하고 기타 병명을 개방형으로 기입토록 하였다. 또한 유기농작물 관련 문항도 구체적으로 포함하였다.

<표 9-1> 2006년과 2001년의 조사 내용 변화(캐나다)

	2006년	2001년
일-관련 상해·질병	1) 지난 12개월 동안 농업으로 인한 9개 상해, 질병과 개방형 기입 항목 2) 가구주(경영주), 가구원, 기타 각각의 가구 구성원별로 조사	본인만의 병명을 직접 기입하는 형태
유기농산물 경작과 인증 여부	1) 유기농산물 생산 여부 2) 유기농산물의 인증기관 인증 여부 및 형태(3개 범주) 3) 유기농산물 인증기관 이름(개방형) 4) 유기농산물 종류별(5개 품목)과 한 개의 개방형 기입 품목에 대한 3개 범주의 유기농산물의 인증여부 및 형태	1) 유기농산물 생산 여부와 2) 구체적인 품목(3개 품목과 개방형 기입 품목)
꿀벌	1) 꿀 생산 이외에 수분식물용(受粉 ; pollination) 양봉 포함. 2) 가위벌(leafcutter bee), 블루오차드 벌(blue orchard bee), 호박벌(bumble bee) 및 벌의 수, 꿀의 양 등 행육 규모의 측정을 위한 단위(gallon, bee의 수, colonies)에 대한 설문	꿀 생산 위한 꿀벌만 조사
관개	1) 경작하는 곡물 종류별(5개 종류와 기타) 경작지의 관개 면적	전체 관개 경작지 면적
비료 사용	1) 비료 획득의 방법 2) 비료 사용행태 7가지별 경작지 면적과 토지사용 형태	1) 비료를 사용하는 전체 경작지 규모 2) 4가지 비료 사용행태 중 선택

4. 평가와 개선점

조사 실무자, 학계, 농업관련자 등 센서스 관련자의 평가와 컨설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참여율 증가를 위한 조사 대상 타깃 선정

조사대상 타깃 집단에 대한 지적과 개선점은 1) 참가율이 낮은 집단에 대한 커뮤니티 차원의 공공적 관계를 확립하는 방안 2) 웹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낮은 참여율로 과소 반영되고 있는 농가집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과 저비용 프로그램이 요구됨 : 대표적 제안 사항으로는 ㄱ. 흑인, 히스패닉을 비롯한 소수 집단과 커뮤니티 단위로 접근하여 조사의 의의와 필요성을 홍보 교육할 것 ㄴ. 소규모 경영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NASS가 경영에 필요한 여러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NASS와 커뮤니티 집단과의 공적 관계를 유지,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임 :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 커뮤니티 내의 존경받는 지도자 및 대변자 활용. 효과적 홍보매체의 선택 등이 고려되어야 함.

웹조사의 효율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이 요청됨 : 웹을 통한 조사는 2012년 본격적 시행에 대비해야 할 것임. 2007년의 시험적 도입과정을 통해서 효과적 시행 방안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나. 조사항목의 개선 방향

1) 센서스 고유 자료의 확보

“표본 조사나 다른 자료가 아니고 센서스를 통해서만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의 맥락에서 조사 항목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왜 자료가 필요한지 2) 자료가 센서스에 의해서만 수집되어야만 하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검토해야 할 것임. 첫 번째 질문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료로부터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며 자료 활용으로 의사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두 번째 센서스가 자료 수집의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항목이 모든 농가에 필요한 것인가”, “센서스 자료가 다른 자료와 호환적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센서스 항목은 보다 엄격한 기준들에 의해서 재검토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즉 보다 포괄적이고 다른 조사나 자료와 비교하는 내용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수요자(농업경영자) 요구를 준거로 하는 조사항목 설정

센서스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의 효율성은 농가경영자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농가 경영의 생산성 향상 등 사업에 실질적 되는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센서스의 조사항목과 범주화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센서스 고유의 목적에만 몰두하는 것에

서 탈피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마케팅, 조세, 임금, 지리정보와 같은 농업경영자들이 수익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실제로 필요한 시장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항목 기준의 근거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3) 여러 농업조사에 대한 통합적 조정 역할 필요

여러 기관에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조사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조사들이 중첩될 수 있다. 더구나 제각기 나름대로의 정의와 조사항목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관한 통일적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II. 한국의 농업총조사 : 평가와 개선점

1. 2005년 농업총조사 조사 내용 특징

2005년 농업총조사 조사 내용은 가. 가구에 관한 사항, 나. 가구원에 관한 사항, 다. 경지에 관한 사항, 라. 작물에 관한 사항, 마. 가축에 관한 사항, 바. 농기계에 관한 사항, 사.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아.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자. 농업정보화 현황, 차.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 카. 주거에 관한 사항, 타. 기타의 12개 사항으로 구분하여 하위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내용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가 가구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경영주를 포함하여 가구원의 성별, 나이, 경영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와 같은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징에 관한 문항이 적지 않다. 이는 농업총조사의 기본 목적 중 하나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한국 농촌의 구조를 이해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공식적인 조사 목적에서도 농가 및 농가인구의 규모와 분포의 파악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생활 여건과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항목의 비중이 높다. 생활여건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시설 이용 이동수단과 소요시간, 자동차 보유여부를 주거에 관한 사항으로 거쳐 형태, 건축년도, 난방시설, 주거시설형태를 비교적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생활여건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전 조사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농가환경의 개선과 편의시설의 확충이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생산과 관련해서 작물과 가축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경작면적을 조사하고 후자는 현재 사육 마리 수를 종류별로 조사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용도별 구분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종류별 현황 파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현재 경작하거나 사육하고 있는 면적이나 보유량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생산된 양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다.

넷째, 판매 관련 조사 항목으로 전체 농축산물 판매액을 범주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작물이나 가축의 품목별로 판매 유무만 조사하며 금액에 관한 조사 항목은 전혀 없다. 판매처 및 판매 경로에 관한 항목은 친환경농산물과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농축산물을 대상의 두 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섯째, 소득에 관한 조사항목이 매우 적다. 전업농가와 겸업농가를 구분하기 위한 농업수입과 농업 이외 수입의 비교 조사항목 이외에 소득에 관한 사항은 없다.

여섯째, 농업정보화에 관한 항목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PC 보유 여부를 비롯하여 PC 농업에 활용 여부, PC 농업 활용용도, 홈페이지 개설 여부의 4개 항목으로 농업정보화 항목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국의 농업총조사는 농가구조의 인구학적 특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이나 생활 여건에 조사의 강조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농업 생산, 판매 및 소득에 관한 조사 항목은 주로 총량의 파악 위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항목의 구성은 한국농업의 구조적 특성 및 농업정책의 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외국 센서스의 조사 항목 및 기본 방향과 차이점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2. 해외 사례와 비교 평가

일본, 캐나다, 미국의 농업총조사를 한국과 비교해보면 무엇보다 농업총조사라고 해도 국가마다 조사 목적과 주안점에 차이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사는 무엇보다 생산, 판매, 유통의 경영의 측면을 강조한다. 농업생산물의 생산과 경작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특히 판매수입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 관한 조사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생산물의 용도에 따라서 조사 내용을 세분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주로 경작규모와 생산량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판매액이나 수입에 대한 항목은 매우 제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대신에 한국과 일본은 가구주의 정보에 관한 조사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나 혼인상태와 같은 인구학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생활환경이나 거주 환경과 같은 농촌 환경에 관한 조사항목이 특히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같은 차이는 각 국가의 농업환경이 다르고 농촌구조 또한 크게 다르며 따라서 농업정책의 방향과 주안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업총조사의 비교 결과는 이와 같은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문화와 조사 환경의 차이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수입, 판매와 같은 재정이나 경제적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 때문에 경영에 관한 구체적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조사원에 의한 조사표 전달이나 면접을 통한 조

사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정체성이 명확히 필요성이 있다. 경영 측면에 비해서 인구학적 요인과 생활환경적 항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칫 혼합적 조사의 약점을 지닐 수도 있다. 동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도별 조사문항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사실도 문제가 된다. 정기 조사와 전수 조사라는 조사 상황 때문에 새로운 문항의 도입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항의 도입과 변화에 있어서 보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화 등으로 농업경영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시계열적 수집의 목적에만 치중할 경우에 조사의 효용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새로운 측면이 조사항목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관련 타 조사나 인구총조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조사 항목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개선 제안 사항

전문가 면접을 통해서 수집된 농어업 총조사의 개선사항을 주제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번호는 조사표 상의 번호를 뜻함)

1. 농가·임가 가구원에 관한 사항

- 1) 배우자의 원 국적 표시 : 조사항목에 출생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거나 구체적인 국적을 선택 혹은 표기하는 방안이 있음.
 - 농촌의 국제결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농촌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어 농가원의 국적 파악이 필요함.
- 2) 경영주와의 관계에서 응답범주의 조정 : “농업고용인 등”을 “농업고용인”과 “기타”로
 - 순수 농업고용인만의 통계가 필요함.
- 3) 주 종사분야 응답범주 조정 : “기타 산업”을 2~3개로 세분
 - “기타 산업”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세분화가 필요함.

3. 작물관련

- 1) 시설재배 수확작물에서 방울토마토를 토마토와 구분
- 2) 파프리카 추가

4. 가축

- 1) “개”를 독립 범주화
- 2) “꿩” 포함.

5. 농기계

- 1) 벼농사 이외 분야의 기계화 현황 파악을 위한 항목 필요
 - 벼농사 중심의 종류라서 다른 분야(축산 분야)의 기계화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2) 임업에도 기계보유 현황 필요
 - 기계톱, 관리기, 고지톱 등
- 3) 농업용 난방기 삭제
 - 너무 수가 많고 기계화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움.
- 4) 선별기 추가

6. 생산자 조직참여

- 1) 참여 작목반/법인의 개수를 모두 기입토록

7. 농축산물 판매

- 1) 영농형태에서(28) 양잠을 “누에”와 “뽕잎”으로
 - 원래의 양잠 의미가 사라짐
- 2) 판매금액(26) 응답범주 50만원 미만과 50~100만원은 합치는 방안

8. 친환경농업

- 1) 친환경 수확재배작물의 구체화
 - ① 먼저 무농약,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3단계로 구분하고 ② 다음 채소 작물 등으로 세분할 것
- 2) 친환경농산물 판매처에 “생활협동조합(생협)” 유무와 중개업자인지를 구분
- 3) 자가 판매 포함 고려
 - 자가 운영 식당 등을 포함하기 위해서

9. 농업관련 사업

- 1) 농가민박의 정의 필요
 - 펜션이 농가민박에 포함되는가의 정의가 필요
- 2) 직판장 운영과 직거래는 분리
- 3) 직거래를 사업으로 볼 것인지 의문

10. 농업정보화 현황

- 1) 컴퓨터 활용 응답범주에서 “농가경영분석(수입지출관리, 재고관리 등)” 포함.

IV. 생활여건

- 1) 생활시설 이용의 이용수단의 항목에서 “기타”를 구체화(경운기, 트랙터, 이륜차 등)
- 2005년 조사에서 기타 비율이 매우 높음.
- 2) 생활시설 종류를 늘일 것
예 : 공연장, 학교 등

V. 주거관련 사항

- 1) 건축재료에 따른 구분(목조, 콘크리트, 벽돌, 흙 등)
- 2) 난방시설에서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등) 첨가

III. 임업부분

2. 육림업

- 1) 육림작업의 응답범주에 ① 병해충 등 방제 ②산림토목 사업(임도, 사방산업 등) 포함.

4. 양묘업

조림용 묘목이지만 조사된 내용은 모든 임목의 묘목(즉 관상수, 조경수 등)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굳이 조림용 묘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임목재배”로 하여 조림용과 관상수용으로 구분하여 이 항목에서 조사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음(뒤에 임산물 재배의 관상작물이 조경수와 중복 조사될 수 있음).

관상작물 : 분재소재, 야생화, 잔디 등

5. 임산물 재배

- 1) 기타 약용작물에 포함된 구기자, 장뇌를 독립범주화

〈참 고 문 헌〉

- 국립산림과학원(2003), 「전국 산촌기초조사 보고서 -전국편-」,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2006), 「임업경제동향」.
- 국립산림과학원(2006), 「통계로 본 산림자원의 변화와 임산물 수급 추이」.
- 김 준(2004), 「어촌사회의 변동과 해양생태」, 민속원.
- 김두섭·강남준(2000), 「회귀분석 : 기초와 응용」, 나남출판.
- 김성호(1992), “한국 농업구조의 현상과 과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한일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세빈 외 9인(2004),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산촌진흥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산림청.
- 김의경(2001), 「임산물 생산통계의 표본조사로 전환을 위한 조사연구」, 산림청.
- 김정호 외 3인(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53.
- 김철규(2003),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변동』, 고려대 출판부.
- 김태헌(2006) “한국의 농촌인구와 가족의 변화”, 권태환·김두섭 편, 「한국 인구의 성장과 다양성」,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김태훈 외(2007),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内藤健司(2003), 林學における統計的手法, 統計數理, 51(1) : 3-9.
- 農林水産省(2007), 食料・農業・農村百書—21世紀にふさわしい戦略産業を目指して—.
- 류제복·유정빈·김선웅(2004),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조사연구」, 5(2) : 71-90.
- 林野廳(2006), 森林林業白書—國民全体で支える森林. 日本林業協會.
- 林野廳(2006), 森林林業統計要覽.
- 박민선(1993), ‘1980년대 농민계층분화의 양상과 그 성격’, 『농촌사회』, 제3집, 한국농촌사회학회.
- 박진도(1987), 『現代韓國農民層分解の研究』, 동경대 박사학위논문.
- 산림청(2000), 제1회 임업총조사(1999년).
- 산림청(2001), 2000년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 산림청(2001), 임가경제조사 자원평가방법 개발.
- 산림청(2001), 임산물생산통계의 표본조사로 전환을 위한 조사연구.
- 산림청(2002), 2001년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 산림청(2002), OECD 산림환경통계 개발에 관한 연구(I).
- 산림청(2003), OECD 산림환경통계 개발에 관한 연구(II).

- 산림청(2004), 2003년 원목소비처 실태조사 보고서.
- 산림청(2004), 2003년 임업경영실태조사보고서 제4권 목탄·목초액 생산업.
- 산림청(2004), 임업통계연보 제34호.
- 산림청(2006), 2005년도 임가경제통계.
- 산림청(2006), 2005년도 임산물 수출입 통계.
- 산림청(2006), 간추린 임업통계.
- 산림청(2006),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산림청(2006), 산촌개발사업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 산림청(2006), 임업통계 조사요령-산림기본통계, 임산물생산통계.
- 산림청(2007), 2006년 임가경제통계.
- 산림청(2007), 2006년 임산물생산통계.
- 산림청(2007), 2006년 임업경영실태조사 1부(양묘업, 산채재배업, 버섯재배업).
- 산림청(2007), 2006년 임업경영실태조사 2부(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목재포장용기 및 깔판류 제조업, 기타 목제품 제조업).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2002), 「농업총조사 종합분석」, 통계청.
- 석현덕(2005), 「임산물 생산통계 함수율 등 연구」, 산림청.
- 이경학·손영모(2003), 「우리나라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부문 온실가스 통계」, 한국임학회 학술발표논문집(6월) : 185-187.
- 이영기, '고도성장하의 농민층 분해', 『한국농업의 새로운 인식』, 돌베개.
- 日本林業協會(2006), 森林ハンドブック.
- 통계청(2006),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 전국편」.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07), 「2005 농업총조사보고」, 「2005 어업총조사보고」 및 「2005 임업총조사보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2), 「농업전망 2002」.
- 한국합판보드협회(2006), 합판 및 보드 통계.
- 한형수·김태헌 외(2007), 「현대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 Biemer, P., & Lyberg, L.(2003),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John Wiley & Sons, Inc.
- Brackstone, G.(1999), Managing Data Quality in a Statistical Agency. Survey Methodology 25 : 139-149.
- Chayanov(1966), The Thoery of Peasant Economy.
- Cumings, Bruce(1981),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conomic Secretary to Treasury(1999), Building Trust in National Statistics.
- Halwei, Brian, Eat Here(2006), 구준모 외 역, 『로컬푸드』, 이후.

Kim, Chul-Kyoo(2006), “The rise and decline of statist agriculture and farmers movement in South Korea”, Korea Observer. Vol. 37. No. 1.

NASS(2006), “Cattle”, NASS Reports.

Statistics Canada(2003), Statistics Canada Quality Guideline. Statistics Canada Catalogue 12-539-XIE.

Tansey, Geoff & Tony Worsley(1995), The Food System, Earthcan, London.

〈부 록〉

주요 국가의 농업총조사 조사표

1. 일본 농업총조사(2005년도) 조사표
2. 미국 농업총조사(2007년도) 조사표
3. 캐나다 농업총조사(2006년도) 조사표



市区町村名	
-------	--

	市区町村	旧市区町村	農業集落	調査区	経営体
基本指標番号					

2005年農林業センサス 農 林 業 経 営 体 調 査 票

都 府 県 用 (沖 縄 県 を 除 く)
平成17年2月1日現在

記入する前に、必ず「調査票の記入の仕方」をご覧ください。
この調査票は、統計以外の目的には使用しませんので、ありのままを記入してください。

経営主の氏名又は農林業経営体の名称・代表者名
住所又は所在地
電話番号

最初にすべての方が記入してください。

- 1 家族による経営(農家又は林家)ですか。 2 経営の法人化の状況等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家族による経営である	家族による経営でない
101	1	2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法人化している							地方公共団体・財産区	法人化していない
	農事組合法人	会社	各種団体	その他法人					
	株	有	合	相	農	森	そ		
	式	限	名	互	協	林	他		
	会	会	合	会		組	の		
	社	社	資	社		合	法		
			会			体	人		
			社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の			
						各			
						種			

表紙の設問で「家族による経営である」と答えた方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1】世帯

- 1 世帯員は何人ですか。.....
- 2 満14歳以下の世帯員（平成2年2月1日以降に生まれた人）は何人ですか。.....
- 3 満15歳以上の世帯員（平成2年1月31日までに生まれた人）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男	人	女	人
103				
104				

記入上の注意

・世帯員とは、一緒に生活している人のことです。現在、出稼ぎなどのために家にいなくても、生計を一緒にしている人は世帯員とします。

1年間（平成16年2月～平成17年1月）の
（日数の数え方は、1日は8時間とし、例えば

なまえ <small>（満15歳以上の人（平成2年1月31日までに生まれた人）だけ記入します。 調査員が後で確認する場合にどなたか識別できるのであれば、ABC等の記号で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small>	満年齢 <small>（平成17年2月1日現在の年齢）</small>	男女別		世帯主との続柄 <small>（該当する番号を記入） （下表の中から選び）</small>	1年間（平成16年2月～平成17年1月）の （日数の数え方は、1日は8時間とし、例えば	
		男	女		経営している農業への従事日数と委託を受けて行った農作業の日数を合わせたもの	経営している農業への従事日数と委託を受けて行った農作業の日数を合わせたもの
①	② (歳)	③ 一つを必ず○		④ 該当番号	⑤ 一つを必ず○で囲みます	
(世帯主)	01	1	2	0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02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03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04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05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06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07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08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⑧、⑨のいずれかに○印があ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世帯主との続柄番号)

世帯主	世帯主の配偶者	子の配偶者	子の配偶者	世帯主の父母	世帯主の配偶者の父母	兄弟姉妹	祖母	孫	孫の配偶者	その他(叔父母、従兄弟、甥姪等)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4 世帯としての所得は自営農業と自営農業以外のどちらが主ですか。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で囲みます)

	自営農業	自営農業以外
106	1	2

- 5 お宅では、次のような農業生産組織に構成員として参加していますか。

(該当するものすべてを○で囲みます)

	機械・施設の共同利用組織	委託を受けて農作業を行う組織	協業経営体	オペレーターとして従事した場合は○印
107	1	1	1	1

用語の説明

- ・経営主とは、男女を問わず、農業経営又は林業経営の責任を負っている者としてします。
- ・農業経営（林業経営）の後継者とは、満15歳以上の者で、経営主から次の代に農業経営（林業経営）を継承す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者としてします。

状況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半日ずつ2日働いたら1日とします)

以外の仕事状況								30日以上よそに雇われて働いた人(農作業を含む)				農業以外の自営業(年間15万円以上の売り上げのあるもの)に従事した人		自営農業と自営農業以外で従事日数の多いのは		1年間の生活の主な状態						農業経営又は林業経営の経営主・後継者について					
うち自営林業に従事した日数								最も日数の多いのは				自営農業		自営農業以外		仕事の主		家事・育児		学生(研修を含む)		その他(ふだん何もしない)		経営主		経営主の後継者	
従事しなかった日数								きまっていた勤め先				自営農業		自営農業以外		主に自営農業		主に他に勤務		主に農業以外の自営業		その他		経営主		経営主の後継者	
1 30 60 100 150 200 250日以上								出稼ぎ				自営農業		自営農業以外		主		主		主		その他		経営主		経営主の後継者	
29日 59日 99日 149日 199日 249日								日雇・臨時雇				自営農業		自営農業以外		主		主		主		その他		経営主		経営主の後継者	
⑦								⑧				⑨		⑩		⑪						⑫		⑬			
一つを必ず○で囲みます								該当を○				該当を○		該当を○		一つを必ず○で囲みます						該当を○		該当を○			
1 2 3 4 5 6 7 8								1 2 3				1		1 2		1 2 3 4 5 6						1 2		1 2			
1 2 3 4 5 6 7 8								1 2 3				1		1 2		1 2 3 4 5 6						1 2		1 2			
1 2 3 4 5 6 7 8								1 2 3				1		1 2		1 2 3 4 5 6						1 2		1 2			
1 2 3 4 5 6 7 8								1 2 3				1		1 2		1 2 3 4 5 6						1 2		1 2			
1 2 3 4 5 6 7 8								1 2 3				1		1 2		1 2 3 4 5 6						1 2		1 2			
1 2 3 4 5 6 7 8								1 2 3				1		1 2		1 2 3 4 5 6						1 2		1 2			
1 2 3 4 5 6 7 8								1 2 3				1		1 2		1 2 3 4 5 6						1 2		1 2			
1 2 3 4 5 6 7 8								1 2 3				1		1 2		1 2 3 4 5 6						1 2		1 2			

同居している農業後継者がいない場合(⑫の2及び⑬の2に○がない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6 世帯から離れて住んでいる農業経営の後継者(満15歳以上)がいれば、その人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予定者を含みます)

満年齢 (平成17年2月1日現在の年齢)	男女別		自営農業に従事した日数								自営農業以外への従事日数								自営農業と自営農業以外で日数の多い方は		独自に農業経営を行っていますか		配偶者はいますか			
	男	女	従事しなかった日数								従事しなかった日数								自営農業		自営農業以外		い		い	
	29日	59日	99日	149日	199日	249日	以上	一つを必ず○で囲みます								一つを必ず○で囲みます		一つを必ず○		一つを必ず○		一つを必ず○				
106	1	2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1 2		1 2		1 2	

林業のみを行って【11】山林に進んでください。
 10ページの

【2】農業経営の特徴

表紙の設問で「家族による経営である」と答えられた方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 1 農業経営について、家族で経営移譲や労働条件、収益の分配等について取り決めを行っていますか。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行っている	行っていない
109	1	2

- 2 農業経営について複式簿記を記帳していますか。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記帳している	記帳していない
110	1	2

- 3 農業経営について青色申告を行っていますか。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行っている	行っていない
111	1	2

- 6 消費者や農産物販売業者等との契約により、農産物の生産を行っていますか。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行っている	行っていない
115	1	2

- 7 環境保全型農業への取組

地域の慣行(地域で従来から行われている方法)に比べて化学肥料や農薬の使用量を減らすことや、堆肥による土作りをして環境への負担を軽減した農産物の栽培(販売目的)を行っていますか。

(該当に〇印を記入します)

行っていない

行っている

(該当するものすべてを〇で囲みます)

	化学肥料のみ	低減の取組のみ	農薬の取組のみ	堆肥による土作り
116	1	1	1	1

表紙の設問で「家族による経営でない」と答えられた方で、かつ、「法人化していない」と答えられた方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 4 協業経営を行っている場合は参加世帯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該当に〇印を記入します)

協業経営でない

協業経営である

		参加世帯	
		戸	うち農家
総参加世帯数	112		
うち、農作業(管理作業を含む)に30日以上従事した参加世帯数	113		

- 5 農業経営には、集落内に居住している概ね半数以上の世帯が参加していますか。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参加している	参加していない
114	1	2

- 8 農業生産関連事業

農業生産に関連した事業を行っていますか。

(該当に〇印を記入します)

行っていない

行っている

(該当するものすべてを〇で囲みます)

	農産物の加工	店や消費者に直接販売	貸農園・体験農園等	観光農園	農家民宿	農家レストラン	その他
117	1	1	1	1	1	1	1

該当する場合は、過去1年間の利用者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千 百 十 人			
観光農園	118				
農家民宿	119				
農家レストラン	120				

【3】土地

記入上の注意

- ・この土地には、土地台帳の地目や面積ではなく、現在の地目と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面積には、けい畔も含めた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 ・他の市区町村にある土地も含めて記入してください。
- ・耕作を放棄した田、樹園地、畑とは、過去1年以上作付け（肥培管理）しないで、今後も作付けする考えのない土地をいいます。なお、既に原野となったものは耕作放棄地には含めません。

1 田

		ha		a	
		(町)	(反)	(畝)	(畝)
所有している田は (原野化しているもの等、現況が農地でないものを除きます)	202				
うち、他に貸している田は (経営を委託している田を含みます)	203				
うち、耕作を放棄した田は (過去1年以上作付けせず、今後も作付けする考えのない田)	204				
他から借り入れている田は (経営を受託している田を含みます)	205				
田の経営耕地 (202 - 203 - 204 + 205)	①				

田の経営耕地に、過去1年間どのような作付けをしましたか。

		ha		a	
		(町)	(反)	(畝)	(畝)
稲を作った田 (青刈り稲は除きます)	208				
うち、裏作物を作った田 (二毛作した田)	209				
稲以外の作物だけを作った田 (青刈り稲を含みます)	210				
何も作らなかった田(休耕田) (耕作放棄した田は除きます)	211				

(208,210,211の計は、田の経営耕地①と一致します)

→ 作物別面積(作付けのべ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ha		a	
		(町)	(反)	(畝)	(畝)
麦	212				
大豆	213				
雑穀	214				
飼料用作物	215				
工芸農作物	216				
その他	217				

2 樹園地(普通畑や牧草地を除きます)

		ha		a	
		(町)	(反)	(畝)	(畝)
所有している樹園地は (原野化しているもの等、現況が農地でないものを除きます)	218				
うち、他に貸している樹園地は (経営を委託している樹園地を含みます)	219				
うち、耕作を放棄した樹園地は (過去1年以上栽培せず、今後も栽培する考えのない樹園地)	220				
他から借り入れている樹園地は (経営を受託している樹園地を含みます)	221				
樹園地の経営耕地 (218 - 219 - 220 + 221)	②				

3 畑(牧草専用を含み、樹園地は除きます)

		ha		a	
		(町)	(反)	(畝)	(畝)
所有している畑は (原野化しているもの等、現況が農地でないものを除きます)	224				
うち、他に貸している畑は (経営を委託している畑を含みます)	225				
うち、耕作を放棄した畑は (過去1年以上作付けせず、今後も作付けする考えのない畑)	226				
他から借り入れている畑は (経営を受託している畑を含みます)	227				
畑の経営耕地 (224 - 225 - 226 + 227)	③				

畑の経営耕地に、過去1年間どのような作付けをしましたか。

		ha		a	
		(町)	(反)	(畝)	(畝)
普通作物を作った畑 (飼料用作物だけを作った畑及び牧草専用を除きます)	230				
飼料用作物だけを作った畑 (牧草を含みます)	231				
牧草専用 (造成改良草地を含みます)	232				
何も作らなかった畑 (耕作放棄した畑は除きます)	233				

(230~233の計は、畑の経営耕地③と一致します)

4 総経営耕地面積

		ha		a	
		(町)	(反)	(畝)	(畝)
田 ① + 樹園地 ② + 畑 ③					

5 耕地以外で採草地や放牧地に利用した土地

山林、原野等で過去1年間に採草地や放牧地として利用した土地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ha		a	
		(町)	(反)	(畝)	(畝)
山林、原野等で過去1年間に利用した土地面積	234				

6 施設園芸

過去1年間に施設園芸に利用したハウス・ガラス室の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 ・ハウス・ガラス室とは、その中で普通の姿勢で作業できるものをいいます。
- ・水稻の育苗だけ、または、きのこの栽培だけに利用したものは除きます。

ハウス・ガラス室の面積	251	(a) m ²		

【4】農業用機械

過去1年間に利用した機械(リース・共同利用を含みます)及び現在所有している機械(数戸で共有している機械をお家で保管している場合を含みます)について、その実台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 ・利用した機械は、過去1年間ののべ台数ではなく、過去1年間を通じた実台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利用台	所有台
乗 ト ラ 用 ク タ 型	1 5 馬力未満	271		
	1 5 ~ 3 0	272		
	3 0 馬力以上	273		
動 力 防 除 機		277		
乗用型スピードブレイヤー		278		
動 力 田 植 機		279		
自 脱 型 コ ン バ イ ン		280		
普 通 型 コ ン バ イ ン		281		

【5】農業労働力

過去1年間に農業経営の仕事に従事した人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 ・受託した農作業を行うために雇い入れた人を含みます。
- ・農業以外の自営業等で雇い入れた人は除きます。
- ・ここでは農作業に従事した人だけでなく、事務関係の仕事をしている人も含めて記入します。
- ・日数の数え方は、1日は8時間とし、例えば半日ずつ働いたら2日で1日とします。

- 1 世帯員又は経営の責任者・役員・構成員のうち農業経営に従事した人について男女別日数別に実人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一世帯一経営の場合は記入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男 人	女 人
1 ~ 2 9 日	302		
3 0 ~ 5 9 日	303		
6 0 ~ 9 9 日	304		
1 0 0 ~ 1 4 9 日	305		
1 5 0 ~ 1 9 9 日	306		
2 0 0 ~ 2 4 9 日	307		
2 5 0 日 以 上	308		
計			

- 2 農業経営のために常雇いした人(農業経営のためにあらかじめ年間7か月以上の契約で雇った人)について男女別に実人数と従事した日数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法人等の組織経営体で農業以外の部門に常雇いしている人が農業に従事した場合は、ここに含めないで臨時雇いとします)

		実人数 人	従事日数の合計 日
男	312		
女	313		

- 3 日雇・季節雇など、農業経営のために臨時雇いした人について男女別に実人数と従事した日数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実人数 人	従事日数の合計 日
男	322		
女	323		

- 4 手間替え・ゆい(労働交換)・手伝い(世帯から離れ住んでいる子供等の手伝いも含みます)の人について男女別に実人数と従事した日数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家族による経営の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実人数 人	従事日数の合計 日
男	332		
女	333		

【6】農産物の生産

記入上の注意

- ・露地で作付け面積が1アールに満たない場合も1と記入してください。
- 同様に、施設で1㎡に満たない場合も1と記入してください。
- ・販売目的で作付けた作物の一部を自給向けにした場合は、自給分も含めた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1 販売目的で作付けた作物

過去1年間に販売目的で作付けた作物の作付け(栽培)のべ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けい畔は含めません)

				ha		a	
				(町)	(反)	(畝)	(畝)
稲 ・ 麦 ・ 雑 穀	水 稲	401					
	陸 稲	402					
	小 麦	403					
	大麦・裸麦 (ビール麦を含む)	406					
	その他の雑穀	408					

(その他の雑穀は、そば、ひえ、とうもろこし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未成熟とうもろこし(スイートコーンなど)は除きます)

				ha		a	
				(町)	(反)	(畝)	(畝)
いも 類	ばれいしょ	409					
	かんしょ (さつまいも)	412					

				ha		a	
				(町)	(反)	(畝)	(畝)
豆 類	大豆 (実とりのみ)	413					
	()	417					
	その他の豆類	418					

(その他の豆類は、あずき、らっかせい、そらまめ、いんげん、ささげなど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ha		a	
				(町)	(反)	(畝)	(畝)
工芸 農 作 物	たばこ	426					
	茶(栽培面積)	427					
	()	431					
	その他の工芸農作物	432					

(その他の工芸農作物は、なたね、いぐさ、こんにやく、ホップ、ごまなど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露地		施設	
				ha	a	(a)	㎡
				(町)	(反)	(畝)	(畝)
野 菜 類	トマト	433				434	
	なす	435				436	
	ピーマン	437				438	
	きゅうり	439				440	
	キャベツ	455				456	
	結球はくさい	457				458	
	レタス	461				462	
	ほうれんそう	463				464	
	ねぎ	465				466	
	たまねぎ	467				468	
野 菜 類	だいこん	471				472	
	にんじん	473				474	
	さといも	475				476	
	いちご	477				478	
	すいか	479				480	
	メロン	481				482	
	()	483				484	
	その他の野菜	485				486	

(その他の野菜は、未成熟とうもろこし(スイートコーンなど)、えだまめ、れんこん、たけのこ、わさびなど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露地		施設	
				ha	a	(a)	㎡
				(町)	(反)	(畝)	(畝)
花 き 類 ・ 花 木	きく	501				502	
	カーネーション	503				504	
	ばら	505				506	
	()	509				510	
	その他の花き類	511				512	
花 木	花 木	513				514	

(その他の花き類には、花き類の苗を含み、花木には、花木の苗、苗木を含みます)

				露地		施設	
				ha	a	(a)	㎡
				(町)	(反)	(畝)	(畝)
種 苗 ・ 苗 木 類	種 苗	515				516	

(種苗・苗木類は、野菜、果樹、造林用芝などの種苗及び苗木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花き類・花木の苗、苗木は除きます)

				露地		施設	
				ha	a	(a)	㎡
				(町)	(反)	(畝)	(畝)
そ の 他 の 作 物	そ の 他 の 作 物	517				518	

(その他の作物は、飼料用作物、肥料用れんげ、青刈り作物、芝など、どの作物欄にも該当しなかった作物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販売目的で栽培した果樹

販売目的で栽培している果樹の栽培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露地で栽培面積が1アールに満たない場合も1と記入してください。
同様に、施設で1㎡に満たない場合も1と記入してください。

		露地 (ha) (町) (反) (畝)			施設 (a) m ²		
りんご	521				522		
ぶどう	523				524		
日本なし	525				526		
もも	527				528		
温州みかん	529				530		
なつみかん	531				532		
その他のかんきつ類	537				538		
かき	539				540		
くり	541				542		
うめ	543				544		
()	549				550		
その他の果樹	551				552		

(その他の果樹は、さくらんぼ、すもも、いちじく、キウイフルーツなど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販売目的で栽培したきのご類

過去1年間に販売目的で栽培したきのご類を○で囲んでください。

(該当するものすべてを○で囲みます)

	えのきたけ	しいたけ	しめじ類	まいたけ	その他
561	1	1	1	1	1

4 販売目的で飼っている家畜等

販売目的で飼っている家畜の頭羽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

(1) 乳用牛(搾乳目的で飼っている牛)

		頭			
2歳(24か月齢)以上	572				
2歳(24か月齢)未満	573				

(2) 肉用牛

		頭			
和牛などの肉用種	子取り用めす牛 (子取り用にする予定の子牛を含みます)	576			
	肥育中の牛 (肥育する予定の子牛を含みます)	577			
	売る予定の子牛等	578			
和牛と乳用種の交雑種	肥育中の牛 (肥育する予定の子牛を含みます)	579			
	売る予定の子牛	580			
肉用として飼っている乳用種	肥育中の牛 (肥育する予定の子牛を含みます)	581			
	売る予定の子牛	582			
計(576~582までの計)					

(3) 豚

		頭			
子取り用めす豚 (6か月齢以上)	584				
肥育中の豚 (肥育する予定の子豚、種豚を含みます)	585				

(4) 採卵鶏

卵の販売目的で飼っている採卵鶏(ひなどりを含む)を記入してください。

		万 千 百 十 羽			
飼っている羽数	590				

(5) 種鶏

採卵用及びブロイラー用のひなの生産を目的とする種卵採取を行うための鶏(おすを含む)を記入してください。

		万 千 百 十 羽			
飼っている羽数 (6か月齢以上)	591				

(6) ブロイラー

		万 千 百 十 羽			
過去1年間に出荷した羽数	592				

(7) 鶏のふ卵、育すう

鶏のふ卵、育すう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万 千 百 十 巻			
ふ卵器の最大入卵可能個数	593				

		万 千 百 十 羽			
ひなの年間出荷羽数 (初生ひなは除きます)	594				

【7】農産物の販売

- 1 過去1年間の農産物の販売金額(売上高)の合計はどれくらいですか。(畜産物、まゆ、栽培きのこも含みます)(該当に○印を記入します)

販売なし	<input type="checkbox"/>
販売あり	<input type="checkbox"/>

億 千 百 十 万円

601					
-----	--	--	--	--	--

- 2 農産物の部門別販売金額の順位とその割合

過去1年間に農産物の販売のあった場合に記入してください。

どの部門の販売金額(売上高)が多かったか、1位、2位、3位の部門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同じ割合の場合は作付け面積の多い方を上位にしてください。

販売金額合計に対する割合はどれくらいですか。
例えば
3割は 3 と
10割は 10 と
記入します。

		1位	2位	3位	割合
水 稻 ・ 陸 稻	603	1	2	3	
麦	604	1	2	3	
雑 穀 ・ い も 類 ・ 豆 類	605	1	2	3	
工 芸 農 作 物 (たばこ、茶、さとうきび、こんにゃくいもなど)	606	1	2	3	
露 地 野 菜	607	1	2	3	
施 設 野 菜	608	1	2	3	
果 樹 類 (露地及び施設栽培)	609	1	2	3	
花 き ・ 花 木 (露地及び施設栽培)	610	1	2	3	
そ の 他 の 作 物 (芝、種苗、牧草、栽培きのこ類など)	611	1	2	3	
酪 農	612	1	2	3	
肉 用 牛 (肉用として飼っている乳用種を含みます)	613	1	2	3	
養 豚	614	1	2	3	
養 鶏 (ブロイラーを含みます)	615	1	2	3	
養 蚕	616	1	2	3	
その他の畜産(養蜂を含みます)	617	1	2	3	

- 3 過去1年間に販売した農産物の出荷先について、すべての出荷先とそのうち販売金額が最も多かった出荷先を記入してください。

		農協	農協以外の集出荷団体	卸売市場	小売業者	食品製造業者・外食産業	消費者に直接販売	その他
該当する出荷先	620	1	1	1	1	1	1	1
売上1位の出荷先	621	1	2	3	4	5	6	7

(該当する出荷先については、該当するものすべてを○で囲みます)
(売上1位の出荷先は、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だけ○で囲みます)

【8】農作業の委託

過去1年間によそに委託した水稲作作業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 ・経営を委託したものは耕地の貸付けとなり、ここには含めません。
- ・水稲作のすべての作業とは、「育苗」、「耕起・代かき」、「田植」、「防除」、「稲刈り・脱穀」、「乾燥・調製」のすべてをいいます。

(該当するものすべてを○で囲みます)

すべての作業を委託	作 業 別 に 委 託					
	育 苗	耕 起 ・ 代 か き	田 植	防 除	稲 刈 り ・ 脱 穀	乾 燥 ・ 調 製
701	1	1	1	1	1	1

【9】農作業の受託

過去1年間によそから受託した農作業について作業を受託した世帯数と作業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 ・経営を受託したものは耕地の借入れとなり、ここには含めません。
- ・水稲作のすべての作業とは、「育苗」、「耕起・代かき」、「田植」、「防除」、「稲刈り・脱穀」、「乾燥・調製」のすべてをいいます。

- 1 水稲作

すべての作業を受託した	戸 数 戸		作 業 面 積 ha (町) (反) (畝)		
	711		712		
作 業 別 に 受 託 し た	育 苗	713	714		
	耕 起 ・ 代 か き	715	716		
	田 植	717	718		
	防 除	719	720		
	稲 刈 り ・ 脱 穀	721	722		
	乾 燥 ・ 調 製	723	724		

- 2 その他

	戸 数 戸		作 業 面 積 ha (町) (反) (畝)		
麦 作	739	740			
大 豆 作	741	742			
野 菜 作	743	744			
果 樹 作	745	746			
飼 料 用 作 物	747	748			
工 芸 農 作 物	749	750			
そ の 他 の 作 物	753	754			
畜 産	755				
うち酪農ヘルパー	756				

牧草地経営体であ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牧草地経営体とは、牧草を栽培することにより、家畜の預託事業を営む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又は共同で牧草を栽培し、共同で採草、放牧に利用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

3 受託した戸数と頭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預託牧場であ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戸数 戸		頭数 頭	
乳用牛	757			758	
肉用牛	759			760	

4 参加世帯数を記入してください。(共同利用採草・放牧場であ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戸数 戸	
761	

5 農作業の受託を行っている地域的範囲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農業集落内	旧市区町村内	市区町村内	都府県内(支庁内)	都府県外(支庁外)
主な範囲	762	1	2	3	4	5
最遠方範囲	763	1	2	3	4	5

6 過去1年間の農作業の受託による料金収入を記入してください。

(該当に〇印を記入します)

収入なし

収入あり

764

億	千	百	十	万円

【10】都道府県設定項目

	801			
	802			
	803			
	804			
	805			

林業を行っていない方はここで終わりです。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林業を行っている方は記入してください。

【11】山林

1 所有山林面積・保有山林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ha (町) (反) (畝)	
所有している山林は	902		
うち、他に貸している山林は (自分の土地を他人に分取させている山林を含めます)	903		
他から借り入れている山林は (他人の土地に分取している山林を含めます)	904		
保有山林 (902 - 903 + 904)			
うち、他人に管理をまかしているもの	905		

2 保有山林の所在地についてその面積割合を記入してください。

		居住・所在する県内の		居住・所在する県外
		市区町村内	市区町村外	
		割合		割合
906				

3 保有山林のうちの人工林について、その面積を記入してください。

		ha (町) (反) (畝)	
10年生以下 (人工林の伐採跡地を含めます)	908		
11～30年生	909		
31～40年生	910		
41年生以上	911		
人工林計 (908+909+910+911)			

4 保有山林における林業作業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林業作業には、雇用及び委託による作業も含めてください。
・下刈りなどは、下刈り、枝打ち、つる切り、除伐、雪起こしなどの保育作業をいいます。

(1) 保有山林における過去5年間の林業作業の有無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ものすべてを〇で囲みます)

		植林	下刈りなど	間伐	主伐
912		1	1	1	1

(2) 保有山林における過去1年間の実作業面積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保有山林の実作業面積	
		ha (町) (反) (畝)	
植林	913		
下刈りなど	914		
間伐	915		
主伐	916		

【12】林業労働力

- 1 過去1年間に林業経営の仕事に従事したすべての人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一世帯一経営の場合の世帯員の労働は記入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男 人	女 人
1 ~ 29日	922		
30 ~ 59日	923		
60 ~ 99日	924		
100 ~ 149日	925		
150 ~ 199日	926		
200 ~ 249日	927		
250日以上	928		
計			

- 2 過去1年間の林業受託作業のうち素材生産(立木買いによる素材生産を含む)に従事した日数の合計を記入してください。

929 日

【13】素材生産

過去1年間の素材生産量を記入してください。

- 1 保有山林において、自ら伐採した素材生産量を記入してください。

素材生産量 931 ^{m³}

- 2 受託もしくは立木買いによる素材生産量を記入してください。(主伐(請負)及び立木買いによるもの、間伐のうち利用したものを合計してください)

		m ³				
素材生産量	932					
うち、立木買いによるもの	933					

【16】林業作業の受託

過去1年間の林業作業の受託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 受託先別の割合については、再委託に出したものは除きます。また、国・地方公共団体等には、公社や公団などを含まず。
- 受託先別の割合の山林保有者「個人」及び「その他」のうち不在村とは、作業を受託した山林の所在地と、その作業の依頼主(山林保有者)の居住地が同一市区町村でない場合をいいます。

- 1 山林作業の受託面積及び受託先別の割合を記入してください。

		作業受託等面積				受託先別の割合						
		ha				うち再委託に出した割合	山林保有者から					山林保有者以外から
		a		b			個人	その他		その他		
		ha	a	ha	a	割		割	割	割	割	割
		(町)	(反)	(畝)	(畝)		うち不在村	国・地方公共団体等	うち不在村	うち不在村		
		割	割	割	割	割	割	割	割	割	割	割
植 林	961											
下刈りなど	963											
間 伐	965											
主伐	受託	967										
	立木買い	969										

【14】林産物の販売

- 1 過去1年間の林産物の販売について該当するものを選んで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 特用林産物とは、薪、炭のほか山林から採取したたけのこ、山菜などをいいますが栽培きのこ類、林業用苗木は含めません。
- よそから立木を購入して素材を生産し販売したものは除きます。

(該当するものすべてを○で囲みます)

	用 材		ほだ木用原木	特用林産物
	立木で	素材で		
941	1	1	1	1

- 2 過去1年間の林産物の販売金額(売上高)の合計はどれくらいですか。

(該当に○印を記入します)

販売なし

販売あり

942 億 千 百 十 万円

【15】林業作業の委託

過去1年間によそに委託した保有山林の林業作業について作業ごとに割合を記入してください。

記入上の注意

- 下刈りなどとは、下刈り、枝打ち、つる切り、除伐、雪起こしなどの保育作業をいいます。

	植 林 割	下な刈りど割	間 伐 割	主 伐 割
951				

2 林業作業の受託(立木買いによる素材生産を含む)を行っている地域的範囲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農業集落内	旧市区町村内	市区町村内	都府県内(支庁内)	都府県外(支庁外)
主な範囲	971	1	2	3	4	5
最遠方範囲	972	1	2	3	4	5

3 林業作業の受託料金収入等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1) 過去1年間の林業作業の受託(立木買いによる素材生産を含む)による料金収入を記入してください。(立木買いによる素材生産の受託料金収入は、素材売却額と立木購入額との差額とします)

(該当に〇印を記入します)

収入なし

収入あり

973

億	千	百	十	万円

(2) 受託料金収入のうち、次の受託作業について収入割合を記入してください。

	造林・保育の受託割合	素材生産の受託割合	素材生産(立木買い)の受託割合
974			

4 林業作業を受託(立木買いによる素材生産を含む)している場合のみ、過去1年間の事業収入1位と2位のもの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林業	製材業・造木製品業	木材・竹材卸売業	農業	造園工事業	土木工事業	その他の事業
1位のもの	975	1	2	3	4	5	6	7
2位のもの	976	1	2	3	4	5	6	7

【17】その他の林業に関する項目

表紙の設問で「会社」と答えた方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1 山林を保有している場合のみ、過去1年間の収入が最も多い事業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林業	建設業	木材・木製品製造業(家具を除く)	パルプ・紙加工品製造業	その他の事業
981	1	2	3	4	5

表紙の設問で「家族による経営である」と答えた方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2 山林を保有している場合のみ、あなたの世帯で過去1年間の収入が最も多いものについて記入してください。

(該当する番号を必ず一つ〇で囲みます)

	雇われ			自営業		その他
	きまった勤め先	出稼ぎ	日雇・臨時雇	林業	林業以外	
982	1	2	3	4	5	6

調査はここで終わります。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連絡先

調査員氏名

電話番号

UNITED STATES 2007 CENSUS OF AGRICULTURE

Form Number: 07-A0201
(08/17/06)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Please return your
completed report to:

Census of Agriculture
1201 East 10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2

OFFICE USE ONLY

07-A0201

Please make corrections to name, address, and ZIP code if necessary.

0013		
0011	0012	
0014	0015	0016
0021	0022	0023

- Everyone who receives a form must return one by mail or via the Internet at **www.agcensus.nass.usda.gov**
- Your report is due by **February 4, 2008**.
- To fill out the paper form, use a black or blue ballpoint pen.
- **Duplicate forms?** If you received extra census report forms for the SAME farming operation, return all report forms in the same envelope with this completed report.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Questions? Call us toll free at 1-888-424-7828.

¿Preguntas? Llámenos libre de cargos al 1-888-424-7828.

PENALTY FOR FAILURE TO REPORT

NOTICE: Response to this inquiry is required by law (Title 7, U.S. Code). By the same law, YOUR REPORT IS CONFIDENTIAL and it will only be used for statistical purposes. Your report CANNOT be used for purposes of taxation, investigation, or regulation. The law also provides that copies retained in your files are immune from legal process.



SECTION 1 ACREAGE IN 2007

Report land owned, rented, or used by you, your spouse, or by the partnership, corporation, or organization named on the front of this form. Include ALL LAND, REGARDLESS OF LOCATION OR USE - cropland,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and Wetlands Reserve Program (WRP) land, pastureland, rangeland, woodland, idle land, farmsteads, etc.

		None	Number of Acres
1.	All land owned.	<input type="checkbox"/>	0043
2.	All land rented or leased from others , including land worked by you on shares, used rent free, in exchange for services, payment of taxes, etc. Include Federal, State, and railroad land leased on a per-acre basis. Exclude land (i.e. private, Federal, State, railroad, etc.) used on a per-head or animal unit month (AUM) basis under a grazing permit.	<input type="checkbox"/>	0044
3.	All land rented or leased to others , including land worked on shares by others and land subleased.	<input type="checkbox"/>	0045
4.	TOTAL ACRES in this operation for this census - Add items 1 and 2, then subtract item 3. If the entry is zero, please refer to the enclosed Instruction Sheet, section 1.		
	These acres are referred to as THIS OPERATION for the remainder of this report.		0046

		None	Number of Acres
5.	How many acres rented or leased to others (Item 3 above) did this operation own ?	<input type="checkbox"/>	0053

6. Location of agricultural activity for this operation

a. In what county was the largest value of your agricultural products raised or produced?

0055	Principal County Name	0060	State	0056	Number of Acres

b. If you also had agricultural activity in any **other** county, enter the county name(s), etc.

Other County Name(s)	State	Number of Acres
		0057
		0058
		0059
		0042

SECTION 2 LAND

Report how the acres reported in SECTION 1, item 4 were used in 2007. Include land in CRP, WRP, and other State and Federal programs. **Exclude land rented to others.** Report land only once, in the first item that applies. For example: Land that was both pastured and had a crop harvested should be reported only in cropland harvested (item 1a).

1. Cropland - Exclude cropland pasture.

- a. Cropland harvested - Include all land from which crops were harvested or hay was cut, all land in orchards, citrus groves, vineyards, berries, and nursery and greenhouse crops, Christmas trees, and short rotation woody crops. 0787 None

Number of Acres
- b. Cropland on which all crops failed or were abandoned - Exclude land in orchards and vineyards. 0790
- c. Cropland in cultivated summer fallow. 0791
- d. Cropland idle or used for cover crops or soil-improvement but not harvested and not pastured or grazed. 1062

2. Pasture

- a. Permanent pasture and rangeland - Exclude cropland pasture. 0796
- b. Woodland pastured. 0794
- c. Cropland used **only** for pasture or grazing - Include rotation pasture and grazing land that could have been used for crops without additional improvements. 0788

3. Woodland not pastured - Include woodlots, timber tracts, and sugarbush. . 0795

4. All other land - Include land in farmsteads, buildings, livestock facilities, ponds, roads, wasteland, etc. 0797

5. **TOTAL ACRES** - Add the acres reported in items 1 through 4 above. Should be the same acres as those reported in SECTION 1, Item 4. . . . 0798

SECTION 3 IRRIGATION

1. Were any of the acres on this operation irrigated by sprinklers, flooding, ditches or furrows, drip or trickle irrigation, etc. in 2007?

1065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4 below

- 2. Harvested land irrigated - Include irrigated land from which crops were harvested or hay was cut and land in bearing and nonbearing fruit, nut, and berry crops. 0680 None

Acres Irrigated
- 3. Pastureland, rangeland, abandoned cropland, and other land irrigated. . . 0681

SECTION 4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AND CROP INSURANCE

1. How many acres in this operation were enrolled in the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Wetlands Reserve Program (WRP), Farmable Wetlands Program (FWP), or 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CREP), on **September 30, 2007**? 0683 None

Number of Acres

a. Amount received in 2007 for participation in these programs. 0685

Dollars
\$ <input type="text"/> .00

2. How many acres in this operation were covered under a crop insurance policy in 2007? 1067

Number of Acres

- DO NOT report crops grown on land rented TO OTHERS -

SECTION 5 FIELD CROPS

1. Were any field crops, such as corn, soybeans, wheat, etc., harvested from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your landlord's share and crops grown under contract. Exclude crops grown on land rented to others.

¹⁰¹¹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6

2. For those crops not printed in the following table, enter the crop name and code from the list below for any other field crop harvested in 2007. Report quantity harvested in the unit specified with the crop name.

Field Crop	Code	Acres Harvested		Total Quantity Harvested	Acres Irrigated	
		Acres	Tenths		Acres	Tenths
Tobacco - all types (tenth acres)	0094			Lbs.		
Field Crop	Code	Acres Harvested		Total Quantity Harvested	Acres Irrigated	
Barley for grain or seed	0079			Bu.		
Corn for grain or seed	0067			Bu.		
Corn for silage or greenchop	0070			Tons		
Dry edible beans - kidney, black, etc. - Exclude limas.	0554			Cwt.		
Oats for grain or seed	0076			Bu.		
Popcorn - pounds shelled	0662			Lbs.		
Rye for grain or seed - Exclude ryegrass.	0686			Bu.		
Sorghum for grain or seed - Include milo.	0082			Bu.		
Sorghum for silage or greenchop - Report Sorghum-Sudan crosses in Section 7.	0085			Tons		
Soybeans for beans	0088			Bu.		
Wheat, Spring for grain or seed, other than Durum	0728			Bu.		
Winter wheat for grain or seed harvested in 2007	0572			Bu.		

If more space is needed, use a separate sheet of paper.

FIELD CROPS	CODE	FIELD CROPS	CODE	FIELD CROPS	CODE
Alfalfa seed (pounds).	0542	Lespedeza seed (pounds).	0638	Sudangrass seed (pounds).	0713
Birdsfoot trefoil seed (pounds).	0566	Mint, peppermint (pounds of oil).	0047	Sugarbeets for seed (pounds).	0716
Bromegrass seed (pounds).	0569	Mint, spearmint (pounds of oil).	0050	Sugarbeets for sugar (tons).	0719
Buckwheat (bushels).	0575	Orchardgrass seed (pounds).	0653	Sunflower seed, non-oil variety (pounds).	0776
Canola, edible (pounds).	0614	Peas, dry edible (hundredweight).	0659	Sunflower seed, oil variety (pounds).	0773
Cotton, Upland (bales).	0581	Potatoes - Report in SECTION 10.		Timothy seed (pounds).	0746
Emmer and spelt (bushels).	0599	Proso millet for grain or seed (bushels).	0665	Triticale for grain (bushels).	0749
Fescue seed (pounds).	0602	Red clover seed (pounds).	0671	Vetch seed (pounds).	0755
Flaxseed (bushels).	0605	Ryegrass seed (pounds).	0689	Wheatgrass seed (pounds).	0758
Hay - Report in SECTION 7.		Sorghum for syrup (gallons).	0704	Wild rice (hundredweight).	0764
Herbs, dried (pounds).	0620	Sorghum-Sudan crosses - Report in SECTION 7.		Other field crop, specify above.	0752
Kentucky bluegrass seed (pounds).	0629				

SECTION 6 GRAIN STORAGE CAPACITY

1. Were any facilities to store whole grains or oilseeds on this operation on **December 31, 2007?**

1028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7 below

2. What was the total whole grains and oilseed storage capacity on this operation? Include capacity of all structures normally used for storing whole grains and oilseeds. 1029

Bushels

SECTION 7 HAY AND FORAGE CROPS

1. Were any hay and forage crops cut or harvested from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your landlord's share and crops grown under contract. Exclude crops grown on land rented to others.

1152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8 below

TOTAL HAY AND FORAGE CROPS - Exclude straw, corn silage, and sorghum silage.

2. All land from which dry hay, haylage, grass silage, or greenchop was cut or forage was harvested. 1021

None	Acres Harvested	Acres Irrigated
<input type="checkbox"/>		

For items 3 through 8, when both dry hay and haylage were cut from the same acres, report acres for each type. If two or more cuttings were made from the same acres, report acres for that item only once, but report total quantity harvested from all cuttings.

ALFALFA HAY AND SILAGE

3. Alfalfa and alfalfa mixtures for dry hay. . . 0103

None	Acres Harvested	Total Tons Harvested	Acres Irrigated
<input type="checkbox"/>		Tons, dry	

4. Haylage or greenchop from alfalfa or alfalfa mixtures. 1070

<input type="checkbox"/>		Tons, green	
--------------------------	--	-------------	--

OTHER HAY AND SILAGE

5. Small grain dry hay - barley, oats, rye, wheat, etc. 0106

<input type="checkbox"/>		Tons, dry	
--------------------------	--	-----------	--

6. Other tame dry hay - clover, fescue, lespedeza, timothy, Bermuda grass, Sudangrass, etc. 0109

<input type="checkbox"/>		Tons, dry	
--------------------------	--	-----------	--

7. Wild dry hay. 0112

<input type="checkbox"/>		Tons, dry	
--------------------------	--	-----------	--

8. All other haylage, grass silage, and greenchop. 1073

<input type="checkbox"/>		Tons, green	
--------------------------	--	-------------	--

SECTION 8 WOODLAND CROPS AND MAPLE SYRUP

1. Were any woodland crops grown, harvested, or tapped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your landlord's share and crops grown under contract. Exclude crops grown on land rented to others.

1153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9

2. Cut Christmas trees - cut or to be cut. Report live trees sold in SECTION 9. 1023

None	Acres in Production	Number of Trees Cut	Acres Irrigated
<input type="checkbox"/>			

3. Short rotation woody crops - Trees with growth cycles of 10 years or less. Report nursery stock in SECTION 9. 1025

<input type="checkbox"/>	Acres in Production	Acres Harvested	Acres Irrigated

4. Maple syrup. 0800

<input type="checkbox"/>	Number of Taps	Syrup Produced	Gallons

SECTION 10 VEGETABLES, POTATOES, AND MELONS

1. Were any vegetables, potatoes, sweet corn, or melons harvested from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crops grown under contract. Exclude personal or home use crops. Report crops grown under glass or other protection in SECTION 9.

1101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1

Acres Harvested		Acres Irrigated	
Acres	Tenths	Acres	Tenths

2. Acres from which vegetables, potatoes, and melons were harvested in 2007. Report multiple cropped acreage only once. 0375

3. For those crops not printed in the following table, enter the crop name and code from the list below for any other vegetables harvested in 2007.
 • If more than one vegetable crop was harvested from the same acres, report acres for each crop.
 • For two or more pickings of the same crop, report the area harvested only once.
 • Processing refers to vegetables that have been altered by heat, pressure, or freezing

Crop Name	Code	Total Acres Harvested		Acres Harvested for Fresh Market		Acres Harvested for Processing	
		Acres	Tenths	Acres	Tenths	Acres	Tenths
Beans, snap (bush and pole)	0381						
Peppers, Bell - Exclude pimientos.	0443						
Peppers, other than Bell - Include chile.	0445						
Potatoes	0097						
Pumpkins	0449						
Sweet corn	0461						
Tomatoes in the open	0463						

If more space is needed, use a separate sheet of paper.

CROP NAME	CODE	CROP NAME	CODE	CROP NAME	CODE
Asparagus, bearing age.	0418	Eggplant.	0415	Parsley.	0439
Beans, Lima.	0429	Escarole and endive.	0417	Peas, Chinese (sugar, snow).	0405
Beets.	0383	Garlic.	0421	Peas, green.	0441
Broccoli.	0385	Ginseng.	0446	Radishes.	0451
Brussels sprouts.	0387	Herbs, fresh cut.	0455	Rhubarb.	0453
Cabbage, Chinese.	0389	Honeydew melons.	0423	Spinach.	0457
Cabbage, head.	0391	Horseradish.	0424	Squash, summer.	0468
Cantaloupes and muskmelons.	0395	Kale.	0425	Squash, winter.	0470
Carrots.	0397	Lettuce, head.	0428	Sweet potatoes.	0100
Cauliflower.	0399	Lettuce, leaf.	0430	Turnip greens.	0467
Celery.	0401	Lettuce, Romaine.	0432	Turnips.	0465
Chicory.	0403	Mustard greens.	0431	Watermelons.	0473
Collards.	0407	Okra.	0437	Vegetables, other, specify above.	0475
Cucumbers and pickles.	0411	Onions, dry.	0433		
		Onions, green.	0435		

SECTION 11 FRUIT AND NUTS

1. Was there a combined total of 20 or more fruit or nut trees, including grapevines,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crops grown under contract. Exclude abandoned acres. Report berries in SECTION 12.

¹⁰⁴⁷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2

Total Acres		Acres Irrigated	
Acres	Tenths	Acres	Tenths

2. Acres in bearing and nonbearing fruit orchards, vineyards, and nut trees. 0121

3. Complete the following table for all fruits and nuts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acres even if not harvested because of low prices, damage from hail, frost, etc.

Crop Name	Code	Total Acres		Bearing Age Acres		Nonbearing Age Acres	
		Acres	Tenths	Acres	Tenths	Acres	Tenths
Apples	0123						
Apricots	0129						
Cherries, sweet	0345						
Cherries, tart	0587						
Chestnuts	0324						
Grapes	0366						
Hazelnuts (Filberts)	0327						
Nectarines	0201						
Peaches	0228						
Pears	0246						
Pecans, improved	0336						
Pecans, native and seedling	0342						
Persimmons	0237						
Plums and prunes	0252						
Walnuts, English	0357						
Other fruits or nuts, specif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Other fruits or nuts, specif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Other fruits or nuts, specif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Other fruits or nuts, specif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f more space is needed, use a separate sheet of paper.

SECTION 12 BERRIES

1. Were any strawberries, cranberries, or other berries grown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crops grown under contract. Exclude personal or home use crops. Report crops grown under glass or other protection in SECTION 9.

¹⁰⁴¹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3

Acres Grown		Acres Irrigated	
Acres	Tenths	Acres	Tenths

2. Acres on which berries were grown in 2007. ¹⁰⁴⁵

3. Complete the following table for each berry crop grown on this operation in 2007. For two or more pickings of the same crop, report the acres only once.

Crop Name	Code	Total Acres		Acres Harvested		Acres not Harvested	
		Acres	Tenths	Acres	Tenths	Acres	Tenths
Blackberries and dewberries	0509						
Blueberries, tame	0512						
Blueberries, wild	0515						
Cranberries	0521						
Currants	0524						
Raspberries	0492						
Strawberries	0536						
Other berries, specify below ↴ 	0539						
Other berries, specify below ↴ 	0539						
Other berries, specify below ↴ 	0539						
Other berries, specify below ↴ 	0539						
Other berries, specify below ↴ 	0539						

If more space is needed, use a separate sheet of paper.

SECTION 13 CATTLE AND CALVES

1. Did you or anyone else have any cattle or calves, including dairy cattle, on this operation in 2007?

- Include** • Cattle on public or industrial property under a grazing permit.
- Cattle on land used rent free by this operation.
- Cattle grown or fed on this operation for others on a custom or contract basis.
- Exclude** cattle grown or fed by someone else on a custom or contract basis.

¹²⁰¹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4 below

DECEMBER 31, 2007 INVENTORY

2. Of the total number of cattle and calves on hand, how many were -

- a. Beef cows? Include beef heifers that had calved.
Exclude heifers that had not calved, steers, calves, and bulls. 0804
- b. Milk cows kept for production of milk? Include dry milk cows and
milk heifers that had calved. 0805
- c. Other cattle? Include heifers that had not calved, steers, calves,
and bulls. 1206

None	Number on this operation December 31, 2007
<input type="checkbox"/>	

3. **TOTAL** cattle and calves on hand December 31, 2007 -
Add items 2a, 2b and 2c. 0803

CATTLE AND CALVES SOLD OR MOVED FROM THIS OPERATION

4. Of the cattle and calves sold or moved from this operation during 2007,
how many were -

- a. Calves sold or moved in 2007 weighing less than 500 pounds? 0808
- b. Cattle sold or moved in 2007, including calves weighing 500
pounds or more? 0810

None	Numb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ATTLE IN FEEDLOTS - Include animals for slaughter market fed a ration of grain or other concentrates that are expected to produce a carcass that will grade select or better. Exclude cattle that were pastured only.

5. How many of the cattle on hand reported in Item 3 above were on feed December 31, 2007, and were or will be shipped directly from your feedlot to slaughter market? Exclude cattle being backgrounded. . . 1207

None	Number
<input type="checkbox"/>	

6. How many of the cattle sold during 2007 reported in Item 4b above were shipped directly from your feedlot to slaughter market? Exclude any of your cattle being custom fed in feedlots operated by others. Exclude cattle sold as feeders. 0812

<input type="checkbox"/>	
--------------------------	--

SECTION 14 SHEEP AND LAMBS

1. Did this operation **own** any sheep or lambs in 2007, regardless of location?

¹¹⁰³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5

None	Number owned on December 31, 2007	Total number sold in 2007	Wool shorn in 2007 (pound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Sheep and lambs owned. . . 0824

a. Ewes 1 year old or older. 0826



SECTION 15 POULTRY

1. Did you or anyone else have any poultry, such as chickens, turkeys, ducks, emus, ostriches, etc.,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poultry grown for others on a contract basis.

1217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6

2. Chickens -

a. Layers -

(i) Table egg types - Include layers for home use. 1229

None

Number on this operation December 31, 2007	Total number sold or moved from this operation in 2007

(ii) Hatching layers for meat-types - Include layers for broilers, roasters, and other meat-types. 1231

--	--

(iii) Hatching layers for table eggs. 1233

--	--

b. Pullets for laying flock replacement. 1221

--	--

c. Broilers, fryers, and other chickens raised for meat production, including capons and roasters. 0898

--	--

3. Turkeys -

a. Turkeys for meat production - Exclude breeders. 1225

--	--

b. Turkey hens kept for breeding. 1227

--	--

4. Ducks. 0904

--	--

5. Emus. 0845

--	--

6. Geese. 0906

--	--

7. Ostriches. 0878

--	--

8. Pheasants. 0910

--	--

9. Pigeons or squab. 0908

--	--

10. Quail. 0912

--	--

11. All other poultry - Include bantams, chukars, guineas, rheas, peacocks. Specify below

. . . 0914

--	--

12. All poultry hatched on this operation's hatcheries in 2007. Include chicks, poults, ducklings, etc., and those custom hatched for others. Specify kind(s) of poultry below

. . . 0916

None

Number

Sample Only - Do Not Complete



SECTION 16 HOGS AND PIGS

1. Did you or anyone else have any hogs or pigs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hogs grown for others on a contract basis. Contractors or integrators only report hogs on land you operate. Exclude hogs grown by someone else on a contract basis.

1211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7 below

DECEMBER 31, 2007 INVENTORY

2. Of the total number of hogs and pigs on hand, how many were -

a. Hogs and pigs used or to be used for breeding? 0816

b. Other hogs and pigs, including market hogs? 0817

3. **TOTAL** hogs and pigs on hand December 31, 2007 -

Add items 2a and 2b. 0815

4. Number of hogs and pigs sold or moved from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ing feeder pigs. 0820

Number on this operation December 31, 2007	
Non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Number sold or moved	
	<input type="checkbox"/>

TYPE OF OPERATION AND PRODUCER

5. Mark the **one** item which best describes this operation -

1241 Farrow to wean 1242 Farrow to finish 1243 Finish only

1244 Farrow to feeder 1245 Nursery 1246 Other - specify →

6. Mark the **one** item which best describes this producer -

1214 Independent grower 1215 Contractor or integrator 1216 Contract grower (contractee)

SECTION 17 AQUACULTURE

1. Did you or anyone else have any aquaculture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production for others on a contract basis.

1157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8

2. Enter the aquaculture type and code from the list below for fish and other aquaculture products grown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all sizes for each type. For fish include food size, fingerlings, fry, and eggs. Report aquatic plants in SECTION 9.

Aquaculture Type	Code	Total pounds sold or moved	Total number sold or moved	Value of Sales (Dollars)
			OR	\$.00
			OR	\$.00
			OR	\$.00
			OR	\$.00

If more space is needed, use a separate sheet of paper.

AQUACULTURE TYPE	CODE	AQUACULTURE TYPE	CODE	AQUACULTURE TYPE	CODE
Catfish.	0860	Baitfish.	0900	Ornamental fish.	0980
Trout.	0863	Crustaceans (crayfish, shrimp, etc.).	0902	Sport or game fish.	0984
Other food fish - specify above	0896	Mollusks (clams, oysters, etc.).	0978	Other aquaculture products - specify above.	0869

SECTION 18 COLONIES OF BEES

1. Did this operation **own** any bees in 2007, regardless of location?

1104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19 below

		Number owned on December 31, 2007	Total colonies sold in 2007	Honey collected in 2007 (pounds)
2. Colonies of bees owned.	0839 <input type="checkbox"/>			

SECTION 19 OTHER ANIMALS AND LIVESTOCK PRODUCTS

1. Did you or anyone else have any horses, goats, other livestock, or livestock products on this operation in 2007?

1237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20

		Number on December 31, 2007	Total number sold in 2007
2. Horses and ponies.	0830 <input type="checkbox"/>		
a. How many of these were owned by this operation?	0872 <input type="checkbox"/>		
3. Mules, burros, and donkeys.	0833 <input type="checkbox"/>		
4. Milk goats.	0843 <input type="checkbox"/>		
5. Angora goats.	0847 <input type="checkbox"/>		
6. Meat goats and other goats.	0851 <input type="checkbox"/>		
7. Alpacas.	0876 <input type="checkbox"/>		
8. Llamas.	0874 <input type="checkbox"/>		
9. Bison.	0886 <input type="checkbox"/>		
10. Deer in captivity.	0888 <input type="checkbox"/>		
11. Elk in captivity.	0890 <input type="checkbox"/>		
12. Rabbits, including pelts.	0854 <input type="checkbox"/>		
13. Mink, including pelts.	0836 <input type="checkbox"/>		

14. Other livestock. Report emus and ostriches in section 15. Specify below ↴

. . . 0857

Number on December 31, 2007	Total number sold in 2007

LIVESTOCK AND ANIMAL PRODUCTS

15. Mohair. 0849

Pounds clipped in 2007

16. Other livestock products - Include semen, embryos, worm castings, manure sold, etc. Specify below ↴

. . . 0970

Quantity produced in 2007	Unit reported

SECTION 20 PRODUCTION CONTRACTS AND CUSTOM FEEDING

1. During 2007, were you a production contract grower for a processor or contractor where you grew a crop, raised livestock or poultry, or custom fed any livestock that **you did not own**? A production contract is an agreement setting terms, conditions, and fees to be paid by the contractor to this operation for the production of crops, livestock, or poultry.

130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21



2. Report number of head, bushels, etc. that were raised under production contracts and moved from this operation in 2007. Exclude commodities raised for marketing contracts.

	None	Total quantity moved from this operation in 2007	Unit
a. Broilers and other meat-type chickens. 1304	<input type="checkbox"/>		birds
b. Chicken eggs. 1305	<input type="checkbox"/>		dozen
c. Pullets for laying flock replacement. 1306	<input type="checkbox"/>		birds
d. Turkeys. 1307	<input type="checkbox"/>		birds
e. Custom fed cattle shipped directly for slaughter - Exclude cattle custom fed for you by others. 1308	<input type="checkbox"/>		head
f. Hogs and pigs. 1309	<input type="checkbox"/>		head
g. Other cattle, livestock, poultry, or aquaculture - specify type ↴ <input type="text"/> .. 1310	<input type="checkbox"/>		
h. Grains and oilseeds. 1311	<input type="checkbox"/>		bushels
i. Vegetables, melons, and potatoes - specify type ↴ <input type="text"/> .. 1312	<input type="checkbox"/>		
j. Other crops - specify type ↴ <input type="text"/> .. 1313	<input type="checkbox"/>		

3. What was the total dollar amount received in 2007 for delivering commodities under production contracts? 1314

Total Dollars	\$ <input type="text"/> .00
---------------	-----------------------------

4. Mark all inputs that were partially or completely paid or provided by contractor(s) -

- | | | |
|--|---|--|
| 1316 <input type="checkbox"/> Feeder livestock and poultry | 1320 <input type="checkbox"/> Supplies | 1323 <input type="checkbox"/> Veterinary Services |
| 1317 <input type="checkbox"/> Feed | 1325 <input type="checkbox"/> Seed | 1324 <input type="checkbox"/> Breeding livestock |
| 1318 <input type="checkbox"/> Fertilizer and lime | 1321 <input type="checkbox"/> Fuels | 1326 <input type="checkbox"/> Other - specify → <input type="text"/> |
| 1319 <input type="checkbox"/> Chemicals | 1322 <input type="checkbox"/> Utilities | 1315 <input type="checkbox"/> None |

5. Enter Contractor that provided inputs and owned the commodity ↴

1327

SECTION 21 VALUE OF SALES

Report gross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s sold from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the value of your landlord's share, marketing charges, taxes, hauling, etc. Exclude dollars for items produced under production contracts.

		None	Dollars	
1. Grains, oilseeds, dry beans, and dry peas -		<input type="checkbox"/>		
a. Corn for grain, seed, or silage.	1391	<input type="checkbox"/>	\$.00
b. Wheat.	1392	<input type="checkbox"/>	\$.00
c. Soybeans.	1393	<input type="checkbox"/>	\$.00
d. Sorghum for grain, seed, or silage.	1394	<input type="checkbox"/>	\$.00
e. Barley.	1395	<input type="checkbox"/>	\$.00
f. Rice.	1398	<input type="checkbox"/>	\$.00
g. Other - canola, dry edible beans, dry edible peas, flaxseed, oats, popcorn, rye, safflower, sunflower seed, etc.	1399	<input type="checkbox"/>	\$.00
2. Tobacco.	1332	<input type="checkbox"/>	\$.00
3. Cotton and cottonseed.	1333	<input type="checkbox"/>	\$.00
4. Vegetables, melons, potatoes, and sweet potatoes, including beets, cabbage, cantaloupes, ginseng, pumpkins, sweet corn, tomatoes, watermelons, vegetable seeds and transplants, etc.	1334	<input type="checkbox"/>	\$.00
5. Fruit, tree nuts, and berries, including almonds, apples, blueberries, cherries, grapefruit, grapes, hazelnuts, kiwifruit, oranges, pears, pecans, strawberries, walnuts, etc.	1335	<input type="checkbox"/>	\$.00
6. Nursery, greenhouse, floriculture, and sod, including bedding plants, bulbs, cut flowers, flower seeds, foliage plants, mushrooms, nursery potted plants, shrubbery, etc.	1336	<input type="checkbox"/>	\$.00
7. Cut Christmas trees and short rotation woody crops.	1337	<input type="checkbox"/>	\$.00
8. Other crops and hay, including grass seed, hay, grass silage, hops, maple syrup, mint, peanuts, sugarcane, sugarbeets, etc.	1338	<input type="checkbox"/>	\$.00
9. Hogs and pigs.	1341	<input type="checkbox"/>	\$.00
10. Milk and other dairy products from cows.	1340	<input type="checkbox"/>	\$.00
11. Cattle and calves, including beef and dairy cattle for breeding stock, fed cattle, beef and dairy cull animals, stockers and feeders, veal calves, etc.	1339	<input type="checkbox"/>	\$.00
12. Sheep, goats, and their products, including wool, mohair, milk, and cheese.	1342	<input type="checkbox"/>	\$.00
13. Horses, ponies, mules, burros, and donkeys.	1343	<input type="checkbox"/>	\$.00
14. Poultry and eggs, including broilers, chickens, turkeys, ducks, eggs, geese, hatchlings, pheasants, poultry products, etc.	1344	<input type="checkbox"/>	\$.00
15. Aquaculture, including catfish, trout, ornamental and other fish, mollusks, crustaceans, etc.	1345	<input type="checkbox"/>	\$.00
16. Other animals and other animal products, including bees, embryos, fur-bearing animals, honey, horns, manure, rabbits, semen, other animal specialties, etc.	1346	<input type="checkbox"/>	\$.00
17. TOTAL SALES - Add items 1 through 16.	1347	<input type="checkbox"/>	\$.00

a. What was the value of your landlord's share of the total sales (item 17 above) produced by this operation? Exclude cash rent. . . . 1349

None	Dollars	
<input type="checkbox"/>	\$.00



DIRECT SALES FOR HUMAN CONSUMPTION

18. During 2007, did you produce, raise, or grow any crops, livestock, poultry, or agricultural products that were **sold directly to individual consumers for human consumption**? Include sales from roadside stands, farmers markets, pick your own, door to door, etc. Exclude craft items and processed products such as jellies, sausages, and hams.

1409 1 **Yes** - Gross value of these direct sales. 0920

Dollars	
\$.00

1410 Specify product(s) →

3 **No** - Go to SECTION 22 below

SECTION 22 ORGANIC AGRICULTURE

1. Did this operation produce organic products (according to the National Organic Standards) for sale in 2007?

1248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item 7 below

2. Was this operation a certified organic operation?

1250 1 **Yes** - Specify agency or organization that certified the organic production below. ↴

1252

3 **No** - Organic sales were exempt from certification.

3. How many acres were used for organic production? 1430

None	Number of Acr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a. Acres from which organic crops were harvested? 144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	----------------------

b. Acres of organic pastureland? 145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	----------------------

4. What was the total value of sales for **crops produced and sold as organic** by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hay, fruits, vegetables, greenhouse products, grains, and oilseeds. 1460

Dollars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00

5. What was the total value of sales for **livestock and poultry produced and sold as organic** by this operation in 2007? 1470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00
--------------------------	-----------------------------

6. What was the total value of sales for **livestock and poultry products produced and sold as organic** by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eggs, milk, etc. 1480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00
--------------------------	-----------------------------

7. In 2007, how many acres were being converted to organic production? 1490

Number of Acres
<input type="checkbox"/>



SECTION 23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LOANS (CCC)

1. Did this operation receive any CCC loans in 2007? Include all CCC loans taken out in 2007, even if repaid.

¹⁰³⁵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24 below

2. Total amount received in 2007 from CCC loans for all commodities.

Include Austrian winter peas, barley, canola and other rapeseed, corn, cotton, crambe, dry edible peas, flaxseed, honey, lentils, mohair, mustard seed, oats, peanuts, rice, safflower, sesame seed, small chickpeas, sorghum, soybeans, sunflower seed, and wheat. 1411

None	Dollars
<input type="checkbox"/>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00

SECTION 24 FEDERAL AND STATE AGRICULTURAL PROGRAM PAYMENTS

1. Did this operation receive any Federal, State, or local agricultural program payments in 2007? Exclude CCC loan payments. Also exclude CRP, WRP, FWP, and CREP payments reported in SECTION 4.

¹⁰³⁶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25 below

2. Amount received from -

a. Direct payments as defined under the 2002 Farm Bill. 1420

b. Counter-cyclical payments, loan deficiency payments (LDPs), marketing loan gains, and net value of commodity certificates. Include payments received through cooperatives. 1421

c. Other Federal agricultural program payments. Include disaster payments and market loss payments, national dairy market loss payments, non-insured assistance program, EQIP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CSP (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livestock programs, and any other Federal programs. Exclude any type of insurance payments received. 1422

d. State and local government agricultural program payments. 1423

None	Dollars
<input type="checkbox"/>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00
<input type="checkbox"/>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00
<input type="checkbox"/>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00
<input type="checkbox"/>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00

SECTION 25 INCOME FROM FARM-RELATED SOURCES

Report amount received before taxes and expenses in 2007.

1. Customwork and other agricultural services provided for farmers and others, such as plowing, planting, spraying, harvesting, preparation of products for market, etc. Exclude if customwork was an entirely separate business from your agricultural operation. 0992

2. Payments received from **cash rent** or **share payments** from renting out farmland or payments from lease of allotments. Include payments for livestock pastured on a per-head basis, per-month basis, AUM basis, etc. 0993

3. Sales of forest products. Include timber, firewood, etc. Exclude sales of Christmas trees, short rotation woody crops, and maple products. 0994

4. Agri-tourism and recreational services, such as farm or winery tours, hay rides, hunting, fishing, etc. 1401

5. Patronage dividends and refunds from cooperatives. 1402

6. Crop and livestock insurance payments received. Exclude payments received from casualty insurance, vehicle liability, blanket policies, and operator dwelling insurance. 1404

7. Other incom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agricultural operation. Include renting and leasing farm machinery and trucks, renting and leasing of livestock, animal boarding, tobacco quota buyouts and settlements, state fuel tax refunds, farm-generated energy, etc. Specify below. ↴

	<input type="checkbox"/>	\$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00
--	--------------------------	---



SECTION 26 PRODUCTION EXPENSES

Report total production expenses paid for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expenses paid by your landlords and expenses connected with performing customwork for others. Exclude expenses not related to the farm business and any expenses paid by the contractor.

EXPENSES PAID BY THIS OPERATION AND ITS LANDLORD(S)

	None	Dollars
1. Fertilizer, lime, and soil conditioners purchased - Include cost of custom application and organic materials. 1501	<input type="checkbox"/>	\$.00
2. Chemicals purchased such as insecticides, herbicides, fungicides, other pesticides, etc. - Include cost of custom application. 1502	<input type="checkbox"/>	\$.00
3. Seeds, plants, vines, trees, etc. purchased - Include technology or other fees, seed treatments, and seed cleaning cost. Exclude items purchased for resale without additional growth. 1503	<input type="checkbox"/>	\$.00
4. Breeding livestock purchased or leased, regardless of age - Include dairy cattle. 1504	<input type="checkbox"/>	\$.00
5. All other livestock and poultry purchased or leased - Include stocker and feeder cattle, calves, sheep, lambs, feeder pigs, chicks, pullets, poults, horses, fish, goats, bee colonies, etc. Include livestock leasing expense. 1505	<input type="checkbox"/>	\$.00
6. Feed purchased for livestock and poultry - Include grain, hay, silage, mixed feeds, concentrates, supplements, premixes, etc. 1506	<input type="checkbox"/>	\$.00
7. Gasoline, fuels, and oils purchased for the farm business - Include diesel, natural gas, LP gas, motor oil and grease, etc. 1507	<input type="checkbox"/>	\$.00
8. Utilities purchased for the farm business - Include electricity, farm share of telephone, water purchased, etc. 1508	<input type="checkbox"/>	\$.00
9. Repairs, supplies, and maintenance costs for the farm business. 1509	<input type="checkbox"/>	\$.00
10. Labor -		
a. Hired farm and ranch labor - Include employer's cost for social security, workman'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s, pension plans, etc. 1510	<input type="checkbox"/>	\$.00
b. Contract labor - Include expenses for labor, such as harvesting of fruit, vegetables, berries, etc. performed on a contract basis by a contractor, crew leader, etc. 1511	<input type="checkbox"/>	\$.00
11. Customwork and custom hauling, such as custom planting, harvesting, etc. and custom hauling of grain, livestock, milk, manure, etc. 1512	<input type="checkbox"/>	\$.00
12. Rent -		
a. Cash rent paid in 2007 for land and buildings - Include grazing fees. 1513	<input type="checkbox"/>	\$.00
b. Rent and lease expenses for machinery, equipment, and farm share of vehicles - Exclude custom hire. 1514	<input type="checkbox"/>	\$.00
13. Interest paid on debts -		
a. Secured by real estate. 1515	<input type="checkbox"/>	\$.00
b. Not secured by real estate. 1516	<input type="checkbox"/>	\$.00
14. Property taxes paid in 2007 - Include farm real estate, machinery, livestock, etc. for the farm business. Exclude taxes paid by this operation's landlords. 1517	<input type="checkbox"/>	\$.00
15. Other production expenses - Include animal health cost, storage and warehousing, marketing expenses, insurance, etc. Exclude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payroll taxes. 1518	<input type="checkbox"/>	\$.00



EXPENSES PAID BY LANDLORD(S)

16. How much did your landlord(s) pay for the production expenses for this operation in 2007? 1519 None Dollars \$.00

DEPRECIATION

17. What was the total depreciation expense claimed by this operation in 2007 for all capital assets? Estimate 2007 from 2006 if necessary. 1520 None Dollars \$.00

SECTION 27 FARM LABOR

1. How many hired farm or ranch workers, including paid family members and office workers -

a. Worked less than 150 days on this operation in 2007? Exclude contract labor. 0941 None Number of Hired Workers

b. Worked 150 days or more on this operation in 2007? Exclude contract labor. 0942

2. Were any migrant workers on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hired and contract workers. A migrant worker is a farm worker whose employment required travel that prevented the migrant worker from returning to his/her permanent place of residence the same day. 1573 1 Yes 3 No

SECTION 28 FERTILIZERS AND CHEMICALS APPLIED

1. Were any fertilizers, manure, herbicides, insecticides, fungicides, nematicides, other pesticides, growth regulators, or other chemicals used on this operation during 2007? Include rock phosphate, lime, and gypsum as fertilizer.
 1568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29

2. Commercial fertilizer and soil conditioners applied to -

a. Cropland in 2007 - Exclude cropland used only for pasture. 0932 None Number of Acres

b. Pastureland and rangeland acres in 2007 - Include cropland used only for pasture or grazing. 0933

3. Acres of cropland and pastureland on which animal manure was applied. 1569

4. Acres treated with chemicals to control the items listed below. The same acres can be reported in more than one item below. However, report acres only once for each item regardless of the number of applications.

a. Insects. 0936 Number of Acres

b. Weeds, grass, or brush - Include both pre-emergence and post emergence. 0939

c. Nematodes. 0937

d. Diseases in crops and orchards such as blight, smut, rust, etc. . . . 0938

5. Acres of crops treated to control growth, thin fruit, ripen, or defoliate. . 0940

SECTION 29 MARKET VALUE OF LAND, BUILDINGS, MACHINERY, AND EQUIPMENT

1. Report your estimate of the **current market value** of land and buildings reported in SECTION 1, items 1, 2, and 3 on page 2 for -

	None	Estimated Market Value (Dollars)
a. All land and buildings owned. 0996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00
b. All land and buildings rented or leased from others. 0997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00
c. All land and buildings rented or leased to others. 0998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text"/> .00

2. What is your estimate of the **current value of all machinery, equipment, and implements** used for farm-related activities on this operation, regardless of ownership, on **December 31, 2007**? Include cars, trucks, tractors, tools, combines, plows, disks, harrows, dryers, pumps, motors, irrigation equipment, dairy equipment, tanks, feeders, grinding and mixing equipment, computers, etc. that were kept on this operation and used for this farm or ranch business in 2007. 0943

Estimated Market Value (Dollars)
\$ <input type="text"/> .00

SECTION 30 MACHINERY AND EQUIPMENT

1. For the items listed below, report the number on this operation on **December 31, 2007**. Include machinery, equipment, and implements used for the farm or ranch business in 2006 or 2007, and usually kept on the operation.

	None	Number on this operation December 31, 2007	None	Of these, the number manufactured in the last 5 years (2003-2007)
a. Trucks, including pickups. 094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b. Tractors less than 40 horsepower (PTO) - Exclude garden tractors. . . . 094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c. Tractors 40 - 99 horsepower (PTO). . . 094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d. Tractors 100 horsepower (PTO) or more. 096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e. Grain and bean combines, self-propelled. 095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f. Cotton pickers and strippers, self-propelled 095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g. Forage harvesters, self-propelled. . . . 095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h. Hay balers. 096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SECTION 31 AGRICULTURAL ACTIVITY WITHIN THE BORDERS OF AMERICAN INDIAN RESERVATIONS, PUEBLOS, AND SERVICE AREAS

1. Did this operation use any land for livestock or cropland within the borders of an American Indian Reservation, Pueblo, or Service Area at any time during 2007?

1050 1 **Yes** - Complete this section 3 **No** - Go to SECTION 32 below

2. Mark the type(s) of land this operation used within the American Indian Reservation, Pueblo, or Service Area.

1058 owned or deeded 1059 trust (tribal or allotted) 1060 other, specify →

3. Enter the name and state of the American Indian Reservation, Pueblo, or Service Area where the agricultural activity occurred.

Reservation, Pueblo, or Service Area Name	State
1051	1052
Number of Acres	
1053	
1054	

4. How many total acres did this operation use for livestock or cropland within this Reservation, Pueblo, or Service Area in 2007? Exclude land used on a per-head or animal unit month (AUM) basis.

a. How many of these acres were harvested cropland?

5. In 2007, did this operation have any livestock within the borders of an American Indian Reservation, Pueblo, or Service Area? Include livestock on land used on a per-head or animal unit month (AUM) basis.

1056 1 **Yes** - Continue 3 **No** - Go to SECTION 32 below

a. On **December 31, 2007**, what percent of this operation's livestock was on this Reservation, Pueblo, or Service Area?

1057 1 None 3 26 - 50 percent 5 76 - 99 percent
 2 1 - 25 percent 4 51 - 75 percent 6 100 percent (all livestock)

SECTION 32 PRACTICES

1. At any time during 2007, did this operation -

- a. Have Internet access? 1603 1 Yes 3 No
- b. Have high speed Internet access? 1604 1 Yes 3 No
- c. Use more than 5,000 gallons of water in any one day for any purpose? . . . 1721 1 Yes 3 No
- d. Receive irrigation water supplied by a U. S. Bureau of Reclamation project or facility? Include reclamation water delivered by a local district. 1722 1 Yes 3 No
- e. Generate energy or electricity on the farm using wind or solar technology, methane digester, etc.? 1723 1 Yes 3 No
- f. Use conservation methods such as no-till or limited tilling, filtering runoff to remove chemicals, fencing animals from streams, etc.? 1724 1 Yes 3 No
- g. Practice rotational or management intensive grazing? 1725 1 Yes 3 No
- h. Pay on a per-head or animal unit month (AUM) basis for livestock to graze on any land (private, Federal, State, Indian Reservation, etc.)? 1720 1 Yes 3 No
- i. Produce and sell value added crops, livestock, or products such as beef jerky, fruit jams, jelly, preserves, floral arrangements, etc.? 1726 1 Yes 3 No
- j. Market products through 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arrangement? 1727 1 Yes 3 No
- k. Raise or sell veal calves? 1728 1 Yes 3 No
- l. Raise or sell hair sheep or wool-hair crosses? 1729 1 Yes 3 No
- m. Have a barn that was built prior to 1960? 1730 1 Yes 3 No

SECTION 33 TYPE OF ORGANIZATION

1. Mark the **one** item which best describes this operation in 2007.

- 1671 1 Family or individual operation - Exclude partnerships and corporations.
- 2 Partnership operation - Include family partnerships. • Is this partnership registered under state law? 1567 1 Yes 3 No
- 3 Incorporated under state law - • Is this a family-held corporation? 1681 1 Yes 3 No
 • Are there more than 10 stockholders? 1683 1 Yes 3 No
- 4 Other, such as estate or trust, prison farm, grazing association, American Indian Reservation, etc. - specify type →

SECTION 34 OPERATOR CHARACTERISTICS

1. In 2007, how many operators (individuals) were involved in the day-to-day decisions for this operation? Enter the number of operators and the number of women operators. Exclude hired workers unless they were a hired manager or family member.1575

Total Number of Operators	Women Operators

2.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or up to three primary operators of this operation as of **December 31, 2007**.

	Principal Operator or Senior Partner	Operator 2	Operator 3
a. Name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b. Sex of operator	0926 1 <input type="checkbox"/> Male 2 <input type="checkbox"/> Female	1586 1 <input type="checkbox"/> Male 2 <input type="checkbox"/> Female	1597 1 <input type="checkbox"/> Male 2 <input type="checkbox"/> Female
c. At which occupation did the operator spend the majority (50 percent or more) of his/her worktime in 2007?	0928 Mark one answer only. 1 <input type="checkbox"/> Farm or ranch work 2 <input type="checkbox"/> Other	1580 Mark one answer only. 1 <input type="checkbox"/> Farm or ranch work 2 <input type="checkbox"/> Other	1591 Mark one answer only. 1 <input type="checkbox"/> Farm or ranch work 2 <input type="checkbox"/> Other
d. Is this operator retired?	0924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1582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1593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e. How many days did the operator work off this operation in 2007? Include days in which the operator worked at least 4 hours per day in an off-farm job. Include work on someone else's farm for pay.	0929 Mark one answer only. 1 <input type="checkbox"/> None 2 <input type="checkbox"/> 1 - 49 days 3 <input type="checkbox"/> 50 - 99 days 4 <input type="checkbox"/> 100 - 199 days 5 <input type="checkbox"/> 200 days or more	1831 Mark one answer only. 1 <input type="checkbox"/> None 2 <input type="checkbox"/> 1 - 49 days 3 <input type="checkbox"/> 50 - 99 days 4 <input type="checkbox"/> 100 - 199 days 5 <input type="checkbox"/> 200 days or more	1931 Mark one answer only. 1 <input type="checkbox"/> None 2 <input type="checkbox"/> 1 - 49 days 3 <input type="checkbox"/> 50 - 99 days 4 <input type="checkbox"/> 100 - 199 days 5 <input type="checkbox"/> 200 days or more
f. Did the operator live on this operation at any time in 2007?	0923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1581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1592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Principal Operator or Senior Partner	Operator 2	Operator 3
g. In what year did the operator begin to operate any part of this operation?	0930 <input type="text"/>	1584 <input type="text"/>	1595 <input type="text"/>
h. What was the operator's age on December 31, 2007?	0925 <input type="text"/> years	1585 <input type="text"/> years	1596 <input type="text"/> years
i. Is the operator of Spanish, Hispanic, or Latino origin or background, such as Mexican, Cuban, or Puerto Rican, regardless of race?	0927 Spanish, Hispanic, or Latino origin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1587 Spanish, Hispanic, or Latino origin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1598 Spanish, Hispanic, or Latino origin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j. What is the operator's race?	<p>Mark one or more.</p> <p>1703 <input type="checkbox"/>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specify tribe ↴ <input type="text"/></p> <p>1705 <input type="checkbox"/> Asian</p> <p>1702 <input type="checkbox"/> Black or African American</p> <p>1704 <input type="checkbox"/>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ander</p> <p>1701 <input type="checkbox"/> White</p>	<p>Mark one or more.</p> <p>1803 <input type="checkbox"/>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specify tribe ↴ <input type="text"/></p> <p>1805 <input type="checkbox"/> Asian</p> <p>1802 <input type="checkbox"/> Black or African American</p> <p>1804 <input type="checkbox"/>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ander</p> <p>1801 <input type="checkbox"/> White</p>	<p>Mark one or more.</p> <p>1903 <input type="checkbox"/>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specify tribe ↴ <input type="text"/></p> <p>1905 <input type="checkbox"/> Asian</p> <p>1902 <input type="checkbox"/> Black or African American</p> <p>1904 <input type="checkbox"/>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ander</p> <p>1901 <input type="checkbox"/> White</p>
k. How many people lived in the operator's household in 2007?	Number of persons living in Principal Operator's household 1577 <input type="text"/> number	Number living in household of Operator 2. Enter "0" if this operator has been counted in the previous column. 1589 <input type="text"/> number	Number living in household of Operator 3. Enter "0" if this operator has been counted in the previous columns. 1600 <input type="text"/> number
l. Is this operator a hired manager for this operation?	1576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1588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1599 1 <input type="checkbox"/> Yes 3 <input type="checkbox"/> No

HOUSEHOLD INCOME

3. In 2007, how many households shared in the net farm income of this operation? 1608

Number
<input type="text"/>

4. What was the total household income of the **principal** operator in 2007? Include net income from farming, wage or salary income from all sources, social security, and investment income.

- 1678
- 1 less than \$20,000 3 \$30,000 to \$39,999 5 \$50,000 or more
- 2 \$20,000 to \$29,999 4 \$40,000 to \$49,999

5. In 2007, what percent of the principal operator's total household income came from this operation? 1578

Percent (%)
<input type="text"/>



SECTION 35 CONCLUSION

1. Is it possible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would be duplicated on a form with another name or address?

1080 1 **Yes** - Please provide the other name and address below 3 **No** - Go to Item 2

Name

1081

Address

1082

City

1083

State

1084

Zip

1085

2. Do you (the individual named on the label) make any day-to-day decisions for **another** farm or ranch? It is important that the Census of Agriculture accurately accounts for all of your farm or ranch operations.

1086 1 **Yes** - Continue 3 **No** - Go to Item 3

- a. Did you receive a 2007 Census of Agriculture report form for this additional farm or ranch?

1087 1 **Yes** - Go to item 3 3 **No** - Enter the information of the additional farm or ranch below

Additional Farm or Ranch

1088

Area Code and Phone Number

1089

		-			-	
--	--	---	--	--	---	--

- b. Did you include all data from this additional farm or ranch on THIS REPORT? Do not make changes to the data in this report, regardless of your answer.

1091 1 **Yes** 3 **No**

3. Please print the information below for the person completing this form.

Name

1092

Area Code and Phone Number

1093

		-			-	
--	--	---	--	--	---	--

Date (MM-DD-YYYY)

1094

		-			-	
--	--	---	--	--	---	--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Questions? Call us toll free at 1-888-424-7828.

A wide variety of agricultural statistics is available from the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Check out the NASS reports, data products, and services on the Internet at www.nass.usda.gov



www.census2006.ca

INTERNET ACCESS CODE

Ce questionnaire est disponible en français 1 877 594-2006

Office use/ enumerator use only

Is this dwelling located on or beside the agricultural operation? No Yes

Agopid

Prov. CD CU VN CLD Form 6 No. VR Line No. Block No. SPC Universe

FOR INFORMATION ONLY

WHO should complete this questionnaire?

Any of the persons operating an agricultural operation that produces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products intended for sale:

Crops

- hay
- field crops
- tree fruits or nuts
- berries or grapes
- vegetables
- seed

Livestock

- cattle
- pigs
- sheep
- horses
- game animals
- other livestock

Poultry

- hens
- chickens
- turkeys
- chicks
- game birds
- other poultry

Animal products

- milk or cream
- eggs
- wool
- furs
- meat

Other agricultural products

- Christmas trees
- sod, greenhouse or nursery products
- mushrooms
- honey or bees
- maple syrup products

IMPORTANT

Complete **one** questionnaire for **each** agricultural operation.

If additional questionnaires are needed, please call us free of charge at 1 877 594-2006.

CONFIDENTIAL WHEN COMPLETED

This information i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Statistics Act*, R.S.C. 1985, c. S-19, and must be provided by law.

HOW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You have the **option**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on the Internet or on paper.

INTERNET	PAPER QUESTIONNAIRE
<p>Follow these instruc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o to www.census2006.ca and follow the instructions. 2- Use the Internet access code printed at the top of this page to access your electronic form. 3- Complete the questionnaire online in one or several sessions. 4- If you complete the questionnaire online, do not mail back the paper questionnaire. 	<p>Follow these instruc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a black or blue ballpoint pen. ◆ Complete the questionnaire,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 entering a number in a box . . . <input type="text" value="2"/>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5"/> OR • by filling in a circle. <input type="radio"/> or <input checked="" type="checkbox"/> or <input type="checkbox"/> <p>Continue to STEP 1, on page 2 →</p>



STEP 2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or EACH OPERATOR.

Copy the names in the SAME ORDER as in STEP 1.

4. NAME	OPERATOR 1	OPERATOR 2	OPERATOR 3
Family name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Given name and initial(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Did this operator live on this agricultural operation at any time during the last 12 months?	<input type="radio"/> No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nput type="radio"/> Yes
6. Farm work In 2005, what was each operator's average time contribution to the operation of this agricultural operation? (Include custom work done for others.) <i>(Fill in one circle only per operator.)</i>	FOR INFORMATION ONLY		
On average, more than 40 hours per week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On average, 20 to 40 hours per week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On average, fewer than 20 hours per week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Other work In 2005, did this operator receive a wage or salary from another job or operate another business not involved with this agricultural operation? (Do not include custom work done for others.) <i>If Yes, indicate the average time contribution to all other work.</i> <i>(Fill in one circle only per operator.)</i>	<input type="radio"/> No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nput type="radio"/> Yes
On average, more than 40 hours per week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On average, 20 to 40 hours per week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On average, fewer than 20 hours per week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STEP 3 In the last 12 months, did any farm-related INJURIES occur that required medical attention?

- No → Go to STEP 4
 Yes → Report the types of injury for all injured persons.

	Operators	Other family members	Other persons
8. Indicate each type of injury: <i>(Fill in all applicable circles.)</i>			
Broken bone or fracture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Dislocation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Sprain or strain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Open wound or amputation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Crushing inju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Burn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ternal injury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jury to nerves or spinal cord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Poisoning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Other—Specif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STEP 6 What UNIT OF MEASURE will be used to report land areas? Use this unit to report all areas throughout the questionnaire unless otherwise specified.

(Fill in one circle only.)

- 14. Acres
- Hectares
- Arpents (Quebec only)

1 acre	=	0.40 hectare	=	1.18 arpents
1 hectare	=	2.47 acres	=	2.92 arpents
1 arpent	=	0.85 acre	=	0.34 hectare

STEP 7 Print the MAIN FARM LOCATION (farm headquarters) of this operation.

Enter your: Quarter, Section, Township, Range, Meridian (in most of the Prairies) **or**
 Lot, Concession, Township, County (in most of Ontario) **or**
 Lot, Range, Parish, County (in most of Quebec) **or**
 Civic address or other land descriptions (in other parts of Canada).

15.

FOR INFORMATION ONLY

STEP 8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the TOTAL AREA OF WORKABLE and NON-WORKABLE LAND of this operation in 2006.

LAND AREA owned, leased, rented, crop-shared or used

	Area in 2006
16. Total area owned (Include all workable and non-workable land.)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17. Leased FROM governments (Include land operated under licence, permit or lease, etc.)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18. Rented or leased FROM others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19. Crop-shared FROM others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20. Other areas USED by this operation (Examples: land trading, rent free, etc.)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21. TOTAL AREA of land owned, leased, rented, crop-shared or used by this operation (Total of questions 16 to 20)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LAND AREA used by others

22. Rented or leased TO others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23. Crop-shared TO others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24. Other areas USED by others (Examples: land trading, rent free, etc.)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25. TOTAL AREA of land used by others (Total of questions 22 to 24)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TOTAL LAND AREA operated by this operation

26. TOTAL AREA of land operated by this operation (Question 21 minus question 25) (This is the area to be reported on throughout the questionnaire.)	▶ <input style="width: 100%; height: 20px;" type="text"/>
--	---

STEP 13 Are any **FRUITS, BERRIES** or **NUTS** being grown on this operation for sale?

- No → Go to **STEP 14**
- Yes → Report in the same unit of measure as **STEP 6**.

Area in 2006
(producing and non-producing)

Fraction

Example: An operation grows apples for sale on 8½ acres of trees.

Of this area, 6 acres are producing. The area would be reported as:

Area in 2006
(producing and non-producing)

Fraction

Area in 2006
(producing and non-producing)

Fraction

86. Apples (Report crab apples in question 99.)

87. Pears

88. Plums and prunes

89. Cherries (sweet)

90. Cherries (sour)

91. Peaches

92. Apricots

93. Grapes

94. Strawberries

95. Raspberries

96. Cranberries

97. Blueberries (cultivated highbush and lowbush, and lowbush grown on managed land)

98. Saskatoons

99. Other fruits, berries or nuts (nectarines, crab apples, loganberries, hazelnuts, etc.)
Specify:

Continue to next column →

100. **TOTAL area (producing and non-producing) of fruits, berries and nuts**
(Total of questions 86 to 99)

STEP 14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ALL the WORKABLE and NON-WORKABLE LAND** operated by this operation in 2006.

Area in 2006

101. Total of questions 55, 82, 83, 84, 85 and 100

102. Summerfallow (Include chemfallow.)

103. Tame or seeded pasture (Do not include areas to be harvested for hay, silage or seed.)

104. Natural land for pasture

105. Woodlands and wetlands (Examples: woodlots, sugarbush, tree windbreaks, bush, ponds, bogs, marshes, sloughs, etc.)

106. All other land (Examples: idle land, land on which farm buildings, barnyards, lanes, home gardens, greenhouses and mushroom houses are located.)

107. **TOTAL area of workable and non-workable land operated by this operation**
(Total of questions 101 to 106)
(This total should equal the total area reported in question 26 on page 5.)

STEP 15 If **SUMMERFALLOW** was reported in question 102, what is the area on which each of the following forms of weed control will be used in 2006?

Area in 2006

108. • Chemfallow only

• Summerfallow, tilled only

• Chemical and tillage weed control on the same land (Do not include area already reported as "Chemfallow only" or "Summerfallow, tilled only.")



STEP 16 Are any GREENHOUSE PRODUCTS being grown on this operation for sale?

◆ Report sod, nursery products and Christmas trees in STEP 12.

- No → Go to STEP 17
- Yes

109. Will the area be reported in square feet or square metres?

- square feet **OR** square metres

Area in 2006

110. TOTAL area under glass, plastic or other protection used for growing plants
(Do not include area used for cold frames.)

--	--	--	--	--	--	--	--	--	--

Of this total, report the area on May 16, 2006 for each of the following:

111. Flowers (cut flowers, bedding and potted plants, etc.)

--	--	--	--	--	--	--	--	--	--

112. Greenhouse vegetables

--	--	--	--	--	--	--	--	--	--

113. Other greenhouse products (cuttings, tree seedlings, etc.)

Specify:

--	--	--	--	--	--	--	--	--	--

STEP 17 Are any MUSHROOMS being grown on this operation for sale?

- No → Go to STEP 18
- Yes

114. Will the area be reported in square feet or square metres?

- square feet **OR** square metres

Area in 2006

115. TOTAL growing area (standing footage) for mushrooms on May 16, 2006

--	--	--	--	--	--	--	--	--	--

STEP 18 Were any MAPLE TREES TAPPED on this operation in 2006?

- No → Go to STEP 19
- Yes

Number of taps

116. TOTAL number of taps made on maple trees in the spring of 2006

--	--	--	--	--	--	--	--	--	--

STEP 19 Were HERBICIDES, INSECTICIDES, FUNGICIDES, COMMERCIAL FERTILIZER or LIME used on this operation in 2005?

◆ Do not include greenhouse or mushroom areas.

- No → Go to STEP 20
- Yes

FOR INFORMATION ONLY

117. Report the area of land on which each of the following inputs was used on this operation in 2005:

	Area in 2005		Area in 2005																				
Herbicide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Commercial fertiliz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Insecticide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Lim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Fungicide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STEP 20 From the following, select ALL PRACTICES and LAND FEATURES on this operation:
(Fill in all applicable circles.)

	Practices	Land features
118.	<input type="radio"/> Crop rotation <input type="radio"/> Winter cover crops	<input type="radio"/> Buffer zones around water bodies
	<input type="radio"/> Rotational grazing <input type="radio"/> Plowing down green crops	<input type="radio"/> Windbreaks or shelterbelts (natural or planted)

STEP 21 Was MANURE produced or used on this operation in 2005?

- No → **Go to STEP 22**
- Yes

FOR INFORMATION ONLY

119. Which of the following apply to the manure produced or used on this operation in 2005?

(Fill in all applicable circles.)

- Applied on this operation
- Sold or given to others
- Bought or received from others
- Other (composted, dried, processed, stored, etc.)—Specify:

120. For manure **applied on this operation** in 2005, report the area of land for each method of manure application and the land use for that area. *(Fill in all applicable circles.)*

Method of manure application	Area in 2005	Land use		
		Field crops	Hay and pasture	Other
Composted manure, incorporated into soil . . .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Composted manure, not incorporated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Solid manure, incorporated into soil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Solid manure, not incorporated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Liquid manure, injected or incorporated into soil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Liquid manure, not incorporated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Liquid manure applied by irrigation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STEP 22 For the LAND SEEDED or TO BE SEEDED, report the area of each of the following practices:

◆ **Include** the area that was prepared last fall or this spring.

Area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121.** • Tillage that **incorporates most of the crop residue into the soil**
- Tillage that **retains most of the crop residue on the surface**
(Include minimum tillage.)
- **No-till seeding or zero-till seeding**
(Include direct seeding into undisturbed stubble or sod.)

STEP 23 Was an IRRIGATION system used on this operation to apply water on land in 2005?

- ◆ **Do not include** area of land where only manure was applied by irrigation.
- ◆ **Do not include** greenhouse or mushroom areas.
- No → **Go to STEP 24**
- Yes

122. Report the area of land **irrigated** for each of the following in 2005:

	Area in 2005		Area in 2005
Irrigated field crops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rrigated fruits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rrigated hay and pasture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Other irrigated areas (nursery, sod, etc.)—Specify:	
Irrigated vegetables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STEP 24 Does this operation own any **BEES** for honey production or **BEES** for pollination?

- No → **Go to STEP 25**
- Yes → Report **bees owned**, regardless of location.

Number of colonies

123. On May 16, 2006, how many **live** colonies of **honeybees** (used for honey production or pollination) are **owned** by this operation?

124. On May 16, 2006, how many other pollinating bees (**leafcutter, blue orchard, bumble, etc.**) are **owned** by this operation?

Select **one unit of measure**:

- Gallons **or**
- Number of bees **or**
- Colonies

Number

STEP 25 Are there any **POULTRY** on this operation on May 16, 2006?

- No → **Go to STEP 26**
- Yes → • Report all poultry on this operation, **regardless of ownership**, including those grown under contract.
 - **Include** poultry for sale and poultry for personal use.
 - **Do not include** poultry owned but kept on an operation operated by someone else.

Number of birds

Hens and chickens

125. Broilers, roasters and Cornish

126. Pullets under 19 weeks, intended for laying

127. Laying hens, 19 weeks and over

128. **TOTAL hens and chickens** (*Total of questions 125 to 127*)

129. Of the laying hens reported in question 127 above, how many are being kept to produce fertilized eggs for a hatchery (that is, hatchery supply flock)?

Other poultry

130. Turkeys (all ages)

131. Other poultry (geese, ducks, roosters, ostriches, emus, pheasants, quail, wild turkeys, etc.)

Specify:

STEP 26 In 2005, were any **CHICKENS** or **TURKEYS** produced on this operation for sale?

- No → **Go to STEP 27**
- Yes → Report the production on a **live weight** basis.

132. Will production be reported in kilograms or pounds?

- kilograms **OR** pounds

Production in 2005 (live weight)

133. In 2005, what was the total production of:

Broilers, roasters and Cornish

Turkeys

FOR INFORMATION ONLY

STEP 27 Was there a **COMMERCIAL POULTRY HATCHERY** located on this operation in 2005?

- No → **Go to STEP 28**
- Yes

Number of birds hatched in 2005

134. In 2005, how many **chicks** or other poultry were hatched?



STEP 28 Are there any **LIVESTOCK** on this operation on May 16, 2006?

- No → **Go to STEP 29**
- Yes → • Report all animals on this operation, **regardless of ownership**, including those that are boarded, custom-fed or fed under contract.
- **Include** all animals kept by this operation, **regardless of ownership**, that are **pastured on a community pasture**, grazing co-op or public land.
- **Do not include** animals owned but kept on a farm, ranch or feedlot operated by someone else.

FOR INFORMATION ONLY

CATTLE OR CALVES

135. Are there any cattle or calves on this operation?

- No → **Go to question 142**
- Yes

Number

136. Calves, under 1 year

137. Steers, 1 year and over . . .

138. Heifers, 1 year and over:

• for **slaughter** or **feeding**

• for **beef** herd replacement

• for **dairy** herd replacement

139. Cows:

• mainly for **beef** purposes

• mainly for **dairy** purposes

140. Bulls, 1 year and over

141. **TOTAL cattle and calves** (Total of questions 136 to 140) . . .

SHEEP OR LAMBS

142. Are there any sheep or lambs on this operation?

- No → **Go to question 147**
- Yes

Number

143. Rams

144. Ewes

145. Lambs

146. **TOTAL sheep and lambs** (Total of questions 143 to 145) . . .

Continue to next column →

PIGS

147. Are there any pigs on this operation?

- No → **Go to question 153**
- Yes

Number

148. Boars

149. Sows and gilts for breeding

150. Nursing and weaner pigs . .

151. Grower and finishing pigs . .

152. **TOTAL pigs** (Total of questions 148 to 151)

OTHER LIVESTOCK

153. Are there any other livestock on this operation?

- No → **Go to STEP 29**
- Yes

Number

154. Horses and ponies

155. Goats

156. Wild boars

157. Mink

158. Fox

159. Bison (buffalo)

160. Llamas and alpacas

161. Deer (Do not include wild deer.) . . .

162. Elk

163. Other livestock (rabbits, donkeys, mules, chinchillas, beefalo, etc.) Specify:



STEP 29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the **MARKET VALUE** of land and buildings on this operation.

- ◆ **Include**
 - the value of all land and all structures such as houses, farm buildings, silos, etc., that are part of this operation
 - the value of all fixed equipment such as bulk tanks, farrowing pens, etc., found in farm buildings on this operation.
- ◆ **Do not include** the value of any **land and buildings** rented or leased **TO** others.

**Present Market Value
(dollars only)**

164. Estimate the present market value of land and buildings that are:

• owned \$, , .00

• rented or leased **FROM** others or governments \$, , .00

STEP 30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FARM MACHINERY** and **EQUIPMENT** that are owned or leased by this operation as of May 16, 2006.

- ◆ **Include** all farm machinery and equipment that are jointly owned or leased with a **different agricultural operation**.
- ◆ **Do not include** machinery that is rented on a short-term basis (hourly or daily rentals).

Example: An operation owns one swather valued at \$20,000 and shares ownership of another swather, valued at \$10,000, equally with another operation. These two swathers would be reported as:

	Number owned and leased	Fraction	Present Market Value (owned and leased) (dollars only)
.....	1	1/2	\$ 25,000.00

FOR INFORMATION ONLY

165. Tractors:

	Number owned and leased	Fraction	Present Market Value (owned and leased) (dollars only)
• under 60 p.t.o. hp. (including garden tractors, ATVs, etc.)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60 - 99 p.t.o. hp.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100 - 149 p.t.o. hp.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over 149 p.t.o. hp.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66. Farm trucks:

• pick-ups and cargo van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all other farm truck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67. Cars and other passenger vehicles used in the farm busines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168. Tillage, cultivation, seeding and planting equipmen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169. Combine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170. Swathers and mower-conditioner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171. Baler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172. Forage harvester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173. Irrigation equipmen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174. All other farm machinery, workshop and office equipmen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175. **TOTAL present market value of all farm machinery and equipment** (Total of values reported in questions 165 to 17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	----------------------	--



STEP 31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the **OPERATING EXPENSES** of this operation in 2005 (calendar year) or for the last complete accounting (fiscal) year.

- ◆ **Account books** or **completed income tax forms**, if available, are **useful** in completing this step.
- ◆ **Include** only the **farm business share** of amounts paid.
- ◆ **Do not include** costs of any goods purchased only for retail sales.

FOR INFORMATION ONLY

	Amount (dollars only)
176. Fertilizer and lime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77. Herbicides, insecticides, fungicides, etc.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78. Seed and plants <i>(Do not include materials purchased for resale.)</i>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79. Feed, supplements and hay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0. Livestock and poultry purchase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1. Veterinary services, drugs, semen, breeding fees, etc.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2. Custom work, contract work and hired trucking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3. Wages and salaries (including all employee benefits):	
• paid to family member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 paid to all other person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4. All fuel (diesel, gasoline, oil, wood, natural gas, propane, etc.)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5. Repairs and maintenance to farm machinery, equipment and vehicle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6. Repairs and maintenance to farm buildings and fence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7. Rental and leasing of land and buildings (including community pasture and grazing fee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8. Rental and leasing of farm machinery, equipment and vehicle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89. Electricity, telephone and all other telecommunication services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90. Farm interest expenses <i>(Do not include payment of principal or amount of debt outstanding.)</i>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91. All other farm business operating expenses such as property taxes, packaging materials, farm insurance premiums, irrigation levies, legal and accounting fees, etc. <i>(Do not include depreciation or capital cost allowance.)</i>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92. TOTAL farm business operating expenses <i>(Total of questions 176 to 191)</i>	▶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0

193. What **percentage** of feed, supplements and hay purchases reported in question 179 was purchased from feed mills, feed dealers or other wholesalers and retailers of feed? %



STEP 32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bout the **GROSS FARM RECEIPTS** of this operation in 2005 (calendar year) or for the last complete accounting (fiscal) year.

- ◆ Report **gross receipts** (before deducting expenses).
- ◆ **Include**
 - receipts from all 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sold
 - program payments and custom work receipts.
- ◆ **Do not include**
 - sales of capital items (for example: quota, land, machinery)
 - receipts from the sale of any goods bought only for retail sales.

FOR INFORMATION ONLY

**Amount
(dollars only)**

194. What were the **TOTAL gross farm receipts**? ▶ \$, , .00

195. Of the above, what were the sales of **firewood, pulpwood, logs, fence posts and pilings**? ▶ \$, , .00

STEP 33

If any wages or salaries were reported in question 183 on page 14, report the total number of weeks or hours of **PAID WORK** during 2005.

- Example 1:** In 2005, an operation had 2 paid workers who each worked 40 hours per week all year. This would be reported as **104 weeks** (2 workers multiplied by 52 weeks) of paid work.
- Example 2:** An operation reported an expense for wages and salaries of \$20,000 in question 183 on page 14. The average hourly wage paid was \$10 per hour. This would be reported as **2,000 hours** (\$20,000 divided by \$10 per hour) of paid work.

196. During 2005, what was the **TOTAL** number of weeks or hours of paid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d on a year-round basis 	<input type="radio"/> weeks OR <input type="radio"/> hours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Numb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top: 5px;"></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id on a seasonal or temporary basis 	<input type="radio"/> weeks OR <input type="radio"/> hours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div>

STEP 34

Is a **COMPUTER** used for this farm business?

- No → **Go to page 16**
- Yes

197. Indicate the type of computer application used for this agricultural operation: *(Fill in all applicable circles.)*

- Bookkeeping, payroll or tax preparation
- Livestock or crop record keeping
- Word processing (writing letters, labels, etc.)
- Desktop publishing (brochures, flyers, etc.)
- Banking
- Internet (marketing, checking weather or prices, doing research, etc.)
- E-mail
- Other—Specify:



